제주역사자료총서 35

承政院日記 濟州記事 Ⅸ

純祖代(1802~1813)

(下)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발 간 사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승정원에서 날마다 왕명의 출납과 국정의 논의를 적어 남긴 기록입니다. 국왕과 신하 사이에 오간 말이 그날의 날짜 아래 그대로 실려 있어, 조선 사회가 움직이던 모습을 하루 단위로 따라가 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2016년부터 〈제주역사 편찬사업〉의 하나로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사업'을 추진하여, 《승정원일기》 가운데 제주 관련 기사를 왕대별로 발췌·번역하고 주석을 붙여 자료집으로 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펴내는 아홉 번째 자료집은 정조 19년(1795)부터 순조 13년(1813)까지, 정조대 후반과 순조대 전반의 제주기사를 담았습니다. '제주(濟州)·정의(旌義)·대정(大靜)·추자(楸子)·탐라(耽羅)'의 다섯 주제어로 찾아낸 기사 1,319건을 역주하여 실었습니다.

이 시기의 제주는 어려운 일을 잇달아 겪었습니다. 정조 19년(1795)에는 전해의 큰 흉년으로 조정에서 곡식을 보내 구휼하였고, 김만덕이 재물을 내어 굶주린 사람들을 살린 일이 조정에 알려진 것도 이 무렵입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순조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 국정의 운영도 달라졌습니다. 순조 1년(1801) 신유박해로 제주에 유배된 이들이 있었고, 순조 9년(1809)을 전후해서는 다시 큰 흉년이 들어 구휼이 잇따랐으며, 순조 13년(1813) 말에는 양제해(梁濟海)의 모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이러한 일들이 조정에 보고되고 논의되던 과정과 함께, 목사·판관·현감 등의 임명과 교체, 진상과 세곡(稅穀), 표류민의 처리, 유배인의 관리 등 그 사이사이 조정과 제주 사이에 오간 크고 작은 일들이 날짜를 따라 실려 있습니다.

제주의 역사는 제주 안에 남은 기록만으로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정이 제주를 어떻게 보았고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는 중앙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승정원일기》는 제주에 관한 논의가 조정에서 어떻게 오갔는지를 가장 상세히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 자료집이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제주의 사정을 살피려는 연구자와 독자들에게 든든한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자료집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승정원 일기 원문을 발췌하느라 애쓴 고수미, 노우정 선생님과 늘 어려운 번역 및 주석 작업에 힘써주신 백종진, 오창명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번역문과 주석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며 교정 및 교열하느라 애쓴 우리 센터 임승희, 김우리 연구원과 양미혜 선생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편집과 출판에 애써 주신 제주콤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집은 2016년부터 이어 온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사업'의 아홉 번째 결실이며, 내년 순조 후반과 헌종·철종대 자료집을 끝으로 이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십여 년 동안 왕대별로 쌓아 온 자료집이 조선시대 제주의 역사를 살피는 데 오래 쓰이기를 바라며, 마지막까지 소홀함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 완 병**

▢ 일러두기

1.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역사 편찬사업〉의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사업'의 결과물이다.

2.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사업'은 2016년부터 조선시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속 왕대별 제주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 발간하고 있다.

3. 본서는 《승정원일기》 정조대(1795~1800) 및 순조대(1800~1813) 제주기사를 수집하여 역주하였다.

4. 제주기사의 채록은 '제주(濟州), 정의(旌義), 대정(大靜), 추자(楸子), 탐라(耽羅)'의 5개 주제어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5. 역주 저본은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승정원일기》의 '원문 탈초본'으로 삼았다. 단, '탈초본' 상의 한자에 의문이 생기거나 '결자(缺字)' 등은 원문과 대교하여 이를 각주로 밝혔다.

6. 본문은 원문, 역주 연도, 표제문, 역주문, 주제어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7. 역주자 및 분담 역주 분량은 다음과 같다.
   1) 백종진: 1795년(정조 19) 2월 14일 ~ 1806년(순조 6) 6월 25일
   2) 오창명: 1806년(순조 6) 7월 3일 ~ 1813년(순조 13) 12월 26일

8.《승정원일기》 정조대(1795~1800) 및 순조대(1800~1813) 제주기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각 주제어별 중복된 기사를 포함하면, 1,460건이나 141건의 중복된 기사를 제외하여 총 1,319건에 대해 역주하여 수록하였다.

• 분량: 총 1,319건

구분	濟州	旌義	大靜	楸子	耽羅	합계	비고
정조대	441	27(9)/18	26(16)/10	3	56(30)/26	553(55)/498	중복 기사 제외
순조대	640	44(18)/26	62(31)/31	148(33)/115	13(4)/9	907(86)/821	
건수	1,081	71(27)/44	88(47)/41	151(33)/118	69(34)/35	1,460(141)/1,319	

• 시기별 기사 발췌 건수

※ ( ) 안의 숫자는 주제어별 중복 기사 건수를 의미함

구분	濟州	旌義[旋義]	大靜	楸子	耽羅	합계
정조 19년(1795)	47	8(4)/4	4(3)/1	2	14(7)/7	75(14)/61
정조 20년(1796)	79	3(2)/1	8(4)/4	0	23(12)/11	113(18)/95
정조 21년(1797)	57	7(1)/6	4(2)/2	0	10(6)/4	78(9)/69
정조 22년(1798)	154	1	8(6)/2	0	6(4)/2	169(10)/159
정조 23년(1799)	72	8(2)/6	2(1)/1	0	1	83(3)/80
정조 24년(1800)	32	0	0	1	2(1)/1	35(1)/34
합계	441	27(9)/18	26(16)/10	3	56(30)/26	553(55)/498

• 시기별 기사 발췌 건수

※ ( ) 안의 숫자는 주제어별 중복 기사 건수를 의미함

구분	濟州	旌義[旋義]	大靜	楸子	耽羅	합계
순조 즉위년 (1800)	40	1(1)/0	2(2)/0	1(1)/0	0	44(4)/40
순조 1년 (1801)	44	0	12(4)/8	4(2)/2	3(1)/2	63(7)/56
순조 2년 (1802)	45	3(2)/1	2(2)/0	2(2)/0	0	52(6)/46
순조 3년 (1803)	48	9(2)/7	1(1)/0	5	0	63(3)/60
순조 4년 (1804)	45	2(2)/0	5	11(2)/9	0	63(4)/59
순조 5년 (1805)	31	5(2)/3	3	5	1	45(2)/43
순조 6년 (1806)	73	3(1)/2	9(4)/5	49(8)/41	3(1)/2	137(14)/123
순조 7년 (1807)	40	0	1	20(3)/17	1	62(3)/59
순조 8년 (1808)	89	6(3)/3	6(6)/0	29(7)/22	1(1)/0	131(17)/114
순조 9년 (1809)	30	0	9(8)/1	6	0	45(8)/37
순조 10년 (1810)	35	9(2)/7	3	5(3)/2	1	53(5)/48
순조 11년 (1811)	45	2(2)/0	3(1)/2	3(1)/2	0	53(4)/49
순조 12년 (1812)	28	3	2(2)/0	4(2)/2	1(1)/0	38(5)/33
순조 13년 (1813)	47	1(1)/0	4(1)/3	4(2)/2	2	58(4)/54
합계	640	44(18)/26	62(31)/31	148(33)/115	13(4)/9	907(86)/821

목 차

발 간 사 ····· i
해 제 ····· iii
일러두기 ····· iv

純祖

1802年

2年 1月 9日(辛巳) ····· 830
2年 1月 9日(辛巳) ····· 831
2年 1月 11日(癸未) ····· 832
2年 1月 15日(丁亥) ····· 833
2年 1月 18日(庚寅) ····· 834
2年 1月 20日(壬辰) ····· 835
2年 1月 21日(癸巳) ····· 837
2年 2月 6日(丁未) ····· 838
2年 2月 25日(丙寅) ····· 839
2年 2月 25日(丙寅) ····· 840
2年 2月 25日(丙寅) ····· 841
2年 2月 25日(丙寅) ····· 842
2年 2月 25日(丙寅) ····· 843
2年 2月 27日(戊辰) ····· 844
2年 3月 7日(丁丑) ····· 845
2年 3月 10日(庚辰) ····· 846
2年 3月 11日(辛巳) ····· 847
2年 3月 15日(乙酉) ····· 848
2年 3月 20日(庚寅) ····· 850
2年 3月 27日(丁酉) ····· 851
2年 4月 2日(壬寅) ····· 852
2年 4月 5日(乙巳) ····· 853
2年 4月 11日(辛亥) ····· 854
2年 4月 11日(辛亥) ····· 855
2年 4月 17日(丁巳) ····· 856
2年 5月 16日(乙酉) ····· 857
2年 5月 25日(甲午) ····· 858
2年 6月 2日(辛丑) ····· 860
2年 6月 3日(壬寅) ····· 861
2年 6月 15日(甲寅) ····· 862
2年 7月 4日(壬申) ····· 863
2年 7月 11日(己卯) ····· 864
2年 7月 13日(辛巳) ····· 865
2年 7月 13日(辛巳) ····· 866
2年 7月 14日(壬午) ····· 867
2年 7月 23日(辛卯) ····· 868
2年 10月 19日(丁巳) ····· 869
2年 11月 19日(丙戌) ····· 870
2年 11月 23日(庚寅) ····· 871
2年 12月 4日(辛丑) ····· 872
2年 12月 4日(辛丑) ····· 873
2年 12月 4日(辛丑) ····· 874
2年 12月 5日(壬寅) ····· 875
2年 12月 10日(丁未) ····· 876
2年 12月 11日(戊申) ····· 877

2年 12月 11日(戊申) …… 878

1803年

3年 1月 17日(癸未) …… 880
3年 1月 28日(甲午) …… 881
3年 1月 29日(乙未) …… 882
3年 2月 6日(壬寅) …… 884
3年 2月 8日(甲辰) …… 885
3年 2月 11日(丁未) …… 887
3年 2月 18日(甲寅) …… 888
3年 2月 20日(丙辰) …… 889
3年 2月 20日(丙辰) …… 890
3年 閏2月 7日(壬申) …… 891
3年 閏2月 13日(戊寅) …… 892
3年 閏2月 13日(戊寅) …… 893
3年 閏2月 13日(戊寅) …… 894
3年 閏2月 25日(庚寅) …… 895
3年 3月 14日(戊申) …… 897
3年 4月 4日(戊辰) …… 898
3年 4月 8日(壬申) …… 899
3年 5月 26日(己未) …… 900
3年 5月 27日(庚申) …… 902
3年 6月 1日(甲子) …… 903
3年 6月 12日(乙亥) …… 904
3年 6月 13日(丙子) …… 905
3年 6月 16日(己卯) …… 906
3年 6月 20日(癸未) …… 907
3年 6月 21日(甲申) …… 908
3年 6月 24日(丁亥) …… 909
3年 6月 25日(戊子) …… 910
3年 6月 25日(戊子) …… 911
3年 6月 26日(己丑) …… 912
3年 6月 29日(壬辰) …… 913
3年 7月 1日(癸巳) …… 914
3年 7月 4日(丙申) …… 915
3年 7月 11日(癸卯) …… 916
3年 7月 15日(丁未) …… 917
3年 8月 9日(辛未) …… 918
3年 8月 10日(壬申) …… 919
3年 8月 12日(甲戌) …… 920
3年 8月 12日(甲戌) …… 921
3年 8月 19日(辛巳) …… 922
3年 8月 23日(乙酉) …… 923
3年 8月 28日(庚寅) …… 924
3年 9月 1日(癸巳) …… 925
3年 9月 23日(乙卯) …… 926
3年 9月 23日(乙卯) …… 927
3年 9月 24日(丙辰) …… 928
3年 9月 27日(己未) …… 929
3年 9月 29日(辛酉) …… 930
3年 10月 5日(丙寅) …… 931
3年 10月 8日(己巳) …… 932
3年 10月 9日(庚午) …… 933
3年 10月 20日(辛巳) …… 934
3年 10月 21日(壬午) …… 935
3年 10月 27日(戊子) …… 936
3年 11月 29日(庚申) …… 937
3年 12月 1日(壬戌) …… 938
3年 12月 1日(壬戌) …… 939
3年 12月 2日(癸丑[癸亥]) …… 940

3年 12月 2日(癸丑[癸亥]) …… 941
3年 12月 3日(甲子) …… 942
3年 12月 3日(甲子) …… 943

1804年

4年 1月 9日(己亥) …… 946
4年 1月 26日(丙辰) …… 947
4年 1月 28日(戊午) …… 948
4年 1月 28日(戊午) …… 949
4年 1月 28日(戊午) …… 950
4年 2月 1日(辛酉) …… 952
4年 2月 9日(己巳) …… 953
4年 2月 11日(辛未) …… 954
4年 2月 13日(癸酉) …… 955
4年 2月 14日(甲戌) …… 956
4年 2月 14日(甲戌) …… 957
4年 2月 16日(丙子) …… 958
4年 2月 24日(甲申) …… 959
4年 3月 15日(甲辰) …… 960
4年 3月 16日(乙巳) …… 962
4年 4月 12日(庚午) …… 963
4年 4月 21日(己卯) …… 964
4年 5月 2日(庚寅) …… 965
4年 5月 25日(癸丑) …… 966
4年 6月 9日(丙寅) …… 968
4年 6月 14日(辛未) …… 969
4年 7月 10日(丙申) …… 970
4年 7月 11日(丁酉) …… 971
4年 7月 11日(丁酉) …… 972
4年 7月 12日(戊戌) …… 973
4年 7月 18日(甲辰) …… 974
4年 7月 24日(庚戌) …… 975
4年 7月 26日(壬子) …… 976
4年 7月 26日(壬子) …… 977
4年 7月 27日(癸丑) …… 978
4年 8月 4日(庚申) …… 980
4年 8月 4日(庚申) …… 981
4年 8月 15日(辛未) …… 982
4年 8月 23日(己卯) …… 983
4年 9月 8日(甲午) …… 984
4年 9月 8日(甲午) …… 985
4年 9月 10日(丙申) …… 986
4年 9月 15日(辛丑) …… 987
4年 9月 26日(壬子) …… 988
4年 10月 3日(戊午) …… 989
4年 10月 10日(乙丑) …… 990
4年 10月 18日(癸酉) …… 991
4年 10月 29日(甲申) …… 992
4年 11月 1日(丙戌) …… 993
4年 11月 3日(戊子) …… 994
4年 11月 5日(庚寅) …… 995
4年 11月 7日(壬辰) …… 996
4年 11月 19日(甲辰) …… 997
4年 11月 19日(甲辰) …… 998
4年 11月 19日(甲辰) …… 1000
4年 11月 21日(丙午) …… 1001
4年 11月 21日(丙午) …… 1002
4年 11月 23日(戊申) …… 1003
4年 11月 28日(癸丑) …… 1004
4年 11月 28日(癸丑) …… 1007

4年 12月 1日(丙辰) …… 1008
4年 12月 1日(丙辰) …… 1009
4年 12月 2日(丁巳) …… 1010
4年 12月 10日(乙丑) …… 1011

1805年

5年 1月 9日(甲午) …… 1014
5年 1月 9日(甲午) …… 1015
5年 2月 14日(戊辰) …… 1016
5年 2月 14日(戊辰) …… 1017
5年 3月 13日(丁酉) …… 1018
5年 3月 21日(丙午[乙巳]) …… 1019
5年 3月 22日(丙午) …… 1020
5年 3月 23日(丁未) …… 1021
5年 4月 11日(甲子) …… 1022
5年 5月 12日(乙未) …… 1023
5年 5月 14日(丁酉) …… 1024
5年 6月 2日(甲寅) …… 1025
5年 6月 10日(壬戌) …… 1026
5年 6月 13日(乙丑) …… 1027
5年 閏6月 12日(癸巳) …… 1028
5年 閏6月 12日(癸巳) …… 1029
5年 閏6月 22日(癸卯) …… 1031
5年 閏6月 25日(丙午) …… 1036
5年 閏6月 26日(丁未) …… 1037
5年 閏6月 27日(戊申) …… 1038
5年 7月 10日(庚申) …… 1039
5年 7月 15日(乙丑) …… 1042
5年 7月 15日(乙丑) …… 1043
5年 7月 22日(壬申) …… 1044
5年 8月 12日(壬辰) …… 1045
5年 9月 1日(庚戌) …… 1046
5年 9月 16日(乙丑) …… 1047
5年 9月 16日(乙丑) …… 1050
5年 9月 17日(丙寅) …… 1051
5年 9月 17日(丙寅) …… 1052
5年 10月 10日(己丑) …… 1053
5年 10月 10日(己丑) …… 1054
5年 10月 18日(丁酉) …… 1055
5年 11月 14日(癸亥) …… 1056
5年 11月 18日(丁卯) …… 1057
5年 11月 18日(丁卯) …… 1058
5年 11月 19日(戊辰) …… 1059
5年 11月 19日(戊辰) …… 1060
5年 11月 24日(癸酉) …… 1061
5年 11月 29日(戊寅) …… 1063
5年 12月 28日(丁未) …… 1064
5年 12月 29日(戊申) …… 1065

1806年

6年 1月 5日(癸丑) …… 1068
6年 1月 6日(甲寅) …… 1069
6年 1月 13日(辛酉) …… 1072
6年 1月 19日(丁卯) …… 1073
6年 1月 19日(丁卯) …… 1076
6年 1月 20日(戊辰) …… 1077
6年 1月 20日(戊辰) …… 1078
6年 1月 22日(庚午) …… 1079
6年 1月 22日(庚午) …… 1080
6年 1月 23日(辛未) …… 1081

6年 1月 23日(辛未) ····· 1082
6年 1月 24日(壬申) ····· 1083
6年 1月 24日(壬申) ····· 1084
6年 1月 26日(甲戌) ····· 1085
6年 1月 26日(甲戌) ····· 1086
6年 1月 28日(丙子) ····· 1087
6年 1月 28日(丙子) ····· 1088
6年 1月 29日(丁丑) ····· 1089
6年 1月 29日(丁丑) ····· 1090
6年 2月 3日(辛巳) ····· 1091
6年 2月 3日(辛巳) ····· 1094
6年 2月 4日(壬午) ····· 1095
6年 2月 4日(壬午) ····· 1096
6年 2月 5日(癸未) ····· 1097
6年 2月 5日(癸未) ····· 1098
6年 2月 8日(丙戌) ····· 1099
6年 2月 8日(丙戌) ····· 1100
6年 2月 10日(戊子) ····· 1101
6年 2月 10日(戊子) ····· 1102
6年 2月 11日(己丑) ····· 1103
6年 2月 12日(庚寅) ····· 1104
6年 2月 13日(辛卯) ····· 1105
6年 2月 15日(癸巳) ····· 1106
6年 2月 18日(丙申) ····· 1107
6年 2月 22日(庚子) ····· 1110
6年 2月 22日(庚子) ····· 1111
6年 2月 25日(癸卯) ····· 1112
6年 2月 25日(癸卯) ····· 1113
6年 2月 26日(甲辰) ····· 1114
6年 2月 26日(甲辰) ····· 1115
6年 2月 27日(乙巳) ····· 1116
6年 2月 27日(乙巳) ····· 1117
6年 2月 27日(乙巳) ····· 1118
6年 2月 28日(丙午) ····· 1119
6年 2月 28日(丙午) ····· 1120
6年 2月 29日(丁未) ····· 1121
6年 2月 29日(丁未) ····· 1122
6年 3月 3日(辛亥) ····· 1123
6年 3月 4日(壬子) ····· 1124
6年 3月 6日(甲寅) ····· 1127
6年 3月 6日(甲寅) ····· 1130
6年 3月 7日(乙卯) ····· 1131
6年 3月 7日(乙卯) ····· 1132
6年 3月 11日(己未) ····· 1133
6年 3月 11日(己未) ····· 1134
6年 3月 18日(丙寅) ····· 1135
6年 3月 19日(丁卯) ····· 1136
6年 3月 19日(丁卯) ····· 1137
6年 3月 20日(戊辰) ····· 1138
6年 3月 21日(己巳) ····· 1139
6年 3月 21日(己巳) ····· 1140
6年 3月 22日(庚午) ····· 1141
6年 3月 22日(庚午) ····· 1142
6年 3月 29日(丁丑) ····· 1143
6年 4月 8日(乙酉) ····· 1144
6年 4月 8日(乙酉) ····· 1147
6年 4月 9日(丙戌) ····· 1148
6年 4月 10日(丁亥) ····· 1149
6年 4月 10日(丁亥) ····· 1150
6年 4月 11日(戊子) ····· 1151

6年 4月 11日(戊子) ····· 1152
6年 4月 20日(丁酉) ····· 1153
6年 4月 20日(丁酉) ····· 1154
6年 4月 21日(戊戌) ····· 1157
6年 4月 24日(辛丑) ····· 1158
6年 4月 25日(壬寅) ····· 1159
6年 4月 26日(癸卯) ····· 1160
6年 4月 27日(甲辰) ····· 1161
6年 4月 28日(乙巳) ····· 1163
6年 4月 29日(丙午) ····· 1164
6年 4月 30日(丁未) ····· 1165
6年 5月 13日(庚申) ····· 1167
6年 5月 13日(庚申) ····· 1171
6年 5月 14日(辛酉) ····· 1172
6年 5月 14日(辛酉) ····· 1173
6年 5月 19日(丙寅) ····· 1174
6年 5月 19日(丙寅) ····· 1175
6年 5月 20日(丁卯) ····· 1176
6年 5月 25日(壬申) ····· 1177
6年 6月 1日(丁丑) ····· 1178
6年 6月 3日(己卯) ····· 1179
6年 6月 4日(庚辰) ····· 1180
6年 6月 5日(辛巳) ····· 1181
6年 6月 9日(乙酉) ····· 1182
6年 6月 10日(丙戌) ····· 1183
6年 6月 15日(辛卯) ····· 1184
6年 6月 15日(辛卯) ····· 1185
6年 6月 25日(辛丑) ····· 1189
6年 7月 3日(戊申) ····· 1192
6年 7月 4日(己酉) ····· 1193
6年 7月 12日(丁巳) ····· 1194
6年 7月 15日(庚申) ····· 1195
6年 7月 17日(壬戌) ····· 1196
6年 8月 8日(壬午) ····· 1197
6年 8月 28日(壬寅) ····· 1198
6年 9月 4日(戊申) ····· 1199
6年 9月 19日(癸亥) ····· 1200
6年 9月 20日(甲子) ····· 1202
6年 9月 20日(甲子) ····· 1203
6年 9月 20日(甲子) ····· 1204
6年 9月 20日(甲子) ····· 1205
6年 9月 28日(壬申) ····· 1206
6年 10月 3日(丙子) ····· 1207
6年 10月 27日(庚子) ····· 1208
6年 10月 27日(庚子) ····· 1209
6年 11月 13日(丙辰) ····· 1210
6年 11月 13日(丙辰) ····· 1211
6年 11月 17日(庚申) ····· 1212
6年 11月 20日(癸亥) ····· 1213
6年 11月 27日(庚午) ····· 1214
6年 11月 27日(庚午) ····· 1215
6年 12月 9日(壬午) ····· 1216
6年 12月 10日(癸未) ····· 1217

1807年

7年 1月 6日(戊申) ····· 1220
7年 1月 12日(甲寅) ····· 1221
7年 1月 13日(乙卯) ····· 1222
7年 1月 27日(己巳) ····· 1223
7年 1月 28日(庚午) ····· 1224

7年 1月 29日(辛未) ····· 1225
7年 1月 29日(辛未) ····· 1226
7年 1月 29日(辛未) ····· 1227
7年 1月 29日(辛未) ····· 1228
7年 2月 11日(癸未) ····· 1229
7年 2月 21日(癸巳) ····· 1230
7年 2月 21日(癸巳) ····· 1231
7年 3月 17日(己未) ····· 1232
7年 4月 3日(乙亥) ····· 1233
7年 4月 4日(丙子) ····· 1234
7年 4月 16日(戊子) ····· 1235
7年 4月 28日(庚子) ····· 1236
7年 4月 29日(辛丑) ····· 1237
7年 5月 4日(乙巳) ····· 1238
7年 5月 6日(丁未) ····· 1239
7年 6月 6日(丙子) ····· 1240
7年 7月 12日(壬子) ····· 1241
7年 7月 12日(壬子) ····· 1242
7年 7月 13日(癸丑) ····· 1243
7年 7月 15日(乙卯) ····· 1244
7年 7月 16日(丙辰) ····· 1245
7年 7月 16日(丙辰) ····· 1246
7年 7月 25日(乙丑) ····· 1247
7年 7月 29日(己巳) ····· 1248
7年 8月 4日(癸酉) ····· 1249
7年 8月 4日(癸酉) ····· 1250
7年 8月 9日(戊寅) ····· 1251
7年 8月 9日(戊寅) ····· 1252
7年 8月 10日(己卯) ····· 1253
7年 8月 10日(己卯) ····· 1255
7年 8月 10日(己卯) ····· 1256
7年 8月 10日(己卯) ····· 1257
7年 8月 11日(庚辰) ····· 1259
7年 8月 23日(壬辰) ····· 1261
7年 8月 23日(壬辰) ····· 1262
7年 9月 9日(丁未) ····· 1263
7年 9月 14日(壬子) ····· 1264
7年 9月 14日(壬子) ····· 1265
7年 9月 15日(癸丑) ····· 1266
7年 9月 15日(癸丑) ····· 1267
7年 9月 27日(乙丑) ····· 1268
7年 10月 3日(辛未) ····· 1269
7年 10月 3日(辛未) ····· 1270
7年 10月 6日(甲戌) ····· 1271
7年 10月 6日(甲戌) ····· 1272
7年 10月 11日(己卯) ····· 1273
7年 10月 20日(戊子) ····· 1274
7年 11月 5日(壬寅) ····· 1275
7年 11月 18日(乙卯) ····· 1276
7年 12月 1日(戊辰) ····· 1277
7年 12月 2日(己巳) ····· 1278
7年 12月 2日(己巳) ····· 1279
7年 12月 3日(庚午) ····· 1280
7年 12月 8日(乙亥) ····· 1281

1808年

8年 1月 15日(壬子) ····· 1284
8年 3月 15日(辛亥) ····· 1285
8年 5月 5日(庚子) ····· 1286
8年 5月 13日(戊申) ····· 1287

8年 5月 16日(辛亥) ····· 1290
8年 5月 16日(辛亥) ····· 1291
8年 5月 17日(壬子) ····· 1292
8年 5月 17日(壬子) ····· 1293
8年 5月 26日(辛酉) ····· 1294
8年 5月 26日(辛酉) ····· 1295
8年 5月 27日(壬戌) ····· 1296
8年 5月 27日(壬戌) ····· 1297
8年 5月 29日(甲子) ····· 1298
8年 5月 29日(甲子) ····· 1299
8年 5月 30日(乙丑) ····· 1300
8年 閏5月 1日(丙寅) ····· 1301
8年 閏5月 1日(丙寅) ····· 1302
8年 閏5月 2日(丁卯) ····· 1303
8年 閏5月 2日(丁卯) ····· 1304
8年 閏5月 3日(戊辰) ····· 1305
8年 閏5月 3日(戊辰) ····· 1306
8年 閏5月 4日(己巳) ····· 1307
8年 閏5月 4日(己巳) ····· 1308
8年 閏5月 5日(庚午) ····· 1309
8年 閏5月 6日(辛未) ····· 1310
8年 閏5月 6日(辛未) ····· 1311
8年 閏5月 7日(壬申) ····· 1312
8年 閏5月 7日(壬申) ····· 1313
8年 閏5月 8日(癸酉) ····· 1314
8年 閏5月 8日(癸酉) ····· 1315
8年 閏5月 9日(甲戌) ····· 1316
8年 閏5月 11日(丙子) ····· 1317
8年 閏5月 12日(丁丑) ····· 1318
8年 閏5月 13日(戊寅) ····· 1319
8年 閏5月 14日(己卯) ····· 1320
8年 閏5月 17日(壬午) ····· 1321
8年 閏5月 18日(癸未) ····· 1322
8年 閏5月 19日(甲申) ····· 1323
8年 閏5月 21日(丙戌) ····· 1324
8年 閏5月 22日(丁亥) ····· 1325
8年 閏5月 24日(己丑) ····· 1326
8年 閏5月 25日(庚寅) ····· 1327
8年 閏5月 26日(辛卯) ····· 1328
8年 閏5月 27日(壬辰) ····· 1329
8年 閏5月 28日(癸巳) ····· 1330
8年 閏5月 29日(甲午) ····· 1331
8年 6月 1日(乙未) ····· 1332
8年 6月 2日(丙申) ····· 1333
8年 6月 3日(丁酉) ····· 1334
8年 6月 4日(戊戌) ····· 1335
8年 6月 5日(己亥) ····· 1336
8年 6月 6日(庚子) ····· 1337
8年 6月 9日(癸卯) ····· 1338
8年 6月 10日(甲辰) ····· 1340
8年 6月 20日(甲寅) ····· 1344
8年 6月 21日(乙卯) ····· 1345
8年 6月 21日(乙卯) ····· 1346
8年 6月 21日(乙卯) ····· 1347
8年 6月 22日(丙辰) ····· 1348
8年 6月 23日(丁巳) ····· 1349
8年 6月 25日(己未) ····· 1350
8年 6月 29日(癸亥) ····· 1351
8年 7月 1日(乙丑) ····· 1352
8年 7月 4日(戊辰) ····· 1353

8年 7月 18日(壬午) …… 1354
8年 7月 24日(戊子) …… 1355
8年 7月 28日(壬辰) …… 1356
8年 7月 28日(壬辰) …… 1357
8年 8月 15日(戊申) …… 1358
8年 8月 19日(壬子) …… 1359
8年 8月 20日(癸丑) …… 1360
8年 8月 27日(庚申) …… 1361
8年 8月 28日(辛酉) …… 1362
8年 8月 28日(辛酉) …… 1363
8年 8月 29日(壬戌) …… 1364
8年 8月 30日(癸亥) …… 1365
8年 9月 1日(甲子) …… 1366
8年 9月 2日(乙丑) …… 1367
8年 9月 3日(丙寅) …… 1368
8年 10月 7日(己亥) …… 1371
8年 10月 7日(己亥) …… 1375
8年 10月 8日(庚子) …… 1378
8年 10月 8日(庚子) …… 1379
8年 10月 9日(辛丑) …… 1380
8年 10月 9日(辛丑) …… 1381
8年 10月 10日(壬寅) …… 1382
8年 10月 18日(庚戌) …… 1384
8年 10月 18日(庚戌) …… 1388
8年 10月 20日(壬子) …… 1391
8年 10月 24日(丙辰) …… 1392
8年 11月 3日(甲子) …… 1394
8年 11月 7日(戊辰) …… 1398
8年 11月 7日(戊辰) …… 1399
8年 11月 8日(己巳) …… 1402
8年 11月 8日(己巳) …… 1403
8年 11月 9日(庚午) …… 1404
8年 11月 9日(庚午) …… 1405
8年 11月 10日(辛未) …… 1406
8年 11月 17日(己酉[戊寅]) …… 1407
8年 11月 22日(癸未) …… 1408
8年 11月 23日(乙卯[甲申]) …… 1409
8年 12月 7日(戊戌) …… 1411
8年 12月 7日(戊戌) …… 1412
8年 12月 15日(丙午) …… 1413
8年 12月 17日(戊申) …… 1414
8年 12月 18日(己酉) …… 1415
8年 12月 22日(癸丑) …… 1416
8年 12月 22日(癸丑) …… 1417
8年 12月 23日(甲寅) …… 1419
8年 12月 24日(乙卯) …… 1420
8年 12月 25日(丙辰) …… 1421
8年 12月 27日(戊午) …… 1423
8年 12月 27日(戊午) …… 1424
8年 12月 28日(己未) …… 1426

1809年

9年 1月 1日(辛酉) …… 1430
9年 1月 5日(乙丑) …… 1431
9年 1月 9日(己巳) …… 1432
9年 1月 10日(庚午) …… 1433
9年 1月 28日(戊子) …… 1434
9年 1月 28日(戊子) …… 1435
9年 1月 29日(己丑) …… 1436
9年 1月 29日(己丑) …… 1437

9年 2月 15日(乙巳) ····· 1438
9年 2月 18日(戊申) ····· 1439
9年 2月 18日(戊申) ····· 1440
9年 2月 18日(戊申) ····· 1441
9年 2月 18日(戊申) ····· 1442
9年 2月 19日(己酉) ····· 1443
9年 2月 19日(己酉) ····· 1444
9年 2月 19日(己酉) ····· 1445
9年 2月 20日(庚戌) ····· 1446
9年 3月 21日(辛巳) ····· 1447
9年 4月 18日(丁未) ····· 1448
9年 5月 21日(庚辰) ····· 1450
9年 6月 5日(甲午) ····· 1451
9年 6月 12日(辛丑) ····· 1452
9年 6月 14日(癸卯) ····· 1453
9年 6月 14日(癸卯) ····· 1454
9年 6月 26日(乙卯) ····· 1456
9年 7月 1日(己未) ····· 1457
9年 7月 1日(己未) ····· 1459
9年 7月 4日(壬戌) ····· 1460
9年 9月 24日(辛巳) ····· 1461
9年 9月 26日(癸未) ····· 1462
9年 10月 24日(辛亥) ····· 1464
9年 11月 25日(辛巳) ····· 1467
9年 12月 1日(丙戌) ····· 1469
9年 12月 15日(庚子) ····· 1470
9年 12月 16日(辛丑) ····· 1471
9年 12月 16日(辛丑) ····· 1472
9年 12月 16日(辛丑) ····· 1473

1810年

10年 1月 2日(丁巳) ····· 1476
10年 1月 9日(甲子) ····· 1479
10年 1月 10日(乙丑) ····· 1484
10年 1月 20日(乙亥) ····· 1489
10年 1月 20日(乙亥) ····· 1490
10年 1月 22日(丁丑) ····· 1491
10年 1月 22日(丁丑) ····· 1492
10年 1月 22日(丁丑) ····· 1493
10年 1月 24日(己卯) ····· 1494
10年 2月 2日(丙戌) ····· 1495
10年 2月 5日(己丑) ····· 1497
10年 2月 8日(壬辰) ····· 1498
10年 2月 8日(壬辰) ····· 1499
10年 2月 8日(壬辰) ····· 1500
10年 2月 18日(壬寅) ····· 1501
10年 2月 18日(壬寅) ····· 1502
10年 3月 15日(己巳) ····· 1503
10年 3月 21日(乙亥) ····· 1504
10年 3月 22日(丙子) ····· 1505
10年 5月 18日(辛未) ····· 1506
10年 5月 27日(庚辰) ····· 1507
10年 5月 28日(辛巳) ····· 1508
10年 5月 29日(壬午) ····· 1509
10年 6月 3日(丙戌) ····· 1510
10年 6月 4日(丁亥) ····· 1511
10年 6月 5日(戊子) ····· 1512
10年 6月 24日(丁未) ····· 1513
10年 6月 25日(戊申) ····· 1514

10年 7月 11日(癸亥) …… 1515
10年 7月 23日(乙亥) …… 1516
10年 7月 29日(辛巳) …… 1517
10年 9月 2日(甲寅) …… 1518
10年 10月 10日(辛卯) …… 1519
10年 10月 15日(丙申) …… 1520
10年 12月 1日(辛巳) …… 1521
10年 12月 10日(庚寅) …… 1522
10年 12月 10日(庚寅) …… 1523
10年 12月 10日(庚寅) …… 1524
10年 12月 10日(庚寅) …… 1525
10年 12月 10日(庚寅) …… 1526
10年 12月 10日(庚寅) …… 1527
10年 12月 11日(辛卯) …… 1528
10年 12月 11日(辛卯) …… 1529
10年 12月 16日(丙申) …… 1530
10年 12月 25日(乙巳) …… 1531
10年 12月 27日(丁未) …… 1532
10年 12月 28日(戊申) …… 1533
10年 12月 29日(己酉) …… 1534

1811年

11年 1月 1日(辛亥) …… 1536
11年 1月 8日(戊午) …… 1537
11年 1月 9日(己未) …… 1538
11年 2月 1日(庚辰) …… 1539
11年 2月 6日(乙酉) …… 1541
11年 3月 15日(癸亥) …… 1542
11年 3月 22日(庚午) …… 1543
11年 3月 23日(辛未) …… 1544
11年 3月 24日(壬申) …… 1545
11年 3月 27日(乙亥) …… 1546
11年 3月 27日(乙亥) …… 1548
11年 閏3月 3日(辛巳) …… 1549
11年 閏3月 9日(丁亥) …… 1551
11年 閏3月 10日(戊子) …… 1552
11年 閏3月 16日(甲午) …… 1553
11年 閏3月 20日(戊戌) …… 1554
11年 閏3月 20日(戊戌) …… 1555
11年 閏3月 29日(丁未) …… 1556
11年 4月 1日(戊申) …… 1557
11年 4月 7日(甲寅) …… 1558
11年 4月 10日(丁巳) …… 1559
11年 4月 11日(戊午) …… 1560
11年 4月 11日(戊午) …… 1561
11年 4月 17日(甲子) …… 1562
11年 4月 18日(乙丑) …… 1563
11年 5月 5日(壬午) …… 1564
11年 5月 6日(癸未) …… 1565
11年 5月 13日(庚寅) …… 1566
11年 5月 15日(壬辰) …… 1567
11年 6月 2日(戊申) …… 1568
11年 6月 7日(癸丑) …… 1569
11年 6月 14日(庚申) …… 1570
11年 6月 22日(戊辰) …… 1571
11年 6月 22日(戊辰) …… 1572
11年 7月 2日(戊寅) …… 1573
11年 7月 5日(辛巳) …… 1574
11年 7月 9日(乙酉) …… 1575
11年 7月 12日(戊子) …… 1576

11年 8月 3日(己酉) ····· 1577
11年 8月 4日(庚戌) ····· 1578
11年 8月 4日(庚戌) ····· 1579
11年 8月 10日(丙辰) ····· 1580
11年 9月 8日(癸未) ····· 1581
11年 10月 17日(壬戌) ····· 1582
11年 11月 2日(丁丑) ····· 1584
11年 11月 23日(戊戌) ····· 1585
11年 11月 23日(戊戌) ····· 1586
11年 12月 5日(己酉) ····· 1587
11年 12月 5日(己酉) ····· 1588

1812年

12年 2月 19日(壬戌) ····· 1590
12年 2月 21日(甲子) ····· 1591
12年 2月 21日(甲子) ····· 1592
12年 4月 15日(丁巳) ····· 1593
12年 4月 17日(己未) ····· 1594
12年 4月 20日(壬戌) ····· 1595
12年 4月 28日(庚午) ····· 1596
12年 5月 16日(丁亥) ····· 1597
12年 5月 29日(庚子) ····· 1598
12年 5月 30日(辛丑) ····· 1600
12年 6月 2日(癸卯) ····· 1602
12年 6月 15日(丙辰) ····· 1603
12年 6月 24日(乙丑) ····· 1604
12年 6月 25日(丙寅) ····· 1605
12年 6月 29日(庚午) ····· 1608
12年 7月 1日(辛未) ····· 1609
12年 7月 1日(辛未) ····· 1610
12年 7月 2日(壬申) ····· 1611
12年 7月 3日(癸酉) ····· 1612
12年 7月 8日(戊寅) ····· 1613
12年 7月 13日(癸未) ····· 1614
12年 8月 8日(戊申) ····· 1615
12年 8月 8日(戊申) ····· 1616
12年 10月 4日(癸卯) ····· 1617
12年 10月 8日(丁未) ····· 1618
12年 11月 21日(庚寅) ····· 1619
12年 11月 23日(壬辰) ····· 1620
12年 11月 23日(壬辰) ····· 1621
12年 11月 24日(癸巳) ····· 1622
12年 11月 24日(癸巳) ····· 1623
12年 11月 25日(甲午) ····· 1624
12年 12月 21日(庚申) ····· 1625
12年 12月 21日(庚申) ····· 1626

1813年

13年 1月 21日(己丑) ····· 1628
13年 3月 2日(己巳) ····· 1629
13年 3月 2日(己巳) ····· 1630
13年 3月 11日(戊寅) ····· 1631
13年 3月 14日(辛巳) ····· 1632
13年 3月 14日(辛巳) ····· 1633
13年 5月 22日(戊子) ····· 1634
13年 5月 29日(乙未) ····· 1635
13年 7月 5日(己巳) ····· 1637
13年 7月 5日(己巳) ····· 1638
13年 7月 9日(癸酉) ····· 1639
13年 7月 10日(甲戌) ····· 1640

13年 7月 11日(乙亥) ····· 1641
13年 7月 11日(乙亥) ····· 1642
13年 7月 11日(乙亥) ····· 1644
13年 7月 13日(丁丑) ····· 1645
13年 7月 21日(乙酉) ····· 1646
13年 7月 25日(己丑) ····· 1647
13年 7月 26日(庚寅) ····· 1648
13年 7月 28日(壬辰) ····· 1649
13年 7月 29日(癸巳) ····· 1650
13年 7月 30日(甲午) ····· 1651
13年 9月 4日(丁卯) ····· 1652
13年 9月 12日(乙亥) ····· 1653
13年 9月 15日(戊寅) ····· 1654
13年 9月 16日(己卯) ····· 1655
13年 9月 17日(庚辰) ····· 1656
13年 10月 26日(己未) ····· 1657
13年 11月 18日(辛巳) ····· 1658
13年 11月 26日(己丑) ····· 1659
13年 12月 1日(甲午) ····· 1660
13年 12月 2日(乙未) ····· 1661
13年 12月 3日(丙申) ····· 1662
13年 12月 4日(丁酉) ····· 1663
13年 12月 4日(丁酉) ····· 1665
13年 12月 5日(戊戌) ····· 1667
13年 12月 8日(辛丑) ····· 1668
13年 12月 8日(辛丑) ····· 1669
13年 12月 8日(辛丑) ····· 1670
13年 12月 9日(壬寅) ····· 1671
13年 12月 10日(癸卯) ····· 1672
13年 12月 10日(癸卯) ····· 1673
13年 12月 11日(甲辰) ····· 1674
13年 12月 11日(甲辰) ····· 1675
13年 12月 12日(乙巳) ····· 1676
13年 12月 14日(丁未) ····· 1677
13年 12月 16日(己酉) ····· 1678
13年 12月 17日(庚戌) ····· 1679
13年 12月 17日(庚戌) ····· 1680
13年 12月 18日(辛亥) ····· 1681
13年 12月 18日(辛亥) ····· 1682
13年 12月 19日(壬子) ····· 1683
13年 12月 20日(癸丑) ····· 1684
13年 12月 26日(己未) ····· 1685

1802年

(순조 2)



❖ 嘉慶 七年 壬戌 一月 九日 辛巳

○ 以金在三爲敦寧主簿, …… 趙慶遠爲濟州判官, 鄭重祿爲旌義縣監, …….

❖ 순조 2년(1802) 임술년 1월 9일(신사)

▢ 조경원(趙慶遠)과 정중록(鄭重祿)에게 관직을 제수함

○ 김재삼을 돈녕주부로 삼았다. 〈중략〉 조경원(趙慶遠)[1]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고, 정중록(鄭重祿)[2]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조경원, 제주판관, 정중록, 정의현감.

---

1) 조경원(1754~?): 본관 배천(白川). 자 자후(子厚).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제주판관(1802.2. 도임~1804.8.체임) 역임.

2) 정중록(1740~?): 본관 진양(晉陽). 1765년(영조 41) 문과 급제.

❖ 嘉慶 七年 壬戌 一月 九日 辛巳

○ 任希存,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慶尙監司金履永牒報及成冊, 則大逆不道罪人志孝·好春應坐諸人, 査出報來, …… 志孝父載稷年八十三, 依法典免絞, 全羅道濟州牧絶島定配, …… 子宗郁年一, 以年未滿, 依律文免絞, 全羅道靈巖郡楸子島爲奴, …… (好春)子睦駿年十一, 烈駿年三, 俱以年未滿, 依律文免絞, 睦駿全羅道濟州牧大靜縣, 烈駿興陽縣呂島鎭, 竝爲奴, …… 而右罪人等, 今方捉囚於宜寧·靈山等縣獄, 竝令刑曹押送于各其配所, …… 何如? 傳曰, 允.

❖ 순조 2년(1802) 임술년 1월 9일(신사)

▢ 대역부도한 죄인 전지효(田志孝)와 이호춘(李好春)으로 인해 죄를 받아야 할 전재직(田載稷) 등을 제주목(濟州牧) 등 각기 배소로 압송하게 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 임희존(任希存)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경상감사 김이영(金履永)의 첩보(牒報) 및 성책(成冊)을 보니, 대역부도한 죄인 전지효(田志孝)와 이호춘(李好春)으로 인해 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중략〉 전지효의 아비 전재직(田載稷)은 나이가 83세로 법전에 의거하여 교형(絞刑)을 면하여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고, 〈중략〉 아들 전종욱(田宗郁)은 1세로 나이가 차지 않았으니 율문에 의거하여 교형을 면하여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노(奴)를 삼고, …… 이호춘의 아들 이목준(李睦駿)은 11세, 이열준(李烈駿)은 3세로 모두 나이가 차지 않았으니 율문에 의거하여 교형을 면하여 이목준은 전라도 제주목 대정현(大靜縣)에, 이열준은 흥양현 여도진에 아울러 노로 삼겠습니다. 〈중략〉 위 죄인들이 지금 의령현(宜寧縣)·영산현(靈山縣) 등의 옥에 갇혀있으니 모두를 형조로 하여금 각기 배소로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전재직, 제주목, 전종욱, 추자도, 이목준, 대정현, 정배.

❖ 嘉慶 七年 壬戌 一月 十一日 癸未

○ 壬戌正月十一日午時, 上御熙政堂. 吏·兵房承旨與守令·邊將·察訪·初仕人·輪對官同爲入侍時, 行右承旨吳載紹, 左副承旨金近淳, 假注書任俊常, 別兼春秋呂東植·金邁淳, …… 濟州判官趙慶遠, …… 旌義縣監鄭重祿, …… 義盈主簿朴宗林等, 以次入就階下訖. 上曰, 以次進前, 奏職姓名, 可也. 德潤等, 以次進前, 奏職姓名, 退出. …….

❖ 순조 2년(1802) 임술년 1월 11일(계미)

▢ 제주판관(濟州判官) 조경원(趙慶遠)과 정의현감(旌義縣監) 정중록(鄭重祿) 등이 하직함

○ 임술년 1월 11일 오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이·병방승지와 수령·변장·찰방·초사인·윤대관이 함께 입시할 때, 행우승지 오재소(吳載紹), 좌부승지 김근순(金近淳), 가주서 임준상(任俊常), 별겸춘추 여동식(呂東植)·김매순(金邁淳), 〈중략〉 제주판관(濟州判官) 조경원(趙慶遠), 〈중략〉 정의현감(旌義縣監) 정중록(鄭重祿), 〈중략〉 의영주부 박종림 등이 차례로 들어가 계단 아래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차례로 앞으로 나와 직책과 성명을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조덕윤(趙德潤) 등이 차례로 앞으로 나와 직책과 성명을 아뢰고 물러 나갔다. 〈하략〉.

△ 주제어: 제주판관, 조경원, 정의현감, 정중록.

❖ 嘉慶 七年 壬戌 一月 十五日 丁亥

○ 任希存, 以刑曹言啓曰, 因義禁府啓辭, 大逆不道罪人志孝父載稷年八十三, 依法典免絞, 全羅道濟州牧絶島定配, …… 子宗郁年一, 以年未滿, 依律文免絞. 全羅道靈巖郡楸子島爲奴, …… (好春)子睦駿年十一, 烈駿年三, 俱以年未滿, 依律文免絞. 睦駿, 全羅道濟州牧大靜縣, 烈駿, 興陽縣呂島鎭, 竝爲奴, …… 事, 命下矣. 上項罪人等, 方囚宜寧·靈山等獄, 押送各其配所事, 發關, 分付于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2년(1802) 임술년 1월 15일(정해)

▢ 대역부도한 죄인 전지효(田志孝)와 이호춘(李好春)으로 인해 죄를 받아야 할 전재직(田載稷) 등을 제주목(濟州牧) 등 각기 배소로 압송하게 할 것을 청하는 형조의 계

○ 임희존(任希存)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의금부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대역부도한 죄인 전지효(田志孝)의 아비 전재직(田載稷)의 나이가 83세로, 법전에 의거하여 교형(絞刑)을 면하여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고, 〈중략〉 아들 전종욱(田宗郁)은 1세로 나이가 차지 않았으니 율문에 의거하여 교형을 면하여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노(奴)를 삼고, 〈중략〉 이호춘(李好春)의 아들 이목준(李睦駿)은 11세, 이열준(李烈駿)은 3세로 모두 나이가 차지 않았으니 율문에 의거하여 교형을 면하여 이목준은 전라도 제주목 대정현(大靜縣)에, 이열준은 흥양현 여도진에 아울러 노로 삼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위 죄인들이 지금 의령현(宜寧縣)·영산현(靈山縣) 등의 옥에 갇혀있으니 각기 배소로 압송하도록 관문(關文)을 보내어 해당 도의 관찰사에게 분부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전재직, 제주목, 전종욱, 추자도, 이목준, 대정현, 정배.

❖ 嘉慶 七年 壬戌 一月 十八日 庚寅

○ 掌令韓永逵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 答府曰, 亟停勿煩. …….

❖ 순조 2년(1802) 임술년 1월 18일(경인)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한영규(韓永逵)의 계

○ 장령 한영규(韓永逵)가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七年 壬戌 一月 二十日 壬辰

○ 壬戌正月二十日午時, 上御熙政堂. 大王大妃殿垂簾, 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都提調徐龍輔, 提調李秉鼎, 右承旨金近淳, 記事官金鋼·金景煥, 別兼春秋金邁淳, 左副承旨任希存, 假注書柳季麟, 事變假注書李若洙, 領中樞府事李秉模, 領議政沈煥之, 左議政李時秀, 開城留守金文淳, 行大提學李晩秀, 行大護軍徐有大, 刑曹判書黃昇源, 廣州留守李敬一, 戶曹判書李書九, 行護軍南公轍·李漢豊·申大謙, 校理朴命燮, 醫官金孝儉·朴春源·李惟鑑·吳仁豊·吳千根·朴烓·趙宗協, 以次進伏訖. …… 煥之曰, 濟州牧使鄭觀輝, 自明月萬戶, 特陞本牧, 限年久任, 責其抹弊矣. 大抵島中馬簿之減縮, 羅政之紊亂, 最爲弊端, 其所以矯抹者, 雖未知能有實效, 而聞其三閱歲於瘴癘之鄕, 病勢沈痼, 有難强令察任云. 該牧使鄭觀輝, 姑爲遞改,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

❖ 순조 2년(1802) 임술년 1월 20일(임진)

▢ 병세가 고질이 되어 억지로 직임을 살피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의 체직(遞職)을 청하는 영의정 심환지(沈煥之)의 계

○ 임술년 1월 20일 오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왕대비전이 수렴(垂簾)하고, 약방이 들어와 진맥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도제조 서용보(徐龍輔), 제조 이병정(李秉鼎), 우승지 김근순(金近淳), 기사관 김후(金鋼)·김경환(金景煥), 별겸춘추 김매순(金邁淳), 좌부승지 임희존(任希存), 가주서 유계린(柳季麟), 사변가주서 이약수(李若洙), 영중추부사 이병모(李秉模), 영의정 심환지(沈煥之), 좌의정 이시수(李時秀), 개성유수 김문순(金文淳), 행대제학 이만수(李晩秀), 행대호군 서유대(徐有大), 형조판서 황승원(黃昇源), 광주유수 이경일(李敬一), 호조판서 이서구(李書九), 행호군 남공철(南公轍)·이한풍(李漢豊)·신대겸(申大謙), 교리 박명섭(朴命燮), 의관 김효검(金孝儉)·박춘원(朴春源)·이유감(李惟鑑)·오인풍(吳仁豊)·오천근(吳千根)·박전(朴烓)·조종협(趙宗協)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심환지가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는 명월만호(明月萬戶)에서 특별히 본목(本牧)에 승천(陞遷)하여 연한을 한정하고 구임(久任)하게 하여 폐단을 바로잡도록 책임지워졌습니다. 대저 섬 안에서는 마부(馬簿)의 감축(減縮)과 적정(糴政)의 문란이 가장 폐단이 되는데, 그가 폐단을 바

로잡는다고 한 것이 비록 능히 실효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들으니 장려(瘴癘)의 고장에서 3년을 보내자니 병세가 고질이 되어 억지로 직임을 살피게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해당 목사 정관휘를 우선 체개(遞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3]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정관휘, 체직.

3) 이상은《비변사등록》순조 2년 1월 20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七年 壬戌 一月 二十一日 癸巳

○ 備邊司薦望, 以李延弼爲濟州牧使.

❖ 순조 2년(1802) 임술년 1월 21일(계사)

▢ 이연필(李延弼)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비변사가 천망(薦望)하여 이연필(李延弼)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 주제어: 이연필, 제주목사, 천망.

❖ 嘉慶 七年 壬戌 二月 六日 丁未

○ 有政. 吏批, 判書徐邁修受由, 參判尹光普進, 參議李肇源牌不進, 左副承旨李堯憲進, 啓曰, 判書徐邁修受由, 參議李肇源牌招不進, 小臣獨政未安, 何以爲之? 敢稟. 傳曰, 仍爲之. …… 濟州牧使單李延弼, …….

❖ 순조 2년(1802) 임술년 2월 6일(정미)

▢ 이연필(李延弼)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단부(單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서매수(徐邁修)는 말미를 받았고, 참판 윤광보(尹光普)가 나왔고, 참의 이조원(李肇源)은 패초(牌招)에 나오지 않았고, 좌부승지 이요헌(李堯憲)이 나왔다. 아뢰기를, "판서 서매수는 말미를 받았고, 참의 이조원은 패초에 나오지 않아서 소신이 혼자 정사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대로 하라.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이연필(李延弼)을 단부(單付)하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연필, 제주목사, 단부.

❖ 嘉慶 七年 壬戌 二月 二十五日 丙寅

○ 備忘記, 濟州牧使李延弼下直, 長弓一張, 長箭一部, 片箭一部, 筒兒一箇賜給.

❖ 순조 2년(1802) 임술년 2월 25일(병인)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에게 장궁(長弓) 등을 사급(賜給)하라는 비망기

○ 비망기(備忘記)에,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이 하직(下直)하니, 장궁(長弓) 1장(張), 장전(長箭) 1부(部), 편전(片箭) 1부, 통아(筒兒) 1개를 사급(賜給)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연필, 하직.

❖ 嘉慶 七年 壬戌 二月 二十五日 丙寅

○ 傳于柳師模曰, 慶尙監司濟州牧使留待.

❖ 순조 2년(1802) 임술년 2월 25일(병인)

▢ 제주목사(濟州牧使) 등을 머물러 대령(待令)하게 하라는 전교

○ 유사모(柳師模)에게 전교하기를, "경상감사와 제주목사(濟州牧使)를 머물러 대령(待令)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대령.

❖ 嘉慶 七年 壬戌 二月 二十五日 丙寅

○ 傳于柳師模曰, 慶尙監司濟州牧使入侍.

❖ 순조 2년(1802) 임술년 2월 25일(병인)

▢ 제주목사(濟州牧使) 등을 입시(入侍)하게 하라는 전교

○ 유사모(柳師模)에게 전교하기를, "경상감사와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입시(入侍)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입시.

❖ 嘉慶 七年 壬戌 二月 二十五日 丙寅

○ 持平鄭彦仁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2년(1802) 임술년 2월 25일(병인)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지평 정언인(鄭彦仁)의 계

○ 지평 정언인(鄭彦仁)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七年 壬戌 二月 二十五日 丙寅

○ 壬戌二月二十五日午時, 上御熙政堂. 大王大妃殿垂簾, 慶尙監司·濟州牧使入侍時, 同副承旨柳師模, 假注書李選, 別兼春秋吳淵常·金邁淳, 慶尙監司南公轍, 濟州牧使李延弼, 以次進伏訖. …… 大王大妃殿敎曰, 濟州牧使進前. 延弼進伏. 大王大妃殿敎曰, 濟州近甚凋弊, 民不料生, 且在越海絶遠之地, 王化之所未及也, 必思鎭安奠濟之策, 可也. 上命退, 諸臣以次退出.

❖ 순조 2년(1802) 임술년 2월 25일(병인)

▢ 신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에게 제주(濟州)를 안정시키고 구제할 계책을 생각하라는 대왕대비전의 하교

○ 임술년 2월 25일 오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왕대비전이 수렴(垂簾)하고, 경상감사와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입시(入侍)할 때, 동부승지 유사모(柳師模), 가주서 이선(李選), 별겸춘추 오연상(吳淵常)·김매순(金邁淳), 경상감사 남공철(南公轍), 제주목사 이연필(李延弼)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대왕대비전이 하교하기를, "제주목사는 앞으로 나오라."라고 하였다. 이연필이 나와 엎드렸다. 대왕대비전이 하교하기를, "제주(濟州)가 근래 심히 쇄잔하고 피폐하여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는데, 또한 바다를 건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왕화(王化)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니, 반드시 안정시키고 구제할 계책을 생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물러가라고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 나왔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연필, 입시.

❖ 嘉慶 七年 壬戌 二月 二十七日 戊辰

○ 掌令崔雲翰, 持平鄭彦仁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2년(1802) 임술년 2월 27일(무진)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최운한(崔雲翰) 등의 계

○ 장령 최운한(崔雲翰), 지평 정언인(鄭彦仁)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七年 壬戌 三月 七日 丁丑

○ 持平鄭彦仁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 순조 2년(1802) 임술년 3월 7일(정축)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지평 정언인(鄭彦仁)의 계

○ 지평 정언인(鄭彦仁)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七年 壬戌 三月 十日 庚辰

○ 持平鄭彦仁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2년(1802) 임술년 3월 10일(경진)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지평 정언인(鄭彦仁)의 계

○ 지평 정언인(鄭彦仁)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七年 壬戌 三月 十一日 辛巳

○ 掌令崔雲翰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2년(1802) 임술년 3월 11일(신사)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최운한(崔雲翰)의 계

○ 장령 최운한(崔雲翰)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七年 壬戌 三月 十五日 乙酉

○ 柳師模, 以備邊司言啓曰, 義州府尹任焞狀啓, 有令廟堂商議稟處之命矣. 取見其狀本, 則以爲大國人, 持盛京禮部咨文, 率領前冬入送異國漂人四名來到, 咨文拆見, 則異國人五名中一名, 在途病故, 而均屬遠夷, 容服旣殊, 又無通譯, 若由陸路送京, 亦未能確指何國, 旣經漂至朝鮮, 自係相近隣邦, 指示來踪, 送至彼國, 較爲順便, 送回朝鮮云. 故漂人四名, 姑留本府, 而領去別齎咨官吳載恒, 尙無回還消息, 領護上送等節, 以待朝家處分爲辭矣. 今此漂人, 旣自大國, 還爲出送, 而不知爲何國人物, 則咨文中, 雖有貲助舟糧指示來踪之語, 舟楫異制, 方向迷所, 縱欲貲送, 其勢末由. 不得不還送漂到地方, 待彼船之更來, 因便付送, 如或不來, 則勢將依向化人例, 仍作編氓, 回還使臣, 想已到灣, 使行中譯官一員, 領率上來, 所經諸道, 着實供饋, 定差員交付下送于濟州, 令該牧使, 就官府近處, 擇定一所, 姑爲留置. 官給廩料衣資, 待其歲月稍久, 言語漸通, 或從便授業, 或隨宜立役, 無得侵困, 俾各安接, 以示朝家懷柔之意事, 嚴飭, 分付. 亦令槐院, 撰出回咨, 定禁軍騎撥下送于灣府, 使之傳給鳳城將處, 以爲轉致盛京之地, 何如? 傳曰, 允.

❖ 순조 2년(1802) 임술년 3월 15일(을유)

▢ 대국(大國)에서 돌려보낸 표류민을 제주(濟州)로 내려보내어 피선(彼船)이 다시 오기를 기다려 그 편에 부쳐보낼 것과 회답하는 자문(咨文)을 지어 성경(盛京)에 전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유사모(柳師模)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의주부윤 임육(任焞)의 장계에 대하여 묘당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품처(稟處)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 장본(狀本)을 가져다 보니, ‘대국인(大國人)이 성경(盛京)[4]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지난 겨울 들여보낸 이국 표도인(漂到人)을 인솔하여 내도(來到)하였습니다. 자문을 뜯어 보니, ‘이국인 5명 중 1명은 길에서 병으로 죽었는데, 모두가 원이(遠夷)에 속하여 용모와 의복이 이미 다르고, 또한 통역이 없어서 만약에 육로를 통하여 서울에 보낸다 하더라도 또한 어느 나라라고 확실히 지칭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조선에 표도(漂到)하였으니, 절로 가까운 인방(隣邦)에 관계될 것입니다. 온 자취를 가리켜 보여 저희들 나라로 보내어 이르게 하는 것이

4) 성경(盛京): 심양(瀋陽)에 대한 청(淸)나라 때의 호칭.

비교적 순조롭고 편할 것이기에 조선으로 돌려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표도인 4명을 일단 본부(本府)에 머물게 하고, 데리고 간 별재자관(別齎咨官) 오재항(吳載恒)은 아직 돌아온다는 소식이 없으니, 영호(領護)하고 올려보내는 등의 절차에 대해 조정의 처분을 기다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표도인들은 이미 대국에서 도로 내보냈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지 못하니, 자문 중에 비록 배의 양식을 도와주고, 왔던 자취를 가리켜 보여주라는 말이 있지만, 배의 제도가 다르고 향할 곳을 알 수 없으니, 비록 도와서 보내주려 해도 형세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득불 표도한 지방으로 도로 보내어 피선(彼船)이 다시 오기를 기다려 그 편에 부쳐보내되,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형세상 장차 향화인(向化人)[5]의 사례에 의거하여 그대로 편맹(編氓)[6]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돌아오는 사신이 생각건대 이미 만부(灣府)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사행 중 역관(譯官) 1원(員)이 영솔하여 올라오게 하되, 지나는 제도(諸道)에서는 착실히 공궤(供饋)하고, 차원(差員)을 정하여 제주(濟州)로 교부하여 내려보내고, 해당 목사로 하여금 관부(官府) 근처에 한 곳을 정하여 우선 머물게 하십시오. 관에서 늠료와 의복을 지급하고, 세월이 조금 오래 되기를 기다려 언어가 점차 통하게 되면 혹 편리한 대로 업(業)을 주고, 혹 마땅함에 따라서 입역(立役)하게 하여 침곤(侵困)을 얻음이 없이 각기 편안히 머물러 살게 하여 조정에서 회유(懷柔)하는 뜻을 보이도록 엄히 타일러 경계하여 분부하십시오. 또한 괴원(槐院)으로 하여금 회답하는 자문을 지어내어 금군을 정하여 기발(騎撥)로 만부에 내려보내어 봉성장(鳳城將)에게 전해 주게 하여 성경에 전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7]

△ 주제어: 표류, 표도, 편맹, 자문.

---

5) 향화인(向化人): 야인(野人)이나 왜인(倭人)으로 투화(投化)해 온 사람을 말함. '향화(向化)'는 덕화(德化)·교화(敎化)의 뜻으로 문명 사회의 어진 정치를 스스로 찾아와 귀화하는 것을 의미함.

6) 편맹(編氓): 호적에 편입된 백성. 곧 평민.

7) 이상은 《비변사등록》 순조 2년 3월 1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순조실록》 순조 2년 3월 15일자 기사에는 같은 내용이 보다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음.

❖ 嘉慶 七年 壬戌 三月 二十日 庚寅

○ 掌令金圭夏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典刑.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2년(1802) 임술년 3월 20일(경인)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김규하(金圭夏)의 계

○ 장령 김규하(金圭夏)[8]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8) 김규하(1740~1822): 본관 부안(扶安). 자 내협(乃協)·여초(汝初). 호 귀재(歸齋). 1789년(정조 13) 문과 급제. 지평, 정악원정, 장령 역임.

❖ 嘉慶 七年 壬戌 三月 二十七日 丁酉

○ 掌令金圭夏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2년(1802) 임술년 3월 27일(정유)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김규하(金圭夏)의 계

○ 장령 김규하(金圭夏)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七年 壬戌 四月 二日 壬寅

○ 掌令金圭夏, 獻納崔時淳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2년(1802) 임술년 4월 2일(임인)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김규하(金圭夏) 등의 계

○ 장령 김규하(金圭夏), 헌납 최시순(崔時淳)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七年 壬戌 四月 五日 乙巳

○ 掌令金圭夏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2년(1802) 임술년 4월 5일(을사)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김규하(金圭夏)의 계

○ 장령 김규하(金圭夏)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七年 壬戌 四月 十一日 辛亥

○ 柳師模啓曰, 前濟州牧使鄭觀輝, 所佩密符, 還納修正次, 密匣請出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2년(1802) 임술년 4월 11일(신해)

▢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가 찼던 밀부(密符)를 도로 들여 수정(修正)하기 위해 밀갑(密匣)을 내줄 것을 청하는 유사모(柳師模)의 계

○ 유사모(柳師模)가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가 찼던 밀부(密符)를 도로 들여 수정(修正)하기 위해 밀갑(密匣)[9]을 청하여 내줄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정관휘, 밀부, 수정, 밀갑.

9) 밀갑(密匣): 밀부(密符), 즉 발병부(發兵符)를 넣어 두는 갑.

❖ 嘉慶 七年 壬戌 四月 十一日 辛亥

○ 柳師模,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前牧使鄭觀輝, 遞任進上馬三匹, 前判官李宗蕃遞任進上馬三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 而封進事體, 何等嚴重, 前判官李宗蕃, 進上馬三匹, 非但體小殘劣, 其中一匹病甚特甚, 所見萬萬駭然. 當該封進濟州前判官李宗蕃, 姑先從重推考, 以警日後, 何如? 傳曰, 允.

❖ 순조 2년(1802) 임술년 4월 11일(신해)

▢ 잔열(殘劣)한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를 봉진(封進)한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종번(李宗蕃)의 종중추고(從重推考)를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유사모(柳師模)가 사복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 전 판관 이종번(李宗蕃)[10]의 체임진상마 3필이 금방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에 써서 들이고 규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하겠습니다. 그런데 봉진(封進)하는 일의 체모는 얼마나 엄중한 것입니까? 전 판관 이종번의 진상마 3필은 체구가 작아 잔열(殘劣)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1필은 병이 들어 발을 저는 것이 아주 심하니 보기에 아주 놀랍습니다. 해당 봉진관인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종번을 우선 종중추고(從重推考)하여 후일을 경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이종번, 체임진상마, 종중추고.

10) 이종번(?~?): 제주판관(1799.10.도임, 1802.2.체임) 역임.

❖ 嘉慶 七年 壬戌 四月 十七日 丁巳

○ 申大羽,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旌義前縣監金思喆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2년(1802) 임술년 4월 17일(정사)

▢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사철(金思喆)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를 규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하겠다는 사복시의 계

○ 신대우(申大羽)가 사복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사철(金思喆)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금방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에 써서 들이면서 규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김사철, 체임진상마.

❖ 嘉慶 七年 壬戌 五月 十六日 乙酉

○ 持平李毅采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2년(1802) 임술년 5월 16일(을유)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지평 이의채(李毅采)의 계

○ 지평 이의채(李毅采)[11]가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11) 이의채(1756~?): 본관 한산(韓山). 자 중집(仲執). 1795년(정조 19) 문과 급제.

❖ 嘉慶 七年 壬戌 五月 二十五日 甲午

○ 壬戌五月二十五日辰時, 上御熙政堂. 大王大妃殿垂簾,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同副承旨柳師模, 假注書趙晉和, 事變假注書曺錫鯤, 記事官鄭宗顯, 別兼春秋金邁淳, 領議政沈煥之, 左議政李時秀, 右議政徐龍輔, 行兵曹判書李秉鼎, 行禮曹判書李晩秀, 戶曹判書趙鎭寬, 知訓鍊徐有大, 行大護軍李祖承, 吏曹判書李書九, 副校理吳淵常以次進伏訖. …… 書九曰, 穆陵別檢李致祜, 曾於甲寅十二月, 除拜孝陵別檢, 而丙辰正月, 有別檢中有地處出六無難人改差, 其代濟州在京文臣先爲擬望之特敎, 故伊時臣曹, 改差李致祜, 而致祜, 又於辛酉正月, 除拜見職矣. 竝計前後仕日, 則三十朔, 已準於今三月, 而當初作散, 旣與遞汰有異, 則前仕似當通計, 而不敢自下擅便, 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出擧條】…….

❖ 순조 2년(1802) 임술년 5월 25일(갑오)

▢ 이조판서 이서구(李書九)가 입시하여 목릉별검 이치호(李致祜)의 작산(作散)과 관련하여 병진년 정월에 서울에 있는 제주(濟州) 출신의 문신(文臣)을 별검(別檢)에 우선 의망(擬望)하라는 특교(特敎)가 있었음을 언급함

○ 임술년 5월 25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왕대비전 이수렴(垂簾)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동부승지 유사모(柳師模), 가주서 조진화(趙晉和), 사변가주서 조석곤(曺錫鯤), 기사관 정종현(鄭宗顯), 별겸춘추 김매순(金邁淳), 영의정 심환지(沈煥之), 좌의정 이시수(李時秀), 우의정 서용보(徐龍輔), 행병조판서 이병정(李秉鼎), 행예조판서 이만수(李晩秀), 호조판서 조진관(趙鎭寬), 지훈련 서유대(徐有大), 행대호군 이조승(李祖承), 이조판서 이서구(李書九), 부교리 오연상(吳淵常)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서구가 아뢰기를, "목릉별검 이치호(李致祜)는 일찍이 갑인년 12월에 효릉별검에 제수되었는데, 병진년 정월에 별검(別檢) 중 처지가 출륙(出六)에 무난한 사람을 개차(改差)하고, 그 대신 서울에 있는 제주(濟州) 출신의 문신(文臣)을 우선 의망(擬望)하라는 특교(特敎)가 있었기에 그때 신조(臣曹)에서 이치호를 개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치호는 또한 신유년 정월에 현직에 제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전후 사일(仕日)을 계산하면 30삭(朔)이 이미 금년 3월에 준(準)하였는데, 당초 작산(作散)이 이미 체직(遞職)과 차이가 있으니, 전사(前仕)를 마땅히 통계해야 할 듯

합니다. 하지만 감히 아래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기에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병진년, 별검, 문신, 의망, 특교.

❖ 嘉慶 七年 壬戌 六月 二日 辛丑

○ 持平李毅采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2년(1802) 임술년 6월 2일(신축)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지평 이의채(李毅采)의 계

○ 지평 이의채(李毅采)가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七年 壬戌 六月 三日 壬寅

○ 掌令愼性眞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2년(1802) 임술년 6월 3일(임인)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신성진(愼性眞)의 계

○ 장령 신성진(愼性眞)[12]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12) 신성진(1752~?): 본관 거창(居昌). 1777년(정조 1) 문과 급제.

❖ 嘉慶 七年 壬戌 六月 十五日 甲寅

○ 持平奇學敬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2년(1802) 임술년 6월 15일(갑인)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지평 기학경(奇學敬)의 계

○ 지평 기학경(奇學敬)[13]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13) 기학경(1741~1809): 본관 행주(幸州). 자 중심(仲心). 호 겸재(謙齋). 1801년(순조 1) 문과 급제. 정언, 수찬, 교리 역임. 저서 《겸재집》.

❖ 嘉慶 七年 壬戌 七月 四日 壬申

○ 掌令申龜朝, 持平李顯秀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2년(1802) 임술년 7월 4일(임신)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신귀조(申龜朝) 등의 계

○ 장령 신귀조(申龜朝)[14], 지평 이현수(李顯秀)[15]가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14) 신귀조(1748~?): 본관 평산(平山). 자 계행(季行)·현서(玄瑞). 1792년(정조 16) 문과 급제. 정언, 지평 역임.

15) 이현수(1751~?): 본관 전주(全州). 1786년(정조 10) 문과 급제.

❖ 嘉慶 七年 壬戌 七月 十一日 己卯

○ 李魯春,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凶咎駑駘馬二十匹合八十八匹內, 五匹船中故失, 一匹到中路故失, 一匹到廣州逃逸, 除實納馬八十一匹禾毛色,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2년(1802) 임술년 7월 11일(기묘)

▢ 제주(濟州)에서 나온 선운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등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인다는 사복시의 계

○ 이노춘(李魯春)[16]이 사복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선운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8필, 삼명일진상마(三名日進上馬) 60필, 흉구노태마(凶咎駑駘馬) 20필 합 88필 내에 5필은 배 안에서 죽고, 1필은 중로(中路)에 도착해서 죽고, 1필은 광주(廣州)에 도착해서 도망가서 실제로 바치는 말 81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연례진상마, 삼명일진상마, 흉구노태마, 별단.

16) 이노춘(1752~?): 본관 덕수(德水). 자 군정(君正). 1780년(정조 4) 문과 급제. 응교, 이조참의, 강원도관찰사 역임. 저서 《홍문관지(弘文館志)》.

❖ 嘉慶 七年 壬戌 七月 十三日 辛巳

○ 李魯春,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運歲貢馬二百匹內, 七匹船中故失, 八匹到中路故失, 六匹到津頭逃逸, 除實納馬一百七十九匹禾毛色, 別單書入, 而進獻事體, 何等嚴重, 所封馬匹之骨孱體瘦, 比先運尤甚, 當該封進濟州牧使, 捧現告從重推考, 以警日後, 津頭逃逸之至於六匹之多, 亦甚駭然, 不善護送之當該地方官, 令該府拿處, 何如? 傳曰, 允.

❖ 순조 2년(1802) 임술년 7월 13일(신사)

▢ 잔약한 세공마(歲貢馬)를 봉진(封進)한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종중추고(從重推考)와 호송을 잘하지 못한 해당 지방관을 잡아다 처리할 것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이노춘(李魯春)[17]이 사복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후운 세공마(歲貢馬) 200필 내에 7필은 배 안에서 죽고, 8필은 중로(中路)에 도착해서 죽고, 6필은 진두(津頭)에 도착해서 도망가서 실제로 바치는 말 179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입니다. 그런데, 진헌(進獻)하는 일의 체모가 얼마나 엄중한 것입니까? 봉진하는 말의 골격이 잔약하고 몸집이 야윈 것이 선운에 비해 더욱 심하니, 해당 봉진관인 제주목사(濟州牧使)를 현고(現告)[18]를 받아 종중추고(從重推考)하여 후일을 경계하고, 진두에서 도망간 것이 6필에 이르도록 많으니 또한 심히 놀랍습니다. 호송을 잘하지 못한 해당 지방관을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다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세공마, 화모색, 별단, 제주목사, 추고.

---

17) 이노춘(1752~?): 본관 덕수(德水). 자 군정(君正). 1780년(정조 4) 문과 급제. 응교, 이조참의, 강원도관찰사 역임. 저서 《홍문관지(弘文館志)》.

18) 현고(現告): 범죄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이름을 지적하여 보고하는 서류, 또는 고한 내용을 말함.

❖ 嘉慶 七年 壬戌 七月 十三日 辛巳

○ 掌令李渭達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2년(1802) 임술년 7월 13일(신사)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이위달(李渭達)의 계

○ 장령 이위달(李渭達)[19]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19) 이위달(?~?): 본관 전주(全州). 자 사강(士剛). 1792년(정조 16) 문과 급제.

❖ 嘉慶 七年 壬戌 七月 十四日 壬午

○ 李魯春,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山馬監牧官金瀛礎辛酉壬戌兩年條封進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2년(1802) 임술년 7월 14일(임오)

▢ 제주(濟州)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김영초(金瀛礎)의 봉진마(封進馬)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인다는 사복시의 계

○ 이노춘(李魯春)이 사복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김영초(金瀛礎)가 신유년과 임술년 두 해에 봉진(封進)하는 말 2필이 금방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면서 규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산마감목관, 김영초, 봉진마, 별단.

❖ 嘉慶 七年 壬戌 七月 二十三日 辛卯

○ 掌令李萬榮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2년(1802) 임술년 7월 23일(신묘)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이만영(李萬榮)의 계

○ 장령 이만영(李萬榮)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七年 壬戌 十月 十九日 丁巳

○ 李肇源, 以禮曹言啓曰, 冬至方物物膳除減事, 因慈教行會矣, 關文未到之前, 濟州牧所封大殿冬至方物, 已爲上來. 所當還爲下送, 而越海之地, 亦涉有弊, 何以爲之? 敢稟. 傳曰, 以正朝方物施行.

❖ 순조 2년(1802) 임술년 10월 19일(정사)

▢ 방물물선(方物物膳)을 줄이도록 하는 관문(關文)이 도착하기 전에 올라온 제주목(濟州牧)의 동지(冬至) 방물(方物)을 정조(正朝) 방물에 이체(移替)하라는 전교

○ 이조원(李肇源)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동지(冬至) 방물물선(方物物膳)을 줄이도록 자교(慈敎)로 인하여 행회(行會)하였는데, 관문(關文)이 도착하기 전에 제주목(濟州牧)에서 대전(大殿)에 봉진(封進)한 동지 방물(方物)이 올라왔습니다. 마땅히 도로 내려보내야 하겠지만 바다를 건너야 하는 곳이라 또한 폐단이 있을까 합니다. 어찌 해야 합니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정조(正朝)의 방물로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동지, 방물, 물선, 정조.

❖ 嘉慶 七年 壬戌 十一月 十九日 丙戌

○ 禁府啓目粘連, 江原道放未放修啓冊子中, 本府所管定配罪人稟秩, 通川李章玉·春川李東善·金城崔履亨等, 所坐不無差殊, 而到配俱係屬耳, 竝姑置之仍秩爲白乎旀, 未放秩襄陽劉仁獐段, 依啓聞施行, 何如? ……. 又啓目粘連, 濟州放未放修啓冊子中, 本府所管定配人未放秩乙良, 依啓聞施行爲良乎旀, 他餘罪人等, 令刑曹, 稟處, 何如? 判付啓, 依允. 又啓目粘連, 濟州放未放修啓冊子, 以前後赦典之各異, 有此兩度修啓是白乎乃, 本府所管定配罪人未放秩, 以依啓聞施行之意, 纔已覆啓, 更無可以稟處者是白乎所, 他餘罪人等, 令刑曹, 稟處, 何如? 判付啓, 依允.

❖ 순조 2년(1802) 임술년 11월 19일(병술)

▢ 제주(濟州)의 석방하고 석방하지 않을 죄인에 대해 아뢴 책자 중에 본부에서 소관하는 정배죄인(定配罪人)으로 석방하지 않은 부류는 계문한 대로 시행하며, 다른 나머지 죄인 등은 형조(刑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할 것을 청하는 금부(禁府)의 계

○ 금부(禁府)의 계목점련(啓目粘連)에, “강원도의 석방하고 석방하지 않을 죄인에 대해 아뢴 책자 중에 본부에서 소관하는 정배죄인(定配罪人)으로 여쭈어 결정할 부류[稟秩]로, 통천 이장옥·춘천 이동선·금성 최이형 등은 연좌된 바가 차이가 없지 않지만 배소에 도착한 것이 모두 속이(屬耳)에 관계되니, 모두를 우선은 그대로 둘 부류에 두며, 석방하지 않을 부류로 양양의 유인장은 계문(啓聞)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중략〉 또 계목점련에, “제주(濟州)의 석방하고 석방하지 않은 죄인에 대해 아뢴 책자 중에 본부에서 소관하는 정배죄인으로 석방하지 않은 부류는 계문한 대로 시행하며, 다른 나머지 죄인 등은 형조(刑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또 계목점련에, “제주의 석방하고 석방하지 않은 죄인에 대해 아뢴 책자 중에 전후 사면(赦免)의 은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처럼 두 번 계본을 작성하여 올리는데, 본부에서 소관하는 정배죄인으로 석방하지 않을 부류는 계문한 대로 시행할 뜻으로 막 복계(覆啓)하였으므로 다시 품처할 것이 없으니, 다른 나머지 죄인 등은 형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하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배죄인, 석방, 형조, 품처.

❖ 嘉慶 七年 壬戌 十一月 二十三日 庚寅

○ 刑曹啓目粘連, 因江原監司申獻朝放未放修啓冊子, 放秩未放秩乙良, 竝啓聞施行爲白乎矣. 稟秩中通川金洪仁·歙谷張得孫等, 俱是縛打掖隸隨從, 未放秩中伊川金振漢, 宮穀虛留, 而似此罪名, 入於忠淸道放秩, 不可異同, 竝只放送之意, 分付道臣何如, 啓. ……. 又啓目粘連, 因濟州牧使李延弼放未放修啓冊子, 未放秩, 依啓聞施行, 何如? 判付內依允.

❖ 순조 2년(1802) 임술년 11월 23일(경인)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이 석방하고 석방하지 않을 죄인(罪人)에 대해 아뢴 책자 중에, 석방하지 않을 부류를 계문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는 형조의 계

○ 형조의 계목점련(啓目粘連)에, "강원감사 신헌조가 석방하고 석방하지 않을 죄인(罪人)에 대해 아뢴 책자 중에, 석방하고 석방하지 않을 죄인은 모두 계문(啓聞)대로 시행하되, 여쭈어 결정할 부류[稟秩] 중 통천의 김홍인과 흡곡의 장득손 등은 모두가 액례(掖隸)와 수종(隨從)의 몸을 묶어 놓고 때렸으며, 석방하지 않을 부류 중 이천의 김진한은 궁곡(宮穀)을 허류(虛留)하였는데, 이와 같은 죄명은 충청도의 경우에는 석방할 부류에 들어가니, 달리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를 풀어주는 뜻으로 관찰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중략〉 또 계목점련에,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20]이 석방하고 석방하지 않을 죄인에 대해 아뢴 책자 중에, 석방하지 않을 부류는 계문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연필, 죄인.

20) 이연필(?~1803): 제주목사(1802.3.도임~1803.7.사망) 역임.

❖ 嘉慶 七年 壬戌 十二月 四日 辛丑

○ 以濟州牧使李延弼狀啓, 莫重薦新與進上, 不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李翊模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2년(1802) 임술년 12월 4일(신축)

▢ 천신(薦新)과 진상(進上)을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의 장계에, 막중한 천신(薦新)과 진상(進上)을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이익모(李翊模)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연필, 천신, 진상, 대죄.

❖ 嘉慶 七年 壬戌 十二月 四日 辛丑

○ 閔耆顯, 以禮曹言啓曰, 卽接濟州牧使李延弼狀啓謄報, 則去十月令薦新所封柑子·唐金橘, 一一摘取, 肇慶廟薦新封進外, 所餘柑子一百七十三箇, 唐金橘一百四十六箇, 謹援已例, 都封上送, 以爲稟旨薦獻之地事爲辭矣, 在前橘果稀結之時, 多有減數薦獻之例, 今此柑子·唐金橘, 宗廟·景慕宮, 依近例分排, 當日薦進, 何如? 傳曰, 允.

❖ 순조 2년(1802) 임술년 12월 4일(신축)

▢ 제주(濟州)에서 10월령 천신(薦新)으로 봉진(封進)한 감자(柑子)와 당금귤(唐金橘)의 부족으로 인해 종묘와 경모궁에 분배하여 천진(薦進)하는 일에 관한 예조의 계

○ 민기현(閔耆顯)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의 장계등보(狀啓謄報)를 보니, 지난 10월령 천신(薦新)으로 봉진(封進)하는 감자(柑子)와 당금귤(唐金橘)을 일일이 따가지고 조경묘(肇慶廟)에 천신용으로 봉진하는 것 외에 나머지 감자 173개와 당금귤 146개를 삼가 전례를 원용(援用)하여 모두 봉하여 올려 보내면서 임금께 여쭈어 천헌(薦獻)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귤과(橘果)가 드물게 결실하였을 때는 수량을 감하여 천헌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금번 이러한 감자와 당금귤을 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에 근래의 사례대로 분배하여 당일 천진(薦進)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천신, 봉진, 감자, 당금귤.

❖ 嘉慶 七年 壬戌 十二月 四日 辛丑

○ 閔耆顯, 以禮曹言啓曰, 濟州牧所封冬至方物捧入草記, 以正朝方物施行事, 因傳敎行會矣, 關文未到之前, 正朝方物, 又爲封進上來, 所當還爲下送, 而越海之地, 亦涉有弊, 何以爲之? 敢稟. 傳曰, 旣已上來, 捧入, 明年方物移施事, 預爲分付.

❖ 순조 2년(1802) 임술년 12월 4일(신축)

▢ 제주목(濟州牧)에서 봉진(封進)한 정조방물(正朝方物)을 내년 방물로 옮겨 시행하도록 분부하라는 전교

○ 민기현(閔耆顯)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에서 봉진(封進)한 동지 방물(冬至方物)을 받아들이는 초기(草記)에 대해 정조방물(正朝方物)로 시행하도록 전교(傳敎)에 따라서 행회(行會) 하였는데, 관문(關文)이 도착하기 전에 정조방물이 또 봉진하여 올라왔습니다. 마땅히 도로 내려보내야 하지만 바다를 건너야 하는 곳이어서 또한 폐단이 있을 수 있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감히 아룁니다."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미 올라왔으니 받아들이고, 내년 방물로 옮겨 시행하도록 미리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봉진, 정조방물.

❖ 嘉慶 七年 壬戌 十二月 五日 壬寅

○ 閔耆顯, 以禮曹言啓曰, 濟州牧所封來正朝方物捧入草記, 旣已上來捧入, 明年移施事, 預爲分付事, 命下矣. 以明年冬至方物移施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2년(1802) 임술년 12월 5일(임인)

▢ 제주목(濟州牧)에서 봉진(封進)한 정조방물(正朝方物)을 내년 동지방물(冬至方物)로 옮겨 시행하겠다는 예조의 계

○ 민기현(閔耆顯)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에서 봉진(封進)하여 온 정조방물(正朝方物)을 받아들이는 초기(草記)에 대해, 이미 올라온 것은 받아들이되 내년의 방물로 옮겨 시행하도록 미리 분부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내년 동지방물(冬至方物)로 옮겨 시행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봉진, 정조방물.

❖ 嘉慶 七年 壬戌 十二月 十日 丁未

○ 吳載紹,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濟州牧使李延弼災實狀啓, 則分等不爲擧論, 仍以爲數件應行之事, 從便措處, 開錄于左, 而候風涉海, 遲速無期, 謹依已例, 一邊馳啓, 一邊擧行, 請令廟堂稟旨分付矣, 其一, 舊還督捧, 恐傷民力, 姑爲仍停事也, 其一, 逃老故病廢之類, 嚴飭各該邑, 一一塡充, 待明春, 從附近哨司鍊事也, 舊還停捧, 軍兵操鍊之停退等事, 先擧行後狀聞, 便成已例, 竝依狀請施行, 何如? 傳曰, 允.

❖ 순조 2년(1802) 임술년 12월 10일(정미)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이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구환(舊還)을 정봉(停捧)하고 군병의 조련(操鍊)을 정퇴(停退)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오재소(吳載紹)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니, 분등(分等)을 거론하지 않고, 그대로 ‘몇 건의 응당 해야 할 일을 편의에 따라 조처하여 아래에 개록(開錄) 하였는데, 바람을 기다려 바다를 건너는 것이 그 늦고 빠름을 기약할 수 없기에 삼가 전례에 의거하여 한편으로는 치계(馳啓)하고 한편으로는 거행하니 청컨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분부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구환(舊還)을 독촉하여 거두는 것이 민력(民力)을 상하게 할까 염려되니 일단은 그대로 멈추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도망가거나 늙거나 죽거나 병들어서 폐인(廢人)이 된 부류는 각 해당 읍에 엄히 타일러 경계하여 일일이 충정(充定)하되, 내년 봄을 기다려 부근의 초사(哨司)에서 조련(操鍊)하는 일입니다. 구환의 정봉(停捧)과 군병 조련의 정퇴(停退) 등의 일은 먼저 거행한 후에 장계로 보고하는 것이 곧 전례가 되었으니, 모두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21]

△ 주제어: 제주목사, 이연필, 재실장계, 구환, 조련.

---

21) 이상은 《비변사등록》 순조 2년 12월 10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七年 壬戌 十二月 十一日 戊申

○ 以濟州牧使李延弼狀啓, 薦新乳柑, 無以備數, 不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閔耆顯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2년(1802) 임술년 12월 11일(무신)

▢ 천신(薦新)하는 유감(乳柑)의 수량을 갖출 수 없어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의 장계에, 천신(薦新)하는 유감(乳柑)의 수량을 갖출 수 없어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민기현(閔耆顯)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연필, 천신, 유감, 대죄.

❖ 嘉慶 七年 壬戌 十二月 十一日 戊申

○ 閔耆顯, 以禮曹言啓曰, 卽接濟州牧使李延弼狀啓謄報, 則今十二月令所封洞庭橘, 如數封進, 乳柑八十二箇, 薦新無以備數, 謹援已例, 都封上送, 以爲稟旨薦獻之地爲辭矣. 宗廟薦新洞庭橘, 當日薦進, 而宗廟·景慕宮薦新乳柑, 雖未備數, 在前柑果稀結之時, 多有減數薦獻之例, 今亦依前例分排, 同日薦進, 何如? 傳曰, 允.

❖ 순조 2년(1802) 임술년 12월 11일(무신)

▢ 제주(濟州)에서 12월령 천신(薦新)으로 봉진(封進)한 유감(乳柑)의 부족으로 인해 종묘와 경모궁에 분배하여 천진(薦進)하는 일에 관한 예조의 계

○ 민기현(閔耆顯)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의 장계등보(狀啓謄報)를 보니, 금번 12월령으로 봉진(封進)하는 동정귤(洞庭橘)은 수량대로 봉진하였지만, 유감(乳柑) 82개는 천신(薦新)에 수량을 채울 수가 없으니, 삼가 전례를 원용(援用)하여 모두 봉하여 올려 보내면서 임금께 여쭈어 천헌(薦獻)하라고 하였습니다. 종묘에 천신하는 동정귤은 당일 천진(薦進)하고, 종묘와 경모궁(景慕宮)에 천신하는 유감은 비록 수량이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감과(柑果)가 드물게 결실하였을 때는 수량을 감하여 천헌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금번 또한 전례대로 분배하여 같은 날 천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천신, 봉진, 유감.

1803年

(순조 3)



❖ 嘉慶 八年 癸亥 一月 十七日 癸未

○ 持平鄭彦仁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忘,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府曰, 亟停勿煩. …….

❖ 순조 3년(1803) 계해년 1월 17일(계미)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지평 정언인(鄭彦仁)의 계

○ 지평 정언인(鄭彦仁)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八年 癸亥 一月 二十八日 甲午

○ 持平鄭彦仁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典刑.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3년(1803) 계해년 1월 28일(갑오)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지평 정언인(鄭彦仁)의 계

○ 지평 정언인(鄭彦仁)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八年 癸亥 一月 二十九日 乙未

○ 癸亥正月二十九日辰時, 上御熙政堂. 大王大妃殿垂簾,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副承旨金宗善, 假注書柳訴, 別兼春秋金薈根·徐有恂, 左議政徐龍輔, 右議政金觀柱, 行刑曹判書黃昇源, 禮曹判書閔台嬴, 戶曹判書李書九, 水原府留守曺允大, 行護軍申大謙·李仁秀, 吏曹參判金達淳, 開城府留守徐美修, 刑曹參判朴宗輔, 刑曹參議申大羽, 校理元在明, 正言鄭最成以次進伏訖. …… 龍輔曰, 此濟州牧使李延弼狀啓也. 大靜縣漂到異國人十七名, 考其票文, 見其問情, 則俱是江南省太倉州鎭洋縣人之逢風漂到者, 而彼人等, 旣願從水路還歸, 船隻且完, 依其願捧手標後, 直爲發送, 所着衣袴, 雖已造給, 候風間糧米及越海糧·鹽·醬·魚·藿·柴·油等物, 優數磨鍊, 以示朝家德意, 留住間禁雜人看護等節, 各別嚴飭之意, 分付該牧使處, 待其發送狀聞, 令槐院撰出咨文, 別定禁軍, 騎撥下送于灣府, 傳給鳳城將處, 以爲轉送北京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 순조 3년(1803) 계해년 1월 29일(을미)

▢ 대정현(大靜縣)에 표도(漂到)한 강남성(江南省) 태창주(太倉州) 진양현(鎭洋縣) 사람 17명에 대한 송환 절차를 아뢰는 좌의정 서용보(徐龍輔)의 계

○ 계해년 1월 29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왕대비전이 수렴(垂簾)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좌부승지 김종선(金宗善), 가주서 유화(柳訴), 별겸춘추 김시근(金薈根)·서유순(徐有恂), 좌의정 서용보(徐龍輔), 우의정 김관주(金觀柱), 행형조판서 황승원(黃昇源), 예조판서 민태혁(閔台嬴), 호조판서 이서구(李書九), 수원부유수 조윤대(曺允大), 행호군 신대겸(申大謙)·이인수(李仁秀), 이조참판 김달순(金達淳), 개성부유수 서미수(徐美修), 형조참판 박종보(朴宗輔), 형조참의 신대우(申大羽), 교리 원재명(元在明), 정언 정최성(鄭最成)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용보가 아뢰기를, "이것은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의 장계입니다. 대정현(大靜縣)에 표도(漂到)한 이국인 17명에 대해 그 표문(票文)을 살피고, 그 문정(問情)한 것을 보니, 모두가 강남성(江南省) 태창주(太倉州) 진양현(鎭洋縣) 사람들이 바람을 만나 표도한 자들로서, 피인(彼人)들이 이미 뱃길을 따라 돌아가기를 원하고, 배가 또한 온전하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수표(手標)를 받은 후에 바로 떠나보내게 하되, 입을 옷가지

는 이미 만들어 지급하였지만, 후풍(候風)하는 사이의 양미(糧米)와 바다를 건너는 동안의 식량·소금·장(醬)·생선[魚]·미역·섶[柴]·기름[油] 등의 물건을 넉넉하게 마련하여 조정의 덕의(德意)을 보이고, 머무르는 사이에 잡인을 금하고 살펴 보호하는 등의 절차를 각별히 엄히 타일러 경계할 뜻을 해당 목사에게 분부하고, 떠나보냈다는 장계의 보고를 기다려 괴원(槐院)으로 하여금 자문(咨文)을 지어내어 금군을 별도로 정하여 기발(騎撥)로 만부(灣府)로 내려보내어 봉성장(鳳城將)에게 전해주어 북경으로 전송(轉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22]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대정현, 표도, 강남성, 뱃길, 자문.

22) 이상은《비변사등록》순조 3년 1월 29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八年 癸亥 二月 六日 壬寅

○ 大王大妃殿, 傳于李肇源曰, 楸子島安置罪人貞喆出陸. …….

❖ 순조 3년(1803) 계해년 2월 6일(임인)

▢ 추자도(楸子島)에 안치(安置)한 죄인 조정철(趙貞喆)을 출륙(出陸)시키라는 대왕대비전의 전교

○ 대왕대비전이 이조원(李肇源)에게 전교하기를, "추자도(楸子島)에 안치(安置)한 죄인 조정철(趙貞喆)[23]을 출륙(出陸)시키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추자도, 안치, 조정철, 출륙.

---

23) 조정철(1751~1831): 본관 양주(楊州). 자 성경(成卿)·태성(台城). 호 정헌(靜軒)·대릉(大陵).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1777년(정조 1) 강용휘(姜龍輝) 등이 정조를 시해하고 그의 이복동생을 옹립하려는 음모에 연루되어 제주에 유배됨. 1790년(정조 14) 9월 추자도로 이배되었다가 1805년(순조 5) 해배됨. 해배 후 대사헌, 지중추부사, 제주목사(1811.6.도임~1812.6.체임) 역임. 저서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

❖ 嘉慶 八年 癸亥 二月 八日 甲辰

○ 趙弘鎭, 以義禁府言啓曰, 楸子島安置罪人貞喆, 出陸, 光陽縣竄配罪人李濟萬, 熙川郡竄配罪人權裕, 明川府竄配罪人金翰東, 英陽縣定配罪人洪卓然, 穩城府竄配罪人順海, 竝量移. 南海縣安置罪人趙時俊, 鹿島島配罪人宋文輅, 郭山郡竄配罪人鄭尙愚, 泗川縣竄配罪人朴聖泰, 鍾城府定配罪人朴齊家, 竝放逐鄕里. 金甲島島配罪人度謙, 金甲島島配罪人李潭, 巨濟府島配罪人宋文述, 熊川縣屛裔罪人李允行, 朔州府屛裔罪人李羽晉, 渭原郡屛裔罪人李仁行, 昌城府屛裔罪人趙恒鎭, 茂山府屛裔罪人李儒修, 三水府屛裔罪人李鎭宅, 丹城縣流三千里罪人任長源, 泗川縣流三千里罪人李益恢, 渭原郡竄配罪人鄭允僑, 楚山府竄配罪人白成一, 茂山府竄配罪人皮載吉, 樂安郡竄配罪人趙圭鎭, 竝放事, 承傳啓下矣. 李濟萬高敞縣量移, 洪卓然靑山縣量移, 而以承侍內辭意, 添書於前罪目, 依例發遣府書吏羅將, 自各其配所執捉, 仍令押付于新定配所, 朴聖泰放逐鄕里, 任長源·李羽晉卽爲放送事, 分付各該道臣, 權裕·朴齊家·李潭·宋文述·李允行·李益恢, 臺啓方張, 其餘罪人等, 罪犯深重, 臣等別爲疏籲, 竝不得擧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其餘罪人, 亦卽擧行.

❖ 순조 3년(1803) 계해년 2월 8일(갑진)

▢ 추자도(楸子島)에 안치(安置)한 죄인 조정철(趙貞喆)의 출륙(出陸)과 관련하여 거행할 수 없다는 의금부의 계

○ 조홍진(趙弘鎭)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추자도(楸子島)에 안치(安置)한 죄인 조정철(趙貞喆)을 출륙(出陸)하고, 광양현 찬배죄인 이제만, 희천군 찬배죄인 권유, 명천부 찬배죄인 김한동, 영양현 정배죄인 홍탁연, 온성부 찬배죄인 순해를 모두 양이(量移)하고, 남해현 안치죄인 조시준, 녹도 도배죄인 송문로, 곽산군 찬배죄인 정상우, 사천현 찬배죄인 박성태, 종성부 정배죄인 박제가를 모두 방축향리(放逐鄕里)하고, 금갑도 도배죄인 도겸, 금갑도 도배죄인 이근, 거제부 도배죄인 송문술, 웅천현 병예죄인 이윤행, 삭주부 병예죄인 이우진, 위원군 병예죄인 이인행, 창성부 병예죄인 조항진, 무산부 병예죄인 이유수, 삼수부 병예죄인 이진택, 단성현 유삼천리죄인 임장원, 사천현 유삼천리죄인 이익회, 위원군 찬배죄인 정윤교, 초산부 찬배죄인 백성일, 무산부 찬배죄인 피재길, 낙안군 찬배죄인 조규진을 모두 풀어주도록 승전(承傳)하여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이제만

은 고창현으로 양이하고 홍탁연은 청산현으로 양이하되, 승시(承侍) 내의 사의(辭意)로써 전 죄목에 첨서(添書)하여 규례대로 본부 서리와 나장을 보내어 각기 배소에서 잡아다 그대로 새로 정한 배소로 압송하도록 하고, 박성태를 방축향리하고, 임장원·이우진을 즉시 풀어주도록 각 해당 관찰사에게 분부하고, 권유·박제가·이근·송문술·이윤행·이익회는 대개(臺啓)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그 나머지 죄인들은 범한 죄가 매우 중하므로 신들이 별도로 상소(上疏)하여 호소하였으니, 아울러 거행할 수 없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그 나머지 죄인은 또한 즉시 거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안치, 조정철, 출륙, 상소.

❖ 嘉慶 八年 癸亥 二月 十一日 丁未

○ 李文會, 以義禁府言啓曰, 日前本府草記, 有其餘罪人亦卽擧行之命矣. …… 至於楸子島安置罪人貞喆, 關係旣重, 而今此出陸, 與年前移配尤異. …… 玆不得擧行之意, 惶恐敢啓. 傳曰, 知道.

❖ 순조 3년(1803) 계해년 2월 11일(정미)

▢ 추자도(楸子島)에 안치(安置)한 조정철(趙貞喆)의 출륙(出陸)을 거행할 수 없다는 의금부의 계

○ 이문회(李文會)[24]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일전 본부 초기(草記)에 대해 그 나머지 죄인을 또한 거행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중략〉 추자도(楸子島)에 안치(安置)한 죄인 조정철(趙貞喆)은 관계된 바가 이미 중한데, 이번에 출륙(出陸)하는 것은 연전에 이배(移配)한 것과는 더욱 다른 것입니다. 〈중략〉 이에 거행할 수 없다는 뜻을 황공한 마음으로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안치, 조정철, 출륙.

24) 이문회(1758~1828): 본관 전의(全義). 자 주경(主卿). 1790년(정조 14) 문과 급제. 응교, 승지, 이조참판 역임.

❖ 嘉慶 八年 癸亥 二月 十八日 甲寅

○ 刑曹啓目粘連, 慶尙監司南公轍放未放修啓冊子, 據放秩未放秩, 竝依啓聞施行. 稟秩宜寧姜玉江等, 當初所坐, 俱不深重, 合有疏釋之典, 未放秩中豐基金今昌等同罪, 入於本道及他道放秩, 不可異同, 竝只放送, 何如? 判付啓, 依允爲旀, …… 楸子島權糾, …… 黑山渡[黑山島]金源一等, 竝只放送爲良如敎. …….

❖ 순조 3년(1803) 계해년 2월 18일(갑인)

▢ 추자도(楸子島)의 권규(權糾)를 풀어주라는 전교

○ 형조의 계목점련(啓目粘連)에, "경상감사 남공철(南公轍)이 석방하고 석방하지 않을 죄인에 대해 아뢴 책자 중에 석방하고 석방하지 않을 죄인은 모두 계문(啓聞)대로 시행하되, 여쭈어 결정할 부류[稟秩] 중 의령의 강옥강 등은 당초 지은 죄가 모두 크지 않으니 관대하게 처결하여 풀어주는 은전이 있어야 하고, 석방하지 않을 부류 중 풍기의 김금창 등의 같은 죄가 본도(本道) 및 타도(他道)에서는 석방할 부류에 들어가니, 달리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를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 〈중략〉 추자도(楸子島)의 권규(權糾), 〈중략〉 흑산도의 김원일 등을 아울러 풀어주도록 하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권규.

❖ 嘉慶 八年 癸亥 二月 二十日 丙辰

○ 閔耆顯, 以義禁府言啓曰, …… 楸子島減死安置罪人貞喆, 出陸, …… 樂安郡竄配罪人趙圭鎭, 竝放事, 承傳啓下矣. …… 貞喆羅州牧出陸, 而前罪目添書, 今番承傳, 依例發遣府都事及羅將, 自各其配所執捉, 仍令押付于新定配所, 李儒修·李鎭宅·趙圭鎭竝卽放送事, 分付各該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3년(1803) 계해년 2월 20일(병진)

▢ 추자도(楸子島)에 안치(安置)한 조정철(趙貞喆)을 나주목(羅州牧)으로 출륙(出陸)시키겠다는 의금부의 계

○ 민기현(閔耆顯)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安置)한 죄인 조정철(趙貞喆)을 출륙(出陸)하고, 〈중략〉 낙안군 찬배죄인 조규진을 아울러 풀어주도록 승전(承傳)하여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중략〉 조정철을 나주목(羅州牧)으로 출륙시키되, 전 죄목을 첨서(添書)하여 금번 승전은 규례대로 본부 도사 및 나장을 보내어 각기 배소에서 잡아다가 이어서 새로 정한 배소로 압송하게 하고, 이유수·이진택·조규진을 아울러 즉시 풀어주도록 각 해당 관찰사에게 분부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안치, 조정철, 나주목, 출륙.

❖ 嘉慶 八年 癸亥 二月 二十日 丙辰

○ 義禁府啓目粘連, 濟州放未放修啓冊子中, 本府所管定配罪人未放秩李致薰乙良, 依啓聞施行爲白乎旀, 他餘罪人等, 令刑曹稟處何如? 判付啓, 依允.

❖ 순조 3년(1803) 계해년 2월 20일(병진)

▢ 정배죄인(定配罪人)으로 석방하지 않을 부류인 이치훈(李致薰)을 계문(啓聞)대로 시행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의 계목점련(啓目粘連)에, "제주목(濟州牧)의 석방하고 석방하지 않을 죄인에 대해 아뢴 책자 중에, 본부 소관의 정배죄인(定配罪人)으로 석방하지 않을 부류인 이치훈(李致薰)을 계문(啓聞)대로 시행하며, 다른 나머지 죄인들은 형조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정배죄인, 이치훈.

❖ 嘉慶 八年 癸亥 閏二月 七日 壬申

○ 持平鄭彦仁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3년(1803) 계해년 윤2월 7일(임신)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지평 정언인(鄭彦仁)의 계

○ 지평 정언인(鄭彦仁)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八年 癸亥 閏二月 十三日 戊寅

○ 洪秀晩啓曰, 卽見濟州牧使李延弼馬籍事啓本, 則年月不爲踏印, 姓字下, 又不着銜, 莫重奏御文字, 有此無前不審之失, 誠萬萬駭然, 原啓本還下送, 使之改修正上送, 該牧使, 所當重勘, 而本院請〈推〉之外, 無他可施之罰, 何以爲之? 敢稟. 傳曰, 越俸一等.

❖ 순조 3년(1803) 계해년 윤2월 13일(무인)

▢ 계본(啓本)의 연월(年月)에 관인(官印)을 찍지 않고, 성(姓)자 아래에도 착함(着銜)을 하지 않은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의 처벌을 청하는 홍수만(洪秀晩)의 계

○ 홍수만(洪秀晩)[25]이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의 마적(馬籍)과 관련한 계본(啓本)을 보니, 연월(年月)에 관인(官印)을 찍지 않았고, 성(姓)자 아래에도 또한 착함(着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께 아뢰는 막중한 문자에 이렇게 전에 없던 살피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으니, 참으로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원래의 계본을 도로 내려보내어 다시 수정하여 올려 보내게 하고, 해당 목사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겠지만 본원(本院)이 추고(推考)를 청하는 것 외에 달리 시행할 만한 벌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월봉(越俸) 1등(等)에 처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연필, 마적, 계본.

25) 홍수만(1759~?): 본관 남양(南陽). 자 치성(穉成). 1790년(정조 14) 문과 급제. 동래부사, 대사성, 이조참판 역임.

❖ 嘉慶 八年 癸亥 閏二月 十三日 戊寅

○ 以濟州牧使李延弼狀啓, 箋文過歲封進, 惶恐待罪事, 傳于洪秀晩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3년(1803) 계해년 윤2월 13일(무인)

▢ 전문(箋文)을 해가 지나 봉진(封進)하였기에 대죄(待罪)한다고 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의 장계에, 전문(箋文)을 해가 지나 봉진(封進)하였기에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홍수만(洪秀晩)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연필, 전문, 대죄.

❖ 嘉慶 八年 癸亥 閏二月 十三日 戊寅

○ 以濟州牧使李延弼狀啓, 莫重箋文及方物, 不能愼風, 致此沈水改封之擧, 惶恐待罪事, 傳于洪秀晩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3년(1803) 계해년 윤2월 13일(무인)

▢ 전문(箋文)과 방물(方物)을 침수(沈水)하여 개봉(改封)하였기에 대죄(待罪)한다고 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의 장계에, 막중한 전문(箋文)과 방물(方物)을 능히 바람을 조심하지 못하여 이처럼 침수(沈水)하여 개봉(改封)하기에 이르렀으니,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홍수만(洪秀晩)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연필, 전문, 방물, 침수, 개봉, 대죄.

❖ 嘉慶 八年 癸亥 閏二月 二十五日 庚寅

○ 癸亥閏二月二十五日辰時, 上御暎花堂. 藥房入診調馬時, 都提調徐龍輔, 提調李晩秀, 副提調洪義浩, 記事官洪遇燮, 別兼春秋金薯根·趙雲翊, 直提學金近淳, 右承旨朴宗慶, 領敦寧金祖淳, 以次進伏. …… 祖淳曰, 軍政之最急, 莫先於馬, 而在前三營, 皆有官馬, 本局則至於四百餘匹之多, 中間因分養革罷之後, 本局及兩營官馬之法, 不期廢而自廢, 馬兵之難支, 騎士之凋弊, 實甚悶然. 太僕馬額, 今皆減縮, 則如前復古, 雖非可論, 第有可以隨宜變通者, 壯營未罷之時, 以濟州年貢, 年年除出幾匹, 輪給內外營矣. 今若依此例, 就年貢中, 式年則限百五十匹, 常年則限七十匹, 自本寺直爲除出, 二分屬之訓局, 一分屬兩營, 則目下雖似不足, 歲計必當有餘, 且貢馬之年年上來者, 若干匹頒賜之外, 別無緊的歸屬之處, 將此無緊之物, 作爲有實之用, 揆以事面, 毫無所妨, 自今年定式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 순조 3년(1803) 계해년 윤2월 25일(경인)

▢ 제주(濟州)에서 바치는 공마(貢馬)를 태복시(太僕寺)에서 바로 삼영(三營)에 분양(分養)할 것을 청하는 영돈녕 김조순(金祖淳)의 계

○ 계해년 윤2월 25일 진시에 임금이 영화당(暎花堂)으로 나아갔다. 약방이 들어와 진맥하고, 조마(調馬)할 때, 도제조 서용보(徐龍輔), 제조 이만수(李晩秀), 부제조 홍의호(洪義浩), 기사관 홍우섭(洪遇燮), 별겸춘추 김시근(金薯根)·조운익(趙雲翊), 직제학 김근순(金近淳), 우승지 박종경(朴宗慶), 영돈녕 김조순(金祖淳)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김조순이 아뢰기를, "군정(軍政)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말[馬]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삼영(三營)[26]에는 모두 관마(官馬)가 있었고, 본국(本局)에는 400여 필에까지 이르렀지만 중간에 분양이 혁파된 뒤로는 본국과 두 영(營)의 관마에 대한 법이 폐기되기를 기약하지 않았는데도 절로 폐기되었으니, 마병(馬兵)을 지탱하기 어려운 것과 기사(騎士)가 조폐(凋弊)해 진 것이 실로 심히 답답합니다. 태복시(太僕寺)의 말의 액수는 지금 모두 감축되었으니, 전과 같이 회복시키는 것은 비록 논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단지 편의에 따라서 변통할 수 있는 방도가 있습니다. 장용영(壯勇營)을 혁파하지 않

26) 삼영(三營): 훈련도감(訓鍊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의 세 군영(軍營)을 아울러 이르는 말. 삼군문(三軍門)이라고도 함.

았을 때는 제주(濟州)에서 해마다 바치는 공물로써 해마다 몇 필씩을 덜어내어 안팎의 영에 돌아가며 주었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러한 사례에 의거하여 해마다 바치는 공물에 나아가서 식년(式年)에는 150필로 한정하고, 보통의 해에는 70필로 한정하여 본시(本寺)에서 바로 내어주어 3분의 2는 훈국(訓局)에 붙이고, 3분의 1은 두 영에 붙인다면 당장에 비록 부족한 듯해도 세계(歲計)[27]는 반드시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마(貢馬)로써 해마다 올라오는 것은 약간의 반사(頒賜)[28] 외에는 별로 긴요하게 귀속될 곳이 없습니다. 이처럼 긴요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실제적인 내용이 있는 쓰임을 만드는 것이니 일의 체면을 헤아려 보건대,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금년부터 정식(定式)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29]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군정, 공마, 태복시, 삼영.

27) 세계(歲計):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의 총계.

28) 반사(頒賜): 임금이 녹봉(祿俸)이나 물건을 내려 나누어 주던 일.

29) 이상은《순조실록》순조 3년 윤2월 2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八年 癸亥 三月 十四日 戊申

○ 執義金孝眞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具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可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快正典刑.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3년(1803) 계해년 3월 14일(무신)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김효진(金孝眞)의 계

○ 집의 김효진(金孝眞)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八年 癸亥 四月 四日 戊辰

○ 李勉兢, 以武二所試官意啓曰, 臣所今日午時量開場, 應付擧子捧單, 自天字至地字半字, 爲九十七人, 陳試一人合九十八人內, 無緣不呈單, 京中二人, 江原道二人, 濟州三人, 而捧單實數九十一人矣. 先自木箭試取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3년(1803) 계해년 4월 4일(무진)

▢ 무과(武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단자(單子)를 올리지 않은 제주인(濟州人) 3인 등을 제외하여 먼저 목전(木箭)부터 시취(試取)하겠다는 이소시관(二所試官)의 계

○ 이면긍(李勉兢)이 무과(武科) 이소시관(二所試官)의 뜻으로 아뢰기를, “신의 소(所)가 오늘 오시 쯤에 개장(開場)하였습니다. 응시자에 대한 단자(單子)를 받아보니, 천자(天字)에서 지자(地字)의 반자(半字)에 이르기까지 97인이고, 진시(陳試)[30]가 1인으로 합 98인 내에 아무런 이유 없이 단자를 올리지 않은 자가 경중(京中) 2인, 강원도 2인, 제주(濟州) 3인으로, 단자를 받은 실제 숫자는 91인이었습니다. 목전(木箭)부터 시취(試取)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무과, 단자, 시취.

30) 진시(陳試): 과거의 초시에 입격한 사람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회시(會試)에 응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사유를 예조나 병조에 보고하고 다른 해의 회시에 응시하는 일. 여기서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킴.

❖ 嘉慶 八年 癸亥 四月 八日 壬申

○ 李勉兢, 以兵曹言啓曰, 卽接濟州人金鐘輯·申景周·文彦奎等呈狀, 則俱以今番增廣初試入格人上來之際, 猝遇風濤, 僅僅渡海, 今始入京, 則會試已過, 願赴謁聖武科云矣. 本州以候風越海之絶島, 不得任意往來, 故凡初試入格者, 許赴他科, 已有定式, 依例許赴於今此謁聖武科, 何如? 傳曰, 允.

❖ 순조 3년(1803) 계해년 4월 8일(임신)

▢ 풍랑으로 지체되어 무과(武科) 회시(會試)에 응시하지 못한 제주인(濟州人)의 요청대로 알성무과(謁聖武科)에 응시하게 할 것을 요청하는 병조의 계

○ 이면긍(李勉兢)이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인(濟州人) 김종집(金鐘輯)·신경주(申景周)·문언규(文彦奎) 등의 정장(呈狀)을 보니, 모두가 금번 증광초시(增廣初試) 입격인으로 올라올 때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겨우 바다를 건너 지금 비로소 서울에 들어왔는데, 회시(會試)가 이미 지났기에 알성무과(謁聖武科)에 응시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주(本州)는 후풍(候風)하여 바다를 건너는 섬이기에 임의로 왕래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무릇 초시에 입격한 자를 다른 과거에 응시하도록 허락하는 정식(定式)이 이미 있습니다. 규례대로 이번 알성무과에 응시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인, 무과, 회시.

❖ 嘉慶 八年 癸亥 五月 二十六日 己未

○ 癸亥五月二十六日辰時, 上御熙政堂. 大王大妃殿垂簾,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承旨金宗善, 假注書鄭祖榮, 事變假注書盧鑄 別兼春秋趙雲翊·徐有恂, 左議政徐龍輔, 右議政金觀柱, 兼禮曹判書李晩秀, 行兵曹判書趙尙鎭, 行戶曹判書趙鎭寬, 吏曹判書李書九, 刑曹判書蔡弘履, 行護軍李得濟·李仁秀, 行都承旨金達淳, 行大司憲李敬一, 行大司諫宋銓, 執義鄭景祚, 司諫朴瑞源, 掌令金星甲, 持平李在璣, 獻納尹久東, 校理李好敏, 副修撰李勉昇, 以次進伏訖. …… 敬一等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具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專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上曰, 不允. 【出擧條】…….

❖ 순조 3년(1803) 계해년 5월 26일(기미)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이경일(李敬一) 등의 계

○ 계해년 5월 26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왕대비전이 수렴(垂簾)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좌승지 김종선(金宗善), 가주서 정조영(鄭祖榮), 사변가주서 노박(盧鑄), 별겸춘추 조운익(趙雲翊)·서유순(徐有恂), 좌의정 서용보(徐龍輔), 우의정 김관주(金觀柱), 겸예조판서 이만수(李晩秀), 행병조판서 조상진(趙尙鎭), 행호조판서 조진관(趙鎭寬), 이조판서 이서구(李書九), 형조판서 채홍리(蔡弘履), 행호군 이득제(李得濟)·이인수(李仁秀), 행도승지 김달순(金達淳), 행대사헌 이경일(李敬一), 행대사간 송전(宋銓), 집의 정경조(鄭景祚), 사간 박서원(朴瑞源), 장령 김성갑(金星甲), 지평 이재기(李在璣), 헌납 윤구동(尹久東), 교리 이호민(李好敏), 부수찬 이면승(李勉昇)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경일[31] 등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31) 이경일(1734~1820): 본관 경주(慶州). 자 원회(元會). 호 청헌(聽軒).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이조참의, 황해도관찰사, 이조참판 역임. 저서《청헌유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八年 癸亥 五月 二十七日 庚申

○ 持平李在璣, 獻納尹久東, 副校理朴宗正, 副修撰申溆啓曰, 請鄭致達妻, 亟令王府, 快正典刑. …… 持平李在璣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啓辭還下】. …….

❖ 순조 3년(1803) 계해년 5월 27일(경신)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지평 이재기(李在璣)의 계

○ 지평 이재기, 헌납 윤구동, 부교리 박종정, 부수찬 신서(申溆)가 아뢰기를, "청컨대 정치달의 처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지평 이재기(李在璣)[32]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계사(啓辭)를 도로 내림】. 〈하략〉.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32) 이재기(1759~1818): 본관 전주(全州). 자 선시(善始). 호 눌암(訥菴). 1800년(정조 24) 문과 급제. 좌통례, 청송부사, 헌납 역임. 저서《눌암기략(訥菴記略)》.

❖ 嘉慶 八年 癸亥 六月 一日 甲子

○ 掌令玄重祚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3년(1803) 계해년 6월 1일(갑자)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현중조(玄重祚)의 계

○ 장령 현중조(玄重祚)가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八年 癸亥 六月 十二日 乙亥

○ 掌令玄重祚, 持平鄭彦仁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3년(1803) 계해년 6월 12일(을해)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현중조(玄重祚) 등의 계

○ 장령 현중조(玄重祚), 지평 정언인(鄭彦仁)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八年 癸亥 六月 十三日 丙子

○ 掌令玄重祚, 持平鄭彦仁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3년(1803) 계해년 6월 13일(병자)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현중조(玄重祚) 등의 계

○ 장령 현중조(玄重祚), 지평 정언인(鄭彦仁)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八年 癸亥 六月 十六日 己卯

○ 掌令玄重祚, 持平鄭彦仁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 答府曰, 亟停勿煩. …….

❖ 순조 3년(1803) 계해년 6월 16일(기묘)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현중조(玄重祚) 등의 계

○ 장령 현중조(玄重祚), 지평 정언인(鄭彦仁)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八年 癸亥 六月 二十日 癸未

○ 以濟州牧使李延弼狀啓, 進上靑橘·枳實, 未滿定例, 惶恐待罪, 傳于金近淳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3년(1803) 계해년 6월 20일(계미)

▢ 진상(進上)하는 청귤(靑橘)과 지실(枳實)을 정해진 규례대로 채우지 못해서 대죄(待罪)한다고 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의 장계에, 진상(進上)하는 청귤(靑橘)과 지실(枳實)을 정해진 규례대로 채우지 못해서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에 대하여 김근순(金近淳)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 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연필, 청귤, 지실, 진상, 대죄.

❖ 嘉慶 八年 癸亥 六月 二十一日 甲申

○ 林薯喆, 以吏曹言啓曰, 今日本曹開拆坐起時, 考見諸道褒貶啓本, 則鏡城判官姜文會, 以鄕或招謗官可自檢爲目, 比安縣監康聖翊, 以吏不可信戒之在此爲目, 旌義縣監鄭重祿, 以人旣柔善宜勉束濕爲目, 則俱宜置下考, 而置諸中考, 殊無嚴明殿最之意, 三道道臣·該牧使, 竝推考警責, 三邑守令, 竝罷黜, 何如? 傳曰, 允.

❖ 순조 3년(1803) 계해년 6월 21일(갑신)

▢ 포폄계본(褒貶啓本)에서 하고(下考)에 두었어야 하는데 중고(中考)에 둔 비안현감(比安縣監) 강성익(康聖翊)과 정의현감(旌義縣監) 정중록(鄭重祿) 등의 파출(罷黜)을 청하는 이조의 계

○ 임시철(林薯喆)이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금일 본조(本曹)가 개탁(開拆)[33]하여 좌기(坐起)할 때, 제도(諸道)에서 올린 포폄계본(褒貶啓本)을 살펴보니, 경성판관 강문회는 ‘향임(鄕任)으로 인하여 간혹 비방을 초래하였지만 관아에서 스스로 단속할 수 있다.’라고 지적되었고, 비안현감(比安縣監) 강성익(康聖翊)은 ‘하리(下吏)를 믿지 못하니, 이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되었고, 정의현감(旌義縣監) 정중록(鄭重祿)에 대해서는 ‘사람이 유선(柔善)하니 속습(束濕)[34]을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되었습니다. 모두 ‘하고(下考)’에 두었어야 하는데 ‘중고(中考)’에 두었으니, 엄정하게 전최(殿最)하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세 도의 관찰사와 해당 목사를 모두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하고, 세 읍의 수령을 아울러 파출(罷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비안현감, 강성익, 정의현감, 정중록, 포폄, 파출.

---

33) 개탁(開拆): 봉합되어 있는 편지나 서류를 뜯어 보는 것. 여기서는 포폄계본(褒貶啓本)을 뜯어보는 것을 이름.

34) 속습(束濕): 젖은 물건을 묶듯이 가혹하게 쥐어짜는 것을 말함. 여기서는 아랫사람을 철저하게 다스리는 것을 말함.

❖ 嘉慶 八年 癸亥 六月 二十四日 丁亥

○ 吏批三政. 以柳佺爲禁府都事, …… 朴宗林爲旌義縣監, …….

❖ 순조 3년(1803) 계해년 6월 24일(정해)

▢ 박종림(朴宗林)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이비(吏批)가 3차 정사(政事)를 하였다. 유전(柳佺)을 금부도사로 삼고, 〈중략〉 박종림(朴宗林)[35]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박종림, 정의현감.

35) 박종림(1764~?): 본관 문의(文義). 1792년(정조 16) 무과 급제. 정의현감(1803.8.도임~1806.2. 체임) 역임.

❖ 嘉慶 八年 癸亥 六月 二十五日 戊子

○ 以濟州牧使李延弼狀啓, 歲貢馬所載船, 未免臭載, 差使員旌義縣監鄭重祿, 爲先罷黜, 其罪狀, 令攸司稟處, 臣亦惶恐待罪事, 傳于林著喆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3년(1803) 계해년 6월 25일(무자)

▢ 세공마(歲貢馬)를 실은 배의 침몰에 대한 책임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의 장계에, 세공마(歲貢馬)를 실은 배가 침몰하는 것을 면치 못했으니, 차사원 정의현감(旌義縣監) 정중록(鄭重祿)을 우선 파출(罷黜)하여 그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고, 신 또한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임시철(林著喆)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세공마, 침몰, 정의현감, 정중록, 파출.

❖ 嘉慶 八年 癸亥 六月 二十五日 戊子

○ 癸亥六月二十五日辰時, 上御熙政堂. 藥房入診, 守令·邊將, 初仕人入侍時, 都提調金觀柱, 提調尹光普, 副提調林薈喆, 記事官朴宗琦, 別兼春秋金薈根·趙雲翊, 待教李教信, 醫官李敬培·李惟鑑·玄必采·吳仁豐·丁希泰·吳千根·李惟鐸·朴烓·安昌禧, 趙宗協, 安載述, 右承旨趙萬元, 右副承旨申鳳朝, 假注書洪冕燮, …… 旌義縣監朴宗林, …… 典獄參奉李台昇以次進伏, …… 上曰, 吏·兵房承旨進伏, 守令·邊將初仕人次次入侍, 奏職姓名, 可也. 守令·邊將初仕人, 各奏職姓名訖. …….

❖ 순조 3년(1803) 계해년 6월 25일(무자)

▢ 정의현감(旌義縣監) 박종림(朴宗林) 등 수령과 변장 초사인(初仕人)이 입시(入侍)하여 직책과 성명을 아룀.

○ 계해년 6월 25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약방이 들어가 진맥하고, 수령·변장 초사인(初仕人)이 입시(入侍)할 때, 도제조 김관주(金觀柱), 제조 윤광보(尹光普), 부제조 임시철(林薈喆), 기사관 박종기(朴宗琦), 별겸춘추 김시근(金薈根)·조운익(趙雲翊), 대교 이교신(李敎信), 의관 이경배(李敬培)·이유감(李惟鑑)·현필채(玄必采)·오인풍(吳仁豐)·정희태(丁希泰)·오천근(吳千根)·이유탁(李惟鐸)·박전(朴烓)·안창희(安昌禧), 조종협(趙宗協), 안재술(安載述), 우승지 조만원(趙萬元), 우부승지 신봉조(申鳳朝), 가주서 홍면섭(洪冕燮), 〈중략〉 정의현감(旌義縣監) 박종림(朴宗林), 〈중략〉 전옥참봉 이태승(李台昇)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이방승지와 병방승지는 앞으로 나와 엎드리고, 수령과 변장, 초사인은 차례로 입시하여 직책과 성명을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수령과 변장 초사인이 각기 직책과 성명을 아뢰었다. 〈하략〉.

△ 주제어: 정의현감, 박종림, 입시.

❖ 嘉慶 八年 癸亥 六月 二十六日 己丑

○ 趙萬元,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使李延弼狀啓內, 差使員旌義縣監鄭重祿, 爲先罷黜, 其罪狀, 令攸司稟處事, 啓下矣. 鄭重祿時在任所云, 依例發遣府羅將, 交代後拿來, 何如? 傳曰, 待待命拿囚.

❖ 순조 3년(1803) 계해년 6월 26일(기축)

▢ 정의현감(旌義縣監) 정중록(鄭重祿)을 본부 나장을 보내어 잡아오게 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조만원(趙萬元)[36]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의 장계 내에 차사원 정의현감(旌義縣監) 정중록(鄭重祿)을 우선 파출(罷黜)하고 그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에 대해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정중록은 지금 임소(任所)에 있다고 합니다. 규례대로 본부 나장을 보내어 교대한 후 잡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명(待命)하기를 기다려 잡아다 가두어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정중록, 파출.

36) 조만원(1762~1822): 본관 풍양(豊壤). 자 태시(泰始). 1794년(정조 18) 문과 급제. 한성판윤, 강화유수, 대사성 역임.

❖ 嘉慶 八年 癸亥 六月 二十九日 壬辰

○ 趙萬元,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歲貢馬二百匹內, 二十一匹淹失, 一匹船中故失, 二匹到津頭逃逸, 四十六匹訓鍊都監, 十二匹禁衛營, 十二匹御營廳軍馬分給, 二匹到本寺病留, 除實納馬一百四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3년(1803) 계해년 6월 29일(임진)

▢ 제주(濟州)에서 나온 선운 세공마(先運歲貢馬)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조만원(趙萬元)이 사복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선운 세공마(先運歲貢馬) 200필 내에 21필은 물에 빠져 잃어버렸고, 1필은 배 안에서 죽고, 2필은 진두(津頭)에 도착해서 도망갔고, 46필은 훈련도감, 12필은 금위영, 12필은 어영청에 군마(軍馬)로 나누어 주었고, 2필은 본시(本寺)에 도착하여 병이 나서 머물고 있어서 이러한 것을 제외하여 실제로 바치는 말 104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세공마, 나이, 털색, 별단.

❖ 嘉慶 八年 癸亥 七月 一日 癸巳

○ 趙萬元,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運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凶咎駑駘二十匹, 合八十八匹內, 四匹淹失, 一匹船中故失, 四匹到中路故失, 六匹到廣州逃逸, 一匹到本寺病留除, 實納馬七十二匹, 禾毛色別單書入, 而莫重貢馬, 不善護送, 逃逸之數, 至於六匹之多, 事極駭然. 當該地方官, 令該府拿處, 何如? 傳曰, 允.

❖ 순조 3년(1803) 계해년 7월 1일(계사)

▢ 제주(濟州)에서 나온 후운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등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면서 호송을 잘하지 못한 해당 지방관을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다 처리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조만원(趙萬元)이 사복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후운(後運)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8필, 삼명일진상마(三名日進上馬) 60필, 흉구노태마(凶咎駑駘馬) 20필, 합 88필 내에 4필은 물에 빠져 잃어버렸고, 1필은 배 안에서 죽고, 4필은 중로(中路)에 도착해서 죽고, 6필은 광주(廣州)에 도착해서 달아났고, 1필은 본시(本寺)에 도착해서 병이 나서 머무는 것을 제외하여 실제로 바치는 말 72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막중한 공마(貢馬)의 호송을 잘하지 못하고 도망가 잃어버린 수가 6필에 이르렀으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해당 지방관을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다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연례진상마, 삼명일진상마, 흉구노태마, 별단.

❖ 嘉慶 八年 癸亥 七月 四日 丙申

○ 閔命爀啓曰, 卽者吏曹郎廳來言, 明川府使柳英逵, …… 旌義縣監朴宗林, 兩司俱未署經云, 除在外·未署經外, 未肅拜·呈告兩司諸臺, 竝卽牌招, 以爲備員署經之地, 何如? 傳曰, 允.

❖ 순조 3년(1803) 계해년 7월 4일(병신)

▢ 정의현감(旌義縣監) 박종림(朴宗林) 등의 서경(署經)을 청하는 이조낭청의 계

○ 민명혁(閔命爀)이 아뢰기를, "방금 이조낭청이 와서 말하기를, 명천부사 유영규(柳英逵), 〈중략〉 정의현감(旌義縣監) 박종림(朴宗林)이 양사(兩司)의 서경(署經)[37]을 모두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방에 있거나 서경을 거치지 않은 자를 제외하고 아직 숙배(肅拜)하지 않았거나 정고(呈告)[38]한 양사의 대신(臺臣)들을 모두 즉시 패초(牌招)하여 인원을 갖추어 서경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박종림, 서경.

---

37) 서경(署經): 임금이 관원을 서임(敍任)한 뒤 그 사람의 성명·문벌·이력을 갖추어 써서 대간(臺諫)에게 그 가부(可否)를 구하던 일. 즉 임금이 새로 관리를 임명하던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에서 신임관의 내외 사조(內外四祖), 이력, 문벌과 아내의 사조(四祖)를 기록하여 대간에 회부하면, 대간에서는 이를 세밀히 심사하여 신임관의 본인에게나 내외 사조 등에 결점이 있으면 서명을 거부 하였음. 50일 이내에 서경을 거치지 않으면 관원은 취임할 수 없었음.

38) 정고(呈告): 소장(訴狀)을 관아에 바치는 것으로, 특히 벼슬을 사양하거나 말미를 청할 때 휴가를 신청하는 것을 말함.

❖ 嘉慶 八年 癸亥 七月 十一日 癸卯

○ 掌令崔雲翰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府曰, 亟停勿煩. …….

❖ 순조 3년(1803) 계해년 7월 11일(계묘)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최운한(崔雲翰)의 계

○ 장령 최운한(崔雲翰)[39]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39) 최운한(1752~?): 본관 청송(靑松). 1782년(정조 6) 문과 급제.

❖ 嘉慶 八年 癸亥 七月 十五日 丁未

○ 掌令崔雲翰, 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3년(1803) 계해년 7월 15일(정미)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최운한(崔雲翰)의 계

○ 장령 최운한(崔雲翰)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八年 癸亥 八月 九日 辛未

○ 李海愚, 以備邊司言啓曰, 濟州牧使李延弼, 在任身死矣. 曾經閫帥, 依法典, 返柩時擔軍題給事, 分付所經各道, 何如? 傳曰, 允.

❖ 순조 3년(1803) 계해년 8월 9일(신미)

▢ 임기 중에 죽은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의 반구(返柩)에 지나는 각 도(道)에서 담군(擔軍)을 제급(題給)하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이해우(李海愚)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연필(李延弼)이 임기 중에 죽었습니다. 일찍이 곤수(閫帥)를 지냈으니, 법전대로 반구(返柩)할 때 담군(擔軍)을 제급(題給)하도록 지나는 각 도(道)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40]

△ 주제어: 제주목사, 이연필, 반구, 담군, 제급.

40) 이상은《비변사등록》순조 3년 8월 9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八年 癸亥 八月 十日 壬申

○ 備邊司薦望, 以柳畊爲濟州牧使.

❖ 순조 3년(1803) 계해년 8월 10일(임신)

▢ 유경(柳畊)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천망(薦望)함

○ 비변사가 유경(柳畊)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천망(薦望)했다.

△ 주제어: 유경, 제주목사, 천망.

❖ 嘉慶 八年 癸亥 八月 十二日 甲戌

○ 有政. 吏批, 判書·參判未差, 參議任希存進, 左副承旨金履永進. 啓曰, 判書·參判俱未差, 小臣獨政未安, 何以爲之? 敢稟. 傳曰, 只出緊任. 以金載翼爲刑曹參議, …… 濟州牧使單柳畊, 今加通政加資事, 承傳.

❖ 순조 3년(1803) 계해년 8월 12일(갑술)

▢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유경(柳畊)을 단부(單付)하고 통정대부를 가자(加資)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와 참판은 아직 차임되지 않았고, 참의 임희존(任希存)이 나왔고, 좌부승지 김이영(金履永)이 나왔다. 아뢰기를, "판서와 참판이 모두 아직 차임되지 않아서 소신이 혼자 정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긴요한 직임만 차출하라."라고 하였다. 김재익을 형조참의로 삼았다.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유경(柳畊)을 단부(單付)하고, 지금 통정대부를 가자(加資)하였는데, 승전(承傳)을 받든 것이다.

△ 주제어: 유경, 제주목사, 단부, 통정대부, 가자.

❖ 嘉慶 八年 癸亥 八月 十二日 甲戌

○ 金達淳, 以吏批言啓曰, 新除授濟州牧使柳畊, 前任昆陽郡守時, 解由未及成出, 何以爲之? 敢稟. 傳曰, 勿拘.

❖ 순조 3년(1803) 계해년 8월 12일(갑술)

▢ 전임지에서의 해유(解由)를 작성해 내지 않은 신임 제주목사(濟州牧使) 유경(柳畊)의 처리를 묻는 이비(吏批)의 계

○ 김달순(金達淳)이 이비(吏批)의 말로 아뢰기를, "새로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된 유경(柳畊)이 전임 곤양군수(昆陽郡守) 시 해유(解由)[41]를 미처 작성해 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구애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유경, 해유.

41) 해유(解由): 관원이 벼슬에서 물러날 때, 자신이 맡아보던 회계, 물품 출납 등의 사무를 후임자에게 넘기고 이상이 없음을 호조에 보고하여 책임에서 벗어나는 일을 말함.

❖ 嘉慶 八年 癸亥 八月 十九日 辛巳

○ 掌令柳烇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也.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鋪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府曰, 亟停勿煩. …….

❖ 순조 3년(1803) 계해년 8월 19일(신사)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유전(柳烇)의 계

○ 장령 유전(柳烇)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八年 癸亥 八月 二十三日 乙酉

○ 掌令金孝秀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3년(1803) 계해년 8월 23일(을유)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김효수(金孝秀)의 계

○ 장령 김효수(金孝秀)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八年 癸亥 八月 二十八日 庚寅

○ 備忘記, 濟州牧使柳畊下直, 長弓一張, 長箭一部, 片箭一部, 筒兒一箇賜給.

❖ 순조 3년(1803) 계해년 8월 28일(경인)

▢ 제주목사(濟州牧使) 유경(柳畊)에게 장궁(長弓) 등을 사급(賜給)하라는 비망기

○ 비망기(備忘記)에, "제주목사(濟州牧使) 유경(柳畊)이 하직(下直)하니, 장궁(長弓) 1장(張), 장전(長箭) 1부(部), 편전(片箭) 1부, 통아(筒兒) 1개를 사급(賜給)하라." 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유경, 하직.

❖ 嘉慶 八年 癸亥 九月 一日 癸巳

○ 掌令具晉行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3년(1803) 계해년 9월 1일(계사)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구진행(具晉行)의 계

○ 장령 구진행(具晉行)[42]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42) 구진행(1737~?): 본관 능성(綾城). 1798년(정조 22) 문과 급제.

❖ 嘉慶 八年 癸亥 九月 二十三日 乙卯

○ 金宗善,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改封進〈上〉馬二十五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3년(1803) 계해년 9월 23일(을묘)

▢ 제주(濟州)에서 개봉(改封)하는 진상마(進上馬)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김종선(金宗善)이 사복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개봉(改封)하는 진상마(進上馬) 25필이 방금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진상마, 개봉, 별단.

❖ 嘉慶 八年 癸亥 九月 二十三日 乙卯

○ 金宗善,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前牧使遞任進上馬三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3년(1803) 계해년 9월 23일(을묘)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김종선(金宗善)이 사복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이 방금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면서 규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체임진상마, 별단.

❖ 嘉慶 八年 癸亥 九月 二十四日 丙辰

○ 閔命爀,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旌義前縣監鄭重祿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3년(1803) 계해년 9월 24일(병진)

▢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정중록(鄭重祿)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민명혁(閔命爀)[43]이 사복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정중록(鄭重祿)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방금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면서 규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체임진상마, 별단.

43) 민명혁(1753~1818): 본관 여흥(驪興). 자 명여(明汝). 시호 숙헌(肅獻). 1795년(정조 19) 문과 급제. 해주판관, 수안군수, 신천군수 역임.

❖ 嘉慶 八年 癸亥 九月 二十七日 己未

○ 掌令尹孝寬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答府曰, 亟停勿煩. …….

❖ 순조 3년(1803) 계해년 9월 27일(기미)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윤효관(尹孝寬)의 계

○ 장령 윤효관(尹孝寬)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八年 癸亥 九月 二十九日 辛酉

○ 義禁府啓目, 旌義前縣監鄭重祿原情云云, 問目內辭緣, 泛稱遲晩, 刑推得情, 何如? 判付啓, 除刑推議處爲良如敎.

❖ 순조 3년(1803) 계해년 9월 29일(신유)

▢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정중록(鄭重祿)에 대해 형추(刑推)하지 말고 의논하여 처리하라는 전교

○ 의금부의 계목(啓目)에,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정중록(鄭重祿)의 원정(原情) 운운에 대하여 문목(問目) 내 내용을 범연(泛然)히 지만(遲晩)하였으니, 형추(刑推)하여 실정을 알아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형추는 그만두고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정중록, 형추, 처리.

❖ 嘉慶 八年 癸亥 十月 五日 丙寅

○ 禁府啓目粘連, 旌義前縣監鄭重祿矣, 本府議啓內, 貢馬事體, 何等重大, 而發船之際, 初不審愼, 至有大洋致敗, 同舟之人命, 雖幸拯救, 一船之馬匹, 未免傷斃, 則身爲差使員, 不善檢飭之罪, 在所難逭. 以此照律, 罪杖八十收贖, 奪告身三等私罪, 奉敎依允.

❖ 순조 3년(1803) 계해년 10월 5일(병인)

▢ 공마(貢馬)를 실은 배를 띄워보낼 때에 검칙을 잘하지 못한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정중록(鄭重祿)에 대해 장(杖) 80대에 속전(贖錢)을 거두고, 고신(告身)을 3등 추탈(追奪)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의 계목점련(啓目粘連)에,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정중록(鄭重祿)에 대해 본부 의계(議啓) 내에 공마(貢馬)의 사체(事體)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데, 배를 띄워보낼 때에 애초에 살펴 삼가지 않아서 대양에서 침몰함에 이르게 하였으니, 함께 배를 탄 인명은 비록 다행히 구조해 내었다고는 하지만, 한 척에 실었던 말은 다쳐 죽는 것을 면하지 못했으니, 자신이 차사원이 되어서 검칙을 잘하지 못한 죄를 피하기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조율(照律)하니, 죄가 장(杖) 80대에 속전(贖錢)을 거두고, 고신(告身)을 3등 추탈(追奪)하는 데에 해당하는 사죄(私罪)입니다.”라고 하였다. 봉교의윤(奉敎依允)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정중록, 공마, 침몰, 고신, 추탈.

❖ 嘉慶 八年 癸亥 十月 八日 己巳

○ 掌令李燮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之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3년(1803) 계해년 10월 8일(기사)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이섭(李燮)의 계

○ 장령 이섭(李燮)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八年 癸亥 十月 九日 庚午

○ 掌令李燮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3년(1803) 계해년 10월 9일(경오)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이섭(李燮)의 계

○ 장령 이섭(李燮)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八年 癸亥 十月 二十日 辛巳

○ 持平金驥燦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3년(1803) 계해년 10월 20일(신사)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지평 김기찬(金驥燦)의 계

○ 지평 김기찬(金驥燦)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八年 癸亥 十月 二十一日 壬午

○ 掌令李燮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3년(1803) 계해년 10월 21일(임오)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이섭(李燮)의 계

○ 장령 이섭(李燮)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八年 癸亥 十月 二十七日 戊子

○ 執義權晙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3년(1803) 계해년 10월 27일(무자)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권준(權晙)의 계

○ 집의 권준(權晙)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八年 癸亥 十一月 二十九日 庚申

○ 行大司憲李敬一, 掌令洪光一·李東萬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3년(1803) 계해년 11월 29일(경신)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이경일(李敬一) 등의 계

○ 행대사헌 이경일(李敬一), 장령 홍광일(洪光一)[44]·이동만(李東萬)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44) 홍광일(1738~1822): 본관 남양(南陽). 자 백승(伯承). 호 화서(華西). 1776년(영조 52) 문과 급제. 경성판관, 한성부좌윤, 동지돈녕부사 역임. 저서 《화서유고》.

❖ 嘉慶 八年 癸亥 十二月 一日 壬戌

○ 以濟州牧使柳畊狀啓, 薦新進上柑橘代封, 惶恐待罪事, 傳于金近淳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3년(1803) 계해년 12월 1일(임술)

▢ 천신(薦新)과 진상(進上)으로 올리는 감귤(柑橘)을 대봉(代封)하였기에 대죄(待罪)한다고 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유경(柳畊)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유경(柳畊)의 장계에, 천신(薦新)과 진상(進上)으로 올리는 감귤(柑橘)을 대신 봉진(封進)하였기에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김근순(金近淳)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유경, 천신, 감귤, 대봉, 대죄.

❖ 嘉慶 八年 癸亥 十二月 一日 壬戌

○ 金近淳, 以禮曹言啓曰, 卽接濟州牧使柳畊狀啓謄本, 則去十月令宗廟·景慕宮薦新唐金橘, 無以備數, 謹援已例, 四十四箇都封上送, 以爲稟旨薦獻之地爲辭矣, 在前橘果稀結之時, 雖未備數, 多有減數薦獻之例, 今亦依前例分排, 當日薦進, 何如? 傳曰, 允.

❖ 순조 3년(1803) 계해년 12월 1일(임술)

▢ 제주(濟州)에서 10월령 천신(薦新)으로 봉진(封進)한 당금귤(唐金橘)의 부족으로 인해 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에 분배하여 천진(薦進)하는 일에 관한 예조의 계

○ 김근순(金近淳)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유경(柳畊)의 장계등본(狀啓謄本)을 보니, 지난 10월령 종묘(宗廟)·경모궁(景慕宮)에 천신(薦新)하는 당금귤(唐金橘)의 수량을 갖출 수 없어서 삼가 전례를 원용(援用)하여 44개를 모두 봉하여 올려 보내면서 임금께 여쭈어 천헌(薦獻)하라고 하였습니다. 전에 귤과(橘果)의 결실이 드문 때는 비록 수량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량을 감하여 천헌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한 전례에 의거하여 분배하고, 당일 천진(薦進)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천신, 당금귤, 종묘, 경모궁.

❖ 嘉慶 八年 癸亥 十二月 二日 癸丑[癸亥]

○ 以濟州防禦使柳畊狀啓, 薦新與進上橘果不得如數封進, 惶恐待罪事, 傳于徐瀅修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3년(1803) 계해년 12월 2일(계축[계해])

▢ 천신(薦新)과 진상(進上)으로 올리는 귤과(橘果)를 수량대로 봉진(封進)하지 않았기에 대죄(待罪)한다고 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유경(柳畊)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유경(柳畊)의 장계에, 천신(薦新)과 진상(進上)으로 올리는 귤과(橘果)를 수량대로 봉진(封進)할 수가 없기에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서형수(徐瀅修)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방어사, 유경, 천신, 진상, 귤과, 봉진, 대죄.

❖ 嘉慶 八年 癸亥 十二月 二日 癸丑[癸亥]

○ 徐瀅修, 以禮曹言啓曰, 卽接濟州牧使柳畊狀啓謄報, 則乳柑·洞庭橘, 極甚稀結, 不得如例封進, 今十二月令宗廟·景慕宮薦新乳柑一百八十二箇, 宗廟薦新洞庭橘一百九十一箇, 都封上送, 以爲稟旨進獻之地爲辭矣. 本島橘果, 旣甚稀結, 雖未備數, 依已例分排, 當日薦進, 何如? 傳曰, 允.

❖ 순조 3년(1803) 계해년 12월 2일(계축[계해])

▢ 제주(濟州)에서 12월령 천신(薦新)으로 봉진(封進)한 유감(乳柑)과 동정귤(洞庭橘)의 부족으로 인해 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에 분배하여 천진(薦進)하는 일에 관한 예조의 계

○ 서형수(徐瀅修)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유경(柳畊)의 장계등보(狀啓謄報)을 보니, 유감(乳柑)과 동정귤(洞庭橘)의 결실이 아주 드물어서 규례대로 봉진(封進)할 수 없어 금번 12월령 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에 천신(薦新)하는 유감 182개, 종묘에 천신하는 동정귤 191개를 모두 봉(封)하여 올려 보내면서 임금께 여쭈어 진헌(進獻)하라고 하였습니다. 본도(本島)에 귤과(橘果)가 아주 드물게 결실하였으니, 비록 수량을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존 사례대로 분배하여 당일 천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천신, 유감, 동정귤, 종묘, 경모궁.

❖ 嘉慶 八年 癸亥 十二月 三日 甲子

○ 徐瀅修, 以禮曹言啓曰, 來正朝方物, 因特敎勿爲封進之意行會矣, 關文未到之前, 濟州牧所封大殿正朝方物, 已爲上來, 所當還爲下送, 而越海之地, 亦涉有弊, 何以爲之? 敢稟. 傳曰, 以陳賀方物移捧, 可也.

❖ 순조 3년(1803) 계해년 12월 3일(갑자)

▢ 제주목(濟州牧)에서 봉진(封進)한 정조방물(正朝方物)을 진하방물(陳賀方物)로 옮겨 받도록 하라는 전교

○ 서형수(徐瀅修)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오는 정조방물(正朝方物)을 특교(特敎)로 인하여 봉진(封進)하지 말도록 하는 뜻을 행회(行會)하였는데, 관문(關文)이 도착하기 전에 제주목(濟州牧)에서 대전(大殿)에 봉진하는 정조방물이 이미 올라왔습니다. 마땅히 도로 내려보내야 하지만 바다를 건너야 하는 곳이어서 또한 폐단이 있을 수 있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진하방물(陳賀方物)로 옮겨 받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봉진, 정조방물.

❖ 嘉慶 八年 癸亥 十二月 三日 甲子

○ 朴崙壽,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濟州牧使柳畊災實狀啓, 則分等不爲擧論, 仍以爲, 數件應行之事, 從便措處, 開錄于左, 而候風涉海, 遲速無期, 謹依已例, 一邊馳啓, 一邊擧行, 請令廟堂稟旨分付矣. 其一, 舊還督捧, 恐傷民力, 仍爲停退事也, 其一, 逃老故病廢之類, 嚴飭各該邑, 一一塡充, 待明春, 從附近哨司鍊事也, 舊還停捧, 軍兵操鍊之停退等事, 先擧行後狀聞, 便成已例, 竝依狀請施行, 何如? 傳曰, 允.

❖ 순조 3년(1803) 계해년 12월 3일(갑자)

▢ 제주목사(濟州牧使) 유경(柳畊)이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구환(舊還)을 정봉(停捧)하고 군병의 조련(操鍊)을 정퇴(停退)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박윤수(朴崙壽)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유경(柳畊)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니, 분등(分等)을 거론하지 않고, 그대로 '몇 건의 응당 해야 할 일을 편의에 따라 조처하여 아래에 개록(開錄) 하였는데, 바람을 기다려 바다를 건너는 것이 그 늦고 빠름을 기약할 수 없기에 삼가 전례에 의거하여 한편으로는 치계(馳啓)하고 한편으로는 거행하니 청컨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분부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구환(舊還)을 독촉하여 거두는 것이 민력(民力)을 상하게 할까 염려되니 그대로 멈추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도망가거나 늙거나 죽거나 병들어서 폐인(廢人)이 된 부류는 각 해당 읍에 엄히 타일러 경계하여 일일이 충정(充定)하되, 내년 봄을 기다려 부근의 초사(哨司)에서 조련(操鍊)하는 일입니다. 구환의 정봉(停捧)과 군병 조련의 정퇴(停退) 등의 일은 먼저 거행한 후에 장계로 보고하는 것이 곧 전례가 되었으니, 모두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45]

△ 주제어: 제주목사, 유경, 재실장계, 구환, 조련.

45) 이상은《비변사등록》순조 3년 12월 3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1804年

(순조 4)



❖ 嘉慶 九年 甲子 一月 九日 己亥

○ 執義閔師宣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施設,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4년(1804) 갑자년 1월 9일(기해)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민사선(閔師宣)의 계

○ 집의 민사선(閔師宣)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九年 甲子 一月 二十六日 丙辰

○ 執義李基慶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可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4년(1804) 갑자년 1월 26일(병진)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이기경(李基慶)의 계

○ 집의 이기경(李基慶)[46]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46) 이기경(1756~1819): 본관 전주(全州). 자 휴길(休吉). 호 척암(瘠菴). 1789년(정조 13) 문과 급제. 병조좌랑, 정언, 이조좌랑 역임. 저서 《사교징치(邪敎懲治)》.

❖ 嘉慶 九年 甲子 一月 二十八日 戊午

○ 金宗善啓曰, 奏御文字, 所當審愼, 而全羅監司韓用龜, 濟州三邑守令去癸亥年秋冬等褒貶啓本中, 濟州判官趙慶遠等第, 只書七字, 事極疎忽, 不可無警, 推考, 何如? 傳曰, 允.

❖ 순조 4년(1804) 갑자년 1월 28일(무오)

▢ 제주(濟州)3읍 수령에 대한 계해년 추동등(秋冬等) 포폄계본(褒貶啓本)을 소홀히 한 전라감사(全羅監司) 한용구(韓用龜)의 추고(推考)를 청하는 김종선(金宗善)의 계

○ 김종선(金宗善)이 아뢰기를, "임금께 아뢰는 문자는 신중히 해야 하는데, 전라감사(全羅監司) 한용구(韓用龜)는 제주(濟州)3읍 수령에 대한 지난 계해년 추동등(秋冬等) 포폄계본(褒貶啓本) 중에 제주판관(濟州判官) 조경원(趙慶遠)의 등제(等第)에 단지 7자만을 썼습니다. 일이 매우 소홀하니, 경책(警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전라감사, 한용구, 포폄계본, 제주판관, 조경원.

❖ 嘉慶 九年 甲子 一月 二十八日 戊午

○ 以濟州牧使柳畊狀啓, 靑橘今始就熟, 不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沈象奎曰, 卿其勿待罪事, 回諭.

❖ 순조 4년(1804) 갑자년 1월 28일(무오)

▢ 청귤(靑橘)을 규례대로 봉진(封進)할 수 없어 대죄(待罪)한다고 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유경(柳畊)에 대해 대죄(待罪)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유경(柳畊)의 장계에, 청귤(靑橘)이 지금에야 익기 시작해서 규례대로 봉진(封進)할 수 없어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심상규(沈象奎)에게 전교하기를, "경(卿)은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유경, 청귤, 봉진, 대죄.

❖ 嘉慶 九年 甲子 一月 二十八日 戊午

○ 甲子正月二十八日辰時, 上御觀物軒. 諸承旨持公事入侍時, 行左承旨洪義浩, 右承旨沈象奎, 左副承旨金宗善, 右副承旨李溏, 記事官朴宗琦, 假注書鄭觀綏, 別兼春秋洪秉喆·金薈根, 以次進伏訖. …… 溏曰, 臣戶房矣. 讀奏濟州牧使柳畊啓本, 老人歲饌題給事. 濟州牧使柳畊啓本, 收租成冊上送事. 溏曰, 卽伏見濟州牧使柳畊老人歲饌題給事啓本, 則年月不書於另貼, 有違格例, 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 溏曰, 臣工房代房矣. 讀奏濟州牧使柳畊啓本, 各邑各果園所在黃漆木等, 株數成冊開錄事. 上下公事判付訖. 仍命退, 承史以次退出.

❖ 순조 4년(1804) 갑자년 1월 28일(무오)

▢ 우부승지 이당(李溏) 등이 입시하여 제주목사(濟州牧使) 유경(柳畊)의 계본에서 노인에게 세찬(歲饌)을 제급(題給)한 일, 수조(收租)를 성책(成冊)하여 올려 보낸 일, 각 과원에 소재하는 황칠나무 등의 그루 수를 성책(成冊)하여 개록(開錄)한 일 등을 임금에게 읽어 아룀

○ 갑자년 1월 28일 진시에 임금이 관물헌(觀物軒)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행좌승지 홍의호(洪義浩), 우승지 심상규(沈象奎), 좌부승지 김종선(金宗善), 우부승지 이당(李溏), 기사관 박종기(朴宗琦), 가주서 정관수(鄭觀綏), 별겸춘추 홍병철(洪秉喆)·김시근(金蓍根)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당이 아뢰기를, "신은 호방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제주목사(濟州牧使) 유경(柳畊)의 계본에서 노인에게 세찬(歲饌)을 제급(題給)한 일과 제주목사 유경의 계본에서 수조(收租)를 성책(成冊)하여 올려 보낸 일을 읽어 아뢰었다. 이당이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 유경이 노인에게 세찬을 제급한 일과 관련한 계본을 보니, 연월(年月)을 별도의 첩(貼)에 쓰지 않았으니, 격례(格例)에 어긋납니다.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중략〉 이당이 아뢰기를, "신은 공방 대방(工房代房)[47]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제주목사 유경의 계본에서 각 읍 각

47) 공방대방(工房代房): 대방은 다른 방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뜻으로, 승정원 해당 방의 승지가 사정이 생겨서 업무를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신 볼 수 있도록 두 방씩 짝을 지어 놓았는데, 이를 말함. 이방과 예방, 호방과 공방, 병방과 형방이 서로 대방이 되었음.

과원에 소재하는 황칠나무 등의 그루 수를 성책하여 개록(開錄)한 일을 읽어 아뢰었다. 상하공사(上下公事)와 관련한 판부(判付)가 끝났다. 이어 물러가라고 명하니, 승지와 사관이 차례로 물러나왔다.

△ 주제어: 제주목사, 유경, 세찬, 수조, 황칠나무.

❖ 嘉慶 九年 甲子 二月 一日 辛酉

○ 甲子二月初一日辰時, 上御觀物軒. 都承旨·左承旨·右承旨·左副承旨·同副承旨入侍時, 行都承旨南公轍, 行左承旨洪義浩, 右承旨沈象奎, 左副承旨金宗善, 同副承旨朴命燮, 假注書朴宗薰, 別兼春秋洪秉喆·金薯根, 以次進伏訖. …… 宗善讀奏全羅監司韓用龜啓本, 濟州牧使柳畊封進箋文上送事. …….

❖ 순조 4년(1804) 갑자년 2월 1일(신유)

▢ 좌부승지 김종선(金宗善)이 전라감사(全羅監司) 한용구(韓用龜)의 계본에서 제주목사(濟州牧使) 유경(柳畊)이 전문(箋文)을 봉진(封進)하여 올려보낸 일을 읽어 아룀

○ 갑자년 2월 1일 진시에 임금이 관물헌(觀物軒)으로 나아갔다. 도승지·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동부승지가 입시할 때, 행도승지 남공철(南公轍), 행좌승지 홍의호(洪義浩), 우승지 심상규(沈象奎), 좌부승지 김종선(金宗善), 동부승지 박명섭(朴命燮), 가주서 박종훈(朴宗薰), 별겸춘추 홍병철(洪秉喆)·김시근(金薯根)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김종선이 전라감사(全羅監司) 한용구(韓用龜)의 계본에서 제주목사(濟州牧使) 유경(柳畊)이 전문(箋文)을 봉진(封進)하여 올려보낸 일을 읽어 아뢰었다. 〈하략〉.

△ 주제어: 전라감사, 한용구, 제주목사, 유경, 전문.

❖ 嘉慶 九年 甲子 二月 九日 己巳

○ 甲子二月初九日申時, 上御觀物軒. 右副承旨入侍時, 右副承旨李溏, 假注書朴宗薰, 別兼春秋洪秉喆·金薯根, 以次進伏訖. 上曰, 濟州牧使·三邑守令褒貶啓本, 還入, 可也. 賤臣, 承命持入. …….

❖ 순조 4년(1804) 갑자년 2월 9일(기사)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3읍 수령(守令)을 포폄(褒貶)한 계본을 도로 들이도록 하라는 전교

○ 갑자년 2월 9일 신시에 임금이 관물헌(觀物軒)으로 나아갔다. 우부승지가 입시할 때, 우부승지 이당(李溏), 가주서 박종훈(朴宗薰), 별겸춘추 홍병철(洪秉喆)·김시근(金薯根)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가 3읍 수령(守令)을 포폄(褒貶)한 계본을 도로 들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천신이 명을 받들고 가지고 들어왔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3읍, 수령, 포폄.

❖ 嘉慶 九年 甲子 二月 十一日 辛未

○ 執義李基慶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具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府曰, 亟停勿煩. …….

❖ 순조 4년(1804) 갑자년 2월 11일(신미)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이기경(李基慶)의 계

○ 집의 이기경(李基慶)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九年 甲子 二月 十三日 癸酉

○ 魚在瓚爲漢城主簿, …… 金弼龍爲大靜縣監, …….

❖ 순조 4년(1804) 갑자년 2월 13일(계유)

▢ 김필룡(金弼龍)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어재찬(魚在瓚)을 한성주부로 삼았다. 〈중략〉 김필룡(金弼龍)[48]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김필룡, 대정현감.

48) 김필룡(1781~?): 본관 김해(金海). 자 운서(雲瑞). 1789년(정조 13) 문과 급제. 전적, 대정현감(1804.3.도임~1805.6.체임) 역임.

❖ 嘉慶 九年 甲子 二月 十四日 甲戌

○ 洪義浩啓曰, 卽者吏曹郎廳來言, 巨濟府使沈能俊, …… 大靜縣監金弼龍, …… 果川縣監李審度, 兩司俱未署經云, 除在外·未署經外, 未肅拜·呈告人員, 竝卽牌招, 以爲備員署經之地, 何如? 傳曰, 允.

❖ 순조 4년(1804) 갑자년 2월 14일(갑술)

▢ 대정현감(大靜縣監) 김필룡(金弼龍) 등의 서경(署經)을 청하는 이조낭청의 계

○ 홍의호(洪義浩)가 아뢰기를, “방금 이조낭청이 와서 말하기를, 거제부사 심능준(沈能俊), 〈중략〉 대정현감(大靜縣監) 김필룡(金弼龍), 〈중략〉 과천현감 이심도(李審度)가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을 모두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방에 있거나 서경을 거치지 않은 자를 제외하고 아직 숙배(肅拜)하지 않았거나 정고(呈告)한 인원을 모두 즉시 패초(牌招)하여 인원을 갖추어 서경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김필룡, 서경.

❖ 嘉慶 九年 甲子 二月 十四日 甲戌

○ 甲子二月十四日辰時, 上御熙政堂. 吏·兵房承旨與閫帥·守令·邊將初仕人入侍時, 行左承旨洪義浩, 左副承旨金宗善, 記事官洪在敏, 別兼春秋洪秉喆·趙雲翊, …… 大靜縣監金弼龍, …… 以次入庭下訖. 上曰, 吏·兵房承旨進伏, 守令以次進奏職姓名, 可也. …….

❖ 순조 4년(1804) 갑자년 2월 14일(갑술)

▢ 대정현감(大靜縣監) 김필룡(金弼龍) 등 입시(入侍)한 수령 초사인(初仕人) 등에게 직책과 성명을 아뢰도록 하라는 전교

○ 갑자년 2월 14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이·병방승지와 곤수·수령·변장 초사인(初仕人)이 입시(入侍)할 때, 행좌승지 홍의호(洪義浩), 좌부승지 김종선(金宗善), 기사관 홍재민(洪在敏), 별겸춘추 홍병철(洪秉喆)·조운익(趙雲翊), 〈중략〉 대정현감(大靜縣監) 김필룡(金弼龍), 〈중략〉 차례로 뜰 아래로 내려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병방승지는 나와 엎드리고, 수령은 차례로 나와 직책과 성명을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감, 김필룡, 입시.

❖ 嘉慶 九年 甲子 二月 十六日 丙子

○ 甲子二月十六日申時, 上御重熙堂. 左承旨與下直守令入侍時, 行左承旨洪義浩, 右承旨沈象奎, 記事官洪在敏, 別兼春秋洪秉喆·徐有恂, 巨濟府使沈能俊, …… 大靜縣監金弼龍, …… 果川縣監李審度, 以次進伏訖. …… 仍命守令, 次次進前. 弼龍, 進奏職姓名·七事, 上曰, 何謂也? 弼龍曰, 農不奪時, 衣食自足, 明其政治, 戶數可增, 對揚休命, 敎化可興. 軍政則祛其紊亂, 賦役則務極均平, 聽訟則審其曲直, 以底於簡, 而律己自修, 則奸猾不敢售矣. 上曰, 下去善爲之, 可也. …….

❖ 순조 4년(1804) 갑자년 2월 16일(병자)

▢ 대정현감(大靜縣監) 김필룡(金弼龍)이 입시(入侍)하여 수령칠사(守令七事)를 아룀

○ 갑자년 2월 16일 신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좌승지와 하직하는 수령이 입시(入侍)할 때, 행좌승지 홍의호(洪義浩), 우승지 심상규(沈象奎), 기사관 홍재민(洪在敏), 별겸춘추 홍병철(洪秉喆)·서유순(徐有恂), 거제부사 심능준(沈能俊), 〈중략〉 대정현감(大靜縣監) 김필룡(金弼龍), 〈중략〉 과천현감 이심도(李審度)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수령에게 명하여 차례대로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김필룡이 직책과 성명, 수령칠사(守令七事)를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칠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김필룡이 아뢰기를, "농사에 알맞은 때를 빼앗지 않으면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절로 풍족해지고, 그 정치를 분명히 하면 호수(戶數)가 증가될 것이고, 임금의 아름다운 명을 대양(對揚)[49]하면 교화가 흥성할 수 있습니다. 군정(軍政)은 그 문란함을 제거하고, 부역(賦役)은 지극히 고르게 하기를 힘쓰고, 송사(訟事)를 처리할 때에는 그 곡직(曲直)을 살피고 간략함에 이르러 자기 자신을 단속하여 스스로를 닦는다면 간사하고 교활한 짓을 감히 부리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려가거든 잘 다스리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감, 김필룡, 입시, 수령칠사.

---

49) 대양(對揚): 임금의 명을 받들어 그 뜻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뜻으로, 《서경》 〈상서(商書) 열명 하(說命下)〉에 "감히 천자의 아름다운 명을 그대로 선양하겠습니다[敢對揚天子之休命]."라고 한 데서 온 말임.

❖ 嘉慶 九年 甲子 二月 二十四日 甲申

○ 李溏, 以吏曹言啓曰, 卽伏見濟州三邑守令褒貶啓本, 則濟州判官趙慶遠題目, 落漏一字, 奏御文字, 何等敬謹, 殿最法意, 亦爲嚴愼, 而有此疎忽, 事體所在, 誠甚未安. 該道臣韓用龜, 從重推考, 趙慶遠題目, 更爲修啓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雖有落字, 亦自成語, 不必更令修啓, 置之.

❖ 순조 4년(1804) 갑자년 2월 24일(갑신)

▢ 제주(濟州)3읍 수령에 대한 포폄계본(褒貶啓本)을 잘하지 못한 전라감사 한용구(韓用龜)의 종중추고(從重推考)를 청하는 이조의 계

○ 이당(李溏)이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濟州)3읍 수령에 대한 포폄계본(褒貶啓本)을 보니, 제주판관(濟州判官) 조경원(趙慶遠)의 제목에 한 글자가 누락되었습니다. 임금께 아뢰는 문자가 얼마나 공경하고 삼가야 하는 것이고, 전최(殿最)의 법의(法意) 또한 엄히 신중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소홀하니 일의 체면에 있어 실로 심히 온당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감사 한용구(韓用龜)를 종중추고(從重推考)하고, 조경원의 제목을 다시 작성하여 계문(啓聞)하라는 뜻을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비록 낙자가 있기는 하지만 또한 절로 말이 되니 다시 작성하여 계문하라고 할 필요는 없으니 그만 두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포폄계본, 제주판관, 조경원, 한용구, 종중추고.

❖ 嘉慶 九年 甲子 三月 十五日 甲辰

○ 甲子三月十五日午時, 上御重熙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行左承旨洪義浩, 假注書趙鐘永, 事變假注書安尙默, 別兼春秋洪秉喆·徐有恂, 判府事李時秀, 右議政金觀柱, 兼戶曹判書李晩秀, 行左參贊趙尙鎭, 行上護軍趙鎭寬, 行禮曹判書徐邁修, 兵曹判書金達淳, 行大護軍金思穆, 行護軍李得濟, 執義李基慶, 掌令姜彙鈺, 持平鄭時善, 副校理李晦祥, 以次進伏訖. …… 基慶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忘,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上曰, 不允. …….

❖ 순조 4년(1804) 갑자년 3월 15일(갑진)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이기경(李基慶)의 계

○ 갑자년 3월 15일 오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행좌승지 홍의호(洪義浩), 가주서 조종영(趙鐘永), 사변가주서 안상묵(安尙默), 별겸춘추 홍병철(洪秉喆)·서유순(徐有恂), 판부사 이시수(李時秀), 우의정 김관주(金觀柱), 겸호조판서 이만수(李晩秀), 행좌참찬 조상진(趙尙鎭), 행상호군 조진관(趙鎭寬), 행예조판서 서매수(徐邁修), 병조판서 김달순(金達淳), 행대호군 김사목(金思穆), 행호군 이득제(李得濟), 집의 이기경(李基慶), 장령 강휘옥(姜彙鈺), 지평 정시선(鄭時善), 부교리 이회상(李晦祥)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기경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

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九年 甲子 三月 十六日 乙巳

○ 金宗善, 以東堂覆試武二所試官意啓曰, 臣所今日平明開場, 應射擧子自天字至地字半字, 當爲九十六人, 而入門捧單, 只爲七十三人, 其中無緣不赴者, 京四人, 江原道四人, 忠淸道二人, 全羅道四人, 慶尙道一人, 平安道五人, 濟州三人, 合爲二十三人. 故只以元捧單, 先自木箭試取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4년(1804) 갑자년 3월 16일(을사)

▢ 동당복시(東堂覆試) 무과(武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응시하지 않은 제주인(濟州人) 3인 등을 제외하여 먼저 목전(木箭)부터 시취(試取)하겠다는 이소시관(二所試官)의 계

○ 김종선(金宗善)이 동당복시(東堂覆試) 무과(武科) 이소시관(二所試官)의 뜻으로 아뢰기를, “신의 소(所)가 오늘 평명(平明)[50]에 개장(開場)하였습니다. 활쏘기에 응시하는 거자(擧子)가 천자(天字)에서 지자(地字)의 반자(半字)에 이르기까지 96인이어야 하는데, 과장문에 들어가 단자(單子)를 받아 보니 73인 뿐으로, 그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과거에 응시하지 않은 자가 경중(京中) 4인, 강원도 4인, 충청도 2인, 전라도 4인, 경상도 1인, 평안도 5인, 제주(濟州) 3인 합 23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원봉(元捧)한 단자를 가지고 먼저 목전(木箭)부터 시취(試取)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동당복시, 무과, 단자, 시취.

50) 평명(平明): 아침 해가 뜨는 시각. 해가 돋아 밝아올 무렵.

❖ 嘉慶 九年 甲子 四月 十二日 庚午

○ 李溏, 以司僕寺提調意啓曰, 大靜前縣監李煽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厩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4년(1804) 갑자년 4월 12일(경오)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이흡(李煽)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에 대한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이당(李溏)이 사복시 제조의 뜻으로 말하기를,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이흡(李煽)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금방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면서 규례대로 내구(內厩)에서 입양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이흡, 체임진상마.

❖ 嘉慶 九年 甲子 四月 二十一日 己卯

○ 義禁府啓目粘連, 濟州牧放未放修啓冊子中, 本府所管定配罪人未放秩乙良, 依啓聞施行爲白乎旀, 他餘罪人等, 令刑曹稟處, 何如? 判付啓依允.

❖ 순조 4년(1804) 갑자년 4월 21일(기묘)

▢ 정배죄인(定配罪人)으로 석방하지 않을 부류를 계문(啓聞)대로 시행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의 계목점련(啓目粘連)에, "제주목(濟州牧)의 석방하고 석방하지 않을 죄인에 대해 아뢴 책자 중에, 본부 소관의 정배죄인(定配罪人)으로 석방하지 않을 부류를 계문(啓聞)대로 시행하며, 다른 나머지 죄인들은 형조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정배죄인.

❖ 嘉慶 九年 甲子 五月 二日 庚寅

○ 義禁府啓目粘連, …… 又啓目粘連, 濟州放未放秩修啓冊子中, 本府所管定配罪人未放秩乙良, 依啓聞施行爲白乎旀, 他餘罪人等, 令刑曹稟處, 何如? 判付啓依允.

❖ 순조 4년(1804) 갑자년 5월 2일(경인)

▢ 정배죄인(定配罪人)으로 석방하지 않을 부류를 계문(啓聞)대로 시행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의 계목점련(啓目粘連)에, 〈중략〉 또 계목점련에 "제주목(濟州牧)의 석방하고 석방하지 않을 죄인에 대해 아뢴 책자 중에, 본부 소관의 정배죄인(定配罪人)으로 석방하지 않을 부류를 계문(啓聞)대로 시행하며, 다른 나머지 죄인들은 형조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정배죄인.

❖ 嘉慶 九年 甲子 五月 二十五日 癸丑

○ 甲子五月二十五日辰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承旨李相璜, 假注書洪起燮, 事變假注書柳榮五, 別兼春秋趙雲翊·徐有恂, 左議政李時秀, 右議政金觀柱, 兼戶曹判書李晩秀, 行刑曹判書趙尙鎭, 行上護軍趙鎭寬, 吏曹判書金達淳, 行大護軍金思穆, 行都承旨南公轍, 行護軍李得濟, 開城留守徐美修, 掌令尹尙圭, 校理金會淵, 以次進伏訖. …… 尙圭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上曰, 不允. 【出擧條】

❖ 순조 4년(1804) 갑자년 5월 25일(계축)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윤상규(尹尙圭)의 계

○ 갑자년 5월 25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우승지 이상황(李相璜), 가주서 홍기섭(洪起燮), 사변가주서 유영오(柳榮五), 별겸춘추 조운익(趙雲翊)·서유순(徐有恂), 좌의정 이시수(李時秀), 우의정 김관주(金觀柱), 겸호조판서 이만수(李晩秀), 행형조판서 조상진(趙尙鎭), 행상호군 조진관(趙鎭寬), 이조판서 김달순(金達淳), 행대호군 김사목(金思穆), 행도승지 남공철(南公轍), 행호군 이득제(李得濟), 개성유수 서미수(徐美修), 장령 윤상규(尹尙圭), 교리 김회연(金會淵)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윤상규가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九年 甲子 六月 九日 丙寅

○ 執義洪受浩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4년(1804) 갑자년 6월 9일(병인)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홍수호(洪受浩)의 계

○ 집의 홍수호(洪受浩)가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九年 甲子 六月 十四日 辛未

○ 掌令姜彙鈺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4년(1804) 갑자년 6월 14일(신미)

▢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강휘옥(姜彙鈺)의 계

○ 장령 강휘옥(姜彙鈺)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九年 甲子 七月 十日 丙申

○ 曺允遂, 以吏批言啓曰, 繕工監假監役官兪彦傅呈狀內, …… 何如? 傳曰, 允. 以韓克裕爲敦寧主簿, …… 金漢弼爲濟州判官, …….

❖ 순조 4년(1804) 갑자년 7월 10일(병신)

▢ 김한필(金漢弼)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조윤수(曺允遂)가 이비(吏批)의 말로 아뢰기를, "선공감 가감역관 유언전(兪彦傅)의 정장 내에 〈중략〉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한극유(韓克裕)를 돈녕주부로 삼았다. 〈중략〉 김한필(金漢弼)[51]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김한필, 제주판관.

51) 김한필(?~?): 제주판관(1804.8.도임~1806.12.파직) 역임.

❖ 嘉慶 九年 甲子 七月 十一日 丁酉

○ 韓致應啓曰, 吏曹郎廳來言, 鐵山府使鄭宅休, …… 濟州判官金漢弼, …… 靑山縣監尹鎰, 兩司俱未署經云, 而憲府則行大司憲李直輔, 執義金孝秀, 掌令李海淸·柳台佐, 持平洪百儀在外, 洪大浩牌不進, 諫院則行大司諫姜彝正, 獻納愼性眞在外, 司諫韓興裕, 正言洪羲俊牌不進, 洪遇燮未署經, 無以備員署經, 何以爲之? 敢稟. 傳曰, 違牌人只推, 更爲牌招.

❖ 순조 4년(1804) 갑자년 7월 11일(정유)

▢ 제주판관(濟州判官) 김한필(金漢弼) 등의 서경(署經)과 관련하여 패초(牌招)에 나오지 않은 양사(兩司)의 관원을 다시 패초하라는 전교

○ 한치응(韓致應)이 아뢰기를, "이조낭청이 와서 말하기를, 철산부사 정택휴(鄭宅休)〈중략〉 제주판관(濟州判官) 김한필(金漢弼)〈중략〉 청산현감 윤일(尹鎰)이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을 모두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헌부는 행대사헌 이직보(李直輔), 집의 김효수(金孝秀), 장령 이해청(李海淸)·유태좌(柳台佐), 지평 홍백의(洪百儀)가 지방에 있고, 홍대호(洪大浩)는 패초(牌招)에 나오지 않았고, 사간원은 행대사간 강이정(姜彝正), 헌납 신성진(愼性眞)이 지방에 있고, 사간 한흥유(韓興裕), 정언 홍희준(洪羲俊)은 패초에 나오지 않았고, 홍우섭(洪遇燮)은 서경을 거치지 않았으니, 인원을 갖추어 서경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패초를 어긴 사람은 추고만 하고 다시 패초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김한필, 서경.

❖ 嘉慶 九年 甲子 七月 十一日 丁酉

○ 甲子七月十一日卯時, 上御重熙堂. 守令·邊將初仕人入侍時, 左副承旨李翼晉, 同副承旨曺允遂, 假注書趙鍾永, 別兼春秋洪秉喆·徐有恂, …… 濟州判官金漢弼, …… 以次陞殿進伏, …… 上敎允遂曰, 守令初仕, 使之次次進前, 各奏職姓名, 可也. 堯憲等, 以次進奏職姓名, 退出. 允遂曰, 濟州判官金漢弼, 職姓名仰對之時, 誤奏邑名, 誠甚駭然, 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

❖ 순조 4년(1804) 갑자년 7월 11일(정유)

▢ 수령과 변장 초사인(初仕人)이 입시하여 차례로 직책과 성명을 대답할 때 읍명(邑名)을 잘못 아뢴 제주판관(濟州判官) 김한필(金漢弼)의 추고(推考)를 청하는 동부승지 조윤수(曺允遂)의 계

○ 갑자년 7월 11일 묘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수령과 변장 초사인(初仕人)이 입시할 때, 좌부승지 이익진(李翼晉), 동부승지 조윤수(曺允遂), 가주서 조종영(趙鍾永), 별겸춘추 홍병철(洪秉喆)·서유순(徐有恂), 〈중략〉 제주판관(濟州判官) 김한필(金漢弼), 〈중략〉 차례로 전(殿)에 올라가 앞으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조윤수에게 전교하기를, "수령 초사인을 차례대로 앞으로 나와 각각 직책과 성명을 아뢰게 하라."라고 하였다. 이요헌(李堯憲) 등이 차례로 나와 직책과 성명을 아뢰고 물러 나갔다. 조윤수가 아뢰기를, "제주판관 김한필이 직책과 성명을 우러러 대답할 때 읍명(邑名)을 잘못 아뢰었습니다. 참으로 심히 놀랍습니다.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판관, 김한필, 추고.

❖ 嘉慶 九年 甲子 七月 十二日 戊戌

○ 李普天啓曰, 鐵山府使鄭宅休, …… 濟州判官金漢弼, …… 靑山縣監尹鎰, 諫院則旣已署經, 而憲府則行大司憲李直輔, 執義金孝秀, 掌令李海淸·柳台佐, 持平洪百儀在外, 洪大浩未署經, 不得署經, 何以爲之? 敢稟. 傳曰, 一司除署經.

❖ 순조 4년(1804) 갑자년 7월 12일(무술)

▢ 제주판관(濟州判官) 김한필(金漢弼) 등의 서경(署經)과 관련하여 사헌부를 제외하고 서경하라는 전교

○ 이보천(李普天)이 아뢰기를, "철산부사 정택휴(鄭宅休), 〈중략〉 제주판관(濟州判官) 김한필(金漢弼), 〈중략〉 청산현감 윤일(尹鎰)에 대해 사간원에서는 이미 서경(署經)하였지만, 사헌부에는 행대사헌 이직보(李直輔), 집의 김효수(金孝秀), 장령 이해청(李海淸)·유태좌(柳台佐), 지평 홍백의(洪百儀)는 지방에 있고, 홍대호(洪大浩)는 아직 서경을 거치지 않아서 서경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일사(一司)를 제외하고 서경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김한필, 서경.

❖ 嘉慶 九年 甲子 七月 十八日 甲辰

○ 以濟州牧使柳畊狀啓, 枳實靑皮, 不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李文會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4년(1804) 갑자년 7월 18일(갑진)

▢ 지실(枳實)과 청피(靑皮)를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대죄(待罪)한다고 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유경(柳畊)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유경(柳畊)의 장계에, 지실(枳實)과 청피(靑皮)를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이문회(李文會)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유경, 지실, 청피, 대죄.

❖ 嘉慶 九年 甲子 七月 二十四日 庚戌

○ 韓致應, 以內醫院提調意啓曰, 濟州牧年例封進藥材十三種內, 靑皮·枳實, 全數闕封, 枳殼元數二十斤內, 只以十三兩封進. 此三種之材, 初非稀貴之物, 而莫重御藥所需, 減數封進, 已極惶悚, 而兩種之無難, 全數闕封, 揆以事體, 萬萬駭然, 該牧使柳畊罷職, 三種藥材, 各別極擇, 從速準數封進之意, 嚴飭, 何如? 傳曰, 允. 更爲封進, 置之.

❖ 순조 4년(1804) 갑자년 7월 24일(경술)

▢ 어약(御藥)에 필요한 약재를 전수 궐봉(闕封) 또는 수량을 감하여 봉진(封進)한 제주 목사(濟州牧使) 유경(柳畊)에 대한 파직을 청하는 내의원의 계

○ 한치응(韓致應)이 내의원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에서 연례로 봉진(封進)하는 약재 13종 내에 청피(靑皮)와 지실(枳實)은 전수(全數) 궐봉(闕封)하였고, 지각(枳殼)은 원수(元數) 20근(斤) 내에 단지 13냥(兩)만 봉진하였습니다. 이 세 종류의 약재는 애초에 희귀한 물종이 아니지만 막중한 어약(御藥)에 필요한 것을 수량을 감하여 봉진한 것이 이미 지극히 황송한 일인데, 두 종류를 어려움 없이 전수 궐봉하였으니, 사체(事體)를 헤아려 볼 때 아주 놀랍습니다. 해당 목사 유경(柳畊)을 파직하고, 세 종류의 약재는 각별히 선택하여 속히 준수(準數) 봉진하도록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다시 봉진하는 것은 그만 두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청피, 지실, 지각, 봉진, 유경, 파직.

❖ 嘉慶 九年 甲子 七月 二十六日 壬子

○ 徐瀅修,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出來, 後運年例進上馬八匹, 別御乘馬二十匹, 山屯馬二百匹, 合二百二十八匹內, 三匹船中故失, 十三匹到中路故失, 十六匹到中路病留, 十七匹到本寺病留除, 實納馬一百七十九匹禾毛色,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4년(1804) 갑자년 7월 26일(임자)

▢ 제주(濟州)에서 나온 후운(後運)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등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서형수(徐瀅修)가 사복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후운(後運)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8필, 별어승마(別御乘馬) 20필, 산둔마(山屯馬) 200필 합 228필 내에 3필은 배 안에서 죽고, 13필은 중로(中路)에 도착해서 죽고, 16필은 중로에 도착해서 병이 나 머물고 있고, 17필은 본시(本寺)에 도착해서 병이 나 머물고 있는 것을 제외하여 실제로 바치는 말 179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연례진상마, 별어승마, 산둔마, 별단.

❖ 嘉慶 九年 甲子 七月 二十六日 壬子

○ 李溏,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山馬監牧官金德裕癸亥·甲子兩年條封進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4년(1804) 갑자년 7월 26일(임자)

▢ 제주(濟州)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김덕유(金德裕)가 봉진(封進)하는 말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이당(李溏)이 사복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김덕유(金德裕)의 계해년과 갑자년 두 해에 봉진(封進)하는 말 2필이 금방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면서 규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산마감목관, 김덕유, 봉진.

❖ 嘉慶 九年 甲子 七月 二十七日 癸丑

○ 李溏,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三名日進上馬六十匹, 差備進上馬八十匹, 歲貢馬二百匹, 凶咎駑駘馬二十匹, 合三百六十匹內, 四匹船中故失, 三十匹中路故失, 十四匹到中路病留, 一百匹訓鍊都監, 二十五匹禁衛營, 二十五匹御營廳, 軍馬分給, 四十八匹到本寺故失除, 實納馬一百十四匹禾毛色, 別單書入, 而進獻事體, 何等嚴重, 而所封馬匹, 都是體小瘦瘠, 比前尤甚, 各處故失, 至於八十二匹之多, 長霖遠程, 受傷致斃, 容或無怪, 當初封進時, 如以無病健骨, 匹匹擇封, 則豈有許多匹之有頃, 事之駭然, 莫此爲甚, 當該封進官濟州牧使, 從重勘處, 以警日後, 莫重貢馬, 不善護送, 至於兩日遲滯之境, 殊極稽忽, 當該地方官始興縣令, 亦令該府拿處, 何如? 傳曰, 允. 該牧使罷職, 可也. 止

❖ 순조 4년(1804) 갑자년 7월 27일(계축)

▢ 공마(貢馬) 봉진(封進)을 잘 하지 못한 제주목사(濟州牧使)에 대해 엄히 감처(勘處)할 것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이당(李溏)이 사복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선운(先運) 삼명일진상마(三名日進上馬) 60필, 차비진상마(差備進上馬) 80필, 세공마(歲貢馬) 200필, 흉구노태마(凶咎駑駘馬) 20필, 합 360필 내에 4필은 배 안에서 죽고, 30필은 중로(中路)에서 죽고, 14필은 중로에 도착해서 병이 나 머물고 있고, 100필은 훈련도감, 25필은 금위영, 25필은 어영청에 군마(軍馬)로 나누어 지급하고, 48필은 본시(本寺)에 도착해서 죽은 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바치는 114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진헌(進獻)의 사체(事體)가 얼마나 엄중한 것입니까? 봉진(封進)한 마필이 모두 몸집이 작고 빼빼 마른 것이 전에 비해 더욱 심하고, 각처에서 죽은 것이 82필이나 되니, 장마 중 먼길에 상해를 입어 죽게 된 것은 이상할 것이 없지만, 당초 봉진할 때 병이 없고 건강한 것으로 하나하나 골라서 봉진하였다면 어찌 허다한 마필에 이러한 탈이 생기겠습니까? 일이 놀랍기가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봉진관인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엄히 감처(勘處)하여 뒷날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막중한 공마(貢馬)를 잘 호송하지 못하여 이틀을 지체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매우 소홀한 처사입니다. 해당 지방관인 시흥현령(始興縣令)을 또한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다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해당 목사를 파직토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공마, 봉진, 제주목사, 파직.

❖ 嘉慶 九年 甲子 八月 四日 庚申

○ 備邊司薦望, 以朴宗柱爲濟州牧使.

❖ 순조 4년(1804) 갑자년 8월 4일(경신)

▢ 박종주(朴宗柱)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천망(薦望)함

○ 비변사가 박종주(朴宗柱)[52]를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천망(薦望)했다.

△ 주제어: 박종주, 제주목사.

52) 박종주(?~?): 제주목사(1804.9.도임~1807.3.체임) 역임.

❖ 嘉慶 九年 甲子 八月 四日 庚申

○ 有政. 吏批, 判書金達淳進, 參判金勉柱, 參議尹光顔牌不進, 右承旨嚴耆進. …… 濟州牧使單朴宗柱, …….

❖ 순조 4년(1804) 갑자년 8월 4일(경신)

▢ 박종주(朴宗柱)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 단부(單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김달순(金達淳)이 나왔고, 참판 김면주(金勉柱), 참의 윤광안(尹光顔)은 패초(牌招)에 나오지 않았고, 우승지 엄기(嚴耆)는 나왔다.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에 박종주(朴宗柱)를 단부(單付)하였다. 〈하략〉.

△ 주제어: 박종주, 제주목사.

❖ 嘉慶 九年 甲子 八月 十五日 辛未

○ 執義洪受浩, 掌令鄭澣, 持平任百禧, 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4년(1804) 갑자년 8월 15일(신미)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홍수호(洪受浩) 등의 계

○ 집의 홍수호(洪受浩), 장령 정한(鄭澣), 지평 임백희(任百禧)[53]가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53) 임백희(1765~?): 본관 풍천(豊川). 자 천우(天佑). 1795년(정조 19) 문과 급제. 수찬, 장령, 지평 역임.

❖ 嘉慶 九年 甲子 八月 二十三日 己卯

○ 執義韓興裕, 掌令李海淸, 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4년(1804) 갑자년 8월 23일(기묘)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한흥유(韓興裕) 등의 계

○ 집의 한흥유(韓興裕), 장령 이해청(李海淸)[54]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54) 이해청(1768~1831): 본관 한산(韓山). 자 덕여(德汝). 1789년(정조 13) 문과 급제. 장령, 안주목사, 북청부사 역임.

❖ 嘉慶 九年 甲子 九月 八日 甲午

○ 李溏, 以義禁府言啓曰, 裕賊應坐支屬, 依丙申四月魯賊支屬例擧行事, 草記批旨內, 旣有身已死, 而追施孥籍者, 竝除之之命, 正謂此等事也. 依丙申九月例擧行可也事, 命下矣. 裕賊子趾命全羅道濟州牧旌義縣, 趾性羅州牧黑山島, 趾中靈岩郡楸子島, 侄趾寬慶尙道南海縣, 趾碩全羅道興陽縣蛇島鎭, 竝安置, 而右罪人等, 方在捕廳鳳山獄及舒川地云. 依例令刑曹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 순조 4년(1804) 갑자년 9월 8일(갑오)

▢ 역적 권유(權裕)의 아들 권지명(權趾命)과 권지중(權趾中) 등을 정의현(旌義縣)과 추자도(楸子島) 등의 배소로 압송하게 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 이당(李溏)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역적 권유(權裕)[55]에게 응당 연좌될 지속(支屬)을 병신년 4월 역적 김상로(金尙魯)[56]의 지속의 예에 의거하여 거행하겠다는 초기(草記)에 대한 비지(批旨) 내에, ‘이미 죽었으니 노적(孥籍)을 추시(追施)하는 것[57]을 아울러 없애라.’라는 명이 있었으니,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일컫는 것입니다. 병신년 9월의 사례에 의거하여 거행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역적 권유의 아들 권지명(權趾命)은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 권지성은 나주목 흑산도, 권지중(權趾中)은 영암군 추자도(楸子島), 조카 권지관은 경상도 남해현, 권지석은 전라도 흥양현 사도진에 아울러 안치(安置)하되, 위 죄인들이 지금 포도청과 봉산(鳳山)의 옥 및 서천(舒川)에 있다고 합니다. 규례대로 형조로 하여금 각기 배소로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권지명, 정의현, 권지중, 추자도, 안치.

---

55) 권유(1730~1804): 본관 안동(安東). 자 성수(聖垂). 호 국포(菊圃). 1769년(영조 45) 문과 급제. 공조판서, 좌참찬, 대사헌 역임. 김조순(金祖淳)의 딸 순원왕후(純元王后)와 순조와의 국혼을 반대하는 소를 올려 삼간택(三揀擇)을 방해하였다 하여 순원왕후의 가례가 끝난 뒤, 1804년 6월 가족, 제자들과 함께 추국(推鞫) 당하다 죽었음.

56) 김상로(1702~?): 본관 청풍(淸風). 자 경일(景一). 호 하계(霞溪)·만하(晩霞). 시호 익헌(翼獻). 1734년(영조 10) 문과 급제. 병조판서, 예조참판, 영의정 역임. 1762년(영조 38) 사도세자의 처벌에 관한 계에 적극 참여해 영조의 동조를 얻었으나 왕이 이를 후회하자 청주로 귀양갔으며 특명으로 풀려난 뒤 봉조하가 되었음. 죽은 뒤에 정조가 즉위하자 관작이 삭탈되었으나 고종 때 다시 신원되었음.

57) 노적(孥籍)을 추시(追施)하는 것: 죄인이 이미 죽고 난 뒤에 그 죄인의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말함.

❖ 嘉慶 九年 甲子 九月 八日 甲午

○ 李溏, 以刑曹言啓曰, 因義禁府啓辭, 裕賊子趾命全羅道濟州牧旌義縣, 趾性羅州牧黑山島, 趾中靈岩郡楸子島, 侄趾寬慶尙道南海縣, 趾碩全羅道興陽縣蛇島鎭, 竝安置, 而右罪人等方在捕廳·鳳山獄及舒川地云, 依例令刑曹押送事, 命下矣. 罪人趾性·趾中方囚捕廳, 自臣曹卽爲押送于各其配所, 趾命方囚鳳山獄, 趾寬·趾碩時在舒川地云. 卽令各該道臣, 押送各其配所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 순조 4년(1804) 갑자년 9월 8일(갑오)

▢ 역적 권유(權裕)의 아들 권지명(權趾命)과 권지중(權趾中) 등을 정의현(旌義縣)과 추자도(楸子島) 등의 배소로 압송하게 할 것을 청하는 형조의 계

○ 이당(李溏)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의금부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역적 권유의 아들 권지명(權趾命)은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 권지성은 나주목 흑산도, 권지중(權趾中)은 영암군 추자도(楸子島), 조카 권지관은 경상도 남해현, 권지석은 전라도 흥양현 사도진에 아울러 안치(安置)하되, 위 죄인들이 지금 포도청과 봉산(鳳山)의 옥 및 서천(舒川)에 있다고 하니, 규례대로 형조로 하여금 각기 배소로 압송하게 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죄인 권지성과 권지중은 지금 포도청에 갇혀 있으니 신조(臣曹)에서 즉시 각기 배소로 압송하겠습니다. 권지명은 지금 봉산의 옥에, 권지관과 권지석은 지금 서천에 있다고 합니다. 즉시 각 해당 관찰사로 하여금 각기 배소로 압송할 뜻을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권지명, 정의현, 권지중, 추자도, 안치.

❖ 嘉慶 九年 甲子 九月 十日 丙申

○ 濟州牧使朴宗柱, …… 各長弓一張, 長箭一部, 片箭一部, 筒兒一箇賜給.

❖ 순조 4년(1804) 갑자년 9월 10일(병신)

▢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 등에게 장궁(長弓) 등을 사급(賜給)함

○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중략〉에게 각각 장궁(長弓) 1장(張), 장전(長箭) 1부(部), 편전(片箭) 1부, 통아(筒兒) 1개를 사급(賜給)했다.

△ 주제어: 제주목사, 박종주, 사급.

❖ 嘉慶 九年 甲子 九月 十五日 辛丑

○ 甲子九月十五日辰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承旨李溏, 假注書徐淇修, 事變假注書柳春東, 別兼春秋金薈根·趙雲翊, 左議政徐邁修, 右議政李敬一, 判中樞府事李晩秀, 水原留守金文淳, 行戶曹判書趙鎭寬, 行大護軍金思穆, 兵曹判書曺允大, 司諫閔師宣, 修撰尹尙圭, 以次進伏訖. …… 邁修曰, 此濟州前牧使柳畊狀啓也, 以爲, 本州判官趙慶遠, 三年居官, 一心奉公, 而捐出至薄之廩俸, 繕興各樣之館舍, 公廨修補, 雖係奉職之常事, 不可無激勸之道, 請令廟堂照例稟處爲辭矣, 考例施賞之意, 分付兵曹,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 순조 4년(1804) 갑자년 9월 15일(신축)

▢ 늠봉(廩俸)을 내어 각종 관사(館舍)와 공해(公廨)를 보수한 제주판관(濟州判官) 조경원(趙慶遠)의 시상(施賞)을 청하는 좌의정 서매수(徐邁修)의 계

○ 갑자년 9월 15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우승지 이당(李溏), 가주서 서기수(徐淇修), 사변가주서 유춘동(柳春東), 별겸춘추 김시근(金薈根)·조운익(趙雲翊), 좌의정 서매수(徐邁修), 우의정 이경일(李敬一), 판중추부사 이만수(李晩秀), 수원유수 김문순(金文淳), 행호조판서 조진관(趙鎭寬), 행대호군 김사목(金思穆), 병조판서 조윤대(曺允大), 사간 민사선(閔師宣), 수찬 윤상규(尹尙圭)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매수가 아뢰기를, "이것은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유경(柳畊)의 장계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주 판관 조경원(趙慶遠)은 3년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무에 종사하며 지극히 박한 늠봉(廩俸)을 덜어 내어 각종 관사(館舍)를 선흥(繕興)하고, 공해(公廨)를 보수하였습니다. 비록 직무를 받드는 상사(常事)에 관계된다고는 하지만 격려하고 권장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묘당으로 하여금 전례에 비추어 품처(稟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전례를 살펴 시상(施賞)하는 뜻을 병조(兵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58]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판관, 조경원, 공해, 보수, 시상.

---

58) 이상은 《비변사등록》 순조 4년 9월 1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九年 甲子 九月 二十六日 壬子

○ 掌令韓始裕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4년(1804) 갑자년 9월 26일(임자)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한시유(韓始裕)의 계

○ 장령 한시유(韓始裕)가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九年 甲子 十月 三日 戊午

○ 李文會,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前判官趙慶遠遞任進上馬三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 而進獻事體, 何等嚴重, 所封馬匹之骨孱體瘦, 比前尤甚, 當該封進濟州前判官趙慶遠, 姑先從重推考, 以警日後, 何如? 傳曰, 允.

❖ 순조 4년(1804) 갑자년 10월 3일(무오)

▢ 골격이 잔약하고 몸집이 수척한 말을 진상한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조경원(趙慶遠)의 종중추고(從重推考)를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이문회(李文會)가 사복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조경원(趙慶遠)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이 방금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에 써서 들이고, 규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하겠습니다. 그런데 진헌(進獻)의 사체(事體)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봉진(封進)한 말이, 골격이 잔약하고 몸집이 수척한 것이 전에 비해 더욱 심합니다. 해당 봉진관 전 제주판관 조경원을 우선 종중추고(從重推考)하여 후일을 경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조경원, 체임진상마, 종중추고.

❖ 嘉慶 九年 甲子 十月 十日 乙丑

○ 甲子十月初十日未時, 上御誠正閣. 都承旨·右承旨·左副承旨·右副承旨入侍, 詣臺臺臣追後入侍時, 行都承旨徐瀅修, 右承旨金宗善·左副承旨李文會, 右副承旨金在昌, 假注書金用默, 別兼春秋洪秉喆·趙雲翊, 以次進伏訖. …… 台佐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上曰, 不允.

❖ 순조 4년(1804) 갑자년 10월 10일(을축)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유태좌(柳台佐)의 계

○ 갑자년 10월 10일 미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도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가 입시하고, 대각(臺閣)에 나온 대신이 추후 입시할 때, 행도승지 서형수(徐瀅修), 우승지 김종선(金宗善)·좌부승지 이문회(李文會), 우부승지 김재창(金在昌), 가주서 김용묵(金用默), 별겸춘추 홍병철(洪秉喆)·조운익(趙雲翊)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유태좌(柳台佐)[59]가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59) 유태좌(柳台佐): 본관 풍산(豊山). 자 사현(士鉉). 호 학서(鶴棲). 1794년(정조 18) 문과 급제. 부총관, 우승지, 호조참판 역임. 저서 《학서문집》.

❖ 嘉慶 九年 甲子 十月 十八日 癸酉

○ 今十月十八日午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時, 行都承旨徐瀅修, 右承旨金宗善, 左副承旨李溏, 右副承旨李文會, 同副承旨金在昌, 記事官韓兢履, 假注書鄭祖榮, 記事官崔鳳和, 別兼春秋趙雲翊, 檢校直閣金邁淳, 以次進伏訖. …… 文會以兵房, 讀奏濟州牧使柳畊啓本邪學無乎事, 全羅監司鄭大容啓本邪學無乎事. …….

❖ 순조 4년(1804) 갑자년 10월 18일(계유)

▢ 우부승지 이문회(李文會)가 입시하여 제주목사(濟州牧使) 유경(柳畊)이 올린 계본(啓本)에서 사학(邪學)이 없다고 한 것을 읽어 아룀

○ 금일 10월 18일 오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을 가지고 입시할 때, 행도승지 서형수(徐瀅修), 우승지 김종선(金宗善), 좌부승지 이당(李溏), 우부승지 이문회(李文會), 동부승지 김재창(金在昌), 기사관 한긍이(韓兢履), 가주서 정조영(鄭祖榮), 기사관 최봉화(崔鳳和), 별겸춘추 조운익(趙雲翊), 검교직각 김매순(金邁淳)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문회가 병방으로 제주목사(濟州牧使) 유경(柳畊)이 올린 계본(啓本)에서 사학(邪學)[60]이 없다고 한 것을 읽어 아뢰었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유경, 계본, 사학.

60) 사학(邪學): 천주교(天主教)를 말함.

❖ 嘉慶 九年 甲子 十月 二十九日 甲申

○ 甲子十月二十九日午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副承旨李文會, 假注書趙鐘永, 事變假注書柳春東, 記注官車信用, 別兼春秋徐有恂, 左議政徐邁修, 右議政李敬一, 行戶曹判書趙鎭寬, 行禮曹判書韓用龜, 兵曹判書韓晩裕, 行護軍李得濟, 行都承旨徐瀅修, 大司諫林漢浩, 執義金孝秀, 司諫閔師宣, 掌令趙台榮, 獻納宋冕載, 正言洪羲俊, 副修撰洪羲膺, 以次進伏訖. …… 孝秀等曰,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上曰, 不允. …….

❖ 순조 4년(1804) 갑자년 10월 29일(갑신)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김효수(金孝秀) 등의 계

○ 갑자년 10월 29일 오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좌부승지 이문회(李文會), 가주서 조종영(趙鐘永), 사변가주서 유춘동(柳春東), 기주관 차신용(車信用), 별겸춘추 서유순(徐有恂), 좌의정 서매수(徐邁修), 우의정 이경일(李敬一), 행호조판서 조진관(趙鎭寬), 행예조판서 한용구(韓用龜), 병조판서 한만유(韓晩裕), 행호군 이득제(李得濟), 행도승지 서형수(徐瀅修), 대사간 임한호(林漢浩), 집의 김효수(金孝秀), 사간 민사선(閔師宣), 장령 조태영(趙台榮), 헌납 송면재(宋冕載), 정언 홍희준(洪羲俊), 부수찬 홍희응(洪羲膺)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김효수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九年 甲子 十一月 一日 丙戌

○ 甲子十一月初一日未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時, 右承旨李溏, 左副承旨李文會, 右副承旨金在昌, 同副承旨韓致應, 假注書趙鐘永·鄭元容, 記注官車信用, 別兼春秋趙雲翊, 檢校直閣金邁淳, 以次進伏訖. 上命讀公事. …… 文會讀奏濟州牧使朴宗柱啓本, 元無邪學事. …….

❖ 순조 4년(1804) 갑자년 11월 1일(병술)

▢ 좌부승지 이문회(李文會)가 입시하여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가 올린 계본(啓本)에서 사학(邪學)이 없다고 한 것을 읽어 아룀

○ 갑자년 11월 1일 미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우승지 이당(李溏), 좌부승지 이문회(李文會), 우부승지 김재창(金在昌), 동부승지 한치응(韓致應), 가주서 조종영(趙鐘永)·정원용(鄭元容), 기주관 차신용(車信用), 별겸춘추 조운익(趙雲翊), 검교직각 김매순(金邁淳)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명하여 공사(公事)를 읽게 하였다. 〈중략〉 이문회가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가 올린 계본(啓本)에서 사학(邪學)이 없다고 한 것을 읽어 아뢰었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박종주, 계본, 사학.

❖ 嘉慶 九年 甲子 十一月 三日 戊子

○ 李翼晉, 以義禁府言啓曰, 卽接西原縣監李周憲牒呈及成冊, 則大逆不道罪人海玉應坐諸人, 査出以來矣. 其子忠模年十五, 以年未滿, 依律文免絞, 全羅道靈巖郡楸子島, 弟海敷, 康津縣薪智島, 竝緣坐爲奴, …… 而右罪人等, 方囚本縣獄, 依例令刑曹,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 순조 4년(1804) 갑자년 11월 3일(무자)

▢ 대역부도한 죄인 한해옥(韓海玉)의 아들 한충모(韓忠模) 등을 배소로 압송(押送)하게 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 이익진(李翼晉)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서원현감(西原縣監) 이주헌(李周憲)의 첩정(牒呈)과 성책(成冊)을 보니, 대역부도한 죄인 한해옥(韓海玉)으로 인해 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 아들 한충모(韓忠模)는 나이가 15세인데, 나이가 차지 않아서 율문에 의거하여 교형(絞刑)을 면하여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동생 한해부는 강진현 신지도에 아울러 연좌(緣坐)하여 노(奴)로 삼고, 〈중략〉 위 죄인들이 지금 본현(本縣) 옥에 갇혀 있으니 규례대로 형조로 하여금 각기 배소로 압송(押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한해옥, 연좌, 한충모, 추자도, 압송.

❖ 嘉慶 九年 甲子 十一月 五日 庚寅

○ 李文會,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前牧使柳畊遞任進上馬三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4년(1804) 갑자년 11월 5일(경인)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유경(柳畊)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를 내구(內廐)에 입양하겠다는 사복시의 계

○ 이문회(李文會)가 사복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유경(柳畊)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면서 규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유경, 체임진상마, 별단.

❖ 嘉慶 九年 甲子 十一月 七日 壬辰

○ 李翼晉, 以刑曹言啓曰, 因義禁府啓辭, 大逆不道罪人海玉子忠模, 以年未滿, 依律文免絞, 全羅道靈巖郡楸子島, 弟海敷, 康津縣薪智島, 竝緣坐爲奴, …… 事, 命下矣. 右罪人等, 方囚西原縣獄, 竝卽押送各其配所事, 發關分付于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4년(1804) 갑자년 11월 7일(임진)

▢ 대역부도한 죄인 한해옥(韓海玉)의 아들 한충모(韓忠模) 등을 배소로 압송(押送)하게 할 것을 청하는 형조의 계

○ 이익진(李翼晉)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의금부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대역부도한 죄인 한해옥(韓海玉)의 아들 한충모(韓忠模)가 나이가 차지 않아 율문에 의거하여 교형(絞刑)을 면하고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로, 동생 한해부는 강진현 신지도에 아울러 연좌(緣坐)하여 노(奴)로 삼으라고, 〈중략〉 명을 내렸습니다. 위 죄인들이 지금 서원현(西原縣) 옥에 갇혀 있으니 모두 즉시 각기 배소로 압송(押送)하도록 관문(關文)을 보내어 해당 도의 관찰사에게 분부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한해옥, 연좌, 한충모, 추자도, 압송.

❖ 嘉慶 九年 甲子 十一月 十九日 甲辰

○ 備忘記, 以洪在敏事, 自大臣·三司, 以至朝紳嚴鞫之請, 屢月不止, 向依其啓者, 特示重公議之意也. 然而自初欲以不治治之者, 意豈徒然? 前後敷諭, 不啻縷縷, 則廷臣庶幾諒予之心, 雖至經年閱歲, 不欲設鞫, 姑付生道, 以開自新之路, 不害爲無刑之刑. 南間罪人洪在敏, 楸子島減死安置, 今日內擧行.

❖ 순조 4년(1804) 갑자년 11월 19일(갑진)

▢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減)하여 안치(安置)하라는 비망기

○ 비망기(備忘記)에, "홍재민(洪在敏)[61]의 일 때문에 대신(大臣)과 삼사(三司)에서 조신(朝紳)에 이르기까지 엄히 국문하기를 청하는 것이 여러 달 그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아뢴 대로 하라고 한 것은 특별히 공의(公議)를 중시한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스리지 않음으로써 다스리려고 한 것[62]이 어찌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겠는가? 전후로 유시(諭示)하신 것이 아주 자세할 뿐만이 아니었으니, 조정의 신하들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여 해가 바뀌더라도 국청을 열지 않고자 한 것이다. 우선 살려 주어 스스로 새로워질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형벌이 없는 형벌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남간(南間)[63]의 죄인 홍재민을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減)하여 안치(安置)하되, 오늘 안으로 거행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안치.

---

61) 홍재민(1770~?): 본관 남양(南陽). 자 공무(公茂). 1801년(순조 1) 문과 급제. 승정원주서 역임.

62) 다스리지 않음으로써 다스리려고 한 것[以不治治之]: 소식(蘇軾)의 〈왕자불치이적론(王者不治夷狄論)〉에 "오랑캐는 중국의 정치로써 다스릴 수 없다. 비유하자면 마치 새나 짐승과 같아서, 그들이 크게 다스려지기를 추구한다면 반드시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옛날의 훌륭한 임금들은 그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 때문에 다스리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을 다스렸던 것이다. 그들을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 다스리지 않는 방법을 쓴 것이 바로 그들을 철저히 다스리는 방법이 되었던 것이다[夷狄 不可以中國之治 治也 譬若禽獸然 求其大治 必至於大亂 先王 知其然是故 以不治治之 治之以不治者 乃所以深治之也]"라는 내용이 있음. 《古文眞寶後集 王者不治夷狄論》

63) 남간(南間): 의금부 남쪽에 있던 남간옥(南間獄)을 가리킴. 《육전조례(六典條例)》 〈형전 의금부〉에 따르면, 국문(鞫問)을 시행할 때 해당 죄인을 형구(刑具)를 갖추어 잡아와 남간에 가두었다가 임금에게 수단자(囚單子)를 들여보내 재가를 받은 뒤에 시행하였음.

❖ 嘉慶 九年 甲子 十一月 十九日 甲辰

○ 行左承旨李溏, 右承旨金宗善, 左副承旨李翼晉, 同副承旨金在昌等啓曰, 臣等卽伏見傳敎下者, 有南間罪人在敏楸子島減死安置之命, 臣等聚首相顧, 誠不勝抑塞之至. 噫嘻, 在敏窮凶絶悖之罪, 上通于天, 滿廷臣僚, 沫血懲討, 凡幾月矣? 何幸聖斷赫然, 特允臺啓, 王章自此可伸, 輿憤自此可洩, 傳旨之下, 惟日顒望, 今此酌處之命, 忽下於千萬夢想之外, 此何事也, 此何事也? 不料我殿下之明聖, 有此非常之過擧也. 彼敏賊, 讎視國家, 誣逼莫重之凶肚逆腸, 言之膽掉, 思之髮豎, 如許劇賊, 豈可擬議於減死島置之律乎? 臣等有死而已, 斷無奉承之路, 相率聯籲, 敢效繳還之義. 伏願聖明, 穆然深思, 亟降設鞫之命, 千萬顒祝, 惶恐敢啓. 無批答.

❖ 순조 4년(1804) 갑자년 11월 19일(갑진)

▢ 홍재민(洪在敏)을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減)하여 안치(安置)하라는 명의 환수를 청하는 행좌승지 이당(李溏) 등의 계

○ 행좌승지 이당(李溏), 우승지 김종선(金宗善), 좌부승지 이익진(李翼晉), 동부승지 김재창(金在昌)[64]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방금 전교가 내려진 것을 보았는데, 남간(南間)의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減)하여 안치(安置)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신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돌아보며 참으로 지극히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 홍재민의 극도로 흉악하고 패려(悖戾)한 죄는 위로 하늘에까지 통하여 조정에 가득한 신료들이 피를 토하며 징토(懲討)한 것이 무릇 몇 달입니까? 매우 다행스럽게도 성상께서 혁연(赫然)히 결단하여 대계(臺啓)를 특별히 윤허하여 왕법이 이로부터 펴지고, 사람들의 분노가 이로부터 그치게 되어 전지(傳旨)가 내려지는 것을 날로 우러러 바랐는데, 지금 이처럼 참작하라는 명이 문득 천만 뜻밖에 내려졌으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 전하의 명성(明聖)이 이런 비상(非常)한 지나친 거조(擧措)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 역적 홍재민은 국가를 원수처럼 보고, 전하를 무함하고 핍박한 흉두역장(凶肚逆腸)이니, 말을 하자면 간담이 떨리고 생각을 하자면 머리칼이 곤두섭니다. 이와같은 큰 역적을 어찌 사형을 감하

64) 김재창(1770~?): 본관 광산(光山). 자 덕여(德汝). 호 향포(香圃). 시호 정간(貞簡). 1801년(순조 1) 문과 급제. 병조판서, 이조판서, 판중추부사 역임.

여 섬에 안치하는 형률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죽음만 있을 뿐 결단코 명을 받들 길이 없기에 서로 연명으로 호소하며 감히 작환(繳還)[65]하는 의리를 본받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조용히 깊이 생각하여 국청(鞫廳)을 설치하라는 명을 속히 내리기를 천만 번 우러러 기원합니다.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비답(批答)이 없었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안치, 국청.

65) 작환(繳還): 임금의 전교(傳敎)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 승지가 전교를 하달하지 않고 되돌려 올리고 환수하기를 청하는 것을 이름.

❖ 嘉慶 九年 甲子 十一月 十九日 甲辰

○ 嚴耆, 以義禁府言啓曰, 假注書金用默, 爲先施以在敏所施之典事, 承傳啓下矣. 金用默全羅道靈巖郡楸子島減死安置,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卽爲發遣府羅將,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4년(1804) 갑자년 11월 19일(갑진)

▢ 김용묵(金用默)을 추자도(楸子島) 배소(配所)로 압송(押送)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엄기(嚴耆)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가주서 김용묵(金用默)을 먼저 홍재민(洪在敏)에게 시행했던 법으로 시행하도록 승전(承傳)하여 계하(啓下)하였습니다. 김용묵을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로 사형을 감(減)하여 안치하되, 승전 내의 내용으로 죄목을 갖추어 즉시 본부 나장을 보내어 배소(配所)로 압송(押送)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용묵, 추자도, 배소, 압송.

❖ 嘉慶 九年 甲子 十一月 二十一日 丙午

○ 傳于嚴耆曰, 當初事端, 只爲命令之不通, 大關後弊, 傳旨書入之後, 豈足深責? 承旨則所犯差輕, 注書則不可全恕, 楸子島安置罪人金用默, 湖沿施以定配之典, …….

❖ 순조 4년(1804) 갑자년 11월 21일(병오)

▢ 김용묵(金用默)을 호남(湖南) 연읍으로 정배(定配)하라는 전교

○ 엄기(嚴耆)에게 전교하기를, "당초 사단이 난 것은 명령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크게 뒤에 폐단이 관계되지만 전지(傳旨)를 써서 들인 후에 어찌 족히 깊이 책망하겠는가? 승지는 범한 것이 조금 가볍지만, 주서는 온전히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김용묵(金用默)을 호남(湖南) 연읍으로 정배(定配)하는 법을 시행하라. 〈하략〉."라고 하였다.[66]

△ 주제어: 김용묵, 호남, 정배.

66) 이상은《순조실록》순조 4년 11월 21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九年 甲子 十一月 二十一日 丙午

○ 嚴耆, 以義禁府言啓曰, 楸子島安置罪人金用默, 湖沿施以定配之典事, 承傳啓下矣. 金用默公忠道舒川郡定配,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發遣府羅將, 所到處執捉, 仍令押送于新定配所, 何如? 傳曰, 允.

❖ 순조 4년(1804) 갑자년 11월 21일(병오)

▢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김용묵(金用默)을 새로 정한 배소로 압송(押送)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엄기(嚴耆)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김용묵(金用默)을 호남 연읍으로 정배(定配)하는 법으로 시행하도록 승전(承傳)하여 계하(啓下)하였습니다. 김용묵을 공충도(公忠道) 서천군(舒川郡)에 정배하되, 승전 내 내용으로 죄목을 갖추어 본부 나장을 보내어 도착하는 곳에서 붙잡아 새로 정한 배소로 압송(押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용묵, 서천군, 정배, 압송.

❖ 嘉慶 九年 甲子 十一月 二十三日 戊申

○ 李顯默, 以義禁府言啓曰, 南間罪人洪在敏, 楸子島減死安置事, 承傳啓下矣. 洪在敏全羅道靈巖郡楸子島, 減死安置,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發遣府羅將,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4년(1804) 갑자년 11월 23일(무신)

▢ 홍재민(洪在敏)을 배소(配所)인 추자도(楸子島)로 압송(押送)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이현묵(李顯默)[67]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남간(南間)의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減)하여 안치하도록 승전(承傳)하여 계하(啓下)하였습니다. 홍재민을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하되, 승전 내 내용으로 죄목을 갖추어 본부 나장을 보내어 배소(配所)로 압송(押送)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배소, 압송.

67) 이현묵(1748~1817): 본관 전주(全州). 1774년(영조 50) 무과 급제.

❖ 嘉慶 九年 甲子 十一月 二十八日 癸丑

○ 司諫洪受浩, 掌令申溆, 持平宋冕載啓曰, …… 噫嘻痛矣, 干常亂紀之賊, 從古何限, 而豈有如在敏之至妖慝絶凶悖者哉? 常懷梟獍之心, 莫掩鬼蜮之狀, 乘機逞毒, 闖呈一疏, 上而摻逼聖躬, 下而網打朝紳, 至曰受誣於舟梁之大慶, 有若眞有誣逼者然, 又引故相之對揚, 有若不爲辨明者然, 末乃以眼無君母等語, 憑藉而疑亂, 閃忽而譏訕, 顯售不逞之習, 少無顧忌之心, 其爲凶憯, 胡不此極? 嗚呼, 庚申以後, 我東方得有今日, 是誰之力? 洪惟我慈聖殿下, 五紀母臨, 四載簾帷, 保護我聖躬, 鞏固我宗祊, 義理闡明, 朝象和泰, 克追先王之遺志, 誕擧旣定之文祥, 以基我億萬年無疆之休, 洪功盛烈, 有光史牒, 環東土數千里, 莫不蹈舞攢頌於慈覆之天, 而向來臺臣通儒之處分, 罔非稟決慈旨, 推明慈德, 正大光明, 有辭後世, 凡有秉彝之心者, 孰不頌慈仁仰聖孝, 而渠亦北面於慈聖暨殿下之庭者, 抑何心腸, 至有不欲比肩之凶言, 而矢死不欲立於殿下之庭, 卽此一款, 已是窮天地亘萬古所未有之劇逆斷案, 此非但殿下之罪人, 實是慈聖之罪人也, 究厥情犯, 剕戮猶輕, 不可使一刻容貸於覆載之間, 而今日臣子之忍與之共戴一天, 未能手磔而口臠, 凡幾月矣? 輿論迭發, 聖斷斯赫, 特允臺臣之請, 王章始可夫伸, 輿情從此少洩, 而豈意酌決之命遽下, 至令似此凶逆, 生出獄門, 刑政之乖失, 神人之痛惋, 容有極哉? 噫, 彼賊敏, 卽一貸頭之逆豎也, 此而不嚴覈情節, 夫斷常刑, 則倫綱斁而義理晦, 將至於國不得爲國, 人不得爲人, 不逞之徒, 去益生心, 亂逆之起, 又復接跡, 豈不大可懼哉? 旣允群請, 而不宜從輕, 自有邦憲, 而不容少緩.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答曰, 不允.

❖ 순조 4년(1804) 갑자년 11월 28일(계축)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사간 홍수호(洪受浩) 등의 계

○ 사간 홍수호(洪受浩), 장령 신서(申溆), 지평 송면재(宋冕載)[68]가 아뢰기를, "〈상략〉 아, 통탄스럽습니다. 상도(常道)를 간범(干犯)하고 기강을 어지럽히는 역적이 예로부터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찌 홍재민(洪在敏)과 같이 지극히 요망하고 간특하여 흉패(凶悖)한 자가 있겠습니까? 늘상 효경(梟獍)[69]의 마음을 품

68) 송면재(1764~?): 본관 여산(礪山). 자 주경(周卿). 1794년(정조 18) 문과 급제. 대사헌, 형조판서, 예조판서 역임.

고, 귀역(鬼蜮)[70]의 실상을 숨길 수 없었으니, 기회를 틈타 악독한 짓을 자행하고자, 틈을 노려 한 통의 상소를 올려 위로는 성상을 핍박하고, 아래로는 조정의 신하들을 모조리 다 잡아들이려 했습니다. "주량(舟梁)의 큰 경사에 무함을 당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면서 마치 정말로 무함하고 핍박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또 고(故) 상신(相臣)의 대양(對揚)을 인용하여 마치 변명(辨明)하지 않은 듯하였고, 끝에 가서는 "안중에 군모(君母)가 없다."는 등의 말로 빙자하여 의란(疑亂)하고, 번쩍하여 나무라고 헐뜯으면서 불령(不逞)[71]한 습관을 드러내 놓고 실현함에 조금도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이 없었으니, 그 흉악하고 참혹함이 어찌 이다지도 지극한 것입니까? 아, 경신년 이후 우리 동방이 오늘이 있게 된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거룩한 우리 자성(慈聖) 전하가 5기(紀)동안 국모(國母)로 임하고, 4년 동안 수렴(垂簾)하여 우리 성궁(聖躬)을 보호하고 우리 종팽(宗祊)을 공고히 하였던 것이니, 의리는 천명(闡明)되고 조정의 기상은 화락·태평해졌습니다. 이에 능히 선왕의 유지(遺志)를 추념(追念)하고 이에 정해진 문상(文祥)을 널리 거행하여 우리의 억만년토록 끝이 없을 아름다움을 터닦아 놓았으니, 크고 거룩한 공렬(功烈)은 사첩(史牒)에 빛남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동토(東土) 수천 리에서 자성의 덕이 덮고 있는 하늘 아래에, 누군들 발을 구르며 춤추고 손을 모아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날 대신(臺臣)과 통유(通儒)의 처분도 자성의 뜻에 품결(稟決)하여 자성의 덕을 미루어 밝히지 않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대(正大)한 광명은 후세에 할 말이 있기에 무릇 병이(秉彝)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누군들 자성의 어짊을 송축하지 아니하고 성효(聖孝)를 우러르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자성과 전하의 궐정(闕庭)에 북면(北面)하고 있는 자인데, 도대체 무슨 심장(心腸)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지 않다.'는 흉악한 말을 하면서 맹세코 전하의 조정에 서려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 한 조항만으로도 이미 천지가 다하고 만세에 뻗히도록 있지 아니한 극역(劇逆)의 단안(斷案)이니, 이는 전하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실로 자성의 죄인입니다. 범한 죄를 따진다면 능지처참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잠시도 천지간에 용서해서는 안되는데, 오늘날 신하들이 차마 함께 한 하늘을 이고 살면서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입으로 살을 씹지 못한 지 몇 달이 되었습니까? 여론이 번갈아 일어나고 성상의

---

69) 효경(梟獍): 어미 새를 잡아먹는다는 올빼미와 아비를 잡아먹는다는 짐승이라는 뜻으로, 배은망덕하고 흉악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0) 귀역(鬼蜮): 귀신과 물여우라는 뜻으로, 음험하여 남몰래 남을 해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1) 불령(不逞): 원한이나 불평불만을 품고 국가의 구속에서 벗어나 제 마음대로 행동함.

결단이 혁혁하여 특별히 대신의 청을 윤허하였기에, 국법이 비로소 시원스레 펴지고 여론이 이로부터 조금 풀리게 되었는데, 어찌 참작하여 결단하라는 명이 갑자기 내려지고 이와 같은 흉역이 살아서 옥문(獄門)을 나오게 하여 형정(刑政)이 어그러지고 귀신과 사람의 원통함을 극에 달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 저 역적 홍재민은 일개 역적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런데도 정상을 엄히 조사하여 상형(常刑)을 통쾌하게 결단하지 않는다면, 윤강(倫綱)이 무너지고 의리가 어두워져 장차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되어 불령한 무리가 갈수록 더욱 마음을 먹게 되고, 난역(亂逆)이 일어날 때 다시 꼬리를 물고 있을 것이니 어찌 크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미 신하들의 청을 윤허하였으니 가벼운 쪽으로 처벌해서는 안 되고, 나라에 법이 있으니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72]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72) 이상은《순조실록》순조 4년 8월 1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九年 甲子 十一月 二十八日 癸丑

○ 掌令申溆, 持平宋冕載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不允. …….

❖ 순조 4년(1804) 갑자년 11월 28일(계축)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신서(申溆) 등의 계

○ 장령 신서(申溆), 지평 송면재(宋冕載)가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九年 甲子 十二月 一日 丙辰

○ 以濟州牧使朴宗柱狀啓, 柑橘成熟不足, 莫重薦新及進上, 俱不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南履翼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4년(1804) 갑자년 12월 1일(병진)

▢ 천신(薦新)과 진상(進上) 감귤(柑橘)을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해 대죄(待罪)한다고 한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의 장계에, 감귤(柑橘)이 성숙한 것이 부족하여 막중한 천신(薦新)과 진상(進上)을 모두 규례대로 봉진(封進)할 수 없기에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남이익(南履翼)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박종주, 감귤, 천신, 진상, 대죄.

❖ 嘉慶 九年 甲子 十二月 一日 丙辰

○ 南履翼, 以禮曹言啓曰, 卽接濟州牧使朴宗柱狀啓謄報, 則十月令宗廟·景慕宮薦新唐金橘, 如數封進, 柑子備數無路, 以一百七十八箇, 都封上送, 以爲稟旨事爲辭矣. 唐金橘, 依例當日薦進, 柑子雖未備數, 多有分排薦獻之例, 今亦依前例分排, 當日一體薦進, 何如? 傳曰, 允.

❖ 순조 4년(1804) 갑자년 12월 1일(병진)

▢ 제주(濟州)에서 10월령 천신(薦新)으로 봉진(封進)한 감자(柑子)의 부족으로 인해 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에 분배하여 천진(薦進)하는 일에 관한 예조의 계

○ 남이익(南履翼)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의 장계 등보(狀啓謄報)을 접해보니, 10월령 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에 천신(薦新)하는 당금귤(唐金橘)은 숫자대로 봉진(封進)하지만, 감자(柑子)는 수량을 갖출 길이 없어 178개로써 모두 봉진하여 올려보내니 품지(稟旨)하라고 하였습니다. 당금귤은 규례대로 당일 천진(薦進)하고, 감자는 비록 숫자를 채우지 못했지만 분배하여 천헌(薦獻)한 사례가 많이 있으니, 지금 또한 전례대로 분배하여 당일 일체 천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당금귤, 감자, 천진, 종묘, 경모궁.

❖ 嘉慶 九年 甲子 十二月 二日 丁巳

○ 以濟州防禦使朴宗柱狀啓, 進上洞庭橘, 以山橘代封, 惶恐待罪事, 傳于金在昌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4년(1804) 갑자년 12월 2일(정사)

▢ 동정귤(洞庭橘) 대신 산귤(山橘)로 대신 봉진(封進)하여 대죄(待罪)한다고 한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의 장계에, 진상할 동정귤(洞庭橘)을 산귤(山橘)로 대신 봉진(封進)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김재창(金在昌)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박종주, 동정귤, 산귤, 대죄.

❖ 嘉慶 九年 甲子 十二月 十日 乙丑

○ 甲子十二月初十日午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行左承旨李溏, 左副承旨金在昌, 假注書鄭元容, 事變假注書朴長輿, 記事官崔鳳和, 別兼春秋徐有恂, 左議政徐邁修, 右議政李敬一, 行吏曹判書黃昇源, 行禮曹判書韓用龜, 兵曹判書韓晩裕, 行大護軍蔡弘履, 行護軍李得濟·李仁秀, 行都承旨徐瀅修, 行副護軍朴宗慶, 校理朴宗正, 以次進伏訖. …… 邁修曰, 此濟州牧使朴宗柱災實狀啓也. 分等不爲擧論, 數件應行之事, 從便措處, 開錄于左, 而候風涉海, 遲速無期, 謹依已例, 一邊擧行, 一邊馳啓, 請令廟堂, 稟旨分付矣. 其一, 新舊還之一時竝督, 恐傷民力, 舊還, 姑爲仍停事也. 其一, 軍兵逃老故, 嚴飭各該邑, 待明春從附近邑哨司鍊事也. 舊還停捧, 軍兵操鍊之停退等事, 先擧行後狀聞, 便成已例, 竝依狀請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 순조 4년(1804) 갑자년 12월 10일(을축)

▢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가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구환(舊還)을 정봉(停捧)하고 군병의 조련(操鍊)을 정퇴(停退)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좌의정 서매수(徐邁修)의 계

○ 갑자년 12월 10일 오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행좌승지 이당(李溏), 좌부승지 김재창(金在昌), 가주서 정원용(鄭元容), 사변가주서 박장여(朴長輿), 기사관 최봉화(崔鳳和), 별겸춘추 서유순(徐有恂), 좌의정 서매수(徐邁修), 우의정 이경일(李敬一), 행이조판서 황승원(黃昇源), 행예조판서 한용구(韓用龜), 병조판서 한만유(韓晩裕), 행대호군 채홍리(蔡弘履), 행호군 이득제(李得濟)·이인수(李仁秀), 행도승지 서형수(徐瀅修), 행부호군 박종경(朴宗慶), 교리 박종정(朴宗正)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매수[73]가 아뢰기를, "이것은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의 재실장계(災實狀啓)입니다. 분등(分等)을 거론하지 않고, '몇 건의 응당 해야 할 일을 편의에 따로 조처하여 아래에 개록(開錄) 하였는데, 바람을 기다려 바다를 건너는 것이 그 늦고 빠름을 기약할 수 없기에 삼가 전례에 의거하여 한편으로는 거행하고 한편으로는 치계(馳啓)하니 청컨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분부하

73) 서매수(1731~1818): 본관 대구(大丘). 자 덕이(德而). 호 당헌(戇軒). 시호 익헌(翼憲). 1787년(정조 11) 문과 급제. 이조판서, 우의정, 영의정 역임. 저서《해영일기(海營日記)》.

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신환(新還)과 구환(舊還)을 동시에 아울러 독촉하는 것이 민력(民力)을 상하게 할까 염려되니 구환을 일단 그대로 정퇴(停退)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도망가거나 늙거나 죽은 부류를 각 해당 읍에 엄히 타일러 경계하여 내년 봄을 기다려 부근의 초사(哨司)에서 조련(操鍊)하는 일입니다. 구환의 정봉(停捧)과 군병 조련의 정퇴 등의 일은 먼저 거행한 후에 장계로 보고하는 것이 곧 전례가 되었으니, 모두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박종주, 재실장계, 구환, 조련.

1805年

(순조 5)



❖ 嘉慶 十年 乙丑 一月 九日 甲午

○ 徐瀅修, 以吏曹言啓曰, 僉知金處漢, 乃是甲子生, 而誤以乙丑懸錄, 官案推恩時, 混同書入, 至於下批. 行護軍徐有和, 濟州牧使朴宗柱, 俱是年六十一歲人, 而未及詳知, 以至遺漏疎謬之失, 臣不勝惶恐, 而金處漢所授加資還收, 徐有和·朴宗柱加資, 則待後政下批, 何如? 傳曰, 允. 口傳下批, 卿則推考.

❖ 순조 5년(1805) 을축년 1월 9일(갑오)

▢ 관안(官案)을 추은(推恩)할 때 실수로 빠뜨린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 등에 대해 다음 정사(政事)에서 가자(加資)할 것을 청하는 이조의 계

○ 서형수(徐瀅修)가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첨지 김처한은 갑자생인데 잘못하여 을축생으로 현록(懸錄)하여 관안(官案)[74]을 추은(推恩)할 때 혼동하여 써서 들여 비답을 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행호군 서유화와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는 모두 61세인데, 미처 자세히 알지 못하여 빠뜨려 잘못하는 실수에 이르게 되었으니, 신은 황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처한에게 준 가자(加資)를 도로 거두어들이고, 서유화와 박종주의 가자는 다음 정사(政事)에서 하비(下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구전하비(口傳下批)하고, 경(卿)은 추고(推考)하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박종주, 가자.

74) 관안(官案): 각 관청의 소관 사무 및 소속 관원의 품계와 정원 등을 기록한 일종의 관직표.

❖ 嘉慶 十年 乙丑 一月 九日 甲午

○ 吏曹口傳政事, 護軍徐有和, 今加嘉義, 濟州牧使朴宗柱, 今加嘉善, 以上年六十一歲人, 各加一資事, 承傳.

❖ 순조 5년(1805) 을축년 1월 9일(갑오)

▢ 이조가 구전정사(口傳政事)하여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를 가선대부(嘉善大夫)로 가자(加資)함

○ 이조가 구전정사(口傳政事)하여 호군 서유화를 이번에 가의대부로 가자(加資)하고,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를 이번에 가선대부(嘉善大夫)로 가자하였다. 지난해 61세 이상인 사람에게 각각 한 자급(資級)을 가자하라는 승전(承傳)을 받든 것이다.

△ 주제어: 제주목사, 박종주, 가선대부, 가자.

❖ 嘉慶 十年 乙丑 二月 十四日 戊辰

○ 徐美修, 以禮曹言啓曰, 濟州牧使封進來三月令宗廟薦新靑橘, 今日當爲薦進, 而魂殿薦新靑橘, 未及別封矣, 依前例, 以宗廟薦新加封靑橘, 當日因夕奠兼薦, 何如? 傳曰, 允.

❖ 순조 5년(1805) 을축년 2월 14일(무진)

▢ 종묘 천신(薦新)에 봉진(封進)한 청귤(靑橘)을 가지고 혼전(魂殿)에도 천신(薦新)하겠다는 예조의 계

○ 서미수(徐美修)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封進)한 3월령 종묘에 천신(薦新)하는 청귤(靑橘)을 오늘 천진(薦進)해야 하는데, 혼전(魂殿)에 천신할 청귤을 미처 별봉(別封)하지 않았습니다. 전례대로 종묘 천신에 더 봉진한 청귤로 당일 석전(夕奠)에 겸하여 천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청귤, 천신, 혼전.

❖ 嘉慶 十年 乙丑 二月 十四日 戊辰

○ 徐美修, 以奉常寺提調意啓曰, 濟州封進來三月令宗廟薦新靑橘二百八十八箇, 今方來到, 而加封三十箇, 薦新於魂殿之意, 有禮曹知委, 故臣依例看品, 則原封中腐傷夥多, 無以如數封進, 不得已推移分封, 而莫重薦新物種, 不能審愼, 有此欠縮, 誠甚駭然, 當該封進濟州牧使朴宗柱, 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

❖ 순조 5년(1805) 을축년 2월 14일(무진)

▢ 상한 청귤(靑橘)을 봉진(封進)한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에 대한 종중추고(從重推考)를 청하는 봉상시의 계

○ 서미수(徐美修)가 봉상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봉진(封進)한 3월령 종묘 천신(薦新) 청귤(靑橘) 288개가 금방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봉(加封)한 30개를 혼전(魂殿)에 천신할 뜻으로 예조에서 통보하였습니다. 때문에 신이 규례대로 간품(看品)하니, 원봉(原封) 가운데 썩어 상한 것이 과다하여 수량대로 봉진할 수 없어 부득이 변통하여 나누어 봉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중한 천신 물종을 신중하게 살피지 못하여 이와같이 흠축이 났으니 실로 심히 놀랍습니다. 해당 봉진관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를 종중추고(從重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봉진, 청귤, 제주목사, 박종주, 종중추고.

❖ 嘉慶 十年 乙丑 三月 十三日 丁酉

○ 趙德潤,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濟州牧使朴宗柱狀啓, 則以爲旌義縣監朴宗林, 捐出至薄之廩, 破傷軍器及館舍城郭, 一皆修補, 雖係奉職之常事, 其在激勸之道, 不可無論賞, 特令廟堂照例稟處爲辭矣. 考例施賞之意, 分付兵曹, 何如? 傳曰, 允.

❖ 순조 5년(1805) 을축년 3월 13일(정유)

▢ 봉름(俸廩)을 출연하여 부서지고 상한 군기(軍器)와 관사, 성곽 일체를 보수한 정의현감(旌義縣監) 박종림(朴宗林)의 논상(論賞)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조덕윤(趙德潤)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의 장계를 보니, '정의현감(旌義縣監) 박종림(朴宗林)이 지극히 박한 봉름(俸廩)을 출연하여 부서지고 상한 군기(軍器)와 관사, 성곽 일체를 보수하였습니다. 비록 직무를 수행하는 상사(常事)에 관계된다고는 하나 격려하는 도리에 있어서 논상(論賞)이 없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묘당으로 하여금 전례에 비추어 품처(稟處)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전례를 살펴 시상할 뜻을 병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박종림, 봉름, 출연, 논상.

❖ 嘉慶 十年 乙丑 三月 二十一日 丙午[乙巳]

○ 有政. 吏批, 行判書黃昇源進, 參判朴宗慶進, 參議鄭東觀牌不進, 同副承旨李文會進. …… 旌義縣監朴宗林今加通政, 本縣公廨修補之功加資事, 承傳. …….

❖ 순조 5년(1805) 을축년 3월 21일(병오[을사])

▢ 공해(公廨)를 보수한 공으로 정의현감(旌義縣監) 박종림(朴宗林)에게 통정대부를 가자(加資)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행판서 황승원(黃昇源)이 나왔고, 참판 박종경(朴宗慶)이 나왔고, 참의 정동관(鄭東觀)은 패초에 나오지 않았고, 동부승지 이문회(李文會)가 나왔다. 〈중략〉 정의현감(旌義縣監) 박종림(朴宗林)에게 이번에 통정대부를 가자(加資)하니, 본현(本縣)의 공해(公廨)를 보수한 공으로 가자하라는 승전을 받든 것이다. 〈하략〉.

△ 주제어: 정의현감, 박종림, 통정대부, 가자.

❖ 嘉慶 十年 乙丑 三月 二十二日 丙午

○ 義禁府啓目粘連, …… 又啓目粘連, 濟州牧放未放修啓冊子中, 本府所管定配罪人未放秩乙良, 依啓聞施行爲白乎旀, 他餘罪人等, 令刑曹, 稟處, 何如? 判付啓, 依允.

❖ 순조 5년(1805) 을축년 3월 22일(병오)

▢ 정배죄인(定配罪人)으로 석방하지 않을 부류를 계문(啓聞)대로 시행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의 계목점련에, 〈중략〉 또 계목점련(啓目粘連)에 "제주목(濟州牧)의 석방하고 석방하지 않을 죄인에 대해 아뢴 책자 중에, 본부 소관의 정배죄인(定配罪人)으로 석방하지 않을 부류를 계문(啓聞)대로 시행하며, 다른 나머지 죄인들은 형조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정배죄인.

❖ 嘉慶 十年 乙丑 三月 二十三日 丁未

○ 李文會啓曰, 禁府·刑曹徒流案入啓之際, 刑曹所管濟州牧徒流案, 獨爲落漏, 今始來呈. 臣之曚然不察, 不勝惶恐, 而事體所在, 萬萬未安, 當該刑曹堂上, 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

❖ 순조 5년(1805) 을축년 3월 23일(정미)

▢ 제주목도류안(濟州牧徒流案)을 누락한 형조(刑曹) 당상의 종중추고(從重推考)를 청하는 이문회(李文會)의 계

○ 이문회(李文會)가 아뢰기를, "의금부와 형조(刑曹)의 도류안(徒流案)[75]을 입계(入啓)할 때 형조에서 관할하는 제주목도류안(濟州牧徒流案)만 누락되어 이제야 비로소 와서 올렸습니다. 신이 어리석게 살피지 못하였기에 황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일의 체모에 있어 매우 온당치 못하니 해당 형조 당상을 종중추고(從重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형조, 도류안, 추고.

75) 도류안(徒流案): 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에 처한 사람의 이름을 적은 책.

❖ 嘉慶 十年 乙丑 四月 十一日 甲子

○ 刑曹啓目粘連, …… 又啓目粘連, 因濟州牧使朴宗柱放未放修啓冊子, 本曹所管定配罪人未放秩乙良, 竝依啓聞施行之意, 分付道臣, 何如? 判付啓, 依允. …….

❖ 순조 5년(1805) 을축년 4월 11일(갑자)

▢ 정배죄인(定配罪人)으로 석방하지 않을 부류를 계문(啓聞)대로 시행하도록 관찰사에게 분부할 것을 청하는 형조의 계

○ 형조의 계목점련에, 〈중략〉 또 계목점련(啓目粘連)에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가 석방하고 석방하지 않을 죄인에 대해 아뢴 책자 중에, 본조(本曹) 소관의 정배죄인(定配罪人)으로 석방하지 않을 부류를 모두 계문(啓聞)대로 시행하는 뜻을 관찰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정배죄인.

❖ 嘉慶 十年 乙丑 五月 十二日 乙未

○ 執義高宅謙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不允. …….

❖ 순조 5년(1805) 을축년 5월 12일(을미)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고택겸(高宅謙)의 계

○ 집의 고택겸(高宅謙)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年 乙丑 五月 十四日 丁酉

○ 執義高宅謙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不允.

❖ 순조 5년(1805) 을축년 5월 14일(정유)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고택겸(高宅謙)의 계

○ 집의 고택겸(高宅謙)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年 乙丑 六月 二日 甲寅

○ 執義韓永逵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不允. …….

❖ 순조 5년(1805) 을축년 6월 2일(갑인)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한영규(韓永逵)의 계

○ 집의 한영규(韓永逵)가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年 乙丑 六月 十日 壬戌

○ 執義韓永逵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순조 5년(1805) 을축년 6월 10일(임술)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한영규(韓永逵)의 계

○ 집의 한영규(韓永逵)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年 乙丑 六月 十三日 乙丑

○ 執義韓永逵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순조 5년(1805) 을축년 6월 13일(을축)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한영규(韓永逵)의 계

○ 집의 한영규(韓永逵)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年 乙丑 閏六月 十二日 癸巳

○ 任厚常,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凶咎駑駘馬二十匹, 合八十八匹內, 一匹船中故失, 一匹到中路故失, 十九匹到龍仁逃逸. 除實納馬六十七匹, 禾毛色別單書入, 而進獻事體, 何等嚴重, 所封馬匹之骨孱體瘦, 比前尤甚. 當該封進官濟州牧使朴宗柱, 姑先從重推考, 以警日後. 莫重貢馬, 不善護送, 逃逸之數, 至於十九匹之多, 事極駭然. 當該地方官, 令該府拿處, 何如? 傳曰, 允.

❖ 순조 5년(1805) 을축년 윤6월 12일(계사)

▢ 골격이 잔약하고 몸집이 수척한 말을 봉진(封進)한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의 종중추고(從重推考) 등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임후상(任厚常)[76]이 사복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선운(先運)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8필, 삼명일진상마(三名日進上馬) 60필, 흉구노태마(凶咎駑駘馬) 20필, 합 88필 내에 1필은 배 안에서 죽고, 1필은 중도에 죽고, 19필은 용인(龍仁)에 도착해서 달아나서 실제 바치는 말 67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입니다. 그런데, 진헌(進獻)의 사체(事體)가 얼마나 엄중한 것입니까? 봉진(封進)한 말의 골격이 잔약하고 몸집이 수척하기가 전에 비해 더욱 심하니, 해당 봉진관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를 우선 종중추고(從重推考)하여 후일을 기약하십시오. 막중한 공마(貢馬)에 대한 호송을 잘하지 못하여 도망간 숫자가 19필에 이르렀으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해당 지방관을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다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박종주, 공마, 봉진, 종중추고.

---

76) 임후상(?~?): 본관 풍천(豊川). 자 덕여(德汝). 1792년(정조 16) 문과 급제. 대사간, 호조참의 역임.

❖ 嘉慶 十年 乙丑 閏六月 十二日 癸巳

○ 任厚常,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運歲貢馬二百匹內, 一匹船中故失, 二匹到中路故失, 四匹到中路病留, 四十六匹訓鍊都監, 十二匹禁衛營, 十二匹御營廳軍馬分給. 除實納馬一百二十三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5년(1805) 을축년 윤6월 12일(계사)

▢ 제주(濟州)에서 나온 후운(後運) 세공마(歲貢馬)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임후상(任厚常)이 사복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후운(後運) 세공마(歲貢馬) 200필 내에 1필은 배 안에서 죽고, 2필은 중도에 죽고, 4필은 중도에 병이 나서 남겨 두고, 46필은 훈련도감, 12필은 금위영, 12필은 어영청 군마로 분급(分給)하여 실제로 바치는 말 123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세공마, 별단.

❖ 嘉慶 十年 乙丑 閏六月 二十二日 癸卯

○ 公忠道儒生幼學李景燮, 進士朴和燮·姜華錫·兪命欽, 生員申命顯, 幼學朴和喆 …… 金尙衡等疏曰, 伏以, 居諸易得, 孝安殿卒哭奄過, 聖孝哀慕, 益復如新, 神天默佑, 聖痘遄復, 縟儀載擧, 臣民慶忭, 曷有其極? 竊伏惟念, 世道汚隆, 亶係斯文之盛衰, 而崇奬儒賢, 尤爲王政之先務. 故惟我祖宗朝聖繼神承, 罔不以招徠賢士爲急, 而間或有潛光抱德, 未及需用者, 則歲月雖遠, 亦必採摭而褒揚之, 或施貤贈, 或許腏享, 其於崇報之典, 無有憾焉. 我殿下嗣服以後, 聖學緝熙, 敦尙儒術, 凡在旌招之列者, 莫不誠心禮遇, 而至於昨年冬, 數三儒賢增秩易名之擧, 益可見我聖上崇儒重道, 式遵家法之盛意, 而我東方億萬年文明之休, 實基於此. 風聲所暨, 士林咸聳, 而有若宏儒碩德, 有功斯文, 而生而未展其實用之學, 歿而獨漏於追奬之典, 爲聖朝之闕章, 而貽士林之齎鬱者, 卽故侍講院諮議臣權震應是已. 震應卽先正臣文純公尙夏之曾孫, 而文純之門人贈判書文純公臣韓元震之高弟也. 早聞家庭之學, 又服函丈之訓, 淵源之遠, 門路之正, 固非他人所及, 而況其天姿純粹, 學識超邁, 自在童丱, 已知修己治人, 爲此學之頭顱. 沈潛經傳, 探賾義理, 不貴乎口耳之誦習, 必務乎反躬而實踐, 居家而盡孝友之實, 在人而極忠恕之道. 若夫心性理氣之辨, 毫分縷析, 闡發精奧, 雖至錢穀甲兵之微, 默識旁通, 無非爲己. 當時同門之士, 許之以曾氏之篤行, 眞積力久, 表裏貫通, 至其仁精義熟, 存中發外, 則光霽之像, 溫厲之容, 望之儼若, 卽之粹然. 此其修於己者, 若是卓爾, 而德之所及人之從之者, 自不覺其心悅而誠服也. 故四方質業之士, 若復得夫子之孫子思, 踵門坌至, 莫不依歸, 各隨其才稟高下, 誘掖之勤, 敎導之嚴, 出自誠悃, 不啻若慈父之詔迷子. 雖在疾痛之時, 引接討論, 未嘗暫懈, 每云說經談書, 叩發難疑之際, 殆若沈疴之去體也. 士多成就, 世皆宗仰, 而若其闡父師之遺旨, 指洙·泗之正路, 使我湖西一方, 式至今家絃誦而戶詩禮者, 莫非斯人之功也. 且其謫居南荒也, 人士之叩門者, 開誠而牖迷, 節行之湮沒者, 立傳而揚美. 擩染所及, 自然感服, 皆曰, 吾輩不意復見宋尤菴, 尤菴卽先正臣文正公宋時烈別號, 而嘗謫是邦故也. 及其宥歸也, 士女奔走, 悵然失圖, 爭持牛酒, 涕泣送行, 雖以卉服鴂舌之鄕, 其所感化而愛慕者, 至於如此, 則此尤見治人之功, 無遠不及, 而雖聖人誘掖薰陶之妙, 無以過也. 至於扶護斯文之功, 又有大於此者. 昔在英廟甲申, 適因事端, 天威震疊, 當時論事之臣, 莫敢盡言. 及至辛卯, 震應以諮議承召命也, 慨然揮涕曰, 我若不言, 是負吾君也, 忝先祖也. 遂上章極論陰陽邪正之分, 言人所不敢言, 至被耽羅嚴譴之命. 其時銀臺·三司之臣, 繳還嚴旨, 力請反汗, 則一時公議, 於斯可見, 而斯文一脈陽氣 賴而不墜, 屹然若頹波之砥柱. 聖朝之卽賜環者, 亦感其忠君愛國之誠, 斷然無他, 而士林之慕仰依賴者, 由此而益重. 朝野方將佇其大用,

輔我宗國, 而天不假年, 遽至樑摧, 則時値寧考建極之初, 玉帛之招, 遍及林樊, 而斯人則獨未及見矣. 夫以造詣之深, 踐履之篤, 始自修齊之工, 措之治平之業, 綽綽然有餘裕, 而惜其經術才猷, 一未展布於當世. 乃就其祖先正臣舊居之鄕, 臨江構軒, 以爲讀書藏修之所, 嘗曰, 抱先人遺經, 依先人舊廬, 以終餘年足矣. 此眞所謂木石同居, 若將終身, 而獨其忠愛之心, 根於天性, 每聞朝廷有一事之得, 輒喜而不寐, 有一政之失, 泣涕漣漣, 廢食與寢. 斯其晩年一疏, 質之赤心, 斥邪扶正, 爲斯文莫大之功, 而身後之褒揚, 又若是寥寥, 士林之齎咨抱鬱, 固是同情. 如臣等居在鄒魯, 最被薰染者, 想像遺風, 愈久而愈不忘, 或懼其懿行之漸泯, 令名之無稱, 以爲士林羞也. 玆敢相率褁足, 齊籲於黈纊之下. 伏乞聖慈, 克軫尊賢褒德之方, 故諮議臣權震應, 特許贈之以崇秩, 賜之以美謚, 俾爲興起儒風, 扶植世敎之地焉. 臣等無任云云. 省疏具悉. 令廟堂稟處, 爾等退修學業.

❖ 순조 5년(1805) 을축년 윤6월 22일(계묘)

▢ 제주도(濟州島)에 유배 되었던 권진응(權震應)의 사후 증직을 청하는 공충도 유생 유학 이경섭(李景燮) 등의 상소

○ 공충도 유생 유학 이경섭(李景燮), 진사 박화섭(朴和燮)·강화석(姜華錫)·유명흠(兪命欽), 생원 신명현(申命顯), 유학 박화철(朴和喆), 〈중략〉 김상형(金尙衡)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세월이 흘러 효안전(孝安殿)의 졸곡(卒哭)이 문득 지나갔으니, 임금님의 애모(哀慕)하는 마음이 더욱 새로운데, 신령과 하늘이 묵묵히 도와서 성두(聖痘)가 빠르게 회복되어 성대한 의식이 거행되었으니, 신민(臣民)의 기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세도(世道)의 성쇠는 진실로 사문(斯文)의 성쇠와 관계되기에 유현(儒賢)을 높이고 장려하는 것은 더욱 왕정(王政)의 급선무입니다. 때문에 우리 조종조(祖宗朝)가 성인과 신인을 계승하여 현사(賢士)를 불러 위로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간혹 뛰어난 재능을 감추고 덕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미처 수용되지 못한 자는 세월이 비록 멀더라도 또한 반드시 가려내어 칭찬하고, 혹은 추증하고, 혹은 향사(享祀)를 허락하였으니, 존숭하고 보답하는 은전에 있어 유감이 없었습니다. 우리 전하께서 왕위를 계승하신 이후로 성학(聖學)이 밝게 빛나고 유술(儒術)을 숭상하여 무릇 정초(旌招) 하는 반열에 있는 자를 성심(誠心)으로 예우하지 않은 이가 없었으니, 작년 겨울에 몇 명의 유현에 대해 품질(品秩)을 더하고 시호(諡號)를

내린 것에서 우리 성상이 유학을 숭상하고 도를 중시하여 가법(家法)을 따르는 성대한 뜻을 더욱 잘 알 수 있으니, 우리 동방의 억만년 동안 문명한 아름다움은 실로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風聲)이 미치는 곳에 사림이 모두 용동(聳動)하였으니, 마치 굉유석덕(宏儒碩德)이 사문에 공이 있는 것과 같았는데, 살아서 그 실용의 학문을 펼치지 못하고, 죽어서 유독 추장(追奬)의 은전에 누락되었으며, 성조(聖朝)의 궐장(闕章)이 되어 사림에게 원한을 품게한 자는 곧 고(故) 시강원 자의 권진응(權震應)[77]이 바로 그러합니다. 권진응은 곧 선정신(先正臣) 문순공(文純公) 권상하(權尙夏)[78]의 증손으로, 문순공의 문인인 증판서 문순공 한원진(韓元震)[79]의 고제(高弟)이기도 합니다. 일찍부터 가정의 학문을 듣고 또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연원(淵源)이 먼 것과 문로(門路)가 올바른 것은 진실로 다른 사람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타고난 자질이 순수하고 학식이 탁월하여 어렸을 때부터 이미 자신을 닦아 남을 다스리는 것이 이 학문의 핵심이 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경전(經傳)에 침잠하고 의리(義理)를 깊이 탐색하여, 입과 귀로 암송하며 익히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반드시 자신에게 돌이켜서 실천하는 데에 힘을 써서, 집에 있을 때에는 효우(孝友)의 실제를 다하였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충서(忠恕)의 도리를 다하였습니다. 심성(心性)과 이기(理氣)의 분변과 같은 것은 세밀하게 분석하여 정밀하고 심오한 뜻을 드러내었으니, 비록 전곡(錢穀)과 갑병(甲兵) 같은 미미한 것까지도 묵묵히 알고 방통(旁通)하는 것이 위기(爲己)가 아님이 없었습니다. 당시 동문(同門)의 선비들이 증자(曾子)가 독실하게 행하여 참된 힘이 쌓이고 안팎이 관통하여, 인(仁)이 정밀하고 의(義)가 익숙하여 안에 간직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으로써 허여하니, 광풍제월(光風霽月)의 기상과 온화하면서 엄정한 용모는 멀리서 바라보면 엄약(儼若)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수연(粹然)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닦인 것이 이와같이 탁월하여 덕이 미치는 바를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마음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방에서 학업을 질정(質正)하는 선비가 마치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를 얻은 듯이 하여 그

77) 권진응(1711~1775): 본관 안동(安東). 자 형숙(亨叔). 호 산수헌(山水軒). 1771년(영조 47) 영조가 산림 세력을 당론의 온상으로 배척한 《유곤록》을 만들자 상소를 올려 이를 논하면서 증조부 권상하를 변호하였음. 이로 인해 그해 3월 14일 제주도 대정현으로 유배되었음. 1772년(영조 48)에 연로한 나이로 특별 사면을 받아 해배되었음.

78) 권상하(1641~1721): 본관 안동(安東). 자 치도(致道). 호는 수암(遂菴)·한수재(寒水齋). 좌찬성, 우의정, 좌의정 역임. 저서 《한수재집》.

79) 한원진(1682~1751): 본관 청주(淸州). 자 덕소(德昭). 호 남당(南塘). 시호 문순(文純). 1717년(숙종 43) 학행으로 천거. 영릉참봉 역임. 저서 《남당집》.

를 찾아 모여들어 귀의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각각 그 재주의 고하를 따라서 이끌어 도와준 부지런함과 교도(敎導)한 엄숙함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성실함에서 나온 것으로 자애로운 아비가 어리석은 자식을 가르치는 것과 같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병이 들어 몸이 아파할 때에도 인접(引接)하여 토론하는 것을 일찍이 잠시라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니, 매번 경전을 설명하고 글을 이야기 하면서 난의(難疑)한 것을 두드려 깨우칠 때에는 고질병이 거의 몸에서 떠난 것 같았습니다. 선비가 성취한 것이 많아 세상이 모두 숭상하여 우러러보았는데, 만약에 스승과 아비의 유지(遺旨)를 드러낸다면, 유학의 바른 길을 가리켜서 우리 호서(湖西) 한 지방으로 하여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가호호가 거문고를 타면서 시를 읊고 시례(詩禮)의 가르침을 전수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공이 아님이 없습니다. 또한 그가 남쪽 변방에서 귀양살이 할 때 인사(人士) 중에 문을 두드린 자에게는 진심으로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었고, 절행(節行) 중에 사라진 것은 전기(傳記)[80]를 지어 찬미하였습니다. 유염(擩染)이 미치는 바가 자연히 감복하여 모두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뜻밖에 다시 송우암(宋尤菴)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였으니, 우암은 곧 선정신 문정공 송시열(宋時烈)의 별호인데, 일찍이 이 지방에 유배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올 때 남녀가 분주히 달려와 망연자실하여 다투어 쇠고기와 술을 가지고 와서 눈물을 흘리며 전송하였으니, 비록 훼복(卉服)[81]을 입고 격설(鴃舌)[82]을 하는 시골이라 하더라도 그 감화되어 애모하는 것이 이와 같은 데에 이르렀으니, 여기에서 남을 다스린 공이 아무리 멀어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성인이 이끌어 주고 훈도하는 신묘한 방법으로도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사문을 붙잡아 보호한 공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한 이보다 큰 것이 있습니다. 지난 영조 갑신년에 마침 사단(事端)으로 인하여 성상이 진노하였으니, 당시 일을 논하는 신하는 감히 말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묘년에 이르러 권진응은 자의(諮議)로써 소명(召命)을 받들 때 개연(慨然)히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임금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선조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상소를 올려 음양(陰陽)과 사정(邪正)의 분별을 극렬히 논하고,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여 탐라(耽羅)로 엄히 견책받는 명이 이르게

80) 권진응이 대정현 유배 당시 창천리(蒼川里) 사람 강응주(姜應周)의 아내에 대한 전기를 지었음.

81) 훼복(卉服): 풀옷. 《서경》 〈하서(夏書) 우공(禹貢)〉에 "섬오랑캐는 풀옷을 바친다[島夷卉服]."라고 한 데서 유래함. 여기서는 제주인을 가리킴.

82) 격설(鴃舌): 때까치 소리. 《맹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지금 남만의 때까치 소리를 하는 사람의 말이 선왕의 도가 아니다[今也南蠻鴃舌之人, 非先王之道]."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제주어를 가리켜서 한 말임.

되었습니다. 그때 승정원과 삼사의 신하가 엄한 전지(傳旨)를 반려하고 명을 도로 거두기를 강력히 청하였으니, 한때의 공의(公議)를 여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문의 한 가닥 양기(陽氣)가 이에 힘입어 실추되지 않고 우뚝한 것이 거세게 휩쓸리는 물결 속의 지주(砥柱)와 같았습니다. 성조가 즉시 허물을 용서하고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인 것은 또한 그 충군애국(忠君愛國)하는 정성이 단연코 다른 뜻이 없었고, 사림이 앙모하여 의뢰하는 것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중해졌기 때문입니다. 조야(朝野)가 바야흐로 장차 그것이 크게 쓰여 우리 종사를 돕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늘이 세월을 빌려주지 않고 갑자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영고(寧考)[83]가 건극(建極)한 초기에 옥백지초(玉帛之招)가 임번(林樊)[84]에까지 두루 미쳤는데, 이 사람만 유독 미쳐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대저 조예의 깊음과 실천의 독실함으로 수신제가(修身齊家)의 공부로부터 시작하여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사업에 두고 여유가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그 경술(經術)과 재유(才猷)를 하나도 당세에 펼쳐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 선조 선정신이 옛날에 살았던 시골에 가서 강을 마주하여 집을 짓고 책을 읽으며 장수(藏修)[85]하는 곳으로 삼고는 일찍이 말하기를, “선인(先人)이 남긴 경서를 안고, 선인의 옛 오두막에 의지하여 남은 생애를 마친다면 족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참으로 이른바 ‘나무와 돌과 동거하다 장차 몸을 마치려 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유독 그 충애(忠愛)하는 마음은 타고난 본성에 뿌리를 둔 것으로, 매번 조정에서 한 가지 일의 득(得)을 들으면 문득 기뻐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한 가지 정사의 실(失)이 있으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먹는 것과 잠자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에 만년에 올린 한 통의 상소는 충성스러운 마음에 바탕을 두어 척사부정(斥邪扶正)을 청하여 사문의 막대한 공이 되었는데, 죽은 후의 포양(褒揚)은 또한 이와 같이 고요하니, 사림이 한탄하며 억울해 하는 것이 분명 같은 마음입니다. 신들처럼 추로(鄒魯)[86]에 살면서 훈염(薰染)을 가장 입은 자들은 유풍(遺風)을 상상하며 오래 될 수록 더욱 잊지 않지만, 혹 그 아름다운 행실이 점차 사라져 아름다운 명성이 일컬어지지 않아 사림의 수치가 될까 두렵습니다. 이에 감히 서로 이끌고 먼 길을 달려와서 일제히 임금께 아룁니다. 삼가 바라건대,

---

83) 영고(寧考): 죽은 선왕(先王)으로, 여기서는 정조를 가리킴.

84) 임번(林樊): 수풀로 울타리를 삼는다는 뜻으로 은사(隱士)가 사는 곳을 이르는 말.

85) 장수(藏修): 항상 학문을 닦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말함. 《예기》 〈학기(學記)〉의 “군자는 학문할 적에 장하고 수하고 유하고 식한다[君子之於學也 藏焉修焉 息焉遊焉].”라고 한 데서 온 말임.

86) 추로(鄒魯): 추(鄒)는 맹자의 출생지이고, 노(魯)는 공자의 출생지로 곧 유학(儒學) 또는 문교(文敎)가 흥성한 곳을 뜻함.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어진 이를 높이고 덕 있는 자를 포상하는 방도를 진념(軫念)하여 고 자의 권진응에게 특별히 숭질(崇秩)을 증직하고, 아름다운 시호를 추증하여 유학의 기풍을 흥기시키고 세교(世敎)를 부식(扶植)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신들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그대들은 물러가 학업을 닦으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권진응, 숭질, 시호, 추증.

❖ 嘉慶 十年 乙丑 閏六月 二十五日 丙午

○ 以金在源爲敦寧主簿, …… 李宅觀爲大靜縣監, …….

❖ 순조 5년(1805) 을축년 윤6월 25일(병오)

▢ 이택관(李宅觀)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김재원(金在源)을 돈녕주부로 삼고, 〈중략〉 이택관(李宅觀)[87]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이택관, 대정현감.

87) 이택관(?~?): 대정현감(1805.8.도임~1806.4.파직) 역임.

❖ 嘉慶 十年 乙丑 閏六月 二十六日 丁未

○ 乙丑閏六月二十六日午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 守令·邊將·察訪初仕人, 在院承旨同爲入侍時, 右承旨金宗善, 假注書韓泰登, 事變假注書朴時源, 記注官崔鳳和, 別兼春秋徐有恂, 左議政徐邁修, 刑曹判書蔡弘履, 行護軍李得濟·李仁秀·徐瀅修, 左承旨尹致性, 左副承旨李文會, 右副承旨吳鼎源, 同副承旨任厚常, 記事官徐淇修, 待敎朴宗薰, …… 大靜縣監李宅觀, …… 以次陞殿進伏. …….

❖ 순조 5년(1805) 을축년 윤6월 26일(정미)

▢ 대정현감(大靜縣監) 이택관(李宅觀)이 입시(入侍)함

○ 을축년 윤6월 26일 오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하고, 수령·변장·찰방 초사인(初仕人), 승정원에 있던 승지가 함께 입시(入侍)할 때 우승지 김종선(金宗善), 가주서 한태등(韓泰登), 사변가주서 박시원(朴時源), 기주관 최봉화(崔鳳和), 별겸춘추 서유순(徐有恂), 좌의정 서매수(徐邁修), 형조판서 채홍리(蔡弘履), 행호군 이득제(李得濟)·이인수(李仁秀)·서형수(徐瀅修), 좌승지 윤치성(尹致性), 좌부승지 이문회(李文會), 우부승지 오정원(吳鼎源), 동부승지 임후상(任厚常), 기사관 서기수(徐淇修), 대교 박종훈(朴宗薰), 〈중략〉 대정현감(大靜縣監) 이택관(李宅觀), 〈중략〉 차례로 승전(陞殿)하여 나와 엎드렸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감, 이택관, 입시.

❖ 嘉慶 十年 乙丑 閏六月 二十七日 戊申

○ 掌令具得魯, 持平黃明漢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可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不允. …….

❖ 순조 5년(1805) 을축년 윤6월 27일(무신)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구득로(具得魯) 등의 계

○ 장령 구득로(具得魯)[88], 지평 황명한(黃明漢)[89]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88) 구득로(1771~?): 본관 능성(綾城). 자 경여(景輿). 1794년(정조 18) 문과 급제. 장령, 대사간 역임.

89) 황명한(1771~?): 본관 장수(長水). 자 계량(季良). 1802년(순조 2) 문과 급제.

❖ 嘉慶 十年 乙丑 七月 十日 庚申

○ 今七月初十日辰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承旨李文會, 假注書兪應煥, 事變假注書李在嵩, 別兼春秋徐有恂, 記事官徐淇修, 左議政徐邁修兼禮曹判書韓用龜, 戶曹判書金達淳, 刑曹判書徐榮輔, 行護軍李得濟, 吏曹參判朴宗慶, 掌令具得魯, 獻納奇學敬, 副校理姜世綸, 副修撰李渭達, 以次進伏訖. …… 得魯等曰, 噫嘻痛矣. 干常亂紀之賊, 從古何限, 而豈有如在敏之至妖慝絶凶悖者哉? 常懷梟獍之心, 莫掩鬼蜮之狀, 乘機逞毒, 闖呈一疏, 上而揶逼聖躬, 下而網打朝紳, 至曰, 受誣於舟梁之大慶, 有若眞有誣逼者然. 又引故相之對揚, 有若不爲辯明者然, 末乃以眼無君母等語, 憑藉而疑亂, 閃忽而譏訕, 顯售不逞之習, 少無顧忌之心, 其爲凶憯, 胡至此極? 嗚呼, 庚申以後, 我東方得有今日, 是誰之力? 洪惟我慈聖殿下, 五紀母臨, 四載簾帷, 保護我聖躬, 鞏固我宗祊, 義理闡明, 朝象和泰, 克追先王之遺志, 誕擧旣定之文祥, 以基我億萬年無疆[疆]之休, 洪功盛烈, 有光史牒, 環東土數千里, 莫不蹈舞攢頌於慈覆之天, 而向來臺臣通儒之處分, 罔非稟決慈旨, 推明慈德, 正大光明, 有辭後世, 凡有秉彝之心者, 孰不頌慈仁仰聖孝, 而渠亦北面於慈聖暨殿下之庭者, 抑何心腸? 至有不欲比肩之凶言, 而矢死不欲立於殿下之庭, 卽此一款, 已是窮天地亘萬古所未有之劇逆斷案, 此非但殿下之罪人, 實是慈聖之罪人也. 究厥情犯, 剮戮猶輕, 不可使一刻容貸於覆載之間, 而今日臣子之忍與之共戴一天, 未能手磔而口臠, 凡幾月矣. 輿論迭發, 聖斷斯赫, 特允臺臣之請, 王章始可快伸, 輿憤從此少洩, 而豈意酌決之命遽下, 至令似此凶逆, 生出獄門, 刑政之乖失, 神人之痛惋, 容有極哉? 噫, 彼賊敏, 卽一貸頭之逆豎也, 此而不嚴覈情節, 快斷常刑, 則倫綱斁而義理晦, 將至於國不得爲國, 人不得爲人, 不逞之徒, 去益生心, 亂逆之起, 又復接跡, 豈不大可懼哉? 旣允群請, 而不宜從輕, 自有邦憲, 而不容少緩, 臣等謂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 宜矣. 上曰, 不允. …….

❖ 순조 5년(1805) 을축년 7월 10일(경신)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구득로(具得魯) 등의 계

○ 오늘 7월 10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우승지 이문회(李文會), 가주서 유응환(兪應煥), 사변가주

서 이재숭(李在嵩), 별겸춘추 서유순(徐有恂), 기사관 서기수(徐淇修), 좌의정 서매수(徐邁修), 겸예조판서 한용구(韓用龜), 호조판서 김달순(金達淳), 형조판서 서영보(徐榮輔), 행호군 이득제(李得濟), 이조참판 박종경(朴宗慶), 장령 구득로(具得魯), 헌납 기학경(奇學敬), 부교리 강세륜(姜世綸), 부수찬 이위달(李渭達)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구득로 등이 아뢰기를, "〈상략〉 아, 통탄스럽습니다. 상도(常道)를 간범(干犯)하고 기강을 어지럽히는 역적이 예로부터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찌 홍재민(洪在敏)과 같이 지극히 요망하고 간특하여 흉패(凶悖)한 자가 있겠습니까? 늘상 효경(梟獍)[90]의 마음을 품고, 귀역(鬼蜮)[91]의 실상을 숨길 수 없었으니, 기회를 틈타 악독한 짓을 자행하고자, 틈을 노려 한 통의 상소를 올려 위로는 성상을 핍박하고, 아래로는 조정의 신하들을 모조리 다 잡아들이려 했습니다. "주량(舟梁)의 큰 경사에 무함을 당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면서 마치 정말로 무함하고 핍박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또 고(故) 상신(相臣)의 대양(對揚)을 인용하여 마치 변명(辨明)하지 않은 듯하였고, 끝에 가서는 "안중에 군모(君母)가 없다."는 등의 말로 빙자하여 의란(疑亂)하고, 번쩍하여 나무라고 헐뜯으면서 불령(不逞)[92]한 습관을 드러내 놓고 실현함에 조금도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이 없었으니, 그 흉악하고 참혹함이 어찌 이다지도 지극한 것입니까? 아, 경신년 이후 우리 동방이 오늘이 있게 된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거룩한 우리 자성(慈聖) 전하가 5기(紀)동안 국모(國母)로 임하고, 4년 동안 수렴(垂簾)하여 우리 성궁(聖躬)을 보호하고 우리 종팽(宗祊)을 공고히 하였던 것이니, 의리는 천명(闡明)되고 조정의 기상은 화락·태평해졌습니다. 이에 능히 선왕의 유지(遺志)를 추념(追念)하고 이에 정해진 문상(文祥)을 널리 거행하여 우리의 억만년토록 끝이 없을 아름다움을 터닦아 놓았으니, 크고 거룩한 공렬(功烈)은 사첩(史牒)에 빛남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동토(東土) 수천 리에서 자성의 덕이 덮고 있는 하늘 아래에, 누군들 발을 구르며 춤추고 손을 모아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날 대신(臺臣)과 통유(通儒)의 처분도 자성의 뜻에 품결(稟決)하여 자성의 덕을 미루어 밝히지 않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대(正大)한 광명은 후세에 할 말이 있기에 무릇 병이(秉彝)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누군들 자성의 어짊을 송축하지 아니하고 성효(聖孝)를 우러르지 않겠습니까? 저

90) 효경(梟獍): 어미 새를 잡아먹는다는 올빼미와 아비를 잡아먹는다는 짐승이라는 뜻으로, 배은망덕하고 흉악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1) 귀역(鬼蜮): 귀신과 물여우라는 뜻으로, 음험하여 남몰래 남을 해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2) 불령(不逞): 원한이나 불평불만을 품고 국가의 구속에서 벗어나 제 마음대로 행동함.

또한 자성과 전하의 궐정(闕庭)에 북면(北面)하고 있는 자인데, 도대체 무슨 심장(心腸)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지 않다.'는 흉악한 말을 하면서 맹세코 전하의 조정에 서려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 한 조항만으로도 이미 천지가 다하고 만세에 뻗히도록 있지 아니한 극역(劇逆)의 단안(斷案)이니, 이는 전하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실로 자성의 죄인입니다. 범한 죄를 따진다면 능지처참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잠시도 천지간에 용서해서는 안되는데, 오늘날 신하들이 차마 함께 한 하늘을 이고 살면서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입으로 살을 씹지 못한 지 몇 달이 되었습니까? 여론이 번갈아 일어나고 성상의 결단이 혁혁하여 특별히 대신의 청을 윤허하였기에, 국법이 비로소 시원스레 펴지고 여론이 이로부터 조금 풀리게 되었는데, 어찌 참작하여 결단하라는 명이 갑자기 내려지고 이와 같은 흉역이 살아서 옥문(獄門)을 나오게 하여 형정(刑政)이 어그러지고 귀신과 사람의 원통함을 극에 달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 저 역적 홍재민은 일개 역적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런데도 정상을 엄히 조사하여 상형(常刑)을 통쾌하게 결단하지 않는다면, 윤강(倫綱)이 무너지고 의리가 어두워져 장차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되어 불령한 무리가 갈수록 더욱 마음을 먹게 되고, 난역(亂逆)이 일어날 때 다시 꼬리를 물고 있을 것이니 어찌 크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미 신하들의 청을 윤허하였으니 가벼운 쪽으로 처벌해서는 안 되고, 나라에 법이 있으니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年 乙丑 七月 十五日 乙丑

○ 大司諫曹允遂, 掌令具得魯, 持平黃明漢, 獻納奇學敬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答兩司曰, 不允.

❖ 순조 5년(1805) 을축년 7월 15일(을축)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대사간 조윤수(曹允遂) 등의 계

○ 대사간 조윤수(曹允遂), 장령 구득로(具得魯), 지평 황명한(黃明漢), 헌납 기학경(奇學敬)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양사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年 乙丑 七月 十五日 乙丑

○ 掌令具得魯, 持平黃明漢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可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府曰, 不允.

❖ 순조 5년(1805) 을축년 7월 15일(을축)

▢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구득로(具得魯) 등의 계

○ 장령 구득로(具得魯), 지평 황명한(黃明漢)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年 乙丑 七月 二十二日 壬申

○ 乙丑七月二十二日酉時, 上御誠正閣. 召對入侍時, 參贊官李文會, 持綱目第三十三卷, …… 記事官鄭觀綏, 持綱目第三十三卷, 以次進伏訖. …… 上曰, 諸道放未放回啓, 或有未入來者何也? 文會曰, 其中刑曹所管回啓, 似未入啓矣. 上曰, 成冊則皆已來到乎? 文會曰, 濟州外畢到矣. 上命退, 諸臣以次退出.

❖ 순조 5년(1805) 을축년 7월 22일(임신)

▢ 임금이 제도(諸道)의 방미방성책(放未放成冊)의 도착 여부 등을 물음

○ 을축년 7월 22일 유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소대(召對)에 입시할 때 참찬관 이문회(李文會)가 강목(綱目) 제33권을 가지고, 〈중략〉 기사관 정관수(鄭觀綏)가 강목 제33권을 가지고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도(道)의 방미방(放未放) 회계(回啓) 중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였다. 이문회가 아뢰기를, "그 가운데 형조가 주관하는 회계가 아직 입계(入啓)하지 않은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성책(成冊)은 모두 도착했는가?"라고 하였다. 이문회가 아뢰기를, "제주(濟州) 외에는 모두 도착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물러가라고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왔다.

△ 주제어: 방미방, 성책, 회계.

❖ 嘉慶 十年 乙丑 八月 十二日 壬辰

○ 以濟州牧使朴宗柱狀啓, 靑皮封進, 未滿定例, 惶恐待罪事, 傳于金宗善曰, 卿其勿待罪事, 回諭.

❖ 순조 5년(1805) 을축년 8월 12일(임진)

▢ 청피(靑皮) 봉진(封進)을 정해진 규례대로 채우지 못하여 대죄(待罪)한다고 한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의 장계에, 청피(靑皮)[93] 봉진(封進)을 정해진 규례대로 채우지 못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김종선(金宗善)에게 전교하기를, "경은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박종주, 청피, 봉진, 대죄.

93) 청피(靑皮): 귤이 완전히 익지 않은 미숙과의 껍질로 청귤피(靑橘皮)라고 함.

❖ 嘉慶 十年 乙丑 九月 一日 庚戌

○ 以濟州牧使朴宗柱狀啓, 淹死人等恤典題給, 別加慰諭事, 傳于宋冕載曰, 聞甚惻然, 原恤典外, 別加顧恤, 淹死人如有生前身還布, 亦卽蕩減事, 廟堂, 分付.

❖ 순조 5년(1805) 을축년 9월 1일(경술)

▢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제급(題給)하고, 생전에 신환포(身還布)가 있었다면 즉시 탕감(蕩減)하도록 묘당에서 분부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의 장계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제급(題給)하고 별도의 위유(慰諭)를 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송면재(宋冕載)에게 전교하기를, "들으니 매우 측은하다. 원휼전(原恤典) 외에 별도로 돌봐주고, 물에 빠져죽은 사람이 만일 생전에 신환포(身還布)가 있었다면 즉시 탕감(蕩減)하도록 묘당에서 분부하라."라고 하였다.[94]

△ 주제어: 휼전, 신환포, 탕감.

94) 이상은《비변사등록》순조 5년 9월 1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十年 乙丑 九月 十六日 乙丑

○ 司諫鄭魯榮, 掌令趙秀民, 正言金處巖啓曰, …… 噫嘻, 痛矣. 干常亂紀之賊, 從古何限, 而豈有如在敏之至妖慝絶凶悖者哉, 常懷梟獍之心, 莫掩鬼蜮之狀, 乘機逞毒, 闔呈一疏, 上而撄逼聖躬, 下而網打朝紳, 至曰受誣於舟梁之大慶, 有若眞有誣逼者然, 又引故相之對揚, 有若不爲辨明者然, 末乃以眼無君母等語, 憑藉而疑亂, 閃忽而譏訕, 顯售不逞之習, 少無顧忌之心, 其爲凶憯, 胡至此極? 嗚呼, 庚申以後, 我東方得有今日, 是誰之力, 洪惟我慈聖殿下, 五紀母臨, 四載簾帷, 保護我聖躬, 鞏固我宗祊, 義理闡明, 朝象和泰, 克追先王之遺志, 誕擧旣定之文祥, 以基我億萬年無疆之休, 洪功盛烈, 有光史牒, 環東土數千里, 莫不蹈舞攢頌於慈覆之天, 而向來臺臣通儒之處分, 罔非稟決慈旨, 推明慈德, 正大光明, 有辭後世, 凡有秉彝之心者, 孰不頌慈仁仰聖孝, 而渠亦北面於慈聖暨殿下之庭者, 抑何心腸, 至有不欲比肩之凶言, 而矢死不欲入於殿下之庭, 卽此一款, 已是窮天地亘萬古所未有之劇逆斷案, 此非但殿下之罪人, 實是慈聖之罪人也, 究厥情犯, 剕戮猶輕, 不可使一刻容貸於覆載之間, 而今日臣子之忍與之共戴一天, 未能手磔而口臠, 凡幾月矣, 輿論迭發, 聖斷斯赫, 特允臺臣之請, 王章始可快伸, 輿憤從此少洩, 而豈意酌決之命遽下, 至令似此凶逆, 生出獄門, 刑政之乖失, 神人之痛惋, 容有極哉? 噫, 彼賊敏, 卽一貸頭之逆豎也, 此而不嚴覈情節, 快斷常刑, 則倫綱斁而義理晦, 將至於國不得爲國, 人不得爲人, 不逞之徒, 去益生心, 亂逆之起, 又復接跡, 豈不大可懼哉? 旣允群請而不宜從輕, 自有邦憲而不容少緩,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答兩司曰, 不允.

❖ 순조 5년(1805) 을축년 9월 16일(을축)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사간 정노영(鄭魯榮) 등의 계

○ 사간 정노영(鄭魯榮), 장령 조수민(趙秀民), 정언 김처암(金處巖)[95]이 아뢰기를, "〈상략〉 아, 통탄스럽습니다. 상도(常道)를 간범(干犯)하고 기강을 어지럽히는 역적이 예로부터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찌 홍재민(洪在敏)과 같이 지극히 요망하고 간특하여 흉패(凶悖)한 자가 있겠습니까? 늘상 효경(梟獍)[96]의 마음을

95) 김처암(1755~?): 본관 안산(安山). 1795년(정조 19) 문과 급제. 지평 역임. 저서 《안산김씨가승(安山金氏家乘)》.

품고, 귀역(鬼蜮)[97]의 실상을 숨길 수 없었으니, 기회를 틈타 악독한 짓을 자행하고자, 틈을 노려 한 통의 상소를 올려 위로는 성상을 핍박하고, 아래로는 조정의 신하들을 모조리 다 잡아들이려 했습니다. "주량(舟梁)의 큰 경사에 무함을 당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면서 마치 정말로 무함하고 핍박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또 고(故) 상신(相臣)의 대양(對揚)을 인용하여 마치 변명(辨明)하지 않은 듯하였고, 끝에 가서는 "안중에 군모(君母)가 없다."는 등의 말로 빙자하여 의란(疑亂)하고, 번쩍하여 나무라고 헐뜯으면서 불령(不逞)[98]한 습관을 드러내 놓고 실현함에 조금도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이 없었으니, 그 흉악하고 참혹함이 어찌 이다지도 지극한 것입니까? 아, 경신년 이후 우리 동방이 오늘이 있게 된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거룩한 우리 자성(慈聖) 전하가 5기(紀)동안 국모(國母)로 임하고, 4년 동안 수렴(垂簾)하여 우리 성궁(聖躬)을 보호하고 우리 종팽(宗祊)을 공고히 하였던 것이니, 의리는 천명(闡明)되고 조정의 기상은 화락·태평해졌습니다. 이에 능히 선왕의 유지(遺志)를 추념(追念)하고 이에 정해진 문상(文祥)을 널리 거행하여 우리의 억만년토록 끝이 없을 아름다움을 터닦아 놓았으니, 크고 거룩한 공렬(功烈)은 사첩(史牒)에 빛남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동토(東土) 수천 리에서 자성의 덕이 덮고 있는 하늘 아래에, 누군들 발을 구르며 춤추고 손을 모아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날 대신(臺臣)과 통유(通儒)의 처분도 자성의 뜻에 품결(稟決)하여 자성의 덕을 미루어 밝히지 않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대(正大)한 광명은 후세에 할 말이 있기에 무릇 병이(秉彝)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누군들 자성의 어짊을 송축하지 아니하고 성효(聖孝)를 우러르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자성과 전하의 궐정(闕庭)에 북면(北面)하고 있는 자인데, 도대체 무슨 심장(心腸)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지 않다.'는 흉악한 말을 하면서 맹세코 전하의 조정에 서려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 한 조항만으로도 이미 천지가 다하고 만세에 뻗히도록 있지 아니한 극역(劇逆)의 단안(斷案)이니, 이는 전하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실로 자성의 죄인입니다. 범한 죄를 따진다면 능지처참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잠시도 천지간에 용서해서는 안되는데, 오늘날 신하들이 차마 함께 한 하늘을 이고 살면서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입으로 살을 씹지 못한 지 몇 달이 되었습니까? 여론이 번갈아 일어나고 성상의

---

96) 효경(梟獍): 어미 새를 잡아먹는다는 올빼미와 아비를 잡아먹는다는 짐승이라는 뜻으로, 배은망덕하고 흉악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7) 귀역(鬼蜮): 귀신과 물여우라는 뜻으로, 음험하여 남몰래 남을 해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8) 불령(不逞): 원한이나 불평불만을 품고 국가의 구속에서 벗어나 제 마음대로 행동함.

결단이 혁혁하여 특별히 대신의 청을 윤허하였기에, 국법이 비로소 시원스레 펴지고 여론이 이로부터 조금 풀리게 되었는데, 어찌 참작하여 결단하라는 명이 갑자기 내려지고 이와 같은 흉역이 살아서 옥문(獄門)을 나오게 하여 형정(刑政)이 어그러지고 귀신과 사람의 원통함을 극에 달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 저 역적 홍재민은 일개 역적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런데도 정상을 엄히 조사하여 상형(常刑)을 통쾌하게 결단하지 않는다면, 윤강(倫綱)이 무너지고 의리가 어두워져 장차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되어 불령한 무리가 갈수록 더욱 마음을 먹게 되고, 난역(亂逆)이 일어날 때 다시 꼬리를 물고 있을 것이니 어찌 크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미 신하들의 청을 윤허하였으니 가벼운 쪽으로 처벌해서는 안 되고, 나라에 법이 있으니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年 乙丑 九月 十六日 乙丑

○ 掌令趙秀民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之淺深, 有不可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府曰, 不允.

❖ 순조 5년(1805) 을축년 9월 16일(을축)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조수민(趙秀民)의 계

○ 장령 조수민(趙秀民)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年 乙丑 九月 十七日 丙寅

○ 司諫鄭魯榮, 掌令趙秀民, 正言金處巖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答兩司曰, 不允.

❖ 순조 5년(1805) 을축년 9월 17일(병인)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사간 정노영(鄭魯榮) 등의 계

○ 사간 정노영(鄭魯榮), 장령 조수민(趙秀民), 정언 김처암(金處巖)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양사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年 乙丑 九月 十七日 丙寅

○ 掌令趙秀民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府曰, 不允.

❖ 순조 5년(1805) 을축년 9월 17일(병인)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조수민(趙秀民)의 계

○ 장령 조수민(趙秀民)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年 乙丑 十月 十日 己丑

○ 李溏, 以兵曹言啓曰, 去甲子式年武科初試入格濟州武士申景周·李膺良·文亨奎, 當年會試, 因風高未得越海赴試矣, 今始上來, 願赴庭試武科, 依法典許赴於今番庭試武科殿試, 何如? 傳曰, 允.

❖ 순조 5년(1805) 을축년 10월 10일(기축)

▢ 갑자년 식년 무과(武科) 회시(會試)에 응시하지 못한 제주(濟州) 무사(濟州武士) 신경주(申景周) 등에 대해 금번 전시(殿試)에 응시하도록 허락할 것을 청하는 병조의 계

○ 이당(李溏)이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지난 갑자년 식년 무과(武科) 초시에 입격한 제주(濟州) 무사(濟州武士) 신경주(申景周)·이응량(李膺良)·문형규(文亨奎)가 당년 회시(會試)에 바람이 높아져 바다를 건너서 응시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이번에 비로소 올라와 정시 무과(武科)에 응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법전에 따라 금번 정시 무과 전시(殿試)에 응시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무과, 신경주, 이응량, 문형규, 전시.

❖ 嘉慶 十年 乙丑 十月 十日 己丑

○ 李溏, 以司僕寺提調意啓曰, 大靜前縣監金弼龍, 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 而進獻事體, 何等嚴重, 所封馬匹之骨孱體瘦, 比前尤甚. 當該封進大靜前縣監金弼龍, 姑先從重推考, 以警日後, 何如? 傳曰, 允.

❖ 순조 5년(1805) 을축년 10월 10일(기축)

▢ 골격이 잔약하고 몸집이 수척한 말을 봉진(封進)한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김필룡(金弼龍)의 종중추고(從重推考)를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이당(李溏)이 사복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김필룡(金弼龍)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금방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고, 규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하겠습니다. 그런데 진헌(進獻)의 사체(事體)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봉진(封進)한 말이, 골격이 잔약하고 몸집이 수척한 것이 전에 비해 더욱 심합니다. 해당 봉진관 전 대정현감 김필룡을 우선 종중추고(從重推考)하여 후일을 경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김필룡, 체임진상마, 종중추고.

❖ 嘉慶 十年 乙丑 十月 十八日 丁酉

○ 李溏, 以武二所試官意啓曰, 臣所今日平明開場, 應射擧子, 自天字至地字半字, 當爲九十七人, 而入門捧單, 只爲八十七人, 其中無緣不赴者, 京畿三人, 江原道三人, 平安道一人, 濟州三人, 合爲十人, 故只以元捧單, 先自木箭試取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5년(1805) 을축년 10월 18일(정유)

▢ 무과(武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응시하지 않은 제주인(濟州人) 3인 등을 제외하여 먼저 목전(木箭)부터 시취(試取)하겠다는 이소시관(二所試官)의 계

○ 이당(李溏)이 무과(武科) 이소시관(二所試官)의 뜻으로 아뢰기를, “신의 소(所)가 오늘 평명(平明)[99]에 개장(開場)하였습니다. 활쏘기에 응시하는 거자(擧子)가 천자(天字)에서 지자(地字)의 반자(半字)에 이르기까지 97인이어야 하는데, 과장문에 들어가 단자(單子)를 받아보니 87인 뿐으로, 그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과거에 응시하지 않은 자가 경기 3인, 강원도 3인, 평안도 1인, 제주(濟州) 3인 합 10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원봉(元捧)한 단자를 가지고 먼저 목전(木箭)부터 시취(試取)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무과, 단자, 시취.

99) 평명(平明): 아침 해가 뜨는 시각. 해가 돋아 밝아올 무렵.

❖ 嘉慶 十年 乙丑 十一月 十四日 癸亥

○ 李好敏,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濟州牧使朴宗柱災實狀啓, 則分等不爲擧論, 數件事, 候風涉海, 遲速無期, 謹援已例, 一邊擧行, 一邊馳啓爲辭矣. 其一, 新舊還之一時竝督, 恐傷民力, 舊還姑爲仍停事也. 其一, 軍兵逃老故, 嚴飭各該邑, 待明春從附近邑哨司操鍊事也. 舊還之停捧, 操鍊之停退, 爲先擧行, 追後狀聞, 便成已例, 竝依狀請施行, 何如? 傳曰, 允.

❖ 순조 5년(1805) 을축년 11월 14일(계해)

▢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가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구환(舊還)을 정봉(停捧)하고 군병의 조련(操鍊)을 정퇴(停退)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이호민(李好敏)[100]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니, 분등(分等)을 거론하지 않고, 몇 건의 일을, 바람을 기다려 바다를 건너는 것이 그 늦고 빠름을 기약할 수 없기에 삼가 전례에 의거하여 한편으로는 거행하고 한편으로는 치계(馳啓)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신환(新還)과 구환(舊還)을 동시에 아울러 독촉하는 것이 민력(民力)을 상하게 할까 염려되니 구환을 일단 그대로 정퇴(停退)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도망가거나 늙거나 죽은 부류를 각 해당 읍에 엄히 타일러 경계하여 내년 봄을 기다려 부근의 초사(哨司)에서 조련(操鍊)하는 일입니다. 구환의 정봉(停捧)과 군병 조련의 정퇴 등의 일은 먼저 거행한 후에 장계로 보고하는 것이 곧 전례가 되었으니, 모두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박종주, 재실장계, 구환, 조련.

---

100) 이호민(1762~?): 본관 전의(全義). 자 학여(學余). 1801년(순조 1) 문과 급제. 이조참판, 이조판서, 예조판서 역임.

❖ 嘉慶 十年 乙丑 十一月 十八日 丁卯

○ 以濟州防禦使朴宗柱狀啓, 橘果薦獻與進上, 俱不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徐英輔曰, 卿其勿待罪事, 回諭.

❖ 순조 5년(1805) 을축년 11월 18일(정묘)

▢ 귤과(橘果)의 천헌(薦獻)과 진상(進上)을 모두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대죄(待罪)한다고 한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박종주(朴宗柱)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박종주(朴宗柱)의 장계에, 귤과(橘果)의 천헌(薦獻)과 진상(進上)을 모두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서영보(徐英輔)에게 전교하기를, “경은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방어사, 박종주, 귤과, 천헌, 진상, 대죄.

❖ 嘉慶 十年 乙丑 十一月 十八日 丁卯

○ 徐英輔以禮曹言啓曰, 卽接濟州牧使朴宗柱狀啓謄報, 則去十月令薦新所封唐金橘三百三箇, 柑子二百二十二箇, 較諸定例, 數旣不足, 謹援已例, 都封上送, 以爲稟旨薦獻之地事爲辭矣. 在前橘果封進, 雖未備數, 分排薦獻, 多有已例, 今亦依近例, 宗廟·孝安殿·山陵·景慕宮薦新唐金橘·柑子, 當日分排薦進, 而山陵薦新, 則魂殿內官, 依例陪進陵所, 薦進, 何如? 傳曰, 允.

❖ 순조 5년(1805) 을축년 11월 18일(정묘)

▢ 제주(濟州)에서 11월령 천신(薦新)으로 봉진(封進)한 감자(柑子)와 당금귤(唐金橘)의 부족으로 인해 종묘(宗廟)·효안전(孝安殿) 등에 분배하여 천진(薦進)하는 일에 관한 예조의 계

○ 서영보(徐英輔)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의 장계등보(狀啓謄報)를 보니, 지난 11월령 천신(薦新)으로 봉진(封進)한 당금귤(唐金橘) 303개, 감자(柑子) 222개가 정례(定例)에 비교하면 수량이 부족한데, 삼가 전례를 원용(援用)하여 모두 봉하여 올려 보내면서 여쭈어 천헌(薦獻)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귤과(橘果)를 봉진할 때 비록 숫자를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분배하여 천헌한 사례가 많습니다. 금번 또한 근래의 사례대로 종묘(宗廟)·효안전(孝安殿)·산릉(山陵)·경모궁(景慕宮)에 천신하는 당금귤과 감자를 당일 분배하여 천진(薦進)하고, 산릉 천신은 혼전내관(魂殿內官)이 규례대로 능소(陵所)에 배진(陪進)하여 천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천신, 봉진, 감자, 당금귤.

❖ 嘉慶 十年 乙丑 十一月 十九日 戊辰

○ 以濟州防禦使朴宗柱狀啓, 貢果不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李羽晉曰, 卿其勿待罪事, 回諭.

❖ 순조 5년(1805) 을축년 11월 19일(무진)

▢ 공과(貢果)를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대죄(待罪)한다고 한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박종주(朴宗柱)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박종주(朴宗柱)의 장계에, 공과(貢果)를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이우진(李羽晉)에게 전교하기를, "경은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방어사, 박종주, 공과, 봉진, 대죄.

❖ 嘉慶 十年 乙丑 十一月 十九日 戊辰

○ 徐英輔, 以禮曹言啓曰, 卽接濟州牧使朴宗柱狀啓謄報, 則今十一月朔所封乳柑, 一一摘取, 只爲二百十二箇, 薦獻無以排數, 謹援已例, 都封上送, 以爲稟旨進獻之地事, 爲辭矣. 在前橘果稀結之時, 所封雖未備數, 分排薦獻, 多有已例, 來十二月令宗廟·孝安殿·山陵·景慕宮薦新乳柑, 依前例當日分排薦獻, 而山陵薦新, 則魂殿內官, 陪進陵所, 薦獻, 何如? 傳曰, 允.

❖ 순조 5년(1805) 을축년 11월 19일(무진)

▢ 제주(濟州)에서 초하루에 봉진(封進)하는 유감(乳柑)의 부족으로 인해 12월령 종묘(宗廟)·효안전(孝安殿) 등에 분배하여 천진(薦進)하는 일에 관한 예조의 계

○ 서영보(徐英輔)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의 장계등보(狀啓謄報)를 보니, 금번 11월 초하루에 봉진(封進)하는 유감(乳柑)을 일일이 따서 보니 단지 212개뿐으로, 천헌(薦獻)에 배수(排數)할 수 없으니 삼가 전례를 원용(援用)하여 모두 봉하여 올려 보내면서 임금께 여쭈어 천헌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귤과(橘果)가 드물게 결실하였을 때는 봉진할 때 비록 숫자를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분배하여 천헌한 사례가 많습니다. 오는 12월령 종묘(宗廟)·효안전(孝安殿)·산릉(山陵)·경모궁(景慕宮)에 천신(薦新)하는 유감을 전례대로 당일 분배하여 천헌하고, 산릉 천신은 혼전내관(魂殿內官)이 규례대로 능소(陵所)에 배진(陪進)하여 천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천신, 봉진, 유감.

❖ 嘉慶 十年 乙丑 十一月 二十四日 癸酉

○ 乙丑十一月二十四日戊時, 上御熙政堂. 夜對入侍, 坐直承旨同爲入侍時, 參贊官金在昌, 侍讀官李寅采, 檢討官金啓溫, 待敎朴宗薰, 假注書申在業, 記注官崔鳳和, 記事官徐淇修, 各持國朝寶鑑第二卷, 左副承旨李羽晉, 同爲進伏訖. …… 上曰, 三南經何邑守令乎? 羽晉曰, 臣待罪嶺南之固城, 湖南之扶安, 濟州之旌義, 湖西之栗峰察訪矣. 上命掩卷, 仍諭羽晉曰, 曾經濟州云, 以濟州事仰陳. 羽晉曰, 島民皮服糲食[飯], 無樂爲生, 而田羅則無弊, 六苦役之輪回, 山馬場之驅馬, 最爲巨弊, 而辛丑年, 特下綸音而革其弊, 苦役輪回, 則臣卽擧行, 未知近歲則, 何如, 而至於橘果, 漸難如例封進矣. 上曰, 何故也? 羽晉曰, 橘樹非數十年可長之木, 橘園所在之樹, 多是國初高得宗所種, 而近年爲海風鹹沫之所傷, 太半枯死, 所以稀果將絶種, 以山橘代封矣. …….

❖ 순조 5년(1805) 을축년 11월 24일(계유)

▢ 좌부승지 이우진(李羽晉)이 입시하여 육고역(六苦役), 귤과(橘果)의 봉진(封進) 등 제주(濟州)의 사정을 아룀

○ 을축년 11월 24일 술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야대 입시(夜對入侍)에 좌직승지가 함께 입시할 때, 참찬관 김재창(金在昌), 시독관 이인채(李寅采), 검토관 김계온(金啓溫), 대교 박종훈(朴宗薰), 가주서 신재업(申在業), 기주관 최봉화(崔鳳和), 기사관 서기수(徐淇修)가 각각 국조보감 제2권을 가지고 좌부승지 이우진(李羽晉)이 함께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삼남(三南)에서 어느 읍의 수령을 지냈는가?”라고 하였다. 이우진이 아뢰기를, “신은 영남의 고성, 호남의 부안, 제주(濟州)의 정의(旌義), 호서의 율봉찰방을 지냈습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책을 덮으라고 명하고, 이어서 이우진에게 하유하기를, “일찍이 제주에서 수령을 지냈다고 했는데, 제주의 일을 가지고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우진이 아뢰기를, “섬 백성들은 가죽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며 즐거움 없이 살아가지만 전결(田結)과 환상(還上)에는 폐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육고역(六苦役)[101]이 윤회(輪回)하니, 산마장(山馬場)의 구마(驅馬)가 가장 큰

101) 육고역(六苦役): 조선시대 제주 지역에서 부과된 여섯 가지 고된 직역(職役). 6고역이란 단순히 직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시대에 따라 약간씩 변동하였음. 즉 원래는 목자(牧子)·답한(畓漢)·선격(船格)·과직(果直)·잠녀(潛女)·포작(鮑作)을 지칭하였음.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목자·포작·지장(紙匠)·유군(遺軍)·답한·선격을, 19세기 전반에는 아병(牙兵)·목자·방군(防軍)·

폐단이었습니다. 신축년에 특별히 윤음을 내려 그 폐단을 혁파하였고, 고역의 윤회를 신은 즉시 거행했습니다만, 근래에는 어찌되고 있는지 알지못하겠습니다. 귤과(橘果)의 경우는 규례대로 봉진하는 것이 점점 어려울 듯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째서인가?"라고 하였다. 이우진이 아뢰기를, "귤나무는 수십년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귤원(橘園)에 있는 나무는 대부분 국초에 고득종(高得宗)이 심은 것인데, 근년에 해풍의 짠물로 상하게 되어 태반이 고사(枯死)하였습니다. 때문에 희과(稀果)가 장차 절종(絶種)이 되어 산귤(山橘)로 대신 봉진(封進)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우진, 육고역, 구마, 귤과.

과직·선격·답한, 혹은 포작·답한·목자·방군·선격·아병을 지칭하였음.

❖ 嘉慶 十年 乙丑 十一月 二十九日 戊寅

○ 刑曹啓目粘連, …… 又啓目粘連, 因濟州牧使朴宗柱放未放修啓冊子, 定配罪人未放秩, 依啓聞施行, 何如? 判付啓, 依允. …….

❖ 순조 5년(1805) 을축년 11월 29일(무인)

▢ 정배죄인(定配罪人)으로 석방하지 않을 부류를 계문(啓聞)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는 형조의 계

○ 형조의 계목점련에, 〈중략〉 또 계목점련(啓目粘連)에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가 석방하고 석방하지 않을 죄인에 대해 아뢴 책자 중에, 정배죄인(定配罪人)으로 석방하지 않을 부류를 모두 계문(啓聞)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정배죄인.

❖ 嘉慶 十年 乙丑 十二月 二十八日 丁未

○ 都政. 吏批, 判書李翊模進, 參判朴宗來進, 參議趙得永牌不進. 行都承旨徐美修進. …… 邊景祐爲旌義縣監, …….

❖ 순조 5년(1805) 을축년 12월 28일(정미)

▢ 변경우(邊景祐)를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하였다. 이비(吏批)에 판서 이익모(李翊模)가 나오고, 참판 박종래(朴宗來)가 나오고, 참의 조득영(趙得永)이 패초에 나오지 않았고, 행도승지 서미수(徐美修)가 나왔다. 〈중략〉 변경우(邊景祐)를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변경우, 정의현감.

❖ 嘉慶 十年 乙丑 十二月 二十九日 戊申

○ 今十二月二十九日辰時, 上御熙政堂. 守令·邊將初仕人入侍時, 行都承旨徐美修, 同副承旨申絢, 假注書朴宗璜, 記事官徐淇修·鄭觀綏, 驪州牧使金孝建, 旌義縣監邊景祐, …… 以次進伏. …… 上曰, 守令進前, 奏職姓名. 驪州牧使金孝建等, 奏職姓名. …….

❖ 순조 5년(1805) 을축년 12월 29일(무신)

▢ 정의현감(旌義縣監) 변경우(邊景祐)가 입시하여 직책과 성명을 아룀

○ 금일 12월 29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수령·변장 초사인(初仕人)이 입시할 때, 행도승지 서미수(徐美修), 동부승지 신현(申絢), 가주서 박종황(朴宗璜), 기사관 서기수(徐淇修)·정관수(鄭觀綏), 여주목사 김효건(金孝建), 정의현감(旌義縣監) 변경우(邊景祐), 〈중략〉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은 앞으로 나와 직책과 성명을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여주목사 김효건 등이 직책과 성명을 아뢰었다. 〈하략〉.

△ 주제어: 변경우, 정의현감.

1806年

(순조 6)



❖ 嘉慶 十一年 丙寅 一月 五日 癸丑

○ 掌令李廷輪, 持平李游夏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 答府曰, 不允. …….

❖ 순조 6년(1806) 병인년 1월 5일(계축)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이정륜(李廷輪) 등의 계

○ 장령 이정륜(李廷輪), 지평 이유하(李游夏)[102]가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102) 이유하(1767~?): 본관 전주(全州). 자 경학(景學). 1795년(정조 19) 문과 급제. 사간, 집의, 부교리 역임.

❖ 嘉慶 十一年 丙寅 一月 六日 甲寅

○ 丙寅正月初六日辰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同副承旨申絢, 假注書鄭元容, 事變假注書李炫章, 記事官徐淇修·鄭觀綏, 領議政徐邁修, 左議政韓用龜, 右議政金達淳, 行廣州留守李晩秀, 行水原留守趙鎭寬, 行戶曹判書金文淳, 行護軍李得濟·李仁秀, 開城留守兪漢謨, 副校理李尙愚, 以次進伏訖. …… 寅采等曰, 噫嘻, 痛矣, 干常亂紀之賊, 從古何限, 而豈有如在敏之至妖慝絶凶悖者哉? 常懷梟獍之心, 莫掩鬼蜮之狀, 乘機逞毒, 闖呈一疏, 上而摻逼聖躬, 下而網打朝紳, 至曰受誣於舟梁之大慶, 有若眞有誣逼者然, 又引故相之對揚, 有若不爲辨明者然, 末乃以眼無君母等語, 憑藉而疑亂, 閃忽而譏訕, 顯售不逞之習, 少無顧忌之心, 其爲凶憯, 胡至此極? 嗚呼, 庚申以後, 我東方得有今日, 是誰之力? 洪惟我慈聖殿下, 五紀母臨, 四載簾帷, 保護我聖躬, 鞏固我宗祊, 義理闡明, 朝象和泰, 克追先王之遺志, 誕擧旣定之文祥, 以基我億萬年無疆之休, 洪功盛烈, 有光史牒, 環東土數千里, 莫不蹈舞攢頌於慈覆之天, 而向來臺臣通儒之處分, 罔非稟決慈旨, 推明慈德, 正大光明, 有辭後世. 凡有秉彝之心者, 孰不頌慈仁仰聖孝, 而渠亦北面於慈聖暨殿下之庭者, 抑何心腸, 至有不欲比肩之凶言, 而矢死不欲立於殿下之庭? 卽此一款, 已是窮天地亘萬古所未有之劇逆斷案, 此非但殿下之罪人, 實是慈聖之罪人也. 究厥情犯, 剮戮猶輕, 不可使一刻容貸於覆載之間, 而今日臣子之忍與之共戴一天, 未能手磔而口臠, 凡幾月矣. 輿論迭發, 聖斷斯赫, 特允臺臣之請, 王章始可快伸, 輿憤從此少洩, 而豈意酌決之命遽下, 至令似此凶逆, 生出獄門, 刑政之乖失, 神人之痛惋, 容有極哉? 噫, 彼賊敏, 卽一貸頭之逆豎也. 此而不嚴覈情節, 快斷常刑, 則倫綱斁而義理晦, 將至於國不得爲國, 人不得爲人, 不逞之徒, 去益生心, 亂逆之起, 又復接跡, 豈不大可懼哉? 旣允群請而不宜從輕, 自有邦憲而不容少緩.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 上曰, 不允. 【出擧條】 …… 廷輪曰,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上曰, 不允. 【出擧條】 …….

❖ 순조 6년(1806) 병인년 1월 6일(갑인)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이인채(李寅采) 등의 계와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이정륜(李廷輪)의 계

○ 병인년 1월 6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동부승지 신현(申絢), 가주서 정원용(鄭元容), 사변가주서 이현장(李炫章), 기사관 서기수(徐淇修)·정관수(鄭觀綏), 영의정 서매수(徐邁修), 좌의정 한용구(韓用龜), 우의정 김달순(金達淳), 행광주유수 이만수(李晩秀), 행수원유수 조진관(趙鎭寬), 행호조판서 김문순(金文淳), 행호군 이득제(李得濟)·이인수(李仁秀), 개성유수 유한모(兪漢謨), 부교리 이상우(李尙愚)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인채(李寅采) 등이 아뢰기를, "아, 통탄스럽습니다. 상도(常道)를 간범(干犯)하고 기강을 어지럽히는 역적이 예로부터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찌 홍재민(洪在敏)과 같이 지극히 요망하고 간특하여 흉패(凶悖)한 자가 있겠습니까? 늘상 효경(梟獍)[103]의 마음을 품고, 귀역(鬼蜮)[104]의 실상을 숨길 수 없었으니, 기회를 틈타 악독한 짓을 자행하고자, 틈을 노려 한 통의 상소를 올려 위로는 성상을 핍박하고, 아래로는 조정의 신하들을 모조리 다 잡아들이려 했습니다. "주량(舟梁)의 큰 경사에 무함을 당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면서 마치 정말로 무함하고 핍박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또 고(故) 상신(相臣)의 대양(對揚)을 인용하여 마치 변명(辨明)하지 않은 듯하였고, 끝에 가서는 "안중에 군모(君母)가 없다."는 등의 말로 빙자하여 의란(疑亂)하고, 번쩍하여 나무라고 헐뜯으면서 불령(不逞)[105]한 습관을 드러내 놓고 실현함에 조금도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이 없었으니, 그 흉악하고 참혹함이 어찌 이다지도 지극한 것입니까? 아, 경신년 이후 우리 동방이 오늘이 있게 된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거룩한 우리 자성(慈聖) 전하가 5기(紀)동안 국모(國母)로 임하고, 4년 동안 수렴(垂簾)하여 우리 성궁(聖躬)을 보호하고 우리 종팽(宗祊)을 공고히 하였던 것이니, 의리는 천명(闡明)되고 조정의 기상은 화락·태평해졌습니다. 이에 능히 선왕의 유지(遺志)를 추념(追念)하고 이에 정해진 문상(文祥)을 널리 거행하여 우리의 억만년토록 끝이 없을 아름다움을 터닦아 놓았으니, 크고 거룩한 공렬(功烈)은 사첩(史牒)에 빛남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동토(東土) 수천 리에서 자성의 덕이 덮고 있는 하늘 아래에, 누군들 발을 구르며 춤추고 손을 모아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날 대신(臺臣)과 통유(通儒)의 처분도 자성의 뜻에 품결(稟決)하여 자성의 덕을 미루어 밝히지 않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대(正大)한 광

---

103) 효경(梟獍): 어미 새를 잡아먹는다는 올빼미와 아비를 잡아먹는다는 짐승이라는 뜻으로, 배은망덕하고 흉악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4) 귀역(鬼蜮): 귀신과 물여우라는 뜻으로, 음험하여 남몰래 남을 해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5) 불령(不逞): 원한이나 불평불만을 품고 국가의 구속에서 벗어나 제 마음대로 행동함.

명은 후세에 할 말이 있기에 무릇 병이(秉彝)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누군들 자성의 어짊을 송축하지 아니하고 성효(聖孝)를 우러르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자성과 전하의 궐정(闕庭)에 북면(北面)하고 있는 자인데, 도대체 무슨 심장(心腸)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지 않다.'는 흉악한 말을 하면서 맹세코 전하의 조정에 서려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 한 조항만으로도 이미 천지가 다하고 만세에 뻗히도록 있지 아니한 극역(劇逆)의 단안(斷案)이니, 이는 전하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실로 자성의 죄인입니다. 범한 죄를 따진다면 능지처참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잠시도 천지간에 용서해서는 안되는데, 오늘날 신하들이 차마 함께 한 하늘을 이고 살면서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입으로 살을 씹지 못한 지 몇 달이 되었습니까? 여론이 번갈아 일어나고 성상의 결단이 혁혁하여 특별히 대신의 청을 윤허하였기에, 국법이 비로소 시원스레 펴지고 여론이 이로부터 조금 풀리게 되었는데, 어찌 참작하여 결단하라는 명이 갑자기 내려지고 이와 같은 흉역이 살아서 옥문(獄門)을 나오게 하여 형정(刑政)이 어그러지고 귀신과 사람의 원통함을 극에 달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 저 역적 홍재민은 일개 역적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런데도 정상을 엄히 조사하여 상형(常刑)을 통쾌하게 결단하지 않는다면, 윤강(倫綱)이 무너지고 의리가 어두워져 장차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되어 불령한 무리가 갈수록 더욱 마음을 먹게 되고, 난역(亂逆)이 일어날 때 다시 꼬리를 물고 있을 것이니 어찌 크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미 신하들의 청을 윤허하였으니 가벼운 쪽으로 처벌해서는 안 되고, 나라에 법이 있으니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중략〉 이정륜(李廷輪)이 아뢰기를,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一月 十三日 辛酉

○ 丙寅正月十三日午時, 上御熙政堂. 下直守令入侍時, 行都承旨徐美修, 假注書閔秉勳, 記事官徐淇修·鄭觀綏以次進伏訖. 上曰, 侍從守令進伏楹內, 其餘以次進伏楹外. …… 旌義縣監邊景祐, …… 永春縣監洪鼎簡等, 以次進前奏職姓名. 上曰, 下去善爲之, 可也. …….

❖ 순조 6년(1806) 병인년 1월 13일(신유)

▢ 정의현감(旌義縣監) 변경우(邊景祐)가 입시하여 직책과 성명을 아룀

○ 병인년 1월 13일 오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하직수령이 입시할 때, 행도승지 서미수(徐美修), 가주서 민병훈(閔秉勳), 기사관 서기수(徐淇修)·정관수(鄭觀綏)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시종(侍從)을 지낸 수령은 기둥 안에 나와 엎드리고, 그 나머지는 기둥 밖으로 차례대로 나와 엎드리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정의현감(旌義縣監) 변경우(邊景祐), 〈중략〉 영춘현감 홍정간 등이 차례로 앞으로 나와 직책과 성명을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려가거든 잘 다스리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정의현감, 변경우.

❖ 嘉慶 十一年 丙寅 一月 十九日 丁卯

○ 掌令趙秀民·李敬參, 正言任燦啓曰, …… 噫嘻痛矣, 干常亂紀之賊, 從古何限? 而豈有如在敏之至妖慝絶凶悖者哉? 常懷梟獍之心, 莫掩鬼蜮之狀, 乘機逞毒, 闖呈一疏, 上而摻逼聖躬, 下而網打朝紳, 至曰受誣於舟梁之大慶, 有若眞有誣逼者然, 又引故相之對揚, 有若不爲辨明者然, 末乃以眼無君母等語, 憑藉而疑亂, 閃忽而譏訕, 顯售不逞之習, 少無顧忌之心, 其爲凶憯, 胡至此極? 嗚呼, 庚申以後, 我東方得有今日, 是誰之力? 洪惟我慈聖殿下, 五紀母臨, 四載簾帷, 保護我聖躬, 鞏固我宗祊, 義理闡明, 朝象和泰, 克追先王之遺志, 誕擧旣定之文祥, 以基我億萬年無疆之休, 洪功盛烈, 有光史牒, 環東土數千里, 莫不蹈舞攢頌於慈覆之天, 而向來臺臣通儒之處分, 罔非稟決慈旨, 推明慈德, 正大光明, 有辭後世, 凡有秉彝之心者, 孰不頌慈仁仰聖孝, 而渠亦北面於慈聖暨殿下之庭者, 抑何心腸, 至有不欲比肩之凶言, 而矢死不欲立於殿下之庭, 卽此一款, 已是窮天地亘萬古所未有之劇逆斷案, 此非但殿下之罪人, 實是慈聖之罪人也. 究厥情犯, 剮戮猶輕, 不可使一刻容貸於覆載之間, 而今日臣子之忍與之共戴一天, 未能手磔而口臠, 凡幾月矣. 輿論迭發, 聖斷斯赫, 特允臺臣之請, 王章始可快伸, 輿憤從此少洩, 而豈意酌決之命遽下, 至令似此凶逆, 生出獄門? 刑政之乖失, 神人之痛惋, 容有極哉? 噫, 彼賊敏, 卽一貸頭之逆豎也, 此而不嚴覈情節, 快斷常刑, 則倫綱斁而義理晦, 將至於國不得爲國, 人不得爲人, 不逞之徒, 去益生心, 亂逆之起, 又復接跡, 豈不大可懼哉? 旣允群請, 而不宜從輕, 自有邦憲, 而不容少緩,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答兩司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1월 19일(정묘)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조수민(趙秀民) 등의 계

○ 장령 조수민(趙秀民)·이경참(李敬參)[106], 정언 임한(任燦)[107]이 아뢰기를, "〈상략〉 아, 통탄스럽습니다. 상도(常道)를 간범(干犯)하고 기강을 어지럽히는 역적이 예로부터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찌 홍재민(洪在敏)과 같이 지극히 요망하고 간특하여 흉패(凶悖)한 자가 있겠습니까? 늘상 효경(梟獍)[108]의 마음을 품고,

106) 이경참(?~?): 본관 부평(富平). 자 사로(士魯). 1798년(정조 22) 문과 급제.
107) 임한(1759~?): 본관 풍천(豊川). 자 숙장(叔章). 1789년(정조 13) 문과 급제.

귀역(鬼蜮)[109]의 실상을 숨길 수 없었으니, 기회를 틈타 악독한 짓을 자행하고자, 틈을 노려 한 통의 상소를 올려 위로는 성상을 핍박하고, 아래로는 조정의 신하들을 모조리 다 잡아들이려 했습니다. “주량(舟梁)의 큰 경사에 무함을 당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면서 마치 정말로 무함하고 핍박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또 고(故) 상신(相臣)의 대양(對揚)을 인용하여 마치 변명(辨明)하지 않은 듯하였고, 끝에 가서는 “안중에 군모(君母)가 없다.”는 등의 말로 빙자하여 의란(疑亂)하고, 번쩍하여 나무라고 헐뜯으면서 불령(不逞)[110]한 습관을 드러내 놓고 실현함에 조금도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이 없었으니, 그 흉악하고 참혹함이 어찌 이다지도 지극한 것입니까? 아, 경신년 이후 우리 동방이 오늘이 있게 된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거룩한 우리 자성(慈聖) 전하가 5기(紀)동안 국모(國母)로 임하고, 4년 동안 수렴(垂簾)하여 우리 성궁(聖躬)을 보호하고 우리 종팽(宗祊)을 공고히 하였던 것이니, 의리는 천명(闡明)되고 조정의 기상은 화락·태평해졌습니다. 이에 능히 선왕의 유지(遺志)를 추념(追念)하고 이에 정해진 문상(文祥)을 널리 거행하여 우리의 억만년토록 끝이 없을 아름다움을 터닦아 놓았으니, 크고 거룩한 공렬(功烈)은 사첩(史牒)에 빛남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동토(東土) 수천 리에서 자성의 덕이 덮고 있는 하늘 아래에, 누군들 발을 구르며 춤추고 손을 모아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날 대신(臺臣)과 통유(通儒)의 처분도 자성의 뜻에 품결(稟決)하여 자성의 덕을 미루어 밝히지 않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대(正大)한 광명은 후세에 할 말이 있기에 무릇 병이(秉彝)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누군들 자성의 어짊을 송축하지 아니하고 성효(聖孝)를 우러르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자성과 전하의 궐정(闕庭)에 북면(北面)하고 있는 자인데, 도대체 무슨 심장(心腸)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지 않다.’는 흉악한 말을 하면서 맹세코 전하의 조정에 서려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 한 조항만으로도 이미 천지가 다하고 만세에 뻗히도록 있지 아니한 극역(劇逆)의 단안(斷案)이니, 이는 전하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실로 자성의 죄인입니다. 범한 죄를 따진다면 능지처참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잠시도 천지간에 용서해서는 안되는데, 오늘날 신하들이 차마 함께 한 하늘을 이고 살면서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입으로 살을 씹지 못한 지 몇 달이 되었습니까? 여론이 번갈아 일어나고 성상의 결단이

108) 효경(梟獍): 어미 새를 잡아먹는다는 올빼미와 아비를 잡아먹는다는 짐승이라는 뜻으로, 배은망덕하고 흉악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9) 귀역(鬼蜮): 귀신과 물여우라는 뜻으로, 음험하여 남몰래 남을 해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10) 불령(不逞): 원한이나 불평불만을 품고 국가의 구속에서 벗어나 제 마음대로 행동함.

혁혁하여 특별히 대신의 청을 윤허하였기에, 국법이 비로소 시원스레 펴지고 여론이 이로부터 조금 풀리게 되었는데, 어찌 참작하여 결단하라는 명이 갑자기 내려지고 이와 같은 흉역이 살아서 옥문(獄門)을 나오게 하여 형정(刑政)이 어그러지고 귀신과 사람의 원통함을 극에 달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 저 역적 홍재민은 일개 역적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런데도 정상을 엄히 조사하여 상형(常刑)을 통쾌하게 결단하지 않는다면, 윤강(倫綱)이 무너지고 의리가 어두워져 장차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되어 불령한 무리가 갈수록 더욱 마음을 먹게 되고, 난역(亂逆)이 일어날 때 다시 꼬리를 물고 있을 것이니 어찌 크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미 신하들의 청을 윤허하였으니 가벼운 쪽으로 처벌해서는 안 되고, 나라에 법이 있으니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一月 十九日 丁卯

○ 掌令趙秀民·李敬參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府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1월 19일(정묘)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조수민(趙秀民) 등의 계

○ 장령 조수민(趙秀民)·이경참(李敬參)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一月 二十日 戊辰

○ 司諫李元八, 掌令趙秀民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1월 20일(무진)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사간 이원팔(李元八) 등의 계

○ 사간 이원팔(李元八)[111], 장령 조수민(趙秀民)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111) 이원팔(1765~?): 본관 전주(全州). 자 이중(彝仲). 1790년(정조 14) 문과 급제. 정언, 진주목사, 대사간 역임.

❖ 嘉慶 十一年 丙寅 一月 二十日 戊辰

○ 掌令趙秀民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1월 20일(무진)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조수민(趙秀民)의 계

○ 장령 조수민(趙秀民)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一月 二十二日 庚午

○ 行大司憲金勉柱, 大司諫李貞運, 執義李德鉉, 司諫李元八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答兩司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1월 22일(경오)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김면주(金勉柱) 등의 계

○ 행대사헌 김면주(金勉柱)[112], 대사간 이정운(李貞運), 집의 이덕현(李德鉉), 사간 이원팔(李元八)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양사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112) 김면주(1740~?): 본관 경주(慶州). 자 여중(汝中). 1776년(정조 즉위년) 문과 급제. 호조참판, 경기도관찰사, 개성유수 역임.

❖ 嘉慶 十一年 丙寅 一月 二十二日 庚午

○ 執義李德鉉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 答府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1월 22일(경오)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이덕현(李德鉉)의 계

○ 집의 이덕현(李德鉉)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一月 二十三日 辛未

○ 執義李德鉉, 司諫李元八, 持平李潮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答兩司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1월 23일(신미)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이덕현(李德鉉) 등의 계

○ 집의 이덕현(李德鉉), 사간 이원팔(李元八), 지평 이조(李潮)[113]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양사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113) 이조(1766~?): 본관 전주(全州). 자 여심(汝深). 1801년(순조 1) 문과 급제.

❖ 嘉慶 十一年 丙寅 一月 二十三日 辛未

○ 執義李德鉉, 持平李潮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 答府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1월 23일(신미)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이덕현(李德鉉) 등의 계

○ 집의 이덕현(李德鉉), 지평 이조(李潮)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一月 二十四日 壬申

○ 執義李德鉉, 司諫李元八, 持平李潮·金魯應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 答兩司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1월 24일(임신)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이덕현(李德鉉) 등의 계

○ 집의 이덕현(李德鉉), 사간 이원팔(李元八), 지평 이조(李潮)·김노응(金魯應)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一月 二十四日 壬申

○ 執義李德鉉, 持平李潮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 答府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1월 24일(임신)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이덕현(李德鉉) 등의 계

○ 집의 이덕현(李德鉉), 지평 이조(李潮)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一月 二十六日 甲戌

○ 行大司憲李義弼, 執義李德鉉, 司諫李元八, 獻納李尙愚, 持平李潮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 答兩司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1월 26일(갑술)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이덕현(李德鉉) 등의 계

○ 행대사헌 이의필(李義弼)[114], 집의 이덕현(李德鉉), 사간 이원팔(李元八), 헌납 이상우(李尙愚)[115], 지평 이조(李潮)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114) 이의필(1738~1808): 본관 전주(全州). 자 교백(喬伯). 호 창계(蒼溪). 1766년(영조 42) 문과 급제. 호조참판, 형조판서, 함경도관찰사 역임.

115) 이상우(?~?): 본관 연안(延安). 자 유안(幼顔). 1803년(순조 3) 문과 급제.

❖ 嘉慶 十一年 丙寅 一月 二十六日 甲戌

○ 行大司憲李義弼, 執義李德鉉, 持平李潮啓曰, …… 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答府曰, 不允, ……

❖ 순조 6년(1806) 병인년 1월 26일(갑술)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이의필(李義弼) 등의 계

○ 행대사헌 이의필(李義弼), 집의 이덕현(李德鉉), 지평 이조(李潮)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一月 二十八日 丙子

○ 執義李德鉉, 司諫李元八, 持平李潮, 正言朴英載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 答兩司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1월 28일(병자)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이덕현(李德鉉) 등의 계

○ 집의 이덕현(李德鉉), 사간 이원팔(李元八), 지평 이조(李潮), 정언 박영재(朴英載)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양사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一月 二十八日 丙子

○ 執義李德鉉, 持平李潮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 答府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1월 28일(병자)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이덕현(李德鉉) 등의 계

○ 집의 이덕현(李德鉉), 지평 이조(李潮)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一月 二十九日 丁丑

○ 行大司憲李翊模, 掌令安廷善, 持平金鐮, 正言朴英載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 答兩司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1월 29일(정축)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이익모(李翊模) 등의 계

○ 행대사헌 이익모(李翊模), 장령 안정선(安廷善), 지평 김겸(金鐮)[116], 정언 박영재(朴英載)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116) 김겸(1762~?): 본관 연안(延安). 자 청여(淸如). 1802년(순조 2) 문과 급제. 수찬, 대사간, 경기감사 역임.

❖ 嘉慶 十一年 丙寅 一月 二十九日 丁丑

○ 行大司憲李翊模, 掌令安廷善, 持平金鏞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 答府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1월 29일(정축)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이익모(李翊模) 등의 계

○ 행대사헌 이익모(李翊模), 장령 안정선(安廷善), 지평 김겸(金鏞)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三日 辛巳

○ 掌令安廷善, 持平金鏞, 正言朴英載啓曰, …… 噫嘻痛矣, 干常亂紀之賊, 從古何限, 而豈有如在敏之至妖慝絶凶悖者哉? 常懷梟獍之心, 莫掩鬼蜮之狀, 乘機逞毒, 闖呈一疏, 上而摻逼聖躬, 下而網打朝紳, 至曰受誣於舟梁之大慶, 有若眞有誣逼者然. 又引故相之對揚, 有若不爲辨明者然, 末乃以眼無君母等語, 憑藉而疑亂, 閃忽而譏訕, 顯售不逞之習, 少無顧忌之心. 其爲凶憯, 胡至此極? 嗚呼, 庚申以後, 我東方得有今日, 是誰之力? 洪惟我慈聖殿下, 五紀母臨, 四載簾帷, 保護我聖躬, 鞏固我宗祊, 義理闡明, 朝象和泰. 克追先王之遺志, 誕擧旣定之文祥, 以基我億萬年無疆之休, 洪功盛烈, 有光史牒. 環東土數千里, 莫不蹈舞攢頌於慈覆之天, 而向來臺臣·通儒之處分, 罔非稟決慈旨, 推明慈德, 正大光明, 有辭後世. 凡有秉彝之心者, 孰不頌慈仁仰聖孝, 而渠亦北面於慈聖暨殿下之庭者, 抑何心腸, 至有不欲比肩之凶言, 而矢死不欲立於殿下之庭. 卽此一款, 已是窮天地亘萬古, 所未有之劇逆斷案, 此非但殿下之罪人, 實是慈聖之罪人也. 究厥情犯, 剔發猶輕, 不可使一刻容貸於覆載之間, 而今日臣子之忍與之共戴一天, 未能手磔而口臠, 凡幾月矣. 輿論迭發, 聖斷斯赫, 特允臺臣之請, 王章始可快伸, 輿憤從此少洩, 而豈意酌決之命遽下, 至令似此凶逆, 生出獄門, 刑政之乖失, 神人之痛惋, 容有極哉? 噫, 彼賊敏, 卽一貸頭之逆豎也. 此而不嚴覈情節, 快斷常刑, 則倫綱斁而義理晦, 將至於國不得爲國, 人不得爲人, 不逞之徒, 去益生心, 亂逆之起, 又復接跡, 豈不大可懼哉? 旣允群請而不宜從輕, 自有邦憲而不容少緩.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 …… 答兩司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3일(신사)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안정선(安廷善) 등의 계

○ 장령 안정선(安廷善), 지평 김겸(金鏞), 정언 박영재(朴英載)[117]가 아뢰기를, "〈상략〉 아, 통탄스럽습니다. 상도(常道)를 간범(干犯)하고 기강을 어지럽히는 역적이 예로부터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찌 홍재민(洪在敏)과 같이 지극히 요망하고 간특하여 흉패(凶悖)한 자가 있겠습니까? 늘상 효경(梟獍)[118]의 마음을 품

117) 박영재(1777~?): 본관 밀양(密陽). 자 정실(廷實). 1801년(순조 1) 문과 급제. 정언, 지평, 사간 역임.

고, 귀역(鬼蜮)[119]의 실상을 숨길 수 없었으니, 기회를 틈타 악독한 짓을 자행하고자, 틈을 노려 한 통의 상소를 올려 위로는 성상을 핍박하고, 아래로는 조정의 신하들을 모조리 다 잡아들이려 했습니다. "주량(舟梁)의 큰 경사에 무함을 당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면서 마치 정말로 무함하고 핍박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또 고(故) 상신(相臣)의 대양(對揚)을 인용하여 마치 변명(辨明)하지 않은 듯하였고, 끝에 가서는 "안중에 군모(君母)가 없다."는 등의 말로 빙자하여 의란(疑亂)하고, 번쩍하여 나무라고 헐뜯으면서 불령(不逞)[120]한 습관을 드러내 놓고 실현함에 조금도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이 없었으니, 그 흉악하고 참혹함이 어찌 이다지도 지극한 것입니까? 아, 경신년 이후 우리 동방이 오늘이 있게 된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거룩한 우리 자성(慈聖) 전하가 5기(紀)동안 국모(國母)로 임하고, 4년 동안 수렴(垂簾)하여 우리 성궁(聖躬)을 보호하고 우리 종팽(宗祊)을 공고히 하였던 것이니, 의리는 천명(闡明)되고 조정의 기상은 화락·태평해졌습니다. 이에 능히 선왕의 유지(遺志)를 추념(追念)하고 이에 정해진 문상(文祥)을 널리 거행하여 우리의 억만년토록 끝이 없을 아름다움을 터닦아 놓았으니, 크고 거룩한 공렬(功烈)은 사첩(史牒)에 빛남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동토(東土) 수천 리에서 자성의 덕이 덮고 있는 하늘 아래에, 누군들 발을 구르며 춤추고 손을 모아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날 대신(臺臣)과 통유(通儒)의 처분도 자성의 뜻에 품결(稟決)하여 자성의 덕을 미루어 밝히지 않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대(正大)한 광명은 후세에 할 말이 있기에 무릇 병이(秉彝)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누군들 자성의 어짊을 송축하지 아니하고 성효(聖孝)를 우러르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자성과 전하의 궐정(闕庭)에 북면(北面)하고 있는 자인데, 도대체 무슨 심장(心腸)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지 않다.'는 흉악한 말을 하면서 맹세코 전하의 조정에 서려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 한 조항만으로도 이미 천지가 다하고 만세에 뻗히도록 있지 아니한 극역(劇逆)의 단안(斷案)이니, 이는 전하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실로 자성의 죄인입니다. 범한 죄를 따진다면 능지처참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잠시도 천지간에 용서해서는 안되는데, 오늘날 신하들이 차마 함께 한 하늘을 이고 살면서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입으로 살을 씹지 못한 지 몇 달이 되었습니까? 여론이 번갈아 일어나고 성상의

---

118) 효경(梟獍): 어미 새를 잡아먹는다는 올빼미와 아비를 잡아먹는다는 짐승이라는 뜻으로, 배은망덕하고 흉악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19) 귀역(鬼蜮): 귀신과 물여우라는 뜻으로, 음험하여 남몰래 남을 해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0) 불령(不逞): 원한이나 불평불만을 품고 국가의 구속에서 벗어나 제 마음대로 행동함.

결단이 혁혁하여 특별히 대신의 청을 윤허하였기에, 국법이 비로소 시원스레 펴지고 여론이 이로부터 조금 풀리게 되었는데, 어찌 참작하여 결단하라는 명이 갑자기 내려지고 이와 같은 흉역이 살아서 옥문(獄門)을 나오게 하여 형정(刑政)이 어그러지고 귀신과 사람의 원통함을 극에 달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 저 역적 홍재민은 일개 역적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런데도 정상을 엄히 조사하여 상형(常刑)을 통쾌하게 결단하지 않는다면, 윤강(倫綱)이 무너지고 의리가 어두워져 장차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되어 불령한 무리가 갈수록 더욱 마음을 먹게 되고, 난역(亂逆)이 일어날 때 다시 꼬리를 물고 있을 것이니 어찌 크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미 신하들의 청을 윤허하였으니 가벼운 쪽으로 처벌해서는 안 되고, 나라에 법이 있으니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三日 辛巳

○ 執義李東冕, 掌令安廷善, 持平金鐮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 答府曰, 不允. …….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3일(신사)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이동면(李東冕) 등의 계

○ 집의 이동면(李東冕), 장령 안정선(安廷善), 지평 김겸(金鐮)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四日 壬午

○ 掌令安廷善, 持平洪時溥·金鐮, 正言朴英載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答兩司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4일(임오)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안정선(安廷善) 등의 계

○ 장령 안정선(安廷善), 지평 홍시부(洪時溥)[121]·김겸(金鐮), 정언 박영재(朴英載)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양사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121) 홍시부(1749~?): 본관 남양(南陽). 자 박여(博汝).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四日 壬午

○ 執義李東冕, 掌令安廷善, 持平洪時溥·金鏞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答府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4일(임오)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이동면(李東冕) 등의 계

○ 집의 이동면(李東冕), 장령 안정선(安廷善), 지평 홍시부(洪時溥)·김겸(金鏞)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五日 癸未

○ 掌令安廷善, 持平金鏞, 正言朴英載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答兩司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5일(계미)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안정선(安廷善) 등의 계

○ 장령 안정선(安廷善), 지평 김겸(金鏞), 정언 박영재(朴英載)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五日 癸未

○ 掌令安廷善, 持平金鎌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答府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5일(계미)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안정선(安廷善) 등의 계

○ 장령 안정선(安廷善), 지평 김겸(金鎌)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八日 丙戌

○ 掌令安廷善, 持平洪時溥·金鑌, 獻納李尙愚, 正言朴英載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8일(병술)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안정선(安廷善) 등의 계

○ 장령 안정선(安廷善), 지평 홍시부(洪時溥)·김겸(金鑌), 헌납 이상우(李尙愚), 정언 박영재(朴英載)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八日 丙戌

○ 執義李東冕, 掌令安廷善, 持平洪時溥·金鎌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答府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8일(병술)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이동면(李東冕) 등의 계

○ 집의 이동면(李東冕), 장령 안정선(安廷善), 지평 홍시부(洪時溥)·김겸(金鎌)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十日 戊子

○ 掌令安廷善, 持平洪時溥·金鐮, 獻納李尙愚, 正言任熤·朴英載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答兩司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10일(무자)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안정선(安廷善) 등의 계

○ 장령 안정선(安廷善), 지평 홍시부(洪時溥)·김겸(金鐮), 헌납 이상우(李尙愚), 정언 임한(任熤)·박영재(朴英載)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十日 戊子

○ 執義李東冕, 掌令安廷善, 持平洪時溥·金鑌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答府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10일(무자)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이동면(李東冕) 등의 계

○ 집의 이동면(李東冕), 장령 안정선(安廷善), 지평 홍시부(洪時溥)·김겸(金鑌)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十一日 己丑

○ 行大司憲金勉柱, 司諫李元八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答兩司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11일(기축)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김면주(金勉柱) 등의 계

○ 행대사헌 김면주(金勉柱), 사간 이원팔(李元八)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양사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十二日 庚寅

○ 行大司憲金勉柱, 司諫李元八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 答兩司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12일(경인)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김면주(金勉柱) 등의 계

○ 행대사헌 김면주(金勉柱), 사간 이원팔(李元八)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양사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十三日 辛卯

○ 行大司憲金勉柱, 司諫李元八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 答兩司曰, 不允. …….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13일(신묘)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김면주(金勉柱) 등의 계

○ 행대사헌 김면주(金勉柱), 사간 이원팔(李元八)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양사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十五日 癸巳

○ 丙寅二月十五日午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承旨金宗善, 假注書洪起燮, 事變假注書李頤熙, 記注官鄭宗顯·金致龍, 領議政李秉模, 兼戶曹判書金文淳, 知事金思穆, 禮曹判書徐榮輔, 行護軍李得濟, 行大司憲金勉柱, 司諫李元八, 修撰李惟命以次進伏訖. …… 勉柱曰, 臣謂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宜矣. 上曰, 不允. 【措辭見上】【出擧條】…….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15일(계사)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김면주(金勉柱)의 계

○ 병인년 2월 15일 오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우승지 김종선(金宗善), 가주서 홍기섭(洪起燮), 사변가주서 이이희(李頤熙), 기주관 정종현(鄭宗顯)·김치룡(金致龍), 영의정 이병모(李秉模), 겸호조판서 김문순(金文淳), 지사 김사목(金思穆), 예조판서 서영보(徐榮輔), 행호군 이득제(李得濟), 행대사헌 김면주(金勉柱), 사간 이원팔(李元八), 수찬 이유명(李惟命)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김면주가 아뢰기를, "신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十八日 丙申

○ 行大司憲金勉柱, 司諫李元八, 持平洪時溥·金鐮, 獻納李尙愚啓曰, …… 噫嘻痛矣, 干常亂紀之賊, 從古何限, 而豈有如在敏之至妖慝絶凶悖者哉? 常懷梟獍之心, 莫掩鬼蜮之狀, 乘機逞毒, 闖呈一疏, 上而摻逼聖躬, 下而網打朝紳, 至曰受誣於舟梁之大慶, 有若眞有誣逼者然, 又引故相之對揚, 有若不爲辨明者然, 末乃以眼無君母等語, 憑藉而疑亂, 閃忽而譏訕, 顯售不逞之習, 少無顧忌之心, 其爲凶懵, 胡至此極? 嗚呼, 庚申以後, 我東方得有今日, 是誰之力? 洪[恭]惟我慈聖殿下, 五紀母臨, 四載簾帷, 保護我聖躬, 鞏固我宗祊, 義理闡明, 朝象和泰, 克追先王之遺志, 誕擧旣定之文祥, 以基我億萬年無疆之休, 洪功盛烈, 有光史牒, 環東土數千里, 莫不蹈舞攢頌於慈覆之天, 而向來臺臣通儒之處分, 罔非稟決慈旨, 推明慈德, 正大光明, 有辭後世. 凡有秉彝之心者, 孰不頌慈仁仰聖孝, 而渠亦北面於慈聖暨殿下之庭者, 抑何心腸, 至有不欲比肩之凶言, 而矢死不欲立於殿下之庭, 卽此一款, 已是窮天地亘萬古所未有之劇逆斷案, 此非但殿下之罪人, 實是慈聖之罪人也. 究厥情犯, 剕戮猶輕, 不可使一刻容貸於覆載之間, 而今日臣子之忍與之共戴一天, 未能手磔而口臠, 凡幾月矣, 輿論迭發, 聖斷斯赫, 特允臺臣之請, 王章始可夫伸, 輿憤從此少洩, 而豈意酌決之命遽下, 至令似此凶逆, 生出獄門, 刑政之乖失, 神人之痛惋, 容有極哉? 噫, 彼賊敏, 卽一戴頭之逆豎也, 此而不嚴覈情節, 夫斷常刑, 則倫綱斁而義理晦, 將至於國不得爲國, 人不得爲人, 不逞之徒, 去益生心, 亂逆之起, 又復接跡, 豈不大可懼哉? 旣允群請而不宜從輕, 自有邦憲而不容少緩,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 答兩司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18일(병신)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김면주(金勉柱) 등의 계

○ 행대사헌 김면주(金勉柱), 사간 이원팔(李元八), 지평 홍시부(洪時溥)·김겸(金鎌), 헌납 이상우(李尙愚)가 아뢰기를, "〈상략〉 아, 통탄스럽습니다. 상도(常道)를 간범(干犯)하고 기강을 어지럽히는 역적이 예로부터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찌 홍재민(洪在敏)과 같이 지극히 요망하고 간특하여 흉패(凶悖)한 자가 있겠습니까? 늘상 효경(梟獍)[122]의 마음을 품고, 귀역(鬼蜮)[123]의 실상을 숨길 수 없었

122) 효경(梟獍): 어미 새를 잡아먹는다는 올빼미와 아비를 잡아먹는다는 짐승이라는 뜻으로, 배은망

으니, 기회를 틈타 악독한 짓을 자행하고자, 틈을 노려 한 통의 상소를 올려 위로는 성상을 핍박하고, 아래로는 조정의 신하들을 모조리 다 잡아들이려 했습니다. “주량(舟梁)의 큰 경사에 무함을 당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면서 마치 정말로 무함하고 핍박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또 고(故) 상신(相臣)의 대양(對揚)을 인용하여 마치 변명(辨明)하지 않은 듯하였고, 끝에 가서는 “안중에 군모(君母)가 없다.”는 등의 말로 빙자하여 의란(疑亂)하고, 번쩍하여 나무라고 헐뜯으면서 불령(不逞)[124]한 습관을 드러내 놓고 실현함에 조금도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이 없었으니, 그 흉악하고 참혹함이 어찌 이다지도 지극한 것입니까? 아, 경신년 이후 우리 동방이 오늘이 있게 된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거룩한 우리 자성(慈聖) 전하가 5기(紀)동안 국모(國母)로 임하고, 4년 동안 수렴(垂簾)하여 우리 성궁(聖躬)을 보호하고 우리 종팽(宗祊)을 공고히 하였던 것이니, 의리는 천명(闡明)되고 조정의 기상은 화락·태평해졌습니다. 이에 능히 선왕의 유지(遺志)를 추념(追念)하고 이에 정해진 문상(文祥)을 널리 거행하여 우리의 억만년토록 끝이 없을 아름다움을 터닦아 놓았으니, 크고 거룩한 공렬(功烈)은 사첩(史牒)에 빛남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동토(東土) 수천 리에서 자성의 덕이 덮고 있는 하늘 아래에, 누군들 발을 구르며 춤추고 손을 모아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날 대신(臺臣)과 통유(通儒)의 처분도 자성의 뜻에 품결(稟決)하여 자성의 덕을 미루어 밝히지 않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대(正大)한 광명은 후세에 할 말이 있기에 무릇 병이(秉彝)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누군들 자성의 어짊을 송축하지 아니하고 성효(聖孝)를 우러르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자성과 전하의 궐정(闕庭)에 북면(北面)하고 있는 자인데, 도대체 무슨 심장(心腸)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지 않다.’는 흉악한 말을 하면서 맹세코 전하의 조정에 서려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 한 조항만으로도 이미 천지가 다하고 만세에 뻗히도록 있지 아니한 극역(劇逆)의 단안(斷案)이니, 이는 전하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실로 자성의 죄인입니다. 범한 죄를 따진다면 능지처참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잠시도 천지간에 용서해서는 안되는데, 오늘날 신하들이 차마 함께 한 하늘을 이고 살면서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입으로 살을 씹지 못한 지 몇 달이 되었습니까? 여론이 번갈아 일어나고 성상의 결단이 혁혁하여 특별히 대신의 청을 윤허하였기에, 국법이 비로소 시원스레 펴지고 여론이 이로부터 조금 풀리게 되었

덕하고 흉악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3) 귀역(鬼蜮): 귀신과 물여우라는 뜻으로, 음험하여 남몰래 남을 해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4) 불령(不逞): 원한이나 불평불만을 품고 국가의 구속에서 벗어나 제 마음대로 행동함.

는데, 어찌 참작하여 결단하라는 명이 갑자기 내려지고 이와 같은 흉역이 살아서 옥문(獄門)을 나오게 하여 형정(刑政)이 어그러지고 귀신과 사람의 원통함을 극에 달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 저 역적 홍재민은 일개 역적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런데도 정상을 엄히 조사하여 상형(常刑)을 통쾌하게 결단하지 않는다면, 윤강(倫綱)이 무너지고 의리가 어두워져 장차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되어 불령한 무리가 갈수록 더욱 마음을 먹게 되고, 난역(亂逆)이 일어날 때 다시 꼬리를 물고 있을 것이니 어찌 크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미 신하들의 청을 윤허하였으니 가벼운 쪽으로 처벌해서는 안 되고, 나라에 법이 있으니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二十二日 庚子

○ 掌令安廷善, 持平金鏞, 獻納李尙愚, 正言任熤·朴英載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夬正典刑. 【措辭見上】 …… 答兩司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22일(경자)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안정선(安廷善) 등의 계

○ 장령 안정선(安廷善), 지평 김겸(金鏞), 헌납 이상우(李尙愚), 정언 임한(任熤)·박영재(朴英載)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二十二日 庚子

○ 執義李東冕, 掌令安廷善, 持平金鐮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府曰, 不允. …….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22일(경자)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이동면(李東冕) 등의 계

○ 집의 이동면(李東冕), 장령 안정선(安廷善), 지평 김겸(金鐮)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二十五日 癸卯

○ 司諫李元八, 持平洪時溥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25일(계묘)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사간 이원팔(李元八) 등의 계

○ 사간 이원팔(李元八), 지평 홍시부(洪時溥)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二十五日 癸卯

○ 持平洪時溥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25일(계묘)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지평 홍시부(洪時溥)의 계

○ 지평 홍시부(洪時溥)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二十六日 甲辰

○ 持平金鏞, 正言朴英載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26일(갑진)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지평 김겸(金鏞) 등의 계

○ 지평 김겸(金鏞), 정언 박영재(朴英載)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二十六日 甲辰

○ 持平金鏞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26일(갑진)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지평 김겸(金鏞)의 계

○ 지평 김겸(金鏞)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二十七日 乙巳

○ 韓致應,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濟州牧使朴宗柱狀啓, 則以爲本州牧場中, 牛島初無泉水, 又無林藪, 旱渴不得飮吃, 風雪無所依庇, 每多故斃. 旣無補於歲貢, 反爲害於民役, 該島馬畜, 分屬各場, 以其島俾許耕食事, 請令廟堂稟處矣. 海外形便, 有難遙度, 而設牧已至百餘年之久, 則前人亦豈全無所見而然乎? 此必島民輩, 利其些少耕作, 有此罷場之論, 而馬政之懈弛, 莫如近日, 豈可遽廢年久之牧場乎? 所請今姑置之, 何如? 傳曰, 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27일(을사)

▢ 우도(牛島)의 마장(馬場)을 파하자는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의 장계에 대해, 우선 그대로 둘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한치응(韓致應)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의 장계를 보니, '본주(本州) 목장 가운데 우도(牛島)는 애초에 샘물이 없었고, 또 수풀이 없어서 가물어 마르면 마실 수가 없고, 풍설(風雪)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매양 고폐(故斃)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미 세공(歲貢)에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민역(民役)에 해로움이 되고 있으니, 해도(該島)의 마축(馬畜)을 각 목장에 분속하여 그 섬을 가지고 갈아먹는 것을 허락하는 일에 관하여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바다 밖의 형편을 멀리서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목장을 설치한 것이 이미 100여 년이나 오래되었으니, 앞 사람들이 또한 어찌 전혀 소견이 없어서 그러했겠습니까? 이는 필시 섬 백성들이 그 사소한 경작을 이롭게 여겨 이처럼 파장(罷場)하는 논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정(馬政)의 헤이함이 근일과 같은 적이 없습니다. 어찌 급히 오래된 목장을 폐할 수 있겠습니까? 청한 바를 지금은 우선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125]

△ 주제어: 우도, 목장, 마정.

125) 이상은 《비변사등록》 순조 6년 2월 27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二十七日 乙巳

○ 司諫李元八, 掌令安廷善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27일(을사)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사간 이원팔(李元八) 등의 계

○ 사간 이원팔(李元八), 장령 안정선(安廷善)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二十七日 乙巳

○ 掌令安廷善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27일(을사)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안정선(安廷善)의 계

○ 장령 안정선(安廷善)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二十八日 丙午

○ 持平洪時溥, 正言朴英載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28일(병오)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지평 홍시부(洪時溥) 등의 계

○ 지평 홍시부(洪時溥), 정언 박영재(朴英載)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二十八日 丙午

○ 持平洪時溥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28일(병오)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지평 홍시부(洪時溥)의 계

○ 지평 홍시부(洪時溥)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二十九日 丁未

○ 掌令李海淸, 持平洪時溥·閔致載, 獻納李重蓮, 正言朴英載·沈厚鎭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29일(정미)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이해청(李海淸) 등의 계

○ 장령 이해청(李海淸), 지평 홍시부(洪時溥)·민치재(閔致載)[126], 헌납 이중연(李重蓮)[127], 정언 박영재(朴英載)·심후진(沈厚鎭)[128]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126) 민치재(1758~?): 본관 여흥(驪興). 자 원지(遠之). 1792년(정조 16) 문과 급제.
127) 이중연(李重蓮): 본관 연안(延安). 1790년(정조 14) 문과 급제. 예문관검열 역임.
128) 심후진(1754~?): 본관 청송(靑松). 1795년(정조 19) 문과 급제. 지평, 장령, 북청부사 역임.

❖ 嘉慶 十一年 丙寅 二月 二十九日 丁未

○ 掌令李海淸, 持平洪時溥·閔致載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 순조 6년(1806) 병인년 2월 29일(정미)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이해청(李海淸) 등의 계

○ 장령 이해청(李海淸), 지평 홍시부(洪時溥)·민치재(閔致載)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三月 三日 辛亥

○ 柳畊啓曰, 卽伏見濟州牧使朴宗柱歲末老人狀啓, 則後錄連書於年月帖, 有違格例, 推考, 何如? 傳曰, 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3월 3일(신해)

▢ 세말노인장계(歲末老人狀啓)를 격례(格例)에 어긋나게 작성하여 올린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의 추고(推考)를 청하는 유경(柳畊)의 계

○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의 세말노인장계(歲末老人狀啓)를 보니, 후록(後錄)을 연월첩(年月帖)에 이어서 썼습니다. 격례(格例)에 어긋나니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노인장계, 제주목사, 박종주, 추고.

❖ 嘉慶 十一年 丙寅 三月 四日 壬子

○ 金宗善,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濟州牧使朴宗柱狀啓, 則以爲, 異國船一隻, 漂到於涯月鎭嚴莊浦前洋, 而觀其票文, 參以問情, 則果是江南省蘇州府太倉州寶山縣及上海縣人二十二名之行商漂到者, 渠等以其船隻之破碎, 從陸願還, 且願所載紅棗一千四百四十三石, 換買銀兩, 以作歸資, 大抵漂人還送, 一從其願, 而今此漂人, 以水以陸, 俱極難便, 依渠船樣雖欲造給, 未諳其制, 若給我船, 我船制用, 彼亦不知, 設如渠願, 從陸還送, 許多紅棗, 實難轉輸, 至於賣棗, 本島異於內地, 初無銀錢行貨之事, 則依願措處, 勢所末由, 竝請令廟堂, 稟處矣, 今此漂人之從水路還送, 彼此俱便, 而已破之船, 旣無以改葺, 我國之船, 彼又不可以制用, 則依其追後所願, 從陸入送之外, 實無他道, 衣袴已自本牧造給, 今無可論,朝夕供饋, 沿路刷馬, 各別申飭擧行, 以示朝家優恤之意, 定差員次次交替, 上送于京中, 自京中轉送灣府, 以爲入送北京之地, 所經各邑禁雜人等節, 一體另飭擧行, 彼人物件中可以運致者, 亦以刷馬替送, 卜重難運者, 折價以給, 破碎船隻棄置什物, 彼人所見處, 竝爲燒火, 而第其物件, 皆是紅棗, 自本牧無以區處云, 令道臣從便運致於陸地, 仍爲散賣, 爲先以某樣公貨, 推移折價以給, 以其散賣本價, 還卽充上, 一依年前在遠島漂人入送例, 漢學譯官一人, 令該院擇定, 給馬下送于湖南都會官, 待漂人越海, 更爲問情後, 與差員眼同領來, 咨文令槐院預爲撰出, 以領來譯官, 仍差咨官入送之意, 分付該牧該道及該院, 時急狀啓之屢朔遲滯, 已極可駭, 原啓陪持, 不知去向之形止, 今始登聞, 亦甚疎忽, 該牧使朴宗柱, 姑先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3월 4일(임자)

▢ 애월진(涯月鎭) 엄장포(嚴莊浦) 앞바다에 표도(漂到)해 온 이국인 22명을 육로로 북경까지 들여보내고 자문(咨文)을 보낼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김종선(金宗善)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의 장계를 보니, '이국선(異國船) 1척이 애월진(涯月鎭) 엄장포(嚴莊浦) 앞바다에 표도(漂到)하였는데, 그 표문(票文)을 보고 참조하여 문정(問情)해 보니, 과연 강남성(江南省) 소주부(蘇州府) 태창주(太倉州) 보산현(寶山縣)과 상해현(上海縣) 사람 22명이 행상(行商)을 하다 표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선척이 부서져서 육로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실은 홍조(紅棗) 1,443섬을 은량(銀兩)으로 환매하여 돌아갈 밑천으로 삼기를 원하였습니다. 대저 표류인을 환송하는 일은 일

체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랐는데, 지금 이 표도인은 바다로 가든 육지로 가든 모두 극히 어렵습니다. 그들 배의 모양에 따라 만들어 주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밝지 못하고, 우리 배를 준다 하여도 우리 배를 부리는 방법을 저들 또한 알지 못합니다. 설사 저들이 바라는 대로 육로를 따라 돌려보낸다면 허다한 홍조를 실로 수송하기 어렵습니다. 홍조를 파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도(本島)가 내지(內地)와 달라서 애초에 은전(銀錢)을 유통하는 일이 없으니, 원하는 대로 조처하는 것이 형세상 방법이 없습니다. 아울러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표도인들이 수로를 따라서 돌아간다면 피차가 모두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부서진 배를 수리할 수 없고, 우리나라의 배를 저들 또한 부릴 수가 없으니, 추후에 원하는 대로 육로로 들여보내는 방법 외에 실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의복은 이미 본목(本牧)에서 만들어 지급하였으니 지금은 논할 것이 없고, 아침 저녁 공궤(供饋)와 연로(沿路)의 쇄마(刷馬)는 각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거행하여 조정에서 넉넉히 구휼하는 뜻을 보여 주십시오. 차원(差員)을 정하여 차례대로 교대하여 서울로 올려 보내고, 서울에서 의주부로 보내어 북경(北京)으로 들여보내도록 하되, 경유하는 각 읍에서 잡인을 금지하는 일 등을 일체 특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거행하고, 피인(彼人)의 물건 중에 운반하여 보낼 수 있는 것은 또한 쇄마로 교대로 운송하고, 짐이 무거워 운반하기 어려운 것은 절가(折價)하여 주며, 부서진 배에 버려둔 집물은 피인이 보는 곳에서 모두 불사르되, 다만 그 물건들이 모두 홍조이므로 본목에서 구처(區處)할 수 없다고 하니, 관찰사로 하여금 편한대로 육지로 운송해 주도록 하고, 이어서 산매(散賣)하여 우선 아무 공화(公貨)로써 추이(推移)하여 값을 환산해 주며, 그 산매한 본래의 값은 즉시 바로 채우되, 한결같이 연전에 재원도(在遠島)에 표도한 사람들을 들여보냈던 사례에 의거하여 한학(漢學) 역관 1인을 해원(該院)으로 하여금 택정(擇定)하게 하여, 말을 주어 호남 도회관(都會官)으로 내려보내어, 표도인이 바다를 건너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문정한 후에 차원과 함께 영솔하여 오게 하겠습니다. 자문(咨文)은 승문원으로 하여금 미리 지어내게 하여 영솔하여 온 역관을 그대로 자재관(咨齎官)으로 차임하여 들여보낼 뜻을 해목(該牧), 해도(該道) 및 해원에 분부하겠습니다. 시급한 장계를 몇 달 동안 지체한 것이 이미 지극히 놀랄 만한데, 원계(原啓)의 배지(陪持)[129]가 어디로 갔는지 그 전말을 알지 못하다가 지금에야 비로소 등문(登聞)하니 또한 심히 소

129) 배지(陪持): 지방 관아의 진상(進上)과 장계(狀啓)를 가지고 서울에 가는 사람. '기발(騎撥)'이라고도 함.

홀합니다. 해당 제주목사 박종주를 우선 종중추고(從重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130]

△ 주제어: 이국선, 엄장포, 표도, 박종주, 종중추고.

130) 이상은 《비변사등록》 순조 6년 3월 4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十一年 丙寅 三月 六日 甲寅

○ 行大司諫李肇源, 司諫金孝眞, 掌令朴孝成·李海淸, 持平沈厚鎭, 正言洪時溥·閔致載啓曰, …… 噫嘻, 痛矣, 干常亂紀之賊, 從古何限, 而豈有如在敏之至妖慝絶凶悖者哉? 常懷梟獍之心, 莫掩鬼蜮之狀, 乘機逞毒, 闖呈一疏, 上而捋逼聖躬, 下而網打朝紳, 至曰受誣於舟梁之大慶, 有若眞有誣逼者然, 又引故相之對揚, 有若不爲辨明者然, 末乃以眼無君母等語, 憑藉而疑亂, 閃忽而譏訕, 顯售不逞之習, 少無顧忌之心, 其爲凶慴, 胡至此極? 嗚呼, 庚申以後, 我東方得有今日, 是誰之力? 洪惟我慈聖殿下, 五紀母臨, 四載簾帷, 保護我聖躬, 鞏固我宗邦, 義理闡明, 朝象和泰, 克追先王之遺志, 誕擧旣定之文祥, 以基我億萬年無疆之休, 洪功盛烈, 有光史牒, 環東土數千里, 莫不蹈舞攢誦於慈覆之天, 而向來臺臣通儒之處分, 罔非稟決慈旨, 推明慈德, 正大光明, 有辭後世, 凡有秉彝之心者, 孰不頌慈仁仰聖孝, 而渠亦北面於慈聖暨殿下之庭者, 抑何心腸, 有不欲比肩之凶言, 而矢死不欲立於殿下之庭? 卽此一款, 已是窮天地亘萬古所未有之極逆斷案, 此非但殿下之罪人, 實是慈聖之罪人也, 究厥情犯, 剮戮猶輕, 不可使一刻容貸於覆載之間, 而今日臣子之忍與之共戴一天, 未能手磔而口臠, 凡幾月矣, 輿論迭發, 聖斷斯赫, 特允臺臣之請, 王章始可夫伸, 輿憤從此少洩, 而豈意酌決之命遽下, 至令似此凶逆, 生出獄門, 刑政之乖失, 神人之痛惋, 容有極哉? 噫, 彼賊敏, 卽一戴頭之逆豎也, 此而不嚴覈情節, 快斷常刑, 則倫綱斁而義理晦, 將至於國不得爲國, 人不得爲人, 不逞之徒, 去益生心, 亂逆之起, 又復接跡, 豈不大可懼哉? 旣允群請而不宜從輕, 自有邦憲而不容少緩,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 答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3월 6일(갑인)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간 이조원(李肇源) 등의 계

○ 행대사간 이조원(李肇源), 사간 김효진(金孝眞), 장령 박효성(朴孝成)·이해청(李海淸), 지평 심후진(沈厚鎭), 정언 홍시부(洪時溥)·민치재(閔致載)가 아뢰기를, "〈상략〉 아, 통탄스럽습니다. 상도(常道)를 간범(干犯)하고 기강을 어지럽히는 역적이 예로부터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찌 홍재민(洪在敏)과 같이 지극히 요망하고 간특하여 흉패(凶悖)한 자가 있겠습니까? 늘상 효경(梟獍)[131]의 마음을 품

고, 귀역(鬼蜮)[132]의 실상을 숨길 수 없었으니, 기회를 틈타 악독한 짓을 자행하고자, 틈을 노려 한 통의 상소를 올려 위로는 성상을 핍박하고, 아래로는 조정의 신하들을 모조리 다 잡아들이려 했습니다. "주량(舟梁)의 큰 경사에 무함을 당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면서 마치 정말로 무함하고 핍박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또 고(故) 상신(相臣)의 대양(對揚)을 인용하여 마치 변명(辨明)하지 않은 듯하였고, 끝에 가서는 "안중에 군모(君母)가 없다."는 등의 말로 빙자하여 의란(疑亂)하고, 번쩍하여 나무라고 헐뜯으면서 불령(不逞)[133]한 습관을 드러내 놓고 실현함에 조금도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이 없었으니, 그 흉악하고 참혹함이 어찌 이다지도 지극한 것입니까? 아, 경신년 이후 우리 동방이 오늘이 있게 된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거룩한 우리 자성(慈聖) 전하가 5기(紀)동안 국모(國母)로 임하고, 4년 동안 수렴(垂簾)하여 우리 성궁(聖躬)을 보호하고 우리 종팽(宗祊)을 공고히 하였던 것이니, 의리는 천명(闡明)되고 조정의 기상은 화락·태평해졌습니다. 이에 능히 선왕의 유지(遺志)를 추념(追念)하고 이에 정해진 문상(文祥)을 널리 거행하여 우리의 억만년토록 끝이 없을 아름다움을 터닦아 놓았으니, 크고 거룩한 공렬(功烈)은 사첩(史牒)에 빛남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동토(東土) 수천 리에서 자성의 덕이 덮고 있는 하늘 아래에, 누군들 발을 구르며 춤추고 손을 모아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날 대신(臺臣)과 통유(通儒)의 처분도 자성의 뜻에 품결(稟決)하여 자성의 덕을 미루어 밝히지 않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대(正大)한 광명은 후세에 할 말이 있기에 무릇 병이(秉彝)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누군들 자성의 어짊을 송축하지 아니하고 성효(聖孝)를 우러르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자성과 전하의 궐정(闕庭)에 북면(北面)하고 있는 자인데, 도대체 무슨 심장(心腸)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지 않다.'는 흉악한 말을 하면서 맹세코 전하의 조정에 서려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 한 조항만으로도 이미 천지가 다하고 만세에 뻗히도록 있지 아니한 극역(劇逆)의 단안(斷案)이니, 이는 전하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실로 자성의 죄인입니다. 범한 죄를 따진다면 능지처참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잠시도 천지간에 용서해서는 안되는데, 오늘날 신하들이 차마 함께 한 하늘을 이고 살면서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입으로 살을 씹지 못한 지 몇 달이 되었습니까? 여론이 번갈아 일어나고 성상의

131) 효경(梟獍): 어미 새를 잡아먹는다는 올빼미와 아비를 잡아먹는다는 짐승이라는 뜻으로, 배은망덕하고 흉악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2) 귀역(鬼蜮): 귀신과 물여우라는 뜻으로, 음험하여 남몰래 남을 해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3) 불령(不逞): 원한이나 불평불만을 품고 국가의 구속에서 벗어나 제 마음대로 행동함.

결단이 혁혁하여 특별히 대신의 청을 윤허하였기에, 국법이 비로소 시원스레 펴지고 여론이 이로부터 조금 풀리게 되었는데, 어찌 참작하여 결단하라는 명이 갑자기 내려지고 이와 같은 흉역이 살아서 옥문(獄門)을 나오게 하여 형정(刑政)이 어그러지고 귀신과 사람의 원통함을 극에 달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 저 역적 홍재민은 일개 역적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런데도 정상을 엄히 조사하여 상형(常刑)을 통쾌하게 결단하지 않는다면, 윤강(倫綱)이 무너지고 의리가 어두워져 장차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되어 불령한 무리가 갈수록 더욱 마음을 먹게 되고, 난역(亂逆)이 일어날 때 다시 꼬리를 물고 있을 것이니 어찌 크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미 신하들의 청을 윤허하였으니 가벼운 쪽으로 처벌해서는 안 되고, 나라에 법이 있으니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三月 六日 甲寅

○ 行大司憲徐榮輔, 掌令朴孝成·李海淸, 持平洪冕燮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具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不允. …….

❖ 순조 6년(1806) 병인년 3월 6일(갑인)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서영보(徐榮輔) 등의 계

○ 행대사헌 서영보(徐榮輔), 장령 박효성(朴孝成)·이해청(李海淸), 지평 홍면섭(洪冕燮)[134]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134) 홍면섭(1761~?): 본관 남양(南陽). 자 원장(元章). 1803년(순조 3) 문과 급제. 병조참의, 예조참의, 정주목사 역임.

❖ 嘉慶 十一年 丙寅 三月 七日 乙卯

○ 掌令朴孝成, 正言洪時溥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3월 7일(을묘)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박효성(朴孝成) 등의 계

○ 장령 박효성(朴孝成), 정언 홍시부(洪時溥)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三月 七日 乙卯

○ 掌令朴孝成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3월 7일(을묘)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박효성(朴孝成)의 계

○ 장령 박효성(朴孝成)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三月 十一日 己未

○ 大司諫安策, 司諫金孝眞, 掌令朴孝成, 持平沈厚鎭, 正言閔致載·洪時溥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答兩司曰, 不允. …….

❖ 순조 6년(1806) 병인년 3월 11일(기미)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대사간 안책(安策) 등의 계

○ 대사간 안책(安策)[135], 사간 김효진(金孝眞), 장령 박효성(朴孝成), 지평 심후진(沈厚鎭), 정언 민치재(閔致載)·홍시부(洪時溥)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135) 안책(1742~?): 본관 죽산(竹山). 자 지숙(智叔).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대사간, 동부승지, 호조참의 역임.

❖ 嘉慶 十一年 丙寅 三月 十一日 己未

○ 掌令朴孝成, 持平洪冕燮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答府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3월 11일(기미)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박효성(朴孝成) 등의 계

○ 장령 박효성(朴孝成), 지평 홍면섭(洪冕燮)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三月 十八日 丙寅

○ 行大司憲曺允大, 行大司諫閔耆顯, 正言朴宗臣·李游夏啓曰, …… 請楸子島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 순조 6년(1806) 병인년 3월 18일(병인)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조윤대(曺允大) 등의 계

○ 행대사헌 조윤대(曺允大)[136], 행대사간 민기현(閔耆顯), 정언 박종신(朴宗臣)[137]·이유하(李游夏)[138]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136) 조윤대(1748~1813): 본관 창녕(昌寧). 자 사원(士元). 호 동포(東浦). 1779년(정조 3) 문과 급제. 이조판서, 한성판윤, 판돈녕부사 역임.

137) 박종신(1754~?): 본관 반남(潘南). 자 사첨(士瞻). 1801년(순조 1) 문과 급제. 부교리, 정언, 곡산부사 역임.

138) 이유하(1767~?): 본관 전주(全州). 자 경학(景學). 1795년(정조 19) 문과 급제. 북청부사, 부교리, 필선 역임.

❖ 嘉慶 十一年 丙寅 三月 十九日 丁卯

○ 行大司憲曺允大, 行大司諫閔耆顯, 掌令李敬參, 持平金魯應, 正言李游夏·朴宗臣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3월 19일(정묘)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조윤대(曺允大) 등의 계

○ 행대사헌 조윤대(曺允大), 행대사간 민기현(閔耆顯), 장령 이경참(李敬參), 지평 김노응(金魯應)[139], 정언 이유하(李游夏)·박종신(朴宗臣)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139) 김노응(1757~1824): 본관 경주(慶州). 자 유일(唯一). 호 일와(一窩). 시호 정헌(正獻). 1805년(순조 5) 문과 급제. 형조판서, 한성판윤, 병조판서 역임.

❖ 嘉慶 十一年 丙寅 三月 十九日 丁卯

○ 行大司憲曺允大, 掌令李敬參, 持平徐鼎輔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亟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3월 19일(정묘)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조윤대(曺允大) 등의 계

○ 행대사헌 조윤대(曺允大), 장령 이경참(李敬參), 지평 서정보(徐鼎輔)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三月 二十日 戊辰

○ 行大司憲曺允大, 行大司諫閔耆顯, 正言李游夏·朴宗臣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3월 20일(무진)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조윤대(曺允大) 등의 계

○ 행대사헌 조윤대(曺允大), 행대사간 민기현(閔耆顯), 정언 이유하(李游夏)·박종신(朴宗臣)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三月 二十一日 己巳

○ 行大司憲曺允大, 行大司諫閔耆顯, 掌令李敬參·任熤, 持平金魯應, 正言李游夏·朴宗臣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3월 21일(기사)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조윤대(曺允大) 등의 계

○ 행대사헌 조윤대(曺允大), 행대사간 민기현(閔耆顯), 장령 이경참(李敬參)·임한(任熤), 지평 김노응(金魯應), 정언 이유하(李游夏)·박종신(朴宗臣)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三月 二十一日 己巳

○ 行大司憲曺允大, 掌令李敬參·任熤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3월 21일(기사)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조윤대(曺允大) 등의 계

○ 행대사헌 조윤대(曺允大), 장령 이경참(李敬參)·임한(任熤)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三月 二十二日 庚午

○ 行大司憲曺允大, 行大司諫閔耆顯, 掌令李敬參·任熤, 持平金魯應, 正言李游夏·朴宗臣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3월 22일(경오)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조윤대(曺允大) 등의 계

○ 행대사헌 조윤대(曺允大), 행대사간 민기현(閔耆顯), 장령 이경참(李敬參)·임한(任熤), 지평 김노응(金魯應), 정언 이유하(李游夏)·박종신(朴宗臣)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三月 二十二日 庚午

○ 行大司憲曺允大, 掌令李敬參·任熤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 순조 6년(1806) 병인년 3월 22일(경오)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조윤대(曺允大) 등의 계

○ 행대사헌 조윤대(曺允大), 장령 이경참(李敬參)·임한(任熤)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三月 二十九日 丁丑

○ 丙寅三月二十九日辰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副承旨朴宗正, 假注書李止淵, 事變假注書吳夏哲, 記注官崔鳳和, 記事官鄭觀綏, 領議政李秉模, 左議政徐龍輔, 兼吏曹判書李晩秀, 行大護軍徐榮輔, 兵曹判書趙得永, 行護軍李得濟·李仁秀·朴宗慶, 行大司憲曺允大, 行大司諫閔耆顯, 掌令李敬參, 持平金魯應, 獻納尹致鼎, 正言朴宗臣, 校理尹魯東等, 以次進伏訖. …… 允大等曰, 臣等謂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宜矣. 【措辭見上】 上曰, 不允. …….

❖ 순조 6년(1806) 병인년 3월 29일(정축)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조윤대(曺允大) 등의 계

○ 병인년 3월 29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좌부승지 박종정(朴宗正), 가주서 이지연(李止淵), 사변가주서 오하철(吳夏哲), 기주관 최봉화(崔鳳和), 기사관 정관수(鄭觀綏), 영의정 이병모(李秉模), 좌의정 서용보(徐龍輔), 겸이조판서 이만수(李晩秀), 행대호군 서영보(徐榮輔), 병조판서 조득영(趙得永), 행호군 이득제(李得濟)·이인수(李仁秀)·박종경(朴宗慶), 행대사헌 조윤대(曺允大), 행대사간 민기현(閔耆顯), 장령 이경참(李敬參), 지평 김노응(金魯應), 헌납 윤치정(尹致鼎), 정언 박종신(朴宗臣), 교리 윤노동(尹魯東) 등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조윤대 등이 아뢰기를, "신들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四月 八日 乙酉

○ 行大司憲曺允大, 行大司諫閔耆顯, 執義李基慶, 司諫鄭魯榮, 掌令崔履亨·任熤, 持平金魯應, 正言李游夏·朴宗臣啓曰, …… 噫嘻, 痛矣. 干常亂紀之賊, 從古何限, 而豈有如在敏之至妖慝絶凶悖者哉? 常懷梟獍之心, 莫掩鬼蜮之狀, 乘機逞毒, 闖呈一疏, 上而拶逼聖躬, 下而網打朝紳, 至曰受誣於舟梁之大慶, 有若眞有誣逼者然, 又引故相之對揚, 有若不爲辨明者然, 末乃以眼無君母等語, 憑藉而疑亂, 閃忽而譏訕, 顯售不逞之習, 少無顧忌之心, 其爲凶懵, 胡至此極? 嗚呼, 庚申以後, 我東方得有今日, 是誰之力? 洪惟我慈聖殿下, 五紀母臨, 四載簾帷, 保護我聖躬, 鞏固我宗祊, 義理闡明, 朝象和泰, 克追先王之遺志, 誕擧旣定之文祥, 以基我億萬年無疆之休. 洪功盛烈, 有光史牒, 環東土數千里, 莫不蹈舞攢頌於慈覆之天, 而向來臺臣通儒之處分, 罔非稟決慈旨, 推明慈德, 正大光明, 有辭後世, 凡有秉彝之心者, 孰不頌慈仁仰聖孝, 而渠亦北面於慈聖暨殿下之庭者, 抑何心腸, 至有不欲比肩之凶言, 而矢死不欲立於殿下之庭, 卽此一款, 已是窮天地亘萬古所未有之劇逆斷案, 此非但殿下之罪人, 實是慈聖之罪人也. 究厥情犯, 剮戮猶輕, 不可使一刻容貸於覆載之間, 而今日臣子之忍與之共戴一天, 未能手磔而口臠, 凡幾月矣. 輿論迭發, 聖斷斯赫, 特允臺臣之請, 王章始可夫伸, 輿憤從此少洩, 而豈意酌決之命, 遽下, 至令似此凶逆, 生出獄門, 刑政之乖失, 神人之痛惋, 容有極哉? 噫, 彼賊敏, 卽一貸頭之逆豎也, 此而不嚴覈情節, 夫斷常刑, 則倫綱斁, 而義理晦, 將至於國不得爲國, 人不得爲人, 不逞之徒, 去益生心, 亂逆之起, 又復接跡, 豈不大可懼哉? 旣允群請而不宜從輕, 自有邦憲而不容少緩,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 答兩司曰, 不允. …….

❖ 순조 6년(1806) 병인년 4월 8일(을유)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조윤대(曺允大) 등의 계

○ 행대사헌 조윤대(曺允大), 행대사간 민기현(閔耆顯), 집의 이기경(李基慶), 사간 정노영(鄭魯榮), 장령 최이형(崔履亨)[140]·임한(任熤), 지평 김노응(金魯應), 정언 이유하(李游夏)·박종신(朴宗臣)이 아뢰기를, "〈상략〉 아, 통탄스럽습니다. 상도(常道)를 간범(干犯)하고 기강을 어지럽히는 역적이 예로부터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

140) 최이형(1737~?): 본관 전주(全州). 1789년(정조 13) 문과 급제. 함평현감, 헌납, 집의 역임.

까마는, 어찌 홍재민(洪在敏)과 같이 지극히 요망하고 간특하여 흉패(凶悖)한 자가 있겠습니까? 늘상 효경(梟獍)[141]의 마음을 품고, 귀역(鬼蜮)[142]의 실상을 숨길 수 없었으니, 기회를 틈타 악독한 짓을 자행하고자, 틈을 노려 한 통의 상소를 올려 위로는 성상을 핍박하고, 아래로는 조정의 신하들을 모조리 다 잡아들이려 했습니다. "주량(舟梁)의 큰 경사에 무함을 당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면서 마치 정말로 무함하고 핍박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또 고(故) 상신(相臣)의 대양(對揚)을 인용하여 마치 변명(辨明)하지 않은 듯하였고, 끝에 가서는 "안중에 군모(君母)가 없다."는 등의 말로 빙자하여 의란(疑亂)하고, 번쩍하여 나무라고 헐뜯으면서 불령(不逞)[143]한 습관을 드러내 놓고 실현함에 조금도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이 없었으니, 그 흉악하고 참혹함이 어찌 이다지도 지극한 것입니까? 아, 경신년 이후 우리 동방이 오늘이 있게 된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거룩한 우리 자성(慈聖) 전하가 5기(紀)동안 국모(國母)로 임하고, 4년 동안 수렴(垂簾)하여 우리 성궁(聖躬)을 보호하고 우리 종팽(宗祊)을 공고히 하였던 것이니, 의리는 천명(闡明)되고 조정의 기상은 화락·태평해졌습니다. 이에 능히 선왕의 유지(遺志)를 추념(追念)하고 이에 정해진 문상(文祥)을 널리 거행하여 우리의 억만년토록 끝이 없을 아름다움을 터닦아 놓았으니, 크고 거룩한 공렬(功烈)은 사첩(史牒)에 빛남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동토(東土) 수천 리에서 자성의 덕이 덮고 있는 하늘 아래에, 누군들 발을 구르며 춤추고 손을 모아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날 대신(臺臣)과 통유(通儒)의 처분도 자성의 뜻에 품결(稟決)하여 자성의 덕을 미루어 밝히지 않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대(正大)한 광명은 후세에 할 말이 있기에 무릇 병이(秉彝)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누군들 자성의 어짊을 송축하지 아니하고 성효(聖孝)를 우러르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자성과 전하의 궐정(闕庭)에 북면(北面)하고 있는 자인데, 도대체 무슨 심장(心腸)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지 않다.'는 흉악한 말을 하면서 맹세코 전하의 조정에 서려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 한 조항만으로도 이미 천지가 다하고 만세에 뻗히도록 있지 아니한 극역(劇逆)의 단안(斷案)이니, 이는 전하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실로 자성의 죄인입니다. 범한 죄를 따진다면 능지처참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잠시도 천지간에 용서해서는 안되는데, 오늘날 신하들이 차마 함께

141) 효경(梟獍): 어미 새를 잡아먹는다는 올빼미와 아비를 잡아먹는다는 짐승이라는 뜻으로, 배은망덕하고 흉악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42) 귀역(鬼蜮): 귀신과 물여우라는 뜻으로, 음험하여 남몰래 남을 해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43) 불령(不逞): 원한이나 불평불만을 품고 국가의 구속에서 벗어나 제 마음대로 행동함.

한 하늘을 이고 살면서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입으로 살을 씹지 못한 지 몇 달이 되었습니까? 여론이 번갈아 일어나고 성상의 결단이 혁혁하여 특별히 대신의 청을 윤허하였기에, 국법이 비로소 시원스레 펴지고 여론이 이로부터 조금 풀리게 되었는데, 어찌 참작하여 결단하라는 명이 갑자기 내려지고 이와 같은 흉역이 살아서 옥문(獄門)을 나오게 하여 형정(刑政)이 어그러지고 귀신과 사람의 원통함을 극에 달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 저 역적 홍재민은 일개 역적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런데도 정상을 엄히 조사하여 상형(常刑)을 통쾌하게 결단하지 않는다면, 윤강(倫綱)이 무너지고 의리가 어두워져 장차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되어 불령한 무리가 갈수록 더욱 마음을 먹게 되고, 난역(亂逆)이 일어날 때 다시 꼬리를 물고 있을 것이니 어찌 크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미 신하들의 청을 윤허하였으니 가벼운 쪽으로 처벌해서는 안 되고, 나라에 법이 있으니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四月 八日 乙酉

○ 行大司憲曺允大, 執義李基慶, 掌令崔履亨·任熤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 答府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4월 8일(을유)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조윤대(曺允大) 등의 계

○ 행대사헌 조윤대(曺允大), 집의 이기경(李基慶), 장령 최이형(崔履亨)·임한(任熤)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四月 九日 丙戌

○ 掌令任熤, 正言李游夏, 修撰金啓溫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答府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4월 9일(병술)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임한(任熤) 등의 계

○ 장령 임한(任熤), 정언 이유하(李游夏), 수찬 김계온(金啓溫)[144]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144) 김계온(?~?): 본관 강릉(江陵). 자 옥여(玉如). 1798년(정조 22) 문과 급제. 호조참판, 전라도관찰사, 성균관대사성 역임.

❖ 嘉慶 十一年 丙寅 四月 十日 丁亥

○ 司諫鄭魯榮, 掌令崔履亨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 答兩司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4월 10일(정해)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사간 정노영(鄭魯榮) 등의 계

○ 사간 정노영(鄭魯榮), 장령 최이형(崔履亨)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四月 十日 丁亥

○ 掌令崔履亨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 答府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4월 10일(정해)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최이형(崔履亨)의 계

○ 장령 최이형(崔履亨)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四月 十一日 戊子

○ 執義李基慶, 正言李游夏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 答兩司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4월 11일(무자)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이기경(李基慶) 등의 계

○ 집의 이기경(李基慶), 정언 이유하(李游夏)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四月 十一日 戊子

○ 執義李基慶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 答府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4월 11일(무자)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이기경(李基慶)의 계

○ 집의 이기경(李基慶)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四月 二十日 丁酉

○ 朴宗正, 以義禁府言啓曰, 興陽縣竄配罪人徐瀅修, 施以絶島安置之典事, 承傳啓下矣. 徐瀅修全羅道靈巖郡楸子島, 絶島安置,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都事, 自興陽縣執捉, 仍令押送于新定配所, 何如? 傳曰, 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4월 20일(정유)

▢ 추자도(楸子島) 절도 안치(安置)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본부의 도사(都事)를 보내어 배소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박종정(朴宗正)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흥양현(興陽縣)에 찬배된 죄인 서형수(徐瀅修)에게 절도(絶島)에 안치(安置)하는 형전(刑典)을 시행하도록 승전(承傳)하여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서형수를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절도 안치하되, 승전 내의 내용으로 죄목을 갖추고 규례대로 본부의 도사(都事)를 보내어 흥양현에서 붙잡아 그대로 새로 정해진 배소로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서형수, 추자도, 안치.

❖ 嘉慶 十一年 丙寅 四月 二十日 丁酉

○ 丙寅四月二十日辰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承旨朴宗正, 假注書李遠翊, 事變假注書柳榮五, 記注官金致龍·鄭宗顯, 領議政李秉模, 左議政李時秀, 右議政徐龍輔, 廣州留守李義弼, 知中樞府事徐榮輔, 刑曹判書吳載紹, 行護軍李得濟·李仁秀, 大司諫李文會, 校理趙晉和以次隨入之際. 口傳下敎曰, 同副承旨同爲入侍. …… 上曰, 向來徐有恂·徐淇修處分, 卿等之見何如也? 秉模曰, 兩囚處分後, 儒臣疏誠有意見, 而群情雖甚抑鬱, 處分實出於造化, 臣何敢容喙於其間, 而臣則仰認以權而合經矣. 時秀曰, 首相所奏甚好, 而此則上天之造化也. 儒臣疏中, 有司之職, 固異言責, 或有不敢爭執而奉行者, 或有先爭執而後奉行者, 執藝之論, 不可設禁摧折云者, 其言誠是矣. 龍輔曰, 儒臣疏語誠好, 而近來有司之臣, 命令奉行之際, 誠有過當處, 故先朝時欲矯此弊, 屢下飭敎矣. 蓋出納惟允, 自是承宣之責, 命令之過中者, 承宣之一二次覆逆, 不是異事, 而至於有司之臣, 又異於承宣, 而命令之下, 必欲爭執者, 蓋出於顧瞻之意, 而恐有目下之人言也. 此莫非朝廷之上, 無公議之致, 而似嚴於守法, 其實則不嚴矣. 今番兩囚, 旣不可瘦死獄中, 則一時行權, 雖出於不得已, 然而凡事蓋莫如守經矣. 上曰, 兩罪人不足深責, 如是處分, 予則以爲得當矣. 秉模曰, 有司旣非言責之職, 則命令之格而不行, 亦豈成說乎? 先朝時, 以密旨, 命出耽羅罪人宇鎭, 而該牧使李運彬, 不爲奉行, 其時欲置之極律, 而參酌邊竄, 終身見枳. 此等之弊, 不可不救, 而蓋處分, 初無過不及, 則亦豈有如此之事乎? 必若宋太祖所言, 自不爲非, 人無得而諫之爲愈則尤好矣. …….

❖ 순조 6년(1806) 병인년 4월 20일(정유)

▢ 영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선조(先朝) 때 밀지(密旨)로 탐라(耽羅)에 있는 죄인 김우진(金宇鎭)을 내보내라고 명하였는데도 해당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운빈(李運彬)이 이를 봉행하지 않았던 사례를 언급함

○ 병인년 4월 20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우승지 박종정(朴宗正), 가주서 이원익(李遠翊), 사변가주서 유영오(柳榮五), 기주관 김치용(金致龍)·정종현(鄭宗顯), 영의정 이병모(李秉模), 좌의정 이시수(李時秀), 우의정 서용보(徐龍輔), 광주유수 이의필(李義弼), 지중추부사 서영보(徐榮輔), 형조판서 오재소(吳載紹), 행호군 이득제(李得濟)·이인수(李仁秀), 대사간 이문회(李文會), 교리 조진화(趙晉和)가 차례대로 들어올 때

구전하교(口傳下敎) 하기를, “동부승지도 함께 입시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 서유순(徐有恂)·서기수(徐淇修)의 처분에 대해 경들의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이병모가 아뢰기를, “두 죄수에 대한 처분이 있은 뒤 유신(儒臣)이 올린 소장은 참으로 의견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은 비록 심히 답답하였지만 처분은 실로 조화에서 나온 것이니, 신이 어찌 감히 그 사이에 말참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권도(權道)로써 경도(經道)에 합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시수가 아뢰기를, “수상(首相)이 아뢴 바가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상천(上天)의 조화입니다. 유신의 상소 내용 중에, ‘유사(有司)의 직책은 실로 언책(言責)이 있는 신하와는 다르지만 혹 감히 쟁집(爭執)하여 봉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혹 먼저 쟁집하고 나중에 봉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므로 직책에 따라 논하는 것을 법금(法禁)을 설치하여 꺾어 누를 수는 없다.’라고 한 것은 그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라고 하였다. 서용보가 아뢰기를, “유신의 상소 내용은 참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근래 유사신(有司臣)이 명령을 봉행할 때 참으로 지나친 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선조(先朝) 때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여러 차례 칙교(飭敎)를 내렸었습니다. 대저 왕명의 출납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본디 승선(承宣)의 책임입니다만, 명령이 중도에 지나친 경우에는 승선이 한두 차례 복역(覆逆)하는 것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사신에 이르러서는 더욱 승선과는 다른 것인데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쟁집하려고 하는 것은 대개 좌우를 돌아보면서 망설이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현재 사람들의 말이 있을까 두려워해서인 것입니다. 이는 모두 위로 조정에 공의(公議)가 없는 소치인 것으로 법을 준수하는 것을 엄중히 하는 것 같으나 실은 엄중한 것이 아닙니다. 금번 두 죄인을 옥중에서 야위어 죽게 할 수 없었으니, 한때 권도(權道)를 행한 것은 비록 부득이한 데서 나와 그런 것이나 모든 일은 대개 경도를 지키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두 죄인은 심히 책망할 가치도 없다.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해 나는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이병모가 아뢰기를, “유사가 이미 언책의 직책이 아니라면 명령이 이르렀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이 어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선조 때 밀지(密旨)로 탐라(耽羅)에 있는 죄인 김우진(金宇鎭)[145]을 내보내라고 명하였는데도 해당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운빈(李運彬)[146]이 이를 봉행하지 않았

145) 김우진(1754~?): 본관 강릉(江陵). 자 성래(聖來). 1772년(영조 48) 문과 급제. 광주유수, 이조참의, 대사성 역임.

146) 이운빈(1730~?): 본관 여주(驪州). 자 성광(聖光). 1773년(영조 49) 문과 급제. 제주목사(1791.8.도임~1792.3.체임).

습니다. 그때 극률(極律)에 처하고자 했지만 참작하여 변방으로 귀양보내고 종신토록 서용(敍用)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폐단은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대개 처분에 애초에 과불급(過不及)이 없었다면 또한 어찌 이러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반드시 송태조(宋太祖)가 말한 바, '스스로 잘못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간할 것이 없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147] 〈하략〉.

△ 주제어: 김우진, 제주목사, 이운빈, 귀양.

147) 이상은 《순조실록》 순조 6년 4월 20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十一年 丙寅 四月 二十一日 戊戌

○ 洪奭周啓曰, 卽見全羅監司沈象奎, 濟州牧漂人發送狀啓, 則右水使尹芮圭之圭字, 誤書以基字, 奏御文字, 何等審愼, 而有此錯誤, 萬萬未安. 原狀啓, 雖不得不捧入, 而該道臣不可無警, 推考, 何如? 傳曰, 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4월 21일(무술)

▢ 장계에 우수사(右水使)의 이름자를 잘못 기록한 전라감사(全羅監司) 심상규(沈象奎)의 추고(推考)를 청하는 홍석주(洪奭周)의 계

○ 홍석주(洪奭周)[148]가 아뢰기를, "방금 전라감사(全羅監司) 심상규(沈象奎)가 제주목(濟州牧)에 표도(漂到)한 사람들을 보낸다는 장계를 보니, 우수사 윤예규(尹芮圭)의 규(圭)자를 기(基)자로 잘못 썼습니다. 임금에게 아뢰는 문자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착오가 있으니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원장계(原狀啓)를 비록 봉입(捧入)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해당 관찰사를 경책(警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전라감사, 심상규, 추고.

148) 홍석주(1774~1842): 본관 풍산(豊山). 자 성백(成伯). 호 연천(淵泉). 시호 문간(文簡). 1795년(정조 19) 문과 급제. 충청도관찰사, 이조판서, 좌의정 역임. 저서《연천집》.

❖ 嘉慶 十一年 丙寅 四月 二十四日 辛丑

○ 行大司憲吳載紹, 大司諫李文會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4월 24일(신축)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오재소(吳載紹) 등의 계

○ 행대사헌 오재소(吳載紹)[149], 대사간 이문회(李文會)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추자도, 국문.

149) 오재소(1729~1811): 본관 해주(海州). 자 극경(克卿). 호 석천(石泉).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대사간, 강화유수, 판돈녕부사 역임.

❖ 嘉慶 十一年 丙寅 四月 二十五日 壬寅

○ 朴宗正, 以備邊司言啓曰, 濟州涯月鎭嚴莊浦漂到大國人, 不日上來矣. 依近例, 直令入接于弘濟院後, 更爲問情, 所着衣袴, 分付各該司, 依例題給, 令領來譯官, 仍爲領往北京, 而定差員次次領送事, 分付各該道臣. 亦令義州府, 預先馳通于鳳城將處, 以爲渡江後護送之地, 何如? 傳曰, 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4월 25일(임인)

▢ 애월진(涯月鎭) 엄장포(嚴莊浦)에 표도(漂到)한 중국인(中國人)을 근례(近例)에 따라 홍제원(弘濟院)에서 맞아 문정(問情)하고 의복 등을 제급(題給)한 후 북경에 돌려보낼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박종정(朴宗正)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애월진(涯月鎭) 엄장포(嚴莊浦)에 표도(漂到)한 중국인(中國人)들이 며칠 내로 올라올 것입니다. 근례에 의거하여 바로 홍제원(弘濟院)에 입접(入接)하게 하여 다시 문정(問情)하고, 입을 옷은 각 해사(該司)에 분부하여 규례대로 제급(題給)하며 영솔하여 온 역관(譯官)으로 하여금 이어 북경으로 영솔해 가되, 차원(差員)을 정하여 차례대로 영송(領送)하도록 각 해당 관찰사에게 분부하고, 또한 의주부(義州府)로 하여금 미리 봉성장(鳳城將)에게 알려서 강을 건넌 후에 호송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150]

△ 주제어: 엄장포, 중국인, 표도, 호송.

150) 이상은 《비변사등록》 순조 6년 4월 25일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十一年 丙寅 四月 二十六日 癸卯

○ 朴宗正啓曰, 卽伏見濟州牧使朴宗柱馬牌闖失狀啓, 則所當請令該曹稟處, 而以該院考例稟處爲辭. 原狀啓, 旣有漂流事情, 故雖不得不捧入, 而狀辭違例, 不可無警, 該牧使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4월 26일(계묘)

▢ 규례에 어긋난 말로 장계의 내용을 기술한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의 종중추고(從重推考)를 청하는 박종정(朴宗正)의 계

○ 박종정(朴宗正)[151]이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가 마패(馬牌)를 잃어버린 일과 관련하여 올린 장계를 보니, 마땅히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할 것을 요청해야 하는데, 해원(該院)이 규례를 살펴 품처하라고 하였습니다. 원장계(原狀啓)에 표류(漂流)와 관련한 사정(事情)이 있어서 봉입(捧入)하지 않을 수 없지만, 장계의 내용이 규례에 어긋나 경책(警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목사를 종중추고(從重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박종주, 종중추고.

151) 박종정(1755~?): 본관 반남(潘南). 자 사문(士文). 1778년(정조 2) 문과 급제. 강릉부사 역임.

❖ 嘉慶 十一年 丙寅 四月 二十七日 甲辰

○ 朴宗正, 以備邊司言啓曰, 卽見全羅監司沈象奎狀啓, 則以爲, 濟州漂到彼人, 今以京問情官李永逵問情, 參互當初濟州所報, 則諸般事情, 無甚異同. 而彼人物件中紅棗, 數旣夥然, 散賣未易, 故隨其邑勢, 磨鍊分俵, 使之從便發賣. 鐵物數亦無多, 故申飭都會官, 從長區處, 而合折銀四百六十四兩零, 急速換貿, 誠多難便. 代錢一千三百九十四兩零, 依臣營準折公貨中推移備置, 以待處分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本道異於西北, 急速換銀之難, 誠如狀辭, 而見今關西銀價, 比前輕歇. 以此折錢之數, 優可換貿, 先以營儲之銀, 準此數出給於漂人過去時, 原錢則自完營往復箕營, 從便輸送, 以爲趁卽作銀, 以充其代之地, 事甚簡便. 以此分付於兩道道臣, 何如? 傳曰, 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4월 27일(갑진)

▢ 표도(漂到)한 중국인(中國人)들의 물건 중 철물(鐵物) 값을 우선 영(營)에 저축된 은으로 충당하게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박종정(朴宗正)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전라감사 심상규(沈象奎)의 장계를 보니, '제주(濟州)에 표도(漂到)한 중국인(中國人)들에 대해 지금 서울의 문정관 이영규(李永逵)의 문정(問情)과 당초 제주에서 보고한 것을 참조하여 보니 제반 사정이 심히 다른 게 없습니다. 중국인들의 물건 중 홍조(紅棗)의 수가 많아서 산매(散賣)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읍세(邑勢)에 따라서 마련하여 나누어 주어서 편리한 대로 발매(發賣)하게 했습니다. 철물(鐵物)의 수 또한 많지 않아서 도회관(都會官)에게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좋은 방향으로 분별하여 처치하게 했는데, 은으로 환산하면 도합 464냥 남짓이므로 급히 환무(換貿)하기가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전(代錢) 1,394냥 남짓을 신의 영(營)에서 수에 맞게 환산한 공화(公貨) 가운데서 추이(推移)하여 갖추어 두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청컨대,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분부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본도(本道)는 서북쪽과 달라서 급히 은으로 환산하는 어려움이 실로 장계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서(關西)의 은가(銀價)가 전에 비해 헐하니, 이 절전(折錢)[152]한 수로 넉넉하게 환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영에 비축한 은으로 이 수에 준하여 표인(漂人)이 지나갈 때 내어주고, 원전(原錢)은 전라감영에서 평

152) 절전(折錢): 물건을 교환할 때 그 값을 견주어 정한 돈.

양감영과 소통하여 편리한 대로 수송하여 즉시 은으로 바꿔 그 대신을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간편하겠습니다. 양도(兩道) 관찰사에게 이와 같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153)

△ 주제어: 표도, 중국인, 철물, 은.

153) 이상은《비변사등록》순조 6년 4월 27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十一年 丙寅 四月 二十八日 乙巳

○ 金履永, 以備邊司言啓曰, 濟州涯月鎭嚴莊浦漂到大國人, 入接弘濟院後, 使本司郎廳及譯官問情, 則與領來譯官李永逵問情時問答, 別無異同, 故正書入啓, 而今此漂人, 皆願速歸, 留一宿後發送, 何如? 傳曰, 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4월 28일(을사)

▢ 애월진(涯月鎭) 엄장포(嚴莊浦)에 표도(漂到)한 중국인(中國人)들을 홍제원(弘濟院)에 맞아들인 뒤 문정(問情)한 내용을 입계(入啓)한다는 비변사의 계

○ 김이영(金履永)[154]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애월진(涯月鎭) 엄장포(嚴莊浦)에 표도(漂到)한 중국인(中國人)들을 홍제원(弘濟院)에 맞아들인 뒤, 본사 낭청 및 역관에게 문정(問情)하게 하였더니 영솔하여 온 역관 이영규(李永逵)가 문정한 때의 문답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때문에 정서하여 입계(入啓)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표도인들이 모두 속히 귀국하기를 원하니, 하루를 묵게 한 뒤 떠나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155]

△ 주제어: 엄장포, 표도, 중국인, 문정.

---

154) 김이영(1755~1845): 본관 안동(安東). 자 명여(命汝). 1795년(정조 19) 문과 급제. 예조판서, 이조판서, 좌참찬 역임.

155) 이상은 《비변사등록》 순조 6년 4월 28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十一年 丙寅 四月 二十九日 丙午

○ 金履永, 以備邊司言啓曰, 濟州漂人入送咨文, 纔已啓下, 而追後問情時居住地方, 與初問情差異, 不可不釐正. 故令該院, 改付標以入, 待啓下正書安寶後, 別定禁軍騎撥, 傳致於齎咨官所到處, 何如? 傳曰, 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4월 29일(병오)

▢ 제주(濟州) 표도인(漂到人)에 대한 추후 문정 때의 거주 지방과 처음 문정한 것의 차이를 해원(該院)으로 하여금 고쳐 재자관(齎咨官)이 도착한 곳에 보낼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김이영(金履永)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표도인(漂到人)을 들여보내는 자문(咨文)을 이미 계하(啓下)하였는데, 추후 문정 때의 거주 지방과 처음 문정한 것의 차이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해원(該院)으로 하여금 고쳐 부표(付標)하여 들이고, 계하를 기다려 정서하고 옥새를 찍은 뒤, 금군을 별도로 정하여 기발(騎撥)로 재자관(齎咨官)이 도착한 곳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156]

△ 주제어: 표도인, 자문.

156) 이상은 《비변사등록》 순조 6년 4월 29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十一年 丙寅 四月 三十日 丁未

○ 丙寅四月三十日辰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行左承旨金履永, 假注書魚在濂, 事變假注書柳榮五, 記注官金致龍, 記事官鄭觀綏, 領議政李秉模, 右議政徐龍輔, 兼禮曹判書李晩秀, 行戶曹判書金文淳, 行大司憲吳載紹, 刑曹判書李始源, 行護軍李得濟·李仁秀, 開城留守兪漢謨, 修撰金啓溫以次進伏訖. …… 載紹等曰,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上曰, 不允. …… 載紹等曰,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設鞫嚴問, 快正王法. 【措辭見上】 上曰, 不允. …… 載紹曰,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上曰, 不允. …….

❖ 순조 6년(1806) 병인년 4월 30일(정미)

▢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 및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오재소(吳載紹) 등의 계

○ 병인년 4월 30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행좌승지 김이영(金履永), 가주서 어재렴(魚在濂), 사변가주서 유영오(柳榮五), 기주관 김치용(金致龍), 기사관 정관수(鄭觀綏), 영의정 이병모(李秉模), 우의정 서용보(徐龍輔), 겸예조판서 이만수(李晩秀), 행호조판서 김문순(金文淳), 행대사헌 오재소(吳載紹), 형조판서 이시원(李始源), 행호군 이득제(李得濟)·이인수(李仁秀), 개성유수 유한모(兪漢謨), 수찬 김계온(金啓溫)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오재소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오재소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에 안치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오재소가 아뢰기를, "청컨대, 흑산도 도배죄인 정약전,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

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제주목, 이치훈,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五月 十三日 庚申

○ 行大司憲李集斗, 大司諫宋翼孝, 執義鄭魯榮, 司諫李重蓮, 掌令權漢緯, 持平沈厚鎭, 正言權丕應啓曰, …… 噫嘻, 痛矣. 徐瀅修之罪, 可勝誅哉? 本以梟獍之種, 濟以蛇虺之性, 鄙悖陰鷙, 凶譎憸邪, 百惡竝萃, 萬妖具備, 而最其罔赦之罪, 父事能賊, 至行見舅之禮, 讐絶母家, 全廢謁廟之擧, 傳神於能賊, 護法於能賊, 一世共憤, 萬口難防, 而及能賊伏法之後, 天網太恢, 王章不加, 渠之尙今戴頭假息於覆載之間者, 已是天地好生之德. 使渠苟有一分秉彝之性, 則所當屛跡息影改心革面之不暇, 而乃反揚揚自處以無故之人圖占科第, 翺翔名塗, 自知滓穢之滿身, 不爲淸朝之所容, 甘與乃祖而背馳, 仇視其叔之樹立, 東西閃忽, 左右迷藏, 自許文藝, 主張世道, 淸官美職, 惟意兜攬, 內而銓柄, 外而藩臬, 朝驟暮躐, 惟懷患得之心, 晝思宵營, 罔非樂禍之計, 而戕人害物, 憑公濟私, 必欲充渠谿壑, 禍人家國, 擧世喧傳, 行路側目, 論其前後情跡, 前後罪惡, 則渠豈彈冠束帶, 廁之於橫目之列, 而敢生叵測之心, 益肆跳踉之習. 締結於達淳, 符同於達淳, 畢竟達淳之初筵所奏, 都是瀅修之所爛熳綢繆, 則臺疏所謂達淳之爲達淳, 一則瀅修, 二則瀅修云者, 眞實際語也, 而及夫達淳迸出之辰, 力致於畿營咫尺之地, 躬謁於昏夜涔寂之時, 促膝而坐, 握手而語, 稱之以事業, 許之以死生, 盃盤慇懃, 形跡狼藉, 有耳皆聞, 有口皆傳. 噫, 以達淳大不道之凶言, 稱之以事業, 以達淳大不敬之悖擧, 許之以死生者, 逆節昭著, 凶肚相連, 表裏和應, 首尾糾結, 眞所謂一而二, 二而一, 至於筵本圖改之說出, 而渠之斷案眞贓, 益難一刻容置於天壤之間矣. 夫國家之設置記注, 事體至重, 法意至嚴, 一登史筆之後, 雖以人主之尊, 加一字不得, 減一字不得, 從古人臣之干犯於史事者, 厥罪何居, 而況伊日賓對之筵本, 卽我聖上闡明大義, 尊守先志之一大關棙, 則其爲關係於莫重莫嚴, 果何如也, 而渠敢急於掉脫, 暗地指使悖姪有恂, 作俑於前, 妖弟淇修, 紹介於中, 必欲改易其文字, 變幻其事實者, 古今天下, 寧有如許至凶至懵至妖至奸者乎? 謂人可誣, 人不可誣, 謂天可欺, 天不可欺, 島置之典, 雖已特施, 其設計造謀, 同逆共惡之窮凶情節, 不可不盤覈得情.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

❖ 순조 6년(1806) 병인년 5월 13일(경신)

▢ 추자도(楸子島)에 안치(安置)한 죄인 서형수(徐瀅修)에 대해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국문(鞫問)할 것을 청하는 행대사헌 이집두(李集斗) 등의 계

○ 행대사헌 이집두(李集斗), 대사간 송익효(宋翼孝)[157], 집의 정노영(鄭魯榮), 사간 이중연(李重蓮), 장령 권한위(權漢緯), 지평 심후진(沈厚鎭), 정언 권비응(權丕應)[158]이 아뢰기를, "〈상략〉 아, 통탄스럽습니다. 서형수(徐瀅修)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본래 효경(梟獍)의 종자로서, 살무사의 성격을 더하여, 성질이 막돼먹어 음험하고, 흉악하고 간사하여 온갖 악한 짓과 요망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역적 홍계능(洪啟能)을 아비처럼 섬겨 장인을 만나는 예(禮)를 행하기에 이르렀고, 어머니의 집을 원수처럼 여겨 끊고 사당에 배알(拜謁)하는 일을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역적 홍계능에게 정신을 전수하고 역적 홍계능을 호법(護法)함에 온 세상의 공분(共憤)을 많은 사람의 입으로도 막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역적 홍계능이 형벌을 받아 죽은 뒤에 이르러서는 천망(天網)[159]이 너무 넓어 왕법(王法)이 가해지지 않았으니, 그가 아직까지도 천지 사이에서 머리를 들고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천지가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분입니다. 설령 그가 조금이라도 병이(秉彝)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자취를 감추고 숨어살면서 마음을 고치고 얼굴을 바꾸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리어 의기양양하게 아무런 일이 없는 사람으로 자처하여 과제(科第)를 도모하여 차지하고는 명도(名塗)[160]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스스로 더러운 찌꺼기가 몸에 가득하여 청명한 조정에 용납되지 못할 줄 알고서 기꺼이 자기 할아버지와 등을 돌리고 숙부의 수립(樹立)을 원수처럼 여겼으며, 동서로 번쩍하고 좌우로 숨바꼭질 하면서 스스로 문예(文藝)에 대해 자부하면서 세도(世道)를 주장하였고 청관(淸官)과 미직(美職)을 마음대로 독점하였습니다. 내직으로는 이조참판과 외직으로는 경기감사로 하루아침에 벼슬이 갑자기 높아졌지만, 오직 얻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마음만을 품고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이 화(禍)를 좋아하는 계책이 아님이 없었으니, 사람을 해치고 일을 해롭게 하면서 공적인 것을 빙자하여 사적인 이득을 꾀함에 반드시 끝없는 욕망을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사람과 집과 국가에 끼친 해를 온세상이 떠들썩하게 전하고 행로에서 곁눈질하였으니, 그 전후의 행적과 전후의 죄악을 논하자면, 그가 어찌 관(冠)의 먼지를 털고 띠를 단정히 매어 사람의 반열에 섞여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마음을

157) 송익효(1739~?): 본관 여산(礪山). 자 사순(士純).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제물포만호, 교리, 대사간 역임.

158) 권비응(1754~?): 본관 안동(安東). 자 계직(季直). 1806년(순조 6) 문과 급제. 부제학, 대사헌, 황해도관찰사 역임.

159) 천망(天網): 악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하늘에 쳐 놓았다는 그물. 《노자(老子)》에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엉성하지만 놓치지 않는다[天網恢恢 疏而不失]."라고 하였음.

160) 명도(名塗): 문신들이 관직에 나아가 명예와 이름을 얻는 것.

생하고, 제멋대로 하는 습관을 더욱 방자히 한 것입니까? 김달순(達淳)과 체결(締結)하고 김달순에 부화뇌동 하였으니, 끝내 김달순이 처음 연석(筵席)에서 아뢴 것은 모두가 서형수가 난만(爛熳)하게 계획한 것인즉, 대소(臺疏)에서 이른바 김달순이 김달순이 됨은 첫째가 서형수이고, 둘째도 서형수라고 한 것이 참으로 실제 이야기입니다. 김달순이 병출(迸出)한 날에 이르러서는 경기 감영 지척인 곳에 극력 초치(招致)하여 캄캄한 밤 고요할 때 직접 만나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손을 잡고 이야기하며 사업(事業)이라고 일컬었고, 생사(生死)로써 허여(許與)하면서 은근히 술잔을 나눈 낭자한 형적은 귀가 있는 사람은 모두 들었고 입이 있는 사람은 모두 전하고 있습니다. 아, 김달순의 크게 부도(不道)한 흉악한 말로써 사업이라고 칭하고, 김달순의 크게 불경(不敬)한 패거(悖擧)로써 생사를 허여한 것은 반역의 사실이 밝게 드러난 것입니다. 흉악한 속마음이 서로 이어지고, 겉과 속이 화응(和應)하며, 머리와 꼬리가 얽혀있으니, 참으로 이른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것입니다. 연본(筵本)[161]을 고치려고 도모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데 이르러서는 이것이 그의 단안(斷案)이 되는 진장(眞贓)이니, 더욱 일각이라도 천지 사이에 두기 어려운 것입니다. 나라에 기주(記注)를 둔 것은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하고 법의(法意)가 지극히 엄하여, 한 번 사필(史筆)에 오른 뒤에는 비록 임금의 존귀함으로도 한 글자도 덧붙일 수 없고, 한 글자도 줄이지 못하였으니, 예로부터 신하로서 사사(史事)를 범한 자는 그 죄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날 빈대(賓對)[162]에 관한 연본은 곧 임금께서 대의(大義)를 천명하고 선지(先志)를 준행한 데 대한 하나의 큰 관려(關棙)[163]인 것이니, 더없이 엄중한 데 관계된 것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감히 벗어나려는 마음이 급급하여 몰래 패려스러운 조카인 서유순(徐有恂)을 앞에서 부당한 짓을 하게 시키고, 요망한 동생 서기수(徐淇修)를 중간에 개입시켜 기필코 그 문자를 고침으로써 사실을 변환(變幻)시키려 하였으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이 지극히 흉악하고 지극히 참혹하고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간사한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람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섬에 안치(安置)하라는 형전(刑典)을 비록 이미 특별히 시행했지만, 그가 음모를 세워 함께 악역(惡逆)을 저지른 더없이 흉악한 정절(情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실정을 알

161) 연본(筵本): 임금이 신하들과 공식적으로 나눈 대화나 발언을 기록한 문서.
162) 빈대(賓對): 매월 여섯 차례 정부 당상(政府堂上)·대간(臺諫)·옥당(玉堂)들이 입시하여 중요한 정무를 상주하는 일. 차대(次對).
163) 관려(關棙): 문의 빗장. 곧 가장 중요한 점.

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서형수를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국문하여 통쾌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서형수, 추자도, 안치, 국청.

❖ 嘉慶 十一年 丙寅 五月 十三日 庚申

○ 行大司憲李集斗, 執義鄭魯榮, 掌令權漢緯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私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

❖ 순조 6년(1806) 병인년 5월 13일(경신)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이집두(李集斗) 등의 계

○ 행대사헌 이집두(李集斗), 집의 정노영(鄭魯榮), 장령 권한위(權漢緯)가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五月 十四日 辛酉

○ 行大司憲李集斗, 大司諫宋翼孝, 執義鄭魯榮, 司諫李重蓮, 掌令權漢緯, 持平沈厚鎭, 正言權丕應·李沆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

❖ 순조 6년(1806) 병인년 5월 14일(신유)

▢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이집두(李集斗) 등의 계

○ 행대사헌 이집두(李集斗), 대사간 송익효(宋翼孝), 집의 정노영(鄭魯榮), 사간 이중연(李重蓮), 장령 권한위(權漢緯), 지평 심후진(沈厚鎭), 정언 권비응(權丕應)·이항(李沆)[164]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에 안치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국문하여 통쾌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서형수, 추자도, 국청, 국문.

164) 이항(1774~?): 본관 덕수(德水). 자 여정(汝精). 1806년(순조 6) 문과 급제.

❖ 嘉慶 十一年 丙寅 五月 十四日 辛酉

○ 行大司憲李集斗, 執義 鄭魯榮, 掌令權漢緯, 持平沈厚鎭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

❖ 순조 6년(1806) 병인년 5월 14일(신유)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이집두(李集斗)의 계

○ 행대사헌 이집두(李集斗), 집의 정노영(鄭魯榮), 장령 권한위(權漢緯), 지평 심후진(沈厚鎭)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五月 十九日 丙寅

○ 行大司憲李集斗, 大司諫宋翼孝, 執義鄭魯榮, 司諫李重蓮, 掌令權漢緯, 持平沈厚鎭, 正言權丕應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夫正王法. …… 答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5월 19일(병인)

▢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이집두(李集斗) 등의 계

○ 행대사헌 이집두(李集斗), 대사간 송익효(宋翼孝), 집의 정노영(鄭魯榮), 사간 이중연(李重蓮), 장령 권한위(權漢緯), 지평 심후진(沈厚鎭), 정언 권비응(權丕應)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에 안치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국문하여 통쾌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홍재민, 서형수, 추자도, 국청,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五月 十九日 丙寅

○ 行大司憲李集斗, 執義鄭魯榮, 掌令權漢緯, 持平沈厚鎭·李英埴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5월 19일(병인)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헌 이집두(李集斗) 등의 계

○ 행대사헌 이집두(李集斗), 집의 정노영(鄭魯榮), 장령 권한위(權漢緯), 지평 심후진(沈厚鎭)·이영식(李英埴)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五月 二十日 丁卯

○ 嚴耆, 以義禁府言啓曰, 漢祿事, 依尙魯例擧行事, 承傳啓下, 故其應坐諸人, 令漢城府考出帳籍, 分付五部, 使之査報漢城府及五部, 査牒今已齊到矣. 漢祿庶子弼柱全羅道濟州牧旌義縣, 寅柱靈巖郡楸子島, 侄華柱興陽縣鉢浦安置, 而依例發遣府羅將, 押送于各其配所, …… 何如? 傳曰, 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5월 20일(정묘)

▢ 김한록(金漢祿)의 연좌 죄인 서자 김필주(金弼柱)와 김인주(金寅柱)를 각각 배소인 정의현(旌義縣)과 추자도(楸子島)로 압송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엄기(嚴耆)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김한록(金漢祿)[165]의 일은 김상로(金尙魯)의 사례에 의거하여 거행하도록 승전(承傳)하여 계하(啓下)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로 인해 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한성부로 하여금 장적(帳籍)을 조사하고, 오부(五部)에 분부하게 하여 한성부와 오부에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니, 사첩(査牒)이 지금 모두 도착했습니다. 김한록의 서자 김필주(金弼柱)는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에, 김인주(金寅柱)는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조카 김화주는 흥양현 발포에 안치(安置)하되, 규례대로 본부 나장을 보내어 각기 배소로 압송하게 하는 것이 〈중략〉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한록, 김필주, 정의현, 김인주, 추자도, 안치.

165) 김한록(1722~1790): 본관 경주(慶州). 자 여수(汝綏). 호 한간(寒澗). 세자익위사세마 역임.

❖ 嘉慶 十一年 丙寅 五月 二十五日 壬申

○ 丙寅五月二十五日辰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同副承旨洪奭周, 假注書李容愚, 事變假注書許臻, 記注官鄭宗顯·崔鳳和, 領議政李秉模, 左議政李時秀, 右議政徐龍輔, 兼禮曹判書李晩秀, 廣州留守李義弼, 知中樞府事徐榮輔, 吏曹判書朴宗來, 刑曹判書李始源, 行護軍徐美修·李仁秀, 禮曹參判朴宗慶, 行大司諫金銑, 執義南惠寬, 司諫安廷善, 持平李志淵, 以次進伏訖. …… 銑等曰,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上曰, 不允. 【出擧條】 …… 銑等曰,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夫正王法. 上曰, 不允. 【出擧條】 …….

❖ 순조 6년(1806) 병인년 5월 25일(임신)

▢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행대사간 김선(金銑) 등의 계

○ 병인년 5월 25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동부승지 홍석주(洪奭周), 가주서 이용우(李容愚), 사변가주서 허진(許臻), 기주관 정종현(鄭宗顯)·최봉화(崔鳳和), 영의정 이병모(李秉模), 좌의정 이시수(李時秀), 우의정 서용보(徐龍輔), 겸예조판서 이만수(李晩秀), 광주유수 이의필(李義弼), 지중추부사 서영보(徐榮輔), 이조판서 박종래(朴宗來), 형조판서 이시원(李始源), 행호군 서미수(徐美修)·이인수(李仁秀), 예조참판 박종경(朴宗慶), 행대사간 김선(金銑), 집의 남혜관(南惠寬), 사간 안정선(安廷善), 지평 이지연(李志淵)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김선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낸 다음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중략〉 김선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에 안치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국문하여 통쾌하게 왕법(王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홍재민, 서형수, 추자도, 국청, 국문.

❖ 嘉慶 十一年 丙寅 六月 一日 丁丑

○ 洪奭周,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旌義前縣監朴宗林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而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6년(1806) 병인년 6월 1일(정축)

▢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박종림(朴宗林)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인다는 사복시의 계

○ 홍석주(洪奭周)가 사복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박종림(朴宗林)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방금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면서 규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박종림, 체임진상마, 별단.

❖ 嘉慶 十一年 丙寅 六月 三日 己卯

○ 嚴耆,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使朴宗柱狀啓內, 大靜縣監李宅觀, 爲先罷黜, 其罪狀, 令攸司稟處事, 啓下矣. 李宅觀, 今方待命, 拿囚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6년(1806) 병인년 6월 3일(기묘)

▢ 대정현감(大靜縣監) 이택관(李宅觀)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겠다는 의금부의 계

○ 엄기(嚴耆)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의 장계 내에 대정현감(大靜縣監) 이택관(李宅觀)을 우선 파출(罷黜)하고, 그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계하(啓下) 하였습니다. 이택관이 지금 대명(待命)하고 있으니, 잡아다 감옥에 가둘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이택관, 파출, 감옥.

❖ 嘉慶 十一年 丙寅 六月 四日 庚辰

○ 持平南達孫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不允. 下諭事依啓.

❖ 순조 6년(1806) 병인년 6월 4일(경진)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지평 남달손(南達孫)의 계

○ 지평 남달손(南達孫)[166]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166) 남달손(1765~?): 본관 의령(宜寧). 1786년(정조 10) 문과 급제.

❖ 嘉慶 十一年 丙寅 六月 五日 辛巳

○ 義禁府啓目粘連, …… 又啓目, 大靜前縣監李宅觀原情云云. 問目內辭緣, 泛稱遲晩, 刑推得情, 何如? 判付, 除刑推議處爲良如敎.

❖ 순조 6년(1806) 병인년 6월 5일(신사)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이택관(李宅觀)에 대해 형추(刑推)하지 말고 의논하여 처리하라는 전교

○ 의금부의 계목점련에, 〈중략〉 또 계목에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이택관(李宅觀)의 원정(原情) 운운에 대하여 문목(問目) 안의 내용을 범연(泛然)히 지만(遲晩)하였으니, 형추(刑推)하여 실정을 알아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형추는 그만두고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이택관, 형추, 처리.

❖ 嘉慶 十一年 丙寅 六月 九日 乙酉

○ 有政. 吏批, 判書朴宗來進, 參判李肇源病, 參議吳淵常病, 左副承旨柳畊進. …… 元相堯爲大靜縣監. …….

❖ 순조 6년(1806) 병인년 6월 9일(을유)

▢ 원상요(元相堯)를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박종래(朴宗來)가 나왔고, 참판 이조원(李肇源)은 병이 들었고, 참의 오연상(吳淵常)은 병이 들었고, 좌부승지 유경(柳畊)이 나왔다. 〈중략〉 원상요(元相堯)[167]를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원상요, 대정현감.

167) 원상요(1746~?): 본관 원주(原州). 1804년(순조 4) 문과 급제. 대정현감(1806.7.도임~1809.1. 체임) 역임.

❖ 嘉慶 十一年 丙寅 六月 十日 丙戌

○ 執義金孝眞, 持平權𠅘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 答府曰, 不允. …….

❖ 순조 6년(1806) 병인년 6월 10일(병술)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김효진(金孝眞) 등의 계

○ 집의 김효진(金孝眞), 지평 권홍(權𠅘)[168]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168) 권홍(1762~?): 본관 안동(安東). 1785년(정조 9) 문과 급제.

❖ 嘉慶 十一年 丙寅 六月 十五日 辛卯

○ 禁府啓目, …… 又啓目粘連, 向前李宅觀亦, 身爲耽羅守宰, 因公越海, 投狀徑還, 情雖緣於病故, 罪難逭於擅行, 以此照律, 何如? 判付啓, 依允. …….

❖ 순조 6년(1806) 병인년 6월 15일(신묘)

▢ 서장(書狀)을 올리고 멋대로 돌아간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이택관(李宅觀)에 대해 제멋대로 결단한 죄로 조율(照律)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의 계목에, 〈중략〉 또 계목점련(啓目粘連)에, "지난번 이택관(李宅觀)은 탐라(耽羅)의 수령이 되어 공무로 인하여 바다를 건너와 서장(書狀)을 올리고 곧바로 돌아갔습니다. 사정이 비록 병고(病故)에 연유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멋대로 결단했다는 죄를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것으로 조율(照律)[169]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감, 이택관, 병고, 조율.

169) 조율(照律): 범한 죄를 율문(律文)에 비추어 처벌에 적용할 구체적 조항을 찾는 것.

❖ 嘉慶 十一年 丙寅 六月 十五日 辛卯

○ 判義禁韓晩裕疏曰, 伏以日前時囚趙文彦口招判付, 有除刑推從重議處之命, 而有不敢循例擧行者. 今此文彦之貪饕不法, 而濟之以虐, 道啓論列, 至於十餘條之多, 莫非爲國斂怨, 在法罔赦, 挽近贓吏之所未有, 而南來傳說, 亦不勝其喧藉久矣. 世無懲貪之典則已, 苟有之, 則不施於文彦, 而將安所施哉? 口招事體, 與尋常囚供自別, 而文彦於餉穀一款, 只以襲謬自服, 其他許多所犯, 則全事漫漶, 殆若無罪者然. 以道啓歸重, 則渠供誠極無嚴, 囚供爲信, 則道啓反爲爽實, 今當議讞之地, 從囚供可乎, 從道啓可乎? 聖教若以襲謬二字, 爲一分參恕之端, 然外方所謂謬規者, 蓋雖有違於公法, 而有所從便闊狹之謂也. 如文彦之剝民肥己, 憑公逞私者, 亦以襲謬, 得蒙例勘, 則世之貪官汚吏, 皆將鼓掌而起, 恣其手段, 而以襲謬爲畢竟掉脫之資, 哀彼殘民之被其害者, 庸有極哉? 竊伏念我朝立國規模, 本自仁厚, 而祖宗朝以來, 治贓吏之法, 極其嚴截. 昔我英廟朝, 治平山府使安相五之贓罪也, 引肅廟下敎曰, 烹阿之鼎, 獨設於齊, 而不設於我國乎? 其處相五節次, 始囚南間, 中加刑訊, 終至臨門結案, 而伊後三覆時, 特貸本律, 大靜縣減死定配, 終身禁錮, 其載於王府文案者, 可按覩也. 文彦贓汚, 其視相五之罪, 不啻倍蓰, 縱不施以齊威之烹鼎, 何可不以英廟之所已施於相五者, 施之於文彦乎? 聖敎中念其家之意, 臣豈不欽仰, 而渠之不少體先朝特爲別薦之至意, 略無畏憚, 負國至此, 尤豈不萬萬痛惋哉? 臣雖欲依聖敎議處, 而王府議讞, 法意至爲嚴重, 今乃不問其罪之虛實, 其情之眞僞, 姑置有罪無罪之間, 而直爲議律, 則其爲刑政乖當, 果何如哉? 臣旣有所懷, 不敢不陳. 伏乞亟命移囚南間, 刑訊取服, 而以其罪罪之焉. 臣無任云云. 答曰, 省疏具悉矣.

❖ 순조 6년(1806) 병인년 6월 15일(신묘)

▢ 영조 때 장죄(贓罪)를 저지른 평산부사 안상오(安相五)를 대정현(大靜縣)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定配)한 사례를 아룀

○ 판의금 한만유(韓晩裕)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일전에 현재 옥에 갇혀있는 죄인 조문언(趙文彦)[170]의 구초(口招)에 대한 판부(判付)에 형추(刑推)를 폐기하고 중벌에 따라 의처(議處)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감히 전례에 따라 거행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문언이 재물을 탐함에 불법을 저지르며 가혹하

170) 조문언(1750~?): 본관 풍양(豊壤). 1784년(정조 8) 무과 급제.

게 재물을 이루었다고 도계(道啓)[171]에서 논열하였습니다. 10여 조항에 이르는 것은 모두 나라에 원망을 쌓는 일로, 법에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이 없습니다. 근래 몇 해전부터 최근까지 장리(贓吏)가 없던 바이기에 남쪽에서 온 소문은 또한 그 떠들썩함을 견딜 수가 없이 오래되었습니다. 세상에 탐학을 징벌하는 법이 없다면 그만이거니와 만약에 있다면 조문언에게 시행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디에다 시행할 것입니까? 구초의 사체(事體)가 보통 죄수의 공초(供招)와 스스로 구별되는데, 조문언은 향곡(餉穀) 한 조항에 대해서만 습류(襲謬)[172]로써 자복하고, 그 나머지 허다하게 범한 바는 전체 일이 흐려져서 거의 죄가 없는 체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계를 중시한다면 그의 공초는 참으로 지극히 무엄하고, 죄수의 공초를 믿는다면 도계는 도리어 사실과 다르니, 지금 죄를 심의하는 자리에서 죄수의 공초를 따르는 것이 옳겠습니까, 도계를 따르는 것이 옳겠습니까? 성상의 하교에서 습류 두 글자로 일분(一分) 참작하여 용서할 단서로 삼았습니다만, 지방에서 이른바 잘못된 규례라고 하는 것은 비록 공법(公法)에 위배됨이 있다 하더라도 편의에 따라서 조정할 바가 있는 것을 이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문언이 백성을 괴롭게 하여 자기를 살찌우고, 공(公)을 빙자하여 사사로움을 채운 것을 또한 습류로써 예감(例勘)[173]을 입는다면, 세상의 탐관오리 모두가 장차 손뼉을 치면서 일어나서 그들의 수단을 방자하게 하고서도 습류를 필경 곤경에서 벗어나는 바탕으로 삼을 것이니, 불쌍한 저 잔민(殘民)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적이 엎드려 생각건대, 우리 조정이 나라를 세울 때의 규모(規模)는 본래 절로 인후(仁厚)하였지만, 조종조(祖宗朝) 이래로 장리(贓吏)를 다스리는 법은 매우 엄절(嚴截)하였습니다. 옛날 우리 영묘조(英廟朝)에 평산부사 안상오(安相五)[174]의 장죄(贓罪)를 다스릴 때 숙묘(肅廟)의 하교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팽아(烹阿)의 솥[175]을 유독 제(齊)나라에 설치하고 우리 나라에는 설치하지 못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안상오를 처분한 절차는 처음에 남간(南間)[176]에 가두었다가 중간에 형신(刑訊)을 가하였고, 마지막에 임

171) 도계(道啓): 관찰사가 국왕에게 아뢰어 바치던 글.

172) 습류(襲謬): 습관적으로 잘못을 답습함.

173) 예감(例勘): 의례적으로 감처(勘處)하는 것을 말함.

174) 안상오(1708~1779): 본관 죽산(竹山). 자 흥보(興甫). 1733년(영조 9) 무과 급제. 평산부사(1757.8.도임~1759.2.파직) 역임.

175) 팽아(烹阿)의 솥: 탐관을 처벌하는 극형을 의미함. 전국시대 제(齊)나라 위왕(威王)이 아(阿) 지방의 대부가 잘 다스린다는 소문이 자자하여 알아보니 실제 정사는 형편없는데 왕의 측근에게 뇌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난 것을 알고 그를 삶아 죽였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임.

176) 남간(南間): 의금부의 죄수를 가두어 두는 감옥 중 하나임. 의금부의 감옥 중 남간(南間)과 동간(東間)은 주로 사형수를 비롯한 중죄수와 유생(儒生) 등을 수감하였고, 서간은 경죄수를 수감하

문(臨門)하여 결안(結案)하기에 이르렀는데, 이후 삼복(三覆)[177] 때에 특별히 본율(本律)[178]을 빌려서 대정현(大靜縣)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定配)하고, 종신토록 금고(禁錮)하였다는 기록이 의금부의 문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문언의 장오(贓汚)는 그것을 안상오의 죄와 비교해 보면 몇 배가 될 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제나라 위왕(威王)의 팽아의 솥을 시행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찌 영묘에서 안상오에게 이미 시행했던 것을 조문언에게 시행하지 못하겠습니까? 성상의 하교 중에 그 집안을 염려하는 뜻을 신이 어찌 흠앙(欽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선조(先朝)에서 특별히 별천(別薦)한 지극한 뜻을 조금도 체량(體諒)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리지 않고 나라를 저버린 것이 이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어찌 매우 통완(痛惋)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비록 성상의 하교대로 의논하여 처리하고자 해도, 의금부의 의언(議讞)은 법의(法意)가 지극히 엄중한 것입니다. 지금 그 죄의 허실(虛實)과 그 사정의 진위(眞僞)를 묻지 않고, 일단 죄가 있고 없고의 사이에 두고서 곧바로 법률을 의론한다면 그 형정(刑政)이 정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신은 생각한 바를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명을 내려 남간에 옮겨 가두고 형신하여 자복을 받아 그 죄과에 맞게 죄를 주도록 하십시오. 신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라고 하였다.[179]

△ 주제어: 평산부사, 안상오, 장죄, 대정현, 정배.

였음.

177) 삼복(三覆):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죄인을 신중히 처결하기 위하여 세 차례나 죄상을 조사하던 일.

178) 본율(本律): 여기서는 대명률(大明律)을 가리킴.

179) 이상은 《순조실록》 순조 6년 6월 1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十一年 丙寅 六月 二十五日 辛丑

○ 丙寅六月二十五日辰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同副承旨金履喬, 記事官趙鐘永, 事變假注書閔英世, 記注官鄭宗顯, 記事官鄭觀綏, 領議政李秉模, 左議政李時秀, 右議政徐龍輔, 知中樞府事徐榮輔, 行護軍李仁秀, 禮曹參判朴宗慶, 行大司憲金羲淳, 行大司諫金銑, 執義金孝眞, 司諫尹久東, 持平權㠓, 校理徐鼎輔·趙良鎭, 副校理任俊常·權丕應, 正言金益鉉·李鎭嵩, 修撰尹鼎烈·金愚淳, 副修撰朴大圭, 以次進伏訖. …… 銑·孝眞等曰, 噫嘻痛矣, 徐瀅修之罪, 可勝誅哉? 本以梟獍之種, 濟以蛇虺之性, 鄙悖陰鷙, 凶譎憸邪, 百惡竝萃, 萬妖具備, 而最其罔赦之罪, 父事能賊, 至行見舅之禮, 讎絶母家, 全廢謁廟之擧, 傳神於能賊, 護法於能賊, 一世共憤, 萬口難防, 而及能賊伏法之後, 天網太恢, 王章不加. 渠之尙今戴頭假息於覆載之間者, 已是天地好生之德, 使渠苟有一分秉彝之性, 則所當屛跡息影, 改心革面之不暇, 而乃反揚揚自處以無故之人, 圖占科第, 翺翔名塗. 自知滓穢之滿身, 不爲淸朝之所容, 甘與乃祖而背馳, 仇視其叔之樹立, 東西閃忽, 左右迷藏. 自許文藝, 主張世道, 淸官美職, 惟意兜攬, 內而銓柄, 外而藩臬, 朝驟暮躐, 惟懷患得之心, 晝思宵營, 罔非樂禍之計, 而戕人害物, 憑公濟私, 必欲充渠谿壑, 禍人家國, 擧世喧傳, 行路側目. 論其前後情跡, 前後罪惡, 則渠豈可彈冠束帶, 廁之於橫目之列, 而敢生叵測之心, 益肆跳踉之習, 締結於達淳, 符同於達淳. 畢竟達淳之初筵所奏, 都是瀅修之所爛熳綢繆, 則臺疏所謂達淳之爲達淳, 一則瀅修, 二則瀅修云者, 眞實際語也, 而及夫達淳迸出之辰, 力致於畿營咫尺之地, 躬謁於昏夜涔寂之時, 促膝而坐, 握手而語, 稱之以事業, 許之以死生, 盃盤慇懃, 形跡狼藉, 有耳皆聞, 有口皆傳. 噫, 以達淳大不道之凶言, 稱之以事業, 以達淳大不敬之悖擧, 許之以死生者, 逆節昭著, 凶肚相連, 表裏和應, 首尾糾結, 眞所謂一而二, 二而一, 至於筵本圖改之說出, 而渠之斷案眞贓, 益難一刻容置於天壤之間. 夫國家之設置記注, 事體至重, 法意至嚴, 一登史筆之後, 雖以人主之尊, 加一字不得, 減一字不得. 從古人臣之干犯於史事者, 厥罪何居, 而況伊日賓對之筵本, 卽我聖上闡明大義, 遵守先志之一大關捩, 則其爲關係於莫重莫嚴, 果何如也, 而渠敢急於掉脫, 暗地指使, 悖姪有恂, 作俑於前, 妖弟淇修, 紹介於中, 必欲改易其文字, 變幻其事實者, 古今天下, 寧有如許至凶至憯, 至妖至奸者乎? 謂人可誣, 人不可誣, 謂天可欺, 天不可欺, 島置之典, 雖已特施, 其設計造謀, 同逆共惡之窮凶情節, 不可不盤覈得情.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上曰, 不允. 【出擧條】 …… 孝眞等曰,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上曰, 不允. …….

❖ 순조 6년(1806) 병인년 6월 25일(신축)

▢ 추자도(楸子島)에 안치(安置)한 죄인 서형수(徐瀅修)에 대해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국문(鞫問)할 것을 청하는 행대사간 김선(金銑) 등의 계와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김효진(金孝眞) 등의 계

○ 병인년 6월 25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동부승지 김이교(金履喬), 기사관 조종영(趙鐘永), 사변가주서 민영세(閔英世), 기주관 정종현(鄭宗顯), 기사관 정관수(鄭觀綏), 영의정 이병모(李秉模), 좌의정 이시수(李時秀), 우의정 서용보(徐龍輔), 지중추부사 서영보(徐榮輔), 행호군 이인수(李仁秀), 예조참판 박종경(朴宗慶), 행대사헌 김희순(金羲淳), 행대사간 김선(金銑), 집의 김효진(金孝眞), 사간 윤구동(尹久東), 지평 권홍(權弘), 교리 서정보(徐鼎輔)·조양진(趙良鎭), 부교리 임준상(任俊常)·권비응(權丕應), 정언 김익현(金益鉉)·이진숭(李鎭嵩), 수찬 윤정열(尹鼎烈)·김우순(金愚淳), 부수찬 박대규(朴大圭)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김선·김효진 등이 아뢰기를, "아, 통탄스럽습니다. 서형수(徐瀅修)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본래 효경(梟獍)의 종자로서, 살무사의 성격을 더하여, 성질이 막돼먹어 음험하고, 흉악하고 간사하여 온갖 악한 짓과 요망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역적 홍계능(洪啟能)을 아비처럼 섬겨 장인을 만나는 예(禮)를 행하기에 이르렀고, 어머니의 집을 원수처럼 여겨 끊고 사당에 배알(拜謁)하는 일을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역적 홍계능에게 정신을 전수하고 역적 홍계능을 호법(護法)함에 온 세상의 공분(共憤)을 많은 사람의 입으로도 막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역적 홍계능이 형벌을 받아 죽은 뒤에 이르러서는 천망(天網)[180]이 너무 넓어 왕법(王法)이 가해지지 않았으니, 그가 아직까지도 천지 사이에서 머리를 들고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천지가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분입니다. 설령 그가 조금이라도 병이(秉彝)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자취를 감추고 숨어살면서 마음을 고치고 얼굴을 바꾸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리어 의기양양하게 아무런 일이 없는 사람으로 자처하여 과제(科第)를 도모하여 차지하고는 명도(名塗)[181]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스스로 더러운 찌꺼기가 몸에 가득하여 청명한 조정에 용납되지 못할 줄 알고서 기꺼이 자기 할아버지와 등을

---

180) 천망(天網): 악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하늘에 쳐 놓았다는 그물. 《노자(老子)》에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엉성하지만 놓치지 않는다[天網恢恢 疏而不失]."라고 하였음.

181) 명도(名塗): 문신들이 관직에 나아가 명예와 이름을 얻는 것.

돌리고 숙부의 수립(樹立)을 원수처럼 여겼으며, 동서로 번쩍하고 좌우로 숨바꼭질 하면서 스스로 문예(文藝)에 대해 자부하면서 세도(世道)를 주장하였고 청관(淸官)과 미직(美職)을 마음대로 독점하였습니다. 내직으로는 이조참판과 외직으로는 경기감사로 하루아침에 벼슬이 갑자기 높아졌지만, 오직 얻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마음만을 품고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이 화(禍)를 좋아하는 계책이 아님이 없었으니, 사람을 해치고 일을 해롭게 하면서 공적인 것을 빙자하여 사적인 이득을 꾀함에 반드시 끝없는 욕망을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사람과 집과 국가에 끼친 해를 온세상이 떠들썩하게 전하고 행로에서 곁눈질하였으니, 그 전후의 행적과 전후의 죄악을 논하자면, 그가 어찌 관(冠)의 먼지를 털고 띠를 단정히 매어 사람의 반열에 섞여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마음을 생하고, 제멋대로 하는 습관을 더욱 방자히 한 것입니까? 김달순(達淳)과 체결(締結)하고 김달순에 부화뇌동 하였으니, 끝내 김달순이 처음 연석(筵席)에서 아뢴 것은 모두가 서형수가 난만(爛熳)하게 계획한 것인즉, 대소(臺疏)에서 이른바 김달순이 김달순이 됨은 첫째가 서형수이고, 둘째도 서형수라고 한 것이 참으로 실제 이야기입니다. 김달순이 병출(迸出)한 날에 이르러서는 경기 감영 지척인 곳에 극력 초치(招致)하여 캄캄한 밤 고요할 때 직접 만나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손을 잡고 이야기하며 사업(事業)이라고 일컬었고, 생사(生死)로써 허여(許與)하면서 은근히 술잔을 나눈 낭자한 형적은 귀가 있는 사람은 모두 들었고 입이 있는 사람은 모두 전하고 있습니다. 아, 김달순의 크게 부도(不道)한 흉악한 말로써 사업이라고 칭하고, 김달순의 크게 불경(不敬)한 패거(悖擧)로써 생사를 허여한 것은 반역의 사실이 밝게 드러난 것입니다. 흉악한 속마음이 서로 이어지고, 겉과 속이 화응(和應)하며, 머리와 꼬리가 얽혀있으니, 참으로 이른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것입니다. 연본(筵本)[182]을 고치려고 도모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데 이르러서는 이것이 그의 단안(斷案)이 되는 진장(眞贓)이니, 더욱 일각이라도 천지 사이에 두기 어려운 것입니다. 나라에 기주(記注)를 둔 것은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하고 법의(法意)가 지극히 엄하여, 한 번 사필(史筆)에 오른 뒤에는 비록 임금의 존귀함으로도 한 글자도 덧붙일 수 없고, 한 글자도 줄이지 못하였으니, 예로부터 신하로서 사사(史事)를 범한 자는 그 죄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날 빈대(賓對)[183]에 관한 연본은 곧 임금께서 대의(大義)를 천명하고 선지(先志)를 준행한 데 대한 하나의 큰 관려(關棙)[184]인 것이니, 더없이 엄중한 데 관계된 것이

182) 연본(筵本): 임금이 신하들과 공식적으로 나눈 대화나 발언을 기록한 문서.

183) 빈대(賓對): 매월 여섯 차례 정부 당상(政府堂上)·대간(臺諫)·옥당(玉堂)들이 입시하여 중요한 정무를 상주하는 일. 차대(次對).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감히 벗어나려는 마음이 급급하여 몰래 패려스러운 조카인 서유순(徐有恂)을 앞에서 부당한 짓을 하게 시키고, 요망한 동생 서기수(徐淇修)를 중간에 개입시켜 기필코 그 문자를 고침으로써 사실을 변환(變幻)시키려 하였으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이 지극히 흉악하고 지극히 참혹하고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간사한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람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섬에 안치(安置)하라는 형전(刑典)을 비록 이미 특별히 시행했지만, 그가 음모를 세워 함께 악역(惡逆)을 저지른 더없이 흉악한 정절(情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실정을 알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서형수를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국문하여 통쾌하게 왕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중략〉 김효진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흑산도 도배죄인 정약전,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서형수, 추자도, 안치, 국청.

184) 관려(關棙): 문의 빗장. 곧 가장 중요한 점.

❖ 嘉慶 十一年 丙寅 七月 三日 戊申

○ …… 又照目粘連, 大靜前縣監李宅觀矣, 本府議啓內, 身爲耽羅守宰, 因公越海, 投狀徑歸, 情雖緣於病故, 罪難逭於擅行, 以此照律, 罪告身盡行追奪, 卽其地限三年定配, 私罪奉敎, 依允 . …….

❖ 순조 6년(1806) 병인년 7월 3일(무신)

▢ 대정현감(大靜縣監) 이택관(李宅觀)의 처벌에 관한 계

○ 〈상략〉 또한 조목점련(照目粘連)에,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이택관(李宅觀)이 본부(本府)의 의계(議啓) 내용에 따르면, 그는 탐라(耽羅) 수재(守宰)로서 공무로 인해 바다를 건너갔으나, 장계(狀啓)를 제출하고 곧바로 귀환하였으니, 비록 병고(病故)로 인한 사정이었으나, 무단 행보에 대한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법에 따라 그의 죄를 고신(告身)하여 죄다 추탈(追奪)하고 즉시 그 지역에서 3년간 유배하도록 정하며, 사죄(私罪)에 대해서는 전교를 받아 그에 따르도록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감, 이택관.

❖ 嘉慶 十一年 丙寅 七月 四日 己酉

○ 嚴耆, 以義禁府言啓曰, 時囚罪人李宅觀, 告身盡行追奪, 卽其地限三年定配, 照律公事判付內, 依允事, 命下矣. 李宅觀, 告身盡行追奪, 全羅道濟州牧大靜縣, 卽其地限三年定配, 而以議啓內辭意, 具罪目依例發遣府書吏, 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7월 4일(기유)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이택관(李宅觀)의 처벌에 관한 의금부의 계

○ 엄기(嚴耆)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현재 수감 중인 죄인 이택관(李宅觀)에 대하여 관직 서품을 모두 박탈하고, 즉시 그 지역에서 3년간 유배하도록, 법에 따라 공사를 판결하여 하달한 내용에, 윤허한 일에 따라 명을 내렸습니다. 이택관의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하고,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에 즉시 3년 정배하도록 하였으나, 의계(議啓)의 취지에 따라 죄목을 상세히 기재하고 예에 따라 부의 서리를 발송하여 배소(配所)로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이택관.

❖ 嘉慶 十一年 丙寅 七月 十二日 丁巳

○ 金履喬,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山馬監牧官金商材, 乙丑丙寅兩年條封進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 別單書入, 依例內廐入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6년(1806) 병인년 7월 12일(정사)

▢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김상재(金商材)의 봉진마(封進馬)를 올린 건에 관한 계

○ 김이교가 사복시 일·이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산마감목관 김상재(金商材)가 을축·병인 양년에 봉진한 말 2마리가 이제야 도착하였으니, 나이와 털빛에 대해서는 별단으로 써서 들이고, 예에 따라 내마구간에 들여 기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산마감목관, 김상재, 봉진마.

❖ 嘉慶 十一年 丙寅 七月 十五日 庚申

○ 金履喬,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運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凶咎騭駘馬二十匹, 合八十八匹內, 二匹到中路故失, 三匹到中路病留, 五匹到本寺病留, 除實納馬七十八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6년(1806) 병인년 7월 15일(경신)

▢ 제주(濟州) 후운마를 들인 일에 대한 사복시의 계

○ 김이교가 사복시 일·이 제조로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출하된 후운 연례 진상마 8마리, 삼명일 진상마 60마리, 흉구마와 노태마 20마리를 합한 88마리 중, 2마리는 중도에 분실되었고, 3마리는 중도에 병으로 인해 남고, 5마리는 본시에 도착 후 병으로 남은 것을 제외하고, 실제 납마(納馬) 78마리의 나이와 털의 색깔을 구분하여 별단으로 써서 들이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후운마.

❖ 嘉慶 十一年 丙寅 七月 十七日 壬戌

○ 以濟州防禦使朴宗柱狀啓, 藥材中靑皮·枳殼封進之數未滿定例, 惶恐待罪事, 傳于李文會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6년(1806) 병인년 7월 17일(임술)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박종주(朴宗柱)의 약재 진상에 관한 장계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박종주(朴宗柱)의 장계에, “약재 중 청피(靑皮)와 기각의 봉진 수량이 정해진 규정에 미달하여 두렵게 죄를 기다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문회(李文會)에게 전교하여 말하기를, “죄를 기다리지 말 일로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방어사, 박종주, 청피, 기각.

❖ 嘉慶 十一年 丙寅 八月 八日 壬午

○ 丙寅八月初八日辰時, 上御熙政堂. 朝講入侍時,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上曰, 不允【出擧條】…….

❖ 순조 6년(1806) 병인년 8월 8일(임오)

▢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계

○ 병인년(1806) 8월 초8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갔다. 조강(朝講)에 입시했을 때 〈중략〉 "청컨대, 흑산도 유배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유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 정배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 정배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 정배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중한 심문을 실시하게 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거조(擧條)를 냄】"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一年 丙寅 八月 二十八日 壬寅

○ 掌令李渭達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순조 6년(1806) 병인년 8월 28일(임인)

▢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계

○ 장령 이위달(李渭達)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유배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유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 정배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 정배죄인 신여권(申與權)을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중한 심문을 실시하게 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一年 丙寅 九月 四日 戊申

○ 掌令李渭達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答曰, 不允. 金龍柱事, 依啓.

❖ 순조 6년(1806) 병인년 9월 4일(무신)

▢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계

○ 장령 이위달(李渭達)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유배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유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 정배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 정배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 정배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중한 심문을 실시하게 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김용주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一年 丙寅 九月 十九日 癸亥

○ 丙寅九月十九日辰時, 上御誠正閣. 召對入侍時, …… 儀泳曰, 英廟朝因司僕寺請, 拿處濟州判官, 至有貢馬停止之擧, 未知其時, 或有他故, 或是歲歉, 而聖意則蓋出於恤民之政矣. 臣近宰南邑, 見貢馬之上來, 則其本州進貢之費, 越海喂牧之所入, 臣所未見, 而下陸後千百爲群, 連路貽弊則大矣. 上曰, 貢馬自有定數, 式年則加數, 常年則亦不加數, 此皆惟貞[正]之貢矣. 儀泳曰, 濟州貢馬之上來京師者, 一年所貢之數與夫國家應用之幾何, 臣雖未詳, 各邑之所出牽夫, 其數夥然, 而皆以雇錢代捧, 民不堪苦, 所經路傍, 故爲放入禾穀之中, 蹂躪殆遍, 故沿路田夫, 給以賂物, 使不傷稼, 貢馬一來, 則列邑騷然, 所謂貢馬, 皆駑劣不堪用矣. 雖難全廢, 量其一年所入之數, 減數卜定, 則民弊庶有省減之道, 伏願留念焉. 奭周曰, 不但貢馬而已, 大凡進貢之物, 自上視之, 則不過若而物種, 其數不多, 其費不甚, 疑若無害於民矣. 然其道里輸運之資, 點退改納之需, 固已倍蓰於元數, 而自民而官, 自下邑而上司, 自外方而京司, 其所輸納之際, 侵漁操縱, 有萬其端, 進貢之物, 未及上徹, 而猾胥貪吏之囊橐已夥然, 京司之吏, 取之外道之吏, 外道之吏, 取之列邑之吏, 列邑之吏, 將〈何〉所取哉? 不過椎髓剝膚於窮無所告之赤子而已, 九重深邃, 固無以盡燭, 而每當一物之進御, 如或念及於此等情狀, 則科外之斂, 不期祛而自祛, 雖其惟正應納之物, 亦必思所以節省之方矣. …….

❖ 순조 6년(1806) 병인년 9월 19일(계해)

▢ 제주(濟州) 공마(貢馬)의 폐해에 대한 홍의영(洪儀泳)의 계

○ 병인년 9월 19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소대(召對)에 입시했을 때 〈중략〉 홍의영(洪儀泳)이 말하기를, “영조 때 사복시의 청에 따라 제주판관(濟州判官)을 소환하여 처분하는 바람에 공마(貢馬)를 중단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혹은 흉년이 들었는지 알 수 없으나, 성하(聖下)의 뜻은 아마도 백성을 위로하는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신하가 최근 남읍(南邑)을 다스릴 때, 공마가 올라오는 것을 보니, 본주에서 공납하는 비용과 바다를 건너 사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신하가 직접 보지 못했으나, 상륙한 후 수천 마리가 무리를 지어 이동하며 길목마다 폐해가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공마에는 정해진 수가 있으니, 식년(式年)에는 수를 더하고, 상년(常年)에는 수를 더하지 않으니, 이 모두 오직 정

(正)한 공물일 뿐이라."라고 하였다. 홍의영이 말하기를, "제주의 공마가 경사(京師)로 올라오는 것, 1년에 공납하는 수와 국가에서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신하가 자세히 알지 못하나, 각 고을에서 내보내는 견부(牽夫)의 수는 매우 많으며, 모두 고용비로 대신하고 있어 백성들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지나가는 길가에는 고의로 벼와 곡식 속에 넣어두어 짓밟히게 하여 거의 온통 훼손되고, 그러므로 길가의 농부들에게 뇌물을 주어 농작물을 해치지 않게 하고, 공마가 오면 각 고을이 소란해지는데, 소위 공마라 하는 것들은 모두 천하고 형편없어 쓸모가 없습니다. 비록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더라도, 1년에 들어오는 수량을 따져 감축하여 정하면, 백성들의 고통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니, 부디 이를 유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석주가 말하기를, "공마뿐만 아니라 대개 진상하는 물품들은 위에서 보면 그 종류가 얼마 되지 않고 수량도 많지 않으며 비용도 그리 크지 않아, 백성들에게 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수송에 드는 비용과, 검수 및 교체 납품에 필요한 경비는 이미 원래 수량의 2배나 되며, 백성에서 관원으로, 하급 고을에서 상급 관청으로, 지방에서 경내 관청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착취와 조작이 그 수단이 무수히 많습니다. 진공품이 아직 상부에 보고되기도 전에, 교활한 하급 관리와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주머니는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경사(京司)의 관리들은 외곽 지역의 관리들에게서, 외곽 지역의 관리들은 각 고을의 관리들에게서, 각 고을의 관리들은 또 어디서 가져올 것이겠습니까? 오직 궁핍하여 호소할 곳 없는 백성들에게서 뼈를 깎고 살을 벗기는 것일 뿐, 9겹의 궁궐은 깊고 험준하여 이를 다 알 수 없겠지만, 매번 한 가지 물건이 진상될 때마다, 혹시라도 이러한 정황을 떠올린다면, 법에 없는 징수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며, 비록 정당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물건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를 절약할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공마.

❖ 嘉慶 十一年 丙寅 九月 二十日 甲子

○ 以濟州牧使朴宗柱啓本, 罪人李宅觀大靜縣到配事, 傳于任厚常曰, 飭已施矣, 放送.

❖ 순조 6년(1806) 병인년 9월 20일(갑자)

▢ 이택관(李宅觀)의 처분에 대한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의 계본(啓本)

○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가 계본(啓本)에, “죄인 이택관(李宅觀)이 대정현(大靜縣)으로 유배되었다고 한 일”에 대해, 임후상에게 전교하기를, “이미 처분을 마쳤으니 석방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박종주, 이택관.

❖ 嘉慶 十一年 丙寅 九月 二十日 甲子

○ 任厚常,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使朴宗柱啓本, 大靜前縣監李宅觀, 卽其地限三年定配事, 判付內, 飭已施矣, 放送事, 命下矣. 李宅觀放送事, 分付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6년(1806) 병인년 9월 20일(갑자)

▢ 이택관(李宅觀)의 석방에 관한 의금부의 계

○ 임후상(任厚常)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의 계본(啓本)에,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이택관(李宅觀)은 해당 지역에 3년간 유배된 사안에 대해 판결이 내려진 후 이미 집행되었으며, 석방 명령도 하달되었다고 합니다. 이택관의 석방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도의 도신에게 지시할 것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택관.

❖ 嘉慶 十一年 丙寅 九月 二十日 甲子

○ 李文會,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大靜前縣監李宅觀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而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6년(1806) 병인년 9월 20일(갑자)

▢ 대정현감(大靜縣監) 이택관(李宅觀)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진상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이문회(李文會)가 사복시 일·이 제조로서 아뢰기를,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이택관(李宅觀)이 교체 취임하며 바친 말 2마리가 방금 도착하였으니,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였으며, 관례에 따라 내마구간에서 기르도록 하기를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이택관, 체임진상마.

❖ 嘉慶 十一年 丙寅 九月 二十日 甲子

○ 丙寅九月二十日辰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上曰, 不允【出擧條】…… 請楸子島安置罪人徐澄修, 設鞫嚴問, 夫正王法. 上曰, 不允【出擧條】……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上曰, 不允【出擧條】…….

❖ 순조 6년(1806) 병인년 9월 20일(갑자)

▢ 추자도(楸子島)와 제주목(濟州牧) 안치죄인의 처벌에 관한 계

○ 병인년(1806) 9월 20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引見)하기 위해 입시했을 때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면하고 유배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즉시 왕부로 소환하여 엄중히 심문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중략〉 "청컨대, 추자도 안치죄인 서형수(徐瀅修)에게 국청을 열어서 엄중한 심문을 통해 왕법을 시원하게 집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중략〉 "청컨대, 흑산도 유배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유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 정배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 정배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 정배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중한 심문을 실시하게 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추자도, 제주목.

❖ 嘉慶 十一年 丙寅 九月 二十八日 壬申

○ 執義尹尙圭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請民始諸子應坐之類, 亟令王府, 依律擧行. …… 答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9월 28일(임신)

▢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집의 윤상규(尹尙圭)의 계

○ 집의 윤상규(尹尙圭)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유배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유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 정배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 정배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 정배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중한 심문을 실시하게 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 嘉慶 十一年 丙寅 十月 三日 丙子

○ 執義尹尙圭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答曰, 不允. 下諭事依啓. 府啓中民始諸子事, 停啓.

❖ 순조 6년(1806) 병인년 10월 3일(병자)

▢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집의 윤상규(尹尙圭)의 계

○ 집의 윤상규(尹尙圭)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유배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유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 정배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 정배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 정배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중한 심문을 실시하게 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십시오.〈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부의 계 가운데 민시의 여러 아들에 관한 일은 정계(停啓)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一年 丙寅 十月 二十七日 庚子

○ 大司諫李羽晉, 持平任俊常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答曰, 不允. 李書九事不允. 兩司合啓中徐有隣諸子事, 停啓.

❖ 순조 6년(1806) 병인년 10월 27일(경자)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대사간 이우진(李羽晉) 등의 계

○ 대사간 이우진(李羽晉), 지평 임준상(任俊常)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면하고 유배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즉시 왕부로 소환하여 엄중히 심문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 안치죄인 서형수(徐瀅修)에게 국청을 열어서 엄중한 심문을 통해 왕법을 시원하게 집행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이서구(李書九)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양사의 합계(合啓) 가운데 서유린(徐有隣)의 여러 아들의 일은 정계(停啓)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一年 丙寅 十月 二十七日 庚子

○ 持平任俊常啓曰, 請正法罪人鎭, 亟施孥戮之典.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請周爀, 亟令王府, 嚴鞫得情, 快正典刑.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순조 6년(1806) 병인년 10월 27일(경자)

▢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지평 임준상(任俊常)의 계

○ 지평 임준상(任俊常)이 아뢰기를, “청컨대, 정법(正法) 죄인을 즉시 가족 처형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청컨대, 흑산도 유배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유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 정배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 정배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 정배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에 회부하여 심문을 엄정히 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시원하게 형벌을 집행하게 하십시오. 청컨대 이주혁(李周爀)을 왕부에 즉시 소환하여 엄정히 심문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도록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하유(下諭)한 일을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유배죄인, 이치훈.

❖ 嘉慶 十一年 丙寅 十一月 十三日 丙辰

○ 兵曹口傳政事, 以徐榮輔爲都摠管, 金履永·金銑·吳載重爲副摠管. 以濟州防禦使朴宗柱狀啓, 節果進上, 未免代封, 惶恐待罪事, 傳于南公轍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6년(1806) 병인년 11월 13일(병진)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박종주(朴宗柱)의 절과(節果) 진상에 관해 대죄한다는 계

○ 병조가 구전정사(口傳政事)로 서영보(徐榮輔)를 도총관으로, 김이영(金履永)·김선(金銑)·오재중(吳載重)을 부총관으로 삼았다.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박종주(朴宗柱)가 상소를 올려, 절과(節果)를 진상하였으나 대봉(代封)을 면치 못하였으므로 황공하여 대죄한다는 일로 아뢰니, 남공철(南公轍)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는 일로 회유(回諭)하라.” 하였다.

△ 주제어: 제주방어사, 박종주, 절과.

❖ 嘉慶 十一年 丙寅 十一月 十三日 丙辰

○ 洪奭周,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使朴宗柱狀啓內, 本州判官金漢弼, 不得已罷黜, 其罪狀, 令攸司稟處事, 啓下矣. 金漢弼, 時在任所云, 依例發遣府羅將, 交代後拿來, 何如? 傳曰, 待待命拿囚.

❖ 순조 6년(1806) 병인년 11월 13일(병진)

▢ 제주판관(濟州判官) 김한필(金漢弼)의 파면과 나수(拿囚)에 관한 홍석주(洪奭周)의 계

○ 홍석주(洪奭周)가 의금부의 상소를 인용하여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의 상소 내용에 따르면, 본주 판관 김한필(金漢弼)을 부득이하게 파면하였으며, 그 죄목에 대해서는 유관 부서에 보고하여 처분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였다. 김한필이 당시 재임지에 있었다고 하니, 예에 따라 부의 나장을 파견하여 교대한 뒤 체포해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명령을 기다려 죄수를 체포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박종주, 제주판관, 김한필.

❖ 嘉慶 十一年 丙寅 十一月 十七日 庚申

○ 掌令閔慶世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答府曰, 不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11월 17일(경신)

▢ 제주목(濟州牧)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민경세(閔慶世)의 계

○ 장령 민경세(閔慶世)가 아뢰기를, "〈중략〉 청컨대, 흑산도 유배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유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 정배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 정배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 정배죄인 이관기(李寬基)를 아울러서 왕부에 회부하여 엄중히 심문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부(府)에 답하되, "불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一年 丙寅 十一月 二十日 癸亥

○ 有政. 吏批, …… 李冕膺爲吏曹參判, …… 李夢龍爲濟州判官, …… 校書判校柳禎, 今加通政, 滿三十朔依定式陞堂上 …….

❖ 순조 6년(1806) 병인년 11월 20일(계해)

▢ 이몽룡(李夢龍)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중략〉 이면응(李冕膺)을 이조참판으로, 〈중략〉 이몽룡(李夢龍)은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교서판교 유정(柳禎)은 이번에 통정(通政)을 가하고, 30개월이 차면 정식에 따라 당상으로 승진하였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이몽룡.

❖ 嘉慶 十一年 丙寅 十一月 二十七日 庚午

○ 任厚常啓曰, 卽者吏曹郎廳來言, 井邑縣監朴參源, 濟州判官李夢龍, 憲府則旣已署經, 而諫院則尙未署經云. 未署經外, 未肅拜·呈告人員, 竝卽牌招, 以爲署經之地, 何如? 傳曰, 允

❖ 순조 6년(1806) 병인년 11월 27일(경오)

▢ 제주판관(濟州判官) 이몽룡(李夢龍)의 서경을 마친 건에 관한 임후상(任厚常)의 계

○ 임후상(任厚常)이 아뢰기를, "방금 이조 낭청이 와서 말하기를, '정읍현감 박참원(朴參源)과 제주판관(濟州判官) 이몽룡(李夢龍)에 대해서는 사헌부에서 이미 서경을 마쳤으나, 사간원에서는 아직 서경을 마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경되지 않은 자 외에, 아직 취임하지 않았거나 보고하지 않은 인원도 아울러 즉시 패를 내어 불러들이고, 서경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이몽룡.

❖ 嘉慶 十一年 丙寅 十一月 二十七日 庚午

○ 任厚常啓曰, 井邑縣監朴參源, 濟州判官李夢龍, 諫院當爲署經, 而大司諫李羽晉, 司諫安廷善, 獻納金魯應, 正言李沆牌不進, 孟欽圭未署經, 無以備員, 署經, 何以爲之? 敢稟. 傳曰, 牌招.

❖ 순조 6년(1806) 병인년 11월 27일(경오)

▢ 제주판관(濟州判官) 이몽룡(李夢龍) 등의 서경 처리에 관한 임후상(任厚常)의 계

○ 임후상(任厚常)이 아뢰기를, “정읍현감 박참원(朴參源)과 제주판관(濟州判官) 이몽룡(李夢龍)이 사간원에서 마땅히 서경(署經)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사간 이우진(李羽晉), 사간 안정선(安廷善), 헌납 김노응(金魯應), 정언 이항(李沆)은 패를 받고도 출두하지 않았고, 맹흠규(孟欽圭)는 아직 서경을 마치지 않았는데, 인원을 채울 수 없으니, 서경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감히 아뢰나이다.”라고 하니, 전하가 말씀하시기를, “패(牌)를 내어 불러들이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이몽룡.

❖ 嘉慶 十一年 丙寅 十二月 九日 壬午

○ 以濟州防禦使朴宗柱狀啓, 進上節果, 未免代封, 惶恐待罪事, 傳于任厚常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6년(1806) 병인년 12월 9일(임오)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박종주(朴宗柱)의 진상절과(進上節果) 장계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박종주(朴宗柱)의 장계(狀啓)에, 진상한 절과(節果)에서 대봉(代封)을 면하지 못하여 황공하게도 대죄하는 일에 대해 임후상(任厚常)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 일이라고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방어사, 박종주, 진상절과.

❖ 嘉慶 十一年 丙寅 十二月 十日 癸未

○ 丙寅十二月初十日辰時, …… 時秀曰, …… 此濟州牧使朴宗柱災實狀啓也. 分等不爲擧論, 數件事, 候風涉海, 恐有後時之慮, 謹援已例, 一邊擧行, 一邊馳啓爲辭矣. 其一, 新舊還之一時竝督, 恐傷民力, 舊還姑爲停止事也. 其一, 軍兵逃老故病廢之類, 嚴飭各該邑, 一一塡充, 待明春從附近哨司鍊事也. 分等旣不擧論, 後錄二條, 先已擧行, 且是年例所請, 竝依狀請施行事,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 순조 6년(1806) 병인년 12월 10일(계미)

▢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의 재실(災實) 장계

○ 병인년(1806) 12월 초10일 진시에, 〈중략〉 이시수(李時秀)가 아뢰기를, "〈중략〉 이것은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의 재실(災實) 장계입니다. 분등(分等)을 들어 논하지 않은 것이 수건(數件)인데, 후풍(候風)하여 바다를 건널 때 시기를 놓칠까 우려되어, 거의 기존의 예에서 끌어들이면, 한편으로는 거행하고 한편으로는 치계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는, 신환(新還)과 구환(舊還)을 일시에 모두 독촉하면 민력이 상할까 두려우니 구환을 잠시 정지해야 할 일입니다. 그 하나는, 군병(軍兵)이 도망하고, 늙고, 고실하고 병폐(病廢)하는 것 등을 각 고을에 엄칙하여 일일이 전충(塡充)하는 것은 내년 봄을 기다렸다가 부근의 초(哨)에서 사련(司鍊)할 일입니다. 분등은 이미 들어서 논하지 않았고, 후록한 두 조는 먼저 이미 거행하였습니다. 또 올해의 예는 청한 바에 따라 모두 장청(狀請)에 따라 시행할 일로 분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 주제어: 제주목사, 박종주, 재실 장계.

1807年

(순조 7)



❖ 嘉慶 十二年 丁卯 一月 六日 戊申

○ 備邊司薦望, 以韓鼎運爲濟州牧使.

❖ 순조 7년(1807) 정묘년 1월 6일(무신)

▢ 한정운(韓鼎運)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비변사의 천거에 따라 한정운(韓鼎運)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제수하였다.

△ 주제어: 한정운, 제주목사.

❖ 嘉慶 十二年 丁卯 一月 十二日 甲寅

○ 李文會, 以禮曹言啓曰, 濟州牧使所封去十一月令宗廟·孝安殿·景慕宮薦新唐柚子, 今始來到, 當日薦進, 而山陵薦新, 則今已停止, 依前例令司饔院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7년(1807) 정묘년 1월 12일(갑인)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한 당유자(唐柚子)에 관한 예조의 계

○ 이문회(李文會)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봉진한, 지난 11월령의 종묘·효안전·경모궁에 올릴 새 당유자(唐柚子)가 이제야 도착하였기에, 오늘 바로 천진(薦進)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산릉에 올리는 새 제물은 이미 중지한 바 있으므로, 전례에 따라 사옹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받들어 들이게 하고자 하여, 감히 아뢰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알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당유자.

❖ 嘉慶 十二年 丁卯 一月 十三日 乙卯

○ 有政. 吏批, …… 濟州牧使單韓鼎運, …….

❖ 순조 7년(1807) 정묘년 1월 13일(을묘)

▢ 제주목사(濟州牧使)로 한정운(韓鼎運)을 단망(單望)함

○ 정사가 있었는데, 이비에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로 한정운(韓鼎運)을 단망(單望)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한정운.

❖ 嘉慶 十二年 丁卯 一月 二十七日 己巳

○ 傳于李文會曰, 終日相持, 徒損國體, 上下爭執, 豈有如許道理? 右承旨李文會全羅道金甲島, 左副承旨柳畊楸子島, 同副承旨宋知濂平安道義州, 竝定配所, 卽爲押送.

❖ 순조 7년(1807) 정묘년 1월 27일(기사)

▢ 좌부승지 유경(柳畊)을 추자도(楸子島)로 유배함

○ 이문회(李文會)에게 전교하여 이르기를, "온종일 서로 맞서니, 다만 국체만 손상될 뿐이며, 상하가 다투는 일이 어찌 이토록 가당키나 한 일이냐? 우승지 이문회는 전라도 금갑도로, 좌부승지 유경(柳畊)은 추자도(楸子島)로, 동부승지 송지렴(宋知濂)은 평안도 의주로 각각 유배지를 정하고, 즉시 압송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유경, 추자도.

❖ 嘉慶 十二年 丁卯 一月 二十八日 庚午

○ 成龍彦, 以義禁府言啓曰, 右承旨李文會全羅道金甲島, 左副承旨柳畊楸子島, 同副承旨宋知濂平安道義州, 竝定配, 卽爲押送事, 承傳啓下矣. 李文會全羅道珍島郡金甲島, 柳畊靈巖郡楸子島, 宋知濂平安道義州府, 竝定配,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書吏, 卽爲押送于各其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7년(1807) 정묘년 1월 28일(경오)

▢ 유경(柳畊)을 추자도(楸子島)로 유배함

○ 성용언(成龍彦)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우승지 이문회(李文會)는 전라도 진도군 금갑도로, 좌부승지 유경(柳畊)은 영암군 추자도(楸子島)로, 동부승지 송지렴(宋知濂)은 평안도 의주부로 각각 유배지를 정하고, 전교에 따라 그 사실을 이미 아뢰었습니다. 이제 이문회는 전라도 진도군 금갑도, 유경은 영암군 추자도, 송지렴은 평안도 의주부로 각각 귀양지를 정하였으며, 전교로 내린 사유와 그들의 진술 내용을 갖추고 죄목을 명백히 하였으니, 전례에 따라 부의 서리를 보내어 즉시 각자의 유배지로 압송하고자 하여, 감히 아뢰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여 이르기를, “알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유경, 추자도.

❖ 嘉慶 十二年 丁卯 一月 二十九日 辛未

○ 傳于成龍彦曰, 飭已施矣, 令已行矣. 金甲島島配罪人李文會, 楸子島島配罪人柳畊, 義州府遠竄罪人宋知濂竝放送事, 分付該道道臣.

❖ 순조 7년(1807) 정묘년 1월 29일(신미)

▢ 유경(柳畊)을 추자도(楸子島)로 유배함

○ 성용언(成龍彦)에게 전교하여 이르기를, “칙령은 이미 내렸고, 명령도 이미 시행하였습니다. 금갑도로 유배된 죄인 이문회(李文會), 추자도(楸子島)로 유배된 죄인 유경(柳畊), 의주부로 멀리 귀양보낸 죄인 송지렴(宋知濂)의 송치(送致) 사무는 각 해당 도의 관찰사에게 분부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유경, 추자도.

❖ 嘉慶 十二年 丁卯 一月 二十九日 辛未

○ 洪奭周, 以義禁府言啓曰, 金甲島島配罪人李文會, 楸子島島配罪人柳畊, 義州府遠竄罪人宋知濂竝放送事, 承傳啓下矣. 李文會·柳畊·宋知濂等, 竝放送事, 分付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7년(1807) 정묘년 1월 29일(신미)

▢ 유경(柳畊)을 추자도(楸子島)로 유배함

○ 홍석주(洪奭周)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금갑도로 유배된 죄인 이문회(李文會), 추자도(楸子島)로 유배된 죄인 유경(柳畊), 의주부로 먼 귀양을 보낸 죄인 송지렴(宋知濂)의 송치 사무를, 전교에 따라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이문회, 유경, 송지렴 등 세 사람의 송치는 각 해당 도의 관찰사에게 분부할 뜻으로, 감히 아뢰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유경, 추자도.

❖ 嘉慶 十二年 丁卯 一月 二十九日 辛未

○ 持平韓永建, 獻納崔履亨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 答兩司曰, 不允.

❖ 순조 7년(1807) 정묘년 1월 29일(신미)

▢ 추자도(楸子島) 안치 죄인의 심문에 관한 지평 한영건(韓永建) 등의 계

○ 지평 한영건(韓永建)과 헌납 최이형(崔履亨)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줄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시원하게 왕부로 하여금 다시 잡아 오게 하여 엄중히 심문하여 그 정황을 밝히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게 하십시오. 〈중략〉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는 국청을 열어서 엄하게 묻고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 잡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양사(兩司)에게 답하기를, "윤허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二年 丁卯 一月 二十九日 辛未

○ 持平韓永建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答府曰, 不允.

❖ 순조 7년(1807) 정묘년 1월 29일(신미)

▢ 제주목(濟州牧)에 유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지평 한영건(韓永建)의 계

○ 지평 한영건(韓永建)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에 유배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에 유배지 정해진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유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에 유배지 정해진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에 유배지 정해진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에 유배지 정해진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서 엄하게 심문하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황을 밝혀 엄정히 법을 집행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부(府)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二年 丁卯 二月 十一日 癸未

○ 備忘記, 濟州牧使韓鼎運下直, 長弓一張, 長箭一部, 片箭一部, 筒兒一箇賜給.

❖ 순조 7년(1807) 정묘년 2월 11일(계미)

▢ 제주목사(濟州牧使) 한정운(韓鼎運)의 하직에 관한 건

○ 비망기에 기록하되, “제주목사(濟州牧使) 한정운(韓鼎運)이 하직하자, 장궁(長弓) 1장, 진 화살[長箭] 1부, 아기살[片箭] 1부, 통아(筒兒) 1개를 하사하였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한정운.

❖ 嘉慶 十二年 丁卯 二月 二十一日 癸巳

○ 大司諫朴宗正, 掌令朴孝成, 正言鄭文始啓曰,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순조 7년(1807) 정묘년 2월 21일(계사)

▢ 추자도(楸子島)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대사간 박종정(朴宗正) 등의 계

○ 대사간 박종정(朴宗正), 장령 박효성(朴孝成), 정언 정문시(鄭文始)가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에 대하여 국청을 열어서 엄하게 묻고, 왕법을 통쾌하게 바로 잡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서형수.

❖ 嘉慶 十二年 丁卯 二月 二十一日 癸巳

○ 掌令朴孝成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答曰, 不允.

❖ 순조 7년(1807) 정묘년 2월 21일(계사)

▢ 제주목(濟州牧)에 유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박효성(朴孝成)의 계

○ 장령 박효성(朴孝成)이 아뢰기를,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유배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유배지로 정해진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유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유배지로 정해진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유배지로 정해진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유배지로 정해진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시원하게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서 엄하게 묻고, 정황을 밝혀 왕법을 통쾌하게 바로 잡으시어 마땅한 형벌을 엄정히 시행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二年 丁卯 三月 十七日 己未

○ 李文會, 以武二所試官意啓曰, 臣所今日開場, 應射擧子, 自天字至地字半字, 當爲九十八人, 而無緣不赴者, 京中四人, 江原道四人, 公忠道二人, 慶尙道三人, 平安道三人, 濟州三人, 合爲十九人, 而入門奉單, 只爲七十九人, 先自木箭試取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7년(1807) 정묘년 3월 17일(기미)

▢ 무과에 응시하지 않은 제주인(濟州人)에 관한 무이소시관(武二所試官)의 계

○ 이문회(李文會)가 무이소시관(武二所試官)의 뜻으로 아뢰기를, "신이 오늘 개장한 활쏘기 시험장에 응시하기로 한 급제자들은, 천자(天字)부터 지자(地字) 반자(半字)까지 합하여 모두 98명입니다. 그러나 연유 없이 응시하지 않은 자는, 경중(京中)에 4인, 강원도(江原道)에 4인, 공충도(公忠道)에 2인, 경상도(慶尙道)에 3인, 평안도(平安道)에 3인, 제주(濟州)에 3인으로, 합계 19명입니다. 그래서 입문하여 단부로 올린 자는 단지 79인이니, 우선 나무살[木箭] 시험으로 선발하고자 하여, 감히 아뢰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 嘉慶 十二年 丁卯 四月 三日 乙亥

○ 任厚常,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前牧使朴宗柱, 遞任進上馬三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7년(1807) 정묘년 4월 3일(을해)

▢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임후상(任厚常)이 사복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박종주(朴宗柱)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이 이제야 비로소 도착하였기에, 말의 나이와 털빛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였으니, 전례에 따라 내구(內廐)에서 기르게 하고자 하여, 감히 아뢰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목사, 박종주, 체임진상마.

❖ 嘉慶 十二年 丁卯 四月 四日 丙子

○ 有政. 吏批, …… 具駿遠爲濟州主簿, …….

❖ 순조 7년(1807) 정묘년 4월 4일(병자)

▢ 구준원(具駿遠)을 제주주부(濟州主簿)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상략〉 구준원(具駿遠)을 제주주부(濟州主簿)로 임명하였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구준원, 제주주부.

❖ 嘉慶 十二年 丁卯 四月 十六日 戊子

○ 持平李致祜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答府曰, 不允. 新啓不允. 下諭事, 依啓.

❖ 순조 7년(1807) 정묘년 4월 16일(무자)

▢ 제주목(濟州牧)에 유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지평 이치호(李致祜)의 계

○ 지평 이치호(李致祜)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黑山島)에 유배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유배지로 정해진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유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유배지로 정해진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유배지로 정해진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유배지로 정해진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시원하게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서 엄하게 심문하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황을 밝혀 엄정히 법을 집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부(사헌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신계(新啓)도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下諭)한 사안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二年 丁卯 四月 二十八日 庚子

○ 以濟州牧使韓鼎運狀啓濟州牧人物淹死事, 傳曰, 今於一船同騎之人, 至于九名, 淹死之多, 極爲矜惻. 元恤典外, 別加顧恤, 如有生前身·還布, 竝蕩減事, 廟堂措辭分付.

❖ 순조 7년(1807) 정묘년 4월 28일(경자)

▢ 제주목사(濟州牧使) 한정운(韓鼎運)의 장계

○ 제주목사(濟州牧使) 한정운(韓鼎運)의 장계 안의, 제주목(濟州牧) 인물들이 물에 빠져 죽은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지금 한 척의 배에 동승한 자가 9명에 이르는데, 물에 빠져 죽은 이가 많아서 매우 가엾다. 원(元) 휼전(恤典) 외에, 특별히 고휼(顧恤)을 더해주고, 만일 생전(生前)의 신포(身布)와 환포(還布)가 있다면 모두 탕감해 줄 일을 묘당(廟堂)이 조사(措辭)하여 분부할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제주목, 한정운, 신포, 환포.

❖ 嘉慶 十二年 丁卯 四月 二十九日 辛丑

○ 執義金孝眞啓曰, 請正法罪人鎭亟施孥戮之典.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不允.

❖ 순조 7년(1807) 정묘년 4월 29일(신축)

▢ 제주목(濟州牧)에 유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집의 김효진(金孝眞)의 계

○ 집의 김효진(金孝眞)이 아뢰기를, “정법(正法) 죄인 심인(沈鎭)은 속히 노륙(孥戮)의 형벌을 청합니다. 흑산도(黑山島)에 유배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유배지로 정해진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유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유배지로 정해진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유배지로 정해진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유배지로 정해진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시원하게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심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황을 밝혀 엄정히 법을 집행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二年 丁卯 五月 四日 乙巳

○ 朴宗薰,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前判官金漢弼遞任進上馬三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7년(1807) 정묘년 5월 4일(을사)

▢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김한필(金漢弼)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박종훈(朴宗薰)이 사복시(司僕寺)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김한필(金漢弼)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이 이제야 비로소 도착하였기에, 말의 나이와 털빛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였으며, 전례에 따라 내구(內廐)에서 기르게 하고자 하여, 감히 아뢰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김한필, 체임진상마.

❖ 嘉慶 十二年 丁卯 五月 六日 丁未

○ 持平李箕淵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答曰, 不允.

❖ 순조 7년(1807) 정묘년 5월 6일(정미)

▢ 제주목(濟州牧)에 유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지평 이기연(李箕淵)의 계

○ 지평 이기연(李箕淵)이 아뢰기를, “흑산도(黑山島)에 유배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유배지로 정해진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유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유배지로 정해진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유배지로 정해진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유배지로 정해진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시원하게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심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황을 밝혀 엄정히 법을 집행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二年 丁卯 六月 六日 丙子

○ 執義申緗, 掌令洪時溥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不允. 下諭事, 已許遞外, 依啓.

❖ 순조 7년(1807) 정묘년 6월 6일(병자)

▢ 제주목(濟州牧)에 유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집의 신욱(申緗) 등의 계

○ 집의 신욱(申緗), 장령 홍시보(洪時溥)가 아뢰기를, “흑산도(黑山島)에 유배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유배지로 정해진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유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유배지로 정해진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유배지로 정해진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유배지로 정해진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시원하게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하게 심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황을 밝혀 엄정히 법을 집행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한 사안은 이미 허체(許遞)한 것 외에는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二年 丁卯 七月 十二日 壬子

○ 掌令韓永建, 持平金載一·孔胤恒, 獻納李允謙, 正言洪儀泳·金用默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答曰, 不允. 敬臣事, 依啓.

❖ 순조 7년(1807) 정묘년 7월 12일(임자)

▢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줄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처벌에 관한 계

○ 장령 한영건(韓永建), 지평 김재일(金載一)·공윤항(孔胤恒), 헌납 이윤겸(李允謙), 정언 홍의영(洪儀泳)·김용묵(金用默)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줄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시원하게 왕부로 하여금 다시 잡아 오게 하여, 엄중히 심문하여 그 정황을 밝혀 엄정히 법을 집행하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경신(敬臣)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 嘉慶 十二年 丁卯 七月 十二日 壬子

○ 掌令韓永建, 持平金載一·孔胤恒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不允.

❖ 순조 7년(1807) 정묘년 7월 12일(임자)

▢ 제주목(濟州牧)으로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한영건(韓永建) 등의 계

○ 장령 한영건(韓永建), 지평 김재일(金載一)·공윤항(孔胤恒)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로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으로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문을 엄중히 하여 정상을 얻고, 법전에 따라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二年 丁卯 七月 十三日 癸丑

○ 洪樂淵,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三名日進上馬六十匹, 差備進上馬八十匹, 歲貢馬二百匹, 凶咎駑駘馬二十匹, 合三百六十匹內, 六匹中路病留, 八匹到本寺病留, 一百匹訓鍊都監, 二十五匹禁衛營, 二十五匹御營廳, 軍馬分給, 實納馬一百九十六匹禾毛色,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7년(1807) 정묘년 7월 13일(계축)

▢ 제주(濟州) 선운(先運) 진상마에 관한 사복시의 계

○ 홍낙연(洪樂淵)이 사복시(司僕寺)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선운(先運)은, 삼명일(三名日) 진상마(進上馬) 60필(匹), 차비진상마(差備進上馬) 80필, 세공마(歲貢馬) 200필, 흉구 노태마(凶咎駑駘馬) 20필 등 모두 360필 가운데, 6필은 도중에 병들어 머물고, 8필은 본사(本寺)에 도착하였으나 병들어 머물렀으며, 100필은 훈련도감에, 25필은 금위영(禁衛營)에, 25필은 어영청(御營廳)에 군마로 분급하여, 실납마(實納馬)는 모두 196필인데, 그 말의 나이와 털빛[禾毛色]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였으니, 이에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선운.

❖ 嘉慶 十二年 丁卯 七月 十五日 乙卯

○ 洪樂淵,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運年例進上馬八匹, 別御乘馬二十匹, 山屯馬二百匹, 合二百二十八匹內, 三匹到中路故失, 八匹到中路病留, 九匹到本寺病留, 除實納馬二百八匹禾毛色, 別單書入, 而今此所封馬匹之骨孱體瘦, 比前尤甚. 當該封進濟州牧使, 捧現告推考, 以警日後, 何如? 傳曰, 允.

❖ 순조 7년(1807) 정묘년 7월 15일(을묘)

▢ 제주(濟州) 후운(後運) 진상마에 관한 사복시의 계

○ 홍낙연(洪樂淵)이 사복시(司僕寺)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후운(後運)의,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8필, 별어승마(別御乘馬) 20필, 산둔마(山屯馬) 200필 등을 모두 합쳐 228필 가운데, 3필은 도중에 죽고, 8필은 도중에 병들어 머물렀으며, 9필은 본시(本寺)에 도착하여 병들어 머물러서, 이들을 제외한 실납마(實納馬)는 208필이고, 말의 나이와 털빛[禾毛色]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였으며, 현재 봉진한 말들의 골격이 매우 허약하고 야윈 상태로, 이전보다 더욱 심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해당 봉진관인 제주목사(濟州牧使)를 현고(現告)하게 하고 추고(推考)하고, 앞으로 경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후운.

❖ 嘉慶 十二年 丁卯 七月 十六日 丙辰

○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夫正王法.【措辭見上】答曰, 不允. …….

❖ 순조 7년(1807) 정묘년 7월 16일(병진)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계

○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줄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시원하게 왕부(王府)로 하여금 다시 잡아 오게 하여, 엄중히 심문하여 그 정황을 밝혀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에 안치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청을 열어서 엄하게 묻고, 왕법을 통쾌하게 바로 잡아 주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二年 丁卯 七月 十六日 丙辰

○ 掌令韓翼鎭·韓永建, 持平金載一·孔胤恒, 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

❖ 순조 7년(1807) 정묘년 7월 16일(병진)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島配)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한익진(韓翼鎭) 등의 계

○ 장령 한익진(韓翼鎭)·한영건(韓永建), 지평 김재일(金載一)·공윤항(孔胤恒)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정상을 얻은 뒤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二年 丁卯 七月 二十五日 乙丑

○ 今七月二十五日卯時, …… 翼鎭等曰,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 上曰, 不允.【措辭見上】【出擧條】…… 翼鎭等曰,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上曰, 不允.【措辭見上】【出擧條】…….

❖ 순조 7년(1807) 정묘년 7월 25일(을축)

▢ 추자도(楸子島) 안치 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계

○ 이번 7월 25일 묘시에, 〈중략〉 한익진(韓翼鎭) 등이 아뢰기를,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줄여 안치한 죄인 재민(在敏: 洪在敏)을 시원하게 왕부(王府)로 하여금 다시 잡아 오게 하여, 엄중히 심문하고 그 정황을 밝혀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윤허하지 않는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거조(擧條)를 냄】. 〈중략〉 한익진 등이 아뢰기를, "추자도에 안치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청을 열어서 엄하게 묻고, 왕법을 통쾌하게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윤허하지 않는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거조(擧條)를 냄】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二年 丁卯 七月 二十九日 己巳

○ 丁卯七月二十九日辰時, …… 東植曰,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上曰, 不允.【出擧條】…….

❖ 순조 7년(1807) 정묘년 7월 29일(기사)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島配)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계

○ 정묘년(丁卯: 1807) 7월 29일 진시(辰時)에, 〈중략〉 여동식(呂東植)이 아뢰기를,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정상을 얻은 뒤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윤허하지 않는다."【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二年 丁卯 八月 四日 癸酉

○ 司諫申溵, 掌令申光軾·任百禧, 獻納韓耆裕啓曰,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순조 7년(1807) 정묘년 8월 4일(계유)

▢ 추자도(楸子島)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사간 신욱(申溵) 등의 계

○ 사간 신욱(申溵), 장령 신광식(申光軾)·임백희(任百禧), 헌납 한기유(韓耆裕)가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청을 열어 엄하게 심문하며, 왕법을 통쾌하게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이르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서형수.

❖ 嘉慶 十二年 丁卯 八月 四日 癸酉

○ 掌令申光軾·任百禧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순조 7년(1807) 정묘년 8월 4일(계유)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島配)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신광식(申光軾) 등의 계

○ 장령 신광식(申光軾)·임백희(任百禧)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을 열어 엄중히 심문하게 하여, 정상을 얻은 뒤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二年 丁卯 八月 九日 戊寅

○ 行大司諫金銑, 執義呂東植, 司諫申溆, 掌令申光軾·任百禧, 獻納韓耆裕, 正言尹致謙·林東鎭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措辭見上】…….答曰, 不允.

❖ 순조 7년(1807) 정묘년 8월 9일(무인)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행대사간 김선(金銑) 등의 계

○ 행대사간 김선(金銑), 집의 여동식(呂東植), 사간 신욱(申溆), 장령 신광식(申光軾)·임백희(任百禧), 헌납 한기유(韓耆裕), 정언 윤치겸(尹致謙)·임동진(林東鎭)이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줄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시원하게 왕부(王府)로 하여금 다시 잡아 오게 하여, 엄중히 심문하고 그 정황을 밝혀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청을 열어 엄하게 심문하며, 왕법을 통쾌하게 바로 잡아 주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하략〉. 임금이 이르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二年 丁卯 八月 九日 戊寅

○ 執義呂東植, 掌令申光軾·任百禧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 答, 不允.

❖ 순조 7년(1807) 정묘년 8월 9일(무인)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島配)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집의(執義) 여동식(呂東植) 등의 계

○ 집의(執義) 여동식(呂東植), 장령(掌令) 신광식(申光軾)·임백희(任百禧)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에 대하여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신문을 베풀어 엄히 문초하게 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二年 丁卯 八月 十日 己卯

○ 以濟州牧使韓鼎運, 呂宋國漂流人, 旣知其國號, 送回本國事狀啓, 傳于申絢曰, 異國之漂人, 漂流於濟州, 以書言之不能通, 容服之不能辨, 難以口舌通譯, 不得還歸本國, 初來五名之中, 已爲二人之故, 今至七年, 尙餘三箇. 魚魯莫辨之狀, 難成句讀, 東南遙指之時, 只稱莫可離, 萬里他國之方, 羈寓而存遲七年, 思家之心, 號泣而過. 雖依向化人之例, 仍爲他地方之氓, 供饋糧料, 雖曰分給, 風土言語, 終難服習, 前已送付於盛京, 竟亦不知其國名, 雖爲領護而出送, 至有指示之咨文, 難待彼船之更來, 實有方向之迷所. 日去月易, 歸期難得, 塞鴻之路, 年深歲久, 懷思豈無代馬之情? 漂泊流落之狀, 無異遠近, 懷柔撫摩之道, 寧有內外? 乃於夢想之所不到, 豈意漂人之忽相逢? 初於琉球人接面之時, 脈脈相看, 及其宮平者與談之時, 顯顯猜得數三句語, 已動彼人之搏髀跳躍, 千萬欣聳, 不覺卽地之執手叫噪, 始知壬戌爲水梢而漂留其國, 今玆丁卯, 隨巡見而來逢此人, 由此琉球人之所言, 始識呂宋國之居生. 事實出於匪意, 果爲奇異, 歸當在於不日, 想亦喜懽, 勸其同載而轉送呂宋國之地, 多般言諭, 而難回琉球人之心. 呂宋之於福建, 蓋有舟楫之相通, 濟州之於盛京, 旣無直付之前例, 轉送其本國等節, 自廟堂稟旨分付, 在途時顧恤給糧之道, 領送時住接看檢之節, 皆爲十分着念, 毋或一毫疎忽, 使異邦羈旅之蹤, 知我國懷柔之意, 稟旨當以廟堂分付, 而誤請攸司稟處, 卿則推考.

❖ 순조 7년(1807) 정묘년 8월 10일(기묘)

▢ 제주(濟州)에 표착한 여송국(呂宋國) 사람의 처리

○ 제주목사(濟州牧使) 한정운(韓鼎運)이 여송국(呂宋國) 표류인에 대하여 그 국호를 알게 된 후 본국으로 송환한 사정을 계로 아뢰었는데, 신현(申絢)에게 전교하기를, “이국(異國)의 표류인이 제주(濟州)에 표착하였으나, 글로 말해도 통하지 않고, 복색으로도 식별할 수 없으며, 언어로 통역하기도 어려워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었다. 처음 온 자는 5명이었는데, 그 중 둘은 이미 죽었고, 이제 7년이 지났는데 3명이 남았다. 그들은 물고기와 노루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이고, 말은 문장도 되지 못할 지경이며, 동남쪽을 막연히 가리킬 때도 다만 ‘막가리(莫可離)’라고만 말하였다. 만리 떨어진 타국 땅에서 유숙한 채 7년을 지내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통곡하며 날을 보냈다. 비록 ‘향화인(向化人)’의 예에 따라 거두었지만, 여전히 타지 사람일 뿐이고, 곡식과 양식을 공급해도 비록 나누어 주었다고는 하나 풍토와 언어가 달라 익숙해지기 어려웠다. 전에 성경(盛京)[185]

으로 보내기도 하였으나 결국 국호조차 알 수 없었다. 비록 데리고 나가 송환하려 하였으나, 자문(咨文)에서 가리키는 바를 보면 그들의 배가 다시 올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실로 방향을 알 수 없는 데서 길을 잃은 것이었다. 날은 가고 달은 바뀌어 돌아갈 기약을 얻기 어렵고, 국경 너머 소식은 해가 깊고 세월이 오래도록 막혀 있으니, 그들의 그리워하는 마음이 어찌 대신해 말을 보내는 심정이 없었겠는가? 그들의 떠돌아다닌 형편은 원근을 막론하고 다를 바 없고, 그들을 위무하고 어루만지는 도리는 안팎을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실로 꿈속에서도 이를 생각지 못했는데, 어찌 뜻밖에 표류인을 갑자기 만나게 되었겠는가? 처음에 유구국(琉球國) 사람과 마주하였을 때 서로 멀거니 바라보더니, 그 중 궁평(宮平)이라는 자와 대화했을 때, 두세 마디를 짐작해 알아듣자 이내 그 사람들은 허벅지를 치며 펄쩍 뛰고, 너무 기뻐 날뛰며 땅에 엎드려 손을 잡고 소리치니, 비로소 "임술년(壬戌: 1802)에 수초(水梢)가 되어 그 나라에 표류하였다가, 이번 정묘년(丁卯: 1807)에 순행을 따라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알게 되었다. 이처럼 유구인들의 말을 통해 비로소 여송국[186]의 거주지 사람임을 알게 되었으니, 일이 실로 뜻밖이었고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 그들의 귀국은 멀지 않아 이루어질 것이며, 아마도 몹시 기뻐할 것이다.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여송국으로 돌아가도록 권하였으나, 유구국 사람의 마음은 되돌리기 어려웠다. 여송국과 복건(福建)은 원래 배로 서로 통하였고, 제주와 성경은 곧장 보낸 전례가 없으므로, 본국으로 송환하는 등의 사항은 조정에서 명을 받아 나누어 맡기게 해야 한다. 도중에 곡식을 주어 구휼하는 방도, 데리고 가며 머물러 접대하고 살피는 조목까지 모두 각별히 마음 써야 하며, 털끝만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국에서 떠돌던 자들이 우리나라의 회유(懷柔)하는 뜻을 알게 해야 한다. 그런데 조정의 명을 받아야 할 일인데도 잘못하여 유관 부서에 아뢰려 하였으니, 경이 추고(推考)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제주, 한정운, 막가리, 여송국.

---

185) 성경(盛京): 중국(中國) 랴오닝성(遼寧省) 선양(瀋陽)의 청나라(淸--) 초기(初期) 이름. 베이징(Beijing) 천도(遷都) 후(後)에는 펑톈(奉天)이라고 불렀음.

186) 여송(呂宋): 루손(Luzon)의 음역어로, '루손섬'에 있던 나라를 이름. '루손섬'은 필리핀 제도의 북부에 있는, 필리핀 최대의 섬임. 산맥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함. 주민은 주로 타갈로그족이며, 쌀·담배·코프라·마·목화·사탕수수·커피 따위가 많이 남. 16세기에는 에스파냐령, 19세기 말에는 미국령이 되었음. 면적은 10만 8171㎢.

❖ 嘉慶 十二年 丁卯 八月 十日 己卯

○ 執義呂東植, 掌令申光軾·任百禧, 獻納韓耆裕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夬正典刑.【措辭見上】.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夬正王法.【措辭見上】. …….

❖ 순조 7년(1807) 정묘년 8월 10일(기묘)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집의(執義) 여동식(呂東植) 등의 계

○ 집의(執義) 여동식(呂東植), 장령(掌令) 신광식(申光軾)·임백희(任百禧), 헌납(獻納) 한기유(韓耆裕)가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형되어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다시 잡아 오게 하고,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밝혀,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문하고 엄히 추궁하여, 속히 왕법을 바로잡으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二年 丁卯 八月 十日 己卯

○ 執義呂東植, 掌令申光軾·任百禧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

❖ 순조 7년(1807) 정묘년 8월 10일(기묘)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島配)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집의(執義) 여동식(呂東植) 등의 계

○ 집의(執義) 여동식(呂東植), 장령(掌令) 신광식(申光軾)·임백희(任百禧)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 등에게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신문을 엄히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어,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二年 丁卯 八月 十日 己卯

○ 丁卯八月初十日申時, 上御誠正閣. 坐直承旨入侍時, 左承旨李文會, 右副承旨申絢, 假注書李止淵, 記注官盧鏞·許臻, 檢校待教朴宗薰, 以次進伏訖. 上命絢讀公事. 上曰, 濟州狀啓, 是係緊急, 大臣旣在外, 令有司堂上, 回啓, 可也. 又敎曰, 漂人之逢琉球人, 知其爲呂宋人, 可有還歸之路, 是甚奇事. 文會曰, 渠若粗解文字, 則其在書同文之道, 何難知其國名, 而以其目不識丁, 故今始因他國人知之, 事則甚奇矣. 宗薰曰, 院吏中濟州往還者, 目見其狀, 渠輩之留帶許久, 尙不得學語云矣. 上曰, 貌樣何如云耶? 宗薰曰, 皆犂黑如陶器云矣. 文會曰, 移送盛京之際, 我境沿路, 亦皆各別顧恤, 然後可無致斃之患矣. 上曰, 此等狀啓, 或有直判付之例乎? 文會曰, 多有已例矣. 上命絢, 書濟州牧使狀啓判付. 仍敎曰, 出去後, 以傳敎書出, 可也. 上曰, 臺諫今日傳啓乎? 文會曰, 以鍾秀支屬事, 方有新啓云矣. 上曰, 右相許別諭, 以致祭故相之意言及, 其附奏, 姑未入來乎? 宗薰曰, 附奏則尙未入來, 而聖諭至此, 大臣似可開悟勉膺矣. 上命退, 承史·閣臣, 以次退出.

❖ 순조 7년(1807) 정묘년 8월 10일(기묘)

▢ 제주(濟州) 표류 유구인[琉球人]과 여송인(呂宋人)에 관한 계

○ 정묘년(丁卯: 1807) 8월 10일 신시(申時, 오후 3~5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가고, 바로 승지(承旨)가 입시하였을 때, 좌승지 이문회(李文會), 우부승지 신현(申絢), 가주서 이지연(李止淵), 기주관 노휘·허진(許臻), 검교대교 박종훈(朴宗薰) 등이 차례로 엎드려 인사하고 물러났다. 임금이 신현에게 명하여 공사(公事)를 읽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에서 올린 장계는 긴급한 일에 속하니, 대신들이 바깥에 나가 있는 지금 유사당상(有司堂上)으로 하여금 회계(回啓)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표류인들이 유구인[琉球人]을 만나 여송인(呂宋人)임을 알게 되어, 마침내 돌아갈 길이 생겼으니 이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이문회가 아뢰기를, "그들이 대강이라도 문자를 해득했다면, 문서로 말이 통하는 길이 열려 국호를 알아내는 것이 어찌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글자를 전혀 알지 못하여 이제야 다른 나라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으니, 일이 참으로 기이하옵니다."라고 하였다. 박종훈이 아뢰기를, "원리(院吏)[187]들 가운데 제주를 오가는 자가 그들의 형편을 직접 보았는데, 그

무리가 오랜 세월 머무는 동안에도 아직 말을 배우지 못했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들의 생김새는 어떠하다고 하는가?”라고 하니, 박종훈이 아뢰기를, “모두가 도기(陶器)처럼 새까맣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문회가 아뢰기를, “성경(盛京)으로 이송하는 길에 우리 영토를 따라 가게 될 터인데, 각 지방이 따로따로 그들을 보살펴야만 죽음에 이르는 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장계(狀啓)를 바로 판부(判付)하는 전례도 있느냐?”라고 하시니, 이문회가 아뢰기를, “이미 그런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신현에게 명하여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를 써서 판부하라.”라고 하고, 다시 이르기를, “물러간 뒤에 교서를 내려 보내는 것으로 하라.”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이 오늘 장계를 올렸는가?”라고 하니, 이문회가 아뢰기를, “종수(鍾秀)의 지속(支屬)과 관련된 일로 막 새 장계를 올렸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의정(右相) 허별(許別)이 고상(故相)에게 제사를 올리겠다는 뜻을 따로 전하려 하였다고 들었는데, 그 부주(附奏)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니, 박종훈이 아뢰기를, “부주는 아직 올리지 않았으나, 전교가 이르렀으니 대신도 뜻을 깨닫고 마땅히 힘써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물러나라 명하니, 승지들과 각신(閣臣)들이 차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제주, 류큐인, 루손인.

187) 원리(院吏): 원(院)에 속한 구실아치.

❖ 嘉慶 十二年 丁卯 八月 十一日 庚辰

○ 丁卯八月十一日卯時, …… 象奎曰, 伏見濟州牧使韓鼎運呂宋國漂流人還送本國事狀啓判付, 首尾屢數百言, 惻怛懇摯, 旣憫其漂泊流落之狀, 又軫其懷柔津送之道, 使此絶域異類, 亦被竝育之澤, 今奉頒下之綸言, 益仰無外之聖德, 誠不勝欽誦萬萬. 而第其所謂呂宋事實, 考之諸書, 則淸一統志, 以爲呂宋, 在東海, 自古不通中國, 洪武五年, 始遣使來朝, 萬曆間, 復朝貢, 尋爲佛郎機所竝, 然與中國貿易, 仍稱呂宋. 又明史, 以爲閩人, 以其地近且饒, 富商販者, 往往久居不返, 尤侗外國傳, 呂宋, 萬曆四年, 來貢道福建, 其地去漳近, 故多商舶. 以此見之, 則可知其與閩·漳不遠, 而今爲佛郎機所竝, 雖有中原商人之貿販, 自非通貢之國, 宜無使价之往來, 則入送北京, 轉送本國, 實有難便. 且於壬戌纔有盛京禮部移咨還送之事, 則又不可以呂宋已無之國, 徑據琉球偶認之言, 而具咨更送于盛京. 今番節使行, 使任譯輩, 將此事狀, 詳探于禮部, 如可以有路回送云爾, 則其時治送, 亦未爲晩. 又考倭人所撰和漢三才圖會, 呂宋在大寃之南, 有商人寓居小琉球, 復到呂宋而還來云, 琉球之於呂宋, 自係隣近, 卽此可知. 今見該牧使所報, 以同載回國轉送呂宋之意, 書諭琉球之人, 則彼雖以他國漂人, 難以載去, 浼浼却之云, 而旣是隣近之國, 亦有往來之路. 今若以朝廷知委, 更爲曉諭於琉球漂人, 則宜無不聽, 事甚便好. 彼如尙待風未發, 依此擧行事, 卽爲分付該牧,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 순조 7년(1807) 정묘년 8월 11일(경진)

▢ 제주목(濟州牧) 표류한 여송인(呂宋人) 사람에 관한 계

○ 정묘(丁卯: 1807)년 8월 11일 묘시에, 〈중략〉 심상규(沈象奎)가 아뢰기를, “엎드려 보건대[伏見] 제주목사(濟州牧使) 한정운(韓鼎運)의 「여송국(呂宋國) 표류인을 본국에 되돌려 보낸 사정」 장계(狀啓)를 판부하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수백 자에 달하는 말이 애틋하고 간절하여, 그 표류하고 떠돌며 흩어진 처지를 딱하게 여기고, 또한 그들을 포용하여 돌보고 보내는 도리를 가엾게 여겼으며, 이 먼 이국의 이방인에게도 아울러 배려하는 은혜를 베풀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하사하신 교지를 받들어 더욱 성덕(聖德)을 우러러 칭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말한 루손[呂宋]국의 실정을 여러 서적에서 살펴보면, 《청일통지(淸一統志)》에는 루손[呂宋]이 동해(東海)에 있으며, 예로부터 중국과 통하지 않았고, 홍무(洪武) 5년(1372)에 처음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고, 만력(萬曆) 연간에 다시 조공하였으며, 그 뒤 불랑기(佛郎機)[188]에 편입되었으나, 중

국과 무역하며 여전히 누손[呂宋]이라 칭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명사(明史)》에는 민(閩) 사람이라 하였는데, 지리적으로 가깝고 풍부하여 부유한 상인들이 자주 장기간 거주하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동외국전(倭外國傳)》에 따르면, 누손[呂宋]은 만력 4년(1576)에 복건(福建)에 조공로를 두었으며, 그 땅이 장(漳)[189]에서 가까워 상선이 많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누손[呂宋]은 민·장과 멀지 않은 곳이며, 지금 불랑기에 편입되었으나 중원(中原) 상인들이 무역을 하였으니, 조공국이 아니고서는 사신이 오가며 왕래하기 어려워, 베이징으로 보내 다시 본국으로 전송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임술(壬戌: 1802)년에 비로소 성경(盛京) 예부(禮部)가 이 사안을 접수하여 환송하는 일이 있었으니, 누손[呂宋]이 이미 없는 나라라 할 수 없고, 류큐(琉球)의 우연한 인식에 근거하여 성경에 다시 환송 문서를 보내는 것이 타당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번 사절이 행해지고 번역을 맡은 이들이 이 사정을 예부에 상세히 탐문하여 왕래 길이 있는지 확인한다면, 그때 처리가 늦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또 일본인이 저술한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를 살펴보면 누손[呂宋]은 대만(大寃) 남쪽에 있으며, 상인이 소류큐(小琉球)에 거주하다가 누손[呂宋]에 가서 돌아온다는 기록이 있고, 류큐와 누손[呂宋]은 인접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지금 제주목사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같이 태워 본국으로 전송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류큐인에게 서한을 보내었으나, 그들은 타국 표류인이기에 태워 가기 어렵다고 하며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인접국으로서 왕래하는 길이 있으니, 만약 조정에서 알맞게 알리고 류큐 표류인에게 해명한다면 듣지 않을 리 없고 일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들이 아직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 일에 따라 실행하되 해당 제주목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리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한정운, 루손국.

---

188) 불랑기(佛郎機): 불랑기(佛狼機)로도 쓰며, 중국 명나라 때 포르투갈 사람이 전해 들여온 대포를 이르던 말로, 포르투갈을 뜻하기도 했음.

189) 장(漳): 장허[漳河: 산시/山西성에서 발원하여 웨이허/衛河로 흘러 들어감]를 뜻하기도 하고, 장장[漳江: 푸젠/福建성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윈샤오/雲霄현을 거쳐 바다로 흘러 들어감]을 뜻하기도 함.

❖ 嘉慶 十二年 丁卯 八月 二十三日 壬辰

○ 執義呂東植, 掌令申光軾, 獻納韓耆裕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夬正典刑.【措辭見上】……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措辭見上】……. 答曰, 不允. 金鍾厚·任焞·徐美修事, 不允.

❖ 순조 7년(1807) 정묘년 8월 23일(임진)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집의(執義) 여동식(呂東植) 등의 계

○ 집의(執義) 여동식(呂東植), 장령(掌令) 신광식(申光軾), 헌납(獻納) 한기유(韓耆裕)가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형되어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잡아오게 하고, 엄히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두고 엄히 신문을 설행하여 왕법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김종후(金鍾厚)·임욱(任焞)·서미수(徐美修)의 일도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二年 丁卯 八月 二十三日 壬辰

○ 執義呂東植, 掌令申光軾·任百禧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7년(1807) 정묘년 8월 23일(임진)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島配)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집의(執義) 여동식(呂東植) 등의 계

○ 집의(執義) 여동식(呂東植), 장령(掌令) 신광식(申光軾)·임백희(任百禧)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불러들여 신문하고 엄히 조사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二年 丁卯 九月 九日 丁未

○ 洪樂淵, 以兵曹言啓曰, 卽接濟州人洪得彩呈狀, 則去辛酉年增廣初試入格, 而連遭喪故, 不得赴試矣. 今適因公上來, 願赴謁聖殿試云, 濟州人初試入格者, 許赴他科, 已有定式, 依例許赴於明日謁聖武科殿試, 何如? 傳曰, 允.

❖ 순조 7년(1807) 정묘년 9월 9일(정미)

▢ 증광시(增廣試) 초시(初試)에 합격한 홍득채(洪得彩)에 관한 병조의 계

○ 홍낙연(洪樂淵)이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곧 제주(濟州) 사람 홍득채(洪得彩)가 올린 정장(呈狀)을 접수하였는데, 그는 신유년(辛酉年: 1801)에 증광시(增廣試) 초시(初試)에 합격하였으나, 잇따라 상(喪)을 당하는 일이 있어 이후 시험에 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마침 공무로 상경한 김에, 알성(謁聖) 전시(殿試)에 응시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제주 사람이 초시에 합격한 경우 타 과거(科擧)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전례가 이미 있으니, 그 예에 따라 알성무과(謁聖武科) 시험에 응시하게 해도 되겠는지요?”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증광시, 홍득채.

❖ 嘉慶 十二年 丁卯 九月 十四日 壬子

○ 執義呂東植, 正言李希祖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決正典刑.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夫正王法. …….

❖ 순조 7년(1807) 정묘년 9월 14일(임자)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집의(執義) 여동식(呂東植) 등의 계

○ 집의(執義) 여동식(呂東植), 정언(正言) 이희조(李希祖)가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사(減死)되어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에 명하여 다시 압송하게 하고,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전형(典刑)을 단호히 바로잡게 하십시오. 〈중략〉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신문하여 엄하게 캐물어, 왕법(王法)을 속히 바로잡게 하십시오. 〈하략〉."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二年 丁卯 九月 十四日 壬子

○ 執義呂東植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 순조 7년(1807) 정묘년 9월 14일(임자)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島配)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집의(執義) 여동식(呂東植)의 계

○ 집의(執義) 여동식(呂東植)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아울러 왕부(王府)에 명하여, 엄문(嚴問)하여 실정을 기어이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도록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二年 丁卯 九月 十五日 癸丑

○ 執義呂東植, 掌令申光軾, 正言李希祖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7년(1807) 정묘년 9월 15일(계축)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집의(執義) 여동식(呂東植) 등의 계

○ 집의 여동식(呂東植), 장령 신광식(申光軾), 정언 이희조(李希祖)가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형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왕부에 명하여 다시 잡아오게 하고 국청(鞫廳)을 열어 진실을 밝히고 시원하게 전형(典刑)을 바로잡으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또한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에 대해서도 국청을 열어 엄하게 묻고 속히 왕법을 바로잡으시옵소서.【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하략〉.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二年 丁卯 九月 十五日 癸丑

○ 執義呂東植, 掌令申光軾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 순조 7년(1807) 정묘년 9월 15일(계축)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島配)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집의(執義) 여동식(呂東植) 등의 계

○ 집의 여동식(呂東植), 장령 신광식(申光軾)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아울러 왕부(王府)에 명하여,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문(嚴問)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게 하여,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도록 하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二年 丁卯 九月 二十七日 乙丑

○ 掌令尹之鉉·李若洙, 正言趙鐘永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7년(1807) 정묘년 9월 27일(을축)

▢ 추자도(楸子島)에 유배된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장령 윤지현(尹之鉉) 등의 계

○ 장령 윤지현(尹之鉉)·이약수(李若洙), 정언 조종영(趙鐘永)이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형하여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즉시 왕부에 명하여 다시 잡아 오게 하여 국청을 열어 엄하게 심문하여 실정을 기어이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르도록 청합니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청을 열어 엄하게 심문하여, 빠르게 왕법을 바르도록 청합니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二年 丁卯 十月 三日 辛未

○ 李文會, 以禮曹言啓曰, 卽接大靜幼學李爀所志, 則以爲去丙寅秋, 入格於本牧式年文科初試, 而以遠島越海之致, 未及趁赴於會圍, 今纔受公文以來, 特爲許赴於今此庭試事, 呈狀矣. 本牧處在海外, 故式年科初試儒生之未赴會試者, 許赴於庭試會試, 曾有已例, 而今番殿試, 旣兼會試, 依例許赴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 순조 7년(1807) 정묘년 10월 3일(신미)

▢ 대정(大靜)의 유학 이혁(李爀)의 전시(殿試) 응시에 관한 예조의 계

○ 이문회(李文會)가 예조(禮曹)의 말로 아뢰기를, "대정(大靜)의 유학 이혁(李爀)이 올린 소지(所志)를 접수한 즉, 병인년(1806) 가을에 본 목(牧)의 식년 문과 초시(初試)에 입격하였으나, 먼 섬에서 바다를 건너야 하는 까닭에 회시(會試)에 나아가지 못하였고, 이제 막 공문이 접수되어 와서 특별히 이번 전시(殿試)에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기를 청합니다. 본 목은 해외에 위치하고 있어 식년과 초시에서 입격한 유생이 회시에 응하지 못한 경우, 정시(庭試)와 회시에 응시하도록 허락한 전례가 있으며, 이번 전시는 이미 회시를 겸하고 있으므로, 전례에 따라 응시를 허락하라는 뜻으로 지시를 내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 이혁, 전시.

❖ 嘉慶 十二年 丁卯 十月 三日 辛未

○ 金魯敬, 以兵曹言啓曰, 今丁卯式年武科初試入格濟州武士申景周, 會試時, 因風高, 未得越海赴試, 今始上來, 願赴庭試武科, 今五月合慶庭試武科初試入格閑良朴熙永, 以朞服未葬, 陳試矣. 竝依例, 許赴於明日武科殿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7년(1807) 정묘년 10월 3일(신미)

▢ 제주(濟州)의 신경주(申景周)와 박희영(朴熙永)의 응시(應試)에 관한 병조의 계

○ 김노경(金魯敬)이 병조(兵曹)의 일을 가지고 아뢰기를, “이번 정묘년(丁卯年: 1807) 식년(式年) 무과(武科) 초시(初試)에 입격한 제주(濟州)의 무사(武士) 신경주(申景周)가 회시(會試) 때 바람이 거세어 바다를 건너지 못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하였는데, 이제야 올라와 무과 정시(庭試)에 응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번 5월 합경(合慶) 정시(庭試) 무과 초시에 입격한 한량(閑良) 박희영(朴熙永)은 기복(朞服)[190] 중이었으나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아 시험에 응하였사오니, 이 둘 다 이미 정해진 전례에 따라 내일 있을 무과 전시(殿試)에 응하게 허락할 뜻을 전하오니, 감히 아뢰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알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신경주, 박희영.

190) 기복(朞服): 일 년 동안 입는 상복.

❖ 嘉慶 十二年 丁卯 十月 六日 甲戌

○ 掌令尹之鉉·李若洙, 正言趙鐘永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순조 7년(1807) 정묘년 10월 6일(갑술)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장령 윤지현(尹之鉉) 등의 계

○ 장령 윤지현(尹之鉉)·이약수(李若洙), 정언 조종영(趙鐘永)이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형되어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에 명하여 다시 잡아 오게 하고,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십시오. 〈중략〉 또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에 대해서도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신문하고, 시원히 왕법(王法)을 바로잡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二年 丁卯 十月 六日 甲戌

○ 掌令尹之鉉·李若洙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순조 7년(1807) 정묘년 10월 6일(갑술)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윤지현(尹之鉉) 등의 계

○ 장령 윤지현(尹之鉉)·이약수(李若洙)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에 명하여 엄문(嚴問)하여 실정을 기어이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한 사안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二年 丁卯 十月 十一日 己卯

○ 今十月十一日辰時, …… 之鉉等曰,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上曰, 不允.【出擧條, 措辭見上】…….

❖ 순조 7년(1807) 정묘년 10월 11일(기묘)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의 처벌에 관한 계

○ 이번 10월 11일 진시에, 〈중략〉 윤지현(尹之鉉) 등이 아뢰기를, "추자도(楸子島)에 감형하여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에 명하여 다시 데려와 국청을 열고 엄하게 심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내었으며,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 嘉慶 十二年 丁卯 十月 二十日 戊子

○ 丁卯十月二十日辰時, …… 之鉉等曰,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上曰, 不允.【出擧條】…… 之鉉等曰,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措辭見上】上曰, 不允.【出擧條】…….

❖ 순조 7년(1807) 정묘년 10월 20일(무자)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계

○ 정묘(丁卯: 1807)년 10월 20일 진시에, 〈상략〉 윤지현(尹之鉉) 등은 아뢰기를, "추자도(楸子島)에 감형하여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왕부에 급히 명하여 다시 데려오게 하고, 국청을 열어 엄하게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거조(擧條)를 냄】〈중략〉 윤지현 등은 아뢰기를,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청을 열어 심문을 엄하게 하고, 속히 왕법에 따라 처리하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二年 丁卯 十一月 五日 壬寅

○ 丁卯十一月初五日辰時,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 上曰, 不允.【出擧條】……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夫正王法. 上曰, 不允.【出擧條】…….

❖ 순조 7년(1807) 정묘년 11월 5일(임인)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계

○ 정묘(丁卯: 1807)년 11월 5일 진시에, “〈중략〉 추자도(楸子島)에 감형하여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왕부에 급히 명하여 다시 데려오게 하며, 국청을 열어 엄하게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거조(擧條)를 냄】〈중략〉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청을 열어 심문을 엄하게 하여, 속히 왕법에 따라 처리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二年 丁卯 十一月 十八日 乙卯

○ 禁府啓目粘連, 向前金宗壽亦, 錄啓重囚, 不勤防守, 破其枷鎖, 越獄逃躲, 而期限已過, 尙未捉捕, 揆以法意, 誠極駭然, 以此照律, 何如? 判付啓, 依允. 又啓目粘連, 向前蔡一祥亦, 觀其所供, 本事雖屬軍務, 屯長無異平民, 混施棍罰, 事極輕率, 以此照律, 何如? 判付啓, 依允. 又啓目粘連, 濟州牧放未放修啓冊子中, 本府所管定配罪人未放秩李致薰乙良, 依啓聞施行爲白乎旀, 他餘罪人等, 令刑曹稟處, 何如? 判付啓, 依允.

❖ 순조 7년(1807) 정묘년 11월 18일(을묘)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계

○ 금부(禁府)의 계목점련(啓目粘連)에, "앞전 김종수(金宗壽)가 중죄인으로 기록하여 아뢰었는데, 방수(防守)에 힘쓰지 않아서 그 가쇄(枷鎖)를 풀고 탈옥하여 도망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이미 지났으나 아직 잡지 못하였나이다. 법의로써 살피건대, 참으로 매우 해괴한 일이니, 이를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판결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계목점련에, "앞전 채일상(蔡一祥)도 그 진술을 살펴보니 이 사안은 군무(軍務)에 속하는 것이지만, 둔장(屯長)도 평민(平民)과 다르지 않으니 곤벌(棍罰)을 혼용하여 실시하게 하고, 이 일은 매우 경솔한 것이니, 이를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판결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계목점련에, "제주목(濟州牧)이 방미방(放未放) 수계(修啓) 책자(冊子) 중에, 본 부에서 관할하는 정배죄인으로 미방질(未放秩)인 이치훈(李致薰)은 계문(啓聞)에 따라 시행하사오며, 여타 다른 죄인들은 형조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판결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방미방, 미방질.

❖ 嘉慶 十二年 丁卯 十二月 一日 戊辰

○ 以濟州牧使韓鼎運狀啓, 莫重節果進上代封, 惶恐待罪事, 傳于朴宗薰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7년(1807) 정묘년 12월 1일(무진)

▢ 제주목사(濟州牧使) 한정운(韓鼎運)의 절과(節果) 진상에 관한 건

○ 제주목사(濟州牧使) 한정운(韓鼎運)의 장계(狀啓)에 의하니, “막중한 절과(節果) 진상을 대봉(代封)한 일로 황송하게도 죄를 기다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박종훈(朴宗薰)에게 전교하기를, “죄를 기다리지 말 일로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한정운, 절과.

❖ 嘉慶 十二年 丁卯 十二月 二日 己巳

○ 以濟州防禦使韓鼎運狀啓, 薦新與進上洞庭橘不得如數封進惶恐待罪事, 傳于朴宗薰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7년(1807) 정묘년 12월 2일(기사)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한정운(韓鼎運)이 진상할 동정귤(洞庭橘)에 관한 건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한정운(韓鼎運)의 장계(狀啓)에 의하면, “천신(薦新)하고 진상할 동정귤(洞庭橘)이 수량대로 봉진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두렵고 황송하여 죄를 기다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박종훈(朴宗薰)에게 전교하기를, “죄를 기다리지 말 일로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방어사, 한정운, 동정귤.

❖ 嘉慶 十二年 丁卯 十二月 二日 己巳

○ 朴宗薰, 以禮曹言啓曰, 卽接濟州牧使韓鼎運狀啓謄報, 則今十二月令宗廟·景慕宮薦新乳柑, 如數封進, 而同月令宗廟薦新洞庭橘, 備數無路, 以八十五箇都封上送, 以爲稟旨薦進事爲辭矣. 乳柑依例當日薦進, 洞庭橘雖未備數, 分排薦新, 多有已例, 今亦依前例分排, 當日一體薦進, 何如? 傳曰, 允.

❖ 순조 7년(1807) 정묘년 12월 2일(기사)

▢ 제주목사(濟州牧使) 한정운(韓鼎運)의 유감(乳柑)과 동정귤(洞庭橘) 진상에 관한 건

○ 박종훈(朴宗薰)이 예조(禮曹)의 말로 아뢰기를, “곧 접한, 제주목사(濟州牧使) 한정운(韓鼎運)의 장계(狀啓) 등보(謄報)를 보건대, 올 12월령의 종묘(宗廟) 천신(薦新)과 경모궁(景慕宮) 천신 유감(乳柑)은 수량대로 봉진(封進)하였으나, 12월령으로 종묘에 천신할 동정귤(洞庭橘)은 정해진 수량을 준비할 방도가 없어, 85개만을 모두 봉하여 올려 보내고, ‘품지(稟旨)를 따라 천진(薦進)하는 일’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유감은 전례에 따라 당일에 천진하는 것이 마땅하고, 동정귤도 비록 수량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나 분배하여 천신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사오니, 이제 또한 전례에 따라 나누어 배정하여 당일에 함께 천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한정운, 유감, 동정귤.

❖ 嘉慶 十二年 丁卯 十二月 三日 庚午

○ 宋知濂,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濟州牧使韓鼎運災實狀啓, 則分等不爲擧論數件應行之事, 候風涉海, 恐有後時之慮, 謹援已例, 一邊擧行, 一邊馳啓爲辭矣. 其一, 新舊還之一時竝督, 恐傷民力, 舊還姑爲仍停事也, 其一, 軍兵逃老故病廢之類, 嚴飭各該邑, 使之塡充, 依例合操事也, 觀此狀辭, 雖未得爲純豐可知, 其優於免歉, 爲島民誠爲萬幸, 後錄二條, 先已擧行, 且是年例所請, 竝依狀請施行事, 分付, 何如? 傳曰, 允.

❖ 순조 7년(1807) 정묘년 12월 3일(경오)

▢ 제주목사(濟州牧使) 한정운(韓鼎運)의 재실장계(災實狀啓)에 관한 비변사의 계

○ 송지렴(宋知濂)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곧 제주목사(濟州牧使) 한정운(韓鼎運)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살펴보건대, 분등(分等)하여 논의하지 않아도 될 몇 가지 응당 시행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람을 기다려 바다를 건너다가는 뒤늦을 염려가 있어, 삼가 이미 있던 사례에 따라 한쪽에서는 거행하고 한쪽에서는 급히 장계를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신환(新還)과 구환(舊還)을 한 때에 모두 독려하면 백성의 힘을 해칠까 두려우니, 구환은 잠시 그대로 정지하는 일로 하였사오며, 하나는, 군병(軍兵) 가운데 도망하거나 늙고 병들어 폐질된 자들을 각 해당 고을에 엄히 명하여 이를 충원케 하고, 전례에 따라 합당하게 조련하도록 한 일이옵니다. 이 장계의 사유를 살펴보면, 비록 완전히 풍성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흉년을 면한 것보다는 나은 바가 있어, 도민에게는 실로 큰 다행이 되옵니다. 뒤에 기록된 두 조항은 이미 앞서 거행하였고, 또 올해 해마다 전례에 따라 청하는 바도 있으니, 모두 장계의 청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한정운, 재실장계.

❖ 嘉慶 十二年 丁卯 十二月 八日 乙亥

○ 丁卯十二月初八日辰時, …… 鼎烈曰, 猗我列聖朝治法政謨, 何莫非監法之資, 而最是成廟朝, 尤爲卓越, 耽羅國獻眞珠, 上却之, 又命諸道進貢虎豹皮減其數, 我聖祖沖年嗣服, 不寶遠物之盛德, 可以仰揣, 此與漢文帝却馬之意, 同一揆矣. 向日講筵下番, 以崇節儉上行下效之意, 有所仰奏, 而大抵崇節儉卽帝王之盛節也. 我國所産, 亦可足用, 不必遠求於燕肆·倭館之物種, 雖以進上物種言之, 如屬不緊名色, 則亦令有司之臣減之, 一以爲玩物喪志之戒, 一以爲祛奢崇儉之道, 是臣之望也. 上曰, 下番陳之. …….

❖ 순조 7년(1807) 정묘년 12월 8일(을해)

▢ 탐라국(耽羅國)의 진주(眞珠) 진상에 관한 윤정열(尹鼎烈)의 계

○ 정묘[丁卯: 1807]년 12월 초8일 진시(辰時)에, 〈상략〉 윤정열(尹鼎烈)이 아뢰기를, “아! 우리 여러 성조(聖祖)들이 나라를 다스린 법과 정사(政事)의 계책은, 어느 것이나 모두 법을 살피는 자원이 아니었던 것이 없었사오며, 그 중에서도 특히 성묘조(成廟朝)는 더욱 뛰어났사옵니다. 예전에 탐라국(耽羅國)이 진주(眞珠)를 바치매, 임금이 이를 물리쳤고, 또 여러 도(道)에 명하여 호피(虎皮)와 표범가죽(豹皮)을 바칠 때에도 그 수를 줄이게 하셨으며, 우리 성조께서 어린 나이에 왕위를 계승하셨으나, 먼 나라의 귀한 물건을 보물로 여기지 않으신 그 성덕(盛德)을 우러러 살펴볼 수 있사옵니다. 이는 한나라 문제(漢文帝)가 준마(駿馬)를 물리친 뜻과도 같은 이치이옵니다. 지난날 강연(講筵)에서 하번(下番)으로서, 검소함을 숭상하여 윗사람이 행하면 아랫사람이 본받는다는 뜻으로 삼가 아뢴 바 있사온데, 대개 검소함을 숭상하는 것이 곧 제왕의 훌륭한 절도이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만으로도 족히 쓸 수 있으니, 반드시 연나라 시장[燕肆]이나 왜관(倭館)의 물품을 멀리 구할 필요가 없사오며, 비록 진상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절실하지 않은 명색(名色)의 물종(物種)이라면, 또한 유사(有司)의 신하들로 하여금 줄이게 하고, 한편으로는 ‘완물상지(玩物喪志)’를 경계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치를 버리고 검소함을 숭상하는 도를 펴고자 함이옵니다. 이는 신의 바람이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하번으로서 아뢴 바이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탐라국, 진주.

1808年

(순조 8)



❖ 嘉慶 十三年 戊辰 一月 十五日 壬子

○ 兵批, “…… 濟州監牧官單金商礎, …….”

❖ 순조 8년(1808) 무진년 1월 15일(임자)

▢ 제주(濟州)의 감목관(監牧官)에 김상초(金商礎)를 단부(單付)함

○ 병비(兵批)에, “〈상략〉 제주(濟州)의 감목관(監牧官)에 김상초(金商礎)를 단부(單付)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감목관, 김상초.

❖ 嘉慶 十三年 戊辰 三月 十五日 辛亥

○ 掌令趙章漢啓曰, …… 新除授掌令姜鳳瑞, 時在全羅道濟州地, …… 請竝斯速乘馹上來事, 下諭. 答曰, 不允, 白師健事, 下諭事, 依啓.

❖ 순조 8년(1808) 무진년 3월 15일(신해)

▢ 새로 임명한 장령 강봉서(姜鳳瑞)가 제주에 있어 올라오게 하라는 조장한(趙章漢)의 계

○ 장령 조장한(趙章漢)이 아뢰기를, "〈상략〉 새로 임명한 장령 강봉서(姜鳳瑞)는 당시 전라도 제주(濟州) 지역에 있으니, 〈중략〉 모두 곧바로 마필을 타고 올라오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하유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백사건(白師健)의 일로 하유할 일을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봉서.

❖ 嘉慶 十三年 戊辰 五月 五日 庚子

○ 持平尹東壽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答府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순조 8년(1808) 무진년 5월 5일(경자)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지평 윤동수(尹東壽)의 계

○ 지평 윤동수(尹東壽)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명하여 국문(鞫問)을 베풀어 엄하게 문초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어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부(府)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아래에 유시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五月 十三日 戊申

○ 全羅道儒生 …… 等, 疏曰, …… 其牧濟州也, 見州民採鰒之苦, 平生不啗鰒, 且耽羅舊俗, 不葬其親, 死輒委之於壑, 虔使備棺槨, 教以窆埋, 州之葬其親, 自此而始, 一境歎服, 教化大行. 一日, 虔夢見三百餘人叩謝庭下曰, 賴公之惠, 得免暴骸, 無以報恩, 應於今年, 生育賢孫. 先是虔之子無嗣, 其後果得三孫, 因以子姓繁衍, 此則功德之及人者然也. 若言節義之表異, 則虔在文宗末年, 休官杜門, 謝絶人事, 手抄四書·三經·左傳·綱目, 以寓懷焉. 光廟在潛邸時, 屈駕三訪, 示以微意, 虔不肯從, 端宗朝癸酉, 特除平安道觀察使, 及至光廟受禪, 虔稱病解官, 屛居田里, 托以靑盲, 號以眩菴, 申叔舟等, 謂虔佯盲, 致虔於上前, 使人持針擬刺以試之, 虔瞪視不目逃, 竟不能起, 而卒免於禍. 旣沒, 諡以貞武, 諡法淸白守節曰貞, 剛强直理曰武, 且錄淸白吏, 此則名節之表異者然也. 故相臣李廷龜所撰碑文有曰, 惟廉身持, 惟善之施, 是公細行, 人可以窺, 德行政事, 用儒達吏, 皆學之推, 亦公餘事, 壁立危朝, 見機自守, 利不爲疚, 威莫能屈, 艱貞保哲, 有是哉節. 故右贊成臣吳億齡, 亦於墓文有曰, 旣介而剛, 氷壺鐵壁, 二字之褒, 百年惟馥. 故相臣金堉, 撰海東名臣錄, 別立虔傳而表揚之, 耽羅誌, 亦備述其居官時嘉政遺化, 而至今立祠祀之. 此皆記實之文, 明有考據, 有不可誣者也. 臣謹稽祭法曰, 聖王之制祀典也, 凡有功德於民則祀之, 若虔, 以禮化俗, 教民葬法者, 揆以古聖王祭法, 亦足以祀之, 況其道學相傳, 爲世師表, 而淸操大節, 又如彼卓卓者哉? 當時尙論之士, 以爲志無負於六臣, 而事尤難於先退者, 誠知言矣. 嗚呼, 恭惟我肅宗大王, 命立六臣之祠, 仍有華額之頒, 此實追述世祖大王, 稱六臣以後世忠臣之遺意, 而虔之卒也, 世祖贈諡曰貞武, 以表其壁立之節, 則是亦與褒揚六臣之意, 同一義也. …….

❖ 순조 8년(1808) 무진년 5월 13일(무신)

▢ 기건(奇虔) 관련 제주(濟州) 풍속에 관한 상소

○ 전라도 유생 〈상략〉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상략〉 제주목(濟州牧)의 경우, 주민들이 전복을 채취하느라 고생하는 것을 보고, 평생 전복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또 탐라(耽羅)의 옛 풍속에 부모를 장사지내지 않고, 죽으면 곧바로 시신을 골짜기에 버렸는데, 기건(奇虔)[191]은 관곽(棺槨)을 갖추어 마련하게 하고 묘를

191) 기건(奇虔, ? ~1460년):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1443년(세종 25) 12월부터 1445년(세종 27) 12월까지 제주목사로 재임했음. 이때 그는 주민을 생각해 전복을 입에 대지 않고, 당시 제주에

파 묻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제주(濟州) 사람들이 부모를 장례 지내게 된 것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며, 온 고을 사람들이 감탄하여 복종하고 교화가 크게 시행되었습니다. 어느 날 건은 꿈에 300여 명이 뜰 아래에서 절하며 감사를 표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신이 버려지는 수모를 면하였으니 보은할 길이 없습니다. 그 보답으로 올해 공께서는 훌륭한 손자를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전까지는 건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이후 실제로 3손자를 얻게 되어,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으니, 이는 공덕이 백성에게 미쳐 다시 공에게 돌아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의(節義)를 드러낸 표본이라 한다면, 건은 문종(文宗) 말년에 벼슬을 그만두고 문을 닫은 채 세상일을 끊고, 사서삼경(四書三經)과 《좌전(左傳)》, 《강목(綱目)》을 손수 베껴가며 뜻을 붙잡아 살았습니다. 광묘(光廟, 세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 잠저(潛邸)에 있을 때 세 번이나 찾아와 뜻을 넌지시 내비쳤지만, 건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단종조 계유년(1453)에는 특별히 평안도 관찰사로 제수되었지만, 광묘가 즉위하자 병을 핑계로 벼슬을 사양하고 시골에 은거하며 자신이 청맹(靑盲)이라 하고 호를 '현암(眩菴)'이라 하였습니다. 신숙주 등이 건이 눈먼 것을 가장한 것이라 하여 상감 앞으로 불러들이고, 사람을 시켜 바늘로 찔러 보려 했으나, 건은 눈을 부릅떴으나 끝내 피하지 않았고, 일어나지도 못하여 마침내 화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에는 '정무(貞武)'라는 시호를 받았으니, 시법(諡法)에 '맑고 절개를 지킨 이'는 '정(貞)'이라 하고, '강직하고 도리에 밝은 이'는 '무(武)'라 하며, 청백한 관리에게 이 시호를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절개를 드러낸 이름입니다. 고(故) 상신 이정구(李廷龜)가 지은 비문에 이르기를, "오직 청렴하고 착한 일을 행한 것이 공의 사소한 일들이며, 덕과 정치, 유학으로 세속을 이끈 것은 모두 학문에서 나왔다. 역사적으로 위태로운 조정에서 위엄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지켰고, 이익에는 병들지 않으며, 권세에도 굽히지 않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곧고, 지혜를 간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고 우찬성 오억령(吳億齡) 또한 묘지명에 이르기를, "그는 참되고 강직하며, 얼음 항아리 같고 쇠벽과도 같았다. 두 자로 된 칭송은 백 년이 지나도록 향기롭다."라고 했습니다. 고 재상 김육(金堉)은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을 지으며, 별도로 건의 전기를 두고 표창하였으며, 《탐라지(耽羅誌)》에도 그가 재직 중 베푼 좋은 정사와 유풍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실을 기록한 문헌이며, 근거가 분명하여 억지로 꾸민 것이 아닙니다. 신이

서는 부모가 죽으면 구덩이나 언덕에 버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예를 갖추어 장사 지내도록 교화하였다고 함.

삼가 제도에 대해 살펴보니, 성왕(聖王)의 제도에 따라 제사를 지낼 때, 백성에게 공덕을 끼친 사람은 모두 제사를 지내게 하였습니다. 만약 건이 예(禮)로 풍속을 교화하고 백성에게 장례법을 가르친 공이 있다면, 옛 성왕의 제도에 견주어 보아도 제사를 지내기에 족합니다. 하물며 그의 도학이 대대로 전해졌고, 세상의 스승이 되었으며, 청렴한 절개가 저토록 뛰어난데야 말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상론하던 사림은, "건의 뜻은 육신(六臣)에게 부끄럽지 않았으며, 오히려 앞서 물러난 점이 더욱 어렵다."라고 하였으니, 참으로 통찰한 말입니다. 아, 생각건대 우리 숙종대왕께서는 육신의 사당을 세우도록 명하고, '화액(華額)'을 내려 편액하였으니, 이는 세조대왕이 육신의 후세 충신에 대한 포상을 잇는 뜻을 추숭한 것입니다. 또 건이 세상을 떠난 후 세조가 '정무'란 시호를 내려 절개를 드러낸 것을 기렸으니, 이는 곧 육신을 표창한 뜻과 한가지라 하겠습니다. 〈하략〉.

△ 주제어: 기건, 제주, 탐라.

❖ 嘉慶 十三年 戊辰 五月 十六日 辛亥

○ 司諫洪羲膺, 持平尹東壽, 獻納兪鉉章, 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夬正典刑.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5월 16일(신해)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사간 홍희응(洪羲膺) 등의 계

○ 사간(司諫) 홍희응(洪羲膺), 지평(持平) 윤동수(尹東壽), 헌납(獻納) 유현장(兪鉉章)이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형(減刑)되어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돌려 데려와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십시오. 〈중략〉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문하여 엄히 추궁하고, 왕법을 시원히 바로잡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三年 戊辰 五月 十六日 辛亥

○ 持平尹東壽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5월 16일(신해)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계

○ 지평(持平) 윤동수(尹東壽)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 등에게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문을 베풀어 엄히 추궁하게 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왕법을 시원히 바로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五月 十七日 壬子

○ 持平尹東壽, 獻納兪鉉章, 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5월 17일(임자)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지평 윤동수(尹東壽)의 계

○ 지평(持平) 윤동수(尹東壽), 헌납(獻納) 유현장(兪鉉章)이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형되어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다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왕법을 시원히 바로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에 대해서도 국문을 베풀어 엄히 추궁하여 왕법을 시원히 바로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三年 戊辰 五月 十七日 壬子

○ 持平尹東壽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순조 8년(1808) 무진년 5월 17일(임자)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지평 윤동수(尹東壽)의 계

○ 지평(持平) 윤동수(尹東壽)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에 대해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문을 베풀어 엄히 추궁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시원히 바로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아래에 하교할 것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五月 二十六日 辛酉

○ 司諫洪羲膺, 掌令安光宇, 正言鄭文始·李永純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夬正典刑【措辭見上】……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5월 26일(신유)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사간 홍희응(洪羲膺) 등의 계

○ 사간(司諫) 홍희응(洪羲膺), 장령(掌令) 안광우(安光宇), 정언(正言) 정문시(鄭文始)·이영순(李永純)이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형(減刑)되어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다시 잡아 오게 하고,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밝혀,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에 대해서도 국문을 베풀어 엄히 추궁하고, 왕법(王法)을 시원히 바로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三年 戊辰 五月 二十六日 辛酉

○ 掌令安光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5월 26일(신유)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掌令) 안광우(安光宇)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에 대하여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문을 베풀어 엄히 추궁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어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五月 二十七日 壬戌

○ 掌令安光宇, 正言李永純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5월 27일(임술)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 등의 계

○ 장령(掌令) 안광우(安光宇), 정언(正言) 이영순(李永純)이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형되어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다시 잡아오게 하고,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곧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문하여 엄히 추궁하고, 곧 왕법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三年 戊辰 五月 二十七日 壬戌

○ 掌令安光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5월 27일(임술)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掌令) 안광우(安光宇)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여, 엄히 추궁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며 곧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五月 二十九日 甲子

○ 持平尹東壽, 正言鄭文始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중략〉.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措辭見上】…….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5월 29일(갑자)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지평 윤동수(尹東壽)의 계

○ 지평(持平) 윤동수(尹東壽), 정언(正言) 정문시(鄭文始)가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형되어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다시 압송하게 하여, 엄히 국문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곧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문하여 엄히 추궁하고 곧 왕법(王法)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三年 戊辰 五月 二十九日 甲子

○ 持平尹東壽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5월 29일(갑자)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지평 윤동수(尹東壽)의 계

○ 지평(持平) 윤동수(尹東壽)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문을 베풀어 엄히 추궁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五月 三十日 乙丑

○ 戊辰五月三十日辰時, …… 光宇等曰,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上曰, 不允.【出擧條】…… 光宇等曰,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措辭見上】上曰, 不允.【出擧條】…… 光宇等曰,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上曰, 不允.【出擧條】…….

❖ 순조 8년(1808) 무진년 5월 30일(을축)

▢ 추자도(楸子島)와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처벌에 관한 안광우(安光宇) 등의 계

○ 무진년(戊辰年, 1808년) 5월 30일 진시(辰時)에, 〈중략〉 안광우(安光宇) 등이 아뢰기를, "추자도(楸子島)에 감사(減死)로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도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하고 실정을 캐어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중략〉 안광우 등이 아뢰기를,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문하여 엄히 추궁하고 속히 왕법을 바로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중략〉 안광우 등이 아뢰기를,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문을 베풀어 엄히 추궁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을 바로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추자도, 제주목, 홍재민, 서형수,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一日 丙寅

○ 持平尹東壽, 正言李永純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1일(병인)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지평 윤동수(尹東壽)의 계

○ 지평(持平) 윤동수(尹東壽), 정언(正言) 이영순(李永純)이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사(減死)하여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도로 잡아 오게 하여 엄히 국문하고 실정을 밝혀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잡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문하여 엄히 추궁하고 속히 왕법을 바로잡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一日 丙寅

○ 持平尹東壽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1일(병인)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지평 윤동수(尹東壽)의 계

○ 지평(持平) 윤동수(尹東壽)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보내 엄히 국문하고, 실정을 밝혀 시원하게 전형(典刑)을 바로잡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二日 丁卯

○ 掌令申光軾, 正言鄭文始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2일(정묘)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장령 신광식(申光軾) 등의 계

○ 장령 신광식(申光軾), 정언 정문시(鄭文始)가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형하여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안치하고, 시원하게 왕부(王府)로 보내 다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밝혀 시원하게 전형(典刑)을 바로잡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에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안치하고, 엄히 국문하며 왕법(王法)을 시원하게 집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二日 丁卯

○ 掌令申光軾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2일(정묘)

▢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신광식(申光軾)의 계

○ 장령 신광식(申光軾)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명하여 엄히 국문하도록 하고, 실정을 시원하게 파악하여 전형(典刑)을 바로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三日 戊辰

○ 司諫洪羲膺, 持平尹東壽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3일(무진)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사간 홍희응(洪羲膺) 등의 계

○ 사간 홍희응(洪羲膺), 지평 윤동수(尹東壽)가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형하여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안치하고, 즉시 왕부(王府)에 명하여 다시 잡아오게 하여 엄하게 국문하여 실정을 파악하고 전형을 바로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추자도에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안치하고 엄히 국문하며 왕법을 바로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三日 戊辰

○ 持平尹東壽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3일(무진)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지평 윤동수(尹東壽)의 계

○ 지평 윤동수(尹東壽)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명하여 엄하게 국문을 설치하고, 실정을 파악하여 전형을 바로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四日 己巳

○ 持平柳遠鳴, 正言李永純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夫正王法.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4일(기사)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지평 유원명(柳遠鳴) 등의 계

○ 지평 유원명(柳遠鳴), 정언 이영순(李永純)이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형하여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급히 왕부(王府)에 돌아오게 하여 엄하게 국문하여 실정을 파악하고, 전형을 바로잡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엄하게 국문할 국문소를 설치하여 왕법대로 전형을 바로잡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四日 己巳

○ 持平柳遠鳴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4일(기사)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지평 유원명(柳遠鳴)의 계

○ 지평 유원명(柳遠鳴)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명하여 엄하게 국문소를 설치하고, 실정을 파악하여 전형을 바로잡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五日 庚午

○ 戊辰閏五月初五日辰時, …… 羲膺等曰,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 上曰, 不允.【出擧條】…… 羲膺等曰, 請楸子島安置罪人徐澄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上曰, 不允.【出擧條】…… 光宇等曰,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上曰, 不允.【出擧條】…….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5일(경오)

▢ 추자도(楸子島)와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계

○ 무진(戊辰:1808) 윤5월 5일 진시에, 〈상략〉 홍희응(洪羲膺) 등이 청하기를, “추자도(楸子島)에 있는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감형과 안치, 시원하게 왕부(王府)에 명하여 다시 데려와 엄하게 심문하여 실정을 파악하고, 빠르게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상(上)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중략〉 홍희응 등이 청하기를, “추자도에 있는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안치하고 엄하게 심문하여 빠르게 왕법대로 처벌할 것을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상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중략〉 안광우(安光宇) 등은 청하기를,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에 명하여 엄하게 심문하고 실정을 파악하여 빠르게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상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추자도, 제주목.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六日 辛未

○ 掌令安光宇, 正言李永純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6일(신미)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 등의 계

○ 장령(掌令) 안광우(安光宇)와 정언(正言) 이영순(李永純)이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형(減刑)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다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추자도에 안치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문하여 엄히 문초하고 속히 왕법을 바로 잡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六日 辛未

○ 掌令安光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6일(신미)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島配)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掌令) 안광우(安光宇)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문하여 엄히 문초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七日 壬申

○ 掌令安光宇, 正言鄭文始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7일(임신)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掌令) 안광우(安光宇)가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있는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감형을 청하여, 시원하게 왕부(王府)로 하여금 다시 데려오게 하여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법대로 처벌하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추자도에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안치하여 엄하게 문초하여 법대로 처리하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七日 壬申

○ 掌令安光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7일(임신)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掌令) 안광우(安光宇)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문하여 엄히 문초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어 속히 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 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八日 癸酉

○ 掌令安光宇, 正言鄭文始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8일(계유)

▢ 추자도(楸子島) 안치죄인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掌令) 안광우(安光宇), 정언(正言) 정문시(鄭文始)가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 감사(減死)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로 명하여 다시 잡아오게 하고,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밝혀 법에 따라 처리하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서형수(徐瀅修)를 엄중히 문초하여 왕법대로 시원하게 처리하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八日 癸酉

○ 掌令安光宇, 正言鄭文始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8일(계유)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 안광우(安光宇), 정언 정문시(鄭文始)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아울러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이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九日 甲戌

○ 掌令安光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9일(갑술)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 안광우(安光宇)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어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이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十一日 丙子

○ 掌令安光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11일(병자)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 안광우(安光宇)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어 속히 전형(典刑)을 바르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이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十二日 丁丑

○ 掌令安光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12일(정축)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 안광우(安光宇)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어 속히 전형(典刑)을 바르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十三日 戊寅

○ 掌令安光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13일(무인)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 안광우(安光宇)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十四日 己卯

○ 掌令安光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14일(기묘)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 안광우(安光宇)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十七日 壬午

○ 掌令安光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兪鉉章事, 依啓.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17일(임오)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 안광우(安光宇)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유현장(兪鉉章)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十八日 癸未

○ 掌令安光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18일(계미)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 안광우(安光宇)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十九日 甲申

○ 掌令安光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19일(갑신)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 안광우(安光宇)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二十一日 丙戌

○ 掌令安光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 答曰, 不允. 臺諫差出事, 依啓.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21일(병술)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 안광우(安光宇)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대간(臺諫)을 차출(差出)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二十二日 丁亥

○ 掌令安光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22일(정해)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 안광우(安光宇)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二十四日 己丑

○ 掌令安光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 答曰, 不允. 下諭事依啓.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24일(기축)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 안광우(安光宇)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二十五日 庚寅

○ 戊辰閏五月二十五日辰時, …… 光宇等曰,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上曰, 不允.【出擧條】…… 光宇等曰, 請楸子島安置罪人徐澄修, 設鞫嚴問, 快正王法【措辭見上】上曰, 不允.【出擧條】…… 光宇曰,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上曰, 不允.【出擧條】…….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25일(경인)

▢ 추자도(楸子島)와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안광우(安光宇) 등의 계

○ 무진년 윤5월 25일 진시에, 〈중략〉 안광우(安光宇) 등이 아뢰기를, “추자도(楸子島)에서 감사(減死)되어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다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중략〉 안광우 등이 아뢰기를, “추자도 안치죄인 서형수(徐澄修)를 국문하여 엄히 추궁하고 속히 왕법을 바로잡게 하십시오.”【조사는 모두 위에서 볼 수 있음】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중략〉 안광우가 아뢰기를,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조사는 모두 위에서 볼 수 있음】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추자도, 제주목.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二十六日 辛卯

○ 掌令安光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26일(신묘)

▢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 안광우(安光宇)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二十七日 壬辰

○ 掌令安光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27일(임진)

▢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 안광우(安光宇)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二十八日 癸巳

○ 戊辰閏五月二十八日卯時, …… 光宇等曰,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上曰, 不允.【出擧條】…… 光宇等曰, 請楸子島安置罪人徐澄修, 設鞫嚴問, 快正王法【措辭見上】上曰, 不允.【出擧條】…… 光宇曰,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上曰, 不允.【出擧條】…….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28일(계사)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계

○ 무진년(1808) 윤5월 28일 묘시에, 〈중략〉 안광우(安光宇) 등이 아뢰기를, “추자도(楸子島)에서 감사(減死)되어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다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중략〉 안광우 등이 아뢰기를, “추자도 안치죄인 서형수(徐澄修)를 국문하여 엄히 추궁하고 속히 왕법을 바로잡게 하십시오.”【조사는 모두 위에서 볼 수 있음】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중략〉 안광우가 아뢰기를,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조사는 모두 위에서 볼 수 있음】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추자도, 제주목.

❖ 嘉慶 十三年 戊辰 閏五月 二十九日 甲午

○ 掌令安光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윤5월 29일(갑오)

▢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 안광우(安光宇)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六月 一日 乙未

○ 掌令安光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6월 1일(을미)

▢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 안광우(安光宇)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六月 二日 丙申

○ 掌令安光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6월 2일(병신)

▢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 안광우(安光宇)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六月 三日 丁酉

○ 掌令安光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6월 3일(정유)

▢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 안광우(安光宇)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六月 四日 戊戌

○ 掌令安光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6월 4일(무술)

▢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 안광우(安光宇)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六月 五日 己亥

○ 掌令安光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6월 5일(기해)

▢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 안광우(安光宇)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六月 六日 庚子

○ 掌令安光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 答曰, 不允. 末端事, 竝依啓.

❖ 순조 8년(1808) 무진년 6월 6일(경자)

▢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 안광우(安光宇)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말단(末端)의 일은 모두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六月 九日 癸卯

○ 掌令安光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6월 9일(계묘)

▢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안광우(安光宇)의 계

○ 장령 안광우(安光宇)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六月 十日 甲辰

○ 戊辰六月初十日卯時, …… 光宇等曰, 噫嘻, 痛矣. 干常亂紀之賊, 從古何限, 而豈有如在敏之至妖慝絶凶悖者哉? 常懷梟獍之心, 莫掩鬼蜮之狀, 乘機逞毒, 闖呈一疏, 上而揑逼聖躬, 下而網打朝紳, 至曰受誣於舟梁之大慶, 有若眞有誣逼者然, 又引故相之對揚, 有若不爲明辨者然. 末乃以眼無君母等語, 憑藉而疑亂, 閃忽而譏訕, 顯售不逞之習, 少無顧忌之心, 其爲凶懵, 胡至此極? 嗚呼, 庚申以後, 我東方得有今日, 是誰之力? 洪惟我慈聖殿下, 五紀母臨, 四載簾帷, 保護我聖躬, 鞏固我宗祊, 義理闡明, 朝象和泰, 追惟先王之遺志, 誕擧旣定之文祥, 以基我億萬年無疆之休, 洪功盛烈有光史牒, 環東土數千里, 莫不蹈舞攢頌於慈覆之天, 而向來臺臣通儒之處分, 罔非稟決慈旨, 推明慈德, 正大光明, 有辭後世. 凡有秉彝之心者, 孰不頌慈仁仰聖孝, 而渠亦北面於慈聖暨殿下之庭者, 抑何心腸? 至有不欲比肩之凶言, 而矢死不欲立於殿下之庭, 卽此一款, 已是窮天地亘萬古所未有之劇逆斷案, 此非但殿下之罪人, 實是慈聖之罪人也. 究厥情犯, 剮戮猶輕, 不可使一刻容貸於覆載之間, 而今日臣子之忍與之共戴一天, 未能手磔而口臠, 凡幾月矣. 輿論迭發, 聖斷斯赫, 特允臺臣之請, 王章始可夫伸, 輿憤從此少洩, 而豈意酌決之命遽下, 至令似此凶逆, 生出獄門, 刑政之乖失, 神人之痛惋, 容有極哉? 噫, 彼賊敏, 卽一貸頭之逆豎也. 此而不嚴覈情節, 夫斷常刑, 則倫綱斁而義理晦, 將至於國不得爲國, 人不得爲人, 不逞之徒, 去益生心, 亂逆之起, 又復接跡, 豈不大可懼哉? 旣允群請而不宜從輕, 自有邦憲, 而不容少緩,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上曰, 不允.【出擧條】…… 光宇等曰, 噫嘻, 痛矣. 徐瀅修之罪, 可勝誅哉? 本以梟獍之種, 濟以蛇虺之性, 鄙悖陰鷙, 凶譎憸邪, 百惡竝萃, 萬妖具備, 而最其罔赦之罪, 父事能賊, 至行見舅之禮, 讐絶母家, 全廢謁廟之擧, 傳神於能賊, 護法於能賊, 一世共憤, 萬口難防, 而及能賊伏法之後, 天網太恢, 王章不加, 渠之尙今戴頭, 假息於覆載之間, 已是天地好生之德, 使渠苟有一分秉彝之性, 則所當屛跡息影, 改心革面之不暇, 而乃反揚揚自處以無故之人, 圖占科第, 翺翔名塗, 自知滓穢之滿身, 不爲淸朝之所容, 甘與乃祖而背馳, 仇視其叔之樹立, 東西閃忽, 左右迷藏, 自許文藝, 主張世道, 淸官美職, 惟意兜攬, 內而銓柄, 外而藩臬, 朝驟暮躐, 惟懷患得之心, 晝思宵營, 罔非樂禍之計, 而戕人害物, 憑公濟私, 必欲充渠谿壑, 禍人家國, 擧世喧傳, 行路側目, 論其前後情跡, 前後罪惡, 則渠豈可彈冠束帶? 廁之於橫目之列, 而敢生叵測之心, 益肆跳踉之習, 締結於達淳, 符同於達淳, 畢竟達淳之初筵所奏, 都是瀅修之所爛熳綢繆, 則臺疏所謂達淳之爲達淳, 一則瀅修, 二則瀅修云者, 眞實際語也, 而及夫達淳迸出之辰, 力致於畿營咫尺之地, 躬謁於昏夜涔寂之時, 促膝而坐, 握手

而語, 稱之以事業, 許之以死生, 盃盤慇懃, 形跡狼藉, 有耳皆聞, 有口皆傳. 噫, 以達淳大不道之凶言, 稱之以事業, 以達淳大不敬之悖擧, 許之以死生者, 逆節昭著, 凶肚相連, 表裏和應, 首尾糾結, 眞所謂一而二, 二而一, 至於筵本圖改之說出, 而渠之斷案眞贓, 益難一刻容置於天壤之間矣. 夫國家之設置記注, 事體至重, 法意至嚴, 一登史筆之後, 雖以人主之尊, 加一字不得, 減一字不得, 從古人臣之干犯於史事者, 厥罪何居, 而況伊日賓對之筵本, 卽我聖上闡明大義, 遵守先志之一大關捩, 則其爲關係於莫重莫嚴, 果何如也, 而渠敢急於掉脫, 暗地指使, 悖姪有恂, 作俑於前, 妖弟淇修, 紹介於中, 必欲改易其文字, 變幻其事實者, 古今天下, 寧有如許至凶至懵至妖至奸者乎? 謂人可誣, 人不可誣, 謂天可欺, 天不可欺, 竄配之典, 雖已特施, 其設計造謀, 同逆共惡之窮凶情節, 不可不盤覈得情,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夫正王法. 上曰, 不允.【出擧條】…….

❖ 순조 8년(1808) 무진년 6월 10일(갑진)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계

○ 무진년(戊辰年: 1808) 6월 10일 묘시(卯時)에, 〈상략〉 안광우(安光宇) 등이 아뢰기를, "아아, 통탄스럽습니다. 상도(常道)를 어지럽히고 기강을 무너뜨린 도적들이 예로부터 한이 없었사오나, 어찌 홍재민(洪在敏)처럼 지극히 요사스럽고 사악하며, 지극히 흉포하고 패역한 자가 있었겠습니까? 항상 살륙[梟獍]의 마음을 품고, 귀신 괴물 같은 행색을 감추지 못하며, 틈을 타 독을 드러내다가, 한 장의 상소를 들고 뛰쳐나와 위로는 성상(聖上)을 협박하고, 아래로는 조정 신하들을 그물질하듯 엮어 넣었사옵니다. 심지어 '주량(舟梁)의 대경(大慶)에서 무핍(誣逼)을 당하였다.'라고까지 하여 마치 참으로 무핍한 것이 있는 양하였습니다. 또 고상신(相臣)이 대양(對揚)했던 것을 인용하여 마치 변명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양하였고, 끝에 가서는 곧 '안중에 군모(君母)가 없다.'라는 등의 말로 온 세상을 무륜(無倫)·망측한 죄과(罪科)로 몰아넣었습니다. 장황하게 늘어놓는가 하면 순식간에 언뜻 내비치기도 하면서 조금도 돌아보거나 꺼림이 없었으니, 그 마음에 설계한 것과 음모를 꾸밈이 아! 또한 흉악하고 참독(慘毒)합니다. 아! 경신년(1800) 이후 우리 동방이 오늘이 있게 된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거룩하신 우리 자성 전하께서 5기(紀) 동안 국모(國母)로 임하시고, 4년 동안 수렴(垂簾)하시어 우리 성궁(聖躬)을 보호하시고 우리 종팽(宗祊)을 공고히 하셨던 것이니, 의리

는 천명(闡明)되고 조정의 기상은 화락·태평해졌습니다. 이에 능히 선왕의 유지(遺志)를 추념(追念)하고 이에 정해진 문상(文祥)을 널리 거행하시어 우리의 억만 년토록 끝이 없을 아름다움을 터닦아 놓으셨으니, 크고 거룩한 공렬(功烈)은 사첩(史牒)에 빛남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동토(東土) 수천 리에서 자성의 덕이 덮고 있는 하늘 아래에, 누군들 발을 구르며 춤추고 손을 모아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날 대신(臺臣)과 통유(通儒)의 처분도 자성의 뜻에 품결(稟決)하여 자성의 덕을 미루어 밝히지 않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대신(大臣)의 부주(附奏)에 대한 비지(批旨)를 반하(頒下)한 뒤, 무릇 병이(秉彝)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구름이 피어오르듯 감격하여 자성의 은혜를 찬송하고 성상의 효(孝)를 우러르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애초에 어찌 일찍이 무함(誣陷) 여부와 변명 여부를 논할 만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아! 저 또한 자성과 전하의 궐정(闕庭)에 북면(北面)하고 있는 자인데, 도대체 무슨 심장(心腸)으로 없는 것을 가리켜 있다 하고 가짜를 사실로 만들어 뭇사람들의 청문(聽聞)을 현혹시키고 조정의 진신(搢紳)을 몰아 죄과에 빠뜨리며, 심지어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로, 방자하게 위로 감히 말할 수 없는 곳까지 핍박하는 것입니까? 죽기를 맹세하고 전하의 궐정에 서지 않으려 한다는 이 한 조항만으로도 이미 천지·만고를 통틀어 있지 아니한 극역(劇逆)의 단안(斷案)이니, 이는 비단 전하의 죄인일 뿐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지극히 요악·사특하고 아주 흉악·패려한 역적은 비록 천번 살을 발라내고 만번 도륙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왕법(王法)을 펴고 뭇사람들의 분을 풀기에 부족하니, 어찌 일각인들 천지 사이에 용서하여 우리 동방의 오늘날 신하들로 하여금 차마 한 하늘을 같이 이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데도 끝까지 정절(情節)을 핵실(覈實)하여 상형(常刑)을 시원하게 결행(決行)하지 아니한다면, 윤리와 기강은 무너지고 의리는 캄캄해져, 장차 나라는 나라답지 않게 되고 사람은 사람답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령한 무리들이 가면 갈수록 더욱 마음을 낼 것이고, 난역(亂逆)의 일어남이 또 그 자취를 이을 것이니, 어찌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핍의 죄에는 본래 상헌(常憲)이 있으니, 사시(肆市)[192]의 법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청컨대 극역 홍재민을 빨리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하게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전형(典刑)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안광우 등이 아뢰기를, "아아, 통

192) 사시(肆市): 죄인을 처형하여 그 시체를 저자에 놓아 두는 것. 징벌(懲罰)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함임.

탄스럽습니다. 서형수(徐瀅修)의 죄는 이루 다 주벌(誅罰)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효경(梟獍)[193]과 같은 종자로서 뱀과 구렁이 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어 온갖 나쁜 것을 다 지니고 있고 여러 가지 요망스러운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역적 홍계능(洪啓能)을 아비처럼 섬겨 장인을 만나는 예(禮)를 행하기에 이르렀고 어미의 집을 원수처럼 여겨 끊고 알묘(謁廟)하는 일을 전폐(全廢)하였습니다. 역적 홍계능이 복법(伏法)된 뒤에는 천망(天網)이 너무 넓은 탓으로 왕장(王章)이 가해지지 않았으니, 그가 지금까지 머리를 붙이고 천지 사이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이미 천지처럼 살리기 좋아하는 전하의 덕에 의한 것입니다. 그에게 진실로 조금이나마 병이의 성품이 있다면 의당 자취를 감추고 엎드려 있으면서 마음을 고치고 얼굴을 바꾸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 이에 도리어 의기양양하게 아무런 일이 없었던 사람처럼 자처하면서 과제(科第)를 도모하여 점거하고서 명도(名塗)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더러운 찌꺼기가 몸에 가득하여 청명한 조정에 용납되지 못할 줄 알고서 기꺼이 자기 할아비와 등을 돌렸고 숙부(叔父)의 수립(樹立)을 원수처럼 여겼으며 스스로 문예(文藝)에 대해 자부하면서 세도(世道)를 주장하였고 청관(淸官)과 미직(美職)을 오직 마음대로 점유하였습니다. 사람을 해치고 일을 그르쳤으며, 공의(公議)를 빙자하여 사욕(私欲)을 성취시킴으로써 기필코 한정이 없는 욕심을 충족시켜 국가에 흉화(凶禍)를 끼쳤으며, 감히 불측한 마음을 품고 날뛰는 습관을 더욱 방자하게 하여 김달순과 체결한 다음 김달순과 부화 뇌동하였습니다. 마침내 김달순이 처음의 연석에서 아뢴 것도 모두가 서형수가 난만히 생각하고 용의 주도하게 계획한 것이니, 대소(臺疏)에서 이른바 김달순이 지금의 김달순으로 된 것은 첫째도 서형수 때문이요 둘째도 서형수 때문이라고 한 것은 참으로 실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릇 김달순이 도성에서 달려나갈 때에 이르러서는 지척의 거리에 있는 기영(畿營)으로 극력 초치하여 캄캄한 밤 외로울 때 몸소 만나 본 다음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손을 잡고 이야기했는데 사업(事業)이라고 일컬었고 생사(生死)로 허여하면서 은근히 술잔을 나눈 낭자한 형적은 귀가 있는 사람은 모두 들었고 입이 있는 사람은 모두 전하고 있습니다. 안팎에서 서로 화응(和應)하고 수미(首尾)가 서로 얽혀 있으니 참으로 이른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것입니다. 연본(筵本)을 고치려고 도모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데 이르러서는 이것이 그의 단안이 되는 진장(眞贓)이니, 더욱 일각이라도 천지 사이에 두기 어려운 것입니

193) 효경(梟獍): 효(梟)는 어미새를 잡아먹는 올빼미, 경(獍)은 아비 짐승을 잡아먹는 파경(破獍)이라는 짐승을 뜻하는 말로, 모두 악인(惡人)을 비유하는 말.

다. 그날 빈대(賓對)에 관한 연본은 곧 우리 성상께서 대의(大義)를 천명하고 선지(先志)를 준행한 데 대한 하나의 큰 관려(關捩)[194]인 것이니, 더없이 엄중한 데 관계된 것이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그가 감히 벗어나려는 마음이 급급하여 은밀히 패려스러운 조카인 서유순(徐有恂)을 시켜 앞에서 부당한 짓을 하게 만들고서는 요망한 아우 서기수(徐淇修)를 중간에 개입시켜 기필코 그 문자(文字)를 고침으로써 사실을 변환(變幻)시키려 했으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없이 흉악하고 참혹하며 요망하고 간사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여긴 것이지만 사람은 속일 수 없는 것이며, 하늘을 속일 수 있다고 여긴 것이지만 하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찬배(竄配)시키는 형벌을 비록 이미 특별히 시행하였습니다만, 그가 계모(計謀)를 세워 함께 악역(惡逆)을 저지른 더없이 흉악한 정절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핵실하여 실정을 알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에 대해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중히 국문하여 통쾌하게 왕법을 바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194) 관려(關捩): 문의 빗장. 곧 가장 중요한 점

❖ 嘉慶 十三年 戊辰 六月 二十日 甲寅

○ 尹鼎烈,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凶咎駑駘馬二十匹, 合八十八匹內, 二匹到廣州逃逸, 一匹到本寺病留除, 實納馬八十五匹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8년(1808) 무진년 6월 20일(갑인)

▢ 제주(濟州) 선운(先運) 진상마(進上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윤정열(尹鼎烈)이 사복시(司僕寺)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선운(先運)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8필, 삼명일진상마(三名日進上馬) 60필, 흉구노태마(凶咎駑駘馬) 20필을 합하여 88필 가운데, 2필은 광주(廣州)에 이르러 도망하고, 1필은 본시(本寺)에 이르러 병으로 머물러 제하였으므로, 실제 납부한 말은 85필인데, 말의 나이와 털빛[禾毛色]을 별단으로 써서 들인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알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선운, 진상마.

❖ 嘉慶 十三年 戊辰 六月 二十一日 乙卯

○ 都政, 吏批. …… 呂喆永爲旌義縣監, …….

❖ 순조 8년(1808) 무진년 6월 21일(을묘)

▢ 여철영(呂喆永)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도정(都政)이 있었다. 이비(吏批)에, "〈상략〉 여철영(呂喆永)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임명하였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여철영, 정의현감.

❖ 嘉慶 十三年 戊辰 六月 二十一日 乙卯

○ 尹鼎烈,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運歲貢馬二百匹內, 一匹船中故失, 二匹到中路故失, 三匹到中路病留, 四十六匹訓鍊都監, 十二匹禁衛營, 十二匹御營廳軍馬分給除, 實納馬一百二十四匹, 禾毛色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8년(1808) 무진년 6월 21일(을묘)

▢ 제주(濟州) 후운(後運) 세공마(歲貢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윤정열(尹鼎烈)이 사복시(司僕寺)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후운(後運) 세공마(歲貢馬) 200필 가운데, 1필은 배 안에서 고실(故失)하고, 2필은 중도에서 고실하고, 3필은 중도에서 병으로 남고, 46필은 훈련도감(訓鍊都監)에, 12필은 금위영(禁衛營)에, 12필은 어영청(御營廳) 군마로 분급하여 제외하였으니, 실제로 납입한 말은 124필이며, 말의 나이와 털빛[禾毛色]을 별단으로 써서 들인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알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후운, 세공마.

❖ 嘉慶 十三年 戊辰 六月 二十一日 乙卯

○ 尹鼎烈,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山馬監牧官金商礎, 丁卯·戊辰兩年條 封進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8년(1808) 무진년 6월 21일(을묘)

▢ 제주(濟州)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의 봉진마(封進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윤정열(尹鼎烈)이 사복시(司僕寺)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김상초(金商礎)가 정묘(丁卯: 1807)·무진(戊辰: 1808) 두 해조(條)의 봉진마(封進馬) 2필이 이제야 겨우 올라왔기에, 말의 나이와 털빛[禾毛色]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고, 예에 따라 내구(內廐)에서 사육하게 한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알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산마감목관, 김상초, 봉진마.

❖ 嘉慶 十三年 戊辰 六月 二十二日 丙辰

○ 戊辰六月二十二日辰時, …… 旌義縣監呂喆永 …… 以次陞殿進伏. …… 鳳瑞奏職姓名訖. 上曰, 察訪入侍, 何以先於守令乎? 宗善曰, 曾經侍從, 故先於守令矣. 上曰, 年今幾何? 鳳瑞曰, 六十三矣. 上曰, 前爲何官. 鳳瑞曰, 前爲掌令. 上曰, 居在何地? 鳳瑞曰, 居在濟州矣. 上曰, 距邑府幾里? 鳳瑞曰, 五十里許矣. 因命退出. 邊將則宣傳官李顯道·柳興源擧行, 奏職姓名, 退送. 宗善曰, 筵席事體, 何等謹嚴, 而熊川縣監李運植, 職名奏達之際, 做錯非細, 事甚駭然, 從重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

❖ 순조 8년(1808) 무진년 6월 22일(병진)

▢ 정의현감(旌義縣監) 여철영(呂喆永) 등이 입시(入侍)하여 임금을 알현함

○ 무진년(戊辰年: 1808) 6월 22일 진시(辰時)에, 〈중략〉 정의현감(旌義縣監) 여철영(呂喆永) 〈중략〉 차례로 승전(陞殿)하고 나아와서 엎드렸다. 〈중략〉 강봉서(姜鳳瑞)가 직명(職名)을 아뢰기를 마쳤다. 임금이 말하기를, “찰방(察訪)이 입시(入侍)하였는데 어찌 수령(守令)보다 먼저였는가?”라 하니, 종선(宗善)이 말하기를, “일찍이 시종한 바 있어 수령보다 먼저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나이가 몇인가?”라고 하니, 강봉서가 말하기를, “63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 무슨 벼슬을 하였는가?”라고 하니, 봉서가 말하기를, “전에 장령(掌令)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니, 강봉서가 말하기를, “제주(濟州)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읍부(邑府)와의 거리가 몇 리인가?”라고 하니, 봉서가 말하기를, “50리쯤 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명하여 물러나게 하였다. 변장(邊將)으로는 선전관(宣傳官) 이현도(李顯道)·유흥원(柳興源)이 거행(擧行)하고, 직명을 아뢰고 물러나 보냈다. 김종선(金宗善)이 말하기를, “연석(筵席)에서의 절차와 체모는 얼마나 삼가고 엄숙해야 하는 것인데, 웅천현감(熊川縣監) 이운식(李運植)이 직명을 아뢰는 자리에서 저지른 실수가 작지 않으니, 일이 매우 해연(駭然)합니다. 무겁게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 주제어: 정의현감, 여철영.

❖ 嘉慶 十三年 戊辰 六月 二十三日 丁巳

○ 徐英輔啓曰, …… 旌義縣監呂喆永, …… 無以署經, 何以爲之? 敢稟. 傳曰, 違牌人, 更爲牌招.

❖ 순조 8년(1808) 무진년 6월 23일(정사)

▢ 정의현감(旌義縣監) 여철영(呂喆永)의 패초(牌招)에 관한 서영보(徐英輔)의 계

○ 서영보(徐英輔)가 아뢰기를, "〈상략〉 정의현감(旌義縣監) 여철영(呂喆永), 〈중략〉 서경(署經)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어찌해야 하겠는지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패(牌)를 어긴 자는 다시 패초(牌招)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여철영.

❖ 嘉慶 十三年 戊辰 六月 二十五日 己未

○ 戊辰六月二十五日申時, …… 喆永進, 奏職姓名. 上曰, 旌義, 卽濟州所管之邑也, 程途絶遠, 氓俗蚩蠢, 下去後善爲之, 可也. …….

❖ 순조 8년(1808) 무진년 6월 25일(기미)

▢ 정의현감(旌義縣監) 여철영(呂喆永)이 하직을 청함

○ 무진(戊辰: 1808) 6월 25일 신시(申時), 〈상략〉 여철영(呂喆永)이 나아와서 직함과 이름을 아뢰었다. 임금이 이르기를, "정의(旌義)는 곧 제주(濟州) 소관의 고을로, 길이 막히고 멀며 백성들의 풍속이 어리석고 순박하니, 내려간 뒤에 잘 다스리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정의, 제주, 정의현감, 여철영.

❖ 嘉慶 十三年 戊辰 六月 二十九日 癸亥

○ 以濟州防禦使韓鼎運狀啓, 進上藥材中靑皮未滿定例, 惶恐待罪事, 傳于金宗善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8년(1808) 무진년 6월 29일(계해)

▢ 제주(濟州) 청피(靑皮)의 미만(未滿)에 관한 건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한정운(韓鼎運)의 장계(狀啓)에, 진상한 약재 가운데 청피(靑皮)가 정례에 차지 못하였기에 황공히 죄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김종선(金宗善)에게 전교하기를, “죄를 기다릴 일이 아니니,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청피, 미만.

❖ 嘉慶 十三年 戊辰 七月 一日 乙丑

○ 掌令李尙愚·承膺祚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순조 8년(1808) 무진년 7월 1일(을축)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이상우(李尙愚) 등의 계

○ 장령(掌令) 이상우(李尙愚)·승응조(承膺祚)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보내어 엄문(嚴問)을 설치하여 진상을 얻고, 법에 따라 엄히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七月 四日 戊辰

○ 掌令承膺祚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7월 4일(무진)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승응조(承膺祚)의 계

○ 장령(掌令) 승응조(承膺祚)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보내어 엄문(嚴問)을 설치하여 진상을 얻고, 법에 따라 엄히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불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七月 十八日 壬午

○ 以濟州防禦使韓鼎運狀啓, 進上烏賊魚, 値風愆期, 惶恐待罪事, 傳于金履永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8년(1808) 무진년 7월 18일(임오)

▢ 제주(濟州) 진상 오징어에 관한 장계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한정운(韓鼎運)의 장계(狀啓)에, 진상한 오징어[烏賊魚]가 바람으로 인해 기한을 어겼으니 황공히 죄를 기다린다는 내용이라 했는데, 김이영(金履永)에게 전교하기를, "죄를 기다릴 일이 아니라고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오징어.

❖ 嘉慶 十三年 戊辰 七月 二十四日 戊子

○ 持平李周奭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순조 8년(1808) 무진년 7월 24일(무자)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지평 이주석(李周奭)의 계

○ 지평(持平) 이주석(李周奭)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보내어 엄문(嚴問)을 설치하여 진상을 얻고, 법에 따라 엄히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교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七月 二十八日 壬辰

○ 大司諫鄭景祚, 掌令閔致載, 獻納權炘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夬正典刑.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7월 28일(임진)

▢ 추자도(楸子島) 안치죄인의 처벌에 관한 대사간 정경조(鄭景祚) 등의 계

○ 대사간(大司諫) 정경조(鄭景祚), 장령(掌令) 민치재(閔致載)가 권식(權炘)에게 헌납하여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형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시원하게 왕부(王府)에 명하여 다시 데려오고, 엄국(嚴鞫)하여 진상을 밝히고 법에 따라 엄히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에 안치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설치하여 엄문 엄히 하고 법을 통쾌하게 바로잡기를 청합니다. 〈하략〉.” 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 嘉慶 十三年 戊辰 七月 二十八日 壬辰

○ 掌令閔致載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순조 8년(1808) 무진년 7월 28일(임진)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민치재(閔致載)의 계

○ 장령(掌令) 민치재(閔致載)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보내어 엄문(嚴問)을 설치하여 진상을 얻고, 법에 따라 엄히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고, 하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八月 十五日 戊申

○ 掌令李運恒, 持平李德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8월 15일(무신)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이운항(李運恒) 등의 계

○ 장령(掌令) 이운항(李運恒), 지평(持平) 이덕승(李德升)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보내어 엄문(嚴問)을 설치하여 진상을 얻고, 법에 따라 엄히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八月 十九日 壬子

○ 持平李德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8월 19일(임자)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지평 이덕승(李德升)의 계

○ 지평(持平) 이덕승(李德升)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보내어 엄문(嚴問)을 설치하여 진상을 얻고, 법에 따라 엄히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八月 二十日 癸丑

○ 掌令李運恒, 持平李德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8월 20일(계축)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이운항(李運恒) 등의 계

○ 장령(掌令) 이운항(李運恒), 지평(持平) 이덕승(李德升)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보내어 엄문(嚴問)을 설치하여 진상을 얻고, 법에 따라 엄히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八月 二十七日 庚申

○ 持平李德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8월 27일(경신)

▢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처벌에 관한 지평 이덕승(李德升)의 계

○ 지평(持平) 이덕승(李德升)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보내어 엄문(嚴問)을 설치하여 진상을 얻고, 법에 따라 엄히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 嘉慶 十三年 戊辰 八月 二十八日 辛酉

○ 李存秀,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旌義前縣監邊景祐 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而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8년(1808) 무진년 8월 28일(신유)

▢ 정의현감(旌義縣監)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이존수(李存秀)가 사복시(司僕寺)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정의 전 현감(旌義前縣監) 변경우(邊景祐)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이제야 막 올라와서, 말의 나이와 털빛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고, 규례에 따라 내구(內廐)에서 기르게 할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 전 현감, 변경우, 체임진상마.

❖ 嘉慶 十三年 戊辰 八月 二十八日 辛酉

○ 掌令李運恒, 持平李德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8월 28일(신유)

▢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장령 이운항(李運恒) 등의 계

○ 장령(掌令) 이운항(李運恒), 지평(持平) 이덕승(李德升)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보내어 엄문(嚴問)을 설치하여 진상을 얻고, 법에 따라 엄히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 嘉慶 十三年 戊辰 八月 二十九日 壬戌

○ 持平李德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8월 29일(임술)

▢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지평 이덕승(李德升)의 계

○ 지평(持平) 이덕승(李德升)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보내어 엄문(嚴問)을 설치하여 진상을 얻고, 법에 따라 엄히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 嘉慶 十三年 戊辰 八月 三十日 癸亥

○ 掌令李運恒, 持平李德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8월 30일(계해)

▢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장령 이운항(李運恒) 등의 계

○ 장령(掌令) 이운항(李運恒), 지평(持平) 이덕승(李德升)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보내어 엄문(嚴問)을 설치하여 진상을 얻고, 법에 따라 엄히 처단하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 嘉慶 十三年 戊辰 九月 一日 甲子

○ 持平李德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9월 1일(갑자)

▢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지평 이덕승(李德升)의 계

○ 지평(持平) 이덕승(李德升)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보내어 국문(鞫問)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어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 嘉慶 十三年 戊辰 九月 二日 乙丑

○ 持平李德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 答曰, 不允. 沈氏旌褒事, 依啓.

❖ 순조 8년(1808) 무진년 9월 2일(을축)

▢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지평 이덕승(李德升)의 계

○ 지평(持平) 이덕승(李德升)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보내어 국문(鞫問)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어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심씨(沈氏)를 정표(旌褒)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 嘉慶 十三年 戊辰 九月 三日 丙寅

○ 掌令李運恒啓曰, 請正法罪人鎭, 亟施孥戮之典【措辭見上】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請周爀, 亟令王府, 嚴鞫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請亟下三啓依允之傳旨, 令該府擧行焉【措辭見上】請物故罪人基讓子寵億, 姑先施以竄配之典【措辭見上】請古今島定配罪人李東萬, 鎭海縣定配罪人趙鎭井, 竝令王府, 設鞫嚴問, 秋曹諸罪人中如李榮復·金元喜·洪宗益等情犯深重者, 亦爲移囚王府, 到底盤覈, 快施典刑【措辭見上】請物故罪人國仁支屬應坐之類, 亟施島配之典【措辭見上】請朴紀淳, 亟令王府, 拿來嚴問, 以重鞫體【措辭見上】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9월 3일(병인)

▢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장령 이운항(李運恒)의 계

○ 장령(掌令) 이운항(李運恒)이 아뢰기를, “정법(正法)죄인 심인(沈鎭)을 속히 가족을 멸하는 율령[孥戮]을 시행하기를 청합니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넘겨 국문(鞫問)하시되 엄하게 신문하게 하시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이주혁(李周爀)을 속히 왕부에 넘겨서 엄히 국문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속히 전형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속히 위 세 계문(啓文)에 윤허한 전지(傳旨)를 내려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실행하게 하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사망한 죄인 이기양(李基讓)의 자식 이총억(李寵億)에 대해서는 우선 귀양 보내는 전례를 시행하게 하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고금도(古今島)에 정배된 죄인 이동만(李東萬), 진해현(鎭海縣)에 정배된 죄인 조진정(趙鎭井)을 모두 왕부에 넘겨 국문하시되 엄하게 심문하게 하시고, 추조(秋曹)의 여러 죄인 중 이영복(李榮復)·김원희(金元喜)·홍종익(洪宗益) 등처럼 죄상이 심중한 자 또한 죄수를 왕부로 이송하여 철저히 심문하고 속히

전례에 따라 처벌하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망한 죄인 송국인(宋國仁)으로 연좌되어 처벌받을 가족 등은 속히 도배하는 전례를 시행하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박기순(朴紀淳)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잡아들이게 하여 엄히 신문하고 거듭 국문하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 嘉慶 十三年 戊辰 十月 七日 己亥

○ 司諫李基崇, 持平李德升啓曰, …… 噫嘻, 痛矣, 干常亂紀之賊, 從古何限, 而豈有如在敏之至妖慝絶凶悖者哉? 常懷梟獍之心, 莫掩鬼蜮之狀, 乘機逞毒, 闖呈一疏, 上而捼逼聖躬, 下而網打朝紳, 至曰受誣於舟梁之大慶, 有若眞有誣逼者然, 又引故相之對揚, 有若不爲辨明者然, 末乃以眼無君母等語, 憑藉而擬亂, 閃忽而譏訕, 顯售不逞之習, 少無顧忌之心, 其爲凶慘, 胡至此極? 嗚呼, 庚申以後, 我東方得有今日, 是誰之力? 洪惟我慈聖殿下, 五紀母臨, 四載簾帷, 保護我聖躬, 鞏固宗祊, 義理闡明, 朝象和泰, 克追先王之遺志, 誕擧旣定之文祥, 以基我億萬年無疆之休, 洪功盛烈, 有光史牒. 環東土數千里, 莫不蹈舞攢頌於慈覆之天, 而向來臺臣通儒之處分, 罔非稟決慈旨, 推明慈德, 正大光明, 有辭後世. 凡有秉彝之心者, 孰不頌慈仁仰聖孝, 而渠亦北面於慈聖暨殿下之庭者, 抑何心腸, 至有不欲比肩之凶言, 而矢死不欲立於殿下之庭? 卽此一款, 已是窮天地亘萬古所未有之極逆斷案, 此非但殿下之罪人, 實是慈聖之罪人也. 究厥情犯, 剭戮猶輕, 不可使一刻容貸於覆載之間, 而今日臣子之忍與之共戴一天, 未能手磔而口臠, 凡幾月矣. 輿論迭發, 聖斷斯赫, 特允臺臣之請, 王章始可夫伸, 輿憤從此少洩, 而豈意酌決之命遽下, 至令似此凶逆, 生出獄門? 刑政之乖失, 神人之憤惋, 容有極哉? 噫, 彼賊敏, 卽一貸頭之逆豎, 此而不嚴覆[覈]情節, 夫斷常刑, 則倫綱斁而義理晦, 將至於國不得爲國, 人不得爲人, 不逞之徒, 去益生心, 亂逆之起, 又復接跡, 豈不大可懼哉? 旣允群請, 而不宜從輕, 自有邦憲而不容少緩.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 噫嘻, 痛矣, 徐瀅修之罪, 可勝誅哉? 本以梟獍之種, 濟以蛇虺之性, 鄙悖陰鷙, 凶譎憸邪, 百惡竝萃, 萬妖具備, 而最其罔赦之罪, 父事能賊, 至行見舅之禮, 讐絶母家, 全廢謁廟之擧, 傳神於能賊, 護法於能賊. 一世共憤, 萬口難防, 而及能賊伏法之後, 天網太恢, 王章未加. 渠之尙今戴頭假息於覆載之間者, 已是天地好生之德, 使渠苟有一分秉彝之性, 則所當屛跡息影, 改心革面之不暇, 而乃反揚揚自處以無故之人, 圖占科第, 翺翔名塗. 自知滓穢之滿身, 不爲淸朝之所容, 甘與乃祖而背馳, 仇視其叔之樹立, 東西閃忽, 左右迷藏, 自許文藝, 主張世道, 淸官美職, 惟意兜攬. 內而銓柄, 外而藩臬, 朝驟暮躐, 惟懷患得之心, 晝思宵營, 罔非樂禍之計, 而戕人害物, 憑公濟私, 必欲充渠谿壑, 禍人家國, 擧世喧傳, 行路側目. 論其前後情跡, 前後罪惡, 渠豈可彈冠束帶, 廁之於橫目之列, 而敢生叵測之心, 益肆跳踉之習, 締結於達淳, 符同於達淳. 畢竟達淳之初筵所奏, 都是瀅修之所爛熳綢繆, 則臺疏所謂達淳之爲達淳, 一則瀅修, 二則瀅修云者, 眞實際語也, 而及夫達淳迸出之辰, 力致於畿營咫尺之地, 躬謁於昏夜涔寂之時, 促膝而坐, 握手而語, 稱之以事業, 許之以死生, 盃盤

慇懃, 形跡狼藉, 有耳皆聞, 有口皆傳. 噫, 以達淳大不道之凶言, 稱之事業, 以達淳大不敬之悖擧, 許之以死生者, 逆節昭著, 凶肚相連, 表裏和應, 首尾糾結, 眞所謂一而二二而一. 至於筵本圖改之說出, 而渠之斷案眞贅, 益難一刻容置於天壤之間矣. 夫國家之設置記注, 事體至重, 法意至嚴, 一登史筆之後, 雖以人主之尊, 加一字不得, 減一字不得. 從古人臣之干犯於史事者, 厥罪何居, 而況伊日賓對之筵本, 卽我聖上闡明大義, 遵守先志之一大關楗, 則其爲關係於莫重莫嚴, 果何如也, 而渠敢急於掉脫, 暗地指使, 悖姪有恂, 作俑於前, 妖弟淇修, 紹介於中, 必欲改易其文字, 變幻其事實者, 古今天下, 寧有如許至凶至憯至妖至奸者乎? 謂人可誣, 人不可誣, 謂天可欺, 天不可欺. 竄配之典, 雖已特施, 其設計造謀, 同逆共惡之窮凶情節, 不可不盤覈得情.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

❖ 순조 8년(1808) 무진년 10월 7일(기해)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사간 이기숭(李基崇) 등의 계

○ 사간(司諫) 이기숭(李基崇)과 지평(持平) 이덕승(李德升)이 아뢰기를, "〈상략〉 아! 통분스럽습니다. 상도(常道)를 간범(干犯)하고 기강을 어지럽히는 적(賊)이 예로부터 어찌 이루 한정이 있었겠습니까마는 홍재민(洪在敏)처럼 지극히 요악(妖惡)·사특(邪慝)하고 아주 흉악(凶惡)·패려(悖戾)한 자가 있었습니까? 항상 올빼미와 악한 짐승의 마음을 지니고 기회를 타서 독기(毒氣)를 풀고자 불쑥 한 통의 상소를 올렸으니, 위로는 성궁(聖躬)을 핍박하는 빛을 보이고, 아래로는 조신(朝紳)들을 일망 타진해야 합니다. 심지어 '주량(舟梁)의 대경(大慶)에 무핍(誣逼)을 당하였다.'라고까지 하여 마치 참으로 무핍한 것이 있는 양하였습니다. 또 고 상신(相臣)이 대양(對揚)했던 것을 인용하여 마치 변명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양하였고, 끝에 가서는 곧 '안중에 군모(君母)가 없다.'는 등의 말로 온 세상을 무륜(無倫)·망측한 죄과(罪科)로 몰아넣었습니다. 장황하게 늘어놓는가 하면 순식간에 언뜻 내비치기도 하면서 조금도 돌아보거나 꺼림이 없었으니, 그 마음에 설계한 것과 음모를 꾸밈이 아! 또한 흉악하고 참독(慘毒)합니다. 아! 경신년(1800) 이후 우리 동방이 오늘이 있게 된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거룩하신 우리 자성 전하께서 5기(紀) 동안 국모(國母)로 임하시고, 4년 동안 수렴(垂簾)하시어 우리 성궁을 보호하시고 우리 종팽(宗祊)을 공고히 하셨던 것이니, 의리는 천명(闡明)되고 조정의 기상은 화락·태평해졌습니다. 이에 능히 선왕의 유지(遺志)를 추념(追念)하고

이에 정해진 문상(文祥)을 널리 거행하시어 우리의 억만년토록 끝이 없을 아름다움을 터닦아 놓으셨으니, 크고 거룩한 공렬(功烈)은 사첩(史牒)에 빛남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동토(東土) 수천 리에서 자성의 덕이 덮고 있는 하늘 아래에, 누군들 발을 구르며 춤추고 손을 모아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날 대신(臺臣)과 통유(通儒)의 처분도 자성의 뜻에 품결(稟決)하여 자성의 덕을 미루어 밝히지 않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대신(大臣)의 부주(附奏)에 대한 비지(批旨)를 반하(頒下)한 뒤, 무릇 병이(秉彝)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구름이 피어오르듯 감격하여 자성의 은혜를 찬송하고 성상의 효(孝)를 우러르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애초에 어찌 일찍이 무함(誣陷) 여부와 변명 여부를 논할 만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아! 저 또한 자성과 전하의 궐정(闕庭)에 북면(北面)하고 있는 자인데, 도대체 무슨 심장(心腸)으로 없는 것을 가리켜 있다 하고 가짜를 사실로 만들어 뭇사람들의 청문(聽聞)을 현혹시키고 조정의 진신(搢紳)을 몰아 죄과에 빠뜨리며, 심지어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로, 방자하게 위로 감히 말할 수 없는 곳까지 핍박하는 것입니까? 죽기를 맹세하고 전하의 궐정에 서지 않으려 한다는 이 한 조항만으로도 이미 천지·만고를 통틀어 있지 아니한 극역(劇逆)의 단안(斷案)이니, 이는 비단 전하의 죄인일 뿐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지극히 요악·사특하고 아주 흉악·패려한 역적은 비록 천번 살을 발라내고 만번 도륙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왕법(王法)을 펴고 뭇사람들의 분을 풀기에 부족하니, 어찌 일각인들 천지 사이에 용서하여 우리 동방의 오늘날 신하들로 하여금 차마 한 하늘을 같이 이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데도 끝까지 정절(情節)을 핵실(覈實)하여 상형(常刑)을 시원하게 결행(決行)하지 아니한다면, 윤리와 기강은 무너지고 의리는 캄캄해져, 장차 나라는 나라답지 않게 되고 사람은 사람답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령한 무리들이 가면 갈수록 더욱 마음을 낼 것이고, 난역(亂逆)의 일어남이 또 그 자취를 이을 것이니, 어찌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핍의 죄에는 본래 상헌(常憲)이 있으니, 사시(肆市) 의 법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청컨대 극역 홍재민을 빨리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하게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전형(典刑)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중략〉 아! 통분스럽습니다. 서형수(徐瀅修)의 죄는 너무 커서 어찌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효경(梟獍)과 같은 종자로서 뱀과 구렁이 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어 온갖 나쁜 것을 다 지니고 있고 여러 가지 요망스러운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역적 홍계능(洪啓能)을 아비처럼 섬겨 장인을 만나는 예(禮)를 행하기에 이르렀고 어미의 집을 원수처럼 여겨 끊고 알묘(謁廟)하는 일을 전폐(全廢)하였습니다. 역적 홍계능이 복법(伏法)된 뒤에

는 천망(天網)이 너무 넓은 탓으로 왕장(王章)이 가해지지 않았으니, 그가 지금까지 머리를 붙이고 천지 사이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이미 천지처럼 살리기 좋아하는 전하의 덕에 의한 것입니다. 그에게 진실로 조금이나마 병이의 성품이 있다면 의당 자취를 감추고 엎드려 있으면서 마음을 고치고 얼굴을 바꾸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 이에 도리어 의기 양양하게 아무런 일이 없었던 사람처럼 자처하면서 과제(科第)를 도모하여 점거하고서 명도(名塗)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더러운 찌꺼기가 몸에 가득하여 청명한 조정에 용납되지 못할 줄 알고서 기꺼이 자기 할아비와 등을 돌렸고 숙부(叔父)의 수립(樹立)을 원수처럼 여겼으며 스스로 문예(文藝)에 대해 자부하면서 세도(世道)를 주장하였고 청관(淸官)과 미직(美職)을 오직 마음대로 점유하였습니다. 사람을 해치고 일을 그르쳤으며, 공의(公議)를 빙자하여 사욕(私欲)을 성취시킴으로써 기필코 한정이 없는 욕심을 충족시켜 국가에 흉화(凶禍)를 끼쳤으며, 감히 불측한 마음을 품고 날뛰는 습관을 더욱 방자하게 하여 김달순과 체결한 다음 김달순과 부화 뇌동하였습니다. 마침내 김달순이 처음의 연석에서 아뢴 것도 모두가 서형수가 난만히 생각하고 용의 주도하게 계획한 것이니, 대소(臺疏)에서 이른바 김달순이 지금의 김달순으로 된 것은 첫째도 서형수 때문이요 둘째도 서형수 때문이라고 한 것은 참으로 실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릇 김달순이 도성에서 달려나갈 때에 이르러서는 지척의 거리에 있는 기영(畿營)으로 극력 초치하여 캄캄한 밤 외로울 때 몸소 만나 본 다음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손을 잡고 이야기했는데 사업(事業)이라고 일컬었고 생사(生死)로 허여하면서 은근히 술잔을 나눈 낭자한 형적은 귀가 있는 사람은 모두 들었고 입이 있는 사람은 모두 전하고 있습니다. 안팎에서 서로 화응(和應)하고 수미(首尾)가 서로 얽혀 있으니 참으로 이른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것입니다. 연본(筵本)을 고치려고 도모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데 이르러서는 이것이 그의 단안이 되는 진장(眞贓)이니, 더욱 일각이라도 천지 사이에 두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날 빈대(賓對)에 관한 연본은 곧 우리 성상(聖上)께서 대의(大義)를 천명하고 선지(先志)를 준행한 데 대한 하나의 큰 관려(關棙)인 것이니, 더없이 엄중한 데 관계된 것이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그가 감히 벗어나려는 마음이 급급하여 은밀히 패려스러운 조카인 서유순(徐有恂)을 시켜 앞에서 부당한 짓을 하게 만들고서는 요망한 아우 서기수(徐淇修)를 중간에 개입시켜 기필코 그 문자(文字)를 고침으로써 사실을 변환(變幻)시키려 했으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없이 흉악하고 참혹하며 요망하고 간사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여긴 것이지만 사람은 속일 수 없는 것이며, 하늘을 속일 수 있다고 여긴 것이지만 하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찬배(竄配)시키는 형벌을 비록 이미 특별히 시행하였습니다만, 그가 계모(計謀)를 세워 함께 악역(惡逆)을 저지른 더없이 흉악한 정절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핵실하여 실정을 알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서형수에 대해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중히 국문하여 통쾌하게 왕법을 바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추자도.

❖ 嘉慶 十三年 戊辰 十月 七日 己亥

○ 持平李德升啓曰, …… 近日妖凶之邪學, 熾如烈火, 勢急滔天, 實爲國家呼吸之憂, 而幸賴我慈聖殿下, 特降明旨, 亟令嚴覈, 妖要[腰]亂領, 次第就戮, 庶幾根柢拔去, 窩窟掃蕩, 而噫, 彼丁若銓·若鏞兄弟, 自以逆鍾之同氣, 暗受承薰之妖書, 日夜耽惑, 悖亂名敎, 斁滅倫綱, 爲世指目, 積有年所. 今於嚴鞫之下, 始迷終悟之說, 都是粧撰, 力拒痛挽之跡, 了無可證, 沈溺之自如, 可以推知, 而又況恒·儉之獄案出後, 若鍾·承薰, 迭出諸招, 逆節彰著, 不可但以邪學言也. 若鍾旣已籍沒, 承薰亦旣正法, 而噫, 彼銓·鏞之爲若鍾兄弟者, 致薰之爲承薰同氣者, 不過島配定配而止, 盤覈情節, 掃蕩窩窟, 顧不在於此輩耶? 銓·鏞則雖以今番獄案言之, 爲承薰之緊黨, 與知凶謀, 明出致薰之招, 以邪術而自服, 至請伏法, 又納鞫庭之供, 究厥情跡, 何變不圖?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學逵·與權, 俱以家煥之甥姪, 承薰之至親, 標號之陰慘, 花助惟均, 迷溺之丁寧, 致嗣各證, 兇祕之跡, 如印一板. 寬基則本以箕延之從孫, 詿誤湖民, 賣其切姻之權勢, 陰庇賊徒者, 已是罔赦之罪, 而邪書往來, 狼藉綻露, 至與與權而對質, 則渠雖喙長, 何以自明? 雖然, 此輩之沈溺邪術, 猶屬餘事, 目下所當覈者, 卽是恒·儉請舶之計, 嗣永傳書之謀, 而凡此六囚之於嗣永, 或爲切姻至親, 或爲血黨死友, 而嗣永凶書, 以爲渠輩, 莫不願此事云爾, 則凡爲邪術者, 尙必知此箇凶謀, 況此六囚之至切至密, 而豈有不知之理乎? 至於今番訊鞫, 情節則半吐而半呑, 端緖則若露而若隱, 彼此參互而庶幾取服, 而只緣爲日不多, 盤問未究. 賊情至妖, 詭詐莫測, 邀來謨賊之事, 締結湯胡之計, 以至窩窟之未露, 徒黨之散在者, 尙未究覈, 而特推寬大之恩, 遽降酌處之命, 刑政之失, 姑置勿論, 宗社之憂, 實爲無窮.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答曰, 不允. 下諭事, 已許遞矣.

❖ 순조 8년(1808) 무진년 10월 7일(기해)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지평 이덕승(李德升)의 계

○ 지평 이덕승(李德升)이 아뢰기를, "〈상략〉 근일에 요사스럽고도 흉패(凶悖)한 사학(邪學)이 열화(烈火)같이 치열해져서 형세의 위급함이 하늘을 뒤덮고 있으니, 진실로 국가의 화급한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자성 전하께서 특별히 밝은 전지(傳旨)를 내리셔서 빨리 엄중하게 핵실(覈實)하도록 하셨으므로, 요요난령(妖腰亂領)들이 차례로 형륙(刑戮)에 나아감에 따라 거의 근저가 뽑히고 소굴이 소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 저 정약전(丁若銓)·정약용(丁若鏞) 형제는 정약종(丁若鍾)의 동기(同氣)로서, 몰래 이승훈(李承薰)에게 요서(妖書)를 받아 밤낮으로 탐혹(耽惑)하여 명교(名敎)를 어지럽히고 윤리(倫理)를 멸절시켰으니, 세상에서 지목받은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엄중하게 추국하는 아래에서 처음에는 미혹되었으나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는 말은 모두 꾸며대어 항거한 것이며, 통렬하게 만회한 자취는 끝내 이를 증명할 수 없었으니, 깊이 빠져들어 옛날과 다름이 없음을 미루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물며 유항검(柳恒儉)의 옥안(獄案)이 발각된 이후, 죄인 정약종과 이승훈(李承薰)이 잇달아 패초(牌招)되어, 그 반역의 행위가 드러났사오니, 단지 사학에 빠진 것으로만 볼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정약종은 이미 적몰되었고, 이승훈도 이미 정법(正法)되었사오나, 아아, 저 정약전·정약용은 정약종의 형제이며, 이치훈은 이승훈과 동기이온데, 그들은 겨우 도배(島配)·정배(定配)로 마무리되었으니, 정세를 밝히고 소굴을 소탕하는 데 이 자들이 관여되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정약전과 정약용은 이번 옥안에서도 이승훈의 긴당이라 할 수 있으며, 흉계를 아는 자로, 이치훈의 패초에서 명백히 드러났사온데, 사술(邪術)을 행한 것을 자백하고 스스로 법에 복종하겠다고 하였으며, 국문장[鞫庭]에서도 자백을 올렸으니, 그 행적을 끝까지 캐어보면 무슨 변화가 더 없겠사옵니까? 아아, 저 이치훈은 이승훈과 형제이며, 이가환(李家煥)의 생질로서 온갖 악을 다 지녔고, 온갖 요사스러운 짓을 두루 갖추어, 사학 무리를 선동해 부락을 만들었으며, 모든 배치와 설계가 그 손에서 비롯되었사옵니다. 그런데 국문을 받는 자리에서, 도리어 그 형제를 성정이 약하고 사학에 빠졌다고 하며, 도적 무리라 칭하였으니, 이는 양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인륜과 기강이 전혀 상실되었음을 보여주는 바이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사술의 깊고 얕음을 따질 겨를이 없사옵니다. 이학규(李學逵)와 신여권(申與權)은 모두 이가환의 생질과 조카로서, 이승훈의 지친(至親)이며, 표방한 명칭의 잔혹함, 도운 방식의 같음, 미혹되어 빠진 정황은 치사(致嗣)가 각각 명확하고, 흉계의 흔적이 판에 찍은 듯 명백하옵니다. 이관기(李寬基)는 본래 이기연(李箕延)의 종손으로서 호민(湖民)을 잘못 이끌었고, 가까운 인척의 권세를 팔아 도적 무리를 은밀히 비호한 자로, 이미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사온데, 사학 서신이 오가고,

그 흔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신여권과 대질하자니, 그의 혀가 아무리 길다 한들 어찌 자명할 수 있겠사옵니까? 비록 그렇사오나, 이 무리의 사학에 빠진 죄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지금 반드시 조사해야 할 것은 유항검의 청박지계(請舶之計)와 황사영(黃嗣永)의 전서지모(傳書之謀)이옵니다. 이 여섯 죄수는 황사영과 가까운 인척이거나, 혹 혈당(血黨)의 사우(死友)가 되며, 황사영이 쓴 흉악한 서찰은 모두 이 무리에게 보내졌고, 그 편지마다 "이 일은 그대들이 원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사술에 가담한 자라면 당연히 이 흉계를 알았을 터인데, 이 여섯 죄수가 지극히 가깝고 밀접한 자들인데 어찌 모를 리가 있겠사옵니까? 이번 국문에 이르러, 정황은 반쯤 말하고 반쯤 숨겼으며, 단서는 드러나는 듯 감추는 듯하니, 서로의 진술이 교차되면서 대강은 복종하게 되었사오나, 다만 조사 기간이 길지 않아 캐묻지 못한 점이 있사옵니다. 이 도적들의 죄는 지극히 요사하며, 꾀와 속임수는 헤아릴 수 없고, 도적을 불러들이고자 꾀한 일, 강도(湯胡)와 연합하겠다는 계획, 소굴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도당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음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사온데, 특별히 관대한 은혜만을 앞세워, 돌연히 처벌을 낮추는 명령을 내리셨사오니, 형정(刑政)의 실책은 논외로 두더라도, 종묘사직의 근심은 실로 끝이 없을 것이옵니다. 흑산도 도배죄인 정약전,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 김해부 정배죄인 이학규, 고성현 정배죄인 신여권, 장흥부 정배죄인 이관기를 모두 왕부(王府)로 옮겨 국문을 엄히 시행하여, 실정을 밝히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하옵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아래에 유시할 일은 이미 체임(遞)을 허락하였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十月 八日 庚子

○ 司諫李基崇, 持平李德升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夫正王法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10월 8일(경자)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사간 이기숭(李基崇) 등의 계

○ 사간(司諫) 이기숭(李基崇)과 지평(持平) 이덕승(李德升)이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사(減死)되어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다시 잡아오게 하고,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또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엄히 따지고, 속히 왕법(王法)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 嘉慶 十三年 戊辰 十月 八日 庚子

○ 持平李德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10월 8일(경자)

▢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지평 이덕승(李德升)의 계

○ 지평(持平) 이덕승(李德升)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명하여, 신문을 엄히 베풀어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하옵니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 嘉慶 十三年 戊辰 十月 九日 辛丑

○ 掌令韓義運, 持平李德升, 獻納朴宗琦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夫正王法【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10월 9일(신축)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장령 한의운(韓義運) 등의 계

○ 장령(掌令) 한의운(韓義運), 지평(持平) 이덕승(李德升), 헌납(獻納) 박종기(朴宗琦)가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사(減死)되어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에 명하여 다시 잡아오게 하고, 신문을 엄히 베풀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하옵니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신문하여 엄히 따지고, 속히 왕법(王法)을 바로잡기를 청하옵니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 嘉慶 十三年 戊辰 十月 九日 辛丑

○ 掌令韓義運, 持平李德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下諭事許遞.

❖ 순조 8년(1808) 무진년 10월 9일(신축)

▢ 제주목(濟州牧) 죄인의 처벌에 관한 계

○ 장령(掌令) 한의운(韓義運), 지평(持平) 이덕승(李德升)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명하여 신문을 엄히 베풀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어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하옵니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이미 하유(下諭)할 일은 허체(許遞)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 嘉慶 十三年 戊辰 十月 十日 壬寅

○ 戊辰十月初十日辰時,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上曰, 不允. 【出擧條】【措辭見上】……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上曰, 不允. 【出擧條】【措辭見上】……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上曰, 不允. 【出擧條】【措辭見上】…….

❖ 순조 8년(1808) 무진년 10월 10일(임인)

▢ 추자도(楸子島)와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계

○ 무진년(戊辰) 10월 초열흘 진시(辰時)에, “〈중략〉 추자도(楸子島) 감사(減死)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에 명하여 다시 잡아오게 하고, 엄히 국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십시오.”라고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문하게 하여 엄히 추궁하고 속히 왕법을 바로 잡으십시오.”라고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 등 모두 왕부에 명하여 국문하게 하여 엄히 추궁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을 바로 잡으십시오.”라고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

△ 주제어: 추자도, 제주목.

❖ 嘉慶 十三年 戊辰 十月 十八日 庚戌

○ 行大司諫林漢浩, 司諫金熙華, 掌令李敬參啓曰, …… 噫嘻痛矣, 干常亂紀之賊, 從古何限? 而豈有如在敏之至妖慝絶凶悖者哉? 常懷梟獍之心, 莫掩鬼蜮之狀, 乘機逞毒, 闖呈一疏, 上而摻逼聖躬, 下而網打朝紳, 至曰受誣於舟梁之大慶, 有若眞有誣逼者然, 又引故相之對揚, 有若不爲辨明者然, 末乃以眼無君母等語, 憑藉而疑亂, 閃忽而譏訕, 顯售不逞之習, 少無顧忌之心, 其爲凶慴, 胡至此極? 嗚呼, 庚申以後, 我東方得有今日, 是誰之力? 洪惟我慈聖殿下, 五紀母臨, 四載簾帷, 保護我聖躬, 鞏固我宗祊, 義理闡明, 朝象和泰, 克追先王之遺志, 誕擧旣定之文祥, 以基我億萬年無疆之休, 洪功盛烈, 有光史牒, 環東土數千里, 莫不蹈舞攢頌於慈覆之天, 而向來臺臣通儒之處分, 罔非稟決慈旨, 推明慈德, 正大光明, 有辭後世, 凡有秉彝之心者, 孰不頌慈仁仰聖孝, 而渠亦北面於慈聖暨殿下之庭者, 抑何心腸, 至有不欲比肩之凶言, 而矢死不欲立於殿下之庭, 卽此一款, 已是窮天地亘萬古所未有之劇逆斷案, 此非但殿下之罪人, 實是慈聖之罪人也, 究厥情犯, 剕戮猶輕, 不可使一刻容貸於覆載之間, 而今日臣子之忍與之共戴一天, 未能手磔而口臠, 凡幾月矣, 輿論迭發, 聖斷斯赫, 特允臺臣之請, 王章始可夫伸, 輿憤從此少洩, 而豈意酌決之命遽下, 至令似此凶逆, 生出獄門, 刑政之乖失, 神人之痛惋, 容有極哉? 噫, 彼賊敏, 卽一貸頭之逆豎也, 此而不嚴覈情節, 夫斷常刑, 則倫綱斁而義理晦, 將至於國不得爲國, 人不得爲人, 不逞之徒, 去益生心, 亂逆之起, 又復接跡, 豈不大可懼哉? 旣允群請而不宜從輕, 自有邦憲而不容少緩,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嚴鞫得情, 夫正典刑. …… 噫嘻痛矣, 徐澄修之罪, 可勝誅哉? 本以梟獍之種, 濟以蛇虺之性, 鄙悖陰鷙, 凶譎憸邪, 百惡竝萃, 萬妖具備, 而最其夙[罔]赦之罪, 父事能賊, 至行見舅之禮, 讐絶母家, 全廢謁廟之擧, 傳神於能賊, 護法於能賊, 一世共憤, 萬口難防, 而及能賊伏法之後, 天網太恢, 王章不加, 渠之尙今戴頭假息於覆載之間者, 已是天地好生之德, 使渠, 苟有一分秉彝之性, 則所當屛跡息影, 改心革面之不暇, 而乃反揚揚自處以無故之人, 圖占科第, 翺翔名塗, 自知滓穢之滿身, 不爲淸朝之所容, 甘與乃祖而背馳, 仇視其叔之樹立, 東西閃忽, 左右迷藏, 自許文藝, 主張世道, 淸官美職, 惟意兜攬, 內而銓柄, 外而藩臬, 朝驟暮躐, 惟懷患得之心, 晝思宵營, 罔非樂禍之計, 而戕人害物, 憑公濟私, 必欲充渠谿壑, 禍人家國, 擧世喧傳, 行路側目, 論其前後情跡, 前後罪惡, 則渠豈可彈冠束帶, 廁之於橫目之列, 而敢生叵測之心, 益肆跳踉之習, 締結於達淳, 符同於達淳, 畢竟達淳之初筵所奏, 都是澄修之所爛熳綢繆, 則臺疏所謂達淳之爲達淳, 一則澄修, 二則澄修云者, 眞實際語也, 而及夫達淳迸出之辰, 力致於畿營咫尺之地, 躬謁於昏夜涔寂之時, 促膝而坐, 握手而語, 稱之以事

業, 許之以死生, 盃盤慇懃, 形跡狼藉, 有耳皆聞, 有口皆傳. 噫, 以達淳大不道之凶言, 稱之以事業, 以達淳大不敬之悖擧, 許之以死生者, 逆節昭著, 凶肚相連, 表裏和應, 首尾糾結, 眞所謂一而二, 二而一, 至於筵本圖改之說出, 而渠之斷案眞贓, 益難一刻容置於天壤之間矣. 夫國家之設置記注, 事體至重, 法意至嚴, 一登史筆之後, 雖以人主之尊, 加一字不得, 減一字不得, 從古人臣之干犯於史事者, 厥罪何居, 而況伊日賓對之筵本, 卽我聖上闡明大義, 遵守先志之一大關楗, 則其爲關係於莫重莫嚴, 果何如也? 而渠敢急於掉脫, 暗地指使, 悖姪有恂, 作俑於前, 妖弟淇脩, 紹介於中, 必欲改易其文字, 變幻其事實者, 古今天下, 寧有如許至凶至憯至妖至奸者乎? 謂人可誣, 人不可誣, 謂天可欺, 天不可欺. 竄配之典, 雖已特施, 其設計造謀, 同逆共惡之窮凶情節, 不可不盤覈得情,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10월 18일(경술)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행대사간 임한호(林漢浩) 등의 계

○ 행대사간(行大司諫) 임한호(林漢浩), 사간(司諫) 김희화(金熙華), 장령(掌令) 이경참(李敬參)이 아뢰기를, "〈상략〉 아! 통분스럽습니다. 상도(常道)를 간범(干犯)하고 기강을 어지럽히는 적(賊)이 예로부터 어찌 이루 한정이 있었겠습니까마는 홍재민(洪在敏)처럼 지극히 요악(妖惡)·사특(邪慝)하고 아주 흉악(凶惡)·패려(悖戾)한 자가 있었습니까? 항상 올빼미와 악한 짐승의 마음을 지니고 기회를 타서 독기(毒氣)를 풀고자 불쑥 한 통의 상소를 올렸으니, 위로는 성궁(聖躬)을 핍박하는 빛을 보이고, 아래로는 조신(朝紳)들을 일망 타진해야 합니다. 심지어 '주량(舟梁)의 대경(大慶)에 무핍(誣逼)을 당하였다.'라고까지 하여 마치 참으로 무핍한 것이 있는 양하였습니다. 또 고 상신(相臣)이 대양(對揚)했던 것을 인용하여 마치 변명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양하였고, 끝에 가서는 곧 '안중에 군모(君母)가 없다.'는 등의 말로 온 세상을 무륜(無倫)·망측한 죄과(罪科)로 몰아넣었습니다. 장황하게 늘어놓는가 하면 순식간에 언뜻 내비치기도 하면서 조금도 돌아보거나 꺼림이 없었으니, 그 마음에 설계한 것과 음모를 꾸밈이 아! 또한 흉악하고 참독(慘毒)합니다. 아! 경신년(1800) 이후 우리 동방이 오늘이 있게 된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거룩하신 우리 자성 전하께서 5기(紀) 동안 국모(國母)로 임하시고, 4년 동안 수렴(垂簾)하시어 우리 성궁을 보호하시고 우리 종팽(宗祊)을 공고히 하셨던 것이니, 의리는 천명(闡明)되고 조정의 기상은 화락·태평해졌습니다. 이에 능

히 선왕의 유지(遺志)를 추념(追念)하고 이에 정해진 문상(文祥)을 널리 거행하시어 우리의 억만년토록 끝이 없을 아름다움을 터닦아 놓으셨으니, 크고 거룩한 공렬(功烈)은 사첩(史牒)에 빛남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동토(東土) 수천 리에서 자성의 덕이 덮고 있는 하늘 아래에, 누군들 발을 구르며 춤추고 손을 모아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날 대신(臺臣)과 통유(通儒)의 처분도 자성의 뜻에 품결(稟決)하여 자성의 덕을 미루어 밝히지 않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대신(大臣)의 부주(附奏)에 대한 비지(批旨)를 반하(頒下)한 뒤, 무릇 병이(秉彝)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구름이 피어오르듯 감격하여 자성의 은혜를 찬송하고 성상의 효(孝)를 우러르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애초에 어찌 일찍이 무함(誣陷) 여부와 변명 여부를 논할 만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아! 저 또한 자성과 전하의 궐정(闕庭)에 북면(北面)하고 있는 자인데, 도대체 무슨 심장(心腸)으로 없는 것을 가리켜 있다 하고 가짜를 사실로 만들어 뭇사람들의 청문(聽聞)을 현혹시키고 조정의 진신(搢紳)을 몰아 죄과에 빠뜨리며, 심지어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로, 방자하게 위로 감히 말할 수 없는 곳까지 핍박하는 것입니까? 죽기를 맹세하고 전하의 궐정에 서지 않으려 한다는 이 한 조항만으로도 이미 천지·만고를 통틀어 있지 아니한 극역(劇逆)의 단안(斷案)이니, 이는 비단 전하의 죄인일 뿐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지극히 요악·사특하고 아주 흉악·패려한 역적은 비록 천번 살을 발라내고 만번 도륙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왕법(王法)을 펴고 뭇사람들의 분을 풀기에 부족하니, 어찌 일각인들 천지 사이에 용서하여 우리 동방의 오늘날 신하들로 하여금 차마 한 하늘을 같이 이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데도 끝까지 정절(情節)을 핵실(覈實)하여 상형(常刑)을 시원하게 결행(決行)하지 아니한다면, 윤리와 기강은 무너지고 의리는 캄캄해져, 장차 나라는 나라답지 않게 되고 사람은 사람답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령한 무리들이 가면 갈수록 더욱 마음을 낼 것이고, 난역(亂逆)의 일어남이 또 그 자취를 이을 것이니, 어찌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핍의 죄에는 본래 상헌(常憲)이 있으니, 사시(肆市) 의 법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추자도(楸子島)에 감사(減死)로 안치된 죄인 홍재민을,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다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십시오. 〈중략〉 아! 통분스럽습니다. 서형수(徐瀅修)의 죄는 너무 커서 어찌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효경(梟獍)과 같은 종자로서 뱀과 구렁이 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어 온갖 나쁜 것을 다 지니고 있고 여러 가지 요망스러운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역적 홍계능(洪啓能)을 아비처럼 섬겨 장인을 만나는 예(禮)를 행하기에 이르렀고 어미의 집을 원수처럼 여겨 끊고 알

묘(謁廟)하는 일을 전폐(全廢)하였습니다. 역적 홍계능이 복법(伏法)된 뒤에는 천망(天網)이 너무 넓은 탓으로 왕장(王章)이 가해지지 않았으니, 그가 지금까지 머리를 붙이고 천지 사이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이미 천지처럼 살리기 좋아하는 전하의 덕에 의한 것입니다. 그에게 진실로 조금이나마 병이의 성품이 있다면 의당 자취를 감추고 엎드려 있으면서 마음을 고치고 얼굴을 바꾸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 이에 도리어 의기 양양하게 아무런 일이 없었던 사람처럼 자처하면서 과제(科第)를 도모하여 점거하고서 명도(名塗)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더러운 찌꺼기가 몸에 가득하여 청명한 조정에 용납되지 못할 줄 알고서 기꺼이 자기 할아비와 등을 돌렸고 숙부(叔父)의 수립(樹立)을 원수처럼 여겼으며 스스로 문예(文藝)에 대해 자부하면서 세도(世道)를 주장하였고 청관(淸官)과 미직(美職)을 오직 마음대로 점유하였습니다. 사람을 해치고 일을 그르쳤으며, 공의(公議)를 빙자하여 사욕(私欲)을 성취시킴으로써 기필코 한정이 없는 욕심을 충족시켜 국가에 흉화(凶禍)를 끼쳤으며, 감히 불측한 마음을 품고 날뛰는 습관을 더욱 방자하게 하여 김달순과 체결한 다음 김달순과 부화 뇌동하였습니다. 마침내 김달순이 처음의 연석에서 아뢴 것도 모두가 서형수가 난만히 생각하고 용의 주도하게 계획한 것이니, 대소(臺疏)에서 이른바 김달순이 지금의 김달순으로 된 것은 첫째도 서형수 때문이요 둘째도 서형수 때문이라고 한 것은 참으로 실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릇 김달순이 도성에서 달려나갈 때에 이르러서는 지척의 거리에 있는 기영(畿營)으로 극력 초치하여 캄캄한 밤 외로울 때 몸소 만나 본 다음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손을 잡고 이야기했는데 사업(事業)이라고 일컬었고 생사(生死)로 허여하면서 은근히 술잔을 나눈 낭자한 형적은 귀가 있는 사람은 모두 들었고 입이 있는 사람은 모두 전하고 있습니다. 안팎에서 서로 화응(和應)하고 수미(首尾)가 서로 얽혀 있으니 참으로 이른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것입니다. 연본(筵本)을 고치려고 도모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데 이르러서는 이것이 그의 단안이 되는 진장(眞贓)이니, 더욱 일각이라도 천지 사이에 두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날 빈대(賓對)에 관한 연본은 곧 우리 성상(聖上)께서 대의(大義)를 천명하고 선지(先志)를 준행한 데 대한 하나의 큰 관려(關棙)인 것이니, 더없이 엄중한 데 관계된 것이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그가 감히 벗어나려는 마음이 급급하여 은밀히 패려스러운 조카인 서유순(徐有恂)을 시켜 앞에서 부당한 짓을 하게 만들고서는 요망한 아우 서기수(徐淇修)를 중간에 개입시켜 기필코 그 문자(文字)를 고침으로써 사실을 변환(變幻)시키려 했으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없이 흉악하고 참혹하며 요망하고 간사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여긴 것이지만 사람

은 속일 수 없는 것이며, 하늘을 속일 수 있다고 여긴 것이지만 하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찬배(竄配)시키는 형벌을 비록 이미 특별히 시행하였습니다만, 그가 계모(計謀)를 세워 함께 악역(惡逆)을 저지른 더없이 흉악한 정절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핵실하여 실정을 알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추자도에 안치한 죄인 서형수에 대해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중히 국문하여 통쾌하게 왕법을 바르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 嘉慶 十三年 戊辰 十月 十八日 庚戌

○ 掌令李敬參啓曰, …… 近日妖凶之邪學, 熾如烈火, 勢急滔天, 實爲國家呼吸之憂, 而幸賴我慈聖殿下, 特降明旨, 亟令嚴覈, 妖腰亂領, 次第就戮, 庶幾根柢拔去, 窩窟掃蕩. 而噫, 彼丁若銓·若鏞兄弟, 自以逆鍾之同氣, 暗受承薰之妖書, 日夜耽惑, 悖亂名敎, 斁滅倫綱爲世指目, 積有年所, 今於嚴鞫之下, 始迷終悟之說, 都是粧撰, 力拒痛挽之跡, 了無可證, 沈溺之自如, 可以推知, 而又況恒儉之獄案出後, 若鍾·承薰, 迭出諸招, 逆節彰著, 不可但以邪學言也. 若鍾, 旣已籍沒, 承薰, 亦旣正法. 而噫, 彼銓·鏞之爲若鍾兄弟者, 致薰之爲承薰同氣者, 不過島配定配而止, 盤覈情節, 掃蕩窩窟, 顧不在於此輩耶? 銓·鏞則雖以今番獄案言之, 爲承薰之緊黨, 與知凶謀, 明出致薰之招, 以邪術而自服, 至請伏法, 又納鞫庭之供, 究厥情跡, 何變不圖?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學逵·與權, 俱以家煥之甥姪, 承薰之至親, 標號之陰慘, 花助惟均, 迷溺之丁寧, 致嗣各證, 兇祕之跡, 如印一板, 寬基則本以箕延之從孫, 詿誤湖民, 賣其切姻之權勢, 蔭庇賊徒者, 已是罔赦之罪, 而邪書往來, 狼藉綻露, 至與與權而對質, 則渠雖喙長, 何以自明? 雖然此輩之沈溺邪術, 猶屬餘事, 目下所當覈者, 卽是恒儉請舶之計, 嗣永傳書之謀, 而凡此六囚之於嗣永, 或爲切姻至親, 或爲血黨死友, 而嗣永凶書以爲渠輩莫不願此事云爾, 則凡爲邪術者, 尙必知此箇凶謀, 況此六囚之至切至密, 而豈有不知之理乎? 至於今番訊鞫, 情節則半吐而半呑, 端緖則若露而若隱, 彼此參互, 庶幾取服, 而只緣爲日不多, 盤問未究賊情至妖, 詭詐莫測, 邀來謨賊之事, 締結湯胡之計, 以至窩窟之未露, 徒黨之散在者, 尙未究覈而特推寬大之恩, 遽降酌處之命, 刑政之失, 姑置勿論, 宗社之憂, 實爲無窮,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10월 18일(경술)

▢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장령 이경삼(李敬參)의 계

○ 장령 이경삼(李敬參)이 아뢰기를, "〈상략〉 근일에 요사스럽고도 흉패(凶悖)한 사학(邪學)이 열화(烈火)같이 치열해져서 형세의 위급함이 하늘을 뒤덮고 있으니,

진실로 국가의 화급한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자성 전하께서 특별히 밝은 전지(傳旨)를 내리셔서 빨리 엄중하게 핵실(覈實)하도록 하셨으므로, 요요난령(妖腰亂領)들이 차례로 형륙(刑戮)에 나아감에 따라 거의 근저가 뽑히고 소굴이 소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 저 정약전(丁若銓)·정약용(丁若鏞) 형제는 정약종(丁若鍾)의 동기(同氣)로서, 몰래 이승훈(李承薰)에게 요서(妖書)를 받아 밤낮으로 탐혹(耽惑)하여 명교(名敎)를 어지럽히고 윤리(倫理)를 멸절시켰으니, 세상에서 지목받은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엄중하게 추국하는 아래에서 처음에는 미혹되었으나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는 말은 모두 꾸며대어 항거한 것이며, 통렬하게 만회한 자취는 끝내 이를 증명할 수 없었으니, 깊이 빠져들어 옛날과 다름이 없음을 미루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물며 유항검(柳恒儉)의 옥안(獄案)이 발각된 이후, 죄인 정약종과 이승훈(李承薰)이 잇달아 패초(牌招)되어, 그 반역의 행위가 드러났사오니, 단지 사학에 빠진 것으로만 볼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정약종은 이미 적몰되었고, 이승훈도 이미 정법(正法)되었사오나, 아아, 저 정약전·정약용은 정약종의 형제이며, 이치훈은 이승훈과 동기이온데, 그들은 겨우 도배(島配)·정배(定配)로 마무리되었으니, 정세를 밝히고 소굴을 소탕하는 데 이 자들이 관여되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정약전과 정약용은 이번 옥안에서도 이승훈의 긴당이라 할 수 있으며, 흉계를 아는 자로, 이치훈의 패초에서 명백히 드러났사온데, 사술(邪術)을 행한 것을 자백하고 스스로 법에 복종하겠다고 하였으며, 국문장[鞫庭]에서도 자백을 올렸으니, 그 행적을 끝까지 캐어보면 무슨 변화가 더 없겠사옵니까? 아아, 저 이치훈은 이승훈과 형제이며, 이가환(李家煥)의 생질로서 온갖 악을 다 지녔고, 온갖 요사스러운 짓을 두루 갖추어, 사학 무리를 선동해 부락을 만들었으며, 모든 배치와 설계가 그 손에서 비롯되었사옵니다. 그런데 국문을 받는 자리에서, 도리어 그 형제를 성정이 약하고 사학에 빠졌다고 하며, 도적 무리라 칭하였으니, 이는 양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인륜과 기강이 전혀 상실되었음을 보여주는 바이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사술의 깊고 얕음을 따질 겨를이 없사옵니다. 이학규(李學逵)와 신여권(申與權)은 모두 이가환의 생질과 조카로서, 이승훈의 지친(至親)이며, 표방한 명칭의 잔혹함, 도운 방식의 같음, 미혹되어 빠진 정황은 치사(致嗣)가 각각 명확하고, 흉계의 흔적이 판에 찍은 듯 명백하옵니다. 이관기(李寬基)는 본래 이기연(李箕延)의 종손으로서 호민(湖民)을 잘못 이끌었고, 가까운 인척의 권세를 팔아 도적 무리를 은밀히 비호한 자로, 이미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사온데, 사학 서신이 오가고, 그 흔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신여권과 대질하자니, 그의 혀가 아무리 길다 한들 어찌 자명할 수 있겠사옵니까? 비록 그렇사오나, 이 무리의 사학에 빠진 죄

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지금 반드시 조사해야 할 것은 유항검의 청박지계(請舶之計)와 황사영(黃嗣永)의 전서지모(傳書之謀)이옵니다. 이 여섯 죄수는 황사영과 가까운 인척이거나, 혹 혈당(血黨)의 사우(死友)가 되며, 황사영이 쓴 흉악한 서찰은 모두 이 무리에게 보내졌고, 그 편지마다 "이 일은 그대들이 원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사술에 가담한 자라면 당연히 이 흉계를 알았을 터인데, 이 여섯 죄수가 지극히 가깝고 밀접한 자들인데 어찌 모를 리가 있겠사옵니까? 이번 국문에 이르러, 정황은 반쯤 말하고 반쯤 숨겼으며, 단서는 드러나는 듯 감추는 듯하니, 서로의 진술이 교차되면서 대강은 복종하게 되었사오나, 다만 조사 기간이 길지 않아 캐묻지 못한 점이 있사옵니다. 이 도적들의 죄는 지극히 요사하며, 꾀와 속임수는 헤아릴 수 없고, 도적을 불러들이고자 꾀한 일, 강도(湯胡)와 연합하겠다는 계획, 소굴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도당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음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사온데, 특별히 관대한 은혜만을 앞세워, 돌연히 처벌을 낮추는 명령을 내리셨사오니, 형정(刑政)의 실책은 논외로 두더라도, 종묘사직의 근심은 실로 끝이 없을 것이옵니다. 흑산도 도배죄인 정약전,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 김해부 정배죄인 이학규, 고성현 정배죄인 신여권, 장흥부 정배죄인 이관기를 모두 왕부(王府)로 옮겨 국문을 엄히 시행하여, 실정을 밝히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하옵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 嘉慶 十三年 戊辰 十月 二十日 壬子

○ 戊辰十月二十日辰時, …… 始源等曰,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上曰, 不允.【出擧條】…… 始源等曰, 請楸子島安置罪人徐澄修, 設鞫嚴問, 快正王法【措辭見上】上曰, 不允.【出擧條】…… 始源等曰,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上曰, 不允.【出擧條】…….

❖ 순조 8년(1808) 무진년 10월 20일(임자)

▢ 추자도(楸子島)와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계

○ 무진년(戊辰: 1808) 10월 20일 진시(辰時)에, 〈중략〉 이시원(李始源) 등이 아뢰기를, "추자도(楸子島)에 감사(減死)로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다시 잡아오게 하여 엄히 국문(鞫問)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거조(擧條)를 냄】〈중략〉 이시원 등이 아뢰기를,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澄修)를 국문하고 엄히 신문하여, 속히 왕법(王法)을 바로 잡으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거조(擧條)를 냄】〈중략〉 이시원 등이 아뢰기를,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문하고 엄히 신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을 바로 잡으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추자도, 제주목.

❖ 嘉慶 十三年 戊辰 十月 二十四日 丙辰

○ 掌令柳濼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康津縣定配罪人若鏞·濟州牧島配罪人致薰·金海府定配罪人學逵·固城縣定配罪人與權·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 答曰, 不允, 下諭事依啓.

❖ 순조 8년(1808) 무진년 10월 24일(병진)

▢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장령 유색(柳濼)의 계

○ 장령 유색(柳濼)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문(鞫問)하게 하여 엄히 신문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어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할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 嘉慶 十三年 戊辰 十一月 三日 甲子

○ 戊辰十一月初三日辰時, …… 始源等曰, 噫嘻, 痛矣, 干常亂紀之賊, 從古何限, 而豈有如在敏之至妖慝絶凶悖者哉? 常懷梟獍之心, 莫掩鬼蜮之狀, 乘機逞毒, 闖呈一疏, 上而摻逼聖躬, 下而網打朝紳, 至曰受誣於舟梁之大慶, 有若眞有誣逼者然, 又引故相之對揚, 有若不爲辨明者然, 末乃以眼無君母等語, 憑藉而疑亂, 閃忽而譏訕, 顯售不逞之習, 少無顧忌之心, 其爲凶懵, 胡至此極? 嗚呼庚申以後, 我東方得有今日, 是誰之力? 洪惟我慈聖殿下, 五紀母臨, 四載簾帷, 保護我聖躬, 鞏固我宗祊, 義理闡明, 朝象和泰, 克追先王之遺志, 誕擧旣定之文祥, 以基我億萬年無疆之休, 洪功盛烈, 有光史牒, 環東土數千里, 莫不蹈舞攢頌於慈覆之天, 而向來臺臣通儒之處分, 罔非稟決慈旨, 推明慈德, 正大光明, 有辭後世, 凡有秉彝之心者, 孰不頌慈仁仰聖孝, 而渠亦北面於慈聖暨殿下之庭者, 抑何心腸, 至有不欲比肩之凶言, 而矢死不欲立於殿下之庭, 卽此一款, 已是窮天地亘萬古所未有之劇逆斷案, 此非但殿下之罪人, 實是慈聖之罪人也. 究厥情犯, 剭戮猶輕, 不可使一刻容貸於覆載之間, 而今日臣子之忍與之共戴一天, 未能手磔而口臠, 凡幾月矣. 輿論迭發, 聖斷猶赫, 特允臺臣之請, 王章如可夫伸, 輿憤從此少洩, 而豈意酌決之命遽下, 至令似此凶逆, 生出獄門, 刑政之乖失, 神人之痛惋, 容有極哉? 噫, 彼賊敏, 卽一貸頭之逆豎也. 此而不嚴覈情節, 夫斷常刑, 則倫綱斁而義理晦, 將至於國不得爲國, 人不得爲人, 不逞之徒, 去益生心, 亂逆之起, 又復接跡, 豈不大可懼哉? 旣允群請而不宜從輕, 自有邦憲而不容少緩, 臣等謂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亟令王府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宜矣. 上曰, 不允. 【出擧條】 …… 始源等曰, 噫噫, 痛矣, 徐瀅修之罪, 可勝誅哉? 本以梟獍之種, 濟以蛇虺之性, 鄙悖陰鷙, 凶譎憸邪, 百惡竝萃, 萬妖具備, 而最其罔赦之罪, 父事能賊, 至行見舅之禮, 讎絶母家, 全廢謁廟之擧, 傳神於能賊, 護法於能賊, 一世共憤, 萬口難防, 而及能賊伏法之後, 天網太恢, 王章不加, 渠之尙今戴頭假息於覆載之間者, 已是天地好生之德, 使渠苟有一分秉彝之性, 則所當屛跡息影, 改心革面之不暇, 而乃反揚揚自處以無故之人, 圖占科第, 翺翔名塗, 自知滓穢之滿身, 不爲淸朝之所容, 甘與乃祖而背馳, 仇視其叔之樹立, 東西閃忽, 左右迷藏, 自許文藝, 主張世道, 淸官美職, 惟意兜攬, 內而銓柄, 外而藩臬, 朝驟暮躐, 惟懷患得之心, 晝思宵營, 罔非樂禍之計, 而戕人害物, 憑公濟私, 必欲充渠谿壑, 禍人家國, 擧世喧傳, 行路側目, 論其前後情跡前後罪惡, 則渠豈可彈冠束帶, 廁之於橫目之列, 而敢生叵測之心, 益肆跳踉之習, 締結於達淳, 符同於達淳, 畢竟達淳之初筵所奏, 都是瀅修之所爛熳綢繆, 則臺疏所謂達淳之爲達淳, 一則瀅修, 二則瀅修云者, 眞實際語也, 而及夫達淳迸出之辰, 力致於畿營咫尺之地, 躬謁於昏夜涔寂之時, 促膝

而坐, 握手而語, 稱之以事業, 許之以死生, 杯盤慇懃, 形跡狼藉, 有耳皆聞, 有口皆傳, 噫, 以達淳大不道之凶言, 稱之以事業, 以達淳大不敬之悖擧, 許之以死生者, 逆節昭著, 凶肚相連, 表裏和應, 首尾糾結, 眞所謂一而二二而一, 至於筵本圖改之說出, 而渠之斷案眞贓, 益難一刻容置於天壤之間矣. 夫國家之設置記注, 事體至重, 法意至嚴, 一登史筆之後, 雖以人主之尊, 加一字不得, 減一字不得, 從古人臣之干犯於史事者, 厥罪何居, 而況伊日賓對之筵本, 卽我聖上闡明大義, 遵守先志之一大關捩, 則其爲關係於莫重莫嚴, 果何如也, 而渠敢急於掉脫, 暗地指使, 悖姪有恠, 作俑於前, 妖弟淇修, 紹介於中, 必欲改易其文字, 變幻其事實者, 古今天下, 寧有如許至凶至懵至妖至奸者乎? 謂人可誣, 人不〈可〉誣, 謂天可欺, 天不可欺, 島置之典, 雖已特施, 其設計造謀, 同逆共惡之窮凶情節, 不可不盤覈得情. 臣等謂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設鞫嚴問, 快正王法, 宜矣. 上曰, 不允.【出擧條】…….

❖ 순조 8년(1808) 무진년 11월 3일(갑자)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계

○ 무진년(1808) 11월 초3일 진시에, 〈중략〉 이시원(李始源) 등이 아뢰기를, "아! 통분스럽습니다. 상도(常道)를 간범(干犯)하고 기강을 어지럽히는 적(賊)이 예로부터 어찌 이루 한정이 있었겠습니까마는 홍재민(洪在敏)처럼 지극히 요악(妖惡)·사특(邪慝)하고 아주 흉악(凶惡)·패려(悖戾)한 자가 있었습니까? 항상 올빼미와 악한 짐승의 마음을 지니고 기회를 타서 독기(毒氣)를 풀고자 불쑥 한 통의 상소를 올렸으니, 위로는 성궁(聖躬)을 핍박하는 빛을 보이고, 아래로는 조신(朝紳)들을 일망 타진해야 합니다. 심지어 '주량(舟梁)의 대경(大慶)에 무핍(誣逼)을 당하였다.'라고까지 하여 마치 참으로 무핍한 것이 있는 양하였습니다. 또 고 상신(相臣)이 대양(對揚)했던 것을 인용하여 마치 변명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양하였고, 끝에 가서는 곧 '안중에 군모(君母)가 없다.'는 등의 말로 온 세상을 무륜(無倫)·망측한 죄과(罪科)로 몰아넣었습니다. 장황하게 늘어놓는가 하면 순식간에 언뜻 내비치기도 하면서 조금도 돌아보거나 꺼림이 없었으니, 그 마음에 설계한 것과 음모를 꾸밈이 아! 또한 흉악하고 참독(慘毒)합니다. 아! 경신년(1800) 이후 우리 동방이 오늘이 있게 된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거룩하신 우리 자성 전하께서 5기(紀) 동안 국모(國母)로 임하시고, 4년 동안 수렴(垂簾)하시어 우리 성궁을 보호하시고 우리 종팽(宗祊)을 공고히 하셨던 것이니, 의리는 천명(闡明)되고 조정

의 기상은 화락·태평해졌습니다. 이에 능히 선왕의 유지(遺志)를 추념(追念)하고 이에 정해진 문상(文祥)을 널리 거행하시어 우리의 억만년토록 끝이 없을 아름다움을 터닦아 놓으셨으니, 크고 거룩한 공렬(功烈)은 사첩(史牒)에 빛남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동토(東土) 수천 리에서 자성의 덕이 덮고 있는 하늘 아래에, 누군들 발을 구르며 춤추고 손을 모아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날 대신(臺臣)과 통유(通儒)의 처분도 자성의 뜻에 품결(稟決)하여 자성의 덕을 미루어 밝히지 않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대신(大臣)의 부주(附奏)에 대한 비지(批旨)를 반하(頒下)한 뒤, 무릇 병이(秉彝)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구름이 피어오르듯 감격하여 자성의 은혜를 찬송하고 성상의 효(孝)를 우러르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애초에 어찌 일찍이 무함(誣陷) 여부와 변명 여부를 논할 만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아! 저 또한 자성과 전하의 궐정(闕庭)에 북면(北面)하고 있는 자인데, 도대체 무슨 심장(心腸)으로 없는 것을 가리켜 있다 하고 가짜를 사실로 만들어 뭇사람들의 청문(聽聞)을 현혹시키고 조정의 진신(搢紳)을 몰아 죄과에 빠뜨리며, 심지어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로, 방자하게 위로 감히 말할 수 없는 곳까지 핍박하는 것입니까? 죽기를 맹세하고 전하의 궐정에 서지 않으려 한다는 이 한 조항만으로도 이미 천지·만고를 통틀어 있지 아니한 극역(劇逆)의 단안(斷案)이니, 이는 비단 전하의 죄인일 뿐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지극히 요악·사특하고 아주 흉악·패려한 역적은 비록 천번 살을 발라내고 만번 도륙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왕법(王法)을 펴고 뭇사람들의 분을 풀기에 부족하니, 어찌 일각인들 천지 사이에 용서하여 우리 동방의 오늘날 신하들로 하여금 차마 한 하늘을 같이 이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데도 끝까지 정절(情節)을 핵실(覈實)하여 상형(常刑)을 시원하게 결행(決行)하지 아니한다면, 윤리와 기강은 무너지고 의리는 캄캄해져, 장차 나라는 나라답지 않게 되고 사람은 사람답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령한 무리들이 가면 갈수록 더욱 마음을 낼 것이고, 난역(亂逆)의 일어남이 또 그 자취를 이을 것이니, 어찌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핍의 죄에는 본래 상헌(常憲)이 있으니, 사시(肆市) 의 법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신들은 극역 홍재민을 빨리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하게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내어 시원하게 전형(典刑)을 바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중략〉 "아! 통분스럽습니다. 서형수(徐瀅修)의 죄는 너무 커서 어찌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효경(梟獍)과 같은 종자로서 뱀과 구렁이 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어 온갖 나쁜 것을 다 지니고 있고 여러 가지 요망스러운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역적 홍계능(洪啓

能)을 아비처럼 섬겨 장인을 만나는 예(禮)를 행하기에 이르렀고 어미의 집을 원수처럼 여겨 끊고 알묘(謁廟)하는 일을 전폐(全廢)하였습니다. 역적 홍계능이 복법(伏法)된 뒤에는 천망(天網)이 너무 넓은 탓으로 왕장(王章)이 가해지지 않았으니, 그가 지금까지 머리를 붙이고 천지 사이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이미 천지처럼 살리기 좋아하는 전하의 덕에 의한 것입니다. 그에게 진실로 조금이나마 병이의 성품이 있다면 의당 자취를 감추고 엎드려 있으면서 마음을 고치고 얼굴을 바꾸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 이에 도리어 의기 양양하게 아무런 일이 없었던 사람처럼 자처하면서 과제(科第)를 도모하여 점거하고서 명도(名塗)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더러운 찌꺼기가 몸에 가득하여 청명한 조정에 용납되지 못할 줄 알고서 기꺼이 자기 할아비와 등을 돌렸고 숙부(叔父)의 수립(樹立)을 원수처럼 여겼으며 스스로 문예(文藝)에 대해 자부하면서 세도(世道)를 주장하였고 청관(淸官)과 미직(美職)을 오직 마음대로 점유하였습니다. 사람을 해치고 일을 그르쳤으며, 공의(公議)를 빙자하여 사욕(私欲)을 성취시킴으로써 기필코 한정이 없는 욕심을 충족시켜 국가에 흉화(凶禍)를 끼쳤으며, 감히 불측한 마음을 품고 날뛰는 습관을 더욱 방자하게 하여 김달순과 체결한 다음 김달순과 부화 뇌동하였습니다. 마침내 김달순이 처음의 연석에서 아뢴 것도 모두가 서형수가 난만히 생각하고 용의 주도하게 계획한 것이니, 대소(臺疏)에서 이른바 김달순이 지금의 김달순으로 된 것은 첫째도 서형수 때문이요 둘째도 서형수 때문이라고 한 것은 참으로 실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릇 김달순이 도성에서 달려나갈 때에 이르러서는 지척의 거리에 있는 기영(畿營)으로 극력 초치하여 캄캄한 밤 외로울 때 몸소 만나 본 다음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손을 잡고 이야기했는데 사업(事業)이라고 일컬었고 생사(生死)로 허여하면서 은근히 술잔을 나눈 낭자한 형적은 귀가 있는 사람은 모두 들었고 입이 있는 사람은 모두 전하고 있습니다. 안팎에서 서로 화응(和應)하고 수미(首尾)가 서로 얽혀 있으니 참으로 이른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것입니다. 연본(筵本)을 고치려고 도모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데 이르러서는 이것이 그의 단안이 되는 진장(眞贓)이니, 더욱 일각이라도 천지 사이에 두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날 빈대(賓對)에 관한 연본은 곧 우리 성상(聖上)께서 대의(大義)를 천명하고 선지(先志)를 준행한 데 대한 하나의 큰 관려(關捩)인 것이니, 더없이 엄중한 데 관계된 것이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그가 감히 벗어나려는 마음이 급급하여 은밀히 패려스러운 조카인 서유순(徐有恂)을 시켜 앞에서 부당한 짓을 하게 만들고서는 요망한 아우 서기수(徐淇修)를 중간에 개입시켜 기필코 그 문자(文字)를 고침으로써 사실을 변환(變幻)시키려 했으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없이 흉악하

고 참혹하며 요망하고 간사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여긴 것이지만 사람은 속일 수 없는 것이며, 하늘을 속일 수 있다고 여긴 것이지만 하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찬배(竄配)시키는 형벌을 비록 이미 특별히 시행하였습니다만, 그가 계모(計謀)를 세워 함께 악역(惡逆)을 저지른 더없이 흉악한 정절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핵실하여 실정을 알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들은 추자도(楸子島)에 안치한 죄인 서형수에 대해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중히 국문하여 통쾌하게 왕법을 바로 잡는 것이 마땅하다고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추자도.

❖ 嘉慶 十三年 戊辰 十一月 七日 戊辰

○ 行大司憲李始源, 行大司諫林漢浩, 司諫金熙華, 掌令李敬參, 持平朴英載·李止淵, 正言鄭觀綏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亟令王府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設鞫嚴問, 夫正王法【措辭見上】……. 答曰, 不允. 審度孥戮事,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11월 7일(무진)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행대사헌 이시원(李始源) 등의 계

○ 행대사헌 이시원(李始源), 행대사간 임한호(林漢浩), 사간 김희화(金熙華), 장령 이경참(李敬參), 지평 박영재(朴英載)·이지연(李止淵), 정언 정관수(鄭觀綏)가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형하여 죄인 재민(罪人 在敏: 홍재민)을 안치하고, 속히 왕부로 명하여 다시 데려오게 하여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밝혀 속히 전형(典刑)을 바르게 할 것을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추자도에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안치하고, 국문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며 속히 왕법을 바르게 할 것을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이심도(李審度)에게 노륙(孥戮)의 전형을 베푸는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 嘉慶 十三年 戊辰 十一月 七日 戊辰

○ 行大司憲李始源, 執義金魯應, 掌令李敬參, 持平朴英載·李止淵啓曰, …… 近日妖凶之邪學, 熾如烈火, 勢急滔天, 實爲國家呼吸之憂, 而幸賴我慈聖殿下特降明旨, 亟令嚴覈, 妖腰亂領, 次第就戮, 庶幾根柢拔去, 窩窟蕩掃, 而噫, 彼丁若銓·若鏞兄弟, 自以逆鍾之同氣, 暗受承薰之妖書, 日夜耽惑, 悖亂名敎, 斁滅倫綱, 爲世指目, 積有年所, 今於嚴鞫之下, 始迷終悟之說, 都是粧撰, 力拒痛挽之跡, 了無可證, 沈溺之自如, 可以推知, 而又況恒儉之獄案出後, 若鍾·承薰, 迭出諸招, 逆節彰著, 不可但以邪學言也. 若鍾旣已籍沒, 承薰亦旣正法, 而噫, 彼銓·鏞之爲若鍾兄弟者, 致薰之爲承薰同氣者, 不過島配定配而止, 盤覈情節, 掃蕩窩窟, 顧不在於此輩耶? 銓·鏞則雖以今番獄案言之, 爲承薰之緊黨, 與知凶謀, 明出致薰之招, 以邪學而自服, 至請伏法, 又納鞫庭之供, 究厥情跡, 何變不圖?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學逵·與權, 俱以家煥之甥姪, 承薰之至親, 標號之陰慘, 花助惟均, 迷溺之丁寧, 致嗣各證, 凶祕之跡, 如印一板, 寬基則本以箕延之從孫, 詿誤湖民, 賣其切姻之權勢, 蔭庇賊徒者, 已是罔赦之罪, 而邪書往來, 狼藉綻露, 至與與權而對質, 則渠雖喙長, 何以自明? 雖然此輩之沈溺邪術, 猶屬餘事, 目下所當覈者, 卽是恒儉請舶之計, 嗣永傳書之謀, 而凡此六囚之於嗣永, 或爲切姻至親, 或爲血黨死友, 而嗣永凶書以爲, 渠輩莫不願此事云爾, 則凡爲邪術者, 尙必知此箇凶謀, 況此六囚之至切至密, 而豈有不知之理乎? 至於今番訊鞫, 情節則半吐而半呑, 端緖則若露而若隱, 彼此參互, 庶幾取服, 而只緣爲日不多, 盤問未究, 賊情至妖, 詭詐莫測, 邀來謨賊之事, 締結湯胡之計, 以至窩窟之未露, 徒黨之散在者, 尙未究覈, 而特推寬大之恩, 遽降酌處之命, 刑政之失, 姑置勿論, 宗社之憂, 實爲無窮.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11월 7일(무진)

▢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행대사헌 이시원(李始源) 등의 계

○ 행대사헌 이시원(李始源), 집의 김노응(金魯應), 장령 이경참(李敬參), 지평 박영

재(朴英載)·이지연(李止淵)이 아뢰기를, "〈상략〉 근일에 요사스럽고도 흉패(凶悖)한 사학(邪學)이 열화(烈火)같이 치열해져서 형세의 위급함이 하늘을 뒤덮고 있으니, 진실로 국가의 화급한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자성 전하께서 특별히 밝은 전지(傳旨)를 내리셔서 빨리 엄중하게 핵실(覈實)하도록 하셨으므로, 요요난령(妖腰亂領)들이 차례로 형륙(刑戮)에 나아감에 따라 거의 근저가 뽑히고 소굴이 소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 저 정약전(丁若銓)·정약용(丁若鏞) 형제는 정약종(丁若鍾)의 동기(同氣)로서, 몰래 이승훈(李承薰)에게 요서(妖書)를 받아 밤낮으로 탐혹(耽惑)하여 명교(名敎)를 어지럽히고 윤리(倫理)를 멸절시켰으니, 세상에서 지목받은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엄중하게 추국하는 아래에서 처음에는 미혹되었으나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는 말은 모두 꾸며대어 항거한 것이며, 통렬하게 만회한 자취는 끝내 이를 증명할 수 없었으니, 깊이 빠져들어 옛날과 다름이 없음을 미루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물며 유항검(柳恒儉)의 옥안(獄案)이 발각된 이후, 죄인 정약종과 이승훈(李承薰)이 잇달아 패초(牌招)되어, 그 반역의 행위가 드러났사오니, 단지 사학에 빠진 것으로만 볼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정약종은 이미 적몰되었고, 이승훈도 이미 정법(正法)되었사오나, 아아, 저 정약전·정약용은 정약종의 형제이며, 이치훈은 이승훈과 동기이온데, 그들은 겨우 도배(島配)·정배(定配)로 마무리되었으니, 정세를 밝히고 소굴을 소탕하는 데 이 자들이 관여되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정약전과 정약용은 이번 옥안에서도 이승훈의 긴당이라 할 수 있으며, 흉계를 아는 자로, 이치훈의 패초에서 명백히 드러났사온데, 사술(邪術)을 행한 것을 자백하고 스스로 법에 복종하겠다고 하였으며, 국문장[鞫庭]에서도 자백을 올렸으니, 그 행적을 끝까지 캐어보면 무슨 변화가 더 없겠사옵니까? 아아, 저 이치훈은 이승훈과 형제이며, 이가환(李家煥)의 생질로서 온갖 악을 다 지녔고, 온갖 요사스러운 짓을 두루 갖추어, 사학 무리를 선동해 부락을 만들었으며, 모든 배치와 설계가 그 손에서 비롯되었사옵니다. 그런데 국문을 받는 자리에서, 도리어 그 형제를 성정이 약하고 사학에 빠졌다고 하며, 도적 무리라 칭하였으니, 이는 양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인륜과 기강이 전혀 상실되었음을 보여주는 바이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사술의 깊고 얕음을 따질 겨를이 없사옵니다. 이학규(李學逵)와 신여권(申與權)은 모두 이가환의 생질과 조카로서, 이승훈의 지친(至親)이며, 표방한 명칭의 잔혹함, 도운 방식의 같음, 미혹되어 빠진 정황은 치사(致嗣)가 각각 명확하고, 흉계의 흔적이 판에 찍은 듯 명백하옵니다. 이관기(李寬基)는 본래 이기연(李箕延)의 종손으로서 호민(湖民)을 잘못 이끌었고, 가까운 인척의 권세를 팔아 도적 무리를 은밀히 비호한 자로, 이미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사온데, 사학 서신이

오가고, 그 흔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신여권과 대질하자니, 그의 혀가 아무리 길다 한들 어찌 자명할 수 있겠사옵니까? 비록 그렇사오나, 이 무리의 사학에 빠진 죄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지금 반드시 조사해야 할 것은 유항검의 청박지계(請舶之計)와 황사영(黃嗣永)의 전서지모(傳書之謀)이옵니다. 이 여섯 죄수는 황사영과 가까운 인척이거나, 혹 혈당(血黨)의 사우(死友)가 되며, 황사영이 쓴 흉악한 서찰은 모두 이 무리에게 보내졌고, 그 편지마다 '이 일은 그대들이 원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사술에 가담한 자라면 당연히 이 흉계를 알았을 터인데, 이 여섯 죄수가 지극히 가깝고 밀접한 자들인데 어찌 모를 리가 있겠사옵니까? 이번 국문에 이르러, 정황은 반쯤 말하고 반쯤 숨겼으며, 단서는 드러나는 듯 감추는 듯하니, 서로의 진술이 교차되면서 대강은 복종하게 되었사오나, 다만 조사 기간이 길지 않아 캐묻지 못한 점이 있사옵니다. 이 도적들의 죄는 지극히 요사하며, 꾀와 속임수는 헤아릴 수 없고, 도적을 불러들이고자 꾀한 일, 강도(湯胡)와 연합하겠다는 계획, 소굴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도당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음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사온데, 특별히 관대한 은혜만을 앞세워, 돌연히 처벌을 낮추는 명령을 내리셨사오니, 형정(刑政)의 실책은 논외로 두더라도, 종묘사직의 근심은 실로 끝이 없을 것이옵니다. 흑산도 도배죄인 정약전,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 김해부 정배죄인 이학규, 고성현 정배죄인 신여권, 장흥부 정배죄인 이관기를 모두 왕부(王府)로 옮겨 국문을 엄히 시행하여, 실정을 밝히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하옵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 嘉慶 十三年 戊辰 十一月 八日 己巳

○ 掌令柳濮, 正言鄭觀綏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亟令王府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設鞫嚴問, 快正王法【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11월 8일(기사)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장령 유색(柳濮) 등의 계

○ 장령 유색(柳濮), 정언 정관수(鄭觀綏)가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사(減死)되어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다시 잡아오게 하고,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문하여 엄히 신문하고, 속히 왕법(王法)을 바로 잡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 嘉慶 十三年 戊辰 十一月 八日 己巳

○ 掌令柳濼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11월 8일(기사)

▢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유색(柳濼)의 계

○ 장령(掌令) 유색(柳濼)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유배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유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 정배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 정배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 정배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중한 심문을 실시하게 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十一月 九日 庚午

○ 司諫金熙華, 持平李止淵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亟令王府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設鞫嚴問, 快正王法【措辭見上】……. 答兩司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11월 9일(경오)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사간 김희화(金熙華) 등의 계

○ 사간 김희화(金熙華), 지평 이지연(李止淵)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면하고 유배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즉시 왕부로 소환하여 엄중히 심문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청컨대, 추자도 안치죄인 서형수(徐瀅修)에게 국청을 열어서 엄중한 심문을 통해 왕법을 시원하게 집행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양사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 嘉慶 十三年 戊辰 十一月 九日 庚午

○ 持平李止淵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 答府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11월 9일(경오)

▢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지평 이지연(李止淵)의 계

○ 지평 이지연(李止淵)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유배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유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 정배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 정배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 정배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중한 심문을 실시하게 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十一月 十日 辛未

○ 掌令柳濼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11월 10일(신미)

▢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유색(柳濼)의 계

○ 장령 유색(柳濼)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유배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유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 정배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 정배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 정배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중한 심문을 실시하게 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十一月 十七日 己酉[戊寅]

○ 掌令柳濼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不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11월 17일(기유[무인])

▢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유색(柳濼)의 계

○ 장령 유색(柳濼)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유배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유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 정배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 정배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 정배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중한 심문을 실시하게 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三年 戊辰 十一月 二十二日 癸未

○ 以濟州牧使韓鼎運狀啓, 進上唐金橘, 柑子代封, 惶恐待罪事, 傳于曺允遂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8년(1808) 무진년 11월 22일(계미)

▢ 제주(濟州) 당금귤(唐金橘) 진상에 관한 제주목사(濟州牧使) 한정운(韓鼎運)의 장계

○ 제주목사(濟州牧使) 한정운(韓鼎運)의 장계에, “당금귤(唐金橘)을 진상했으나 귤로 대신 봉진하였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기다린다”는 내용이라서, 조윤수에게 전교하기를, “죄를 기다릴 필요없다는 일로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한정운, 당금귤.

❖ 嘉慶 十三年 戊辰 十一月 二十三日 乙卯[甲申]

○ 朴宗薰,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濟州牧使韓鼎運災實分等狀啓, 則本州三十七里, 大靜十里, 置之稍實, 本州十四里, 大靜八里, 旌義二十四里, 置之之次, 本州二十七里, 大靜五里, 旌義十二里, 置之尤甚, 仍以爲後錄數件, 候風涉海, 遲速無期, 謹援已例, 一邊擧行, 一邊馳啓爲辭矣. 其一, 三邑穡事, 旣未均登, 舊還仍停, 新還期於準捧, 而尤甚面里, 許以某穀代納事也. 其一, 軍兵逃老故病廢之類, 嚴飭各該邑, 使之塡充, 差待開春, 從附近哨司分鍊事也. 觀此狀辭, 雖有尤甚面里, 而通計山沿, 擧免甚歉, 且以屢豊之餘, 舊儲尙有餘力, 秋畊亦得廣作, 嗣歲民食, 庶幾無憂, 爲島民誠爲幸甚. 後錄二條, 旣已依近例先爲擧行, 竝與分等, 依狀請施行事, 分付, 何如? 傳曰, 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11월 23일(을묘[갑신])

▢ 제주(濟州) 세 고을의 농사 현황 보고

○ 박종훈(朴宗薰)이 비변사의 말을 전하여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한정운(韓鼎運)이 제출한 재해 실태 등급 장계를 보니, 본주(제주(濟州))는 37리, 대정(大靜)은 10리로 ‘다소 실’한 것으로 분류되고, 본주 14리, 대정 8리, 정의(旌義) 24리는 ‘그 다음’으로 분류되고, 본주 27리, 대정 5리, 정의 12리는 ‘유별히 심함’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후록에 수록된 몇 가지 사항을, 바람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으므로, 삼가 선례를 들어 한편으로는 시행하고 한편으로는 급히 치계로 아뢰는 바입니다. 첫째, 3현의 농사 수확이 아직 고루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존 환납은 여전히 중단하고, 신규 환납은 정해진 기한에 맞춰 납부하도록 하며, 특히 상황이 심각한 면과 리는 특정 곡물로 대체 납부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첫째, 군병 중 도망친 자, 노약자, 병자, 폐인 등의 부류를 엄중히 각 해당 현에 통지하여 충원하게 하고, 봄이 오기를 기다려 인근 초소에서 선발하는 일입니다. 이 장계 내용을 보면, 비록 유별히 심한 면리가 있기는 하나, 산연(山沿)을 통틀어 보면 심한 흉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이은 풍작의 여파로 옛 비축량에 아직 여력이 남아 있고, 가을 농사도 널리 지을 수 있어, 내년도 민생은 걱정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섬 주민들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후록에 기재된 두 가지 사항은 이미 최근의 관례에 따라 먼저 시행하였으며, 등급을 나누어 장

계 내용에 따라 시행할 것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한정운, 대정, 정의.

❖ 嘉慶 十三年 戊辰 十二月 七日 戊戌

○ 以濟州防禦使韓鼎運狀啓, 莫重薦新乳柑, 不得如數封進, 惶恐待罪事, 傳于元在明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8년(1808) 무진년 12월 7일(무술)

▢ 제주(濟州) 유감(乳柑) 천신(薦新)에 관한 한정운(韓鼎運)의 장계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한정운(韓鼎運)의 장계에, “막중한 천신(薦新) 유감(乳柑)이 정해진 수량만큼 봉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여깁니다.”라는 내용을 전하자, 원재명(元在明)에게 전교하기를, “죄를 기다리지 말 일로 회유하라.” 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방어사, 한정운, 천신, 유감.

❖ 嘉慶 十三年 戊辰 十二月 七日 戊戌

○ 元在明, 以禮曹言啓曰, 卽接濟州牧使韓鼎運狀啓謄報, 則今十二月令宗廟薦新洞庭橘, 如數封進, 而同月令宗廟·景慕宮薦新乳柑, 備數無路, 以一百二十箇, 都封上送, 以爲稟旨薦進事爲辭矣. 洞庭橘, 依例當日薦進, 而宗廟·景慕宮薦新乳柑, 雖未備數, 分排薦進, 多有已例, 今亦依前例分排, 當日一體薦進, 何如? 傳曰, 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12월 7일(무술)

▢ 제주(濟州)의 천신(薦新) 동정귤(洞庭橘)과 유감(乳柑) 진상에 관한 원재명(元在明)의 아룀

○ 원재명(元在明)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한정운의 장계 등본을 접수하였는데, 이에 금년 12월 종묘에 올릴 천신(薦新) 동정귤(洞庭橘)은 정해진 수량대로 봉하여 올렸으나, 같은 달 종묘와 경모궁에 올릴 천신 유감(乳柑)은 정해진 수량을 마련할 길이 없어 120개를 모두 봉하여 올리며, 이를 품지(稟旨)하여 허락을 받은 뒤 올리는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동정귤은 예에 따라 당일 진상하여야 하나, 종묘·경모궁에 진상할 천신 유감은 수량이 부족하더라도 분배하여 진상하는 선례가 많았으니, 이번에도 전례의 분배에 따라 당일 일체를 진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천신, 동정귤, 유감.

❖ 嘉慶 十三年 戊辰 十二月 十五日 丙午

○ 徐春輔, 以備邊司言啓曰, 濟州牧使韓鼎運, 以其身病, 呈狀請遞, 瘴鄕經年, 病果難强, 則海防重務, 瘝曠可悶, 許遞, 何如? 傳曰, 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12월 15일(병오)

▢ 제주목사(濟州牧使) 한정운(韓鼎運)의 장청(狀請)

○ 서춘보(徐春輔)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한정운(韓鼎運)이 병을 이유로 사임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니, 해충이 창궐하는 지방에서 수년간 근무하여 병세가 과연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방 수호의 중대한 임무가 소홀히 방치되어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사임을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한정운.

❖ 嘉慶 十三年 戊辰 十二月 十七日 戊申

○ 備邊司薦望, 以李顯宅爲濟州牧使.

❖ 순조 8년(1808) 무진년 12월 17일(무신)

▢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이현택(李顯宅)을 제수함

○ 비변사의 추천에 따라 이현택(李顯宅)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임명하였다.

△ 주제어: 이현택, 제주목사.

❖ 嘉慶 十三年 戊辰 十二月 十八日 己酉

○ 徐春輔, 以濬川司言啓曰, 本司都廳李顯宅, 濟州牧使遷轉, 代以御營廳千摠徐有達差下, 使之察任, 何如? 傳曰, 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12월 18일(기유)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의 전임에 관한 건

○ 서춘보가 준천사(濬川司)의 말로 아뢰기를, "본사(本司) 도청(都廳) 이현택(李顯宅)이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전임함에 따라 그 자리를 대신하여 어영청(御營廳) 천총(千摠) 서유달을 파견하여 임명을 검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현택.

❖ 嘉慶 十三年 戊辰 十二月 二十二日 癸丑

○ 都政吏批, …… 濟州牧使單李顯宅, …… 韓吉謇爲大靜縣監, …… 孫應虎爲濟州判官, …….

❖ 순조 8년(1808) 무진년 12월 22일(계축)

▢ 제주목사(濟州牧使)와 대정현감(大靜縣監), 제주판관(濟州判官) 임명에 관한 보고

○ 도정(都政)이 이비(吏批)에, "〈상략〉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이현택(李顯宅)을 단망(單望)함. 〈중략〉 한길모(韓吉謇)를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음. 〈중략〉 손응호(孫應虎)를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음.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현택, 한길모, 대정현감, 손응호, 제주판관.

❖ 嘉慶 十三年 戊辰 十二月 二十二日 癸丑

○ 徐春輔, 以備邊司言啓曰, 卽見全羅監司李冕膺狀啓, 則以爲濟州大靜縣西林前洋, 漂到異國人十六名, 考其票文, 見其問情, 則乃是江南省蘇州府元和縣商船之逢風漂到者, 船隻破碎, 願從旱路還歸, 而粧船鐵物, 換賣一款, 自島中, 難以措處, 請令廟堂, 稟旨分付矣. 所着衣袴, 雖已造給, 朝夕供饋, 沿路刷馬, 各別申飭擧行, 以示朝家優恤之意, 定差員次次交替, 上送于京中, 自京中轉送灣府, 以爲入送北京之地, 所經各邑, 禁雜人等節, 一體另飭擧行, 彼人物件中, 可以運致者, 亦以刷馬替送, 卜重難運者, 折價以給, 破碎船隻, 棄置什物, 彼人所見處, 已爲燒火, 今無可論, 而至於粧船鐵物, 令道臣, 從長區處, 先以某樣公貨, 推移折價以給京譯官, 以小落月島奉山面漂人領來譯官, 同爲領來, 似爲便好, 而今此濟州漂人之越海遲速, 有難預度, 令該院更定漢學譯官一人, 給馬下送于濟州都會官, 待漂人越海, 更爲問情後, 與差員, 眼同領來, 而漂人果得趁爲越海, 可以追及於先次漂人未渡灣之前, 則仍令該譯官, 領付於先去咨官處, 亦甚方便咨文, 令槐院預爲撰出兩本以待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12월 22일(계축)

▢ 제주(濟州) 대정현(大靜縣) 서림 앞바다 표류 이국인의 처리에 관한 건

○ 서춘보(徐春輔)가 비변사의 보고를 받아 아뢰기를, "방금 전라감사 이면응(李冕膺)의 장계를 보니, 제주(濟州) 대정현(大靜縣) 서림(西林) 앞바다에 외국인이 16명이 표류해 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표문(票文)을 살펴보고, 사정을 조사해 보니, 이는 강남성(江南省) 소주부(蘇州府) 원화현(元和縣) 상선이 바람을 만나 표류해 온 것으로, 배가 파손되어 육로로 귀환하기를 원하며, 선박의 철제 물품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마련하고자 하나, 섬 안에서 이를 처리하기 어려우니, 묘당에서 칙지를 내려 지시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입을 옷과 바지는 이미 제작하여 지급하였으며, 아침저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여정 중 말을 제공하도록 각별히 지시하여 시행하게 하여, 조정의 우대 의사를 나타내었으며, 담당관을 지정하여 차례로 교대하며 경성으로 상송하고, 경성에서 다시 만부(灣府)로 송부하여 베이징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유하는 각 고을에서는, 잡인 등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도 일체 별도로 엄명하여 이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물품 중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쇄마(刷馬)로 체송(替送)하게 하고, 짐으로 운반이

지나치게 어려운 것은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파손된 선박과 버려진 잡동사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미 불태워졌으므로 더 이상 논할 바가 없으나, 선박의 철제 부품에 대해서는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적절히 처분하게 하였습니다. 우선 모양(某樣)의 공화(公貨)를 추산하여 현금으로 환산해 경도 통역관에게 지급하고, 소낙월도(小落月島) 봉산면(奉山面) 표류인들이 데려온 통역관과 함께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제주 표류인들의 해협 횡단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우니, 해당 원에서 한학 통역관 1명을 추가로 지정하여 말을 지급하고 제주 도회관으로 보내게 하고, 표류인들이 바다를 건너는 것을 기다려 상황을 확인한 뒤, 파견된 관리와 함께 인솔해 오도록 하되, 만일 표류인들이 제때 바다를 건너, 앞서 떠난 표류인들이 만을 건너지 않은 시점까지 따라잡을 수 있다면, 여전히 해당 통역관을 통해 앞서 간 사신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괴원(槐院)으로 하여금 미리 2부를 작성하여 대기하도록 지시하는 취지로, 이를 하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대정현, 서림.

❖ 嘉慶 十三年 戊辰 十二月 二十三日 甲寅

○ 戊辰十二月二十三日辰時, 上御熙政堂. 守令·邊將·察訪初仕人入侍時, …… 濟州牧使 李顯宅, …… 大靜縣監韓吉謇, …… 濟州判官孫應虎, …… 以次就立階下訖. 上曰, 守令中曾經侍從人, 進伏楹內, 仍命以次奏職·姓名. 光泰等, 各進奏職·姓名後, 以次退出. 上曰, 邊將, 一一奏職·姓名, 可也. 邊將以下, 各奏職·姓名, 鱗次退出. 上曰, 守令及上土·滿浦邊將, 竝令不多日內辭朝. 【出榻敎】 仍命退. 承史以次退出.

❖ 순조 8년(1808) 무진년 12월 23일(갑인)

▢ 제주목사(濟州牧使)와 대정현감(大靜縣監), 제주판관(濟州判官) 등의 알현

○ 무진년(1808) 12월 23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갔다. 수령·변장·찰방 및 초임 관리들이 입시했을 때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 〈중략〉 대정현감(大靜縣監) 한길모 〈중략〉 제주판관(濟州判官) 손응호 〈중략〉 (이들이) 차례대로 계단 아래에 서자,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 중에서 과거에 시중을 맡았던 자들은 영내(楹內)로 들어와 엎드리고, 차례대로 직책과 성명을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광태 등이 각자 직책과 성명을 보고한 뒤, 차례대로 물러났다. 임금이 말하기를, “변방 장수들은 하나하나 직책과 성명을 아뢰라.”라고 하니, 변방 장수들은 각자 직책과 성명을 아뢰고 차례대로 물러났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 및 상토·만포 변방 장수들은 모두 며칠 내로 조정을 떠나게 하라.”라고 하였다. 【탑교를 내었음】 물러가라고 하자, 승사들이 차례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제주목사, 대정현감, 제주, 판관.

❖ 嘉慶 十三年 戊辰 十二月 二十四日 乙卯

○ 金薯根啓曰, …… 濟州判官孫應虎, 兩司當爲署經云, 除在外〈外〉, 未肅拜人員, 竝卽牌招, 何如? 傳曰, 允.

❖ 순조 8년(1808) 무진년 12월 24일(을묘)

▢ 제주판관(濟州判官) 손응호(孫應虎)의 서경에 관한 김시근의 아룀

○ 김시근(金薯根)이 아뢰기를, "〈상략〉 제주판관(濟州判官) 손응호(孫應虎)가 양사에서 마땅히 서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외지(外地)에 있는 자는 제외하고 아직 숙배(肅拜)하지 않은 인원은 모두 즉시 패초(牌招)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손응호.

❖ 嘉慶 十三年 戊辰 十二月 二十五日 丙辰

○ 戊辰十二月二十五日辰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 載瓚曰, 卽見濟州牧使韓鼎運狀啓, 則以爲大靜縣監元相堯, 莅任三載, 銳意修擧, 捐出廩俸, 自辦物力, 修改公廨與軍器, 論賞一款, 請令廟堂考例稟處矣. 以窮島殘邑, 有此修補, 大可嘉尙賞典, 令該曹稟處,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魯東等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上曰, 不允.【出擧條】…… 魯東等曰,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上曰, 不允.【出擧條】…… 熙華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上曰, 不允.【出擧條】…….

❖ 순조 8년(1808) 무진년 12월 25일(병진)

▢ 제주목사(濟州牧使) 한정운(韓鼎運)의 장계와 여러 안치 죄인의 처벌에 관한 계

○ 무진년(1808) 12월 25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들이 알현하여 모셨을 때, 〈중략〉 김재찬(金載瓚)이 말하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한정운(韓鼎運)의 장계를 보았는데, 그 내용은 대정현감(大靜縣監) 원상요(元相堯)가 부임한 지 3년 동안 열의를 다해 치세를 펼치고, 흉년 때의 급여를 기부하며 자비로 물력을 조달하여 관저와 군기를 수리하였으니, 포상 문제에 관해 조정에 관례를 참고하여 처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딴 섬의 황폐한 고을에서 이와 같은 수리가 이루어진 것은 대단히 칭찬할 만하고 상을 줄 만한 일인 바, 해당 부처에 보고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중략〉 노동 등이 아뢰기를,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면하고 유배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즉시 왕부로 소환하여 엄중히 심문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거조(擧條)를 냄】”라고 하였다. 〈중략〉 윤노동(尹魯東) 등이 아뢰기를, “〈중략〉 청컨대, 추자도 안치죄인 서형수(徐瀅修)에게 국청을 열어서 엄중한 심문을 통해 왕법을 시원하게 집행하십시오.【거조(擧條)를 냄】”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희화(金熙華)가 아뢰기를, “〈중략〉 청컨

대, 흑산도 유배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유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 정배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 정배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 정배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중한 심문을 실시하게 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거조(擧條)를 냄】"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한정운, 대정현감, 원상요.

❖ 嘉慶 十三年 戊辰 十二月 二十七日 戊午

○ 備忘記, 昌城府使柳和源, 濟州牧使李顯宅, 滿浦僉使趙義鎭, 水口萬戶宋明哲下直, 各長弓一張, 長箭一部, 片箭一部, 筒兒一箇, 賜給.

❖ 순조 8년(1808) 무진년 12월 27일(무오)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 등이 하직함

○ 비망기에, 창성부사 유화원(柳和源),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 만포첨사 조의진(趙義鎭), 수구만호 송명철(宋明哲)이 하직인사를 하자, 각각 장궁 1자루, 장살 1묶음, 편살 1묶음, 화살통 하나씩 하사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현택.

❖ 嘉慶 十三年 戊辰 十二月 二十七日 戊午

○ 戊辰十二月二十七日辰時, 上御誠正閣. 下直守令·邊將入侍時, 右副承旨曺允遂, 假注書朴基宏, 記注官李仁迪, 記事官申在植, 濟州牧使李顯宅, 昌城府使柳和源, 咸從府使李升權, 振威縣令韓用誠, 陽川縣令李喆運, 陽德縣監金相順, 以次進伏. 滿浦僉使趙義鎭, 靑石僉使韓光蘊, 水口萬戶宋明哲, 以次就立階下. 上曰, 履歷邊將, 陞殿內. 義鎭進伏, 上曰, 次次進前, 奏職·姓名, 可也. 顯宅, 進前, 奏職·姓名, 上曰, 濟州, 越海遠地也, 下去着實爲之, 宣諭除之. 至和源, 上曰, 邊地也, 下去着實爲之, 七事除之. 至升權, 上曰, 邊地也, 與他有異, 爾又是故家子弟也, 下去着實爲之. 至用誠, 上曰, 下去着實爲之. 至喆運, 上曰, 下去着實爲之. 至相順, 上曰, 下去着實爲之. 至義鎭, 上曰, 滿浦與他有異, 江界以蔘弊·還弊, 民情有切骨之急, 廟堂草記, 欲其另擇. 又於平安監司下去時, 以蘇弊之意, 有所下敎, 爾之下去後, 每事與監司相議, 如或有自斷處, 必須從便善爲之, 可也. 顯宅等退出. 上命邊將, 各奏職·姓名. 光蘊·明哲, 奏職·姓名. 上曰, 下去着實爲之. 光蘊退出. 仍命退, 承史以次退出.

❖ 순조 8년(1808) 무진년 12월 27일(무오)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 등이 하직함

○ 무진년(1808) 12월 27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하직 수령과 변장들이 입시할 때, 우부승지 조윤수, 가주서 박기굉, 기주관 이인적, 기사관 신재식,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 창성부사 유화원, 함종부사 이승권, 진위현령 한용함, 양천현령 이철운, 양덕현감 김상순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렸다. 만포첨사 조의진, 청석첨사 한광온, 수구만호 송명철이 차례로 계하(階下)에 섰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력 있는 변방 장수들은 전(殿)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였다. 조의진이 앞으로 나아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차례대로 앞으로 나와 직책과 성명을 아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현택이 앞으로 나와 직책과 성명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는 바다 건너 먼 땅이니, 내려가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라.”라고 하였다. 선유(宣諭)는 면제하였다. 화원에 이르자, 임금이 말하기를, “변방이니, 내려가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라.”라고 하였다. 칠사(七事)를 면제하였다. 승권이 이르자, 임금이 말하기를, “변방이니 다른 곳과 다르며, 너는 또 유서 깊은 가문의 자제이니, 내려가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

라."라고 하였다. 용함이 이르자, 임금이 말하기를, "내려가서 성실히 행하라."라고 하였다. 철운이 이르자, 임금이 말하기를, "내려가서 성실히 행하라."라고 하였다. 상순이 이르자, 임금이 말하기를, "내려가서 성실히 행하라."라고 하였다. 의진이 이르자, 임금이 말하기를, "만포는 다른 곳과 다르고, 강계는 인삼 폐해와 귀환 폐해로 인해 민정이 뼈저리게 급한 상황이라, 묘당에서 초서를 올려 별도로 선발하기를 원한다. 또 평안감사가 하달될 때, 소폐(蘇弊)의 뜻으로 하교한 바 있으니, 네가 내려간 뒤 모든 일을 감사와 상의하고, 혹시 자단(自斷)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편리한 대로 잘 처리하라."라고 하였다. 현택 등이 물러났다. 임금이 변장들에게 각기 직책과 성명을 아뢰라고 명했다. 광온·명철이 직책과 성명을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려가서 확실히 행하라."라고 하였다. 광온이 물러났다. 이어 물러나라고 명하자, 승사(承史)들이 차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현택.

❖ 嘉慶 十三年 戊辰 十二月 二十八日 己未

○ 戊辰十二月二十八日辰時, 上御誠正閣. 下直守令·邊將·察訪入侍時, 同副承旨徐春輔, 記事官洪起燮, 別兼春秋鄭觀綏, 記事官申在植, 松禾縣監權中緝, 抱川縣監尹行勉, 大靜縣監韓吉謇, 濟州判官孫應虎, 上土僉使元永麟, 麒麟察訪洪龜燮, 景陽察訪車珍衡, 以次進伏. 潼關僉使金祥鯉, 廢茂山萬戶李亨國, 恣溫萬戶金聲集, 阿山萬戶李載興, 進立階上訖. 上曰, 守令等, 次次進前奏職姓名, 可也. 中緝, 進前奏職姓名. 上曰, 下去着實爲之, 可也. 至行勉, 上曰, 弊邑也, 各別小心爲之, 可也. 至吉謇, 上曰, 越海之地, 與他有異, 至如馬政, 亦爲着實撿擧, 期有蕃息之效, 可也. 至應虎, 上曰, 絶島也, 與他有異, 下去着實爲之也. 至永麟, 上曰, 擇差之地, 與他尤異, 弊瘼之可以蘇革者, 必思蘇革之方, 亦或報於上營, 以聞於朝廷, 着實對揚, 無負差遣之意, 可也. 至龜燮, 上曰, 下去着實爲之也. 至珍衡, 上曰, 下去着實爲之也. 上曰, 邊將皆令各奏職姓名也. 祥鯉等, 以次奏職姓名. 上曰, 下去小心着實爲之也. 上命春輔, 守令宣諭·別諭, 仍命察訪先退, 龜燮等退出. 宣諭·別諭訖, 上命守令, 各奏七事, 中緝等, 各奏七事訖. 上命守令先退, 中緝等退出. 上命春輔, 邊將宣諭, 宣諭訖, 上命邊將先退, 永麟等退出. 春輔曰, 向因金吾滯囚, 歲除不遠, 有次堂擧行之命, 而今日新除授禁堂二員中, 李相璜差祭, 無以備員開坐, 何以爲之, 而長堂則以病不得開坐, 旣無草記擧行之命, 則勢無以變通矣. 上命書傳敎曰, 差祭同義禁許遞, 前望單子入之, 待下批牌招察任. 仍命書榻敎曰, 禁府時囚, 以草記照律. 上曰, 俄見兵曹草記, 訓鍊把摠之以軍號事, 擅離直所, 有所駭妄之擧者, 極爲可駭, 而軍號二字, 旣是英廟朝尊號中字, 則雖有以此字頒布之前謄錄, 然固非善爲之事, 以此意, 申飭兵曹, 可也. 仍命退, 承史以次退出.

❖ 순조 8년(1808) 무진년 12월 28일(기미)

▢ 대정현감(大靜縣監)과 제주판관(濟州判官) 등이 하직함

○ 무진년(1808) 12월 28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하직 수령·변장·찰방이 입시할 때, 동부승지 서춘보, 기사관 홍기섭, 별겸춘추 정관수, 기사관 신재식, 송화현감 권중집, 포천현감 윤행면, 대정현감(大靜縣監) 한길모(韓吉謇), 제주판관(濟州判官) 손응호(孫應虎), 상토첨사 원영린, 기린찰방 홍구섭, 경양찰방 차진형 등이 차례로 들어와 엎드렸다. 동관첨사 김상리, 폐무산만호 이형국, 온만호 김성집, 아산만호 이재흥이 계단에 올라 섰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들은

차례대로 앞으로 나와 직책과 성명을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중집이 앞으로 나와 직책과 성명을 보고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려가서 성실히 수행하라."라고 하였다. 행면이 이르자, 임금이 말하기를, "부패한 고을이니, 각별히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길모가 이르자, 임금이 말하기를, "바다 건넌 땅이라 다른 곳과 다르니, 말 관리에 있어서도 실속 있게 점검하여 번성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응호가 이르자, 임금이 말하기를, "절도여서 다른 곳과 다르니, 내려가서 착실히 행하라."라고 하였다. 영린이 이르자, 임금이 말하기를, "선발된 지역이니 다른 곳과 더욱 다르니, 쇠퇴한 것을 부흥시킬 수 있는 바가 있다면 반드시 부흥할 방법을 강구하여, 혹은 상영에 보고하여 조정에 알리고, 착실히 임무를 수행하여 파견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하였다. 귀섭이 이르자, 임금이 말하기를, "아래로 내려가서 성실히 행하라."라고 하였다. 진형이 이르자, 임금이 말하기를, "아래로 내려가서 성실히 행하라."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변방 장수들은 모두 각자의 직책과 성명을 상주하라."라고 하였다. 상리 등이 차례대로 직책과 성명을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가서 신중히 성실히 행하라."라고 하였다. 임금이 춘보에게 수령들에게 선유(宣諭)와 별유(別諭)를 하도록 명하고, 이어서 찰방에게 먼저 물러나도록 명하니, 귀섭 등이 물러났다. 선유와 별유를 마친 뒤, 임금이 수령들에게 각기 칠사(七事)를 아뢰도록 명하고, 중집 등이 각기 칠사를 아뢰었다. 임금이 수령들에게 먼저 물러나도록 명하자, 중집 등이 퇴장하였다. 임금이 춘보와 변장에게 선유하도록 명하고, 선유를 마친 뒤 임금이 변장들에게 먼저 물러나도록 명하자, 영린 등이 퇴장하였다. 춘보가 말하기를, "지난번 금오가 구금되어 있던 때,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차당(次堂)이 이를 집행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오늘 새로 임명된 금당(禁堂) 2명 중 이상황이 차제(差祭)로 인해 자리를 채울 수 없어 회의를 열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장당(長堂)은 병으로 인해 회의를 열 수 없는데, 이미 초기로 거행하라는 명령이 없으니, 사정을 변통할 방법이 없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傳敎)를 써서 내리며 말하기를, "차제 동의금(同義禁)은 교대하게 하고, 전망(前望) 단자를 제출하여, 하급의 비패(批牌)가 내려질 때까지 조사하여 임명하라."라고 하였다. 또한 탑교(榻敎)를 내리며 말하기를, "의금부(義禁府)의 현재 수감자들은 초기(草記)에 따라 법에 따라 처리하라."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방금 병조 초기를 보니, 훈련 파총이 군호(軍號)를 이유로 직소를 무단 이탈하여,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한 것은 지극히 놀랍다. 그러나 군호 두 글자는 이미 영조 시대 존호 중의 글자이므로, 비록 이 글자를 반포하기 전의 사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래 옳은 일이

아니니, 이 뜻을 병조에 재차 환기시켜도 좋으리라."라고 하였다. 이에 물러가라고 명하니, 승사들이 차례로 물러났다.

△ 주제어: 대정현감, 한길모, 제주판관, 손응호.

1809年

(순조 9)



❖ 嘉慶 十四年 己巳 一月 一日 辛酉

○ 金薯根, 以禮曹言啓曰, 凡賀箋, 留守·監司·兵使·水使·防禦使, 雖罷職, 封進事載在法典, 而今己巳年正朝朝賀諸道所封箋文中, 水原府留守李集斗, 濟州兼防禦使韓鼎運封箋, 雖已遞罷, 依例看品內入, 而會寧府使金處漢, 寧邊府使金明淳, 洪州牧使鄭萬始, 旣已遞任出代, 雖已封箋, 竝不得一體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9년(1809) 기사년 1월 1일(신유)

▢ 제주겸방어사(濟州兼防禦使) 한정운(韓鼎運)의 전문(箋文)에 관한 예조의 계

○ 김시근(金薯根)이 예조(禮曹)의 뜻으로 아뢰기를, "모든 하전(賀箋)은 유수(留守)·감사(監司)·병사(兵使)·수사(水使)·방어사(防禦使)가 비록 파직되었더라도 봉진(封進)하는 일은 《법전(法典)》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기사년(己巳年: 1809) 정조(正朝)에 각 도에서 조하(朝賀)로 올린 전문(箋文) 가운데,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 이집두(李集斗)와 제주(濟州) 겸 방어사(濟州兼防禦使) 한정운(韓鼎運)이 올린 전문은 비록 이미 파직되었으나, 예에 따라 간품(看品)하여 안으로 들였습니다. 반면에 회령부사(會寧府使) 김처한(金處漢), 영변부사(寧邊府使) 김명순(金明淳), 홍주목사(洪州牧使) 정만시(鄭萬始)는 이미 이임되어 교체되었는데도 이미 전문을 올려서, 모두 함께 받아들이지 않은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겸 방어사, 한정운, 전문.

❖ 嘉慶 十四年 己巳 一月 五日 乙丑

○ 金薯根, 以禮曹言啓曰, 卽接大靜幼學姜啓新所志, 則以爲八寸兄弼紀, 嫡妾俱無子, 以其同生弟弼昌第二子應輔, 欲爲繼後, 兩家相議完定, 而未及禮斜之前, 弼昌夫妻俱歿, 與者無人, 不得循例禮斜, 依定式草記稟處事呈狀矣. 凡係繼宗立後者, 兩邊與受, 明有可據而不得登聞者, 許令該曹, 論理草記事, 曾有筵奏定式, 而門長姜啓新所訴旣如此, 依定式姜弼昌第二子應輔, 立爲姜弼紀之後, 何如? 傳曰, 允.

❖ 순조 9년(1809) 기사년 1월 5일(을축)

▢ 대정(大靜) 유학(幼學) 강계신(姜啓新)의 소지(所志)에 관한 예조의 계

○ 김시근(金薯根)이 예조(禮曹)의 뜻으로 아뢰기를, "곧 대정(大靜) 유학(幼學) 강계신(姜啓新)의 소지(所志)를 접했는데, 8촌 형(八寸兄) 필기(弼紀)와 본처·첩[嫡妾] 사이에는 모두 자식이 없고, 동생 필창(弼昌)의 둘째 아들 응보(應輔)를 후계로 삼고자 양가가 상의하여 완전히 정하였으나 예사(禮斜)[195]가 나오기 전에 필창 부부가 모두 돌아가 후손이 없으므로 예사에 따르지 못하였으며, 정식에 따라 초기(草記)를 품처(稟處)하는 일로 정장(呈狀)한 것입니다. 무릇 계종(繼宗)과 입후(立後)와 관계된 것은 양편이 주고 받아서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도 등문(登聞)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해당 조로 하여금 논리대로 초기할 일을 이전에 연주(筵奏)에서 정식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문장(門長) 강계신(姜啓新)이 소송한 바가 이러하니, 정식에 따라 강필창(姜弼昌)의 둘째 아들 응보를 강필기(姜弼紀)의 후계로 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 강계신 소지.

195) 예사(禮斜): 예조(禮曹)에서 양자(養子)의 청원을 허가하여 주던 일. 또는 그런 글. '예조의 빗기[斜只]'라는 뜻으로 禮斜(예사)로 쓴 것임. 조선 1437년(세종 19)에 처음으로 시행하였음.

❖ 嘉慶 十四年 己巳 一月 九日 己巳

○ 徐春輔, 以備邊司言啓曰, 全羅道靈光郡小落月島奉山面兩處, 漂到大國人, 不日上來矣. 依近例, 直令入接于弘濟院後, 更爲問情, 所着衣袴, 分付各該司, 依例題給, 令領來譯官, 仍爲領往北京, 而定差員次次領送事, 分付各該道臣. 亦令義州府, 預先馳通于鳳城將處, 以爲渡江後護送之地, 而前此濟州大靜縣漂到大國人領來草記時, 以漂人果得趁爲越海, 可以追及於先次漂人未到灣之前, 則仍令該譯官, 領付於先去咨官之意爲辭矣. 自該牧, 尙未越海, 則趁得追付於今去咨官, 恐似無路. 第更限以到灣日字, 其間如無別般知委, 則該咨官, 勿爲遲留, 仍卽渡灣入去之意, 竝爲分付, 何如? 傳曰, 允.

❖ 순조 9년(1809) 기사년 1월 9일(기사)

▢ 제주(濟州) 대정현(大靜縣)에 표류 대국인(大國人)에 관한 비변사의 계

○ 서춘보(徐春輔)가 비변사(備邊司)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라도(全羅道) 영광군(靈光郡) 소낙월도(小落月島)와 봉산면(奉山面) 두 곳에 표류한 대국인(大國人)이 조만간 올라올 것입니다. 근례에 따라 곧바로 홍제원(弘濟院) 뒤에서 접수하게 하고, 다시 문의하도록 하며, 입고 있는 의복과 바지는 각 해당 관청에 분부하여 근례대로 지급하도록 하고 거느려 올 역관(譯官)으로 하여금 그대로 베이징[北京]으로 거느려 가게 하고, 차원(差員)을 정하여 차례로 거느려 보내도록 할 일을 각 해당 도신(道臣)에게 분부해야 합니다. 또한 의주부(義州府)로 하여금 미리 봉성장(鳳城將)에게 급히 통지하여 강을 건넌 뒤에 호송하게 해야 합니다. 이전에 제주(濟州) 대정현(大靜縣)에 표류한 대국인을 거느려 와서 초기(草記)할 때, 표류인이 과연 빨리 바다를 건너게 하면 앞서 표류한 사람이 만(灣)에 도착하기 전에 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해당 역관으로 하여금 거느리게 해서 먼저 간 자문관[咨官]에게 붙였다는 뜻의 말이 있었습니다. 해당 목사(牧使)로부터 아직 바다를 건너지 않았다면 지금 간 자문관에게 즉시 덧붙이는 것도 길이 없을 듯합니다. 다시 도만(到灣)일자를 제한하고, 그 사이에 다른 지시가 없으면 해당 자문관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만을 건너가도록 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대정현, 대국인.

❖ 嘉慶 十四年 己巳 一月 十日 庚午

○ 掌令閔致載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康津縣定配罪人若鏞,濟州牧島配罪人致薰,金海府定配罪人學逵,固城縣定配罪人與權,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不允.

❖ 순조 9년(1809) 기사년 1월 10일(경오)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掌令) 민치재(閔致載) 계

○ 장령(掌令) 민치재(閔致載)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불러들여 국문(鞫問)을 시행하고 엄히 신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십시오. 〈하략〉.” 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四年 己巳 一月 二十八日 戊子

○ 大司諫鄭來百, 執義崔履亨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夫正王法. …….
答曰, 不允. 樾事, 忍杖抵賴, 雖已徑斃, 追孥自有禁令, 不允.

❖ 순조 9년(1809) 기사년 1월 28일(무자)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대사간(大司諫) 정래백(鄭來百)의 계

○ 대사간(大司諫) 정래백(鄭來百)과 집의(執義) 최이형(崔履亨)이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형(減刑)되어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다시 잡아오게 하고,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십시오. 〈중략〉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문하고 엄히 신문하여, 속히 왕법(王法)을 바로잡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추국(樾事) 중에 곤장을 참고 버텨서 잡아 떼다가 비록 이미 죽으면, 그 가족을 추형하는 일은 금지령이 있으니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四年 己巳 一月 二十八日 戊子

○ 執義崔履亨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순조 9년(1809) 기사년 1월 28일(무자)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집의(執義) 최이형(崔履亨)의 계

○ 집의(執義) 최이형(崔履亨)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문을 설치하고 엄히 신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아래로 내린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四年 己巳 一月 二十九日 己丑

○ 大司諫鄭來百, 執義崔履亨, 獻納洪儀泳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9년(1809) 기사년 1월 29일(기축)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대사간(大司諫) 정래백(鄭來百)의 계

○ 대사간(大司諫) 정래백(鄭來百), 집의(執義) 최이형(崔履亨), 헌납(獻納) 홍의영(洪儀泳)이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형되어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다시 압송하여 오게 하고,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시원히 전형(典刑)을 바르게 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문을 설치하고 엄히 신문하여 시원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四年 己巳 一月 二十九日 己丑

○ 執義崔履亨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 答曰, 不允.

❖ 순조 9년(1809) 기사년 1월 29일(기축)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집의(執義) 최이형(崔履亨)의 계

○ 집의(執義) 최이형(崔履亨)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문을 설치하고 엄히 신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르게 하소서.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四年 己巳 二月 十五日 乙巳

○ 金宗善, 以備邊司言啓曰, 濟州大靜縣西林前洋漂到大國人, 不日上來矣, 依近例直令入接于弘濟院後, 更爲問情, 所着衣袴, 分付各該司, 依例題給, 令領來譯官, 仍差咨官, 領往北京, 而定差員次次領送事, 分付各該道臣, 亦令義州府, 預先馳通于鳳城將處, 以爲渡江後護送之地, 何如? 傳曰, 允.

❖ 순조 9년(1809) 기사년 2월 15일(을사)

▢ 제주(濟州) 대정현(大靜縣)에 표류한 대국인(大國人)에 관한 비변사의 계

○ 김종선(金宗善)이 비변사(備邊司)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대정현(大靜縣) 서림(西林) 앞 바다에 표류하여 온 대국인(大國人)이 머지않아 올라올 것이니, 근래의 예에 따라 곧바로 홍제원(弘濟院)에서 맞이하게 하고, 다시 정상을 물은 뒤에, 입은 의복은 해당 각 사(司)에 나누어 지시하여 예에 따라 지급하게 하며, 데려올 통역관으로 하여금 그대로 자관(咨官)으로 차출하고 베이징[북경(北京)]으로 이끌어 가게 하며, 차원(差員)을 정하여 차례로 거느려 보내게 하는 일을 해당 도신(道臣)들에게도 분부하고, 또한 의주부(義州府)로 하여금 미리 봉성장(鳳城將)에게 급히 통지하게 하여, 강을 건넌 뒤에 호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허락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대정현, 서림, 대국인.

❖ 嘉慶 十四年 己巳 二月 十八日 戊申

○ 金宗善, 以備邊司言啓曰, 濟州大靜縣西林前洋漂到大國人, 入接弘濟院後, 使本司郎廳及譯官問情, 則與領來譯官李榮載問情時問答, 別無異同, 故正書入啓, 而今此漂人, 皆願速歸, 卽爲發送, 何如? 傳曰, 允.

❖ 순조 9년(1809) 기사년 2월 18일(무신)

▢ 제주(濟州) 대정현(大靜縣) 서림(西林)에 표류하여 온 대국인(大國人)에 관한 비변사의 계

○ 김종선(金宗善)이 비변사(備邊司)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대정현(大靜縣) 서림(西林) 앞바다에 표류하여 온 대국인(大國人)을 홍제원(弘濟院)에서 맞이한 뒤, 본사(本司)의 낭청과 통역관으로 하여금 정상을 물었더니, 데려온 통역관 이영재(李榮載)와 정상을 물을 때의 문답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기록하여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류자들은 모두 속히 귀국하기를 원하니, 곧바로 발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대정현, 서림, 대국인.

❖ 嘉慶 十四年 己巳 二月 十八日 戊申

○ 朴宗薰, 以義禁府言啓曰, 大逆不道罪人夢瑞應坐罪人, 自漢城府考績籍報來矣. 孫宜良, 全羅道濟州牧大靜縣緣坐爲奴, 而方在南原地, 依例令刑曹擧行, 何如? 傳曰, 允.

❖ 순조 9년(1809) 기사년 2월 18일(무신)

▢ 손의량(孫宜良)을 전라도(全羅道)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에서 노비로 삼겠다는 의금부의 계

○ 박종훈(朴宗薰)이 의금부(義禁府)의 말로 아뢰기를, "대역부도죄인(大逆不道罪人) 몽서(夢瑞)의 응좌(應坐) 죄인이 한성부(漢城府)에서 적적(績籍)을 살펴서 보고되었나이다. 손의량(孫宜良)은 전라도(全羅道)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에 연좌(緣坐)하여 노비가 되었으며, 현재는 남원 지방에 있으니, 예에 따라 형조(刑曹)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허락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손의량, 제주목, 대정현.

❖ 嘉慶 十四年 己巳 二月 十八日 戊申

○ 執義崔履亨, 掌令權炘·愼宜學, 正言李止淵等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夬正典刑.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夬正王法. ……. 答曰, 不允. 夢瑞事不允.

❖ 순조 9년(1809) 기사년 2월 18일(무신)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집의(執義) 최이형(崔履亨)의 계

○ 집의(執義) 최이형(崔履亨), 장령(掌令) 권희(權炘)·신의학(愼宜學), 정언(正言) 이지연(李止淵) 등이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사(減死)되어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에 명하여 다시 압송하게 하고,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밝혀, 속히 전형(典刑)을 바르게 하소서. 〈중략〉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문하여, 속히 왕법(王法)을 바르게 하소서.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몽서(夢瑞)의 일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四年 己巳 二月 十八日 戊申

○ 執義崔履亨, 掌令權炘·愼宜學等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不允.

❖ 순조 9년(1809) 기사년 2월 18일(무신)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집의(執義) 최이형(崔履亨)의 계

○ 집의(執義) 최이형(崔履亨), 장령(掌令) 권희(權炘)·신의학(愼宜學) 등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명하여 국문하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어 속히 전형(典刑)을 바르게 하소서.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四年 己巳 二月 十九日 己酉

○ 朴宗薰, 以刑曹言啓曰, 因義禁府啓辭, 大逆不道罪人夢瑞應坐罪人, 自漢城府考籍報來矣. 孫宜良, 全羅道濟州牧大靜縣緣坐爲奴, 而方在南原地, 依例令刑曹擧行事, 命下矣. 罪人宜良, 方在南原地云, 分付該道, 卽爲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9년(1809) 기사년 2월 19일(기유)

▢ 손의량(孫宜良)을 대정현(大靜縣)에서 노비로 삼겠다는 형조의 계

○ 박종훈(朴宗薰)이 형조(刑曹)의 일로 아뢰기를, "의금부(義禁府)의 계사(啓辭)에 따라 대역부도(大逆不道) 죄인 몽서(夢瑞)에 연좌된 죄인이 한성부(漢城府)에서 고적(考籍)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손의량(孫宜良)은 전라도(全羅道)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에서 연좌되어 노비가 되었는데, 지금 남원(南原) 지방에 있다 하니, 예에 따라 형조에 명하여 집행하게 하라는 명이 내렸습니다. 죄인 의량(宜良)이 지금 남원 지방에 있다 하므로, 해당 도(道)에 분부하여 곧바로 배소(配所)로 압송하게 하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손의량, 제주목, 대정현.

❖ 嘉慶 十四年 己巳 二月 十九日 己酉

○ 掌令愼宜學, 正言李止淵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夫正王法【措辭見上】答曰, 不允. …….

❖ 순조 9년(1809) 기사년 2월 19일(기유)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장령(掌令) 신의학(愼宜學)의 계

○ 장령(掌令) 신의학(愼宜學)과 정언(正言) 이지연(李止淵)이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형하여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에 명하여 다시 잡아 오게 하고,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중략〉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문하여 엄히 신문하고 속히 왕법(王法)을 바로 잡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四年 己巳 二月 十九日 己酉

○ 掌令愼宜學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答曰, 不允. …….

❖ 순조 9년(1809) 기사년 2월 19일(기유)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의 처벌에 관한 장령(掌令) 신의학(愼宜學)의 계

○ 장령(掌令) 신의학(愼宜學)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196]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명하여 국문을 설치하고 엄히 신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이학규.

196) 이 부분은 원본 기록이 잘못된 듯함. 왜냐하면 당시에 제주도에 유배된 사람은 '이치훈'이기 때문임.

❖ 嘉慶 十四年 己巳 二月 二十日 庚戌

○ 朴宗薰, 以刑曹言啓曰, 大逆不道罪人夢瑞·孫宜良, 濟州牧大靜縣緣坐爲奴, 押送配所事, 命下矣. 旣是臺啓方張之後, 則當以不得擧行之意, 措辭仰請, 而循例草記, 至承知道之命, 臣之矇不覺察, 惶恐待罪, 而罪人之押送配所, 不得依例擧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卿則推考.

❖ 순조 9년(1809) 기사년 2월 20일(경술)

▢ 몽서(夢瑞)·손의량(孫宜良)을 대정현(大靜縣)에서 노비로 삼겠다는 형조의 계

○ 박종훈(朴宗薰)이 형조(刑曹)의 말로 아뢰기를, "대역부도(大逆不道)의 죄인 몽서(夢瑞)·손의량(孫宜良)은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에서 연좌되어 노비가 되었는데, 배소(配所)로 압송하는 일에 대해 명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이는 대(臺)의 계문이 확장된 뒤이므로, 마땅히 '거행하지 못한다'는 뜻을 담은 말을 올려 아뢰고, 예에 따라 초기(草記)를 만들어 '알겠노라.'는 명을 받은 뒤에야 가능한 일이었사오나, 신이 어두워 알아차리지 못하고, 두렵고 황송하여 죄를 기다립니다. 이에 죄인을 배소로 압송하는 일을 예에 따라 거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겠다. 경이 추고(推考)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몽서, 손의량, 대정현.

❖ 嘉慶 十四年 己巳 三月 二十一日 辛巳

○ 金宗善,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前牧使韓鼎運遞任進上馬三匹, 前判官李夢龍遞任進上馬三匹, 大靜前縣監元相堯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 而進獻事體, 何等嚴重, 所封馬匹, 俱爲骨孱體瘦, 比前尤甚. 當該封進濟州前牧使韓鼎運, 前判官李夢龍, 大靜前縣監元相堯, 竝從重推考, 以警日後, 何如? 傳曰, 允.

❖ 순조 9년(1809) 기사년 3월 21일(신사)

▢ 제주목사(濟州牧使)와 판관, 대정(大靜) 현감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김종선(金宗善)이 사복시(司僕寺)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한정운(韓鼎運)이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 전 판관 이몽룡(李夢龍)이 체임진상마 3필,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원상요(元相堯)의 체임진상마 2필이 이제야 비로소 올라왔으므로, 말의 나이와 털빛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게 하고, 예에 따라 내구(內廐)에서 사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헌한 사안의 체통은 매우 엄중한 것인데, 올려보낸 말들은 모두 뼈가 약하고 몸이 수척하여 이전보다도 더욱 심합니다. 마땅히 해당 봉짐을 담당한 제주 전 목사 한정운, 전 판관 이몽룡, 대정 전 현감 원상요를 모두 중하게 추고하여, 장차 뒤에 경계로 삼도록 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제주판관, 대정현감, 체임진상마.

❖ 嘉慶 十四年 己巳 四月 十八日 丁未

○ 金魯敬以備邊司言啓曰, 昨冬濟州大靜縣漂到大國人十六名, 因船隻之破碎, 使之從旱路入送, 而其破碎船 所粧碇釘等鐵物四千三百餘斤, 依道臣狀請折價, 關西銀八十六兩二分, 出給該漂人處, 咨文中亦以此意, 措辭撰送矣. 卽見盛京禮部咨文, 則以爲, 漂人等所帶鐵物, 多至四千三百餘斤, 恐該民等, 有違禁不法船載鐵器, 是何物件, 詳細開單, 竝將鐵物咨送前來, 其給價若干, 亦應一竝開報云矣. 所謂鐵物, 本非漂人所持之別樣器物, 乃是破碎船隻之船板桅竿粧飾鐵釘及船什中鐵碇等物, 故原咨文, 以粧船爲言者, 良以此也, 而今以來咨觀之, 粧字改書以裝字, 有若裝載者然, 起疑於船載鐵器, 有此移咨之擧, 不可不以此事實, 消詳撰咨, 卽速入送, 而此是因禮部具奏, 自盛京別爲移咨者, 則亦當別定咨官, 入送北京, 以此意分付於承文院, 司譯院, 何如? 傳曰, 允.

❖ 순조 9년(1809) 기사년 4월 18일(정미)

▢ 대정현(大靜縣)에 표류해 온 대국인(大國人)의 배에 관한 비변사의 보고

○ 김노경(金魯敬)이 비변사(備邊司)의 말로 아뢰기를, “지난겨울 제주(濟州) 대정현(大靜縣)에 표류해 온 大國人 16명은, 배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육로로 보내게 하였으며, 그 파손된 배에 있던 장식·닻·못 등의 철물 4,300여 근에 대하여, 도신(道臣)의 장계에 따라 값으로 환산하여 관서(關西)의 은(銀) 86냥 2푼을 해당 표류민에게 지급하고, 자문(咨文) 중에도 이 뜻에 따라 조심스레 문구를 지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盛京)의 예부(禮部)에서 보낸 자문을 보면, 표류민들이 가지고 온 철물이 무려 4,300여 근이나 되어, 혹시 그 백성들이 금지된 규정을 어기고 철물을 배에 실었을까 염려되니, 그것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품목을 적은 단자를 만들고, 철물도 함께 자문에 실어 보내며, 지급한 금액도 모두 함께 적어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소위 ‘철물’이라는 것은 원래 표류민이 따로 가지고 온 물품이 아니고, 부서진 배의 선판, 돛대, 장식 못과 배에 쓰이는 닻 같은 철기류일 뿐이므로, 원래 보낸 자문에서 ‘장식한 배(粧船)’라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착한 자문을 보면, ‘장식할 장(粧)’ 자가 ‘장재할 장(裝)’ 자로 바뀌어 쓰여, 마치 철물을 실은 것처럼 되어버려, 철물 적재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어 이러한 이문[移咨]을 하게 되었으니, 이 사정을 명백히 하여 자문을 상세히 지어 즉시 보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부

가 주상께 주청한 것에 따라 성경에서 따로 자문을 보내온 것이므로, 역시 따로 자관(咨官)을 정하여 자문을 베이징으로 보내야 하니, 이 뜻을 승문원과 사역원에 분부하심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대국인.

❖ 嘉慶 十四年 己巳 五月 二十一日 庚辰

○ 己巳五月二十一日午時, …… 臣謂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宜矣. 上曰, 不允.【出擧條】…….

❖ 순조 9년(1809) 기사년 5월 21일(경진)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계

○ 기사년(己巳年: 1809) 5월 21일 정오에, 〈상략〉 "신은 생각하옵건대,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는 모두 왕부(王府)에 명하여 국문(鞫問)을 베풀고 엄히 신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거조(擧條)를 냄】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四年 己巳 六月 五日 甲午

○ 己巳六月初五日卯時, …… 臣謂黑山島島配罪人若銓,康津縣定配罪人若鏞,濟州牧島配罪人致薰,金海府定配罪人學逵,固城縣定配罪人與權,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上曰, 不允.【出擧條】…….

❖ 순조 9년(1809) 기사년 6월 5일(갑오)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계

○ 기사년(己巳年) 6월 초5일 묘시(卯時)에, 〈상략〉 "신은 생각하옵건대,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는 모두 왕부(王府)에 명하여 국문(鞫問)을 베풀고 엄히 신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거조(擧條)를 냄】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四年 己巳 六月 十二日 辛丑

○ 掌令孟欽圭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措辭見上】…….

❖ 순조 9년(1809) 기사년 6월 12일(신축)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맹흠규(孟欽圭)의 계

○ 장령 맹흠규(孟欽圭)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명하여 국문(鞫問)을 베풀고 엄히 신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는 위에서 볼 수 있나이다】〈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四年 己巳 六月 十四日 癸卯

○ 以濟州防禦使李顯宅狀啓本州人物溘死事, 傳于趙萬元曰, 許多人物之一時溘死, 聞甚矜惻, 元恤典外別加顧恤, 如有生前身還布, 竝卽蕩減.

❖ 순조 9년(1809) 기사년 6월 14일(계묘)

▢ 제주(濟州) 인물의 엄사(溘死)한 건에 대한 휼전 지급을 전교함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이현택(李顯宅)이 제주(濟州) 인물이 엄사(溘死)한 일이 있는데, 조만원(趙萬元)에게 전교하기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엄사한 일이 매우 애통하게 들리니, 원 휼전(恤典) 외에 따로 특별히 고휼(顧恤)하게 하라. 만약 생전에 신포(身布)와 환포(還布)가 있으면 모두 곧바로 탕감(蕩減)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엄사.

❖ 嘉慶 十四年 己巳 六月 十四日 癸卯

○ 己巳六月十四日卯時, …… 羲淳曰, 收用遠人, 朝家之大政也. 每當都政時, 有西北·松都·濟州人收用之下敎, 朝家法意, 固有在矣, 而自昨年五衛將定式後, 西北·松都·濟州人, 雖有薦出身, 未經堂下實職, 則雖已經邊將者, 無以見擬於五衛將加資, 以後便無收用之道, 致有抑鬱之歎, 就其正科人有地閥陞資者, 如經邊將, 則擬入於五衛將, 旣不悖定式之意, 又似無濫雜之慮, 且以醫官事言之, 昨年節目中已經主簿別提者, 始許擬入, 而謹稽本院事例, 則醫官以正職施行事, 曾有飭敎, 故雖未經實職, 自前差擬五衛將, 便成已例, 依前收用, 恐合事宜, 至如有薦武蔭之人, 雖經堂下職, 旣陞資則仍無收用之道, 亦爲可悶, 一體檢擬, 而竝爲添節目施行, 何如? 上曰, 五衛將差擬濫雜之弊, 固宜禁斷, 而至於所奏中數事, 旣是先朝定式, 又以武南言之, 全不通擬, 亦不無向隅之歎, 擇地閥一體差擬, 而俾無因此冒濫之弊, 可也.【出擧條】…….

❖ 순조 9년(1809) 기사년 6월 14일(계묘)

▢ 제주(濟州) 출신(出身)의 천거에 관한 건

○ 기사년(己巳年: 1809) 6월 14일 묘시(卯時)에, 〈상략〉 김희순(金羲淳)이 말하기를, "먼 바다의 사람[遠人]을 수용(收用)하는 것은 조정의 큰 정사입니다. 매번 도정(都政)을 할 때마다 서북(西北), 송도(松都), 제주(濟州) 사람들에 대한 수용 하교(下敎)가 있었습니다. 조정의 법 의도는 본래 확고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오위장(五衛將)의 정식(定式)이 시행된 이후로, 서북·송도·제주 사람들은 출신(出身)을 천거하더라도 당하(堂下)의 실직(實職)을 거치지 않으면, 비록 이미 변장(邊將)이 된 자라도 오위장에 가자(加資)하는 데에 견줄 수 없으니, 이후로는 수용하는 길이 없게 되어 억울하다는 탄식이 있습니다. 정과(正科) 인사 가운데 지벌(地閥)을 가진 사람이 변장을 거친 경우는 오위장에 들이는 것으로 정식에 어긋나지 않고, 남용의 우려도 없습니다. 또한 의관(醫官) 문제로 보면, 지난해 절목(節目) 중에 이미 주부(主簿)와 별제(別提)로 정한 자는 비로소 오위장에 들이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본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의관은 정직(正職)으로 시행하고, 칙교(飭敎)가 있었으므로, 비록 실직을 거치지 않았어도 이전에 차(差)하여 오위장에 들이는 것이 이미 관례가 되었습니다. 기존대로 수용하는 것이 사리에 맞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음(武蔭)으로 천거된 자는 비록 당하 직을 거쳤어도, 이

미 승자(陞資)된 후에는 수용할 길이 없으니 답답한 일입니다. 일체 검토하여 차례로 절목을 추가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위장 차등으로 인한 남용 폐단은 반드시 금단하여야 하되, 올린 여러 사안은 선조 때의 정식이고 또 무남(武南)의 말이니 전혀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은 또한 실망스러운 일이라, 지벌을 골라 일체 차등을 하여 이로 인해 남용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 출신.

❖ 嘉慶 十四年 己巳 六月 二十六日 乙卯

○ 以全羅監司李冕膺狀啓 濟州牧漂留呂宋人, 入送盛京, 轉還本國事, 令廟堂稟旨分付事, 傳于宋祥濂曰, 呂宋國人之許久留置, 蓋緣言語不通, 書字不明之致而然, 今見狀啓, 自此不難於道路之辨知, 且有我國漂人之見呂宋國者, 其爲呂國之人, 尤無可疑, 況九年漂居, 三人纔存, 前以見琉球國人, 而思故土之心益切, 今又見言語之沕合, 而癡狂訴泣又如此, 此是人性之固然, 情狀亦極矜惻, 以此事措辭, 撰出咨文, 轉致盛京, 以爲生歸故國之地, 供饋護送等節, 亦爲各別申飭, 以示朝家優恤之意事, 一體分付.

❖ 순조 9년(1809) 기사년 6월 26일(을묘)

▢ 제주목(濟州牧)에 표류한 여송(呂宋) 사람의 환송(還送)에 관한 장계

○ 전라감사 이면응(李冕膺)의 장계에, 제주목(濟州牧)에 표류하여 머무르고 있는 루손[呂宋] 사람을 성경(盛京)으로 들여 보내어 도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분부하게 한일에 대해, 송상렴(宋祥濂)에게 전교하기를, "여송 사람[呂宋國人]들이 오랫동안 머물게 된 까닭은 언어가 통하지 않고 글씨가 명확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장계를 보니, 앞으로는 도로에서 분별하고 아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 표류민이 루손국 사람을 본 일이 있으니, 그들이 루손국 사람임은 더욱 의심할 바가 없다. 더구나 9년간 표류하여 3명만 살아남았는데, 이전에 류큐국 사람을 만나 고향 생각이 더욱 절실해졌으며, 지금은 언어가 맞지 않아 어리석게 울부짖는 상황도 이처럼 심하니,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당연한 것이고, 사정도 매우 애통하다. 이런 사정을 담아 조심스럽게 조사하여 자문(咨文)을 작성해 성경에 보내, 생환(生歸)하여 고국의 땅에 돌아가도록 하며, 양식과 호송 등도 각각 별도로 엄히 명하여 조정의 우유부단하다는 뜻의 일을 일체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루손 사람.

❖ 嘉慶 十四年 己巳 七月 一日 己未

○ 宋祥濂, 以備邊司言啓曰, 以全羅監司李冕膺, 因濟州牧使李顯宅謄報, 濟州留置呂宋國人三名, 入送盛京事, 請令廟堂稟處, 而判付內, 有撰出咨文, 轉致盛京之命矣. 今此呂宋國人, 當初漂到之時, 則不知爲何國人, 而直爲入送于盛京, 故自盛京還爲出送, 而今則與辛酉入送之時, 大有異焉, 丁卯琉球漂人, 始謂以呂宋國人, 蓋琉球之於呂宋, 雖未知其地之遠近, 而同是東海列國, 旣有聲聞之相及, 交易之互通, 故不意相逢, 已知爲該國之人, 則卽此一證, 其爲呂宋人, 已爲無疑, 而況黑山民之漂到呂宋也. 逢着中國人之先爲漂居者, 文字問答, 明知爲呂宋, 且習諳其風土·面目·衣服·言語而歸, 驗於見在三人, 則面貌無錯, 方音相合, 而三人之自聞此事, 如夢得覺, 則國是呂宋之國, 人是呂宋之人, 節節無一毫可疑. 然則津送該國, 不可少緩, 而但水路則方向無處, 程道無憑, 今若强爲起送, 則誠有所不忍, 大國則, 以黑山民回路推之, 自琉球直到呂宋, 自呂宋直到廣東省香山縣, 仍爲轉向北京還歸, 則該國雖無朝貢之禮, 海路必有往來之程, 而尙可有指憑去向之便矣. 在今還送之道, 惟當入送大國, 以漂人起送之例, 固宜具咨文定咨官, 領付盛京, 而但曾在壬戌, 旣自盛京, 還爲出送, 而伊後幾年, 更不得以此事, 有所往覆, 今忽直爲入送, 則事涉無端, 易致起訝, 果不無又爲見格之慮. 三人則姑爲留置, 先以前後事實及明是呂宋人之由, 令文任, 詳爲撰出咨文, 趁此進賀使行, 付送于禮部, 待回咨出來, 始爲定咨官入送盛京, 何如? 傳曰, 允.

❖ 순조 9년(1809) 기사년 7월 1일(기미)

▢ 제주(濟州)에 표류한 여송(呂宋) 사람에 관한 비변사의 계

○ 송상렴(宋祥濂)이 비변사(備邊司)의 말로 아뢰기를, “전라감사 이면응(李冕膺)이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의 보고에 따라, 제주(濟州)에 머무는 여송국인(呂宋國人) 3명을 성경(盛京)으로 보내는 일에 대해, 묘당에 품지(稟旨)하여 처리하도록 청하고, 판부(判付) 안에는 자문을 작성하여 성경으로 보내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여송국인은 처음 표류했을 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 곧바로 성경으로 보내졌고, 그리하여 성경에서 다시 출송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유(辛酉: 1801) 때 내 보낸 경우와 많이 다릅니다. 정묘(丁卯: 1807)년에 유구 표류민은 처음 여송인(呂宋人)이라 칭하였는데, 유구와 여송의 지리적 거리는 알 수 없으나 모두 동해 열국으로, 서로 묻는 바가 있고 교역이 있어 우연히

만나면 해당국 사람임을 알았으니, 이것만으로도 여송 사람임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더욱이 흑산민(黑山民)이 여송에 표류했을 때, 중국인(中國人) 선주(先主)를 만나 머물며 문답으로 여송임을 분명히 알고, 풍토와 얼굴, 복식, 언어를 익혀 돌아왔습니다. 3명을 검증해 보면 외모와 방언이 일치하여 이 사정을 들은 세 사람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하여, 그 나라가 여송국이며 사람이 여송 사람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로 보내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으나, 단지 수로로만은 방향과 경로가 불확실하여 만약 억지로 내보낸다면 차마 그럴 수 없겠습니다. 대국은 흑산민의 귀로를 추정하여 보면, 유구에서 여송까지, 여송에서 광동성(廣東省) 향산현(香山縣)까지, 다시 베이징[北京]으로 돌아가는 경로가 있으며, 그 나라가 조공하는 예는 없으나 해로로 반드시 왕래가 있으니 방향과 경로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현재 돌려 보내는 길은 반드시 대국(大國)으로 보내야 하니, 표류민을 내보내는 예에 따라 자문(咨文)을 작성하고 자관(咨官)을 정하여 성경에 보내야 하며, 단지 임술(壬戌: 1802) 이후 성경에서 내보낸 이후 몇 년간 이 일을 두고 어떤 변동도 없었으므로, 갑자기 곧바로 들여보내는 것은 이유가 불분명하여 의아를 초래하며, 또 다시 격렬한 반발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세 사람은 당분간 머물게 하고, 앞뒤 사실과 여송 사람임을 명확히 하는 근거로 문서를 맡겨 자문을 상세히 작성하여 축하 사절의 행차에 맞춰 예부에 보내 회답을 받은 뒤 자관을 정하여 성경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여송국인.

❖ 嘉慶 十四年 己巳 七月 一日 己未

○ 宋祥濂,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歲貢馬二百匹內, 二匹到中路故失, 四匹到中路病留, 五匹到本寺病留, 四十六匹訓鍊都監, 十二匹禁衛營, 十二匹御營廳軍馬分給除, 實納馬一百十九匹, 禾毛色,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9년(1809) 기사년 7월 1일(기미)

▢ 제주(濟州) 선운(先運) 세공마(歲貢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송상렴(宋祥濂)이 사복시(司僕寺)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선운(先運)의 세공마(歲貢馬) 200필 중에서, 2필은 중로(中路)에 이르러 죽어 잃고, 4필은 중로에 이르러 병들어 남았으며, 5필은 본시(本寺)에 이르러 병들어 남았습니다. 46필은 훈련도감(訓鍊都監), 12필은 금위영(禁衛營), 12필은 어영청(御營廳)의 군마로 나누어 주었으므로, 실납한 말은 119필입니다. 말의 나이와 털빛[禾毛色]을 별단으로 써서 들인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알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선운, 세공마.

❖ 嘉慶 十四年 己巳 七月 四日 壬戌

○ 宋祥濂,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運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凶咎駑駘馬二十匹, 合八十八匹內, 三匹到本寺病留除, 實納馬八十五匹, 禾毛色,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9년(1809) 기사년 7월 4일(임술)

▢ 제주(濟州) 후운(後運) 진상마(進上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송상렴(宋祥濂)이 사복시(司僕寺)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후운(後運) 연례 진상마(年例進上馬) 8필, 삼명일진상마(三名日進上馬) 60필, 흉구노태마(凶咎駑駘馬) 20필을 모두 합한 88필 가운데, 3필은 본시(本寺)에 이르러 병들어 남기고, 실제 납입한 말은 85필입니다. 말의 나이와 털빛은 별단으로 써서 들인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후운, 진상마.

❖ 嘉慶 十四年 己巳 九月 二十四日 辛巳

○ 義禁府啓目粘連, 擊錚罪人趙漢錫原情云云. …… 楸子島徐瀅修等, 竝只量移, …….

❖ 순조 9년(1809) 기사년 9월 24일(신사)

▢ 추자도(楸子島) 서형수(徐瀅修)의 양이(量移)에 관한 의금부의 보고

○ 의금부(義禁府)의 계목점련(啓目粘連)에, "격쟁(擊錚) 죄인 조한석(趙漢錫) 운운. 〈중략〉 추자도(楸子島)의 서형수(徐瀅修) 등은 모두 다만 유배지로 옮긴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서형수.

❖ 嘉慶 十四年 己巳 九月 二十六日 癸未

○ 洪奭周, 以義禁府言啓曰, 因全羅道放未放修啓冊子, 本府回啓內, 稟秩李東奎·具命益·金世徵·李恩植·李海淸所坐, 俱不深重, 放未放秩, 竝依啓聞施行事, 判付內依允. 仍秩古今島李東萬, 蝟島李宗國, 薪智島李秀林, 楸子島徐瀅修, 量移, 順天金處巖, 古今島黃甚天, 光陽李翊模, 竝放送事, 命下矣. 樂安李東奎, 光州具命益, 長城金世徵, 臨陂李恩植, 潭陽李海淸, 順天金處巖, 古今島黃基天, 竝放送事, 分付道臣. 蝟島李宗國, 益山郡量移, 薪智島李秀林, 谷城縣量移, 而依例發遣府書吏羅將, 押送于各其配所, 古今島李東萬, 光陽李翊模, 楸子島徐瀅修, 臺啓方張, 不得擧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9년(1809) 기사년 9월 26일(계미)

▢ 추자도(楸子島) 죄인 서형수(徐瀅修)의 양이(量移)에 관한 의금부의 계

○ 홍석주(洪奭周)가 의금부(義禁府)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라도(全羅道)에서 방면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放未放] 수계책자(修啓冊子) 때문에, 본부에서 회답한 계문(啓文) 안에 품질(稟秩)인 이동규(李東奎)·구명익(具命益)·김세징(金世徵)·이은식(李恩植)·이해청(李海淸)이 저지른 일은 모두 깊이 중대하지 않으니, 방면 여부와 품계 문제는 모두 계문대로 시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고, 이에 판부(判付) 안에 따르게 윤허하였다. 또 품질인 고금도(古今島)의 이동만(李東萬), 위도(蝟島)의 이종국(李宗國), 신지도(薪智島)의 이수림(李秀林), 추자도(楸子島)의 서형수(徐瀅修)를 양이(量移)하고, 순천(順天)의 김처암(金處巖), 고금도의 황심천(黃甚天), 광양(光陽)의 이익모(李翊模)는 모두 방면하라는 명이 내렸습니다. 또 낙안(樂安)의 이동규, 광주(光州)의 구명익, 장성(長城)의 김세징, 임피(臨陂)의 이은식, 담양(潭陽)의 이해청, 순천의 김처암, 고금도의 황기천(黃基天)은 모두 방면하라는 일을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였습니다. 위도의 이종국은 익산군(益山郡)으로 옮겨 배치하고, 신지도의 이수림은 곡성현(谷城縣)으로 옮겨 배치하되, 예에 따라 부의 서리(書吏)를 파견하여 나장(羅將)이 각자의 배소(配所)로 압송하게 하였습니다. 고금도의 이동만, 광양의 이익모, 추자도의 서형수는 대계(臺啓)가 막 올려졌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알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서형수, 양이.

❖ 嘉慶 十四年 己巳 十月 二十四日 辛亥

○ 延曙察訪邊景鵬疏曰, …… 五曰, 荒政未盡. 胡氏傳曰, 國若凶荒, 或發廩而賑之, 或移粟而通用, 或移民而就食, 或爲粥溢, 以救餓莩, 或興工作, 以聚失業之人, 緩刑舍禁, 弛力薄征, 索鬼神除盜賊, 弛射帿而不燕, 置廷道而不修, 殺禮物而不備, 雖有水旱, 民無菜色, 所以救之者, 如此其至. 方今四道告歉, 而聖主賢相, 宵衣旰食, 凡係救荒之政, 巨細緩急, 靡不用極, 臣何敢更有補闕哉? 但臣濟産也, 本州有別儲穀, 先朝特憐甲乙之捐瘠, 歲在戊午, 別備精實皮穀二萬包, 而毋得輕糶, 毋得取耗, 常儲庫中, 以爲島民不時之需, 粒我鴻私, 如天罔極. 如何嗣後監色, 不承權輿, 或去皮作米, 或創出耗條, 春夏糶糴, 奸蠹層生, 每欲復初之聖制而不得也. 何幸設庫之後, 年和歲豐, 徒煩分捧之勞, 未見濟饑之效, 然而粒粒而精, 包包而完, 可以救數千口癸庚之急矣. 且濟州三邑之倉廩充溢, 而今秋大登云. 若合元倉別庫之穀, 限一萬六七千石, 移轉于湖南沿海邑, 接濟其顚連, 則島民姑息出納之苦, 歉邑幸得拯救之資, 可謂兩利全矣. 且況濟昔荐饑也, 湖沿之移粟往哺, 不知幾遭, 今又酬復, 固出於濟民樂爲之情乎? 如待他年之豐穰, 準數還報者, 不害爲彼此相資之誼也. 朱子曰, 賑饑無奇策, 不如講求水利, 稍待開春, 若於四道之內, 毁洑缺溝之處, 遍興工作, 募聚飢民, 服役得食, 則公家無白給之費, 嗣歲有預備之利, 其外可以治城葺廨修橋種樹等事例, 當給價募役者, 竝令擧行, 則庶民子來, 不日成之, 不但廣濟頷頤流離之命, 亦見公私利益悠遠之效, 一擧兩得, 無過於此者也. 伏願聖明, 竝令廟堂商覆而處之焉. 凡此五條, 非敢謂應天之實事, 亦足爲拾遺之一端, 故因求言之教, 而敢及之也. 嗚呼, 臣聞多難興邦, 殷憂啓聖, 竊惟近年之災異, 終底嘉祥, 客夏之赤魃, 遽變甘霈, 是則殿下之所躬行誠敬, 已見捷應者也. 今夫上帝之示變, 何莫非眷佑我國家, 仁愛我聖上, 欲其滋益修省, 而以享治安於億萬年也? 伏願殿下, 小心翼翼, 昭事上帝, 積至誠以凝天道, 緝聖學以明天理, 登俊良以共天職, 革膏肓以祛天蠹, 召肹蠁以致天休, 然後天心有不豫, 天時有不順, 天災有不息, 天澤有不降者, 臣未之信也. 臣不在其位, 而猥謀其政, 罪合重辟, 而徒將葵藿之微忱, 敢陳芻蕘之胡說. 伏乞聖明, 有以包容而察納焉. 臣無任云云. 省疏具悉. 諸條所陳切實, 令廟堂採施, 俾有實效之地.

❖ 순조 9년(1809) 기사년 10월 24일(신해)

▢ 제주(濟州)의 구휼(救恤) 정책에 관한 변경붕(邊景鵬)의 상소

○ 연서찰방(延曙察訪) 변경붕(邊景鵬)의 상소문에 이르기를, "〈상략〉 다섯째, 구휼(救恤) 정책이 아직 미진합니다. 『호씨전(胡氏傳)』[197]에 이르기를,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경우, 혹은 곳간을 열어 진휼하고, 혹은 곡식을 옮겨 유통하며, 혹은 백성을 이주시켜 식량이 있는 곳으로 보내고, 혹은 죽을 끓여 굶주린 자를 살리고, 혹은 토목 공사를 일으켜 실직한 자들을 모아 구제하며, 형벌을 느슨하게 하고 금령을 풀며, 부역을 완화하고 세금을 줄이며, 귀신을 달래고 도적을 제거하며, 사냥을 멈추고 잔치를 삼가며, 조정에 있는 길을 닦지 않고, 예물 마련을 생략하며, 이러한 조처들을 모두 다한다면 비록 수재(水災)·한재(旱災)가 있더라도 백성의 얼굴빛은 변하지 않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흉년을 구제하는 가장 극진한 방법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사방 4도(四道)가 모두 흉작을 호소하는 바, 성군(聖君)과 어진 재상이 아침저녁으로 근심하시며, 구휼을 위한 모든 정사를 크고 작은 것, 빠르고 늦은 것 가리지 않고 다 시행하고 있으니, 신이 감히 또 무엇을 더 보완하겠습니까? 다만 신(臣)은 제주(濟州)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온데, 본주(本州)에 따로 비축한 곡식이 있어, 선왕(先王)께서 백성의 궁핍을 특별히 가엾이 여기시어, 무오년(戊午年: 1798)에 별도로 정선된 피곡(精實皮穀) 2만 포대를 마련하고 함부로 방출하거나 삭감하거나, 손해를 보게 하지 말라고 하며 평상시 곳간에 항시 보관하게 하여 섬 백성의 긴급한 수요에 대비하게 한 것이니 이는 마치 하늘 같은 은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 감색(監色, 곡식을 관리하던 하급관원)들이 처음 정한 뜻을 따르지 않고 피곡(皮穀)을 도정하여 백미로 만들거나, 새로운 손실 항목을 만들어 삭감하고, 봄과 여름에 매입·매각하는 과정에서 탐욕과 부정이 층층이 생기니 신은 예전의 성스러운 제도를 회복하고자 하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이 곳간을 설치한 뒤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곡식을 나누어주는 수고만 있었을 뿐 실제로 기근을 구제한 실적은 보지 못하였으나, 포대마다 정미롭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여 천 명, 혹은 수천 명의 기아를 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지금 제주 세 고을[三邑]의 곳간은 곡식이 가득하고 올가을에도 풍년이라 하니, 원창(元倉)과 별고(別庫)의 곡식을 합하여 1만 6~7천 석 가량을, 호남(湖南) 해안 지역의 굶주린 고을로 옮겨,

197) 『호씨전(胡氏傳)』: 중국 송대(宋代) 고종(高宗)의 명에 의해 소흥(紹興) 5년(1135)에 호안국(胡安國: 1074~1138)이 편찬한 『춘추호씨전(春秋胡氏傳)』을 이르는데, 『춘추(春秋)』의 해석서임.

그 기근을 구제하게 한다면, 섬 백성은 출납의 고통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고, 흉년 지역은 구제받는 기회가 생기니, 이를 두고 '양쪽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제주가 예전에도 수차례 큰 기근을 겪을 때마다 호남 연해에서 곡식을 옮겨 와 먹인 일이 수없이 많았고, 지금 그 은혜를 갚는 것이니 이는 섬 백성들이 스스로 나서서 돕고자 하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훗날 풍년이 들었을 때 정해진 수량만큼 되갚는 조건이라면 이는 상호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기근을 구제하는 데는 특별한 계책이 없다. 차라리 수리(水利)를 장려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내년 봄이 조금 지나면 사방 4도(道)의 무너진 둑이나 막힌 도랑을 수리하도록 공사를 널리 일으켜 굶주린 백성들을 모집하여 부역에 참여하게 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공짜로 곡식을 나눠줄 필요가 없고 다음 해에는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이익이 생기며, 그 외에도 성을 쌓고 관청을 수리하고 다리를 고치고 나무를 심는 등 급여를 주고 인력을 모집하여 시행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 이런 일들을 모두 실행하도록 하면 백성들은 스스로 찾아올 것이며 조만간 그 효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단지 굶주림과 유랑의 위기만을 구제할 뿐 아니라 공사(公私) 모두에게 멀리까지 이익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이 모든 방안을 조정에서 의논하여 실행토록 하십시오. 이상 다섯 가지 조항은 감히 하늘의 뜻에 꼭 맞는다고까지는 하지 못하나 유익한 보완책의 한 단초는 될 수 있으므로 말씀을 구하신 교지를 받들어 감히 아뢴 것입니다. 아아, 신은 듣건대, '시련이 있어야 나라가 강해지고, 근심이 있어야 성군이 드러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래 재해와 이변이 있었으나 마침내는 상서로운 조짐으로 바뀌었고, 지난여름 혹서와 가뭄 또한 곧이어 단비로 바뀌었으니, 이는 전하께서 몸소 정성과 공경을 다한 결과 하늘이 응답한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날 하늘이 이처럼 여러 변고를 보이는 것도 결국 우리 나라를 돌아보고 성상께 자애를 베푸시며, 더욱 반성과 수양을 독려하시고자 함이니 억만 년의 평치(平治)를 누리게 하려는 뜻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작은 일이라도 삼가 하시며 하늘을 공경하고 지극한 정성을 쌓아 하늘의 이치를 통하고 성현의 학문을 익혀 천리를 밝히며, 어진 이를 등용하여 하늘의 직분을 함께하며, 폐단을 고쳐 병폐를 제거하고, 간언을 받아들여 복을 끌어오신다면, 그때는 천심이 불편하거나, 천시가 불순하거나, 천재가 멈추지 않거나, 하늘의 은택이 내리지 않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신은 그 직위에 있지 않으면서 감히 정사에 대해 의논하였으니 죄는 마땅히 중하게 다스려야 할 일이오나 다만 해바라기와 콩잎처럼 작은 정성을 품고 함부로 나무꾼의 헛된 말을 아룁니다. 삼가 바

라오니, 성명하신 전하께서는 널리 포용하시어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신은 아무리 말씀드려도 부족합니다. 주상(상왕)이 전교하기를, “상소의 내용은 자세히 살폈으며, 각 조항이 진실하고 절실하니, 조정에 명하여 채택·시행케 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구휼.

❖ 嘉慶 十四年 己巳 十一月 二十五日 辛巳

○ 己巳十一月二十五日辰時, 上詣春塘臺. 元子誕生慶科增廣別試文武科殿試入侍時, 行都承旨閔耆顯, 行左承旨權常愼, 行右承旨金宗善, 左副承旨任厚常, 右副承旨李永老, 同副承旨金愚淳, 記事官李紀淵, 假注書李基栽, 記事官朴綺壽·李光文, 檢校直閣洪奭周·李魯益, 檢校待教朴宗薰以次詣閤. 時至, 通禮跪啓請外辨. 上具翼善冠·袞龍袍, 乘輿出宣化門. 藥房提調沈象奎, 副提調金宗善進前曰, 早朝峭寒, 聖體, 若何? 上曰, 一樣矣. 由協陽門·建陽門·靑陽門, 至春塘臺, 上降輿陞座訖. 兵曹判書朴宗慶曰, 卽見濟州牧使李顯宅牒報, 則乙丑年增廣武科初試入格人閑良康綖起送云, 而今則覆試已過矣. 本州以候風駕海之故, 初試人, 隨其上來, 許赴當前庭試, 載在法典, 而旣未趁期上來, 則所當勿施, 此與無端不赴有異, 特許陳試, 何如? 上曰, 旣有庚戌特例, 其在柔遠人之道, 別有示意之擧, 特爲直赴殿試, 可也. 【出擧條】 …….

❖ 순조 9년(1809) 기사년 11월 25일(신사)

▢ 제주(濟州) 증광 무과 초시(初試)에 입격자 강연(康綖)의 기송(起送)에 관해 논의함

○ 기사년(己巳年) 11월 25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갔다. 원자(元子)의 탄생을 경축하여 시행하는 증광별시(增廣別試) 문무과(文武科) 전시(殿試)에 임시로 들어올 때, 행(行) 도승지(都承旨) 민기현(閔耆顯), 행 좌승지 권상신(權常愼), 행 우승지 김종선(金宗善), 좌부승지 임후상(任厚常), 우부승지 이영로(李永老), 동부승지 김우순(金愚淳), 기사를 맡은 관리 이기연(李紀淵), 가주서(假注書) 이기재(李基栽), 기사관 박기수(朴綺壽)·이광문(李光文), 검교 직각(直閣) 홍석주(洪奭周)·이로익(李魯益), 검교 대교(待教) 박종훈(朴宗薰) 등이 차례로 합(閤)에 나아갔다. 시간이 되자, 통례가 꿇어앉아 외변(外辨)을 청하였다. 임금은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를 갖추어 입고, 가마를 타고 선화문(宣化門)을 나섰다. 약방(藥房) 제조 심상규(沈象奎)와 부제조 김종선이 앞으로 나아와 아뢰기를, “이른 아침 날씨가 몹시 차가운데, 성체(聖體)는 어떠하십니까?”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똑같다.”라고 하였다. 협양문(協陽門), 건양문(建陽門), 청양문(靑陽門)을 지나 춘당대에 이르니, 임금이 가마에서 내려 단(壇)에 올랐다. 병조판서 박종경(朴宗慶)이 아뢰기를, “즉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의 첩보(牒報)를 접하였는데, 을축년(乙丑年: 1805) 증광 무과 초시(初試)에 입격(入格)

한 한량(閑良) 강연(康綖)을 기송(起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시(覆試)까지 이미 끝났습니다. 본주(本州)에서는 바람을 기다려 바다를 건너야 하므로 초시 입격자는 그가 올라오는 대로 당전(當前)의 정시에 나아가도록 허락하게 되어 있음을 법전에 실어 두었으나, 이미 기일에 맞추어 올라오지 못한 것이니, 마땅히 시행하지 말아야 할 바입니다. 이는 아무 까닭 없이 정시에 응시하지 않은 것과는 다르오니, 특별히 시험에 참여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기왕에 경술년(庚戌年)에 있었던 특례가 있었고, 유원지(柔遠之地)를 대하는 도리에 있어 따로 의도를 보여주는 조치가 있는 것이니, 특별히 곧바로 전시에 나아가게 하여도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 주제어: 제주, 강연, 기송.

❖ 嘉慶 十四年 己巳 十二月 一日 丙戌

○ 權常愼, 以漢城府言啓曰, 今己巳年獻民數時, 京中八道戶口摠數, 抄錄入啓, 而濟州三邑民數, 姑未上來矣. 海島之往來遲速, 有難預料, 不得一時磨勘, 此則待其上來, 追後添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9년(1809) 기사년 12월 1일(병술)

▢ 기사년(己巳年: 1809) 제주(濟州) 백성의 수에 관한 한성부의 보고

○ 권상신(權常愼)이 한성부(漢城府)의 일로 아뢰기를, "이번 기사년(己巳年: 1809)에 바친 백성의 수(數)가 당시 서울과 팔도(八道)의 호구 총수를 초록하여 올렸사오나, 제주(濟州) 세 고을[三邑]의 민수(民數)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길의 더딤과 빠름은 미리 헤아리기 어려운 바가 있어서, 한때에 모두 상세히 조사하지 못함은, 그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려 뒤에 따로 덧붙여 기록하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알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기사년, 백성 수.

❖ 嘉慶 十四年 己巳 十二月 十五日 庚子

○ 以濟州牧使李顯宅狀啓, 節果代封惶恐待罪事, 傳于韓致應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9년(1809) 기사년 12월 15일(경자)

▢ 제주(濟州) 절과(節果) 대봉(代封)에 관한 장계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의 장계(狀啓)에, 절과(節果)를 대신 봉함에 대해 황공히 죄를 기다린다는 일에 대하여, 한치응(韓致應)에게 전교하기를, “죄를 기다리지 말게 할 일을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절과, 대봉.

❖ 嘉慶 十四年 己巳 十二月 十六日 辛丑

○ 以濟州防禦使李顯宅狀啓, 進上乳柑·洞庭橘代封, 惶悚待罪事, 傳于韓致應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9년(1809) 기사년 12월 16일(신축)

▢ 제주(濟州)에서 진상할 유감(乳柑)과 동정귤(洞庭橘)의 대봉(代封)에 관한 장계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이현택(李顯宅)의 장계(狀啓)에, 진상할 유감(乳柑)과 동정귤(洞庭橘)을 대신 봉한 일에 대해 두려워하며 죄를 기다린다고 한 것에 대해, 한치응(韓致應)에게 전교하기를, “죄를 기다리지 말게 할 일로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유감, 동정귤.

❖ 嘉慶 十四年 己巳 十二月 十六日 辛丑

○ 任厚常,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濟州牧使李顯宅災實狀啓, 則分等不爲擧論, 數件應行之事, 候風涉海, 恐有後時之慮, 謹援已例, 一邊擧行, 一邊馳啓爲辭矣. 其一, 三邑舊還, 姑爲仍停事也. 其一, 軍兵逃·老·故, 一一塡充, 待明春, 從附近哨司鍊事也. 本島屢豊之餘, 又得免歉, 各穀有均登之喜, 三邑無卒瘁之患, 而秋來犂耕, 亦可免嗣歲之憂, 爲島民誠爲萬幸. 後錄二條, 先已擧行, 且是年例所請, 竝依狀請施行事, 分付, 何如? 傳曰, 允.

❖ 순조 9년(1809) 기사년 12월 16일(신축)

▢ 제주목(濟州牧)의 재실장계(災實狀啓)에 관한 비변사의 계

○ 임후상(任厚常)이 비변사(備邊司)의 일로 아뢰기를, "곧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건대, 항목별로 나누어 논할 것은 아니오나, 여러 건의 마땅히 시행해야 할 일들이 바람을 기다려 바다를 건너야 하므로 뒤늦을 염려가 있어, 삼가 이미 있던 사례를 들어 한편으로는 시행하고 한편으로는 장계를 급히 올린다고 아룁니다. 그 하나는 세 고을[三邑]의 옛 환곡은 일단 그대로 정지하도록 하는 일이며, 그 하나는 군병이 도망가거나 늙거나 사망한 경우를 하나하나 채워 넣되, 내년 봄을 기다려 인근 초사(哨司)의 군사로써 단련시키려는 일입니다. 본도(本島)가 여러 해 풍년이 든 데 이어 또 흉년을 면하였고, 여러 곡식이 고르게 수확되는 기쁨이 있으며, 세 고을에 흉년으로 인한 병고도 없으며, 가을에 보리갈이도 이미 이루어져 내년을 걱정할 염려도 없습니다. 이는 섬 백성에게 참으로 큰 다행입니다. 뒤에 기록한 두 조항은 먼저 이미 시행하였고, 또 해마다 연례로 청하던 것이니, 모두 장계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분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재실장계.

❖ 嘉慶 十四年 己巳 十二月 十六日 辛丑

○ 金明淳以漢城府言啓曰, 濟州三邑民數, 今始上來, 依例入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9년(1809) 기사년 12월 16일(신축)

▢ 제주(濟州) 세 고을[三邑]의 백성 수[民數]에 관한 한성부의 보고

○ 김명순(金明淳)이 한성부(漢城府)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세 고을[三邑]의 백성 수[民數]에 대해서 이제야 비로소 올라왔기에, 예에 따라 등록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세 고을, 백성 수.

1810年

(순조 10)

❖ 嘉慶 十五年 庚午 一月 二日 丁巳

○ 鄭東榦, 以備邊司言啓曰, 卽見全羅監司李冕膺狀啓, 則以爲, 應賑九十處, 抄飢爲二十萬六千八百九十四口, 待春初開賑, 而劃下元賑資折米八萬一千五百石, 空名帖價米假令四千石, 內下錢及胡椒·丹木價米四千二百石, 進上停退除留米八百八十餘石, 今以一等所抄, 參互二三等追付之數, 竝與別巡, 統計十三巡, 則飢口之多, 似不出四百萬口內外, 賑穀不足, 折米限三萬石加劃事, 請令廟堂, 稟旨分付矣. 今以九萬石折米, 將賑四百萬飢民, 果有不給之慮, 而道啓所論, 若是懇至, 在朝家議賑之道, 更何所惜於三萬石之加請乎? 雖欲以某樣穀物加劃, 而旣停當捧之後, 未知所在者, 爲何司何穀, 而今聞所捧之數, 幾爲三十萬石, 竝與留庫而計之, 則就其中, 又劃加請之米, 足可取用. 無論某樣米穀, 自本道量宜拮据, 先爲取用, 以竣賑事, 果爲便好, 以此分付. 至於還政之悶急, 殆甚於賑政, 而見存之穀, 盡入於賑資, 則今春分還, 萬萬罔措. 乃有道臣移粟添穀之請. 嶺南則旣劃五萬石, 而向日該道臣, 陳疏請寢, 今又加劃, 非所可論, 關北則七萬石前有所劃, 關東則穀本不敷, 惟有措手之道, 不過兩西穀一條路而已. 此與賑資白給有異, 無論某衙門穀, 固當移此與彼, 先濟其急, 第其沿儲虛實, 姑難遙度, 轉輸便否, 亦未的知, 更加爛商後稟處. 濟州牧別儲穀一萬石, 卽備預本島之資, 島農屢豊, 姑無需用, 近聞島民, 果有還多之弊, 且較其道里, 湖沿相望, 一帆可到, 此時萬包穀物, 亦云不少. 第使道臣, 從便運致, 無論補賑與添還, 以爲取用之地, 而待年豊還報之意, 一體分付, 何如? 傳曰, 允.

❖ 순조 10년(1810) 경오년 1월 2일(정사)

▢ 제주목(濟州牧)의 별저곡(別儲穀) 처리에 관한 비변사의 보고

○ 정동간(鄭東榦)이 비변사의 말을 전하며 아뢰기를, “방금 전라감사 이면응의 장계를 보니, 구호해야 할 곳이 90곳이며, 굶주리는 사람은 20만 6천 894명이라고 합니다. 봄이 시작되면 구제할 예정이며, 원구제 자금으로 환산한 쌀 8만 1,500석을 배정하고, 공명첩 대가로 쌀 4,000석을 가정한 데다, 내하금 및 후추·단목 대가로 쌀 4,200석, 진상 중 중단 및 유보된 쌀 880여 석을 합산하여, 현재 1등에서 추산한 수치를 2·3등에서 추산한 수치와 대조하여, 별순(別巡)과 13순(巡)의 통계를 합산하면, 굶주리는 인구는 400만 명 내외로 보입니다. 구호곡이 부족하여 쌀 환산 한도를 3만 석 증액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에 보고

하여 칙명을 받아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9만 석의 쌀을 환산하여 400만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려는데, 과연 부족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도청의 장계가 이토록 간절하다면, 조정이 구제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3만 석의 추가 요청을 어찌 아까워하겠는가? 비록 어떤 종류의 곡물을 추가로 배정하려 해도, 이미 수거가 완료된 후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것은 어느 관청의 어떤 곡물인지 알 수 없으나, 지금 들은 바에 따르면 수거된 양이 거의 30만 석에 달하며, 이를 비축 곡물과 합산하면 그 중에서 추가로 요청한 쌀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니, 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쌀이든, 본도의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구호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 과연 편리하고 좋으니, 이를 명해야 합니다. 환정(還政)의 시급함은 구호 정책보다 훨씬 더한데, 현재 비축된 곡식이 모두 구호 자금으로 들어간다면, 올봄에 환정할 때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도(道)의 신하들이 곡식을 옮겨 보충해 달라는 청을 올렸습니다. 영남(嶺南)은 이미 5만 석을 할당받았으나, 지난번 해당 도의 신하가 장계를 올려 이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번에 또 추가로 할당하는 것은 논할 바가 아닙니다. 관북(關北)은 7만 석을 이미 할당받았으며, 관동(關東)은 곡식이 본래 부족하여,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양서(兩西)의 곡식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는 구호 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과는 다르니, 어느 관청의 곡식이든 당연히 이곳저곳으로 옮겨 급한 곳을 먼저 구제해야 하겠지만, 다만 각지의 비축량 실태를 멀리서 가늠하기 어렵고, 수송이 용이할지도 알 수 없으니, 상인들이 썩게 한 뒤에 처리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목(濟州牧)의 별저곡(別儲穀) 1만 석은 본도의 비상 자금을 마련한 것이나, 도내 농사가 연이어 풍년이라 당장은 쓸 일이 없으나, 최근 도민들 사이에 과잉 생산의 폐해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거리가 호수 연안을 따라 마주보고 있어 돛 한 번만 올리면 닿을 수 있는 곳이니, 이때 1만 석의 곡물도 결코 적지 않은 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신에게 편리한 대로 운반하여, 구제나 보충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풍년이 들면 갚을 것을 기다리라는 뜻을 일체 하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별저곡.

❖ 嘉慶 十五年 庚午 一月 九日 甲子

○ 正言趙貞喆疏曰, 伏以臣竊伏惟念, 天地之大德曰生, 而不能花枯槁之木, 父母惟疾之憂, 而不能甦癈痼之兒, 蓋其理有所不通, 力有所不及焉. 顧今臣枯槁而至於顚, 癈痼而幾於死, 難責醫藥之效, 永斷㞢蘗之望而我殿下, 一朝而花之, 百方而甦之. 惟天地父母所未能之神功至恩, 偏施之於臣之眇然一身, 夫小惠可名, 大德難言. 臣欲無言, 豚魚罔別, 臣欲言之, 腸臆先格. 嗚呼, 臣家以忠徇國, 碧血未乾, 蒙被惡名, 思議所不到, 而祗緣臣父性簡心潔, 觸忤多方, 臣之兄弟, 早竊科名, 人憎其覺, 神害其盈. 於是乎奸凶糾結, 必欲甘心, 無言不做, 無事不張. 機毒潛發, 運厄相湊, 禍燃泉塗, 幾湛宗族. 倘非我先大王日月之明, 臣父九地之冤, 何以得雪, 臣兄絶徼之竄, 何以生還乎? 臣又株累若近, 罪案易晦, 側足危穽, 遊身羿彀, 號呼宛轉於炎荒荊棘之中者, 三十有餘年矣. 惟其積瘢難洗, 朽木難雕, 故煦濡亭毒之功, 偏費於兩朝, 開鑿解脫之勞, 若涉於重關. 自耽羅而楸島, 自島而陸, 陸而移, 移而宥, 歸見城郭之舊, 復廁衣冠之列, 尋常對人, 怳如夢寢, 中夜自撫, 忽若後身, 是豈臣浮念妄想, 或涉髣髴也哉? 嗚呼, 臣旣丁年去國, 皓首還家, 骨肉凋隕, 門戶凄涼. 臣母相見無幾, 又終天年, 廓乎穹壤, 塊獨孑遺, 臣身雖生, 臣心已死. 彈冠韠綬, 念絶當世, 畢義盡忠, 願在他生, 屛伏田廬, 符到是竢, 千萬不自意恩敍遽降, 恩敍未幾, 名通朝籍, 通籍未幾, 復侈以薇垣新命, 臣愚不知. 側陋如臣, 滓穢如臣者, 何所槪於聖衷, 而刮磨薰洗, 如顧而復, 如是之至也. 竊嘗聞, 朝廷用人, 厥惟無方, 而其所以考課爲準者, 要不過文華也, 才猷也, 氣節也而已. 倘或不準於數科之中, 筋力奔走, 比數於百執事之列者, 亦有之矣. 乃臣則學未通方, 墮落北鄙, 身名自棄, 書籍爲諱, 氓撩作伍, 魚釣寄命, 貿貿然銀根帝虎之不辨, 一切世務, 都無所通曉, 其視牛衣牧豎, 相去不遠矣. 性本夷詬, 早罹禍患, 譬如弱草方萌, 嚴霜剝之, 柔木未條, 震風摧之. 志氣低塌, 神魄消落, 對一素昧, 面輒騂烘, 遇一微事, 心已怔營, 重以炎熏瘴讀, 顔髮外凋, 至感慘喪, 肝肺內蝕, 奄奄有癃老之狀, 此皆必然之理, 實然之形也. 豸觸鷹摶, 固難容議, 霜靴泥鞴, 無以自力, 臣豈敢不自量度, 徒懾義分, 妄居不稱之職, 重貽一世之恥乎? 伏願天地父母, 監燭臣實情, 鐫改臣職名, 因命選部, 無復檢擬. 俾遂臣沒齒耕鑿, 謌咏聖化之至願焉. 臣無任云云. 省疏具悉. 爾其勿辭察職.

❖ 순조 10년(1810) 경오년 1월 9일(갑자)

▢ 정언 조정철(趙貞喆)의 상소

○ 정언 조정철(趙貞喆)이 아뢰기를, "삼가 생각건대, 천지의 큰 덕은 생명이지만 시들고 말라버린 나무에 꽃을 피우지 못하며, 부모는 병든 자식을 걱정하지만 쇠약하고 병든 아이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이는 그 이치가 통하지 않고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은 시들고 말라 머리가 희끗해졌으며, 병들고 쇠약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나, 의약의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시 살아날 희망이 영원히 끊어진 상태임에도, 전하께서는 단 하루 만에 꽃을 피우시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천지와 부모조차 이루지 못한 신비로운 공덕과 지극한 은혜를, 신의 미약한 한 몸에 편파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니, 작은 은혜는 이름을 붙일 수 있으나, 큰 덕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돼지와 물고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으려 하면 속이 뭉클하여 말을 잇지 못하겠나이다. 아아, 신의 가문은 충성을 다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피가 마르기도 전에 악명을 뒤집어쓰니,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오직 신의 부친께서 성품이 소박하고 마음이 청렴하여 여러 방면에서 거슬림을 샀기 때문이며, 신의 형제들은 일찍이 과거에 합격했으나, 사람들은 그들의 명성을 시기하고 신들은 그들의 성공을 시기하여 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간사하고 사악한 자들이 결탁하여, 반드시 원한을 풀고자, 말하지 않은 것이 없고, 꾸미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음모와 독기가 은밀히 발동하고, 재앙이 겹쳐 닥쳐, 화가 길거리에서 번져, 종족을 거의 멸망시킬 뻔했습니다. 만약 우리 선대 왕의 해와 달 같은 명철함이 아니었다면, 신의 부친이 지닌 아홉 땅의 원한을 어찌 씻을 수 있었겠으며, 신의 형이 국경 너머로 도망친 것을 어찌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저는 조상들의 죄과가 저에게까지 미쳐, 죄목이 쉽게 묻히고, 발을 딛을 때마다 위험에 빠지며, 몸은 활시위처럼 팽팽해져, 불타는 황야와 가시덤불 속에서 울부짖으며 몸부림친 지 30여 년이 넘었습니다. 오직 그 쌓인 상처는 씻기 어렵고, 썩은 나무는 깎기 어려우니, 고로 독을 씻어내는 공로는 두 왕조에 걸쳐 헛되이 소모되었고, 해탈을 위한 노력은 마치 중관을 건너는 듯했습니다. 탐라(耽羅)에서 추자도(楸子島)로, 섬에서 뭍으로, 육지에서 이주하여, 이주하여 용서받고, 돌아와 옛 성곽을 보고, 다시 의복과 관모를 차려 입으니, 평소 사람들을 대할 때는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하고, 한밤중에 스스로를 어루만지면 문득 다른 사람인 듯하니, 이것이 과연 신의 헛된 생각과 망상인가, 아니면 어렴풋이 닮은 바가 있는 것인가? 아아, 신은 젊은 나이에 나라를 떠나, 백발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으나, 가족은 몹시 줄어들고, 집안은 쓸쓸하기만 합니다. 어머니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생을 다하셨으니, 광활한 천지 속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신의 몸은 살아 있으나, 신의 마음은 이미 죽었습니다. 관모를 정돈하고 띠를 매며, 이 세상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의무를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자, 다음 생에 밭과 초가집에 숨어 지내며 칙령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려 하였으나, 만만히 생각지 못했던 은혜로운 임명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 임명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정의 명부에 이름을 올렸고, 명부에 이름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미원(薇垣)의 새로운 직책을 하사받았습니다. 신은 어리석어 알지 못합니다. 저처럼 천박하고 더러운 자를, 어찌 성스러운 뜻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깎고 닦아 정화하시며, 돌보아 다시 일으키시니, 이토록 지극하십니다. 감히 들은 바에 따르면, 조정이 인재를 등용하는 데는 정해진 방식이 없으나,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요컨대 문화(文華), 재유(才猷), 기절(氣節)에 불과합니다. 설령 이 몇 가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힘써 뛰어다니며 백관(百執事)의 대열에 이름을 올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문이 미숙하여 북쪽 변방에 떨어졌고, 몸과 명예를 스스로 버렸으며, 서적을 피하고, 백성들과 어울려 살며, 낚시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은과 금, 호랑이와 사자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하여, 세상의 일에는 전혀 통달하지 못했으니, 소를 치는 목동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품은 본래 비천하고, 일찍이 화를 입었으니, 마치 갓 싹튼 연약한 풀이 혹독한 서리에 꺾이고, 가지가 아직 자라지 않은 연약한 나무가 거센 바람에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의기는 꺾이고, 정신은 쇠약해져, 낯선 사람을 마주하기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며, 사소한 일만 만나도 마음이 이미 어지러워지고, 여기에 더하여 뜨거운 햇볕과 해로운 기운에 시달려 얼굴과 머리카락이 겉으로 시들며, 심지어는 비통하고 비참하여 간과 폐가 속으로 갉아먹히니, 기진맥진하여 노쇠한 모습이라, 이 모든 것은 필연적인 이치요, 실로 그러한 형상이다. 짐승이 부딪히고 독수리가 쪼아대는 것은 본래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서리 내린 신발에 진흙이 묻어 스스로 힘쓸 수 없는 처지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제 능력을 헤아리지 않고, 헛되이 의무를 내세워 제게 어울리지 않는 직책을 맡아, 세상에 치욕을 더하겠습니까? 부디 천지와 부모님께서 신의 진심을 살피

시어, 신의 직명을 변경하시고, 선발 부서에 명하여 다시는 신을 후보로 올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신이 죽을 때까지 농사를 지으며 성스러운 교화를 노래하는 지극한 소원을 이루게 하십시오. 신은 맡은 것이 없습니다. 운운.”라고 하였다. “상소를 검토하여 내용을 모두 알았다. 너는 이를 거절하지 말고 직무를 수행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조정철, 탐라.

❖ 嘉慶 十五年 庚午 一月 十日 乙丑

○ 姜彙鈺, 以備邊司言啓曰, 傳曰, 昨未及爲之, 貢市堂上, 召貢市人於敦化門外, 問瘼後, 如有弊瘼, 則令廟堂, 論理草記稟處事, 命下矣. 謹依下敎, 招問貢市人等處, 則地衣契貢人等, 以爲一自辛丑減貢, 一千五百張之後, 進排漸益增加, 莫能支保, 依前復貢事也. 減貢之後, 諸般責應, 有增無減, 則貢人稱冤, 其勢似然, 此係不可不矯捄之端, 而復貢一事, 有難遽議. 令該曹, 斟量事勢, 從長決給, 椵板契貢人等, 以爲渠貢所供楸板·椵板·楸木·椵木, 乃是御供所用, 故所産各邑, 持戶曹勿侵公文, 往貿進排矣. 昨年貿來時, 所經各邑中, 朔寧·兎山, 不計公文, 勒侵收稅, 此後則無敢收稅之意, 另加申飭事也. 所供係是進排之需, 則所經各邑之勒侵收稅, 事甚駭然. 若有公文, 則無得橫侵之意, 關飭各該道, 軍資監貢人等, 以爲渠貢元役價之減縮條, 每於豐年, 收租多則減縮少, 歉歲, 收租少則減縮多, 而減縮條, 例自戶曹, 隨縮應下者, 往在辛酉, 以舊債之不堪減縮, 役價預爲斥賣矣. 當此大歉之歲, 減縮夥多, 利歸他人, 渠貢形勢, 漸至難保. 減縮條, 若令戶曹, 限二千石, 以錢例下, 則不過三年, 自當計除, 且各倉上下時, 皆有役人雇價, 而獨於渠貢無之, 每年七八百兩, 貢人白地替當, 依廣興倉例, 磨鍊雇價事也. 減縮條之以錢預下, 不害爲殘貢蘇瘼之道, 而該曹事勢, 未知無掣礙之端. 役人雇價, 兩倉異例, 則稱冤無怪, 竝令該曹, 量宜矯捄. 漁夫契貢人等, 以爲進排生魚, 經尺然後始爲合用, 雖於行船設網之時, 捉得至艱. 況乎冬節合氷之時, 船不得行, 網不得設, 至於捉魚, 實非人力所可能者也. 往在丁卯年分, 特蒙冬三朔全代封之特恩, 伊後則半代封而止, 弊復如前, 將至渙散, 而鷹師契之夏三朔, 亦以全代封定式, 則獨於渠等, 未蒙一視之澤事也. 冬節合氷捉魚之難, 勢所必然, 而御供事體, 所重自別, 全數代封, 係是特恩, 設有一時之已例, 又復倖望, 極爲濫屑, 置之, 生鮮廛市民等, 以爲內局封納生蟹, 前則每日一百五十介矣. 今則畿邑所減五十介, 又爲加定, 日納爲二百介, 而每介受價, 僅爲二分餘, 落本甚多, 負債如山, 依漁夫契例, 每介錢八分上下事也. 內局所納, 所重自別, 而受價數爻, 比之漁夫貢人, 多寡懸殊, 則其所爲弊, 在所當念, 令該曹, 量宜上下, 俾無稱冤之端. 雜穀廛市民等, 以爲渠廛, 與下米廛, 破其朔稅, 還復日稅事, 呈于廟堂及本署, 下米廛, 七次落空矣. 又於癸亥, 誣呈所懷, 更破日稅, 又定朔稅, 生業物種, 將爲見奪於下米廛人, 依前破其朔稅, 還復日稅事也. 兩廛爭利, 在於日稅月稅之間, 而日稅則自己丑始, 間雖有一時與奪, 旋復得訟, 爲三十餘年. 月稅則自癸亥至今八年行之, 論其久近, 宜有雜穀廛人之稱冤, 隨入隨稅, 各分其半, 不害爲兩廛均利之道, 而互相立落, 亦旣多年, 利害便否, 有難的知, 令該署, 更查論報後決處. 牛廛市民等, 以爲耆老所及司僕寺進排乳牛, 竝兒犢爲三十四隻矣. 司僕寺, 雖給路糧錢屯牛錢合

六兩五錢，而耆老所，只給間三年，每隻價四兩，其間有頃，則一年改立，少不下七八隻，特爲處分事也．耆老所給價之不如司僕寺，事勢卽然，而市人爲弊，不可不念，令該司從便矯抹．昌壟市民等，以爲近年以來，坊曲諸處，亂貿私皮，恣意放賣，拔例嚴禁事也．私皮亂賣之弊，在所當禁，嚴飭法司，各別禁斷，猪壟市民等，以爲渠壟元役，納於本署者，每朔錢爲三十六兩零．此外各宮各司，無價進排之數，指不勝屈，將至撤市之境，特蒙保存之澤事也．無價進排，爲弊可知．捧甘各宮各司，使勿如前侵責，本署朔納之錢，旣知爲弊之端，則宜有節約之道，令該署查實決處．涼臺壟市民等，以爲近來松商益熾，操縱，榷利，又爲都賈於濟州，出來咽喉之康津·海南等地，直爲派送於都會各處．故京城入來，絶無，物種極貴，松商都賈之弊，各別痛禁，依帽子壟人之下往灣府定價，移給於松商例，送人於康津·海南等處，從時價定給於松商及各處事也．松商榷利之弊，貽害本壟，旣聞之後，所當嚴禁，發關該道該府，痛加禁斷．冶匠等，以爲正鐵進排，極爲夥多，而受價每斤爲一錢四分，市價則每斤爲二錢二三分，出債貿充，不能支保，而年前雜鐵壟人之目鐵受價，每斤本爲一錢．因其呼訴，以二錢增價上下，鐵契受價，每斤爲三錢，依鐵契例上下事也．鐵價漸高，收斂充補，則匠手之稱冤，似或無怪，令該曹酌量蘇抹之道，俾爲支保之地．懸房市民等，以爲泮中私屠之淆雜，專由於本館庫直之憑藉亂屠，各處私屠之弊，另加禁斷，各宮進排肉種，爲貿奴愆期，未受肉價，至於六千餘兩之多，特令捧給事也．本館庫直之法外亂屠，所當嚴禁，申飭本館及法司，隨現嚴繩，進排肉種之愆期失價，至於六千餘金，從前申飭，何如？而弊復如是，聞極痛駭，嚴飭內司，宮奴之如是作弊者，一一查出，照數捧給後，使之論報本司，以爲照法嚴勘之地．樺皮壟·綿子壟·淸密[淸蜜]壟·鞋壟·東床壟·煙草壟·雉鷄壟·草物壟·眞絲壟·隅壟·內外匙壟·內貢器壟·煙竹壟·門外新床壟市民等，以爲一自通共以後，擧皆失業，將至渙散撤市之境，特復亂壟，俾蒙生活事也．六矣壟外，不許都賈，法意有在，間雖有魚物·鉢里兩壟之特許添入，行之已久，不可遽議闊狹．今此諸壟之呼訴，亦非一二次，言涉希覬，事甚屑越，竝置之，何如？傳曰，地衣契貢事，令該曹論理稟處，椵板契貢事，若如渠言，則各邑勒侵收稅，極甚駭然，嚴飭．軍資監貢事，亦令該曹，商量稟處．漁夫契貢事，全數代封，雖因一時之事，此不必年年爲恒式，若有極難於捉魚之時，則令廚院，稟處變通．生鮮壟事，依所願施行，雜穀壟事，令該署查實稟處，牛壟事，令司僕寺稟處，昌壟事，依所願許施，猪壟事，各別嚴飭於各官各司及該署，涼臺壟事，令該道該府各別操切，冶匠事，依所請許施，懸房事，依施，其外亦依草記施行．

❖ 순조 10년(1810) 경오년 1월 10일(을축)

▢ 제주(濟州) 양태전[涼臺廛]에 관한 비변사의 보고

○ 강휘옥(姜彙鈺)이 비변사(備邊司)의 말을 전하며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지난번에는 이를 실행하지 못했으나, 공시당(貢市堂)에서 공시인(貢市人)들을 돈화문(敦化門) 밖으로 소집하여 사정을 물은 뒤, 만약 부패나 문제가 있다면, 묘당(廟堂)에 이를 보고하여 논의를 거쳐 처분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하교에 따라 공시인 등을 소환하여 문견하였더니, 지의계(地衣契) 공인 등은 ‘신축년(1741)에 공납을 감면한 1,500장 이후로 배정량이 점차 증가하여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예전대로 다시 공납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공물을 감축한 후에도 각종 부담금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으므로, 공물 담당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 그 정황이 그럴 듯하여 이는 반드시 시정해야 할 문제이나, 공물을 다시 늘리는 일에 대해서는 성급히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처로 하여금 사정을 살피고 장차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되, 단판계(椴板契) 공인들은 그들이 공물로 바치는 추판(楸板)·단판(椴板)·추목(楸木)·단목(椴木)은 모두 어공(御供)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생산지 각 고을은 호조(戶曹)의 ‘공문을 침해하지 말라’는 공문을 지참하고 가서 매입하여 진상(進排)하였으나, 작년에 매입해 올 때 경유한 각 고을 중 삭녕(朔寧)과 토산(兎山)은 공문을 무시하고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였으며, 이후로는 감히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려 하니, 별도로 엄중히 주의를 주어야 할 일입니다. 공납은 바로 진배(進排)에 필요한 것이므로, 경유하는 각 고을에서 강제로 세금을 징수한 일은 매우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공문이 있다면 함부로 침탈할 수 없으므로, 각 도와 군자감 공납인 등에게 관청을 통해, 이를 그들의 공납 원역가(役價) 감축 조항으로 삼아, 풍년에는 세입이 많으면 감축분을 줄이고, 흉년에는 징수 세금이 적으면 감축분을 늘려야 하는데, 감축 규정은 예로부터 호조에서 감축분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신유년(1801)에는 구채를 감축할 수 없어 역값을 미리 매각한 바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대흉년인 해에 감축분이 많아지면 이익은 타인에게 돌아가고, 관공물 납부의 형세는 점차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감축 조항을 호조에서 2천 석 한도로 화폐로 지급하도록 한다면, 3년이 지나지 않아 저절로 해결될 것이며, 게다가 각 창고에서 곡물을 차하(上下)할 때면 모두 역인 고용비가 발생하는데, 오직 관공물에만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매년 700~800냥의 비용이 발생하고, 공납인이 빈 땅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은 광흥창의 예에 따라 고용비를 정산하는 일입니다. 감축 조항을 화폐로 미리 지급하는 것은 잔공(殘

貢)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해가 되지 않으나, 해당 부서의 사정을 고려할 때 차질이 없을지 알 수 없습니다. 역인 고용비가 두 창고에서 서로 다른 예로 적용된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으니, 해당 부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어부 및 계약 공납인 등은 생선을 진상할 때 길이를 재어 본 후에야 비로소 적합하다고 하는데, 배를 타고 그물을 치는 때에도 잡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겨울철 얼음이 얼어붙을 때면 배는 나가지 못하고 그물도 칠 수 없어, 어획은 실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정묘년(1807)에는 특별히 동계 3개월 동안 전액 면제해 주는 특혜를 받았으나, 그 후로는 반액 면제에 그쳐, 이전과 같은 폐해가 다시 나타나 거의 해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응사(鷹師) 계약자들의 하계 3개월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하는 것이 정식으로 정해져 있어, 오직 그들만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겨울철 얼음이 얼어 물고기를 잡기 어려운 것은 필연적인 상황이나, 어공의 사정은 그 중요성이 별개입니다. 전수 대봉은 특은에 해당하며, 설령 일시적인 선례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이를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무례한 일입니다. 이를 제쳐두고, 생선가게 상인 등은 내국(內局)에 생게를 봉납하는데, 이전에는 매일 150마리였습니다. 지금은 경기 지방에서 50마리를 감량했으나, 다시 증액하여 하루 200마리를 납품하게 되었으나, 마리당 받는 값은 고작 2푼 남짓하여 원금을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어부들의 관례에 따르면 마리당 8푼 정도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내국에 바치는 것은 그 중요성이 별개라 하더라도, 받는 대가의 액수가 어부나 공납인들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현저하므로, 이에 따른 폐해는 깊이 고려해야 할 바입니다. 해당 부처로 하여금 사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불만을 제기할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잡곡 장사 상인 등은 자신들의 장사를 위해 하미전(下米廛)과 함께 삭세(朔稅)를 폐지하고 다시 일세(日稅)로 환원할 것을 조정에 상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미전은 7차례나 공백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계해년(1803)에 허위 진상을 올려 일세를 다시 폐지하고, 다시 월세를 정하였으나, 생업의 종목이 하미전 상인들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이전과 같이 월세를 폐지하고 일세로 되돌린 사안입니다. 두 창고가 이익을 다투는 것은 일세와 월세 사이에서 비롯되었으나, 일세는 기축년(1769)부터 시작되어 그 사이에 일시적으로 부과와 면제가 있었을지라도 곧 다시 소송이 제기되어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월세는 계해년(1803)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시행되어 왔으니, 그 기간의 길고 짧음을 논할 때 잡곡 장사인들의 억울한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건이 들어오는 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각각 절반씩 나누는 것이 두 장사에게 공평한 이익이 되는

길일 것이나, 서로 양보하지 않고 다투는 것도 이미 수년이 지났으므로, 그 득실과 편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관청에 재조사하여 보고한 후 처분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전(牛廛) 시민들은, 기로소(耆老所)와 사복시(司僕寺)가 추천한 젖소와 송아지를 합쳐 34마리라고 합니다. 사복시는 비록 여비 및 소 사육비로 합계 6량 5전을 지급하였으나, 기로소는 3년에 한 번씩 소 한 마리당 4량만 지급하고,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1년마다 교체하여, 적어도 7~8마리는 더 소요되니, 이에 대한 처분을 특별히 내려야 합니다. 기로소의 지급 가격이 사복시보다 낮은 것은 사정이 그러하나, 상인들의 부정이 있어 이를 간과할 수 없으니,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합니다. 창전(昌廛) 시민들은 최근 몇 년간 각 거리와 골목에서 가죽을 무분별하게 거래하고 마음대로 판매하는 일이 있어, 예외 없이 엄격히 금지해야 할 사안입니다. 사피(私皮)의 무분별한 판매로 인한 폐해는 당연히 금지해야 할 바이므로, 법사에게 엄중히 지시하여, 각별하게 금단해야 합니다. 저전(猪廛) 시민들은, 자신들이 주전의 원역(元役)으로 본청에 납부하는 금액이 매월 초에 36량쯤이라고 여깁니다. 이 밖에도 각 궁과 각 관청에서 무상으로 바치는 물품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아, 시장이 폐쇄될 지경에 이르렀으나, 특별히 보존해 주신 은혜로 인해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상 진품은 그 폐해가 명백합니다. 각 궁과 각 관청에 전과 같이 부당하게 요구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본 관청이 매월 납부하는 돈은 이미 폐해의 근원임을 알았으니, 절약할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관청에서 실정을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양태전[涼臺廛] 시민들은 최근 송상(松商)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이윤을 독점하고, 또한 제주(濟州)의 도가(都賈)들이 요충지인 강진과 해남 등으로 나와 직접 수도 각지로 물품을 배달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에 경성으로 들어오는 물품이 전혀 없어 물가가 극도로 비싸졌으니, 송상과 도가의 폐해를 각별히 엄금해야 합니다. 모자전(帽子廛) 상인들이 하부 관청인 만부(灣府)로 내려가 가격을 정한 뒤 송상에게 전달하는 예에 따라, 강진·해남 등지로 사람을 보내 시세에 따라 송상 및 각 처에 공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송상인들의 이윤 착취로 인한 폐해가 본 상점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엄중히 금지하고 해당 도와 부에 통지하여 철저히 단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야장(冶匠)들은 정철(正鐵)의 공급량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입가는 1근당 1전 4푼인 반면 시세는 1근당 2전 2~3푼이라, 빚을 내어 거래할 수밖에 없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또한 몇 년 전 잡철 상인들이 철을 매입할 때 1근당 1전을 받았으나, 이에 그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2전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내려주고, 철계(鐵契)의 수취가는 1근당 3전으

로, 이는 철계예에 따른 내려준 일입니다. 철값이 점차 상승하여 징수하여 보충하다 보니, 장인들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하니, 해당 부서에 구제 방안을 검토하여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방(懸房) 시민들은 반중(泮中)의 사적 도축이 뒤섞인 것이 전적으로 본관 창고 직원의 방조로 인한 무질서한 도축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각지의 사적 도축 폐해는 별도로 금지하고, 각 궁궐에 진상할 고기 종류가 노예 매매 기한을 어겨 고기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6천 냥이 넘기에, 특별히 지급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본관 창고 직원의 법에 어긋난 무분별한 도축은 엄히 금지해야 하므로, 본관 및 법사에게 엄중히 지시하여 즉시 엄벌하도록 하였으며, 궁중 진상용 고기 공급의 기한 지연 및 가격 손실로 인해 6천 냥이 넘는 금액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미 지시하였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이러한 부정이 자행되고 있어, 이를 듣고 심히 통탄하고 경악하노니, 내사(內司)에 엄명하여 궁노(宮奴) 중 이와 같이 부정행위를 한 자를 일일이 색출하여, 그 수량에 따라 상납한 후, 본부에 보고하게 하여 법에 따라 엄중히 조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화피전(樺皮廛)·면자전(綿子廛)·청밀전(淸蜜廛)·혜전(鞋廛)·동상전(東床廛)·연초전(烟草廛)·치계전(雉鷄廛)·초물전(草物廛)·진사전(眞絲廛)·우전(隅廛)·내외시전(內外匙廛)·내세기전(內貰器廛)·연죽전(烟竹廛)·문외신상전(門外新床廛) 시민들은, 일체 통행이 허용된 이후로 모두 실직하여, 곧 흩어져 시장이 해체될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특별히 전(廛)을 다시 열어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장터 밖에서는 도매상들의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법의 취지이며, 비록 어물(魚物)·바리(鉢里) 두 장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지 오래되었으나, 이를 갑자기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금번 여러 장터들의 호소는 한두 번이 아니며, 그 말에는 사욕이 얽혀 있고, 사안이 매우 경솔하니, 일체 묵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의(地衣) 조공 일은 해당 부서에 논리를 따져 보고하도록 하라. 단판(椴板) 조공 일은, 만약 그들이 말하는 대로라면 각 고을에서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니, 매우 놀랍고도 끔찍하니 엄중히 훈계하라. 군자감(軍資監) 조공 일도 해당 부서에 상의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어부 조공 일은 전액을 대신 징수하되, 비록 일시적인 사안이라 하더라도 이를 매년 관례로 삼을 필요는 없으며, 만약 어획이 극히 어려운 시기가 있다면, 주원(廚院)에 보고하여 처리를 변통하도록 하라. 생선 장터 일은 청한 대로 시행하고, 잡곡 장터 일은 해당 서에서 실정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며, 소 장터 일은 사복시에서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창전에 관한 일은 청한 대로 허락하고, 돼지 시장에 관한 일은 각 관청 및 해당 관청에 엄중히 지

시하며, 양태[涼臺] 시장에 관한 일은 해당 도와 부에서 각별히 서둘러 처리하도록 하고, 야장에 관한 일은 청한 대로 허락하며, 현방에 관한 일은 그대로 시행하고, 그 외의 사항도 초기(草記)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양태전.

❖ 嘉慶 十五年 庚午 一月 二十日 乙亥

○ 有政. 吏批, …… 盧尙熙爲旌義縣監, …… 仍任事承傳.

❖ 순조 10년(1810) 경오년 1월 20일(을해)

▢ 정의현감(旌義縣監)에 노상희(盧尙熙)를 제수함

○ 정사가 있었는데, 이비(吏批)에, "〈상략〉 노상희를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중략〉 (이들을) 그대로 임명하는 일이니 전교를 받들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노상희를 정의현감으로 삼음.

❖ 嘉慶 十五年 庚午 一月 二十日 乙亥

○ 鄭來百,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使李顯宅狀啓內, 旌義縣監呂喆永, 爲先罷黜, 其罪狀, 令攸司稟處事, 啓下矣. 呂喆永, 時在任所, 依例發遣府羅將, 交代後, 拿來, 何如? 傳曰, 允.

❖ 순조 10년(1810) 경오년 1월 20일(을해)

▢ 정의현감(旌義縣監) 여철영(呂喆永)의 처분에 관한 의금부의 계

○ 정래백(鄭來百)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의 장계 내용 중에, 정의현감(旌義縣監) 여철영(呂喆永)을 먼저 파면하도록 하였으며, 그 죄목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에 보고하여 처분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여철영은 현재 재임지에 있으니, 예에 따라 부의 나장을 파견하여 교대 후 그를 체포하여 데려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현택, 정의현감, 여철영.

❖ 嘉慶 十五年 庚午 一月 二十二日 丁丑

○ 鄭來百啓曰, 郎者義禁府都事來言, 時囚無得過三日滯囚, 曾有定式矣. 時囚罪人趙屹·沈能稷議處及濟州放未放回啓, 當爲擧行, 而判義禁李集斗未肅拜, 次堂例不得擧行云, 判義禁李集斗, 卽爲牌招, 何如? 傳曰, 允.

❖ 순조 10년(1810) 경오년 1월 22일(정축)

▢ 제주(濟州) 방미방(放未放) 회계(回啓) 처리에 관한 정래백(鄭來百)의 계

○ 정래백(鄭來百)이 아뢰기를, "의금부 도사가 보고하기를, 당시 수감된 자는 3일을 넘겨 구금할 수 없다는 규정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수감 중인 죄인 조두·심능직의 의처(議處)와 제주(濟州)의 석방 미이행에 대한 보고를 처리하고자 하나, 의금부 판관 이집두가 아직 숙배(肅拜)하지 않아서, 차당(次堂)의 예로 거행할 수 없다는 소식이라고 하니, 의금부 판관 이집두를 즉시 패초(牌招)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 嘉慶 十五年 庚午 一月 二十二日 丁丑

○ 南履翼啓曰, 吏曹郎廳來言, 機張縣監李溶, 旌義縣監盧尙熙, 兩司俱未署經, 除在外·未署經外, 未肅拜人員, 竝卽牌招, 何如? 傳曰, 允.

❖ 순조 10년(1810) 경오년 1월 22일(정축)

▢ 정의현감(旌義縣監) 노상희(盧尙熙)의 서경에 관한 남이익(南履翼)의 계

○ 남이익(南履翼)이 아뢰기를, “이조 낭청이 보고하기를, 기장현감 이용(李溶)과 정의현감(旌義縣監) 노상희(盧尙熙)에 대하여 양 관청 모두 서경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외지 근무자 및 서경 미완료자를 제외하고, 아직 취임하지 않은 인원들은 즉시 소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노상희.

❖ 嘉慶 十五年 庚午 一月 二十二日 丁丑

○ 南履翼啓曰, 機張縣監李溶, 旌義縣監盧尙熙, 憲府則旣已署經, 而諫院則行大司諫趙德潤, 司諫愼性眞, 獻納李章杜, 正言趙貞喆·李魯集在外, 無以備員署經, 何以爲之 敢稟. 傳曰, 一司除署經.

❖ 순조 10년(1810) 경오년 1월 22일(정축)

▢ 정의현감(旌義縣監) 노상희(盧尙熙)의 서경에 관한 남이익(南履翼)의 계

○ 남이익(南履翼)이 아뢰기를, “기장현감 이용(李溶)과 정의현감(旌義縣監) 노상희(盧尙熙)에 대해서는 헌부가 이미 서경을 마쳤으나, 간원에서는 대사간 조덕윤(趙德潤), 사간 신성진(愼性眞), 헌납 이장후(李章杜), 정언 조정철(趙貞喆)· 이노집(李魯集)이 외지에 있어 인원을 채워 서경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한 사(司)는 서경(署經)을 제외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노상희.

❖ 嘉慶 十五年 庚午 一月 二十四日 己卯

○ 禁府啓目粘連, …… 又啓目粘連, 濟州牧放未放修啓冊子中, 本府所管定配罪人未放秩李致薰乙良, 依啓聞施行爲白乎旀, 他餘罪人等, 令刑曹, 稟處爲白遣, 放未放修啓時, 罪人罪目, 例爲具書登聞, 而今此李致薰罪名下, 多有刪節, 事體所在, 極爲未安, 該牧使李顯宅, 從重推考, 何如? 判付啓, 依允.

❖ 순조 10년(1810) 경오년 1월 24일(기묘)

▢ 제주목(濟州牧)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리에 관한 의금부의 보고

○ 의금부의 계목점련에, "〈중략〉"라고 하였다. 또 계목 점련에, "제주목(濟州牧)의 '방면 미방면 수계 책자' 중, 본부가 관할하는 정배죄인 중 미방면자 이치훈일랑 계문에 따라 시행하사오며, 다른 나머지 죄인들에 대해서는, 형조에 보고하여 처분하도록 하옵고. 방면과 미방면을 수계할 때, 죄인의 죄목은 예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여 상소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 이치훈(李致薰)의 죄목 항목에는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 사정의 경중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하니, 해당 목사인 이현택을 엄중히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의 계(啓)에 윤허한 대로 하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五年 庚午 二月 二日 丙戌

○ 庚午二月初二日午時, 上御誠正閣. 句管堂上·賑恤堂上入侍時, …… 宗慶曰, 許多錢條, 勢難馱送, 且恐遲滯. 自各該道各該邑, 就其上納結錢中, 使之先爲取用, 事甚便好, 以此意關諭該道, 而兩南之穀, 又當窮春, 公私罄竭[罄竭], 今雖有錢, 必無以爲食. 濟州之穀, 使之出來, 則自可貿取救急矣. 上曰, 海路移運, 能無弊端乎? 宗慶曰, 濟州官穀萬石, 已爲發關出來, 以補湖南賑資, 而聞私穀多峙, 拘於朝禁, 不得越海. 今若通之, 則必大利於湖民矣. 羲淳曰, 濟州私穀, 若許越海買賣, 則似可爲南民救急之道矣. 宗慶曰, 都下市直, 比諸歲前稍減, 此必是酒禁之效, 而且是江上米商, 劫於湖沿之執留, 初不馱往之致也. 上曰, 以筵中酬酢, 各別關飭, 使之勿爲執留, 許令往來賣買, 以爲均利之地, 可也. …….

❖ 순조 10년(1810) 경오년 2월 2일(병술)

▢ 제주(濟州) 곡식 반출에 관해 논의함

○ 경오년(1810) 2월 2일 오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구관당상·진휼당상이 입시했을 때, 〈중략〉 종경이 아뢰기를, “이 많은 돈은 운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연될 우려도 있습니다. 각 도와 각 고을에서 상납하는 결전(結錢) 중에서 먼저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니, 이 뜻을 해당 도에 관유(關諭)하되, 두 남쪽 지역의 곡식은 이제 봄이 다 되어 공사(公私)가 모두 고갈되었으니, 지금 비록 돈이 있다 해도 먹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제주(濟州)의 곡식을 반출하게 하면, 이를 거래하여 긴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뱃길을 통해 수송하면, 결함이 없겠느냐?”라고 하였다. 종경(宗慶)이 아뢰기를, “제주 관곡 만 석은 이미 관문(關文)을 내어 출하하여 호남(湖南)의 구호 자금으로 보충하였으나, 사곡(私穀)이 많이 비축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조정의 금령에 얽매여 바다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를 허용한다면 반드시 호남 백성에게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희순이 아뢰기를, “제주 사곡을 바다 건너 매매하도록 허락한다면, 남쪽 백성들을 구제하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종경이 아뢰기를, “수도 시장의 물가는 예년보다 다소 떨어졌는데, 이는 분명 주류 금지령의 효과이며, 또한 강변의 쌀 상인들이 호수 연안의 억류로 인해 애초에 운반해 오지 못한 탓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연회 자리에서 서로 주고받으며, 각 관청에 엄명하여 억류하지 못하게 하고, 왕래하며 매매하도록 허락하여 공평한 이익을 나누는 곳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 嘉慶 十五年 庚午 二月 五日 己丑

○ 吳淵常, 以兵曹言啓曰, …… 濟州牧使李顯宅, 俱爲應薦而不薦, 竝依法典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 순조 10년(1810) 경오년 2월 5일(기축)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 추천에 관한 건

○ 오연상(吳淵常)이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을 비롯하여 모두 추천 대상임에도 추천하지 않았으므로, 법전에 따라 조사하여 경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현택.

❖ 嘉慶 十五年 庚午 二月 八日 壬辰

○ 鄭來百, 以刑曹言啓曰, 依下敎, 罪人安弼煥全羅道康津縣古今島, 罪人韓志道慶尙道巨濟府, 竝絶島減死爲奴, 三倍道押送, 而加刑三次, 令各該道臣, 擧行後押送配所. 罪人李守熙平安道昌城府, 罪人全福仁咸鏡道端川府, 竝流三千里定配所, 三倍道押送, 亦令各該道臣, 加刑一次後, 押送配所. 罪人明興全羅道珍島郡金甲島定配所, 三倍道竝於當日內押送. 罪人金鼎煥, 仍前嚴囚, 待拷訊限箇箇拷察, 各別嚴刑, 準三次嚴訊後, 全羅道靈巖郡楸子島, 減死爲奴定配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0년(1810) 경오년 2월 8일(임진)

▢ 죄인 김정환의 추자도(楸子島) 정배에 관한 형조의 계

○ 정래백(鄭來百)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하교(下敎)에 따라 죄인 안필환은 전라도 강진현 고금도, 죄인 한지도는 경상도 거제부로, 모두 절도로 유배하여 사형을 감형하고 노예로 삼으며, 세 배의 도(道)를 거쳐 호송하고, 형벌을 세 차례 가한 뒤, 각 해당 도의 관료로 하여금 이를 집행한 후 유배지로 호송하도록 하라. 죄인 이수희는 평안도 창성부로, 죄인 전복인은 함경도 단천부로, 모두 3천리 유배하여 정해진 배소지로 보내되, 3배의 도를 거쳐 호송하고, 또한 각 해당 도의 관원에게 한 차례 형벌을 가한 후 배소지로 호송하도록 하라. 죄인 명흥은 전라도 진도군 금갑도 정배소로, 3배의 도를 거쳐 당일 내에 호송하라. 죄인 김정환은 여전히 엄중히 구금하고, 심문 기한이 도래하면 일일이 심문하여 각별히 엄형에 처하고, 세 차례 엄문한 뒤,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로 사형을 감형하여 노예로 정배한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정환, 추자도.

❖ 嘉慶 十五年 庚午 二月 八日 壬辰

○ 吳淵常, 以吏曹言啓曰, 因承政院啓辭, 守令薦應薦不薦人, 令該曹察推事, 允下矣. …… , 濟州牧使李顯宅, 俱爲應薦而不薦, 依定式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 순조 10년(1810) 경오년 2월 8일(임진)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의 추천에 관한 이조의 계

○ 오연상(吳淵常)이 이조(吏曹)의 말로 아뢰기를, “승정원의 계사(啓辭)를 받아들여, 수령들이 추천해야 할 자와 추천하지 말아야 할 자를 해당 조에서 조사하도록 명하여, 이를 허락하였나이다.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은 모두 추천 대상이었으나 추천하지 않았으므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경책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현택.

❖ 嘉慶 十五年 庚午 二月 八日 壬辰

○ 掌令車敬鎭疏曰, …… 于時朝家宵旰接濟之方, 已無所不庸其極, 或移穀於兩西, 或運粟於濟州及關北, 至於常貢經費者, 特命停減代捧, 則其呴哺之殊私, 慰安之大德, 雖仁覆之天, 止慈之父, 奚過於此也? ……

❖ 순조 10년(1810) 경오년 2월 8일(임진)

▢ 제주(濟州)에 쌀 운송에 관한 장령 차경진(車敬鎭)의 상소

○ 장령 차경진(車敬鎭)이 상소하기를, "〈중략〉 당시 조정은 밤낮으로 구제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 이미 모든 수단을 다해 극한까지 노력하였으니, 양서(兩西) 지역으로 곡식을 옮기기도 하고, 제주(濟州) 및 관북(關北)으로 쌀을 수송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정기 공납 경비에 있어서도 특별히 감축하고 대납하도록 명하였으니, 이는 백성을 보살피는 특별한 은혜와 위로하는 큰 덕이 비록 자애로움을 베푸시는 하늘이나 자애로움을 다하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 嘉慶 十五年 庚午 二月 十八日 壬寅

○ 大司諫李羲甲, 掌令韓啓翼·車敬鎭, 獻納李章孝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夬正典刑.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 答曰, 不允. 時景事中 時夏·時鼎·時楫等事停啓. 李翊模事停啓. 徐有恂·徐淇修等事停啓. 任焞·徐美修等事物故停啓.

❖ 순조 10년(1810) 경오년 2월 18일(임인)

▢ 추자도(楸子島) 안치죄인의 처벌에 관한 계

○ 대사간 이희갑(李羲甲), 장령 한계익(韓啓翼)·차경진(車敬鎭), 헌납 이장후(李章垕)가 아뢰기를, "〈중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면하고 유배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즉시 왕부로 소환하여 엄중히 심문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십시오. 〈중략〉 청컨대, 추자도 안치죄인 서형수(徐瀅修)에게 국청을 열어서 엄중한 심문을 통해 왕법을 시원하게 집행하십시오. 〈하략〉." 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허락하지 않노라. 장시경(張時景)의 일 가운데 시하(時夏)·시정(時鼎)·시집(時楫) 등의 일은 보류하라. 이익모의 일은 보류하라. 서유순·서기수 등의 일은 보류하라. 임욱·서미수 등의 일은 물고(物故)로 보류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五年 庚午 二月 十八日 壬寅

○ 掌令韓啓翼·車敬鎭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不允. 李東萬事中李榮復·金元喜·洪宗益等事停啓.

❖ 순조 10년(1810) 경오년 2월 18일(임인)

▢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한계익(韓啓翼) 등의 계

○ 장령 한계익(韓啓翼), 차경진(車敬鎭)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유배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유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 정배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 정배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 정배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중한 심문을 실시하게 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이동만의 일 가운데 이영복, 김원희, 홍종익 등의 일을 정계(停啓)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五年 庚午 三月 十五日 己巳

○ 庚午三月十五日午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 厚常等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上曰, 不允. 【出擧條】 …… 厚常等曰,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上曰, 不允. 【出擧條】 …….

❖ 순조 10년(1810) 경오년 3월 15일(기사)

▢ 추자도(楸子島) 안치죄인의 처벌에 관한 계

○ 경오년(1810) 3월 15일 오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중략〉임후상(任厚常) 등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면하고 유배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즉시 왕부로 소환하여 엄중히 심문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중략〉 후상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 안치죄인 서형수(徐瀅修)에게 국청을 열어서 엄중한 심문을 통해 왕법을 시원하게 집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추자도.

❖ 嘉慶 十五年 庚午 三月 二十一日 乙亥

○ 庚午三月二十一日辰時, 上御誠正閣. 朝講入侍時, …… 敬參等曰,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夬正典刑【措辭見上】上曰, 不允.【出擧條】…… 敬參等曰,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措辭見上】上曰, 不允.【出擧條】…… 敬參曰,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金海府定配罪人學逵,固城縣定配罪人與權,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典刑【措辭見上】上曰, 不允.【出擧條】…….

❖ 순조 10년(1810) 경오년 3월 21일(을해)

▢ 추자도(楸子島)와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계

○ 경오년(1810) 3월 21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조강(朝講)에 입시했을 때 〈중략〉 이경삼(李敬參)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면하고 유배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즉시 왕부로 소환하여 엄중히 심문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거조(擧條)를 냄】"라고 하였다. 이경삼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 안치죄인 서형수(徐瀅修)에게 국청을 열어서 엄중한 심문을 통해 왕법을 시원하게 집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거조(擧條)를 냄】"라고 하였다. 〈중략〉 이경삼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흑산도 유배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유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 정배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 정배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 정배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중한 심문을 실시하게 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거조(擧條)를 냄】"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추자도, 제주목, 유배죄인.

❖ 嘉慶 十五年 庚午 三月 二十二日 丙子

○ 庚午三月二十二日卯時, 上御誠正閣. 朝講入侍, …… 厚常等曰,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上曰, 不允.【出擧條】…… 厚常等曰,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夫正王法. 上曰, 不允.【出擧條】…… 孝眞等曰,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金海府定配罪人學逵,固城縣定配罪人與權,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上曰, 不允.【出擧條】…….

❖ 순조 10년(1810) 경오년 3월 22일(병자)

▢ 추자도(楸子島)와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계

○ 경오년(1810) 3월 22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조강(朝講)에 입시했을 때 〈중략〉 임후상(任厚常)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면하고 유배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즉시 왕부로 소환하여 엄중히 심문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중략〉 임후상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추자도 안치죄인 서형수(徐瀅修)에게 국청을 열어서 엄중한 심문을 통해 왕법을 시원하게 집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중략〉 김효진(金孝眞)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흑산도 유배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유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 정배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 정배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 정배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중한 심문을 실시하게 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목, 추자도, 유배죄인.

❖ 嘉慶 十五年 庚午 五月 十八日 辛未

○ 宋冕載,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旌義前縣監呂喆永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0년(1810) 경오년 5월 18일(신미)

▢ 정의현감(旌義縣監) 여철영(呂喆永)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송면재(宋冕載)가 사복시 제조로서 아뢰기를,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여철영(呂喆永)이 임기를 마치고 바친 진상마 2마리가 방금 도착하였으니, 나이와 털색을 별단을 써서 들였으니, 예에 따라 내마구간에서 기르도록 하기를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여철영, 체임진상마.

❖ 嘉慶 十五年 庚午 五月 二十七日 庚辰

○ 持平朴孝臣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新除授掌令夫宗仁, 時在全羅道濟州地, 掌令金直淳, 時在京畿驪州地, 司諫院司諫李錫夏, 時在果川地, 請竝斯速乘馹上來事, 下諭. 答府曰, 不允. 下諭事依啓.

❖ 순조 10년(1810) 경오년 5월 27일(경진)

▢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지평 박효신(朴孝臣)의 계

○ 지평 박효신(朴孝臣)이 아뢰기를, "〈중략〉 청컨대, 흑산도 유배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유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 정배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 정배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 정배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중한 심문을 실시하게 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중략〉 새로 임명된 장령 부종인(夫宗仁)은 당시 전라도 제주(濟州)에, 장령 김직순은 당시 경기도 여주에, 사간원 사간 이석하는 당시 과천에 있었으므로, 이들을 모두 급히 전마를 타고 상경하도록 하는 일을 하유(下諭)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부에게 답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하유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제주목, 유배죄인, 이치훈, 부종인.

❖ 嘉慶 十五年 庚午 五月 二十八日 辛巳

○ 持平朴孝臣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

❖ 순조 10년(1810) 경오년 5월 28일(신사)

▢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의 처벌에 관한 지평 박효신(朴孝臣)의 계

○ 지평 박효신(朴孝臣)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유배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유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유배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 정배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 정배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 정배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중한 심문을 실시하게 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五年 庚午 五月 二十九日 壬午

○ 禁府啓目, 旌義前縣監呂喆永原情云云. 問目內辭緣, 泛稱遲晩, 刑推得情, 何如? 判付啓, 除刑推議處爲良如教. …….

❖ 순조 10년(1810) 경오년 5월 29일(임오)

▢ 정의현감(旌義縣監) 여철영(呂喆永)의 원정에 관한 건

○ 금부(禁府)의 계목에,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여철영(呂喆永)의 원정(原情) 운운하였다. 문목의 내용 중, '지만(遲晩)'이라고만 포괄적으로 언급된 부분에 대해, 형추(刑推)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판결하여, 형추를 통해 의논하여 처분하는 것을 제외하라고 하셨다. 〈하략〉.

△ 주제어: 정의현감, 여철영.

❖ 嘉慶 十五年 庚午 六月 三日 丙戌

○ 金相休, 以禮曹言啓曰, 卽接旌義前監牧官金景佑所志, 則以爲, 從孫胤礎, 嫡妾俱無子, 以其同生弟瀛礎第二子胄, 欲爲繼後, 兩家諸族, 相議完定, 而未及禮斜之前, 胤礎夫妻俱歿, 拘於常規, 不得循例禮斜, 依定式草記稟處事呈狀矣. 凡係繼宗立後者, 兩邊與受, 明有可據而不得登聞者, 許令該曹, 論理草記事, 曾有筵奏定式, 而門長金景佑所訴旣如此, 依定式金瀛礎第二子胄, 立爲金胤礎之後, 何如? 傳曰, 允.

❖ 순조 10년(1810) 경오년 6월 3일(병술)

▢ 정의현(旌義縣) 감목관(監牧官)의 후사 처리에 관한 예조의 계

○ 김상휴(金相休)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전 정의(旌義) 감목관(監牧官) 김경우(金景佑)의 소지를 접했는데, 종손인 윤초(胤礎)가, 정실과 첩 모두 자식이 없어, 친동생 영초(瀛礎)의 둘째 아들 주(胄)를 후계자로 삼고자 두 집안의 친척들이 상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사(禮斜)하기 전에 윤초 부부가 모두 작고하여, 관례에 얽매여 예사를 치를 수 없게 되었기에, 정해진 규식에 따라 초기(草記)를 작성하여 품처(稟處)하는 일을 정장(呈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족을 계승하고 후사를 세우는 경우, 양측과 수혜자가 명백한 근거가 있음에도 등문(登聞)할 수 없는 사안일 때는 해당 부서에 명하여 논리를 정리하여 초기를 작성하도록 한 일은 일찍이 정해진 규식을 연주(筵奏)하였습니다. 문장(門長) 김경우가 소송한 바 이와 같으므로, 정해진 규식에 따라 김영초의 둘째 아들 주를 김윤초의 후사로 세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 감목관.

❖ 嘉慶 十五年 庚午 六月 四日 丁亥

○ 禁府照目, 旌義前縣監呂喆永矣本府議啓內, 客舍失火, 出於白晝, 而不卽救滅鬱攸之患, 至及於莫重殿牌, 事極驚駭, 難逭重勘, 以此照律, 罪杖八十徒二年定配, 以公罪收贖, 奉敎依允爲旀, 功減一等爲良如敎.

❖ 순조 10년(1810) 경오년 6월 4일(정해)

▢ 정의현감(旌義縣監) 여철영(呂喆永)의 처리에 관한 의금부의 조목(照目)

○ 의금부 조목(照目)에,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여철영(呂喆永)에 대해 우리 본부에 올린 의계(議啓) 안에, 객사(客舍)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대낮이었음에도 즉시 진화하지 않아 화재가 번져 막중한 전패(殿牌)까지 번지게 되었으니, 이 일은 지극히 경악스러운 일이라, 중대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니, 이에 법에 따라 죄를 정하여 장 80대, 유배 2년의 처분을 내리고, 공죄(公罪)의 수속(收贖)으로 교서를 받들어 윤허한 대로 따랐으면, 공감(功減) 1등하라 하셨습니다."

△ 주제어: 정의현감, 여철영.

❖ 嘉慶 十五年 庚午 六月 五日 戊子

○ 庚午六月初五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 載瓚曰, 卽見全羅前監司李晃膺報本司辭緣, 則以爲, 濟州別儲牟米輸來實數, 爲八千六百七十三石零, 當以本色竝耗捧納, 而右沿牟麥, 近被黃蝀之災, 移轉穀物之竝督, 實無其路, 牟米一石, 代以租二石七斗五升, 從便換作, 待秋收捧, 穀名則何以稱之, 磨勘於何衙門爲辭矣? 本道元牟還, 數旣夥然, 而今以近萬石移轉牟, 添付竝督, 其勢實難, 依狀請準折換租, 待秋捧納, 名以濟州牟代租, 句管於本司之意,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 순조 10년(1810) 경오년 6월 5일(무자)

▢ 제주(濟州) 모미(牟米)를 조(租)로 대납[濟州牟代租]한 건에 대한 보고

○ 경오년(1810) 6월 초5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기 위해 입시했을 때 〈중략〉 김재찬(金載瓚)이 아뢰기를, "전라 전 감사 이면응이 본부에 보고한 사유를 보니, 제주(濟州)의 별저(別儲) 모미(牟米) 수송 실적이 8,673석 남짓이며, 이를 본색과 소모분을 합쳐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연(右沿) 모맥(牟麥)은 최근 황충 재해를 입어, 곡물을 이송하고 징수할 길이 전혀 없으니, 모미 1석을 대신하여 조(租) 2석 7두 5승으로 편리하게 환산하여 가을 수확 시에 징수하고자 하나, 곡물 명칭은 무엇이라 칭해야 하며, 어느 관청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 그 사유가 되나이다. 본도의 원 모환(牟還)은 이미 상당했으나, 이번에 만 석에 가까운 모미를 이송하여 추가로 징수하려 하니 그 상황이 실로 어렵습니다. 장청(狀請) 내용에 따라 환산하여 세금을 대체하고, 가을 수확 시 납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명칭은 '제주 모미를 조로 대납[濟州牟代租]'으로 하고, 관리는 본 관청에서 담당하도록 하라는 뜻을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거조(擧條)를 냄】"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모미.

❖ 嘉慶 十五年 庚午 六月 二十四日 丁未

○ …… 康津濟州折衝金鍾軾願納各穀一千一百石, 羅州濟州嘉善金士元願納各穀一千石, 已上兩人, 感戴國恩, 捐出重財, 賃船涉海, 誠意可見佥除良, 係是遠人, 宜示加厚之意, 竝施加資後實職除授之典爲白乎旀. …… 濟州差員右水軍虞候尹尙泰, 嶺南差員左水軍虞候鄭宅升及閫帥·邊將等乙良, 令兵曹稟處, 何如? 判付啓, 依回啓施行爲良如教. …….

❖ 순조 10년(1810) 경오년 6월 24일(정미)

▢ 제주(濟州) 절충(折衝) 김종식(金鍾軾)과 제주 가선(嘉善) 김사원(金士元)의 원납(願納)에 관한 건

○ 〈상략〉 "강진 제주(濟州)의 절충(折衝) 김종식(金鍾軾)이 각 곡물 1,100석을 원납(願納)하고, 나주 제주 가선(嘉善) 김사원(金士元)이 각 곡물 1,000석을 원납하였는데, 이 두 사람은 국은(國恩)에 깊이 감사하여 귀중한 재산을 기부하였으며, 배를 빌려 바다를 건너온 성의가 뚜렷하니, 이들은 먼 곳의 백성인 만큼 두터운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하며,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고 가자(加資)한 뒤에 실직을 제수하는 은전을 베풀었으며, 〈중략〉 제주 차원 우수군 우후 윤상태(尹尙泰), 영남 차원 좌수군 우후 정택승(鄭宅升)과 군수·변장들일랑 이들에 대하여, 병조에 보고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판부에서 아뢰기를, 회계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셨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절충, 김종식, 김사원.

❖ 嘉慶 十五年 庚午 六月 二十五日 戊申

○ …… 又啓目粘連, …… 濟州差員右水虞候尹相泰, 嶺南差員左水虞候鄭宅升, 一體論列亦爲白有臥乎所, 群山僉使李禹道, 其所自備, 數旣不些, 以若殘鎭之力, 有此補賑之誠, 其所殫竭, 極爲可嘉, 濟州差員右水虞候尹相泰, 嶺南差員左水虞候鄭宅升, 涉險重溟, 殫誠督運, 俱極嘉尙, 竝施以陞敍之典, 恐合事宜, 而係干恩賞, 不敢擅便, 上裁敎是白乎旀, 前兵使吳載重八百石賑救, 寔出於對揚之意, 帥臣事體, 與守令有異, 其他閫帥·鎭將·監牧官之捐出廩餘, 救濟群民, 俱係職分內事, 且其自備之數, 亦甚不多, 竝只置之, 何如? 判付啓, 依回啓施行爲良如敎.

❖ 순조 10년(1810) 경오년 6월 25일(무신)

▢ 제주(濟州) 차원(差員)의 논열(論列)에 관한 건

○ 〈상략〉 또 계목 점련에, "〈중략〉 제주(濟州) 차원 우수 우후 윤상태(尹相泰), 영남 차원 좌수 우후 정택승(鄭宅升)은, 일체 논열(論列)하라 하였사온 바, 군산첨사 이우도는, 스스로 마련한 물품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쇠퇴한 요새의 힘으로 이 같은 구호에 진심을 다하여, 그 헌신과 노력은 지극히 칭찬할 만합니다. 제주 차원 우수 우후 윤상태, 영남 차원 좌수 우후 정택승은 험난한 바다를 건너 성심을 다해 수송을 독려하였으니, 둘 다 지극히 칭찬할 만합니다. 이에 승진 특전을 함께 내려 주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이는 은혜로운 상에 해당하므로 감히 제멋대로 행할 수 없으니, 임금이 재가하기를기다리며, 전 병사 오재중이 800석을 구호한 것은 실로 보답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나, 수장(帥臣)의 사체는 수령과 다르며, 그 외 군수·진장·감목관이 곡식 창고의 잉여분을 기부하여 백성을 구제한 것은 모두 직무 내의 일이며, 게다가 자비로 마련한 양도 그리 많지 않으니, 모두 그대로 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판부에서 아뢰어 회계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윤상태, 논열.

❖ 嘉慶 十五年 庚午 七月 十一日 癸亥

○ 尹鼎烈, 以備邊司言啓曰, …… 至若濟州折衝金鍾軾, 納各穀一千一百石, 嘉善金士元, 納各穀一千石, 而絶海賃船, 及時輸納, 鍾軾則初旣六百石臭載, 旋以八百包充納, 兩人俱以蕞爾窮島之民, 辦穀之難, 比陸百倍, 越海之艱, 在渠萬死, 而感昔年移粟之恩, 效今日活民之誠者, 絶可嘉歎, 合施厚賞, 不可以石數之多寡, 却有差等, 亦以道內邊將, 竝爲差送, 別示朝家優恤島民之德意, 恐不可已矣, 賑後賞典, 與他尤異, 始自今日, 都政待窠, 次次擧行之意, 分付兩銓, 何如? 傳曰, 允.

❖ 순조 10년(1810) 경오년 7월 11일(계해)

▢ 제주(濟州) 절충 김종식(金鍾軾)과 가선 김사원(金士元)의 곡물 납부에 관한 비변사의 계

○ 윤정렬(尹鼎烈)이 비변사의 말을 전하며 아뢰기를, "〈중략〉 제주(濟州)의 절충(折衝) 김종식(金鍾軾)은 각종 곡물 1,100석을 납부하고, 가선(嘉善) 김사원(金士元)은 각종 곡물 1,000석을 납부하였으며, 바다 건너 배를 빌려 제때에 운반하여 납부하였는데, 종식은 처음에 600석을 실어 나르다가 곧 800포대로 보충하여 납부하였으며, 두 사람 모두 보잘것없는 변방 섬의 백성으로서 곡식을 마련하는 어려움은 육지의 백 배나 되고, 바다를 건너는 고충은 목숨을 걸어야 할 지경임에도, 예전의 곡식 지원 은혜에 감동하여 오늘날 백성을 살리는 성의를 보인 것은 실로 칭송할 만하니, 두 사람에게 두터운 상을 내려야 하며, 곡식의 양에 따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도내의 변방 장교들에게도 함께 상을 내려, 조정이 섬 주민들을 우대하고 보살피는 뜻을 별도로 보여 주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호 활동 후의 포상은 다른 경우와 유별히 다르게, 오늘부터 시작하여 도정에서 마련한 규정에 따라 차차 시행할 뜻을 양전(두 관청)에 분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허락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김종식, 김사원.

❖ 嘉慶 十五年 庚午 七月 二十三日 乙亥

○ 金會淵,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後運年例進上馬八匹, 別御乘馬二十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差備進上馬八十匹, 歲貢馬二百匹, 山屯馬二百匹, 凶咎駑駘馬二十匹, 合五百八十八匹內, 十一匹船中故失, 二十二匹到中路故失, 七匹到津頭逃逸, 五匹到中路病留, 十一匹到本寺病留, 一百匹訓鍊都監, 二十五匹禁衛營, 二十五匹御營廳, 軍馬分給除, 實納馬三百八十二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0년(1810) 경오년 7월 23일(을해)

▢ 제주(濟州) 후운(後運) 진상마(進上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김회연(金會淵)이 사복시 일·이 제조로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출래한 후운(後運)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8마리, 별어승마 20마리, 삼명일 진상마(進上馬) 60마리, 차비진상마 80마리, 세공마 200마리, 산둔마 200마리, 흉구와 노태마 20마리를 합한 588마리 중, 11마리는 배에서 고실(故失)하고, 22마리는 중로에서 고실하고, 7마리는 진두(津頭)에 도착하여 도망하여 잃고, 5마리는 중로에서 병으로 인해 남게 되었으며, 11마리는 본시에 도착하여 병으로 인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중 100마리는 훈련도감에, 25마리는 금위영에, 25마리는 어영청에 군마로 분배하여 제외되어, 실제로 납마한 마리는 382마리입니다. 나이와 털빛은 별단을 써서 들이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후운, 진상마.

❖ 嘉慶 十五年 庚午 七月 二十九日 辛巳

○ 李海愚,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山馬監牧官金商磔, 己巳·庚午兩年條封進馬二匹, 今纔上來, 毛禾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0년(1810) 경오년 7월 29일(신사)

▢ 제주(濟州)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의 진상마

○ 이해우(李海愚)가 사복시 일·이 제조로서 아뢰기를, "제주(濟州)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김상책(金商磔)이 기사년(1809)과 경오년(1810) 두 해에 걸쳐 봉진한 말 두 마리가 이제야 도착하였으니, 나이와 털색을 별단으로 써서 들였으니, 예에 따라 내마구에서 기르도록 하기를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산마감목관, 김상책.

❖ 嘉慶 十五年 庚午 九月 二日 甲寅

○ 以濟州牧使李顯宅狀啓, 進上靑皮, 未滿定例, 惶恐待罪事, 傳于李勉昇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10년(1810) 경오년 9월 2일(갑인)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의 청피(靑皮) 진상에 관한 장계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의 장계(狀啓)에, 청피(靑皮)를 진상하였으나 정해진 규정에 미달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기다린다는 내용이었다. 이면승(李勉昇)에게 전교하기를, “죄를 기다릴 필요는 없음을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현택, 청피.

❖ 嘉慶 十五年 庚午 十月 十日 辛卯

○ 庚午十月初十日,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 載瓚曰, 三道補賑人三千石以上, 濟州補賑兩人, 竝道內邊將除授, 一千石以上人, 竝五衛將除授之意, 前已筵稟允下矣. 今已多月, 邊將則僅差一人, 衛將則尙多未差者云, 遠人之許久企望, 賞典之未卽頒施, 有非賞不踰日, 令必示信之意也. 若使齎失望而後, 始爲差除, 則賞無足以聳民志, 令無足以慰遠人, 邊將若無見窠, 則瓜近人作窠差出, 五衛將亦爲作窠擬入, 幼學之相當職當差者, 亦卽關問本道, 詳探其地處及自願, 竝隨窠差出之意, 分付兩銓曹,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 순조 10년(1810) 경오년 10월 10일(신묘)

▢ 제주(濟州) 보진인(補賑人) 2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건

○ 경오년(1810) 10월 초10일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引見)으로 입시했을 때 〈중략〉 김재찬(金載瓚)이 말하기를, "삼도(三道) 보진인(補賑人) 중 3,000석 이상을 한 제주(濟州) 보진인 2인을 모두 도내 변방 장교 임명하고, 1,000석 이상을 한 사람 모두에게 오위 장교를 제수하라는 뜻을 전에 이미 연품(筵稟)하여 윤하(允下)하였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으나, 변장(邊將)은 겨우 1명만 임명되었고, 위장(衛將)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자가 많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이들이 오랫동안 기대해 왔음에도 임금이 즉시 내려지지 않는 것은, 상을 주면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신의를 보여야 한다는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만일 실망하게 한 뒤에야 비로소 임명한다면, 임금은 백성의 뜻을 북돋울 수 없고, 명령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변방 장교가 임명할 자리가 없다면, 그때가 되면 가까운 사람부터 명단을 작성하여 발령하고, 오위장 또한 명단을 작성하여 추천하며, 학력이 있어 해당 직위에 임명될 만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도에 관문(關問)하여 그 거주지와 의사를 상세히 파악하고, 모두 명단에 따라 발령하겠다는 뜻을 양전(兩銓)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 보진인.

❖ 嘉慶 十五年 庚午 十月 十五日 丙申

○ 又以備邊司言啓曰, 卽見全羅監司李相璜狀啓, 則以爲, 異國船一隻, 漂到於濟州咸德浦前洋, 而參以問情, 則果是日本國薩摩島倭人二十五名之行商漂到者, 渠等以其船隻之破碎, 願從陸路還歸, 燒船鐵釘二千一百九十斤, 亦願帶去, 而已未年漂倭領送時, 有勿許下陸, 使沿路各邑, 整待船隻, 次次交付, 轉送萊府之已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漂人之從水·從陸間, 自當依願施之, 而旣有已未已例, 勿令下陸, 使沿海諸邑, 定船隻次次替付, 今亦依此例待其越海, 自初到邑至萊府, 各具船隻, 次次交付, 而以附近守令或邊將, 定差員領去, 彼人卜物與鐵物, 另爲董檢, 俾各帶去之意, 分付該道·該牧, 何如? 傳曰, 允.

❖ 순조 10년(1810) 경오년 10월 15일(병신)

▢ 제주(濟州) 함덕포(咸德浦) 표류 왜인(倭人)의 처리에 관한 비변사의 계

○ 또한 비변사(備邊司)가 아뢰기를, “방금 전라감사 이상황(李相璜)의 장계를 보니, 외국 선박 1척이 제주(濟州) 함덕포(咸德浦) 앞바다에 표류해 왔다고 하며, 조사해 본 결과 과연 일본(日本) 사쓰마 섬[薩摩島]의 일본인 상인 25명이 표류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배가 파손되었으므로 육로로 귀국하기를 원하며, 불탄 배의 쇠못[鐵釘] 2,190근도 가져가기를 원하오니, 기미년(1799) 표류 왜인(倭人)을 송환할 당시 상륙을 허락하지 않고, 연로 각 고을에서 배를 정비하여 차례차례 인도하여 동래부[萊府]로 이송했던 선례를 따라, 묘당에서 칙지를 받아 지시해 주시기를 청하오니. 표류인들이 수로를 이용할지 육로를 이용할지는 당연히 그들의 뜻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이미 기미년(1799)의 선례에 따라 육지로 상륙하지 못하게 하고, 연안 각 고을에서 선박을 준비하여 차례차례 인도하여 동래부[萊府]로 이송하도록 하였으니, 이번에도 이 선례에 따라 그들이 바다를 건너도록 하고, 처음 도착한 고을부터 동래부[萊府]에 이르기까지 각 고을에서 선박을 차례차례 인도하고, 인근 수령이나 변장(邊將)이 담당관을 지정하여 인계하게 하며, 그들의 소지품과 철제 물품은 별도로 점검하여 각자 가져가도록 하라는 뜻을 해당 도(道)와 해당 목(牧)에 하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함덕포, 왜인.

❖ 嘉慶 十五年 庚午 十二月 一日 辛巳

○ 金相休, 以漢城府言啓曰, 今庚午年獻民數時, 京中八道戶口摠數, 抄錄入啓, 而濟州三邑民數, 姑未上來矣. 海島之往來遲速, 有難預料, 不得一時磨勘, 此則待其上來, 追後添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0년(1810) 경오년 12월 1일(신사)

▢ 제주(濟州)의 민수(民數)에 관한 한성부의 보고

○ 김상휴(金相休)가 한성부 말로 아뢰기를, "올해 경오년(1810)에 민수(民數)를 상주할 때, 경중(京中)과 팔도(八道)의 호구 총수를 추록하여 상주하였으나, 제주(濟州)의 세 개 고을의 민수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해상의 왕래 속도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당장 정밀 조사할 수 없기에,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추후에 추가하여 기록하고자 하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민수.

❖ 嘉慶 十五年 庚午 十二月 十日 庚寅

○ 金基厚啓曰, 漢城府郎廳來言, 濟州民數入來, 獻民數修正次請出矣,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0년(1810) 경오년 12월 10일(경인)

▢ 제주(濟州)의 민수(民數)에 관한 한성부의 보고

○ 김기후(金基厚)가 아뢰기를, “한성부 낭청에서 보고하기를, 제주(濟州) 민수(民數)가 보고되었으며, 민수 정정본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민수.

❖ 嘉慶 十五年 庚午 十二月 十日 庚寅

○ 以濟州防禦使李顯宅狀啓, 薦新進上金橘, 不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金基厚曰, 卿其勿待罪事, 回諭.

❖ 순조 10년(1810) 경오년 12월 10일(경인)

▢ 제주(濟州) 천신 금귤(金橘) 진상에 관한 장계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이현택(李顯宅)의 장계에, 천신으로 진상한 금귤(金橘)이 관례대로 봉진하지 못해 죄송스러워서 죄를 기다린다고 하니, 김기후에게 전교하기를, "그대는 죄를 물을 필요 없다."는 일로 회유하였다.

△ 주제어: 제주방어사, 금귤.

❖ 嘉慶 十五年 庚午 十二月 十日 庚寅

○ 金基厚, 以禮曹言啓曰, 卽伏見濟州牧使李顯宅狀啓謄報, 則去十月令宗廟·景慕宮薦新柑子·唐金橘, 酷被風損, 數旣不足, 謹援已例, 柑子九十九箇, 唐金橘四十六箇, 都封上送于禮曹, 以爲稟旨薦獻事, 爲辭矣. 謹稽臣曹謄錄, 則在前如此之時, 有減數分排薦進之例, 今亦依前例, 當日薦進, 何如? 傳曰, 允.

❖ 순조 10년(1810) 경오년 12월 10일(경인)

▢ 제주(濟州) 천신 감자(柑子)와 당금귤(唐金橘)에 관한 예조의 보고

○ 김기후(金基厚)가 예조 말을 인용하여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의 장계(狀啓) 등보(謄報)를 보니, 지난 10월 종묘와 경모궁 천신(薦新) 감자(柑子)와 당금귤(唐金橘)이 심한 바람 피해를 입어 수량이 부족하므로, 예전에 따라 감자 99개, 당금귤 46개를 모두 봉하여 예조에 보내어, 칙명을 받아 진상하도록 하는 일이라는 내용입니다. 삼가 본 부서의 등록(謄錄)을 살펴보니, 과거 이와 같은 시기에 수량을 줄여 배분하여 진상하던 예가 있었사오니, 이번에도 전례를 따라 당일 천진(薦進)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감자, 당금귤.

❖ 嘉慶 十五年 庚午 十二月 十日 庚寅

○ 申綱,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濟州牧使李顯宅災實狀啓, 則分等不爲擧論, 數件應行之事, 候風涉海, 恐有後時之慮, 謹援已例, 一邊擧行, 一邊後錄馳啓, 爲辭矣. 其一, 舊還姑爲仍停事也, 其一, 逃老故病廢之類, 一一塡充, 差待明春, 從附近哨司分鍊事也. 本邑農形, 雖不得純登, 而優爲平年, 且是屢豊之餘, 民事可占無憂, 牟耕亦已竣功, 爲島民誠爲萬幸. 後錄諸條之先爲擧行, 旣是已例, 依狀請許施, 何如? 傳曰允.

❖ 순조 10년(1810) 경오년 12월 10일(경인)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의 재실(災實) 장계에 관한 건

○ 신경(申綱)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의 재실(災實) 장계(狀啓)를 보니, 분등(分等)을 논하지 말고서, 몇 가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바다를 건너는 데 시간이 걸릴 경우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기에, 삼가 선례를 들어 한편으로는 즉시 집행하고, 한편으로는 추후 기록을 작성하여 급히 보고드린다는 내용입니다. 하나, 구환(舊還)은 당분간 중단하는 일이며, 하나, 도망친 노인이나 병약하여 일할 수 없는 자 등을 일일이 보충하여, 내년 봄에 인근 초사(哨司)에서 선발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 고을의 농사 형세는 비록 풍작이라 할 수는 없으나 평년보다 낫고, 게다가 연이은 풍년의 여파로 민생은 걱정할 것이 없으며, 경작 준비도 이미 완료되어 도민들에게는 참으로 큰 행운입니다. 후록된 여러 조항 중 우선 시행할 사항들은 이미 선례가 있는 바, 장청(狀請)에 따라 시행을 허락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현택.

❖ 嘉慶 十五年 庚午 十二月 十日 庚寅

○ 金基厚, 以漢城府言啓曰, 濟州三邑民數, 今始上來, 依例入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0년(1810) 경오년 12월 10일(경인)

▢ 제주(濟州) 3읍의 민수(民數)에 관한 한성부의 보고

○ 김기후가 한성부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3읍의 주민 수가 이제야 보고되었으니, 관례에 따라 명부에 등재하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민수.

❖ 嘉慶 十五年 庚午 十二月 十日 庚寅

○ 兵曹啓目粘連, 觀此濟州牧使李顯宅狀啓, 則本營所管旌義縣, 卽十室殘邑, 而鄕校移建之際, 客舍又値失火, 前縣監呂喆永, 鳩材募工, 捐廩興役, 次第告完. 廳廨院舍, 重修改建, 弓箭新備修補是如, 輿論喧藉乙仍于, 發送親裨, 詳細摘奸, 則果如所聞, 以其新建重修間數, 軍器新備改造件數, 後錄馳啓. 令該曹, 照例稟處亦爲白有臥所, 此等修擧, 雖是守令職分內事, 前縣監呂喆永, 以海島殘邑, 捐廩董役, 鄕校客舍, 各樣公廨新建重修, 軍器新備修補, 誠爲嘉尙, 而軍器修補, 數雖不多, 公廨新建, 如是夥然, 其在激勸之道, 似當施以加資之典是白乎矣, 係于恩賞, 不敢擅便, 上裁, 何如? 判付啓, 依回啓施行爲良如敎.

❖ 순조 10년(1810) 경오년 12월 10일(경인)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의 장계

○ 병조의 계목점련(啓目粘連)에,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의 장계를 보니, 본영 관할의 정의현(旌義縣)은 불과 열 채 남짓한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향교 이전 공사 도중 객사(客舍)가 화재로 소실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 현감 여철영(呂喆永)은 자재를 모으고 인부를 모집하며, 곡식을 기부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차츰 완공하였습니다. 청사와 원사(院舍)를 대대적으로 개축하고, 활과 화살을 새로 비치 및 수리하였는데, 이에 대한 여론이 왈가왈부하였으므로, 친히 부관을 파견하여 상세히 조사한 결과, 들은 바와 같았으므로, 새로 지은 건물과 대대적으로 수리한 건물의 수, 군기를 새로 비치하고 개조한 건의 수를 후록에 기록하여 급히 상주하였으니, 해당 부서에 예에 따라 보고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 수거(修擧)는 이러한 수령의 직분 안의 일로서, 전 현감 여철영은 바다 섬의 황폐한 고을임에도 불구하고 곡식을 기부하여 공사를 주관하였으며, 향교와 객사, 각종 공청 신축 및 중수, 군기 신규 비치 및 수리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참으로 칭송할 만합니다. 그러나 군기 수리는 그 수가 많지 않고 공청 신축은 이처럼 많으니, 이를 격려하는 방도에 있어서 가자(加資)하는 은전을 베풀어야 하사오되, 이는 은혜로운 상에 관한 사안이라 감히 제멋대로 결정할 수 없사오니, 임금의 처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의 계가 있어서, 회계(回啓)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셨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현택, 정의현감, 여철영.

❖ 嘉慶 十五年 庚午 十二月 十一日 辛卯

○ 以濟州防禦使李顯宅狀啓, 進上節果, 以山橘代封, 惶恐待罪事, 傳于金在昌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10년(1810) 경오년 12월 11일(신묘)

▢ 제주(濟州) 절과(節果) 진상의 산귤(山橘) 대봉에 관한 장계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이현택의 장계에, 진상할 절과(節果)에 있어서 산귤(山橘)로 대신 봉인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기다린다는 내용을 전하자, 김재창에게 전교하기를, “죄를 기다릴 필요 없다고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절과, 산귤.

❖ 嘉慶 十五年 庚午 十二月 十一日 辛卯

○ 金基厚, 以禮曹言啓曰, 卽伏見濟州牧使李顯宅狀啓謄本, 則今十二月所封薦新各種柑橘, 無以排數, 乳柑七十四箇, 洞庭橘三百四十三箇, 謹援已例, 都封上送于禮曹, 以爲稟旨薦獻事爲辭矣. 在前如此之時, 多有減數薦獻之例, 今此所封宗廟·景慕宮薦新乳柑, 宗廟薦新洞庭橘, 數雖不足, 依前例分排, 當日薦進, 何如? 傳曰, 允.

❖ 순조 10년(1810) 경오년 12월 11일(신묘)

▢ 12월령의 천신(薦新) 감귤(柑橘)에 관한 예조의 보고

○ 김기후(金基厚)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의 장계 등본을 보니, 올 12월에 봉해 올린 천신(薦新) 감귤(柑橘)을 배수(排數)할 수가 없어서 유감 74개, 동정귤 343개를 삼가 선례를 들어 모두 봉하여 예조로 상송하고, 품지를 하여 천헌(薦獻)하는 일이라는 내용입니다. 과거 이와 같은 때에는 수량을 줄여 진상하는 예가 많았으니, 이번에 봉한 종묘·경모궁 천신 유감, 종묘 천신 동정귤은 수량이 부족하여, 전례의 분배(分排)에 당일 천진(薦進)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현택, 천신, 감귤.

❖ 嘉慶 十五年 庚午 十二月 十六日 丙申

○ 庚午十二月十六日午時, 上御暎花堂. 召對入侍時, …… 泳夏讀自麗史提綱卷之二十一, 止小民可不懼哉. 上曰, 讀崔瑩等攻濟州以下. 泳夏讀自崔瑩等攻濟州, 止卷之二十一. 上掩卷, 命書傳敎曰, 侍衛不飭之司謁汰去, 行首別監, 令攸司, 從重科治, 仍命玉堂閣臣先退. 泳夏等退出, 又命退, 承史以次退出.

❖ 순조 10년(1810) 경오년 12월 16일(병신)

▢ 고려사 제주(濟州) 부분을 강독함

○ 경오년(1810) 12월 16일 오시에 임금이 영화당에 나아갔다. 소대(召對)로 입시했을 때 〈중략〉 이영하(李泳夏)가 《여사(麗史)》 제강(提綱) 제21권부터 "소민들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라는 대목까지 읽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최영 등이 제주(濟州)를 공격한 부분부터 읽어라."라고 하였다. 영하가 최영 등이 제주를 공격한 부분부터 제21권까지 읽었다. 임금이 책을 덮고, 전교(傳敎)를 써서 내리며 말하기를, "시위(侍衛)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알(司謁)은 파면하고, 행수(行首)와 별감(別監)은 유관 부처에 명하여 엄중히 처벌하라."라고 하였다. 또한 옥당(玉堂) 각신(閣臣)들에게 먼저 물러나라고 명하셨다. 영하(泳夏) 등이 물러났다. 다시 물러나라고 명하자, 승사(承史)들이 차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제주, 최영.

❖ 嘉慶 十五年 庚午 十二月 二十五日 乙巳

○ 庚午十二月二十五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 勉兢曰, 濟州補賑人金士元, 月前除拜金城別將矣. 年老癃病, 萬無越海赴任之望, 呈狀乞遞. 實狀旣如此, 則與厭避有異, 改差,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 순조 10년(1810) 경오년 12월 25일(을사)

▢ 제주(濟州)의 보진인(補賑人) 김사원(金士元)의 별장 임면에 관한 건

○ 경오년(1810) 12월 25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을 때 〈중략〉 이면긍(李勉兢)이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보진인(補賑人) 김사원(金士元)이 한 달 전 금성(金城) 별장(別將)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고 병약하여 바다를 건너 부임할 희망이 전혀 없으므로, 정장(呈狀)하여 직위를 양도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는 직무를 회피하는 것과는 다르니, 다른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거조(擧條)를 내었음】〈하략〉.

△ 주제어: 제주, 보진인, 김사원.

❖ 嘉慶 十五年 庚午 十二月 二十七日 丁未

○ 都政. 吏批, …… 邊景鵬爲大靜縣監, …….

❖ 순조 10년(1810) 경오년 12월 27일(정미)

▢ 대정현감(大靜縣監)에 변경붕(邊景鵬)을 제수함

○ 도정(都政)의 이비(吏批)에, "〈중략〉 변경붕(邊景鵬)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음,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변경붕, 대정현감.

❖ 嘉慶 十五年 庚午 十二月 二十八日 戊申

○ 庚午十二月二十八日午時, 上御誠正閣. 守令·邊將·察訪·初仕人入侍時, …… 大靜縣監 邊景鵬, …… 以次入來. 上命守令·邊將·察訪·初仕人進前, 各奏職姓名. 泰淳等進奏職姓名訖. 上命守令·邊將·察訪·初仕人先退. 泰淳等退出.…….

❖ 순조 10년(1810) 경오년 12월 28일(무신)

▢ 대정현감(大靜縣監) 변경붕(邊景鵬)이 입시함

○ 경오년(1810) 12월 28일 오시에 임금이 성정각에 나아갔다. 수령과 변장, 찰방, 초사인(初仕人)이 입시했을 때 〈중략〉 대정현감(大靜縣監) 변경붕(邊景鵬) 〈중략〉 차례로 들어왔다. 임금이 수령과 변장, 찰방, 초사인을 앞으로 나와서 각 직과 성명을 말하라고 명하였다. 태순 등이 나아와서 직과 성명을 아뢰기를 끝내자, 임금이 수령과 변장, 찰방, 초사인들은 먼저 물러나라고 명하자, 태순 등이 물러났다.

△ 주제어: 대정현감, 변경붕.

❖ 嘉慶 十五年 庚午 十二月 二十九日 己酉

○ 李惟命啓曰, 卽者吏曹郎廳來言, 河東府使李井會, …… 大靜縣監邊景鵬, 兩司俱未署經云. 除在外·受由·未署經外, 未肅拜人員, 竝卽牌招, 以爲備員署經之地, 何如? 傳曰, 允.

❖ 순조 10년(1810) 경오년 12월 29일(기유)

▢ 대정현감(大靜縣監) 변경붕(邊景鵬) 등의 서경(署經)을 위해 패초하기를 청하는 이유명(李惟命)의 계

○ 이유명이 아뢰기를, "방금 이조 낭청이 와서 보고하기를, 〈중략〉 대정현감(大靜縣監) 변경붕(邊景鵬)이 양사에 모두 서경(署經)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재외(在外)나 수유(受由), 서경하지 못한 사람, 숙배하지 못한 사람 등을 제외하고 모두 즉시 패초(牌招)하여 인원수를 갖추어 서경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변경붕, 서경.

1811年

(순조 11)

❖ 嘉慶 十六年 辛未 一月 一日 辛亥

○ 辛未正月初一日辰時, 上御誠正閣. 下直守令入侍時, …… 大靜縣監邊景鵬, 以次入來. …… 景鵬進奏職姓名. 上曰, 着實擧行. …….

❖ 순조 11년(1811) 신미년 1월 1일(신해)

▢ 대정현감(大靜縣監) 변경붕(邊景鵬)의 하직인사를 함

○ 신미년(辛未年: 1811) 정월 초하루 진시(辰時)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가 어좌에 올랐다. 하직할 수령들이 입시할 때, 〈상략〉 대정현감(大靜縣監) 변경붕(邊景鵬) 등이 차례로 들어왔다. 〈중략〉 변경붕이 나아와서 직과 성명을 아뢰었다. 임금이 이르기를, "착실히 거행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감, 변경붕.

❖ 嘉慶 十六年 辛未 一月 八日 戊午

○ 傳于金敎根曰, 稟啓特爲低微唫訥, 前後提飭何如, 而頑不知悛, 不可置之, 以長其悖惡之習. 長番內官韓學春, 爲先削職, 全羅道濟州牧絶島定配, 勿踰我國之地方, 以懲諸宦者無忌憚之類.

❖ 순조 11년(1811) 신미년 1월 8일(무오)

▢ 한학춘(韓學春)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定配)함

○ 김교근(金敎根)에게 전교하기를, "품계(稟啓)에, 특별히 미천하고 어눌하다고 하나, 전후로 여러 차례 훈계하였는데도 어찌하여 고집을 꺾지 못하고 뉘우칠 줄 모르니, 더 두어서는 그 패악한 버릇만 길러줄 뿐이다. 장번(長番)[198] 내관(內官) 한학춘(韓學春)은 먼저 파직하고,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의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되, 우리나라의 영역을 넘지 않도록 하여, 거리낌 없는 무리들인 여러 환자(宦者)들에게 경계가 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한학춘, 제주목.

198) 장번(長番): 조선 시대에, 병사가 궁중에서 장기간 유숙하며 교대하지 아니하고 근무하던 일. 선전관(宣傳官), 겸사복, 내금위, 족친위, 충의위 따위의 병종(兵種)이나 환관(宦官)이 행하였는데, 이들에게는 급료 외에 보포(保布)를 지급하였음.

❖ 嘉慶 十六年 辛未 一月 九日 己未

○ 申綱, 以義禁府言啓曰, 長番內官韓學春稟啓, 特爲低微唫訥, 前後提飭何如, 而頑不知悛, 不可置之, 以長其悖惡之習, 爲先削職, 全羅道濟州牧絶島定配, 勿踰我國之地方, 以懲諸宦者無忌憚之類事, 承傳, 啓下矣. 韓學春, 全羅道濟州牧絶島定配,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1년(1811) 신미년 1월 9일(기미)

▢ 한학춘(韓學春)을 제주목(濟州牧)에 정배 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신경(申綱)이 의금부(義禁府)의 말로 아뢰기를, "장번(長番) 내관(內官) 한학춘(韓學春)이 품계(稟啓)에, 특별히 미천하고 어눌하다고 하였으나, 전후로 여러 차례 훈계한 것이 어떠하였기에 끝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뉘우칠 줄 모르니, 두어서는 그 패악한 버릇만 길러줄 뿐이라 하여, 먼저 파직하고,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의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되, 우리나라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 거리낌 없는 무리들인 여러 환자(宦者)에게 경계가 되도록 하자는 뜻으로 전교를 받들어 아뢰었습니다. 한학춘은 전라도 제주목 절도에 정배하되, 전교 안의 사의(辭意)를 받들어서 죄목을 갖추고, 예에 따라 부의 나장(府羅將)을 보내어 호송하여 배소(配所)로 보내고자 하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알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한학춘, 제주목.

❖ 嘉慶 十六年 辛未 二月 一日 庚辰

○ 副校理金鋼疏曰, …… 竊計全羅一道五十六官, 除濟州三邑, 則實五十三邑, 各其邑中, 計房村之全數閒遊者, 校院生之額外添附者, 鄕品饒戶之冒錄儒籍者, 豪右班村之籬下投托者, 在在皆然, 今使該道道臣, 奉朝令而周旋, 按簿書而行會, 嚴束而明覈, 到底查括, 則當得閒丁許多名矣. 夫然後沿邑闕伍之不得塡代者, 通一道而均排移定, 張空補缺, 則優可以相當矣. 勿論京鄕案付, 頓然釐正而勞徠安集之, 然後湖海一隅, 其不爲新安·石壕之村矣. 臣愚不佞, 竊附古人圖流民進烏草之義, 不避猥屑, 冒煩崇聽, 若其矯救之策, 奠接之方, 不以人而廢其言, 獲蒙採施, 則殿下之赤子, 庶可以樂生安堵矣. 殿下之關中, 從可以復舊殷庶矣, 豈不萬萬幸甚. 臣無任云云. 省疏具悉. 本事便是已過之事, 但以民事言之, 爾之所聞, 必是眞的, 許多民生, 顚于溝壑, 許多民弊, 難以蘇復, 興言及此, 不覺憂悶. 令廟堂爛加議定, 另有實效. 爾其勿辭察職.

❖ 순조 11년(1811) 신미년 2월 1일(경진)

▢ 부교리 김후가 한정(閑丁) 수괄을 청하는 소에서 전라도 53읍을 거론하며 제주 3읍을 제외함

○ 부교리 김후(金鋼)가 소를 올려 아뢰기를, "〈상략〉 삼가 생각하건대, 전라도(全羅道)에 모두 56개 고을이 있는데, 제주(濟州) 세 고을을 제외하면 실상 53개 고을입니다. 각 고을 안 방촌(房村)의 전수(全數) 중 한가로이 떠도는 자, 향교의 정원 외에 덧붙은 교생[校院生], 향품(鄕品)이 풍족한 호가(戶家) 중 유생 명부에 부당하게 오른 자, 호족(豪族)·양반 마을에서 울타리 밑으로 몰래 기대어 들어간 자들이 고을마다 두루 그러하니, 지금 이 도(道)의 도신(道臣)에게 명하여,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두루 다니며, 장부를 조사하여 명확히 조사하고, 엄하게 단속하여 철저히 규명하고, 끝까지 조사·정리하게 한다면, 틀림없이 상당수의 한가한 정정(丁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뒤에 각 고을에서 결원이 생겨 보충하지 못한 자리에 대해 도 전체를 통하여 고루 옮겨서 정하면, 비어 있는 자리를 메워 넉넉히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과 지방을 가릴 것 없이 단숨에 바로잡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모아들인다면, 이후 호해(湖海) 지역의 외진 마을도 더는 신안(新安)·석호(石壕)의 마을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신은 어리석고 재주 없사오나, 감히 옛사람이 유민(流民)을 도모하여 오초(烏草)로 나아가게 한 뜻에

기대어, 번거롭고 하찮은 글로 폐하의 귀를 번거롭게 하나이다. 만일 이 구제책과 접대 방책을 사람의 신분으로 버리지 않고 그 말만이라도 채택하여 시행해 주신다면, 전하의 자손 같은 백성들이 가까스로라도 살고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며, 전하의 관중(關中) 또한 옛날처럼 인구가 번성해질 수 있을 것이니, 어찌 만만으로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감히 감격의 말씀을 다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임금이 친히 본 소를 살펴보고 말하였다.) "소의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았다. 본래 일은 이미 지난 일이지만, 민정(民情)에 관한 말이므로, 너의 들은 바가 반드시 사실일 것이다. 그 많은 백성이 도랑에 떨어져 헤매고, 그 많은 폐단이 살아나기 어렵게 되었으니, 이 말을 들으니 저절로 걱정되고 답답하다. 조정에 명하여 널리 의논하고 의결하게 하여, 따로 실제 효과가 있도록 하라. 너는 사양하지 말고 직책을 살피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 嘉慶 十六年 辛未 二月 六日 乙酉

○ 以濟州防禦使李顯宅狀啓, 正朝箋文方物愆期, 惶恐待罪事, 傳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11년(1811) 신미년 2월 6일(을유)

▢ 제주(濟州) 정조(正朝)의 전문(箋文)과 방물(方物)에 관한 보고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이현택(李顯宅)의 장계(狀啓)에, "정조(正朝)의 전문(箋文)과 방물(方物)이 기한을 어겼으니, 두렵고 황송하여 죄를 기다립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죄를 기다리지 말게 할 일로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정조, 전문, 방물.

❖ 嘉慶 十六年 辛未 三月 十五日 癸亥

○ 鄭觀綏, 以兵曹言啓曰, 卽接濟州人文亨奎呈狀, 則去庚午式年武科初試入格, 而會試時, 因風高未得越海赴試, 今始上來, 願赴於今番庭試殿試云, 濟州人初試入格者, 許赴他科, 已有定式, 去丙寅年重試對擧別試武科初試入格人陽智閑良金宗鉉, 平壤閑良車轍宇, 俱爲遭故陳試, 今已闋服, 竝依例許赴於明日殿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1년(1811) 신미년 3월 15일(계해)

▢ 제주인(濟州人) 문형규(文亨奎)의 정장(呈狀)에 관한 병조의 계

○ 정관수(鄭觀綏)가 병조(兵曹)의 말로 아뢰기를, “곧 제주인(濟州人) 문형규(文亨奎)의 정장(呈狀)를 받았는데, 지난 경오년(庚午年: 1810) 식년 무과(式年武科) 초시(初試)에 입격하였으나, 회시(會試) 때는 바람이 거세어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응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야 올라와 이번 정시(庭試)와 전시(殿試)에 응시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제주인으로 초시에 입격한 자가 타 지역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이미 정례(定例)가 되어 있으며, 지난 병인년(丙寅年: 1806) 중시(重試) 때에도 대거(對擧)로 별도로 시험을 본 무과 초시 입격자 양지(陽智) 한량(閑良) 김종현(金宗鉉)과, 평양(平壤)의 한량 차철우(車轍宇)가 모두 사고(遭故)를 당하였으나, 지금은 복제(服制)가 끝났으므로, 모두 예에 따라 내일 전시에 응시하도록 허락하고자 하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알겠다.” 하였다.

△ 주제어: 제주인, 문형규.

❖ 嘉慶 十六年 辛未 三月 二十二日 庚午

○ 申綱, 以禮曹言啓曰, 去正月二十八日惠慶宮患候平復, 頒赦陳賀時, 因下敎, 惠慶宮進獻方物, 京外一體封進, 各殿宮方物, 則只以京廳方物封進事, 草記行會矣. 濟州牧所封方物, 自是外貢, 而不能區別, 誤爲封進, 揆以貢獻, 事體誠極未安, 該牧使李顯宅推考, 所封方物, 所當還爲下送, 而越海之地, 亦涉有弊, 何以爲之乎? 敢稟. 傳曰, 惟正之貢重, 而行會外加貢, 亦不當, 卽爲下送, 可也.

❖ 순조 11년(1811) 신미년 3월 22일(경오)

▢ 제주목(濟州牧)의 방물에 관한 예조의 보고

○ 신경(申綱)이 예조(禮曹)의 말로 아뢰기를, “지난 정월 28일에, 혜경궁(惠慶宮)의 병세가 회복되었을 때 사면을 반포하고 하례를 올리면서, 하교(下敎)를 받아 혜경궁께 올리는 방물(方物)은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봉진(封進)하였으며, 각 전궁(殿宮)에 올리는 방물은 서울 관청의 방물만으로 봉진하는 것으로 초기(草記)를 작성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주목(濟州牧)에서 봉해 보낸 방물은 원래 외공(外貢)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별하지 못한 채 잘못 봉진되었으니, 공물[貢獻] 체제에 비추어 보면 사안의 성격이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이에 해당 목사(牧使) 이현택(李顯宅)이 조사하여 봉해 보낸 방물을 마땅히 돌려보내게 하고자 하나, 바다를 건너야 하는 곳이기에 또한 폐단이 생길 수 있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감히 아뢰옵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정식 공물[貢獻]의 무게는 무겁고,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한 바 외에 공물을 추가로 보내는 것도 마땅하지 않으니, 즉시 아래로 돌려보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현택.

❖ 嘉慶 十六年 辛未 三月 二十三日 辛未

○ 以濟州牧使李顯宅啓本, 罪人韓學春到配事, 傳于徐鼎輔曰, 事則微細一端頑字, 出陸移配於江原道通川郡事, 分付.

❖ 순조 11년(1811) 신미년 3월 23일(신미)

▢ 죄인 한학춘(韓學春)의 배소(配所)에 관한 건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의 계본(啓本)에, “죄인 한학춘(韓學春)이 배소(配所)에 도착한 일”에 대해, 서정보(徐鼎輔)에게 전교하기를, “일은 미세한 한 가지 ‘완(頑)’ 자에 불과하니, 육지로 옮겨 강원도 통천군(通川郡)으로 이배(移配)하도록 하라.”라고 분부하였다.

△ 주제어: 한학춘, 제주목사, 이현택.

❖ 嘉慶 十六年 辛未 三月 二十四日 壬申

○ 金相休,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使李顯宅啓本, 罪人韓學春, 濟州牧絶島定配事判付內, 事則微細一端頑字, 出陸移配於江原道通川郡事, 分付事, 命下矣. 全羅道濟州牧絶島定配罪人韓學春, 江原道通川郡移配, 而依例發遣府羅將, 自濟州牧執捉, 仍令押送于通川郡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1년(1811) 신미년 3월 24일(임신)

▢ 한학춘(韓學春)은 제주목(濟州牧)에 정배(定配) 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김상휴(金相休)가 의금부(義禁府)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의 계본에, 죄인 한학춘(韓學春)은 제주목(濟州牧) 절도(絶島)에 정배(定配)되었는데, 판부된 내용 중 ‘완(頑)’ 자 한 가지에 불과한 미세한 사안이므로 육지로 내보내 강원도 통천군(通川郡)으로 이배(移配)하라는 분부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도 제주목 절도에 정배되었던 죄인 한학춘을 강원도 통천군으로 이배하고자 하오며, 예에 따라 부의 나장(羅將)을 파견하여 제주목에서 직접 집포(執捕)하게 하고, 통천군 배소(配所)까지 압송하게 하려는 뜻을 감히 아뢰나이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한학춘, 제주목.

❖ 嘉慶 十六年 辛未 三月 二十七日 乙亥

○ 金薯根, 以備邊司言啓曰, 濟州陳弊冊子判付內, 濟州等三邑條陳中, 牧子與不緊烽臺革罷之論, 三邑皆然, 烽臺則量宜存革事, 分付該道, 牧子之弊, 三年一點便否, 令太僕, 從長稟處, 其餘諸條, 廟堂處之事, 命下矣. 取見其冊子, 則濟州牧別儲穀, 長留庫中, 以備不虞, 而以原還新捧牟米, 每年分數換色爲請矣. 別儲穀, 已於庚午春, 爲湖南賑資, 移轉于湖南, 姑未及還報, 待還報, 更爲議定後稟處, 三邑烟臺之不緊處, 革罷爲請, 而有量宜存革之命矣. 分付道臣, 更爲關問於本牧, 不緊當罷爲幾處, 論列啓聞後稟處, 各場牧子, 式年一點爲請, 而有令太僕稟處之命矣. 三年與每年間便否, 令該寺, 論理稟定, 大靜·旌義之民, 勿定於營役, 一從時居邑入籍爲請矣, 本牧與兩邑所請, 一辭無異, 依此施行. 各般身役, 從父役塡充爲請矣, 所請得宜, 依此定式施行. 大靜量田, 果難輕議, 置之. 旌義吏校額外願屬, 一切勿許, 竝充軍役, 實出於刷漏丁嚴軍政之意, 依施, 何如? 傳曰, 必有詳量, 依施.

❖ 순조 11년(1811) 신미년 3월 27일(을해)

▢ 제주(濟州)의 진폐 책자(陳弊冊子)에 대한 판부(判付)에 관한 비변사의 계

○ 김시근(金薯根)이 비변사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진폐책자(陳弊冊子)에 대한 판부(判付) 내에, 제주 등 세 고을에서 조목으로 진달한 것 가운데, 목자(牧子)와 긴요하지 않은 봉대(烽臺)를 혁파하도록 한 논의는 세 고을이 모두 그러하니, 봉대의 경우는 보존시키느냐 혁파하느냐 하는 것을 잘 헤아릴 일을 해도(該道)에 분부하도록 하고, 목자에 대한 폐단은 3년에 한 번 점고하는 편부(便否)를 태복시(太僕寺)로 하여금 장점을 따라 품처토록 하며, 그 나머지 여러 조목은 묘당에서 조처하도록 하는 일을 명하(命下)하셨습니다. 제주목(濟州牧)의 별저곡(別儲穀)을 오래도록 창고 안에 유치시켜 두게 한 것은 뜻하지 않는 일을 대비해서이니, 원환(原還)으로 새로 바치는 보리와 쌀은 해마다 숫자를 나누어 환색(換色)하도록 청원하였습니다. 별저곡은 이미 경오년(1810) 봄에 호남(湖南)의 진자(賑資)로 삼아 호남에 이전하고서 아직 미처 되돌려 받지 못하였으니, 되돌려 받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의정(議定)한 뒤에 품처하게 하십시오. 세 고을의 연대(煙臺) 가운데 긴요하지 않은 곳은 혁파하도록 청원한 데 대하여 적당히 헤아려서 보존시키거나 혁파하도록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다시 본목(本牧)에 공문을 보내어, 긴요하지 않아 당장 혁파해야 할 곳이 몇 군데인가를 묻고 논열(論列)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십시오. 각 목장의 목자에 대하여 식년(式年)에 한 번 점고할 것을 청원한 데 대하여 태복시로 하여금 품처하게 한 명이 있었습니다. 3년이나 해마다 편부를 묻도록 해시(該寺)로 하여금 사리를 따져 품정하게 하십시오. 대정(大靜)과 정의(旌義)의 주민들은 영역(營役)에 배정하지 말고 한결같이 현재 살고 있는 고을에다 입적(入籍)하도록 청원하였습니다. 본목과 양읍(兩邑)에서 청원한 바가 조금도 차이가 없으니 여기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십시오. 각반(各般)의 신역(身役)은 아비의 역(役)을 따라 채우도록 청원하였습니다. 청원한 바가 적합함을 얻었으니 이에 따라 규정을 정해서 시행하게 하며, 대정의 양전(量田)은 가볍게 의논하기가 어려우니 정말로 그대로 두도록 하고, 정의는 이교(吏校)의 원액(元額) 외에 투속(投屬)을 원하는 자는 일체 허락하지 말고, 아울러 군역에 보충하도록 한 것은 실제로 누락된 장정을 찾아내는 데서 출발하여 군정(軍政)을 엄히 하라는 뜻으로 의시(依施)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진폐 책자, 판부.

❖ 嘉慶 十六年 辛未 三月 二十七日 乙亥

○ 辛未三月二十七日辰時,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上曰, 不允.【出擧條】…….

❖ 순조 11년(1811) 신미년 3월 27일(을해)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계

○ 신미년(辛未年: 1811) 3월 27일 진시에,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명하여 국문을 베풀고 엄히 신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六年 辛未 閏三月 三日 辛巳

○ 辛未閏三月初三日辰時, …… 上曰, 燕山死於何處乎? 儀泳曰, 濟州矣. 上曰, 光海, 荒淫之人而所失多矣. 儀泳曰, 一則廢大妃, 其次則送姜弘立於瀋陽也, 如値危弱則有降胡之語矣. 上曰, 姜弘立叛皇明, 又叛朝鮮乎? 儀泳曰, 金應河瀋河戰亡時, 弘立降於虜人, 至爲淸人之官爵, 故里兒村童之輩, 皆以瓦石投打而唾罵矣. 上曰, 弘立有子孫乎? 義浩曰, 後裔則無之. 上曰, 弘立爲何官, 而文乎, 武乎? 義浩曰, 官至文判尹矣. 弘立送其叔晉興君網, 請和親而仍回軍, 雖有回軍之功, 不可以掩大惡矣. 上命掩卷. 義浩曰, 同副承旨徐俊輔方爲吏房, 而與吏曹參判李存秀, 有內外從應避之嫌, 何以爲之乎? 上命書傳敎曰, 吏刑換房. 義浩曰, 因掌令安光宇疏批, 武藝族屬之手犯從事官漢, 施以軍律事下敎矣. 旣施軍律, 則人命所關, 以梟示擧行, 何如? 上曰, 以梟示二字, 添書頒布, 可也. 上曰, 惠慶進服加味六君子湯, 自今日一貼式煎入事.【出榻敎】…….

❖ 순조 11년(1811) 신미년 윤3월 3일(신사)

▢ 소대에서 입시한 홍의영(洪儀泳)이 연산군의 사망지를 제주(濟州)라고 잘못 아룀

○ 신미년 윤3월 초3일 진시(辰時)에, 〈상략〉 임금이 말하기를, “연산(燕山)은 어디서 죽었는가?”라고 하니, 홍의영(洪儀泳)이 아뢰기를, “제주(濟州)입니다.”라고 하였다.[199] 임금이 말하기를, “광해(光海)는 음란하고 방탕한 자로서, 그 잃은 바가 많았다.”라고 하니, 홍의영이 아뢰기를, “첫째는 대비를 폐출한 것이요, 그 다음은 강홍립을 심양에 보낸 것입니다. 만일 나라가 위태롭고 약할 때를 만났더라면, ‘오랑캐에 항복하자’는 말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강홍립은 명나라를 배반하고, 또 조선을 배반하였는가?”라고 하니, 홍의영이 아뢰기를, “김응하가 심하(瀋河) 전투에서 전사하였을 때, 홍립은 오랑캐에게 항복하여 마침내 청나라 사람의 벼슬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동네 아이들과 마을의 아이들까지도 모두 기와 조각과 돌로 던지며, 침을 뱉고 욕을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립에게 자손이 있는가?”라고 하니, 의호가 아뢰기를, “후손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립은 어

199) 연산군은 중종반정 후 교동도(喬桐島)에 안치되어 그해(1506) 그곳에서 죽었고, 제주에서 죽은 폐주는 광해군(1641년 제주 유배지에서 사망)임. 입시 신하가 두 폐주의 배소를 혼동하여 잘못 대답한 것으로, 사실과 어긋난 기사임.

떤 벼슬을 지냈으며, 문관이었는가 무관이었는가?"라고 하니, 의호가 아뢰기를, "문판윤(文判尹)까지 올랐습니다. 홍립이 그의 숙부인 진흥군 인(絪)을 청나라에 보내어 화친을 청하고는 군사를 돌려오게 하였으니, 비록 군사를 돌려온 공은 있으나 큰 죄악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책을 덮게 하였다. 의호가 아뢰기를, "동부승지 서준보가 마침 이방(吏房)을 맡고 있는데, 이조참판 이존수와는 안팎으로 서로 밀어주는 사이이니 피해야 할 혐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니, 임금이 명하여 교지를 써서 전하게 하기를, "이조와 형조의 담당을 바꾸게 하라."라고 하였다. 의호가 아뢰기를, "장령 안광우가 올린 비답(批答)에서, 무예를 익힌 종족이 종사관을 손으로 침범한 사건은 군율에 따라 처리하라는 교지를 내리셨습니다. 이미 군율로 처리하였다면, 인명의 관계된 일이니 목을 베어 효시하여 시행함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효시(梟示)'라는 두 글자를 첨가하여 써서 반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혜경궁이 복약할 때 가미육군자탕(加味六君子湯)을 드시도록 하되, 오늘부터 하루에 한 첩씩 달여 올리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 연산.

❖ 嘉慶 十六年 辛未 閏三月 九日 丁亥

○ …… 又啓目, 濟州放未放修啓冊子中, 本府所管定配罪人未放秩, 依啓聞施行爲白乎矣, 韓學春段, 向因特敎, 已爲出陸, 今無可論是白遣, 他餘罪人等, 令刑曹稟處, 何如? 判付啓, 依允.

❖ 순조 11년(1811) 신미년 윤3월 9일(정해)

▢ 죄인 한학춘(韓學春)의 이배에 관한 건

○ 〈상략〉 또 계목(啓目)에, "제주(濟州)의 방미방(放未放) 수계책자(修啓冊子) 가운데, 본부(義禁府)가 관할하는 정배(定配)된 죄인 중 미방질(未放秩)은, 계문(啓聞)에 따라 시행하사오되, 한학춘(韓學春)은 이전에 특별 교지로 인해 이미 육지로 이배되었으므로, 지금 다시 논의할 것이 없사옵고, 기타 여타 죄인들은 형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판부(判付)로 아뢰었는데,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방미방, 수계책자, 한학춘, 미방질.

❖ 嘉慶 十六年 辛未 閏三月 十日 戊子

○ 辛未閏三月初十日辰時, …… 載瓚曰, 臣方叨太僕提擧之任, 以太僕事, 有稟定者矣, 因濟州牧陳弊冊子, 牧子三年一點之請, 有令太僕稟處之命矣. 蓋三年一點, 旣無關於元貢加減, 而只爲除弊於牧子, 逐年與間年無甚相遠, 而若或貽害於牧子牧馬, 則點限之少退一年, 不必爲拘, 依所請, 以式年一點, 使之改定式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 순조 11년(1811) 신미년 윤3월 10일(무자)

▢ 제주목(濟州牧)의 목자(牧子) 폐단에 관한 보고

○ 신미년 윤3월 10일 진시(辰時)에, 〈상략〉 김재찬(金載瓚)이 아뢰기를, "신은 마침 태복(太僕)에서 제거(提擧)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태복시와 관련된 일 가운데는 이미 품정(稟定)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목(濟州牧)의 진폐책자(陳弊冊子)에 따라 목자(牧子)를 3년에 1번 점검하는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태복에 아뢰어 처리하라는 명이 있었사옵니다. 대개 3년마다 한 번 점검하는 것은 원래의 공물 증감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목자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니, 매년이든 격년이든 크게 차이는 없사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목자나 목마(牧馬)에 해를 끼치게 된다면, 점검 시기를 한 해 정도 늦추는 것도 문제 되지 않사오니, 청컨대 요청한 대로 식년(式年)마다 한 번 점검하게 하여 그 정례(定例)를 바꾸어 시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목, 목자.

❖ 嘉慶 十六年 辛未 閏三月 十六日 甲午

○ 掌令牟達兼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 순조 11년(1811) 신미년 윤3월 16일(갑오)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계

○ 장령 모달겸(牟達兼)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명하여 엄히 국문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어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六年 辛未 閏三月 二十日 戊戌

○ 掌令牟達兼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答曰, 不允.

❖ 순조 11년(1811) 신미년 윤3월 20일(무술)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모달겸(牟達兼)의 계

○ 장령 모달겸(牟達兼)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명하여 엄히 국문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어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六年 辛未 閏三月 二十日 戊戌

○ 辛未閏三月二十日辰時, …… 達兼曰,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云云. 上曰, 不允.【出擧條】…….

❖ 순조 11년(1811) 신미년 윤3월 20일(무술)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계

○ 신미년(1811) 윤3월 20일 진시(辰時)에, 〈상략〉 모달겸(牟達兼)이 아뢰기를,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명하여, 국문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六年 辛未 閏三月 二十九日 丁未

○ 辛未閏三月二十九日卯時, …… 達兼曰,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上曰, 不允.【出擧條】…….

❖ 순조 11년(1811) 신미년 윤3월 29일(정미)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계

○ 신미년(1811) 윤3월 29일 묘시(卯時)에, 〈상략〉 모달겸(牟達兼)이 아뢰기를, "흑산도(黑山島)에 도배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명하여, 국문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六年 辛未 四月 一日 戊申

○ 鄭觀綏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大靜前縣監韓吉謇遞任, 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而依例內厩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1년(1811) 신미년 4월 1일(무신)

▢ 대정현감(大靜縣監)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정관수(鄭觀綏)가 사복시(司僕寺)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한길모(韓吉謇)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을 진상하였는데, 이제야 도착하였습니다. 말의 나이와 털빛을 별단으로 써서 기록하였으며, 예에 따라 내구(內厩)에 두어 기르게 한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나이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체임진상마.

❖ 嘉慶 十六年 辛未 四月 七日 甲寅

○ 辛未四月初七日未時,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上曰, 不允.【出擧條】…….

❖ 순조 11년(1811) 신미년 4월 7일(갑인)

▢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계

○ 辛未(신미)년 4월 7일 미시(오후 1시경)에, 〈상략〉 "흑산도(黑山島) 도배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 정배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 정배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 정배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명하여 엄문(嚴問)하도록 하고, 사정을 얻어 엄정하게 형벌을 집행할 것을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六年 辛未 四月 十日 丁巳

○ 辛未四月初十日辰時, …… 英發等曰,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上曰, 不允.【出擧條】…….

❖ 순조 11년(1811) 신미년 4월 10일(정사)

▢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계

○ 신미(辛未: 1811) 4월 초10일 진시에, 〈상략〉 이영발(李英發) 등이 아뢰기를, "흑산도 도배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 정배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 정배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 정배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열어 엄히 캐물어서, 기어이 실정(實情)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六年 辛未 四月 十一日 戊午

○ 以濟州牧使李顯宅啓本, 罪人韓學春通川郡移配事, 傳于鄭觀綏曰, 本事不甚大段, 而且聞渠遭故云, 放送事, 分付.

❖ 순조 11년(1811) 신미년 4월 11일(무오)

▢ 죄인 한학춘(韓學春)의 이배에 관한 보고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의 계본에, 죄인 한학춘(韓學春)을 통천군(通川郡)으로 이배한 일에 관하여 정관수(鄭觀綏)에게 전교하기를, "이 일은 심히 크지 않은 일단이며, 또한 그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들었으니, 방송(放送)할 것을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현택, 한학춘.

❖ 嘉慶 十六年 辛未 四月 十一日 戊午

○ 鄭觀綏, 以義禁府言啓曰, 以濟州牧使李顯宅啓本, 罪人韓學春通川郡移配事, 傳曰, 本事不甚大段, 而且聞渠遭故云, 放送事, 命下矣. 江原道通川郡出陸移配罪人韓學春, 卽爲放送事, 分付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1년(1811) 신미년 4월 11일(무오)

▢ 죄인 한학춘(韓學春)의 이배에 관한 의금부의 보고

○ 정관수(鄭觀綏)가 의금부(義禁府)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 계본에, 죄인 한학춘(韓學春)을 강원도 통천군(江原道通川郡)으로 출륙이배(出陸移配)한 사건"에 관하여, 전교하기를, "이 사건은 그리 크지 아니하며, 또한 그가 사망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니 방송(放送)하는 것으로 명하였습니다. 강원도 통천군(通川郡)으로 출륙(出陸) 이배 죄인 한학춘을 즉시 방송하는 일은 해당 도의 도신(道臣)에게 분부할 뜻으로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한학춘.

❖ 嘉慶 十六年 辛未 四月 十七日 甲子

○ 辛未四月十七日卯時, …… 英發等曰,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上曰, 不允.【出擧條】…….

❖ 순조 11년(1811) 신미년 4월 17일(갑자)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계

○ 신미년(辛未) 4월 17일 묘시(卯時)에, 〈상략〉 이영발(李英發) 등이 말하기를,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열어 엄히 캐물어서, 기어이 실정(實情)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六年 辛未 四月 十八日 乙丑

○ 辛未四月十八日辰時, …… 英發等啓曰,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上曰, 不允.【出擧條】…….

❖ 순조 11년(1811) 신미년 4월 18일(을축)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계

○ 신미년(辛未) 4월 18일 진시(辰時)에, 〈상략〉 이영발(李英發) 등이 아뢰기를,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열어 엄히 캐물어서, 기어이 실정(實情)을 알아내게 하고, 시원하게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六年 辛未 五月 五日 壬午

○ 辛未五月初五日卯時,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上曰, 不允.【出擧條】…….

❖ 순조 11년(1811) 신미년 5월 5일(임오)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계

○ 신미년(辛未) 5월 초5일 묘시(卯時)에,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열어 엄히 캐물어서, 기어이 실정(實情)을 알아내게 하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六年 辛未 五月 六日 癸未

○ 備邊司薦望, 以趙貞喆爲濟州牧使.

❖ 순조 11년(1811) 신미년 5월 6일(계미)

▢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조정철(趙貞喆)을 제수함

○ 비변사(備邊司)가 천망(薦望)하여, 조정철(趙貞喆)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 주제어: 조정철, 제주목사.

❖ 嘉慶 十六年 辛未 五月 十三日 庚寅

○ 有政. 吏批, …… 濟州牧使單趙貞喆, 今加通政加資事承傳. 吏批, 再政. 以韓光衍爲景慕宮令. 副護軍金基厚, 今加嘉善加資事承傳.

❖ 순조 11년(1811) 신미년 5월 13일(경인)

▢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조정철(趙貞喆) 단망(單望)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상략〉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조정철(趙貞喆) 단망(單望)하고, 이제 통정(通政)으로 가자(加資)하는 일은 승전(承傳)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비에서 다시 정사가 있었다. 한광연(韓光衍)을 경모궁령(景慕宮令)으로 삼고, 부호군(副護軍) 김기후(金基厚)에게 이제 가선(嘉善)으로 가자하는 일을 승전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조정철, 단망.

❖ 嘉慶 十六年 辛未 五月 十五日 壬辰

○ 任厚常啓曰, 新除授濟州牧使趙貞喆, 以前任茂長縣監, 時在任所, 而有除朝辭赴任之命矣. 密符則前牧使李顯宅所佩密符傳授, 諭書則安寶, 使院吏齎傳, 何如? 傳曰, 允.

❖ 순조 11년(1811) 신미년 5월 15일(임진)

▢ 조정철(趙貞喆)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임후상(任厚常)이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제주목사(濟州牧使) 조정철(趙貞喆)은 이전에 무장현감(茂長縣監)으로, 지금은 임소에 있으나, 이미 제수(除授)하여 조정(除朝)의 명을 받고 부임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밀부(密符)는 전임 목사 이현택(李顯宅)이 패용하였던 밀부를 전해주고, 유서(諭書)는 안보(安寶)에서 원리(院吏)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조정철.

❖ 嘉慶 十六年 辛未 六月 二日 戊申

○ 辛未六月初二日申時,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還爲拿來, 嚴鞫得情, 夬正典刑. 上曰, 不允.【出擧條】……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夬正王法. 上曰, 亟停勿煩.【出擧條】…….

❖ 순조 11년(1811) 신미년 6월 2일(무신)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계

○ 신미년(辛未年) 6월 초2일 신시(申時)에, 〈상략〉 이영발(李英發) 등이 아뢰기를, "추자도(楸子島)에 감사(減死)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다시 잡아 오게 하여,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밝혀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중략〉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청을 열어 엄히 캐묻고, 속히 왕법(王法)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라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六年 辛未 六月 七日 癸丑

○ 辛未六月初七日酉時, …… 思穆曰, 卽見濟州前牧使李顯宅狀啓, 則以爲, 本州判官孫應虎, 以其薄廩些剩, 竭力拮据, 公廨之頹圮者, 隨處隨補, 煥然一新, 宜有激勸之道, 特令廟堂照例稟處爲辭矣, 本州處在絶海, 廩薄力綿, 而該判官孫應虎, 能辦財拮据, 公廨之修補者, 煥然一新云, 事極嘉尙, 宜有激勸之道, 令該曹考例稟處,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 순조 11년(1811) 신미년 6월 7일(계축)

▢ 제주판관(濟州判官) 손응호(孫應虎)의 포폄(褒貶)

○ 신미년(辛未年: 1811) 6월 초7일 유시(酉時)에, 〈상략〉 김사목(金思穆)이 아뢰기를, "곧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의 장계(狀啓)를 살펴보니, 본주(本州)의 판관 손응호(孫應虎)는 녹봉이 박하고 남는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 절약하여, 공해(公廨)의 무너진 곳을 때마다 고쳐서 완전히 새롭게 하였으니, 마땅히 포상하여 장려하는 방도를 세워야 합니다. 특별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예에 따라 품처하게 하라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제주는 절해고도에 위치해 녹봉은 박하고 여력도 약한데, 해당 판관 손응호가 자금을 마련하고 절약하여 공해를 수리한 것이 눈에 띄게 새로워졌다고 하니, 그 일이 매우 가상하여 장려의 방도가 있어야 하니, 해당 조[該曹]로 하여금 선례를 참고하여 품처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판관, 손응호.

❖ 嘉慶 十六年 辛未 六月 十四日 庚申

○ 以濟州防禦使李顯宅狀啓, 旌義縣居民趙繼必等九名漂海事, 傳于李好敏曰, 如卽還泊, 須卽登聞事, 分付.

❖ 순조 11년(1811) 신미년 6월 14일(경신)

▢ 정의현(旌義縣) 주민 조계필(趙繼必) 등의 표류에 관한 보고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이현택(李顯宅)의 장계(狀啓)에, 정의현(旌義縣) 주민 조계필(趙繼必) 등 9명이 표류하여 바다로 나간 일이 있는데, 이호민(李好敏)에게 전교하기를, "만약 곧바로 돌아와 정박하면, 반드시 즉시 들어가 아뢰게 할 일로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 조계필.

❖ 嘉慶 十六年 辛未 六月 二十二日 戊辰

○ 大司諫鄭景祚, 掌令鄭元容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夫正王法, …….

❖ 순조 11년(1811) 신미년 6월 22일(무진)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대사간 정경조(鄭景祚) 등의 계

○ 대사간 정경조(鄭景祚), 장령 정원용(鄭元容)이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 감사 안치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다시 잡아 오게 하고, 엄하게 심문하여 실정을 밝혀, 시원하게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문하고,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六年 辛未 六月 二十二日 戊辰

○ 掌令鄭元容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不允. 李東萬事, 亟停勿煩.

❖ 순조 11년(1811) 신미년 6월 22일(무진)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정원용(鄭元容)의 계

○ 장령 정원용(鄭元容)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의금부(王府)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밝혀, 시원하게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이동만(李東萬)의 일을 일체 중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六年 辛未 七月 二日 戊寅

○ 李羲甲,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前牧使李顯宅, 遞任進上馬三匹, 今纔上來, 禾毛色, 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1년(1811) 신미년 7월 2일(무인)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이희갑(李羲甲)이 사복시(司僕寺)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이 이제 막 도착하여, 말의 나이와 털빛[禾毛色]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게 하고, 규례에 따라 내구(內廐)에 두어 기르게 하는 것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현택, 체임진상마.

❖ 嘉慶 十六年 辛未 七月 五日 辛巳

○ 以濟州牧使李顯宅狀啓, 農民勸課事, 傳于金相休曰, 申飭勸課事, 分付.

❖ 순조 11년(1811) 신미년 7월 5일(신사)

▢ 제주(濟州) 농민(農民)의 권과(勸課)에 관한 장계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의 장계에, 농민(農民) 권과(勸課)의 일에 대한 것이 있는데, 김상휴(金相休)에게 전교하기를, "권과를 신칙(申飭)할 일로 분부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농민, 권과.

❖ 嘉慶 十六年 辛未 七月 九日 乙酉

○ 金相休,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後運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歲貢馬二百匹, 凶咎駑駘馬二十匹, 合二百八十八匹內, 七匹到中路故失, 五匹到中路病留, 四匹到本寺病留, 四十六匹訓鍊都監, 十二匹禁衛營, 十二匹御營廳軍馬分給, 除實納馬二百二匹, 禾毛色,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1년(1811) 신미년 7월 9일(을유)

▢ 제주(濟州) 후운(後運) 진상마(進上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김상휴(金相休)가 사복시(司僕寺)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출래(出來)한 후운(後運)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8필, 삼명일진상마(三名日進上馬) 60필, 세공마(歲貢馬) 200필, 흉구노태마(凶咎駑駘馬) 20필을 합하여 288필 가운데, 7필은 중도에 고실(故失)하고, 5필은 중도에 병들어 남고, 4필은 본 시(本寺)에서 병들어 머무르고, 46필은 훈련도감(訓鍊都監)에, 12필은 금위영(禁衛營)에, 12필은 어영청(御營廳) 군마로 분급하고, 실납한 말은 202필입니다. 말의 나이와 털빛[禾毛色]은 별단으로 써서 들이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후운, 진상마.

❖ 嘉慶 十六年 辛未 七月 十二日 戊子

○ 李惟命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前判官孫應虎, 遞任進上馬三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1년(1811) 신미년 7월 12일(무자)

▢ 제주판관(濟州判官) 손응호(孫應虎)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이유명(李惟命)이 사복시(司僕寺)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손응호(孫應虎)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이 이제 막 올라왔으니, 말의 나이와 털빛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게 하고, 예에 따라 내구(內廐)에 세워 기르도록 하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손응호, 체임진상마.

❖ 嘉慶 十六年 辛未 八月 三日 己酉

○ 以濟州牧使李顯宅狀啓, 莫重進上, 未滿定例, 惶恐待罪事, 傳于沈奎魯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11년(1811) 신미년 8월 3일(기유)

▢ 제주목(濟州牧)의 진상(進上)에 관한 보고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의 장계(狀啓)에, “막중한 진상(進上)은 정례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죄송하여 죄를 기다립니다.”라고 하니, 심규로(沈奎魯)에게 전교하기를, “죄를 기다리지 말 일로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진상.

❖ 嘉慶 十六年 辛未 八月 四日 庚戌

○ 司諫李志淵, 掌令車敬鎭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

❖ 순조 11년(1811) 신미년 8월 4일(경술)

▢ 추자도(楸子島) 안치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계

○ 사간 이지연(李志淵), 장령 차경진(車敬鎭)이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 감사(減死) 안치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다시 잡아 오게 하여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시원하게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중략〉 추자도 안치죄인 서형수(徐瀅修)를 심문을 엄히 하여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六年 辛未 八月 四日 庚戌

○ 掌令車敬鎭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典刑. …….

❖ 순조 11년(1811) 신미년 8월 4일(경술)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계

○ 장령 차경진(車敬鎭)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심문을 베풀어 엄히 따지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어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六年 辛未 八月 十日 丙辰

○ 吏批, 都政. …… 李國標爲濟州判官, …….

❖ 순조 11년(1811) 신미년 8월 10일(병진)

▢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이국표(李國標)를 제수함

○ 이비(吏批)의 도정(都政)에, "〈상략〉 이국표(李國標)를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국표, 제주판관.

❖ 嘉慶 十六年 辛未 九月 八日 癸未

○ 又以備邊司言啓曰, 頃因濟州陳弊冊子, 三邑煙臺之不緊, 當罷爲幾處, 關問道臣後稟處之意, 覆啓行會矣, 卽見全羅監司李相璜狀啓, 則枚擧前牧使李顯宅牒呈, 以爲三邑煙臺, 凡爲三十八處, 而其中三十處, 皆是要衝當存之處, 其外八處, 無甚緊關, 置之無用, 存之有弊, 減革之願, 三邑同情爲辭矣, 本牧煙烽之多處廣設, 少無防守之效, 只爲民邑之弊, 而道啓之枚擧邑報, 又爲如此, 八處煙臺無所關緊處, 竝令革罷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 순조 11년(1811) 신미년 9월 8일(계미)

▢ 제주목(濟州牧) 연대(煙臺)를 30곳으로 줄임

○ 또 비변사(備邊司)의 말로 아뢰기를, “근래 제주(濟州) 진폐(陳弊) 책자(冊子)로 인하여, 세 고을[三邑: 제주목(濟州牧)·대정현(大靜縣)·정의현(旌義縣)]의 연대(煙臺)가 긴요하지 않음을 들어 마땅히 몇 곳을 폐지하려 하니, 도신(道臣)에게 문의한 뒤 아룀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뜻으로 복계(覆啓)하여 시행할 것을 회의하였습니다. 곧 전라감사(全羅監司) 이상황(李相璜)의 장계(狀啓)를 보니,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현택(李顯宅)이 첩정(牒呈)하여 말하기를, ‘세 고을의 연대는 모두 38곳인데, 그 중 30곳은 모두 긴요한 요충지로 반드시 존치해야 할 곳이고, 그 외 8곳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두어도 쓸모가 없고 존치하면 폐단이 있기에, 감축·개편하고자 하는 것은 세 고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본래 제주목의 연봉(煙烽)을 여러 곳에 광범하게 설치한 것은 방어 효용이 거의 없이 단지 백성들에게 폐단만 되는 일이었으며, 도에서 계문하여 열거한 고을의 회답 역시 이와 같습니다. 8곳의 연대는 모두 긴요하지 않은 곳이므로, 모두 혁파(革罷)할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연대.

❖ 嘉慶 十六年 辛未 十月 十七日 壬戌

○ 李惟命, 以備邊司言啓曰, …… 湖南則庚午米一萬石, 私備太五千石, 均廳軍移作米五千石, 備局軍作米一千石, 濟州弊代租五千石, 嶺南則南倉錢作米五千石, 備局軍作租五千石, 兵營米租各五千石, 太三千石, 特爲許劃, 第穀雖已劃, 運果切難, 不可使本道專擔, 遠輸於千里涉海之地, 令各其道, 折半則各具完船, 定差員領送於道內, 且令沿路地方官, 境上看護轉相交替, 折半則自關西調發地土船隻, 定差員下送, 與該道差員, 眼同領運, 而若或有不善董飭, 中路有頓, 則依漕船例, 當該邑倅, 從重論罪, 以此意別關嚴飭於各該道臣, 以爲及時擧行後, 啓聞形止之地, 若其雜費條之加劃, 旣不許施於關東, 今不可擬議, 令本道從便以處, 身軍布三分一停退, 則兩營給代七萬兩勅庫, 雖非可議, 而外此各庫留在, 優可推移, 以此數姑令許貸, 待明年準捧, 卽爲充上後, 報本司憑考之意, 竝爲分付, 何如? 傳曰, 允.

❖ 순조 11년(1811) 신미년 10월 17일(임술)

▢ 제주(濟州)의 조세(租稅)에 관한 비변사의 계

○ 이유명(李惟命)이 비변사(備邊司)의 말로 아뢰기를, "〈상략〉 호남(湖南)에서는 경오년(庚午年: 1810) 세미(稅米) 1만 섬, 사비(私備) 태미(太米) 5천 섬, 균청군(均廳軍) 이작미(移作米) 5천 섬, 비국군(備局軍) 작미(作米) 1천 섬, 제주(濟州)는 보리로 대납하는 조세(弊代租) 5천 섬, 영남(嶺南)은 남창(南倉)의 전작미(錢作米) 5천 섬, 비국군의 작조(作租) 5천 섬, 병영(兵營)의 미조(米租) 각각 5천 섬, 태미 3천 섬을 특별히 허락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다만 곡식은 비록 이미 배정되었으나, 운송이 매우 어렵고, 본도(本道)만이 전담하여 천 리나 되는 해역의 먼 곳까지 수송하게 해서는 아니 되므로, 각 도(道)마다 반으로 나누어 처리하게 하여, 각각 완선(完船)을 갖추고 정원(定員)을 정해 도내에서 인솔하여 보내게 하며, 또한 연로(沿路)의 지방 관원은 경상(境上)에서 서로 교대하여 호송하게 하며, 그 반은 관서(關西)에서 토선(土船)을 동원하여 정원을 정해 내려 보내고, 해당 도의 파견된 인원과 함께 직접 인솔하여 운송하게 하며, 만일 그 사이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도중에 방해가 있다면, 조운선(漕船)의 예에 따라 해당 고을의 수령(邑倅)을 무겁게 논죄하게 하옵고, 이 뜻을 각 해당 도의 도신(道臣)에게 별도로 엄히 분부하여, 제때 시행한 뒤 아뢰어 알리도록 하십시오. 또 잡비(雜費) 조

항에 대한 추가 배정은 관동(關東)에 허락하지 않았으니, 지금은 논의할 수 없고, 본도는 편의에 따라 처리하게 하옵고, 신군(身軍)의 포전(布錢) 삼분지일(1/3)을 정지하였으니, 양영(兩營)에 대납하여 줄 7만 냥은 칙고(勅庫)에서 주어야 하옵니다. 비록 마땅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이 외의 각고(各庫)에 남은 재정은 여유가 있어 전용할 수 있으므로, 이 액수만큼은 잠정적으로 허락하여 대여하게 하고, 내년이 되어 상납(上納)할 때, 이를 충당한 후, 본사(本司)에 보고하여 대비하고자 하오니, 이 뜻을 모두 분부하게 하심이 어떠하시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조세.

❖ 嘉慶 十六年 辛未 十一月 二日 丁丑

○ 尹鼎烈,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濟州牧使趙貞喆實災狀啓, 則分等不爲擧論, 後錄數件, 候風涉海, 恐有後時之患, 謹援已例, 一邊擧行, 一邊馳啓爲辭矣. 其一, 二邑舊還, 姑爲仍停事也. 其二, 軍兵逃老故病廢之類, 嚴飭各該邑, 使之塡充, 差待開春, 從附近哨司分鍊事也. 其三, 邑農雖違於始料, 幸不失平年, 爲島民誠爲萬幸, 後錄諸條之先擧行後登聞, 旣有本島已例, 使之依此施行, 何如? 傳曰, 允.

❖ 순조 11년(1811) 신미년 11월 2일(정축)

▢ 제주목사(濟州牧使) 조정철(趙貞喆)의 장계 재실(災實)에 관한 비변사의 계

○ 윤정열(尹鼎烈)이 비변사(備邊司)의 말로 아뢰기를, “곧 제주목사(濟州牧使) 조정철(趙貞喆)의 실재(實災) 장계(狀啓)를 보니, 등급을 나누어 논의하지는 않고, 뒤에 여러 조목을 기록하여, 바람을 기다려 바다를 건너는 사이에 시기를 놓치는 폐단이 생길까 염려되어, 삼가 이미 있었던 선례에 의거하여, 한편으로는 먼저 시행하고, 한편으로는 급히 아뢰는 것을 사유로 삼았습니다. 하나는, 두 고을[二邑]의 구환(舊還)은 우선 그대로 정지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는, 군병이 도망하거나 늙고 병들어 쓸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고을마다 엄히 명하여 이를 충원하게 하고, 봄이 되기를 기다려 인근의 초사(哨司)로부터 나누어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는, 고을의 농사가 비록 처음 예상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평년을 잃지 않았으니 섬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큰 다행이므로, 뒤에 기록된 여러 조목도 먼저 시행한 뒤 아뢰는 방식은 이미 이 섬[本島]에서 있었던 선례이니, 이를 따라 시행하게 하십시오. 어떠하시겠습니까?”라고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실재 장계.

❖ 嘉慶 十六年 辛未 十一月 二十三日 戊戌

○ 以濟州防禦使趙貞喆狀啓, 薦新與進上唐金橘柑子, 不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尹鼎烈曰, 勿爲待罪事, 回諭.

❖ 순조 11년(1811) 신미년 11월 23일(무술)

▢ 제주(濟州)의 천신(薦新)과 진상(進上)에 관계된 당금귤(唐金橘)과 감자(柑子)에 관한 보고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조정철(趙貞喆)의 장계(狀啓)에, "천신(薦新)하고 진상(進上)할 당금귤(唐金橘)과 감자(柑子)가 예에 따라 봉진(封進)하지 못하였으니 두렵고 황공하여 죄를 기다립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윤정열(尹鼎烈)에게 전교하기를, "죄를 기다리지 말 일로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천신, 진상, 당금귤, 감자.

❖ 嘉慶 十六年 辛未 十一月 二十三日 戊戌

○ 尹鼎烈, 以禮曹言啓曰, 卽伏見濟州牧使趙貞喆狀啓謄報, 則各樣橘果, 酷被風損, 去十月令宗廟·景慕宮薦新唐金橘, 全數闕封, 柑子一百三十四箇, 數旣不足, 謹援已例, 都封上送于禮曹, 以爲稟旨薦獻事, 爲辭矣. 在前如此之時, 有減數分排薦獻之例, 今亦依前例, 當日薦進, 何如? 傳曰, 允.

❖ 순조 11년(1811) 신미년 11월 23일(무술)

▢ 제주목(濟州牧) 천신(薦新) 당금귤(唐金橘)에 관한 예조의 보고

○ 윤정열(尹鼎烈)이 예조(禮曹)의 뜻으로 아뢰기를, "즉시 제주목사(濟州牧使) 조정철(趙貞喆)의 장계(狀啓) 등보(謄報)를 보니, 각종 귤과(橘果)가 혹심한 바람에 손상을 입어서, 지난 10월령으로 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에 천신(薦新)할 당금귤(唐金橘)이 전량 봉진(封進)하지 못했습니다. 감자(柑子) 134개만이 있어 수량이 부족하였으므로, 삼가 이미 있던 전례를 원용하여 모두 봉해 예조에 보내고, 명을 받들어 천헌(薦獻)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전에도 이러한 상황일 때, 수량을 감하여 나누어 천헌하던 예가 있었으니, 이제도 이전의 예에 따라 당일에 천진(薦進)하도록 하심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천신, 당금귤.

❖ 嘉慶 十六年 辛未 十二月 五日 己酉

○ 以濟州防禦使趙貞喆狀啓, 薦新進上各種柑橘, 不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尹鼎烈曰, 卿其勿待罪事, 回諭.

❖ 순조 11년(1811) 신미년 12월 5일(기유)

▢ 제주목(濟州牧) 천신(薦新)과 진상(進上) 감귤(柑橘)에 관한 보고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조정철(趙貞喆)의 장계(狀啓)에, "천신(薦新)하고 진상(進上)할 여러 가지 감귤(柑橘)을 예에 따라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두렵고 황송하여 죄를 기다립니다."라고 하였다. 윤정열(尹鼎烈)에게 전교하기를, "경은 그 죄를 기다리지 말라고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천신, 진상, 감귤.

❖ 嘉慶 十六年 辛未 十二月 五日 己酉

○ 尹鼎烈, 以禮曹言啓曰, 卽伏見濟州牧使趙貞喆狀啓謄報, 則今十二月令所封柑橘, 一一摘取, 乳柑爲二百四十一箇, 洞庭橘爲二百三十三箇, 薦新, 無以排數, 謹援已例, 都封上送于禮曹, 以爲稟旨進獻事爲辭矣. 在前如此之時, 有減數薦獻之例, 今亦依前例, 宗廟·景慕宮, 薦新乳柑, 宗廟薦新洞庭橘, 當日分排薦進, 何如? 傳曰, 允.

❖ 순조 11년(1811) 신미년 12월 5일(기유)

▢ 제주목(濟州牧) 봉진 감귤에 관한 보고

○ 윤정열(尹鼎烈)이 예조(禮曹)의 뜻으로 아뢰기를, "즉시 제주목사(濟州牧使) 조정철(趙貞喆)의 장계 등보를 살펴보니, 이번 12월령으로 봉진(封進)할 감귤을 하나하나 채취한 결과, 유감(乳柑)은 241개이고, 동정귤(洞庭橘)은 233개였으니, 천신(薦新)에 필요한 수량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이미 있었던 사례를 근거로 하여 모두 봉하여 예조에 올리고, 품지(稟旨)하여 진헌(進獻)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전에도 이와 같은 경우에 수량을 줄여 천신한 사례가 있었으니, 이번에도 그 전례에 따라 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에 천신할 유감과, 종묘에 천신할 동정귤을 그날 나누어 배정하여 진헌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동정귤, 유감.

1812年

(순조 12)



❖ 嘉慶 十七年 壬申 二月 十九日 壬戌

○ 安廷善, 以禮曹言啓曰, 卽接厚陵參奉所報, 則今二月二十五日, 行寒食祭享, 香祝官員一員, 前期三日, 祗受陪往後, 兩官當爲備員將事, 而令高鳴鶴, 在於濟州地, 除拜後尙未上來, 參奉今方入直, 受香無人云. 在外令高鳴鶴, 今姑改差, 其代卽令該曹, 以在京無故人, 口傳差出, 以爲受香之地, 何如? 傳曰, 允.

❖ 순조 12년(1812) 임신년 2월 19일(임술)

▢ 제주(濟州)의 한식(寒食) 제향(祭享)에 관한 예조의 보고

○ 안정선(安廷善)이 예조(禮曹)의 뜻으로 아뢰기를, "곧 후릉(厚陵)의 참봉(參奉)으로부터 보고를 접수하였는데, 이번 2월 25일에 한식(寒食) 제향(祭享)을 거행하게 되며, 향축관원(香祝官員) 한 사람은 그 사흘 전부터 지수(祗受)하고 동행하여야 하며, 두 관원은 마땅히 준비하여 봉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명학(高鳴鶴)은 지금 제주(濟州) 지역에 있고, 제배(除拜)된 이후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참봉은 이제야 입직하여, 향을 받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외지에 있는 고명학은 이번에 우선 교체하여, 그 대리자를 해당 관청에서 임명하되, 서울에 있는 사람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를 선정하여 구두로 명하여 파견하여, 향을 받는 자리에 임하도록 하려 합니다.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 嘉慶 十七年 壬申 二月 二十一日 甲子

○ 以濟州防禦使趙貞喆狀啓, 進上靑橘, 不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安廷善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12년(1812) 임신년 2월 21일(갑자)

▢ 제주(濟州) 진상 청귤(靑橘)에 관한 보고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조정철(趙貞喆)의 장계(狀啓)에, "진상할 청귤(靑橘)을 전례와 같이 봉진(封進)하지 못하게 되어 황공하고 죄를 기다린다는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안정선(安廷善)에게 전교하기를, "죄를 기다리지 말라고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청귤.

❖ 嘉慶 十七年 壬申 二月 二十一日 甲子

○ 安廷善, 以禮曹言啓曰, 卽伏見濟州牧使趙貞喆狀啓謄報, 則今二月朔所封靑橘, 初已稀結, 又於三冬, 酷被風雪, 剝落太多, 見今所存, 一一摘取, 只爲七百三箇. 薦新二百八十八箇, 依例封進, 所餘四百十五箇, 較諸進上定例, 排數無路, 謹援已例, 都封上送于該曹, 以爲稟旨進獻事爲辭矣. 莫重進上, 如是減封, 誠爲未安, 而島實稀結, 所封不足, 在前如此之時, 已有稟旨封進之例, 今亦依例, 令該院捧入, 何如? 傳曰, 允.

❖ 순조 12년(1812) 임신년 2월 21일(갑자)

▢ 제주(濟州)에서 2월 초하루에 봉진한 청귤(靑橘)에 관한 예조의 보고

○ 안정선(安廷善)이 예조(禮曹)의 말로 아뢰기를, "즉시 제주목사(濟州牧使) 조정철(趙貞喆)의 장계(狀啓) 등보를 살펴보니, 이번 2월 초하루에 봉진한 청귤(靑橘)은 처음부터 결실이 드물었고, 또 지난겨울 혹심한 풍설(風雪) 피해를 심하게 받아 떨어진 것이 매우 많았으며, 현재 남은 것을 하나하나 따보니 오직 703개입니다. 이 가운데 천신(薦新)으로 288개를 전례에 따라 봉진하고, 그 나머지 415개는 진상(進上)의 정례에 견주어 보건대, 수를 맞추기가 어려우므로, 삼가 예전에 있었던 선례를 원용하여, 모두 봉하여 해당 관청에 올려보내고, 품지(稟旨)로 진헌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막중한 진상이 이처럼 수량을 줄여 봉하게 된 것은 진실로 미안한 일이지만, 섬에서 결실이 드물고 봉할 수 있는 수량이 부족하였으니, 이전에도 이러한 경우에 품지로 봉진한 선례가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그 예에 따라 해당 관청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청귤.

❖ 嘉慶 十七年 壬申 四月 十五日 丁巳

○ 洪秀晩, 以備邊司言啓曰, 濟州牧使趙貞喆身病添劇, 呈狀乞遞, 聞其病情, 果難强令行公, 改差, 何如? 傳曰, 允.

❖ 순조 12년(1812) 임신년 4월 15일(정사)

▢ 제주목사(濟州牧使) 조정철(趙貞喆)이 사직을 청함

○ 홍수만(洪秀晩)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조정철(趙貞喆)의 병세가 더욱 심해져 장계를 올려 사직을 청하였습니다. 그 병세를 들으니, 과연 억지로 공무를 계속하게 하기 어려우니, 교체하여 임명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조정철.

❖ 嘉慶 十七年 壬申 四月 十七日 己未

○ 備邊司薦望, 以金守基爲濟州牧使.

❖ 순조 12년(1812) 임신년 4월 17일(기미)

▢ 제주목사(濟州牧使)에 김수기(金守基)를 제수함

○ 비변사가 천거하여 아뢰기를, "김수기(金守基)를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수기, 제주목사.

❖ 嘉慶 十七年 壬申 四月 二十日 壬戌

▢ 제주목사(濟州牧使)로 김수기(金守基)를 단망(單望)함

○ 有政. 吏批, …… 濟州牧使單金守基, 東萊府使單金魯應, 故學生李遂浩贈童敎, 孝行卓異贈職事, 承傳.

❖ 순조 12년(1812) 임신년 4월 20일(임술)

▢제주목사(濟州牧使)로 김수기(金守基)를 단망(單望)함

○ 정사가 있었는데, 이조의 비답에, "〈상략〉 제주목사(濟州牧使)로 김수기를 단망하고, 동래부사로 김노응(金魯應)을 단망하고, 고(故) 학생 이수호(李遂浩)에게 동교(童敎)를 증직하고, 효행이 뛰어난 점으로 인해 증직한 일은 전교한 대로 따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수기, 단망.

❖ 嘉慶 十七年 壬申 四月 二十八日 庚午

○ 禁府啓目粘連, 濟州牧放未放修啓冊子中, 本府所管定配罪人未放秩, 李致薰段, 依啓聞施行, 他餘罪人等, 令刑曹稟處, 何如? 啓. 依允.

❖ 순조 12년(1812) 임신년 4월 28일(경오)

▢ 제주목(濟州牧) 미방질(未放秩)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계

○ 금부(禁府)의 계목점련(啓目粘連)에, "제주목(濟州牧)의 방미방(放未放) 수계책자(修啓冊子) 중에, 본부(금부)에서 관할하는 정배(定配)된 죄인 중 방출되지 않은 자들의 명단에서, 이치훈(李致薰)은 계문(啓聞)한 대로 시행하고, 그 외의 죄인들은 형조(刑曹)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아뢰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미방질, 이치훈.

❖ 嘉慶 十七年 壬申 五月 十六日 丁亥

○ 備忘記, 濟州牧使金守基下直, 長弓一張, 長箭一部, 片箭一部, 筒兒一箇賜給.

❖ 순조 12년(1812) 임신년 5월 16일(정해)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가 하직(下直)함

○ 비망기(備忘記)에,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가 하직(下直)할 때, 장궁(長弓) 1자루, 장전(長箭) 1부, 편전(片箭) 1부, 통아(筒兒) 1개를 하사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수기, 하직.

❖ 嘉慶 十七年 壬申 五月 二十九日 庚子

○ 洪秀晩, 以義禁府言啓曰, 卽接龍岡縣監申在業牒呈及成冊, 則逆魁景來應坐支屬, 査出以來, 而其母朴女, 妻崔女, 姪蒯亡·大默, 子儉崇, 捉囚定原獄, 姪志默, 捉囚本縣, 兄命來·昌來, 弟鼎來, 姪業同·孟孫·明山·明中, 子小斤崇, 昨年十月, 隨景來出去云矣. 擧兵逆魁之兄弟妻妾, 竝坐誅, 載在大典通編, 其妻崔女, 發遣府都事, 與地方官, 眼同處斬, 子儉崇年十一, 依律文免絞, 全羅道濟州牧大靜縣爲奴, 姪蒯亡康津縣古今島, 大默靈巖郡楸子島, 志默羅州牧黑山島, 竝流三千里安置, 而依例令刑曹押送配所, 母朴女年七十四, 依律文免坐, 命來·昌來·鼎來·業同·孟孫·明山·明中·小斤崇, 分付該道臣, 一竝跟捕, 更爲牒報後, 依律擧行, 何如? 傳曰, 允.

❖ 순조 12년(1812) 임신년 5월 29일(경자)

▢ 홍경래(洪景來)의 아들 검숭(儉崇)을 대정현(大靜縣)에서 노비로 삼겠다는 의금부의 계

○ 홍수만(洪秀晩)이 의금부(義禁府)의 말로 아뢰기를, "곧 용강현감 신재업(申在業)의 첩정(牒呈)과 성책(成冊)을 접수하였는데, 역적 우두머리 홍경래(洪景來)와 응좌(應坐)한 부속자들을 조사해오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 박씨(朴女), 아내 최씨(崔女), 조카 괴망(蒯亡)과 대묵(大默), 아들 검숭(儉崇)은 붙잡아서 정원옥(定原獄)에 있게 하고, 조카 지묵(志默)은 잡아서 이 현에 가두고, 형 명래(命來)·창래(昌來), 동생 정래(鼎來), 조카 업동(業同)·맹손(孟孫)·명산(明山)·명중(明中), 아들 소근숭(小斤崇)은 작년 10월 홍경래를 따라 나갔다고 합니다. 역적 우두머리의 형제와 부인, 첩들을 모두 함께 죄로 다스려 처형한다는 사실이 『대전통편(大典通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내 최씨는 파견된 부의 도사(都事)와 지방관을 보내어 안동(眼同)하여 참형(斬刑)하고, 아들 검숭은 11살이어서 법령에 따라 교수형에서 면제되어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에서 노비가 되었습니다. 조카 괴망은 강진현 고금도(古今島), 대묵은 영암군 추자도(楸子島), 지묵은 나주목 흑산도(黑山島)로 모두 3천 리 떨어진 곳에 유배하여 안치하고, 법령에 따라 형조에서 이송하여 배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어머니 박씨는 74세로, 법령에 따라 죄를 면제받았으며, 형 명래·창래·정래, 조카 업동·맹손·명산·명중, 아들

소근숭은 해당 도의 관원에게 분부하여 모두 함께 체포하여 다시 첩보한 뒤,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추자도.

❖ 嘉慶 十七年 壬申 五月 三十日 辛丑

○ 洪秀晩, 以刑曹言啓曰, 義禁府啓辭內, 卽接龍岡縣監申在業牒呈及成冊, 則逆魁景來應坐支屬, 査出以來, 而其母朴女, 妻崔女, 姪胤亡·大默, 子儉崇, 捉囚定原獄, 姪志默捉囚本縣, 兄命來·昌來, 弟鼎來, 姪業同·孟孫·明山·明中, 子小斤崇, 昨年十月, 隨景來出去云矣. 擧兵逆魁之兄弟妻妾, 竝坐誅, 載在大典通編, 其妻崔女, 發遣府都事, 與地方官, 眼同處斬, 子儉崇年十一, 依律文免絞, 全羅道濟州牧大靜縣爲奴, 姪胤亡康津縣古今島, 大默靈巖郡楸子島, 志默羅州牧黑山島, 竝流三千里安置, 而依例令刑曹押送配所, 母朴女年七十四, 依律文免坐, 命來·昌來·鼎來·業同·孟孫·明山·明中·小斤崇, 分付該道臣, 一竝跟捕, 更爲牒報後, 依律擧行, 何如? 傳曰, 允事, 命下矣. 罪人胤亡·大默·儉崇, 方囚定原縣獄, 罪人志默, 方囚龍岡縣獄, 竝令本道卽爲押送于各其配所事, 分付道臣, 何如? 傳曰, 允.

❖ 순조 12년(1812) 임신년 5월 30일(신축)

▢ 홍경래(洪景來)의 아들 검숭(儉崇)을 대정현(大靜縣)에서 노비로 삼겠다는 의금부의 계

○ 홍수만(洪秀晩)이 형조(刑曹)의 뜻으로 아뢰기를, "의금부(義禁府)의 계사(啓辭) 안에, 곧 용강현감(龍岡縣監) 신재업(申在業)의 첩정(牒呈)과 성책(成冊)을 접수하였더니, 역적 괴수 홍경래(洪景來)는 마땅히 연좌(連坐)할 친족이 있으며,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 박씨(朴女), 아내 최씨(崔女), 조카 괴망(胤亡)과 대묵(大默), 아들 검숭(儉崇)은 잡혀서 정원현(定原縣)의 옥에 수감되어 있고, 조카 지묵(志默)은 본현[龍岡縣]의 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형 명래(命來)·창래(昌來), 아우 정래(鼎來), 조카 업동(業同)·맹손(孟孫)·명산(明山)·명중(明中), 아들 소근숭(小斤崇)은 작년 10월에 홍경래를 따라 나갔다고 합니다. 병란(兵亂)을 일으킨 역적 괴수(홍경래)의 형제와 처첩(妻妾)은 모두 죽이도록 《대전통편》에 실려 있으니, 그 아내 최씨는 부의 도사(都事)와 지방 관원을 함께 보내 참수하도록 하고, 아들 검숭은 나이가 11살이므로 율문(律文)에 따라 교수형을 면제하여 전라도(全羅道)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에서 노비로 삼게 하고, 조카 괴망은 강진현(康津縣) 고금도(古今島), 대묵은 영암군(靈巖郡) 추자도(楸子島), 지묵은 나주목(羅州牧) 흑산도(黑山島)에 각각 삼천리 유형(流刑)하여 안치하게 하고, 율례(律

例)에 따라 형조에 명하여 배소(配所)까지 압송하게 하십시오. 그의 어머니 박씨는 나이가 74세이므로 율문에 따라 처벌을 면제하고, 명래·창래·정래·업동·맹손·명산·명중·소근숭은 해당 도의 감사에게 분부하여 모두 쫓아 붙잡게 하고, 다시 문서를 보내어 보고한 뒤에 율례에 따라 시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일을 허락한다."라고 명을 내렸다. "죄인 괴망·대묵·검숭은 지금 정원현의 감옥에 갇혀 있고, 죄인 지묵은 지금 용강현(龍岡縣)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 모두 본도에서 곧 그들이 갈 유형지로 압송하게 하고, 이를 도의 감사에게 분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대정현.

❖ 嘉慶 十七年 壬申 六月 二日 癸卯

○ 吏曹啓目粘連, …… 願納人載寧·濟州嘉善金士元, 願納各穀一千三百四十九石零, 己巳納粟於湖南, 今此補賑, 又至一千三百石之多, 遠島之人, 出義捐財, 宜有激勸之政, 似當施以邊將除授之典是白乎旀, …….

❖ 순조 12년(1812) 임신년 6월 2일(계묘)

▢ 제주(濟州)의 가선대부(嘉善大夫) 김사원(金士元)의 원납(願納)에 관한 이조의 보고

○ 이조(吏曹)의 계목점련(啓目粘連)에, "〈상략〉 원납인(願納人) 재령(載寧)과 제주(濟州)의 가선대부(嘉善大夫) 김사원(金士元)은 스스로 곡식 1,349섬쯤을 희사하기를 원하여, 이미 기사년(己巳年: 1809)에 호남(湖南)에 납속(納粟)하고, 이번에 구휼(救恤)을 보충하는 데에도 또다시 1,300섬이 넘는 양을 납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외딴섬 사람이 의롭게 재물을 내는 것은 마땅히 격려하고 권면하는 정치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변경 장수에 임명하는 전례에 따라 제수(除授)하는 은전을 베풀어야 하오며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김사원.

❖ 嘉慶 十七年 壬申 六月 十五日 丙辰

○ 金愚淳, 以禮曹言啓曰, 卽接濟州前牧使趙貞喆所報, 則去四月十三日, 上候平復, 頒赦陳賀時, 本牧所封方物, 依例封進矣. 其時各道所封方物, 因特敎停止, 故自臣曹, 行會各道, 使之勿封, 而該牧使之誤爲擧行, 殊甚不審, 推考警責, 所封方物, 事當還爲下送, 而越海之地, 亦涉有弊, 何以爲之乎? 敢稟. 傳曰, 允. 捧入.

❖ 순조 12년(1812) 임신년 6월 15일(병진)

▢ 제주목(濟州牧) 방물 진상에 관한 예조의 보고

○ 김우순(金愚淳)이 예조(禮曹)의 뜻으로 아뢰기를, "곧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조정철(趙貞喆)이 보고한 내용을 접수하였더니, 지난 4월 13일, 임금의 평복(平復)을 여쭙고 사면령을 반포하여 진하(陳賀)할 때, 본 목에서 봉진한 방물(方物)은 예에 따라 봉진하였습니다. 그 당시 각 도에서 봉진하는 방물은 특별 교지로 중지되었으므로, 신이 속한 예조에서는 각 도에 공문을 내려 봉진하지 않게 하였는데, 해당 목사가 그 뜻을 잘못 이해하고 시행한 것은 매우 분별하지 못한 일입니다. 따라서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함이 마땅하며, 봉진한 방물은 마땅히 돌려보내게 하여야 하나, 바다를 건너야 하는 지역이므로 또한 폐단이 우려되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삼가 아뢰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 嘉慶 十七年 壬申 六月 二十四日 乙丑

○ 李錫夏,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放未放修啓冊子兩度, 竝爲啓下, 而本府所管定配罪人李致薰, 置之未放秩矣. 李致薰, 罪關邪獄, 依啓聞施行, 他餘罪人, 令刑曹稟處, 何如? 傳曰, 允.

❖ 순조 12년(1812) 임신년 6월 24일(을축)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의금부의 계

○ 이석하(李錫夏)가 의금부(義禁府)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의 '방면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자에 대한 수계 책자'를 두 차례 올렸는데, 모두 그대로 계하하였으나, 본부(의금부)가 관할하는 정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그 '미방질(未放秩)'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치훈은 죄가 사사로운 옥사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계문에 따라 시행하고, 그 외 다른 죄인들은 형조에 하문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七年 壬申 六月 二十五日 丙寅

○ 壬申六月二十五日辰時, …… 載瓚曰, 卽見濟州前牧使趙貞喆狀啓, 則以爲, 本島城池, 鑿以垓子, 環以枳樹, 已自勝國, 號爲枳城, 近則革罷監守之節, 城郭崩圮, 枳棘童濯, 以言乎橘柚, 則公園私養, 蕩然成墟, 莫重貢獻, 將至闕封, 故城堞則仍其舊址, 築以外城, 間設十二果園, 皆種以橘柚, 復置城園主管之人, 以爲修護監守之節, 仍成節目, 報本司, 而請令廟堂, 措辭行會爲辭矣. 耽羅之內城外枳, 卽自古所無之城制, 而作爲天險之地, 近則城皆頹毁, 枳又剗刈, 枳城之制, 不可復見者, 卽前後倅臣之罪也. 至於果園之弊, 民不支堪, 至於視之如讐, 必芟必拔, 將使橘柚之包, 不得上貢, 本島積弊之本, 卽此城園一事, 他可推類, 今城完濠深, 間之以十二園橘林, 菀有改觀之美, 誠甚爲幸, 但繼今修護之方, 專在倅臣, 使之一從新成節目, 各自遵守, 若或又踵前弊, 城有堙頹之患, 而未卽修補, 園無栽培之效, 而依舊蕩然, 有入於繡啓或別歧廉探, 則當該守令, 施以卽其地徒配之典, 每於歲末, 必以城堞完毁與否, 果園殘盛形止, 修成冊報本司, 以爲憑考之地, 永爲定式, 以此意, 別關行會, 監董人論賞, 令該曹, 卽爲稟處. 又見報本司辭意, 則以爲, 本州設營之後, 創立牙兵四哨, 輪回入防矣. 中年以來, 忽廢入防之法, 始捧番除之米, 憑藉公用, 竊作染指, 辛丑因繡衣之書啓, 申復入防之舊規, 亟革收米之謬例, 復設今纔三十年, 而今年行一干譽而分番, 明年添一名色而除番, 入防則有名無實, 利竇則自有所歸, 師律所在, 不可仍置. 分番姑依近例, 其外妨於入防之不緊諸條, 一併革去, 克遵辛丑舊制, 而修明之, 追成節目上送, 永久遵行之意, 自本司, 別飭行會爲辭矣. 四哨牙兵之分哨入防, 卽本牧不易之軍制, 而中間之收米罷防, 未知果在何時, 而辛丑復防, 纔過數十年, 已有毁劃之弊者, 萬萬寒心. 今見新成節目, 則遵辛丑已定之制, 而務存簡嚴, 革近年不緊之名, 而極其申明, 若使遵此無改, 則必見其軍有常制, 民無橫弊, 以此意另關嚴飭, 後若又爲襲謬, 則該守令, 施以犯師律之罪, 仍爲著式,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 순조 12년(1812) 임신년 6월 25일(병인)

▢ 제주목사(濟州牧使) 조정철(趙貞喆)의 제주성(濟州城)에 관한 장계

○ 임신년(壬申) 6월 25일 진시에, 〈상략〉 김재찬(金載瓚)이 아뢰기를, "곧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조정철(趙貞喆)의 장계(狀啓)를 보건대, 이 섬[本島]의 성지(城池)는 옛날부터 해자(垓字)를 파고 탱자나무로 두르고, 나라가 존재하던 때부터 스

스로 '탱자성[枳城]'이라 일컬어 왔습니다. 근래에 감수(監守)의 절목을 혁파하고 나자, 성곽이 무너지고, 탱자 울타리도 말라 죽어 없어졌습니다. 귤유(橘柚)에 대하여 말하자면, 관원과 백성이 기르던 과수원도 황폐하여 터만 남고, 공물로서의 중요성도 잃어 이제는 조정에 올리는 봉진도 끊기게 될 지경입니다. 이에 따라 성첩(城堞)은 옛터를 따라 외성을 다시 쌓고, 그 사이에 12개의 과원을 설치하여 모두 귤과 유자를 심으며, 성과 과원을 함께 관리하는 책임자를 다시 두어 수호하고 감독하는 절목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본사에 보고하고, 아울러 조정에 조처의 말[措辭]을 마련하여 공문으로 돌리기를 청하였습니다. 탐라(耽羅)의 '성안은 성이고 성 밖은 탱자 울타리인 제도'는 예로부터 없던 성제(城制)로서 천험의 지형을 만든 것인데, 근래에 이르러 성은 모두 무너지고 탱자나무도 베어졌으니, '탱자성의 제도'는 다시 볼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전후의 책임자인 관원들의 죄입니다. 또한 과원의 폐해로는 백성이 감당하지 못해 이를 원수처럼 여기며 반드시 베고 뽑으려 하여, 귤유의 껍질조차 조정에 진상할 수 없게 되었으니, 본도의 누적된 폐단의 근본은 바로 이 성과 과원의 문제입니다. 다른 일도 여기에 비추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은 완공되고 해자는 깊으며, 그 사이에 12개의 귤나무 과원이 조성되어 크게 면모가 달라졌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다만 이후의 수호와 유지하는 방도는 오로지 책임자인 관원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이번에 새로 만든 절목을 모두 따르도록 하고, 혹시라도 옛 폐단을 다시 따르게 되어 성이 무너져도 곧바로 보수하지 않거나, 과원이 방치되어 다시 황폐하게 되며, 혹시 수계에 들어가거나 다른 탐문을 통해 폐단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당 수령에게는 그 자리에서 도배(徒配)하는 형벌을 시행하게 하십시오. 매년 연말에는 반드시 성첩의 완공 여부, 과원의 성쇠 상태를 기록한 장부를 본사에 보고하게 하여, 이를 근거로 삼아 영구히 준수할 정례로 삼고자 하니, 이 뜻을 별도로 공문으로 내려 관련자들에게 행할 조처를 정하고, 감독한 자는 논공행상하게 하며, 해당 부서에 이를 올려 처리하게 하십시오. 또 본사에 보고된 문건의 뜻을 보면, 본주에 영문(營門)을 설치한 뒤, 처음으로 아병(牙兵) 4초(哨)를 두어 교대로 성을 지키게 하였는데, 중년(中年)에 이르러 갑자기 성을 지키는 제도가 폐지되어, 번차(番次)를 없애고 그 곡식을 공용(公用)에 맡긴다고 하면서 사적으로 손대는 폐단이 생겼습니다. 신축년(辛丑: 1781)에는 수의(繡衣)의 서계로 말미암아 옛 규정을 다시 따르되, 잘못된 미곡 징수 관행을 개혁하고, 다시금 방어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이제 겨우 3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올해에는 칭호를 하나 만들어 번차를 나누고, 내년에는 명목을 하나 추가하여 번차를 면하게 하니, 실상은 번차에 이름만 있고 실질은 없으며, 이익의 구

멍은 제각기 돌아가게 됩니다. 군사 규율이 서려면 이런 상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번차는 우선 최근의 예에 따르되, 그 외에 방어가 느슨해지는 제반 사항은 모두 폐지하여, 신축년의 옛 규정에 따라 밝히고 정비하며, 새로운 절목을 작성하여 올리고, 영원히 따르게 하고자 하니, 본사에서 별도로 엄중히 명령하는 공문을 내려 그 뜻을 밝히게 하였습니다. 4초로 아병을 나누어 성을 방어하는 일은 본목의 바꿀 수 없는 군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미곡을 징수하고 방어를 폐지한 것이 과연 어느 시점부터인지도 알 수 없으며, 신축년에 복구한 지 이제 겨우 수십 년 만에 이미 훼손되는 폐단이 생겼으니, 심히 한심한 일입니다. 지금 새로 만든 절목을 보건대, 신축년에 이미 정한 제도를 따라 되도록 간소하고 엄정하게 하며, 근래의 느슨한 명목을 고쳐 다시 엄격하게 밝히고자 하였으니, 만일 이를 따르고 바꾸지 않는다면 반드시 군에는 일정한 제도가 생기고 백성에게도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뜻을 따로 공문으로 엄히 명령하고, 뒤에 다시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해당 수령은 군율을 어긴 죄로 처벌하고, 이를 규정으로 삼게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조정철, 제주성.

❖ 嘉慶 十七年 壬申 六月 二十九日 庚午

○ 傳于韓致應曰, …… 權就一爲旌義縣監, …….

❖ 순조 12년(1812) 임신년 6월 29일(경오)

▢ 정의현감(旌義縣監)에 권취일(權就一)을 제수함

○ 한치응(韓致應)에게 전교하기를, "〈상략〉 권취일(權就一)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아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권취일, 정의현감.

❖ 嘉慶 十七年 壬申 七月 一日 辛未

○ 李錫夏啓曰, 密符親納, 例也, 而前濟州牧使趙貞喆, 謂有身病, 以其偏裨替納, 事甚未安. 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 순조 12년(1812) 임신년 7월 1일(신미)

▢ 제주목사(濟州牧使) 조정철(趙貞喆)의 밀부(密符) 납입에 관한 건

○ 이석하(李錫夏)가 아뢰기를, “밀부(密符)는 친히 납입하는 것이 예인데,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조정철(趙貞喆)이 몸에 병이 있다고 하여 그 휘하의 편비(偏裨)로 하여금 대신 납입하게 하였으니, 이는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추고하여 경책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조정철, 밀부.

❖ 嘉慶 十七年 壬申 七月 一日 辛未

○ 洪羲俊,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 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凶咎駑駘馬二十匹, 合八十八匹內, 四匹到中路故失, 二匹到中路病留, 二匹到本寺病留除, 實納馬八十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2년(1812) 임신년 7월 1일(신미)

▢ 제주목(濟州牧) 선운(先運) 진상마(進上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홍희준(洪羲俊)이 사복시(司僕寺)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선운(先運)의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8필, 삼명일(三名日) 진상마(進上馬) 60필, 흉구노태마(凶咎駑駘馬) 20필을 합하여 모두 88필 중에, 4필은 중로(中路)에서 잃고, 2필은 중로에 이르러 병들어 머무르고, 2필은 본시(本寺)에 도착한 뒤 병들어 머물게 되어 제외하였으므로, 실제로 납입된 말은 80필입니다. 말의 나이와 털빛은 별단으로 써서 들이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알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선운, 진상마.

❖ 嘉慶 十七年 壬申 七月 二日 壬申

○ 壬申七月初二日辰時, …… 旌義縣監權就一, …….

❖ 순조 12년(1812) 임신년 7월 2일(임신)

▢ 정의현감(旌義縣監)에 권취일(權就一)을 제수함

○ 임신년(壬申: 1812) 7월 초2일 진시에, "〈상략〉 정의현감(旌義縣監)을 권취일(權就一)로 삼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권취일.

❖ 嘉慶 十七年 壬申 七月 三日 癸酉

○ 洪羲俊,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運, 歲貢馬二百匹內, 三匹船中故失, 四匹中路病留, 四匹到本寺故失, 四十六匹訓鍊都監, 十二匹禁衛營, 十二匹御營廳軍馬分給除, 實納馬一百十九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2년(1812) 임신년 7월 3일(계유)

▢ 제주(濟州) 후운(後運) 세공마(歲貢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홍희준(洪羲俊)이 사복시(司僕寺)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후운(後運) 세공마(歲貢馬) 200필 가운데, 3필은 배 안에서 고실(故失)하고, 4필은 중로에서 병으로 남고, 4필은 본 시(사복시)에 도착하여 고실하고, 46필은 훈련도감(訓鍊都監)으로, 12필은 금위영(禁衛營)으로, 12필은 어영청(御營廳) 군마로 나누어 주었으니, 실제 납입된 말은 119필입니다. 말의 나이와 털빛을 별단으로 써서 들이는 뜻으로 감히 아뢰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알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후운, 세공마.

❖ 嘉慶 十七年 壬申 七月 八日 戊寅

○ 洪羲俊,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前牧使趙貞喆遞任進上馬三匹, 山馬監牧官金德洽 辛未壬申兩年條 封進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而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2년(1812) 임신년 7월 8일(무인)

▢ 제주목사(濟州牧使) 조정철(趙貞喆)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와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의 봉진마에 관한 사복시의 계

○ 홍희준(洪羲俊)이 사복시(司僕寺)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조정철(趙貞喆)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과,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김덕흡(金德洽)이 신미(辛未: 1811)·임신(壬申: 1812) 두 해 조의 봉진마(封進馬) 2필이 이제야 올라왔습니다. 말의 나이와 털빛은 별단으로 써서 들였고, 예에 따라 내구(內廐)에 두어 기르려는 뜻으로 감히 아뢰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알겠다."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조정철, 체임진상마, 산마감목관, 김덕흡.

❖ 嘉慶 十七年 壬申 七月 十三日 癸未

○ 李愚在, 以禮曹言啓曰, 卽接濟州牧使金守基所報, 則今七月初七日王世子冊禮翌日頒赦陳賀時, 本牧所封方物, 依例封進矣. 其時各道所封方物, 因特敎停止, 故自臣曹, 行會各道, 使之勿封, 而該牧使之誤爲擧行, 殊甚不審, 推考警責, 所封方物, 事當還爲下送, 而越海之地, 亦涉有弊, 何以爲之乎? 敢稟. 傳曰, 捧入.

❖ 순조 12년(1812) 임신년 7월 13일(계미)

▢ 제주목(濟州牧) 봉진 방물에 관한 예조의 보고

○ 이우재(李愚在)가 예조(禮曹)의 뜻으로 아뢰기를, "즉시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의 보고를 접하니, 이번 7월 7일 왕세자 책례(冊禮) 다음 날에 반사진하(頒赦陳賀)할 때 본 목에서 봉진한 방물(方物)은 예에 따라 봉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각 도에서 봉진하는 방물은 특별한 전교로 인해 정지되었으므로, 신이 있는 조정에서는 각 도에 통지하여 봉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해당 목사가 잘못 거행한 것은 매우 사려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추고하여 경책할 것을 아뢰오며, 봉진한 방물은 마땅히 돌려보내는 일이 되어야 하나, 바다를 건너온 고을이어서 또한 폐단이 있을 듯하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아뢰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받아들이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제주목사, 김수기.

❖ 嘉慶 十七年 壬申 八月 八日 戊申

○ 司諫南惠寬, 掌令李儒修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

❖ 순조 12년(1812) 임신년 8월 8일(무신)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사간 남혜관(南惠寬)의 계

○ 사간 남혜관(南惠寬)과 장령 이유수(李儒修)가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로 감형되어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잡아 오게 하고, 엄히 국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십시오. 〈중략〉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도 국문을 베풀고 엄히 추궁하여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七年 壬申 八月 八日 戊申

○ 掌令李儒修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答曰, 不允. 李東萬事, 亟停勿煩, 下諭事依啓.

❖ 순조 12년(1812) 임신년 8월 8일(무신)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이유수(李儒修)의 계

○ 장령 이유수(李儒修)가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문을 베풀고 엄히 추궁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도록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이동만(李東萬)의 일은 속히 중지시키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유(下諭)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七年 壬申 十月 四日 癸卯

○ 尹鼎烈,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旌義前縣監盧尙熙, 遞任進上馬二疋, 今纔上來, 禾毛色, 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 而進獻事體, 何等嚴重, 所封馬匹, 體小瘦瘠, 比前尤甚, 當該封進旌義縣監盧尙熙, 從重推考, 以警日後, 何如? 傳曰, 允.

❖ 순조 12년(1812) 임신년 10월 4일(계묘)

▢ 정의현감(旌義縣監) 노상희(盧尙熙)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윤정열(尹鼎烈)이 사복시(司僕寺)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노상희(盧尙熙)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이제야 올라왔는데, 말의 나이와 털빛은 별단으로 써서 들였고, 예에 따라 내구(內廐)에 두어 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헌(進獻)이라는 사안은 어떻게 엄중하지 않겠습니까? 봉진한 말의 체구는 작고 야윈 것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니, 마땅히 봉진한 정의현감(旌義縣監) 노상희를 엄중히 추고(推考)하여 뒤에 경계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노상희, 체임진상마.

❖ 嘉慶 十七年 壬申 十月 八日 丁未

○ 禁府啓目粘連, 濟州牧放未放修啓冊子中, 本府所管定配罪人李致薰, 依啓聞施行爲白乎旀, 他餘罪人等, 令刑曹稟處爲白遣, 其放未放冊子, 禁府·刑曹所管罪人, 區別各書, 自是格列, 而今此修啓, 則一例混錄於刑曹所管罪人秩, 事涉不審, 該牧使推考, 何如? 判付啓, 依允.

❖ 순조 12년(1812) 임신년 10월 8일(정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계

○ 금부(禁府)의 계목점련(啓目粘連)에, 제주목(濟州牧)에서 방면했는지 아직 방면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수계책자(修啓冊子) 중, 금부에서 관할하는 정배(定配)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은 아뢴 대로 하여 시행하게 하사오며, 그 외의 죄인들은 형조(刑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옵고, 그 '방미방(放未放)'에 대한 책자는 금부 및 형조에서 관할하는 죄인을 구별하여 각기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곧 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수계는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형조가 관할하는 죄인의 명단 속에 뒤섞어 기록하였으니, 사안이 매우 부주의한 데가 있습니다. 해당 목사(牧使)를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여 아뢰었는데,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七年 壬申 十一月 二十一日 庚寅

○ 掌令任樸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不允.

❖ 순조 12년(1812) 임신년 11월 21일(경인)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임박(任樸)의 계

○ 장령 임박(任樸)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명하여 신문을 베풀고 엄히 국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七年 壬申 十一月 二十三日 壬辰

○ 掌令李久源, 正言安尙默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還爲拿來, 嚴鞫得情, 快正典刑.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設鞫]嚴問, 快正王法. …….

❖ 순조 12년(1812) 임신년 11월 23일(임진)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장령(掌令) 이구원(李久源) 등의 계

○ 장령(掌令) 이구원(李久源)과 정언(正言) 안상묵(安尙默)이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형되어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도로 잡아 오게 하고,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문하도록 하고 엄히 신문하여 속히 왕법(王法)을 바로잡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七年 壬申 十一月 二十三日 壬辰

○ 掌令李久源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措辭見上】…….

❖ 순조 12년(1812) 임신년 11월 23일(임진)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掌令) 이구원(李久源)의 계

○ 장령 이구원(李久源)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에 명하여 국문을 엄히 베풀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어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七年 壬申 十一月 二十四日 癸巳

○ 以濟州防禦使金守基狀啓, 薦新進上唐金橘·柑子, 俱不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鄭魯榮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12년(1812) 임신년 11월 24일(계사)

▢ 제주목(濟州牧) 천신(薦新) 당금귤(唐金橘)과 감자(柑子)에 관한 보고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김수기(金守基)가 장계로 아뢰기를, “천신(薦新)으로 진상할 당금귤(唐金橘)과 감자(柑子)를 모두 예에 따라 봉진할 수 없으니, 두렵고 송구하여 죄를 기다리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정노영(鄭魯榮)에게 전교하기를, “죄를 기다리지 말게 할 일로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천신, 당금귤, 감자.

❖ 嘉慶 十七年 壬申 十一月 二十四日 癸巳

○ 鄭魯榮, 以禮曹言啓曰, 卽伏見濟州牧使金守基狀啓謄報, 則去十月朔所封柑橘, 一一摘取, 唐金橘爲二千五箇, 柑子爲一百七十箇, 宗廟·景慕宮薦新, 數旣不足, 無以排比, 謹援前例, 都封上送于禮曹, 以爲稟旨進獻事爲辭矣. 莫重薦果, 如是不足, 誠甚未安, 而在前如此之時, 有減數薦獻之例, 今亦依前例, 當日分排薦進, 何如? 傳曰, 允.

❖ 순조 12년(1812) 임신년 11월 24일(계사)

▢ 제주목(濟州牧) 천신(薦新) 당금귤(唐金橘)과 감자(柑子)에 관한 예조의 보고

○ 정노영(鄭魯榮)이 예조(禮曹)의 뜻으로 아뢰기를, "즉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가 올린 장계를 받아 보고하니, 지난 10월 초하루에 봉진한 감귤을 일일이 땄더니, 당금귤(唐金橘)이 2,005개이고, 감자(柑子)는 170개였습니다. 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 천신(薦新)할 수량이 이미 부족하여 비교 배치할 수 없으니, 삼가 이전 예를 참고하여 모두 봉하여 예조에 올렸으며, 품지(稟旨)하여 진헌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막중한 천과(薦果)가 이처럼 수량이 부족하여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런 경우 감축하여 진상한 예가 있으니, 이번에도 이전 예에 따라 그날 분배하여 진상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천신, 당금귤, 감자.

❖ 嘉慶 十七年 壬申 十一月 二十五日 甲午

○ 壬申十一月二十五日辰時, …… 載瓚曰, 卽見濟州牧使金守基災實狀啓, 則不爲分等, 後錄兩條, 依例先擧行之意爲辭矣. 三邑秋事, 俱得免歉, 爲島民萬幸, 而舊還仍停, 軍兵雜頉, 待充定分鍊[揀], 卽年例所請, 而啓聞前, 先爲擧行, 亦邑例然也, 竝依狀請許施,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 순조 12년(1812) 임신년 11월 25일(갑오)

▢ 제주목(濟州牧)의 재실장계(災實狀啓)에 관한 건

○ 임신년(壬申) 11월 25일 진시에, 〈상략〉 김재찬(金載瓚)이 말하기를, "즉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니, 분등하지 않고 두 조항을 후에 기록하였으며, 예에 따라 먼저 시행한다는 뜻으로 아뢰었나이다. 세 고을[三邑]의 농사[秋事]는 모두 흉년을 면할 듯하여, 섬 주민들에게 큰 다행입니다. 구환(舊還)은 그대로 정지하고, 군병의 잡탈(雜頉)은 충원하여 기다려서 나누어 훈련하게 하겠다는 것이 매년 청하는 바이며, 이전에 아뢰었던 대로 먼저 시행하는 것도 고을의 관례이니, 모두 장계의 청에 따라 시행을 허락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씀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거조(擧條)를 냄】"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재실 장계.

❖ 嘉慶 十七年 壬申 十二月 二十一日 庚申

○ 以濟州牧使金守基狀啓, 今十一月令薦新與進上柑橘, 不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徐能輔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12년(1812) 임신년 12월 21일(경신)

▢ 제주목(濟州牧) 천신(薦新)과 진상(進上) 감귤(柑橘)에 관한 보고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의 장계에, “이번 11월령의 천신(薦新)과 진상(進上)할 감귤(柑橘)을 예에 따라 봉진하지 못하였으니, 두렵고 송구하여 죄를 기다리는 일.”이라고 하니, 서능보(徐能輔)에게 전교하기를, “죄를 기다리지 말게 할 일로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천신, 진상, 감귤.

❖ 嘉慶 十七年 壬申 十二月 二十一日 庚申

○ 徐能輔, 以禮曹言啓曰, 卽伏見濟州牧使金守基狀啓謄報, 則今十二月令宗廟薦新洞庭橘, 如例封進, 當日薦進, 而同月令宗廟·景慕宮薦新乳柑, 箇箇摘取, 則爲二百十三箇, 無以排數, 不得已近援前例, 都封上送于禮曹, 以爲稟旨進獻事爲辭矣. 莫重薦果, 如是不足, 雖甚未安, 在前如此之時, 有減數薦獻之例, 今亦依例, 當日分排薦進, 何如? 傳曰, 允.

❖ 순조 12년(1812) 임신년 12월 21일(경신)

▢ 제주목(濟州牧) 12월령 천신(薦新) 동정귤(洞庭橘)과 유감(乳柑)에 관한 예조의 보고

○ 서능보(徐能輔)가 예조(禮曹)의 뜻으로 아뢰기를, "즉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가 올린 장계의 초본을 보니, 이번 12월령으로 종묘(宗廟)에 천신(薦新)할 동정귤(洞庭橘)은 예에 따라 봉진하였으며 당일 천진(薦進)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령으로 종묘와 경모궁(景慕宮)에 천신할 유감(乳柑)은 일일이 땄더니 213개인데, 나누어 보내는데 수량을 맞추지 못하여 부득이 이전 예를 참고하여 모두 봉진하여 예조에 올렸으니, 이는 임금의 뜻을 아뢰어 진상하는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막중한 천과(薦果)가 이처럼 부족하여 매우 미안한 일이지만, 과거에도 이와 같은 때에 수량을 줄여 진상한 예가 있으니, 이번에도 예에 따라 당일 분배하여 진상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12월령, 천신, 동정귤, 유감.

1813年

(순조 13)



❖ 嘉慶 十八年 癸酉 一月 二十一日 己丑

○ …… 又啓目, 粘連, 濟州放未放修啓冊子中, 本府所管定配罪人未放秩濟州李致薰乙良, 依啓聞施行爲白乎旀, 他餘罪人等, 令刑曹稟處, 何如? 判付啓, 依允. …….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월 21일(기축)

▢ 제주(濟州) 정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계

○ 〈상략〉 또 계목점련(啓目粘連)에서, "제주(濟州) 방미방(放未放) 수계(修啓) 책자 가운데, 본 부(本府)가 관할하는 정배죄인 중 미방질(未放秩)인 제주 죄인 이치훈(李致薰)은 계문(啓聞)에 따라 시행하사오며, 그 밖의 죄인들은 형조에 의뢰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판부하여 계하하였는데, 윤허한 대로 하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이치훈.

❖ 嘉慶 十八年 癸酉 三月 二日 己巳

○ 以濟州牧使金守基狀啓, 靑橘進上, 不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沈奎魯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13년(1813) 계유년 3월 2일(기사)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청귤(靑橘) 진상에 관한 보고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의 장계에, “청귤(靑橘)을 진상하였으나 전례대로 봉진하지 못하여 송구하게 죄를 기다리는 일”이라고 하니, 임금이 심규로(沈奎魯)에게 전교하기를, “죄를 기다리지 말 일로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수기, 청귤.

❖ 嘉慶 十八年 癸酉 三月 二日 己巳

○ 沈奎魯, 以禮曹言啓曰, 卽伏見濟州牧使金守基狀啓謄報, 則二月朔所封靑橘, 一一摘取, 只爲五百六十三箇, 薦新二百八十八箇依例封進, 所餘二百七十五箇, 較諸進上定例, 排數無路, 謹援已例, 都封上送, 以爲稟旨進獻事爲辭矣. 莫重進上節果, 如是減數封進, 誠爲未安, 而在前如此之時, 已有稟旨封進之例, 今亦依例, 令該院捧入, 何如? 傳曰, 允.

❖ 순조 13년(1813) 계유년 3월 2일(기사)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의 청귤(靑橘) 진상에 관한 예조의 보고

○ 심규로(沈奎魯)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곧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의 장계(狀啓) 등보(謄報)를 보건대, 2월 초하루에 봉진한 청귤(靑橘)을 일일이 적취(摘取)해 보니, 단지 563개라서, 천신(薦新)으로 288개를 전례에 따라 봉진(封進)하였고, 나머지 275개는 여러 진상하는 정례를 비교하니, 수량에 맞추어 배분할 길이 없어서 겨우 이미 있던 예를 근거로 모두 봉하여 올려보냈으며, 품지(稟旨)하여 진상하는 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막중한 절과(節果) 진상이 이와 같이 수량을 줄여 봉진한 것은 참으로 미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이와 같은 때가 있을 때, 품지에 따라 봉진한 예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례에 따라 해당 원(院)으로 하여금 받들어 들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수기, 청귤.

❖ 嘉慶 十八年 癸酉 三月 十一日 戊寅

○ …… 又啓目粘連, 濟州牧放未放修啓冊子中, 本府所管定配罪人未放秩李致薰乙良, 依啓聞施行爲白乎旀, 他餘罪人等, 令刑曹稟處, 何如? 判付啓, 依允.

❖ 순조 13년(1813) 계유년 3월 11일(무인)

▢ 제주목(濟州牧) 미방질(未放秩)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계

○ 〈상략〉 또한 금부(禁府)의 계목점련(啓目粘連)에, 제주목(濟州牧)의 방미방(放未放) 수계(修啓) 책자 중에, "본 부가 관할하는 정배죄인으로, 미방질(未放秩) 죄인인 이치훈(李致薰)은 계문에 따라 시행하사오며, 기타 죄인들은 형조로 하여금 명령을 받아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판부하여 계하하였는데 윤허한 대로 하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미방질, 이치훈.

❖ 嘉慶 十八年 癸酉 三月 十四日 辛巳

○ 掌令李德升, 獻納李久源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

❖ 순조 13년(1813) 계유년 3월 14일(신사)

▢ 추자도(楸子島) 유배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장령 이덕승(李德升) 등의 계

○ 장령 이덕승(李德升), 헌납 이구원(李久源)이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형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도로 붙잡아 오게 하여 국청을 열어 엄하게 심문하여 실정을 기어이 알아내고, 시원하게 전형(典刑)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중략〉 추자도에 안치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청을 설치하여 엄하게 심문하고, 왕법을 통쾌하게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八年 癸酉 三月 十四日 辛巳

○ 掌令李德升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答曰, 不允. 下諭事依啓.

❖ 순조 13년(1813) 계유년 3월 14일(신사)

▢ 제주목(濟州牧)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이덕승(李德升)의 계

○ 장령 이덕승(李德升)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하게 심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전형(典刑)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八年 癸酉 五月 二十二日 戊子

○ 掌令南達孫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答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순조 13년(1813) 계유년 5월 22일(무자)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남달손(南達孫)의 계

○ 장령 남달손(南達孫)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아울러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하게 심문하게 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전형(典刑)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달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八年 癸酉 五月 二十九日 乙未

○ 兵曹啓目粘連, 觀此全羅監司朴崙壽畢賑狀啓, 則荏子島僉使金鍾軾段, 庚午春, 以補賑蒙賞, 而今年自備各穀, 又爲一千三石, 涉海船粟, 專當補賑是如爲白乎旀. 寶城郡萬戶金慶采段, 以己巳願納, 已蒙恩賞之人, 自謂與他民有間, 懇乞圖報之萬一, 所納租爲一千石是如爲白有臥乎所, 今此金鍾軾段, 以耽羅絶島之人, 庚午春設賑時, 賃船涉海, 願納各穀一千一百石於康津縣, 已蒙加資後, 除拜道內荏子島僉使是白遣, 辛未春設賑時, 以自備各穀一千九十石, 調饋鎭民, 待其瓜遞, 相當職調用事, 覆啓判下是白遣, 今年設賑, 又爲自備各穀一千三石, 賙賑飢民是白置. 前後三次設賑, 輒辦千餘石穀, 濟活貧窮之民, 極爲嘉尙, 宜其褒奬, 而旣經僉使, 又蒙相當職調用承傳, 則施以右職調用之典, 似合激勸之政是白乎旀. 金慶采段, 雖曰時任金甲島萬戶, 以富民願納, 投於寶城郡是白乎則, 只當與他富民, 一例稟處, 而旣已啓下臣曹乙仍于, 一體稟處是白如乎, 上項金慶采, 庚午設賑時, 願納租一千石補賑, 除拜金甲島萬戶, 今又納租一千石, 似當施以陞敍調用之典是白乎矣, 俱係恩賞, 不敢擅便, 上裁, 何如? 判付啓, 依回啓施行爲良如敎.

❖ 순조 13년(1813) 계유년 5월 29일(을미)

▢ 탐라(耽羅) 사람 김종식(金鍾軾)의 보진(補賑)에 관한 보고

○ 병조의 계목점련에, 전라감사 박륜수(朴崙壽)의 진휼을 마쳤다는 장계를 보면, “임자도(荏子島) 첨사 김종식(金鍾軾)은 경오년(1810) 봄에 보진(補賑)으로 몽상(蒙賞)하게 하고, 올해는 자비로 곡식을 마련하여 또한 1,003섬을 바다를 건너 배로 좁쌀을 보내어, 오로지 보진하게 하사오며, 보성군(寶城郡) 만호 김경채(金慶采)는 기사년(1809)에 원납(願納)으로 은상(恩賞)을 입은 사람으로, 자신을 다른 백성과 구별하여 만분의 일로 보답하기를 간절히 청하였으며, 납부한 조세가 1,000석이라 하였사온 바입니다. 이번에 이 김종식은 탐라(耽羅) 절도(絶島)의 사람으로, 경오년(1810) 봄에 설진(設賑)할 때 배를 빌려 바다를 건너 1,100섬을 강진현(康津縣)에 원납하였고, 가자(加資)를 입은 뒤에 도내(道內) 임자도 첨사(僉使)로 제배(除拜)되었으며, 신미년(1811) 봄 구휼을 베풀 때 자비로 1,090섬을 마련하여 진민(賑民)에게 나누어 주고, 그 수확을 기다리고 마땅히 직무에 맞게 조치하도록 명을 받아 처리하였나이다. 올해 다시 자비로 1,003섬을 준비하여 기근에 허덕이는 백성을 구휼하였나이다. 전후 세 차례 구휼을 베풀어 매번

1,000섬이 넘는 곡식을 마련하여 가난한 백성을 구휼하였으니 매우 칭찬할 만하여 상을 내려 마땅하나, 이미 첨사로 임명되었고 또 직무에 따라 조치함을 위임받았으니 오른편 직무 조치 규정에 따라 상을 내려 격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김경채는 당시 금갑도(金甲島) 만호로 있으면서 부민(富民)으로 보성군에 기탁하였으니, 마땅히 다른 부유한 자와 함께 동일한 규정으로 처리하되 이미 신하들에게 알리고 처리하도록 명하였으니, 모두 일체로 처리하도록 하였나이다. 앞의 김경채는 경오년(1810) 구휼 때 조세 1,000섬을 내어 구휼에 보탰고, 금갑도 만호로 제배되었으며, 지금 다시 1,000섬을 납부하였으니 마땅히 승진 및 직무 조치 규정에 따라 상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은상과 관계된 것으로, 감히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였으니 임금의 결재를 기다리는 것이어서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하여 계하하고 회계(回啓)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 주제어: 탐라, 김종식.

❖ 嘉慶 十八年 癸酉 七月 五日 己巳

○ 掌令李奎鎭, 正言李游誠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

❖ 순조 13년(1813) 계유년 7월 5일(기사)

▢ 추자도(楸子島) 죄인 홍재민(洪在敏)의 처벌에 관한 장령 이규진(李奎鎭) 등의 계

○ 장령 이규진(李奎鎭), 정언 이유성(李游誠)이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사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도로 붙잡아 오게 하여,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시원하게 전형(典刑)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 嘉慶 十八年 癸酉 七月 五日 己巳

○ 掌令李奎鎭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答府曰, 不允. 下諭事依啓.

❖ 순조 13년(1813) 계유년 7월 5일(기사)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이규진(李奎鎭)의 계

○ 장령 이규진(李奎鎭)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문을 베풀어 엄히 신문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시원하게 전형(典刑)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八年 癸酉 七月 九日 癸酉

○ 以濟州防禦使金守基狀啓, 進上馬所載船一隻致敗, 惶恐待罪事, 傳于徐能輔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13년(1813) 계유년 7월 9일(계유)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김수기(金守基)의 진상마(進上馬)에 관한 보고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김수기(金守基)의 장계(狀啓)에, "진상마(進上馬)를 실은 배 1척이 파손되어, 두렵고 황공하여 죄를 기다리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서능보(徐能輔)에게 전교하기를, "죄를 기다리지 말게 할 일로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방어사, 김수기, 진상마.

❖ 嘉慶 十八年 癸酉 七月 十日 甲戌

○ 徐能輔,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使金守基狀啓內, 濟州判官李國標, 爲先罷黜, 其罪狀, 令攸司, 稟處事, 啓下矣. 李國標, 時在任所, 依例發遣府羅將, 交代後拿來, 何如? 傳曰, 待待命拿囚.

❖ 순조 13년(1813) 계유년 7월 10일(갑술)

▢ 제주판관(濟州判官) 이국표(李國標)의 파면에 관한 의금부의 보고

○ 서능보(徐能輔)가 의금부(義禁府)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의 장계(狀啓) 중에, 제주판관(濟州判官) 이국표(李國標)는 이미 파면된 자이므로, 그 죄상은 관계 관청으로 하여금 명령을 받아 일을 처리하게 하라는 명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이국표가 그때 재직 중이었으니, 전례에 따라 부의 나장(羅將)을 보내어 인계를 마친 뒤 도로 붙잡아 오게 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명령을 기다려 죄인을 붙잡아 오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수기, 제주 판관, 이국표.

❖ 嘉慶 十八年 癸酉 七月 十一日 乙亥

○ 有政. 吏批, 行判書南公轍式暇, 參判趙萬元牌不進, 參議金會淵進, 同副承旨尹羽烈進. 啓曰, 行判書南公轍式暇, 參判趙萬元牌招不進, 小臣獨政未安, 何以爲之? 敢稟. 傳曰, 只出緊任. 以洪羲謙爲監察, 以張持大爲濟州判官, 弘文正字單李鶴秀.

❖ 순조 13년(1813) 계유년 7월 11일(을해)

▢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장지대(張持大)를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조(吏曹)의 비답(批答)은 다음과 같았다. “행판서 남공철(南公轍)은 식가(式暇)를 냈고, 참판 조만원(趙萬元)은 부름을 받고도 나아오지 않았으며, 참의 김회연(金會淵)은 나아왔고, 동부승지 윤우열(尹羽烈)도 나아왔다.” 아뢰기를, “행판서 남공철은 식가를 냈고, 참판 조만원은 부름을 받고도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신(小臣)들이 홀로 정사를 돌보는 것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긴요한 직책만 나가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홍희겸(洪羲謙)을 감찰로, 장지대(張持大)를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고, 홍문관 정자[弘文正字]는 이학수(李鶴秀) 한 사람만을 천거하였다.

△ 주제어: 장지대, 제주판관.

❖ 嘉慶 十八年 癸酉 七月 十一日 乙亥

○ 大司諫任厚常, 掌令南達孫·李奎鎭, 持平朴孝臣, 獻納李運恒, 正言尹庠圭·李游誠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夫正典刑.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快正王法. …… 噫嘻痛矣, 晦植之罪, 可勝誅哉? 渠以世祿之裔, 厚被擢拔之恩, 前後兜攬, 涯分已極, 而罔念圖報之義, 反肆妖惑之計, 海賊之說, 東源之所做出, 而爛熳酬酢, 神師之稱, 兌鎭之所誑誘, 而密勿親信. 稱東源爲先生, 而惑信於石島之來往, 任兌鎭以親裨, 而紹介於雲門之約會. 三月擧事之謀, 渠旣知之, 濟州襲破之說, 渠亦聞之, 則如有一分驚憤之心, 固當登時發覺, 一邊馳啓, 一邊訶捕, 以爲剿絶殄滅之地, 而渠乃不此之爲, 敢以專閫之威, 恐動營邑, 戒嚴兵器, 有若眞箇賊變之迫在朝夕者然. …… 答兩司曰, 不允. …….

❖ 순조 13년(1813) 계유년 7월 11일(을해)

▢ 추자도(楸子島)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대사간 임후상(任厚常) 등의 계

○ 대사간 임후상(任厚常), 장령 남달손(南達孫)·이규진(李奎鎭), 지평 박효신(朴孝臣), 헌납 이운항(李運恒), 정언 윤상규(尹庠圭)·이유성(李游誠)은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사형을 감면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도로 붙잡아 오게 하여 국청을 열고 엄하게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속히 법을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를 국청을 열어 심문을 엄하게 하여 시원하게 왕법을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중략〉 아, 슬프고 아프구나. 이회식(李晦植)의 죄는 과연 엄벌에 처할 만한 것인가요? 그는 대대로 관직의 녹을 받은 자손으로, 두터운 발탁의 은혜를 입었으며 앞뒤로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답할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악한 꾀를 펴며 해적에 관한 소문은 백동원(白東源)이 꾸민 일인데도, 온갖 수작을 주고받고 신사(神師)라는 칭호는 백태진(白兌鎭)이 속인 것인데도 이를 충실히 믿어서 백동원을 선생(先生)이라고 부르면서 석도(石島)를 왕래했다는 말을 믿고 백태진을 친비(親裨)로 삼아 운문(雲門)의 약회(約會)에 소개하였습니다. 3월 거사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제주(濟州) 습격 파괴설도 들었음에도, 조금이라도 놀라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반드시 즉시 발견하여 한쪽으로는 급

히 알리고, 한쪽으로는 염탐하여 체포해서 토벌해 말살해야 할 것인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히 전권을 휘두르며 진영과 읍성을 움직이고 군기를 경계하는 태도가 마치 진짜 도적의 난이 임박한 것처럼 하였습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양사(兩司)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자도, 제주, 서형수.

❖ 嘉慶 十八年 癸酉 七月 十一日 乙亥

○ 掌令南達孫·李奎鎭, 持平朴孝臣啓曰, 請正法罪人鎭, 亟施孥戮之典.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夬正典刑. 請周爀, 亟令王府, 嚴鞫得情, 夬正典刑. 請亟下三啓依允之傳旨, 令該府擧行焉. 請古今島定配罪人李東萬, 亟令王府, 設鞫嚴問. 請物故罪人國仁支屬應坐之類, 亟施島配之典. 請朴紀淳, 亟令王府, 拿來嚴問, 以重鞫體. 請洪原縣屛裔罪人尹致謙, 拿鞫嚴問, 明正其罪【措辭竝見上】答府曰, 不允.

❖ 순조 13년(1813) 계유년 7월 11일(을해)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남달손(南達孫) 등의 계

○ 장령 남달손(南達孫)·이규진(李奎鎭), 지평 박효신(朴孝臣)이 아뢰기를, "죄인 심인(沈鎭)이 법을 바르게 하여 시원하게 자녀[孥]를 처단하는 법식을 시행하기를 청하였다. 흑산도(黑山島)에 도배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아울러 왕부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전형(典刑)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이주혁(李周爀)에 대하여도 왕부로 하여금 시원하게 엄하게 심문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시원하게 전형을 바로 잡기를 청합니다. 세 차례의 계문을 시원하게 내려 허락한 교지를 따라 해당 부(府)에서 집행하기를 청합니다. 고금도(古今島)에 정배된 죄인 이동만(李東萬)에 대하여도 왕부로 하여금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심문하기를 청합니다. 물고(物故) 죄인 송국인(宋國仁)의 지속(支屬)과 응좌(應坐)한 무리들은 시원하게 도배(島配) 형벌을 시행할 것을 청합니다. 박기순(朴紀淳)에 대하여도 왕부로 하여금 시원하게 붙잡아 엄하게 심문하여 체벌을 가하기를 청합니다. 홍원현(洪原縣)의 변방 죄인 윤치겸(尹致謙)에 대하여도 붙잡아 심문하여 죄를 명백히 하기를 청합니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이에 부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八年 癸酉 七月 十三日 丁丑

○ 以濟州牧使金守基狀啓, 進上靑皮, 未滿定例, 惶恐待罪事, 傳于李廷奎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13년(1813) 계유년 7월 13일(정축)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의 청피(靑皮) 진상에 관한 장계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의 장계에, “청피(靑皮)를 진상하였는데 정해진 규례에 미치지 못하였다며 두려워하며 처벌을 기다리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에 이정규(李廷奎)에게 전교하기를, “처벌을 기다릴 일이 아니라고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수기, 청피.

❖ 嘉慶 十八年 癸酉 七月 二十一日 乙酉

○ 掌令南達孫, 校理趙琮鎭, 正言尹庠圭, 修撰李允謙啓曰, …… 請楸子島減死安置罪人在敏, 亟令王府, 還爲拿來, 嚴鞫得情, 夬正典刑. 請楸子島安置罪人徐瀅修, 設鞫嚴問, 夬正王法. …….答曰, 不允. 李戒國等事, 亟停勿煩.【以上竝措辭見上】

❖ 순조 13년(1813) 계유년 7월 21일(을유)

▢ 추자도(楸子島)에 안치된 죄인 홍재민(洪在敏)과 서형수(徐瀅修)의 처벌에 관한 장령 남달손(南達孫) 등의 계

○ 장령 남달손(南達孫), 교리 조종진(趙琮鎭), 정언 윤상규(尹庠圭), 수찬 이윤겸(李允謙)이 아뢰기를, "〈상략〉 추자도(楸子島)에 감형하여 안치한 죄인 홍재민(洪在敏)을 속히 왕부로 하여금 다시 압송하게 하고,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십시오. 추자도에 안치된 죄인 서형수(徐瀅修)에 대해서도 국문을 설치하여 엄히 신문하고, 속히 국법을 바로 잡으십시오. 〈하략〉." 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이계국(李戒國) 등의 일은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이상의 모든 조사(措辭)는 모두 위에서 볼 수 있음】

△ 주제어: 추자도, 홍재민, 서형수.

❖ 嘉慶 十八年 癸酉 七月 二十五日 己丑

○ 尹羽烈,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三名日進上馬六十匹, 差備進上馬八十匹, 歲貢馬二百匹, 凶咎駑駘馬二十匹, 合三百六十匹內, 二十匹淪斃, 十二匹船中故失, 十七匹中路故失, 九匹到本寺病留, 十二匹中路病留, 一百匹訓鍊都監, 二十五匹禁衛營, 二十五匹御營廳, 軍馬分給除, 實納馬一百四十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3년(1813) 계유년 7월 25일(기축)

▢ 제주(濟州) 선운(先運) 진상마(進上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윤우열(尹羽烈)이 사복시(司僕寺)의 일·이 제조의 뜻에 따라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출발해 온 선운(先運)의 삼명일진상마(三名日進上馬) 60필, 차비진상마(差備進上馬) 80필, 세공마(歲貢馬) 200필, 흉구노태마(凶咎駑駘馬) 20필을 합한 360필 가운데, 20필은 물에 빠져 죽고, 12필은 배 안에서 사고로 잃었으며, 17필은 도중에 사고로 잃고, 9필은 본 시(사복시)에 도착하였으나 병들어 남았고, 12필은 도중에 병들어 남았으며, 100필은 훈련도감에, 25필은 금위영에, 25필은 어영청에 군마로 분급되어, 실제로 납입된 말은 140필이니, 말의 나이와 털빛 등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선운, 진상마.

❖ 嘉慶 十八年 癸酉 七月 二十六日 庚寅

○ 徐能輔,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運年例進上馬八匹, 別御乘馬二十匹, 山屯馬二百匹, 合二百二十八匹內, 十二匹淹斃, 五匹船中故失, 十五匹中路故失, 六匹中路病留, 四匹到本寺病留除, 實納馬一百八十六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3년(1813) 계유년 7월 26일(경인)

▢ 제주(濟州) 후운(後運) 진상마(進上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서능보(徐能輔)가 사복시(司僕寺)의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출발해 온 후운(後運)의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8필, 별어승마(別御乘馬) 20필, 산둔마(山屯馬) 200필을 합한 228필 가운데, 12필은 물에 빠져 죽고, 5필은 배 안에서 사고로 잃고, 15필은 도중에 사고로 잃고, 6필은 도중에 병들어 남고, 4필은 본 시(사복시)에 도착하여 병들어 남은 것을 제외한 실납마는 186필이니, 말의 나이와 털빛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후운, 진상마.

❖ 嘉慶 十八年 癸酉 七月 二十八日 壬辰

○ 都政. 吏批, …… 白思健爲大靜縣監 …….

❖ 순조 13년(1813) 계유년 7월 28일(임진)

▢ 대정현감(大靜縣監)에 백사건(白思健)을 제수함

○ 도정(都政)[200]이 있었다. 이조(吏曹)의 비답(批答)에 이르기를, "〈상략〉 백사건(白思健)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후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백사건, 대정현감.

200) 도정(都政): 고려·조선시대에, 이조·병조에서 벼슬아치의 치적을 심사하여 면직하거나 승진시키던 일. 매년 6월과 12월에 관원의 성적을 고과(考課)하여 임면·전근(轉勤)·승진(陞進) 등을 행하는 제도로, 도목 정사(都目政事)라 하던 것을 줄여서 도목정(都目政), 또는 도정(都政), 도목(都目)이라 했음. 이에 비해 수시로 고과하는 제도는 산정(散政)이라고 하였음.

❖ 嘉慶 十八年 癸酉 七月 二十九日 癸巳

○ 癸酉七月二十九日卯時, 上御熙政堂. 守令·邊將初仕人入侍時, 行左副承旨徐能輔, 同副承旨尹羽烈, 假注書宋成龍, 記注官朴思彦·孫錫祚, 以次進伏訖. 慶州府尹洪履簡 …… 大靜縣監白師健, …… 部將陳環等, 以次入來. 上命守令·邊將·初仕人進前, 各奏職姓名, 又命履歷, 邊將外其餘, 階下奏職姓名. 履簡等進奏職姓名訖. 上命守令·邊將初仕人先退. 履簡等退出. 仍命退, 承史以次退出.

❖ 순조 13년(1813) 계유년 7월 29일(계사)

▢ 희정당에 대정현감(大靜縣監) 백사건(白師健) 등 수령·변장·초사인이 입시하여 관직과 성명을 아룀

○ 계유년 7월 29일 묘시(卯時)에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갔다. 수령·변장·초사인(初仕人)이 입시한 자리이다. 행 좌부승지 서능보(徐能輔), 동부승지 윤우열(尹羽烈), 가주서 송성룡(宋成龍), 기주관 박사언(朴思彦)·손석조(孫錫祚)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경주부윤(慶州府尹) 홍이간(洪履簡), 〈중략〉 대정현감(大靜縣監) 백사건(白師健), 〈중략〉 부장(部將) 진환(陳環) 등이 차례로 들어왔다. 상이 수령·변장·초사인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여 각각 관직과 성명을 아뢰게 하고, 또 이력을 아뢰라고 명하였는데, 변장 이외의 나머지는 계단 아래에서 관직과 성명을 아뢰게 하였다. 홍이간 등이 나아가 관직과 성명을 아뢰고 나자, 상이 수령·변장·초사인에게 먼저 물러가라고 명하니 홍이간 등이 물러 나갔다. 이어 물러가라고 명하니, 승지와 사관이 차례로 물러 나왔다.

△ 주제어: 대정현감, 백사건.

❖ 嘉慶 十八年 癸酉 七月 三十日 甲午

○ 尹羽烈啓曰, …… 大靜縣監白師健, 諫院則旣已署經, 憲府則尙未署經云. 除在外·未署經外, 未肅拜人員, 竝卽牌招, 何如? 傳曰, 憲府則除署經.

❖ 순조 13년(1813) 계유년 7월 30일(갑오)

▢ 대정현감(大靜縣監) 백사건(白師健) 등 미숙배 인원을 패초하기를 청하는 윤우열(尹羽烈)의 계

○ 윤우열(尹羽烈)이 아뢰기를, "〈상략〉 대정현감(大靜縣監) 백사건(白師健)은 간원(諫院)에서 이미 서경(署經)을 하였으나, 헌부(憲府)에서는 아직 서경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과 서경하지 않은 사람, 아직 숙배하지 않은 인원은 모두 즉시 패초(牌招)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헌부에서는 서경을 제외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백사건.

❖ 嘉慶 十八年 癸酉 九月 四日 丁卯

○ 以濟州牧使金守基狀啓, 進上烏賊魚代封, 惶恐待罪事, 傳于尹羽烈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13년(1813) 계유년 9월 4일(정묘)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의 오징어[烏賊魚] 대봉(代封)에 관한 건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의 장계에, "오징어[烏賊魚]를 대봉(代封)하여 진상하였는데, 두려워하며 처벌을 기다리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에 윤우열(尹羽烈)에게 전교하기를, "처벌을 기다리지 말게 할 일로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수기, 오징어.

❖ 嘉慶 十八年 癸酉 九月 十二日 乙亥

○ 南惠寬,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改封進馬三十二匹內, 一匹船中故失, 一匹中路病留, 三匹到本寺病留, 除實納馬二十七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3년(1813) 계유년 9월 12일(을해)

▢ 제주(濟州)에서 출발해 온 봉진마(封進馬)에 관한 사복시의 계

○ 남혜관(南惠寬)이 사복시(司僕寺)의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출발해 온, 고쳐서 봉진한 말[封進馬] 32필 가운데, 1필은 배 안에서 사고로 잃고, 1필은 도중에 병들어 남고, 3필은 본 시에 도착하여 병들어 남은 것을 제외한 실납마는 27필이니, 말의 나이와 털빛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봉진마.

❖ 嘉慶 十八年 癸酉 九月 十五日 戊寅

○ 以濟州防禦使金守基狀啓, 七月令進上烏賊魚以搥鰒代封, 惶恐待罪事, 傳于南惠寬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13년(1813) 계유년 9월 15일(무인)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김수기(金守基)의 오징어[烏賊魚] 대봉(代封)에 관한 장계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김수기(金守基)의 장계에, “7월령으로 진상할 오징어[烏賊魚]를 추복(搥鰒)으로 대봉하였는데, 두려워하며 처벌을 기다리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에 남혜관(南惠寬)에게 전교하기를, “처벌을 기다리지 말게 할 일로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방어사, 김수기, 오징어.

❖ 嘉慶 十八年 癸酉 九月 十六日 己卯

○ 掌令牟達兼·權傛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 순조 13년(1813) 계유년 9월 16일(기묘)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모달겸(牟達兼) 등의 계

○ 장령 모달겸(牟達兼)·권용(權傛)이 아뢰기를, "〈상략〉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에 대하여, 모두 왕부로 하여금 국문을 설치하여 엄히 신문하고,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八年 癸酉 九月 十七日 庚辰

○ 金薯根,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使金守基狀啓內, 山馬前監牧官金德洽罪狀, 令攸司稟處事, 啓下矣. 金德洽時在濟州地云, 依例發遣府羅將拿來, 何如? 傳曰, 待待命拿囚.

❖ 순조 13년(1813) 계유년 9월 17일(경진)

▢ 전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김덕흡(金德洽)의 압송에 관한 의금부의 보고

○ 김시근(金薯根)이 의금부(義禁府)의 말에 따라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의 장계 내용에, 산마(山馬) 전 감목관 김덕흡(金德洽)의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아뢰고 처리하게 하라는 전지가 내려졌습니다. 김덕흡은 지금 제주(濟州) 지역에 있다고 하니, 예에 따라 부의 나장을 보내 압송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명령을 기다려 죄인을 압송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산마 전 감목관, 김덕흡, 제주목사, 김수기.

❖ 嘉慶 十八年 癸酉 十月 二十六日 己未

○ 金啓溫, 以禮曹言啓曰, 卽接濟州牧使金守基所報, 則冬至方物進上結弓獐皮, 具錄謄狀, 監封上送云, 而謄狀則以九月令藥材安息香謄狀, 誤爲上送矣. 莫重進上謄狀之如是差錯, 極涉不審, 該牧使從重推考, 方物進上, 待謄狀來到, 依例捧入, 何如? 傳曰, 允.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0월 26일(기미)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의 진상에 관한 예조 보고

○ 김계온(金啓溫)이 예조(禮曹)의 말에 따라 아뢰기를, “곧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가 보고한 바를 접수하였는데, 동지(冬至)의 방물로 결궁(結弓)과 장피(獐皮)를 진상하고, 선장(謄狀)을 갖추어 기록하고, 감봉(監封)하여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장은 9월령의 약재와 안식향(安息香)의 선장으로, 잘못 올린 것이었습니다. 막중한 진상품의 선장은 이와 같이 착오가 있으니, 매우 부주의함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목사를 엄중히 추고하게 하고, 방물 진상은 선장이 도착하기를 기다려서 예에 따라 받들어 들이게 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수기.

❖ 嘉慶 十八年 癸酉 十一月 十八日 辛巳

○ 掌令權傛, 持平任文白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金海府定配罪人學逵, 固城縣定配罪人與權, 長興府定配罪人寬基,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府曰, 不允. 下諭事, 依啓.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1월 18일(신사)

▢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처벌에 관한 장령 권용(權傛) 등의 계

○ 장령 권용(權傛)과 지평 임문백(任文白)이 아뢰기를, "흑산도(黑山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정약전(丁若銓),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된 죄인 정약용(丁若鏞), 제주목(濟州牧)에 도배된 죄인 이치훈(李致薰), 김해부(金海府)에 정배된 죄인 이학규(李學逵), 고성현(固城縣)에 정배된 죄인 신여권(申與權), 장흥부(長興府)에 정배된 죄인 이관기(李寬基)를 모두 왕부(王府)로 하여금 국청(鞫廳)을 열어 엄히 문초하여,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고,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 잡으십시오."라고 하였다. 부(府)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이치훈.

❖ 嘉慶 十八年 癸酉 十一月 二十六日 己丑

○ 以濟州防禦使金守基狀啓, 莫重物膳進上, 連次代封, 惶恐待罪事, 傳于李儒慶曰, 勿待罪事, 回喩[回諭].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1월 26일(기축)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김수기(金守基)의 물선(物膳) 진상에 관한 보고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김수기(金守基)의 장계에, 막중한 물선(物膳) 진상을 연속해서 대봉하였는데, 두려워하며 처벌을 기다리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에 이유경(李儒慶)에게 전교하기를, "처벌을 기다리지 말게 할 일로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방어사, 김수기, 물선.

❖ 嘉慶 十八年 癸酉 十二月 一日 甲午

○ 李儒慶, 以漢城府言啓曰, 今癸酉年獻民數時, 京中八道戶口摠數, 抄錄入啓, 而濟州三邑民數, 姑未上來矣, 海島之往來遲速, 有難預料, 不得一時磨勘, 此則待其上來, 追後添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2월 1일(갑오)

▢ 제주(濟州) 세 고을의 민수(民數)에 관한 한성부의 보고

○ 이유경(李儒慶)이 한성부(漢城府)의 말로 아뢰기를, "지금 계유년(癸酉年: 1813)에 헌민(獻民)이 수시로 경중(京中)의 팔도(八道) 호구총수(戶口摠數)를 초록하여 아뢰었으나, 제주(濟州) 세 고을 민수(民數)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해도(海島)의 왕래가 지체되고 예측하기 어려워 일시에 파악할 수 없으니, 이를 기다렸다가 추후에 첨록(添錄)하려는 뜻으로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세 고을, 민수.

❖ 嘉慶 十八年 癸酉 十二月 二日 乙未

○ 李好敏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前判官李國標遞任進上馬三匹及大靜前縣監邊景鵬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而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2월 2일(을미)

▢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이국표(李國標)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에 관한 사복시의 보고

○ 이호민(李好敏)이 사복시(司僕寺)의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이국표(李國標)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과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변경붕(邊景鵬)의 체임진상마 2필이 이제야 올라왔으니, 말의 나이와 털빛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고, 예에 따라 내구(內廐)에 두어 기르게 하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전 판관, 이국표, 체임진상마, 대정 전 현감, 변경붕.

❖ 嘉慶 十八年 癸酉 十二月 三日 丙申

○ 以濟州防禦使金守基狀啓, 罪人梁濟海等推覈事, 傳于沈奎魯曰, 廟堂草記稟處.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2월 3일(병신)

▢ 죄인 양제해(梁濟海) 추핵(推覈)에 관한 보고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김수기(金守基)의 장계에, 죄인 양제해(梁濟海) 등을 추핵(推覈)한 일을 아뢰었습니다. 심규로(沈奎魯)에게 전교하기를, "묘당(廟堂)의 초기(草記)를 품처(稟處)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양제해, 추핵, 제주방어사, 김수기.

❖ 嘉慶 十八年 癸酉 十二月 四日 丁酉

○ 沈奎魯, 以備邊司言啓曰, 濟州牧使金守基狀啓, 罪人梁濟海等推覈事, 傳曰, 廟堂草記稟處事, 命下矣. 賊魁卽已斯得, 凶徒今當就捕, 其綢繆排布之窮凶情節, 已盡輸款, 則遣使按覈, 恐非時急之事, 故昨於史官之回, 以姑待地方官分首從馳啓之意, 有所附奏, 而第伏念本島目下光景, 囚繫滿獄, 逮捕四發, 島中民志, 必當各懷危懼, 靡所底定, 其所鎭安慰撫之方, 有不可虛徐, 以正三品以上剛明綜詳之人, 按覈兼慰諭使差下, 使之不日治發, 按獄則與牧使眼同盤覈, 便宜從事, 而誅止巨魁, 脅從罔治, 鎭一島疑畏之心, 示朝家曠蕩之恩, 仍爲遍審三邑, 詢其疾苦, 勉以忠義, 使海外編氓, 咸知無內無外之盛德至意, 凡守宰及鎭將之不法虐民者, 一一糾發, 大行黜陟, 而且念本島, 久曠試才, 儒武之齎鬱, 今已多年, 特設文武科試, 一依道科之制, 登聞賜第, 又爲遍訪鄕里之茂才, 特行摭實修啓, 俾開窮陬發軔之路, 以此諸條, 御史辭陛時, 自政院, 成事目齎送, 何如? 傳曰, 允.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2월 4일(정유)

▢ 죄인 양제해(梁濟海)의 추핵(推覈)에 관한 비변사 보고

○ 심규로(沈奎魯)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의 장계는 죄인 양제해(梁濟海) 등을 추핵(推覈)할 일에 관한 것인데, 전교하기를, '묘당(廟堂)의 초기(草記)를 보고 처리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적 우두머리는 이미 붙잡혔고, 잔당들도 곧 체포할 예정입니다. 그들의 치밀하고 악독한 죄상은 이미 모두 진술되었으니, 사신을 보내 조사하게 하는 것은 급하지 않은 일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어제 사관을 다시 돌려보내고, 잠시 지방관의 의견을 기다려 사건을 우선 처리하라는 뜻을 덧붙여 아뢰었으나, 현재 본도(제주(濟州))의 상황을 살피건대, 죄수들이 감옥에 가득 차 있고, 체포된 자가 4명이며, 섬 안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며 안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섬의 진정과 위무를 허투루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정3품 이상의, 강명하고 종합적인 인물을 보내 조사와 위무를 겸하게 하여 조속히 사건을 처리하게 하려 합니다. 조사와 감옥 관리는 제주목사와 함께 협력하여 편리하게 진행하되, 우두머리만 처단하고 그 추종자들은 다스리지 않음으로써 섬 전체에 두려움과 의심이 퍼지지 않도록 하여 조정의 관대함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또한 세 고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고통을 물어 충성과 의리를 격려하여, 해외 변방 백성들이 내외 구별 없이 큰 덕과 진심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수령과 진장이 부당하게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모두 엄히 징계하고, 본도는 오랫동안 인재를 시험하지 못했으므로, 유무(儒武) 인재 양성을 위해 특별히 문무과 시험을 설치하여 도(道)의 규정에 따라 등용하고, 또한 고을의 훌륭한 인재를 두루 찾아 기록하여 지체된 발전의 길을 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조항을 어사들이 임금에게 아뢰게 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양제해, 추핵.

❖ 嘉慶 十八年 癸酉 十二月 四日 丁酉

○ 傳于沈奎魯曰, 昨夕見濟牧本島謀變罪人掩捕鉤覈狀啓, 言念光景, 豈勝寒心? 本島處在重溟之外, 王化未易霑被, 長吏之治否, 難以實聞, 故朝家之常所憧憧, 倍於內地荒遠之處矣, 今此亂民之謀變, 雖曰梟獍之腸肚, 異於平民, 抑可見人心之不淑, 失其秉彝, 苟使前後之爲長吏者, 皆得其人, 明其敎化, 勤其勞來, 人知親上事長之義, 官無剝割侵漁之政, 則雖龍蛇之性, 將化爲赤子, 豈至有此等變怪哉? 一則朝廷之失, 二則朝廷之失, 何獨誅於愚蚩頑蠢之亂民哉? 蕞爾一島之地, 旣有此無前之變亂, 誅討肆行, 則人情之驚駭疑懼, 民生之失業波盪, 不問可知, 到今固當一邊鋤治, 一邊懷保脅從, 咸與惟新, 平民察其疾苦, 使霜雪雨露, 竝行而不相悖, 然後可使耽羅一方, 轉危爲安, 目下合行事宜, 令廟堂旣爲講究, 條列以啓後, 竝將此傳敎, 同爲下諭于本牧處.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2월 4일(정유)

▢ 제주목(濟州牧) 모변죄인(謀變罪人)의 처벌에 관한 심규로(沈奎魯)에게 전교함

○ 심규로(沈奎魯)에게 전교하기를, “어젯저녁 제주목사(濟州牧使)[濟牧]가 이 섬[本島] 모변죄인(謀變罪人)의 은폐 및 조사 상황에 대한 장계를 보았는데, 현재 상황을 생각하니 어찌 차가운 마음을 견딜 수 있겠는가? 이 섬은 먼바다 너머에 있어 왕의 교화가 쉽게 미치지 못하며, 장관의 치부(治否)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조정이 늘 염려하는 바가 내지의 외딴 지역보다 훨씬 크다. 이번 난민의 모반은 말하자면 짐승 같은 흉악한 마음으로 평범한 백성과는 다르지만, 오히려 사람 마음이 악해져서 올바른 도리를 잃은 것이다. 만약 전후로 장관 자리에 오른 자들이 모두 적임자라면 그 가르침을 밝히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백성이 임금을 친애하고 장관을 섬기는 도리를 알며, 관청에 수탈과 침해가 없었다면, 설령 용과 뱀 같은 본성이라도 순진한 아기로 변할 텐데, 어찌 이런 변괴가 일어나는가? 이는 하나도 조정의 실책이고, 둘째도 조정의 실책으로, 어찌 어리석고 둔한 난민들만 처벌할 수 있겠는가? 작은 섬에 이미 이와 같은 전례 없는 변란이 있었으니, 처벌을 엄행하면 사람들의 놀람과 의심, 두려움이 커지고 백성들의 생계가 흔들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금은 한편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한편으로 보호하며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 모두 새로워져서 평민들이 그 고통을 살피고, 서리와 눈, 비와 이슬이 함께 내려 충돌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비로소 탐라(耽羅) 일대가 위태로움에서 평안함으로 전환될 수 있다. 현재 행할 일들을 묘당에서 이미 심사하여 조목으로 정해 아뢰고, 이것을 본 목사에게 전하여 하달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모변죄인.

❖ 嘉慶 十八年 癸酉 十二月 五日 戊戌

○ 癸酉十二月初五日辰時, …… 載瓚曰, 濟州慰諭使, 今將啓下, 而堂上正三品中, 無可合之人, 應敎李在秀, 特加一資, 察理兼慰諭使差下, 使之不多日內辭朝,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載瓚曰, 合行條件, 昨以草記仰陳, 今則別無他緊急稟定者, 而察理使辭朝時, 自廟堂亦有多少面及之事矣. 上命退, 諸臣以次退出.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2월 5일(무술)

▢ 응교 이재수(李在秀)를 제주위유사(濟州慰諭使)에 제수함

○ 계유(癸酉: 1813) 12월 초5일 진시(辰時)에, 〈중략〉 김재찬(金載瓚)이 말하기를, "제주위유사(濟州慰諭使)를 이제 임명하여 내리려 하는데, 당상 정3품 중에는 적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응교 이재수(李在秀)에게 특별히 한 품계를 더 가산하여, 찰리(察理) 겸 위유사(慰諭使)로 보내어 조만간 조정에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김재찬이 말하기를, "합행(合行) 조건은 어제 초기(草記)에 아뢰었고, 지금은 별도의 긴급한 보고 사항이 없습니다. 찰리사(察理使)가 사조(辭朝)할 때, 묘당(廟堂)에서도 다소 면급(面及)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물러나라고 명하자, 여러 신하가 차례로 물러났다.

△ 주제어: 이재수, 제주 위유사.

❖ 嘉慶 十八年 癸酉 十二月 八日 辛丑

○ 沈奎魯, 以兵曹言啓曰, 濟州試才規矩單子, 依例書入, 而事目則規矩落點後, 磨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2월 8일(신축)

▢ 제주(濟州)의 시재(試才) 규정과 단자(單子)에 관한 병조의 계

○ 심규로(沈奎魯)가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시재(試才) 규정과 단자(單子)는 예에 따라 문서로 올렸으며, 사목(事目)은 규정이 정해진 뒤에 마련할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하기를, “알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시재.

❖ 嘉慶 十八年 癸酉 十二月 八日 辛丑

○ 兵曹, 濟州牧察理兼慰諭使試才規矩, 鐵箭三矢一百步, 片箭三矢一百三十步一巡一中, 柳葉箭五矢一百二十步一巡一中, 騎芻一次一中, 鳥銃三柄一巡一中, 取二技落點.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2월 8일(신축)

▢ 제주목(濟州牧) 찰리겸위유사(察理兼慰諭使)의 시재(試才) 규정에 관한 건

○ 병조(兵曹)에서, “제주목(濟州牧) 찰리겸위유사(察理兼慰諭使)의 시재(試才) 규정으로, 철전(鐵箭) 3발은 100보(步) 거리에서 쏘고, 편전(片箭) 3발은 130보 거리에서 쏘아, 1회 중 1발을 명중하고, 유엽전(柳葉箭) 5발은 120보에서 쏘아 1회 중 1발을 명중하고, 기추(騎芻)는 1회에 1발 명중하고, 조총(鳥銃) 3정(柄)은 1회 중 1발을 명중해야 하는데, 이 다섯 가지 기술 중에서 두 항목을 택하여 낙점(落點)을 결정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찰리 겸 위유사, 시재.

❖ 嘉慶 十八年 癸酉 十二月 八日 辛丑

○ 癸酉十二月初八日辰時, 上御壽康齋. 左承旨·右承旨·同副承旨入侍時, 行左承旨李好敏, 右承旨李惟命, 同副承旨李憲琦, 假注書李驥秀, 記注官車翊修, 別兼春秋李紀淵以次進伏訖. 上曰, 公事入之. 好敏曰, 俄聞軍士房所言, 則濟州武士試才規矩, 鐵箭步數甚遠, 三技亦難俱中, 恐有不得應試之慮云, 故敢此仰達, 上曰, 原單子還爲入之, 可也. 仍命退, 承史以次退出.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2월 8일(신축)

▢ 제주(濟州) 무사의 시험 규정에 관한 건

○ 계유년(癸酉: 1813) 12월 초8일 진시(辰時)에, 임금이 수강재(壽康齋)에 나아갔다. 좌승지·우승지·동부승지가 입시하였는데, 당시 좌승지 이호민(李好敏), 우승지 이유명(李惟命), 동부승지 이헌기(李憲琦), 가주서(假注書) 이기수(李驥秀), 기주관(記注官) 차익수(車翊修), 별겸춘추(別兼春秋) 이기연(李紀淵)이 차례로 나아와서 엎드렸다. 임금이 이르기를, "공무를 아뢰라."라고 하니, 이호민이 아뢰기를, "얼마 전에 군사방(軍士房)에서 들은 말에 따르면, 제주(濟州) 무사의 시험 규정 가운데 철전(鐵箭)은 보수(步數)가 매우 멀고, 세 가지 기술 중 두 가지를 모두 맞히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하기에 감히 아뢰는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원래의 단자(單子)를 도로 들이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어 물러가라고 명하니, 승지와 사관들이 차례로 퇴청하였다.

△ 주제어: 제주, 무사 시험.

❖ 嘉慶 十八年 癸酉 十二月 九日 壬寅

○ 沈奎魯, 以兵曹言啓曰, 濟州牧察理兼慰諭使齎去試才規矩事目, 參考磨鍊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2월 9일(임인)

▢ 제주목(濟州牧) 찰리겸위유사(察理兼慰諭使)의 시재(試才) 규구(規矩)와 사목(事目)

○ 심규로(沈奎魯)가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찰리겸위유사(察理兼慰諭使)가 가지고 간 시재(試才) 규구(規矩)와 사목(事目)을 참고하여 마련해서 들이는 뜻으로 감히 아뢰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하기를, “알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찰리 겸 위유사, 시재.

❖ 嘉慶 十八年 癸酉 十二月 十日 癸卯

○ 李惟命, 以吏批言啓曰, …… 濟州牧察理使兼慰諭使單李在秀, 鄭持容爲宗廟令. 再政. 權中楫爲宗廟令. 三政. 沈象奎爲兵曹判書.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2월 10일(계묘)

▢ 제주목(濟州牧) 찰리사겸위유사(察理使兼慰諭使)로 이재수(李在秀)를 단망(單望)함

○ 이유명(李惟命)이 이비(吏批)의 말로 아뢰기를, "〈상략〉 제주목(濟州牧) 찰리사 겸 위유사(察理使兼慰諭使)로 이재수(李在秀)를 단망(單望)하고, 정지용(鄭持容)은 종묘령(宗廟令)으로 삼았습니다. 재차 정사가 있었는데, 권중즙(權中楫)을 종묘령으로 삼았습니다. 3차 정사가 있었는데, 심상규(沈象奎)를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삼았습니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찰리사 겸 위유사, 이재수, 단망.

❖ 嘉慶 十八年 癸酉 十二月 十日 癸卯

○ 沈奎魯, 以義禁府言啓曰, 全羅監司朴崙壽狀啓內, 濟州牧使金守基, 爲先罷黜, 其罪狀, 令攸司稟處事, 啓下矣. 金守基時在任所, 依例發遣府書吏, 交代後拿來, 何如? 傳曰, 待待命拿囚.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2월 10일(계묘)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의 파출(罷黜)에 관한 의금부의 계

○ 심규로(沈奎魯)가 의금부(義禁府)의 말로 아뢰기를, "전라감사(全羅監司) 박윤수(朴崙壽)의 장계(狀啓) 안에,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를 우선 파출(罷黜)시키고, 그 죄상에 대해서는 유사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라는 전지가 이미 내려졌습니다. 김수기는 현재 임지에 있으니, 예에 따라 부의 서리(書吏)를 보내어 교대로 붙잡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하기를, "명령을 기다린 뒤 죄인을 체포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수기, 파출.

❖ 嘉慶 十八年 癸酉 十二月 十一日 甲辰

○ 李惟命,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濟州牧使金守基狀啓, 則謀變罪人梁濟海等諸囚, 更推後分輕重論啓矣. 諸罪人情犯, 雖自本牧, 更加推覈, 分等馳啓, 而察理使, 姑未下去, 不可以該牧使論啓, 輕先勘處. 察理使渡海後, 依本司草記, 與牧使眼同更覈, 罪關一律, 則卽爲馳啓以待處分, 次律以下干連諸囚, 使之分輕重, 直爲酌處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2월 11일(갑진)

▢ 모반죄인 양제해(梁濟海)의 처벌에 관한 비변사의 계

○ 이유명(李惟命)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곧 본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의 장계를 살펴보니, 모반죄인 양제해(梁濟海) 등 여러 죄인에 대해 다시 조사하여 경중을 나누어 아뢰었습니다. 이 여러 죄인들의 범죄 정황은 비록 본래 제주목(濟州牧)에서 드러난 것이나, 추가로 다시 조사하여 등급을 나누어 장계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찰리사(察理使)는 아직 출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목사만으로 판단하여 경솔히 먼저 처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찰리사가 바다를 건넌 뒤에 본사[備邊司]의 초기(草記)에 따라 제주목사와 함께 눈으로 직접 다시 조사하게 하여, 대역죄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장계로 보고하여 처분을 기다리게 하고, 그 이하 법률에 관계된 여러 죄인들은 죄의 경중을 나누어 직접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뜻으로 지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모반죄인, 양제해.

❖ 嘉慶 十八年 癸酉 十二月 十一日 甲辰

○ 李惟命, 以備邊司言啓曰, 卽見全羅監司朴崙壽狀啓, 則濟州牧使金守基, 爲先罷黜罪狀, 請令攸司稟處矣. 防守不嚴, 而賊魁潛逃, 典刑未施, 而劇賊徑斃, 身爲守土掌獄之官, 不職之罪, 固當嚴勘, 而第今大獄方張, 全島必騷. 鉤覈鎭安之策, 難容一日少忽, 而今於察理使未下去之前, 先罪倅臣, 則主管無人, 獄情益疎, 此時遞易, 實所當念. 當該牧使金守基, 今姑仍任, 使之戴罪行公, 察理使催促下送, 五罪人徑斃根因, 更加查得後, 倅臣勘律, 從後稟處, 何如? 傳曰, 允.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2월 11일(갑진)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의 파면에 관한 비변사의 계

○ 이유명(李惟命)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곧 전라감사 박윤수(朴崙壽)의 장계(狀啓)를 살펴보니,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는 이미 파면되어야 할 죄상이 있어, 해당 관서에 명하여 처리하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방어가 엄중하지 못해 도적의 우두머리가 도주하였고, 정식 재판도 없이 극악한 도적이 곧바로 죽임을 당하였으니, 김수기는 수토(守土)와 감옥을 관장하는 관리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한 죄가 있으니 마땅히 엄히 문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옥(大獄)이 한창 진행 중이고, 온 섬이 반드시 소요스러울 것이므로, 조사와 진정을 위한 방책에 하루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때에 찰리사(察理使)가 아직 출발하기도 전에 먼저 제주목사에게 죄를 물어 파면해버린다면, 주관할 자가 없어지고 사건에 대한 감찰도 더욱 허술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교체하는 것은 마땅히 깊이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목사 김수기를 당장은 그대로 그 자리에 두어 죄를 지닌 채로라도 공무를 수행하게 하고, 찰리사를 서둘러 파견한 뒤, 다섯 명의 죄인이 즉사한 근원을 더 조사하여 밝힌 다음, 제주목사의 죄는 그 뒤에 다시 법에 따라 논처하게 하자는 뜻으로 아뢰니,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수기.

❖ 嘉慶 十八年 癸酉 十二月 十二日 乙巳

○ 李惟命,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使金守基狀啓內, 島內守令, 皆兼監牧之任, 而矇不覺察, 以致牧馬闖失之許多者, 自有其罪. 濟州前前判官孫應虎, 旌義前縣監盧尙熙, 濟州前判官李國標等罪狀, 竝令攸司稟處事, 啓下矣. 孫應虎以郭山郡守, 時在任所, 發遣府書吏, 交代後拿來. 盧尙熙下去平安道定原地, 發遣府羅將拿來. 李國標以貢馬船致敗事, 有待待命拿囚之命, 姑未上來, 待就囚添問目取招, 何如? 傳曰, 允. 待待命拿囚.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2월 12일(을사)

▢ 제주(濟州) 관리들의 처벌에 관한 의금부의 계

○ 이유명(李惟命)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의 장계에 따르면, 섬 안의 수령들이 모두 감목(監牧)을 겸임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말들이 대거 유실된 데에는 각자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주(濟州) 전전 판관 손응호(孫應虎),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노상희(盧尙熙), 제주 전 판관 이국표(李國標) 등의 죄상은 각 해당 관서에 명하여 처리하게 하라는 전지가 이미 내려졌습니다. 손응호는 현재 곽산군수(郭山郡守)로 재직 중이니, 예에 따라 부의 서리를 보내 인계한 뒤에 체포해 오게 하고, 노상희는 평안도 정원(定原)으로 낙배(落配)된 상태이니, 부의 나장(羅將)을 보내 체포해 오게 하며, 이국표는 공마선(貢馬船)을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이미 '명령을 기다려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바, 아직 상경하지 않았으니, 그가 도착한 뒤 다시 신문을 더하고 자백을 받게 하자는 뜻으로 아뢰니,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하기를, "윤허한다. 명령을 기다려 죄인을 체포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전전 판관, 손응호, 정의 전 현감, 노상희, 제주 전 판관, 이국표.

❖ 嘉慶 十八年 癸酉 十二月 十四日 丁未

○ 有政. 吏批, …… 濟州牧使金守基仍任事承傳. …….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2월 14일(정미)

▢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의 유임에 관한 건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상략〉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는 그대로 그 직을 맡게 하라는 전지를 받았습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김수기.

❖ 嘉慶 十八年 癸酉 十二月 十六日 己酉

○ 癸酉十二月十六日辰時, …… 在秀曰, 濟州罪囚中, 罪關一律者, 馳啓以待處分, 次律以下干連諸囚, 分輕重卽爲酌處事, 廟堂草記蒙允矣. 次律以下, 當置島配者, 若於本島中發配, 則便是薄勘, 當以他島磨鍊, 而島配之典, 非特敎則不敢擅便. 待究覈情節, 合施一律者以外, 不可不分輕重發配於道內他島,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出擧條】 上仍命察理使先退, 在秀退出. 又命退, 諸臣以次退出.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2월 16일(기유)

▢ 제주(濟州) 죄수의 처벌에 관한 이재수(李在秀)의 계

○ 계유년(癸酉) 12월 16일 진시(辰時)에, 〈상략〉 이재수(李在秀)가 아뢰기를, "제주(濟州) 죄수 중에서 대역죄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장계로 올려 처분을 기다리게 하고, 그 이하의 죄에 연루된 여러 죄수들은 경중을 나누어 그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묘당(廟堂)의 초기(草記)는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 이하 죄목에 해당하여 도배(島配)해야 할 자가 있을 경우, 본도 안에서 발배(發配)하면 그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이므로, 다른 도서로 보내 엄하게 다스려야 하며, 도배의 법도는 특별한 명령이 없으면 임의로 시행하지 못합니다. 조사하여 죄상을 철저히 밝혀 대역죄에 준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경중에 따라 도내 다른 도서로 도배할 것입니다. 이에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임금은 이어 찰리사(察理使)에게 먼저 물러가도록 명하자, 이재수가 물러가고, 이어 여러 신하들도 차례로 퇴장하였다.

△ 주제어: 제주.

❖ 嘉慶 十八年 癸酉 十二月 十七日 庚戌

○ 以濟州防禦使金守基狀啓, 薦新進上唐金橘代金橘, 柑子代山橘, 依例代封, 惶恐待罪事, 傳于柳畊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2월 17일(경술)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김수기(金守基)의 천신(薦新)에 관한 보고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김수기(金守基)의 장계에, 천신(薦新)으로 진상한 당금귤(唐金橘)을 금귤(金橘)로 대신하고, 감자(柑子)를 산귤(山橘)로 대신하여, 예에 따라 대봉(代封)하였는데, 황공스럽게도 죄를 기다리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에 유경(柳畊)에게 전교하기를, "죄를 기다리지 말게 할 일로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방어사, 김수기, 천신, 당금귤, 감자.

❖ 嘉慶 十八年 癸酉 十二月 十七日 庚戌

○ 柳畊, 以禮曹言啓曰, 卽伏見濟州牧使金守基狀啓謄報, 則去十月令宗廟·景慕宮薦新柑子, 如例封進, 當日薦進, 而同月令宗廟·景慕宮薦新唐金橘三十六箇, 都封上送于禮曹, 以爲稟旨進獻事爲辭矣. 莫重薦果, 如是不足, 誠甚未安, 而在前如此之時, 有減數薦獻之例, 今亦依前例, 當日一體分排薦進, 何如? 傳曰, 允.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2월 17일(경술)

▢ 제주(濟州)에서 10월령으로 천진(薦進)한 과일에 관한 예조의 보고

○ 유경(柳畊)이 예조(禮曹)의 말로 아뢰기를, "곧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의 장계를 받아 보니, 지난 10월령으로 종묘·경모궁에 천신(薦新)할 감자(柑子)를 예와 같이 봉진(封進)하여 당일 천진(薦進)하고, 10월령으로 종묘·경모궁에 천신한 당금귤(唐金橘) 36개는 모두 봉하여 예조로 올려보내고 품지에 따라 진헌했다는 말입니다. 막중한 천과(薦果)가 이와 같이 부족하니 참으로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수를 줄여서 천헌(薦獻)한 예가 있는데, 지금도 전례에 따라 같은 날 일체를 나누어 분부하여 천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10월령.

❖ 嘉慶 十八年 癸酉 十二月 十八日 辛亥

○ 以濟州防禦使金守基狀啓, 薦新進上橙子橘, 不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柳畊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2월 18일(신해)

▢ 제주(濟州) 천신(薦新) 등자귤(橙子橘)에 관한 보고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김수기(金守基)의 장계에, 천신(薦新)으로 진상할 등자귤(橙子橘)을 예에 따라 봉진하지 못하여, 죄를 기다리는 일이라고 하여, 이에 유경(柳畊)에게 전교하기를, “죄를 기다리지 말게 할 일로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천신, 등자귤.

❖ 嘉慶 十八年 癸酉 十二月 十八日 辛亥

○ 柳畊, 以禮曹言啓曰, 卽伏見濟州牧使金守基狀啓謄報, 則今十二月令所封乳柑·洞庭橘, 箇箇摘取, 則乳柑爲一百五箇, 洞庭橘爲一百二箇, 薦新無以排數, 謹援已例, 都封上送于禮曹, 以爲稟旨進獻事爲辭矣. 莫重薦果, 如是不足, 誠甚未安而在前如此之時, 有減數薦獻之例, 今亦依前例, 宗廟·景慕宮薦新乳柑, 宗廟薦新洞庭橘, 當日一體分排薦進, 何如? 傳曰, 允.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2월 18일(신해)

▢ 제주(濟州)의 12월령 천신(薦新)에 관한 예조의 보고

○ 유경(柳畊)이 예조(禮曹)의 말로 아뢰기를, "곧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수기(金守基)의 장계(狀啓)를 받아 보니, 이번 12월령으로 봉진할 유감(乳柑)과 동정귤(洞庭橘)을 각각 적취(摘取)한 바, 유감은 105개이고, 동정귤은 102개라서, 천신(薦新)으로 나눌 수량이 부족하여, 삼가 기존 예를 참고하여 모두 봉하여 예조에 올려보내고, 품지(稟旨)로 진헌한다는 말입니다. 막중한 천과(薦果)가 이와 같이 부족하여 참으로 매우 미안합니다. 그러나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수를 줄여서 천헌(薦獻)한 예가 있는데, 지금도 전례에 따라 종묘·경모궁 천신 유감과 종묘에 천신할 동정귤을 같은 날 모두 나누어 천진(薦進)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12월령, 천신.

❖ 嘉慶 十八年 癸酉 十二月 十九日 壬子

○ 李惟命,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濟州牧吏金守基災實狀啓, 則分等不爲擧論, 後錄兩件, 依例先擧行後馳啓爲辭矣. 其一, 舊還姑爲仍停事也. 其一, 軍兵逃老故病癈之類, 一一塡充, 待明春, 從附近哨司分鍊事也. 本島連年屢豐之餘, 今年穡事, 又得免歉, 誠爲萬幸, 面里分等, 不必擧論, 而舊還仍停, 軍兵雜頃, 待充定分鍊, 卽年例所請, 而先擧行後啓聞, 亦是本邑已例, 依狀請許施, 何如? 傳曰, 允.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2월 19일(임자)

▢ 제주(濟州) 목리(牧吏) 김수기(金守基)의 재실(災實) 장계에 관한 비변사의 계

○ 이유명(李惟命)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곧 제주(濟州) 목리(牧吏) 김수기(金守基)의 재실(災實) 장계를 살펴보니, 등급을 나누어 거론하지 않고, 두 가지 사항을 뒤에 기록하여, 예에 따라 먼저 시행한 뒤에 치계(馳啟)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구환(舊還)은 잠시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는, 군병 중 도망하거나 노쇠하거나 죽거나 병약한 자들을 일일이 전충(塡充)하는 것은 내년 봄을 기다려서 인근 초사(哨司)로 하여금 나누어 단련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 섬[本島]은 여러 해 풍년을 이어왔는데, 올해 농사도 흉년을 면할 것 같아서 참으로 만행(萬幸)입니다. 면리(面里)를 나누어 등급을 매길 필요는 없어서, 구환을 그대로 정지시키고, 군병의 잡탈(雜頃)은 충정(充定)을 기다려서 나누어 단련시키는 것은 연례에 따른 요청입니다. 또한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장계로 보고하는 것도 이고을에 이미 있는 관례이니, 장계의 요청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목리, 김수기, 재실 장계.

❖ 嘉慶 十八年 癸酉 十二月 二十日 癸丑

○ 李好敏以漢城府言啓曰, 濟州三邑民數, 今始上來, 依例入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2월 20일(계축)

▢ 제주(濟州) 세 고을[三邑] 민수(民數)에 관한 한성부의 보고

○ 이호민(李好敏)이 한성부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세 고을[三邑]의 인구 수가 이제야 비로소 올라왔으므로, 예에 따라 등록하려는 뜻을 감히 아뢰옵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하기를, “알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세 고을, 민수.

❖ 嘉慶 十八年 癸酉 十二月 二十六日 己未

○ 以濟州防禦使金守基狀啓, 人物溘死事, 傳于李憲琦曰, 聞甚矜惻, 元恤典外, 別加顧恤, 如有生前身還布, 竝蕩滌事, 分付.

❖ 순조 13년(1813) 계유년 12월 26일(기미)

▢ 제주인(濟州人)의 익사(溘死) 사건에 관한 보고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김수기(金守基)의 장계에, 인물의 익사(溘死) 사건을 보고하였는데, 이헌기(李憲琦)에게 전교하기를, "듣자니 매우 애처롭다. 본래 구휼(恤)하는 전례 외에, 별도로 돌보아 구휼하라. 만약 생전에 몸이 소속되었던 환포(還布)가 있었다면, 모두 탕척(蕩滌)하게 할 일로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익사.

역주

백종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오창명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발췌

고수미　제주대학교 박사 수료
노우정　제주대학교 박사 수료

교정 · 교열

임승희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김우리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양미혜　제주대학교 박사과정

제주역사 자료총서 35

承政院日記 濟州記事 Ⅸ

－ 純祖代(1802~1813) (下)－

발행인 김완병
발행일 2026년 9월 일
발행처 **제주학연구센터**
63251 제주시 동광로 23길 1, 3층
www.jst.re.kr
기 획 임승희·김우리(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제 작 제주콤

ISBN : 979-11-997065-8-3 (93900) 비매품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